

국어 영역

홀수형

성명	
----	--

수험 번호						-				
-------	--	--	--	--	--	---	--	--	--	--

- 문제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정확히 쓰시오.
- 답안지의 필적 확인란에 다음의 문구를 정자로 기재하십시오.

미래의 나는 분명 오늘을 그리워한다

- 답안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쓰고, 또 수험 번호, 문형 (홀수/짝수), 답을 정확히 표시하십시오.
-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릅니다. 3점 문항에는 점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점수 표시가 없는 문항은 모두 2점입니다.

※ 시험이 시작되기 전까지 표지를 넘기지 마시오.

2010-1994학년도 평가원 독서 모음

만든 이 고구마

홈페이지 orbi.kr/profile/900828

목 차

201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201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201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200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200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200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200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200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200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200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200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200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200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200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200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200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200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200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200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예비 평가
200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200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200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200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200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200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200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200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199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199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199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199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199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1994학년도 제2차 대학수학능력시험
1994학년도 제1차 대학수학능력시험

※ 시험 시행 날짜 순서대로 배치하였음.

[13~1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010.11

조선 성리학자들은 ‘세계를 어떻게 바라보고, 자신이 추구하는 삶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지(知)와 행(行)에 깊은 관심을 기울였다. 그들은 특히 도덕적 실천과 결부하여 지와 행의 문제를 다루었는데, 그 기본적인 입장은 ‘지행병진(知行並進)’이었다. 그들은 지와 행이 서로 선후(先後)가 되어 돕고 의지하면서 번갈아 앞으로 나아가는 ‘상자호진(相資互進)’ 관계에 있다고 생각했다. 또한 만물의 이치가 마음에 본래 갖추어져 있다고 여기고 도덕적 수양을 통해 그 이치를 찾고자 하였다.

18세기에 들어 일부 실학자들은 지행론에 대해 새롭게 접근하였다. 홍대용은 지와 행의 병진을 전제하면서도, 도덕적 수양 외에 사회적 실천의 측면에서 행을 바라보았다. 그는 이용후생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민생을 풍요롭게 하는 데 관심을 기울였다. 그에게 지는 도덕 법칙만이 아닌 실용적인 지식을 포함하는 것이었으며, 행이 지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었다.

19세기 학자 최한기는 본격적으로 지행론을 변화시켰다. 그는 행을 생리 반응, 감각 활동, 윤리 행동을 포함하는 일체의 경험으로 이해하고, 지를 경험을 통해 얻어지는 객관적인 지식으로 규정하였다. 그는 선천적인 지식이 따로 없고 모든 지식이 경험을 통해 산출된다고 보아 ‘선행후지(先行後知)’를 제시하고, 행이 지보다 우선적인 것임을 강조하였다.

최한기에게 지와 행의 대상은 인간·사회·자연을 포괄하는 것이다. 그는 행을 통한 지의 형성, 그 지에 의한 새로운 행, 그리고 그 행에 의한 기존 지의 검증이라는 이전과는 차별화된 지식론을 제시하였다. 그가 경험으로서의 행을 중시한 것은 자연 세계에는 일정한 원리인 물리(物理)가 있지만 인간 세계의 원리인 사리(事理)는 일정하지 않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자연을 탐구하여 물리를 인식함으로써 사리가 성립되고, 이 사리에서 인간의 도덕인 인도(人道)가 나온다고 보았다.

이러한 서로 다른 지행론은 그들의 학문 목표와 관련이 있다. 도덕적 수양을 무엇보다 중시했던 성리학자들과 달리, 실학자들은 피폐한 사회 현실을 개혁하고자 하는 학문적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최한기가 행을 앞세운 것은 변화하는 세계의 본질을 경험적으로 파악하여 격변하는 시대에 대처하려는 것이었다.

13. 윗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선행후지의 현대적 의미
- ② 지와 행의 개념과 그 한계
- ③ 도덕규범의 실천과 지행론
- ④ 지행론의 변화와 그 배경
- ⑤ 삶에서의 인식과 실천의 문제

14. 윗글을 통해 이끌어 낸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성리학자들은 만물의 이치가 외부 세계로부터 온다고 생각했다.
- ② 홍대용은 지의 대상을 실용적 측면까지 확대했다.
- ③ 홍대용과 최한기는 행보다 지를 우선시했다.
- ④ 최한기는 학문의 목적을 도덕적 수양에서 찾았다.
- ⑤ 최한기는 선천적 지식과 경험적 지식이 있다고 보았다.

15. <보기>는 언어를 습득하는 과정에 대한 설명 중 하나이다. ‘최한기’의 입장에서 <보기>를 평가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언어 지식이 전혀 없이 태어난 아기는 성장하면서 몇 개의 단어만을 사용하여 불완전한 형태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다가, 다양한 시행착오를 반복하는 과정을 거쳐 완전한 형태의 언어 표현을 구사할 수 있게 된다.

- ① 다양한 시행착오는 행에 의한 기존 지식의 검증을 말하는 것이군.
- ② 언어를 습득하는 과정은 지에 의해 행이 완성되는 것을 보여 주는군.
- ③ 완전한 형태로 언어를 표현한다는 것은 마음에 내재한 이치를 깨닫는 것이군.
- ④ 아이가 배운 말을 표현하려는 것은 주관적인 지식을 행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군.
- ⑤ 불완전한 언어 표현이 완전하게 되는 것은 인도를 통하여 사리를 얻는 과정으로 볼 수 있군.

MEMO

MEMO

[20~2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10.11

둘 이상의 기업이 자본과 조직 등을 합하여 경제적으로 단일한 지배 체제를 형성하는 것을 '기업 결합'이라고 한다. 기업은 이를 통해 효율성 증대나 비용 절감, 국제 경쟁력 강화와 같은 긍정적 효과들을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기업이 속한 사회에는 간혹 역기능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 침해하는 경우가 그러하다. 가령, 시장 점유율이 각각 30%와 40%인 경쟁 기업들이 결합하여 70%의 점유율을 갖게 될 경우, 경쟁이 제한되어 지위를 ㉡ 남용하거나 부당하게 가격을 인상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정부는 기업 결합의 취지와 순기능을 보호하는 한편, 시장과 소비자에게 끼칠 ㉢ 피해를 가려내어 이를 차단하기 위한 법적 조치들을 강구하고 있다. 하지만 기업 결합의 위법성을 선불리 판단해서는 안 되므로 여러 단계의 심사 과정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이 심사는 기업 결합의 성립 여부를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여기서는 해당 기업 간에 단일 지배 관계가 형성되었는지 ㉣ 판건이다. 예컨대 주식 취득을 통한 결합의 경우, 취득 기업이 피취득 기업을 경제적으로 지배할 정도의 지분을 확보하지 못하면, 결합의 성립이 인정되지 않고 심사도 종료된다.

반면에 결합이 성립된다면 정부는 그것이 영향을 줄 시장의 범위를 ㉤ 확정함으로써, 그 결합이 동일 시장 내 경쟁자 간에 이루어진 수평 결합인지, 거래 단계를 달리하는 기업 간의 수직 결합인지, 이 두 결합 형태가 아니면서 특별한 관련이 없는 기업 간의 혼합 결합인지를 구명하게 된다. 문제는 어떻게 시장을 확정할 것인지인데, 대개는 한 상품의 가격이 오른다고 가정할 때 소비자들이 이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여 다른 상품으로 옮겨 가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그 민감도가 높을수록 그 상품들은 서로에 대해 대체재, 즉 소비자에게 같은 효용을 줄 수 있는 상품에 가까워진다. 이 경우 생산자들이 동일 시장 내의 경쟁자일 가능성도 커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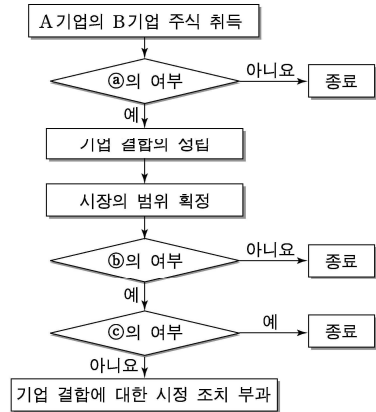
이런 분석에 따라 시장의 범위가 정해지면, 그 결합이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는지를 판단하게 된다. 하지만 설령 그럴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명되더라도 곧바로 위법으로 보지는 않는다. 정부가 당사자들에게 결합의 장점이나 불가피성에 관해 항변할 기회를 부여하여 그 타당성을 검토한 후에, 비로소 시정 조치 부과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20. 윗글의 취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기업 결합의 성립 여부는 기업 스스로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
- ② 기업 결합으로 얻은 이익은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③ 기업 결합을 통한 기업의 확장은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 ④ 기업 활동에 대한 위법성 판단에는 소비자의 평가가 가장 중요하다.
- ⑤ 기업 결합의 순기능을 살리되 그에 따른 부정적 측면을 신중히 가려내야 한다.

21. 윗글에 나타난 기업 결합의 심사 과정을 도식화한 것이다.

㉠~㉣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3점]



- | | | |
|--------------------|-----------|-----------|
| ㉠ | ㉡ | ㉢ |
| ① A기업에 대한 지배 관계 형성 | - 대체재 존재 | - 경쟁 제한 |
| ② A기업에 대한 지배 관계 형성 | - 항변의 타당성 | - 경쟁 제한 |
| ③ B기업에 대한 지배 관계 형성 | - 경쟁 제한 | - 항변의 타당성 |
| ④ B기업에 대한 지배 관계 형성 | - 대체재 존재 | - 항변의 타당성 |
| ⑤ B기업에 대한 지배 관계 형성 | - 항변의 타당성 | - 경쟁 제한 |

22. <보기>는 어느 지역의 4가지 음료수 A~D에 대한 소비자의 구매 성향을 조사한 결과이다. 윗글에 비추어 볼 때 적절한 반응은?

<보 기>

가격 인상 \ 판매량	A의 판매량	B의 판매량	C의 판매량	D의 판매량
A 가격 10% 인상	20% ↓	15% ↑	5% ↑	변화 없음
B 가격 10% 인상	15% ↑	20% ↓	3% ↑	2% ↑
C 가격 10% 인상	3% ↑	2% ↑	20% ↓	15% ↑

* 이 지역에는 4개의 회사만이 각각 한 종류의 음료수를 생산하며, 이들 회사는 다른 음료수를 생산할 수 없다.
(↑ : 증가, ↓ : 감소)

- ① A의 소비자들은 B보다 C를 대체재에 가까운 것으로 인식하는군.
- ② B와 동일 시장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가장 큰 상품은 A이군.
- ③ C의 가격 인상에 대한 민감도가 가장 높은 상품은 B이군.
- ④ A 생산 회사와 D 생산 회사가 결합한다면 수평 결합으로 볼 가능성이 크군.
- ⑤ C 생산 회사와 D 생산 회사가 결합한다면 혼합 결합으로 볼 가능성이 크군.

23. ㉠~㉤의 사전적 뜻풀이가 잘못된 것은?

- ① ㉠: 사라져 없어지게 함.
- ② ㉡: 본래의 목적이나 범위를 벗어나 함부로 행사함.
- ③ ㉢: 폐단으로 생기는 해.
- ④ ㉣: 어떤 사물이나 문제 해결의 가장 중요한 부분.
- ⑤ ㉤: 경계 따위를 명확히 구별하여 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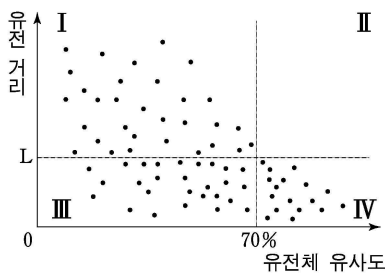
[24~2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10.11

(가) 일반적으로 동식물에서 종(種)이란 ‘같은 개체끼리 교배하여 자손을 남길 수 있는’ 또는 ‘외양으로 구분이 가능한’ 집단을 뜻한다. 그렇다면 세균처럼 한 개체가 둘로 분열하여 번식하며 외양의 특징도 많지 않은 미생물에서는 종을 어떤 기준으로 구분할까?

(나) 미생물의 종 구분에는 외양과 생리적 특성을 이용한 방법이 사용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특성들은 미생물이 어떻게 배양되는지에 따라 변할 수 있으며, 모든 미생물에 적용될 만한 공통적 요소가 되기도 어렵다.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오늘날 미생물 종의 구분에는 주로 유전적 특성을 이용하고 있다. 미생물의 유전체는 DNA로 이루어진 많은 유전자로 구성되는데, 특정 유전자를 비교함으로써 미생물들 간의 유전적 관계를 알 수 있다. 종의 구분에는 서로 간의 차이를 잘 나타내 주는 유전자를 이용한다. 유전자 비교를 통해 미생물들이 유전적으로 얼마나 가깝고 먼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를 ‘유전 거리’라 한다. 유전 거리가 가까울수록 같은 종으로 묶일 가능성이 커진다.

(다) 하지만 유전자 비교로 확인한 유전 거리만으로는 두 미생물이 같은 종에 속하는지를 명확히 판별하기 어렵다. 특정 유전자가 해당 미생물의 전체적인 유전적 특성을 대변하지는 못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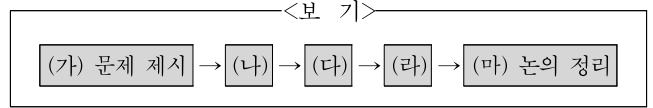
(라)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 미생물들 간의 유전체 유사도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유전체 유사도를 정확히 측정하기 위해서는 모든 유전자를 대상으로 유전적 관계를 살펴야 하지만, 수많은 유전자를 모두 비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유전체의 특성을 화학적으로 비교하는 방법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얻어진 유전체 유사도는 종의 경계를 확정하는 데 유용한 기준을 제공한다.



그림에서 각 점은 두 미생물 사이의 유전 거리와 유전체 유사도 간의 관계를 나타낸다. 그림을 보면, 두 미생물의 유전 거리가 가깝다고 해서 유전체 유사도가 반드시 높은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반면, 유전체 유사도가 70% 이상일 경우 유전 거리는 일정 수준(L) 미만이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관계로부터 ‘서로 유전 거리가 가까우며 70% 이상의 유전체 유사도를 보이는 미생물 집단’이라고 하는 미생물 종의 정의가 도출된다.

(마) 유전적 특성을 이용한 미생물의 종 구분은 학술적 연구 외에도 의학이나 미생물 산업 분야에서 중요하게 활용되고 있다. 향후 유전체 분석 기술이 더욱 발전하면 미생물의 종을 보다 정밀하게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24. <보기>는 윗글의 전개 과정을 정리한 것이다. (나)~(라)에 해당하는 것은?



- | | (나) | (다) | (라) |
|---|-------|-----------|--------|
| ① | 해결 방법 | 해결 방법의 한계 | 보완 방법 |
| ② | 주장 제시 | 예상 반론 제시 | 반론 비판 |
| ③ | 개념 설명 | 사례 제시 | 개념 재정립 |
| ④ | 가설 제시 | 가설 검증 | 이론 도출 |
| ⑤ | 관점 확인 | 근거 제시 | 사례 설명 |

25.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 ① 종 구분에 사용되는 유전자는 무작위로 선택한다.
- ② 미생물의 생리적 특성은 배양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 ③ 외양보다 유전적 특성이 미생물 종을 명확하게 구분해 준다.
- ④ 동식물은 서로 다른 종끼리 교배하여 자손을 이어갈 수 있다.
- ⑤ 미생물의 유전체는 DNA로 이루어진 하나의 유전자로 구성된다.

26. 윗글의 ‘그림’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I 영역은 두 미생물 간 유전 거리가 L 이상이고 유전체 유사도가 70% 미만이므로 같은 종이 아님을 나타낸다.
- ② II 영역에 점이 없는 것은 두 미생물 간 유전체 유사도가 70% 이상인 경우 L 미만의 유전 거리만을 보이기 때문이다.
- ③ III 영역은 두 미생물 간 유전 거리가 L 미만이라도 유전 거리만으로는 종의 경계 구분이 어려움을 나타낸다.
- ④ IV 영역은 두 미생물 간 유전체 유사도가 70% 이상인 경우 유전 거리도 L 미만이어서 같은 종으로 구분될 수 있음을 나타낸다.
- ⑤ I~IV 영역은 유전 거리를 알면 유전체 유사도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30~3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10.11

언어학에서 변별적 자질은 두 대상이 어떤 특성에서 구별된다는 것을 나타내는 유용한 개념이다. 이것은 본래 음운을 변별하는 데 필요한 음성적 특성을 나타내어 음운 간의 대립을 체계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것이었다. 변별적 자질은 [+F]나 [-F]와 같은 형식으로 표시되는데, 이때 'F'는 음성적 특성을, '+/-'는 그러한 특성이 있고 없음을 나타낸다. 예컨대 두 음운 /ㄱ/과 /ㅋ/은 두 입술로([양순성]) 공기를 막았다가 터뜨리는 공통점이 있으나, 공기가 코를 통과한다는([비음성]) 점에서는 차이를 보이므로 /ㄱ/은 [+양순성, +비음성], /ㅋ/은 [+양순성, -비음성]이라는 변별적 자질들의 묶음으로 표시될 수 있다.

변별적 자질을 사용하면 음운 현상에서 함께 행동하면서 하나의 부류를 형성하는 음들을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A가 C 앞에서 B가 되는 형식 (A → B / ___ C)의 음운동화 현상에서 ㉠ 규칙을 적용받기 전의 음, ㉡ 규칙을 적용받은 후의 음, ㉢ 규칙의 환경이 되는 음은 각각 하나의 부류를 형성한다. 더 나아가 ㉣ 규칙을 적용받기 전의 음과 적용받은 후의 음, ㉤ 규칙을 적용받은 후의 음과 규칙의 환경이 되는 음도 각각 또 다른 하나의 부류를 형성한다. 이때 하나의 부류를 형성하는 음들은 공통의 변별적 자질(들)로 표시할 수 있다.

변별적 자질은 일반적으로 +나 -의 양분적인 값을 가지므로, 말소리가 인간의 기억 속에서 범주적인 양상으로 지각되거나 저장된다는 사실을 설명해 준다. 또한 이러한 양분적인 값의 사용은 한 개의 자질을 선택함으로써 동시에 두 개의 정보를 알려 주는 효과, 즉 상호 예측성을 지니므로 정보 전달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변별적 자질을 통해 우리는 음운과 음운 현상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30.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 ① 음운 간의 대립은 변별적 자질보다는 음성적 특성에 의해 파악될 수 있다.
- ② 음운 현상에서 함께 행동하는 음들은 공통의 변별적 자질로 표시할 수 있다.
- ③ 하나의 변별적 자질을 알면 해당 음운의 모든 음성적 특성을 알 수 있다.
- ④ 어떤 한 음운은 [+F]이면서 동시에 [-F]인 변별적 자질을 가질 수 있다.
- ⑤ 양분적인 값으로 변별적 자질을 사용하면 정보 전달의 효율이 낮아진다.

31. 윗글을 참고할 때, <보기>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비음성]의 A가 [+비음성]의 C 앞에서 [+비음성]의 B가 되는 자음 동화 규칙과 그 실례는 다음과 같다.

【규칙】 A → B / ___ C

【실례】 ㄱ → ㅇ / ___ ㄱ 국물[국물]
 ㄷ → ㄴ / ___ ㄷ 만며느리[만며느리]
 ㅂ → ㅁ / ___ ㅂ 읍내[읍내]

- ① ㉠에 해당하는 'ㄱ, ㄷ, ㅂ'은 공통적으로 [-비음성]을 갖는군.
- ② ㉡에 해당하는 음들은 비음성을 기준으로 하나의 부류를 형성하는군.
- ③ ㉢에 해당하는 'ㄴ, ㄹ'은 공통적으로 [+비음성]을 갖는군.
- ④ '읍내'에서 ㉣에 해당하는 'ㅂ'과 'ㄹ'은 공통적으로 [+양순성]을 갖는군.
- ⑤ '국물'에서 ㉤에 해당하는 음들은 비음성을 기준으로 하나의 부류를 형성하지 못하는군.

[42~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010.11

음악은 연주를 통해 소리로 표현되는 예술이다. 18세기의 바로 음악을 현재에도 들을 수 있게 된 것은 음악을 전달하고 보존하는 악보가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 악보에서 기본적으로 읽어야 할 기호는 음높이를 나타내는 5선과 음자리표, 음길이를 나타내는 음표와 박자표이다. 음높이와 음길이는 음악이 표현해야 하는 본질적인 요소이다.

선은 음높이를 표시하는 실용적인 기호이다. 그런데 9세기경에는 선을 사용하지 않고 가사 위에 간단한 기호로 음들 간의 상대적인 높낮이를 표시했기 때문에 정확한 높낮이는 재현할 수 없었다. 이후 11세기경부터 2선이나 4선 위에 음을 기록했고, 현재 사용하는 5선 악보는 14세기 무렵에 완성되었다. 또한 11세기경부터 사용된 음자리표는 고정된 음높이를 명시하는 기능을 해, 음의 높낮이를 명확하게 재현할 수 있게 되었다.

음길이를 표시하는 기호는 13세기 말 ‘프랑코 기보법’에서 본격적으로 사용되었다. 이 기보법에서는 네 종류의 음길이를 ㉠ 정하고, 이를 가장 긴 두플렉스롱가부터 가장 짧은 세미브레비스까지 네 가지의 음표로 표기했다. 이런 길이를 나타내는 음표를 사용하여 음의 장단을 나타내는 리듬의 표현이 다양해졌다. 특히 다성 음악이 발달하기 시작하는 이 시기에는 선율들이 서로 다른 리듬으로 구별되었는데, 여러 가지 음길이의 음표는 이를 표시하는 데 유용했다.

이름	두플렉스롱가	롱가	브레비스	세미브레비스
음표	■	■	■	◆

음길이의 표현인 리듬이 일정한 패턴의 강약을 규칙적으로 반복하면 박자가 형성되며, 이를 표기한 것이 박자표이다. 음악의 흐름에는 강과 약의 박이 있다. ‘강-약’, ‘강-약-약’의 박이 규칙적으로 반복될 때 이것을 묶은 것이 각각 2박자, 3박자이다. 이렇게 규칙적인 박의 묶음을 표시하는 박자의 개념은 새로운 리듬 양상을 보여 주는 14세기에 시작되었다. 14세기 이전까지는 그리스도교의 삼위일체를 의미하는 3이라는 수를 ‘완전하다’고 인식했기 때문에 음길이를 셋으로 분할하는 완전 분할을 사용하였는데, 14세기가 되면서 불완전 분할인 2분할도 동등하게 사용되었다. 이러한 ㉡ 3분할과 2분할은 3박자와 2박자 계통의 기초가 되었다.

이와 같이 음높이는 5선과 음자리표로 정확하게 표시되고 음길이는 음표와 박자표로 다양한 리듬과 규칙적인 박을 보여 주면서, 소리는 악보를 통해 그 의미를 기록하고 전달할 수 있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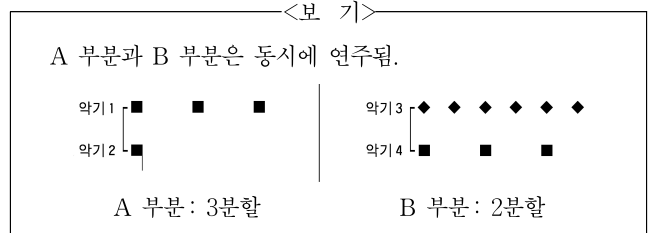
42. 윗글과 일치하는 것은?

- ① 다양한 리듬의 표현은 규칙적인 박을 표기한 후에 가능했다.
- ② 14세기의 악보에서는 음높이와 음길이의 표시가 가능했다.
- ③ 음자리표와 박자표는 모두 리듬을 표시하는 기호이다.
- ④ 9세기에는 가사에 맞는 상대적인 음길이를 표시했다.
- ⑤ 2선과 4선 악보에서는 음자리표를 볼 수 없다.

43. 윗글에서 사용한 글쓰기 전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대상에 대한 기존의 관점과 새로운 관점을 대조하여 진술한다.
- ② 객관적 자료를 활용하여 대상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드러낸다.
- ③ 대상의 유용성과 한계를 지적하여 새로운 전망을 제시한다.
- ④ 권위 있는 문헌을 인용하여 내용의 타당성을 강화한다.
- ⑤ 대상의 형성과 발달 과정을 중심으로 내용을 전개한다.

44. <보기>는 ‘프랑코 기보법’을 활용하여 ㉠을 표현한 것이다. 이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음높이보다는 음길이에 관한 표현이군.
- ② A 부분은 완전 분할된 리듬을 보여 주는군.
- ③ A와 B 부분에서 악기 3의 리듬이 가장 빠르겠군.
- ④ A는 ‘강-약’으로, B는 ‘강-약-약’으로 연주될 수 있겠군.
- ⑤ A의 롱가 1개는 B의 세미브레비스 6개와 연주 시간이 같겠군.

45. 문맥상 ㉢와 바꾸어 쓸 수 있는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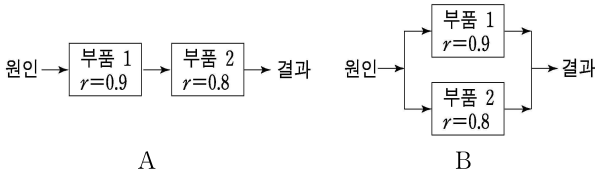
- ① 개정(改定)하고
- ② 판정(判定)하고
- ③ 인정(認定)하고
- ④ 추정(推定)하고
- ⑤ 설정(設定)하고

MEMO

MEMO

[46~5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10.11

어떤 장비의 '신뢰도'란 ㉠ 주어진 운용 조건하에서 의도하는 사용 기간 중에 의도한 목적에 맞게 작동할 확률을 말한다. 복잡한 장비의 신뢰도는 한 번에 분석하기가 힘든 경우가 많으므로, 장비를 분해하여 몇 개의 하부 시스템으로 나누어서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인 접근 방법이다. 직렬과 병렬 구조는 하부 시스템에 자주 나타나는 구조로서, 그 결과를 통합한다면 복잡한 장비의 신뢰도를 구할 수 있다.



A와 같은 직렬 구조는 원인에서 결과에 이르는 경로가 하나인 가장 간단한 신뢰도 구조이다. 직렬 구조에서 시스템이 정상 가동하기 위해서는 모든 부품이 다 정상 작동해야 한다. 어떤 하나의 부품이 고장 나면 형성된 경로가 차단되므로 시스템이 고장 나게 된다. 만약 어떤 부품의 고장이 다른 부품의 수명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A의 신뢰도는 부품 1의 신뢰도 ($r=0.9$)와 부품 2의 신뢰도 ($r=0.8$)를 곱한 0.72로 계산되며, 이것은 100번 ㉡ 가운데 72번은 고장 없이 작동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장 없이 영원히 작동하는 부품은 없기 때문에 직렬 구조의 신뢰도는 항상 가장 약한 부품의 신뢰도보다도 낮을 수밖에 없다.

한편, B와 같은 병렬 구조는 원인에서 결과에 이르는 여러 개의 경로가 있고, 그중에 몇 개가 차단되어도 나머지 경로를 통해 결과에 이를 수 있는 구조이다. 병렬 구조에서는 부품이 모두 고장이어야 시스템이 고장이므로 시스템이 작동한다는 의미의 값인 1에서 두 개의 부품이 모두 고장 날 확률($0.1 \times 0.2 = 0.02$)을 빼서 얻은 0.98이 B의 신뢰도가 된다. 한 부품의 고장이 다른 부품의 신뢰도에 영향을 준다면 이 값 역시 달라진다.

이러한 신뢰도 구조는 물리적 구조와 구분된다. 자동차의 네 바퀴는 물리적 구조상 병렬로 설치되어 있지만, 그중 하나라도 고장 나면 자동차가 정상적으로 운행될 수 없으므로 신뢰도 구조상으로 직렬 구조인 것이다.

중중 장비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중복 설계(重複設計)를 활용하기도 한다. 가령, 순간적인 과전류로부터 섬세한 전자 기구를 보호하는 회로 차단기를 설치할 때에 그 안전도를 높이기 위해 2개를 물리적 구조상 직렬로 연결해야 하는데, 이때 차단기 2개 중 1개라도 정상 작동하면 전자 기구를 보호할 수 있다. 이것은 물리적으로 직렬 구조이지만 신뢰도 구조상으로 병렬 구조인 것이다.

신뢰도 문제에서 직렬이나 병렬의 구조로 분석할 수 없는 'n 중 k' 구조도 나타난다. 이 구조에서는 모두 n개의 부품 중에 k개만 작동하면 시스템이 정상 가동된다. n개의 최출로 움직이는 승강기에서 최대 하중을 견디는 데 k개가 필요한 경우가 그 예이다. 이 구조에서도 부품 간의 상호 작용에 따라 신뢰도가 달라진다.

실제로 대규모 장비에 대한 신뢰도 분석은 대단히 힘들기 때문에 많은 경우 적절한 판단과 근삿값 계산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주어진 장비의 구조 및 운용 조건을 충분히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 어떤 부품이 고장 날 확률 = $1 - (\text{그 부품의 신뢰도})$

46. '신뢰도 구조'에 대해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직렬 구조에서는 부품 수가 많아질수록 신뢰도가 높아진다.
- ② 부품 간의 상호 작용 유무에 관계없이 신뢰도는 동일하다.
- ③ $k = n$ 일 때, 'n 중 k 구조의 신뢰도는 직렬 구조의 경우와 같아진다.
- ④ 2개의 부품이 만드는 경로의 수는 병렬 구조보다 직렬 구조에서 더 많다.
- ⑤ 신뢰도 0.98은 100번 작동에 98번 풀로 고장 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

47. <보기>가 ㉠을 고려하여 작성한 카메라 사용 시 주의 사항이라 할 때, 신뢰도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볼 수 없는 것은?

—<보 기>—

본 카메라를 무상으로 ㉡ 보증하는 기간은 구입일로부터 1년입니다. 본 카메라는 ㉢ 0℃~40℃의 온도 범위에서 사용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카메라 렌즈가 ㉣ 직사광선에 정면 노출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 강한 전파 에너지가 발생하는 곳에서는 카메라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카메라의 오작동으로 인하여 ㉥ 손실된 녹화 내용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48. 원인과 결과가 하나뿐인 직렬 또는 병렬 구조를 적용한 사례 중, 신뢰도 구조가 다른 하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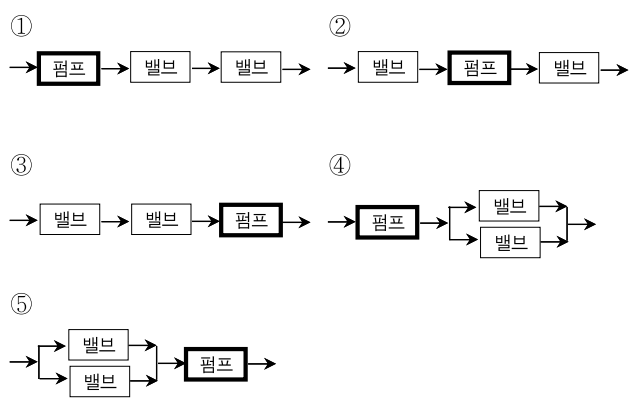
- ① 도로에 줄지어 선 가로등에서 1개가 고장 났지만 나머지 가로등은 그대로 켜져 있었다.
- ② 2개의 퓨즈가 모두 끊어져 작동을 멈춘 청소기에 새 퓨즈 1개를 교체해 넣으니 다시 작동하였다.
- ③ 교실 천장에 있는 4개의 형광등에서 깜빡거리는 형광등 1개를 빼내도 3개의 형광등은 켜져 있었다.
- ④ 4개의 건전지가 필요한 탁상시계에 3개의 건전지를 넣어도 작동하지 않다가 4번째 건전지를 끼우니 작동하였다.
- ⑤ 이중 제동 장치가 장착된 승용차에서 제동 장치 하나가 고장 났지만 다른 제동 장치가 작동해 차량이 정지하였다.

49. [가]에 근거할 때, <보기>의 배수펌프 시스템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물리적인 구조는?

<보 기>

하천 인근의 배수펌프 관에는 두 개의 역류 방지용 밸브가 연결되어 있다. 펌프에서 배출된 물이 금방 빠지지 않을 경우 펌프 쪽으로 물이 역류할 우려가 있다. 두 개의 밸브는 '중복 설계'된 것이므로 한 개만 작동해도 역류를 막을 수 있다.

* 단, 역류에 대한 고장만을 생각하고 밸브가 닫힌 채 고장 나는 경우는 생각하지 않음. (→: 물이 흘러 나가는 방향)



50. 문맥상 ㉠의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장미는 많은 꽃들 가운데 내가 제일 좋아하는 꽃이다.
 - ② 어떤 아이가 두 사람 가운데로 붙쑥 끼어들었다.
 - ③ 민희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남을 돕고 산다.
 - ④ 진수는 반에서 키가 가운데는 된다.
 - ⑤ 호수 가운데 조각배가 떠 있다.

[13~1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10.09

동양에서 ‘천(天)’은 그 함의가 넓다. 모든 존재의 근거가 그것으로부터 말미암지 않는 것이 없다는 면에서 하나의 표본이었고, 모든 존재들이 자신의 생존을 영위하고 그 존재 가치와 의의를 실현하는 데도 그것의 이치와 범주를 벗어날 수 없다는 면에서 하나의 기준이었다. 그래서 현실 세계 안에서 인간의 삶을 모색하는 데 관심을 두었던 동양에서는 인간이 천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삶의 길이 달리 설정되었을 만큼 천에 대한 이해가 다양하였다.

천은 자연현상 가운데 인간에게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자 가장 크고 뚜렷하게 파악되는 현상으로 여겨졌다. 농경을 주로 하는 문화적 특성상 자연현상과 기후의 변화를 파악하는 것이 중시된 만큼 천의 표면적인 모습 외에 작용면에서 천을 파악하려는 경향이 ㉠ 짼었다. 그래서 천은 자연적 현상과 작용 등을 포괄하는 ‘자연천(自然天)’ 개념으로 자리를 잡았다.

이러한 천 개념하에서 인간은 도덕적 자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자연 변화의 원인과 의지도 알 수 없었다. 이에 따라 천은 신성한 대상으로 숭배되었고, 여러 자연신 가운데 하나로 생각되었다. 특히 상제(上帝)와 결부됨으로써 모든 것을 주재하는 절대적인 권능을 가진 ‘상제천(上帝天)’ 개념이 자리 잡았다. 길흉화복을 주재하고 생사여탈권까지 관장하는 종교적인 의미로 그 성격이 변화한 것이다. 가치중립적이었던 천이 의지를 가진 절대적 권능의 존재로 수용되면서 정치적인 개념으로 ‘천명(天命)’이 등장하였다. 그리고 통치자들은 천의 명령을 통해 통치권을 부여받았고, 천의 의지인 천명은 제사 등을 통해 통치자만 알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었다. 그리하여 천명은 통치자가 권력을 행사하고, 정권의 정통성을 보장하는 근거가 되었다.

그러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천명에 근거한 권력 행사는 부작용을 가져왔다. 도덕적 경계심이 결여된 통치자의 권력 행사는 백성에 대한 억압의 계기로 작용하였다. 통치의 부작용이 심화됨에 따라 천에 대한 반성이 제기되었고, 도덕적 반성을 통해 천명 의식은 수정되었다. 그리고 ‘천은 명을 주었다가도 통치자가 정치를 잘못하면 언제나 그 명을 박탈해 간다.’, ‘천은 백성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준다.’는 생각이 현실화되었다. 천명은 계속 수용되었지만, 그것의 불변성, 독점성, 편파성 등은 수정되었고, 그 기저에는 도덕적 의미로서 ‘의리천(義理天)’ 개념이 자리하였다.

천명 의식의 변화와 맞물려 천 개념은 복합적으로 수용되었다. 상제로서의 천 개념이 개방되면서 주재적 측면이 도덕적 측면으로 수용되었고, ‘의리천’ 개념은 더욱 심화되어 천은 인간의 도덕성과 규범의 근거로 받아들여졌다. 천을 인간 내면으로 끌어 들여 인간 본성을 자연한 것이자 도덕적인 것으로 간주하였다. 천이 도덕 및 인간 본성과 결부됨에 따라 인간 내면에 있는 천으로서의 본성을 잘 발휘하면 도덕을 실현함은 물론, 천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고 여겨졌다. 내면화된 천은 비도덕적 행위에 대한 제어 장치 역할을 하는 양심의 근거로도 수용되어 천의 도덕적 의미는 더욱 강조되었다. 천명 의식의 변화와 확장된 천 개념의 결합에 따라 천은 초월성과 내재성을 가진

존재로서 받아들여졌고, ㉠ 인간 행위의 자율성과 타율성을 이끌어 내는 기반이 되어 인간 삶의 중요한 근거로서 그 위상이 강화되었다.

13.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 ① 천명 의식은 농경 생활의 경험에서 비롯되었다.
- ② 천은 초월적인 세계 안에서 인간 삶의 표본이었다.
- ③ 자연으로서의 천 개념에는 작용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 ④ 천은 인간에게 자연현상이자 도덕적 가치의 근원이었다.
- ⑤ 내면화된 천은 통치자의 배타적 권력 행사의 기반이었다.

14. <보기>의 ㉡~㉤ 중, 윗글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은?

—<보 기>—

특정한 사상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 개념의 어원에서 출발하여 ㉢ 개념의 의미 변천, ㉣ 해당 개념에 대한 주요 사상가의 견해, 그리고 ㉤ 현대적 적용 양상을 폭넓게 다룰 필요가 있다. 특히 개념에 대해 더욱 풍부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 사상사 속에서 드러나는 주요한 쟁점이 표출하는 다양한 의식의 층위도 고찰해야 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15.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자연천’에서는 인간 행위의 자율성이 부각된다.
- ② ‘상제천’에서 인간 행위의 타율성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 ③ ‘의리천’에서 인간 행위의 자율성이 잘 발휘되면 천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
- ④ 천 개념의 개방에 따라 인간 행위의 자율성이 인정되는 방향으로 나갔다.
- ⑤ 천명 의식이 달라짐에 따라 인간 행위의 자율성과 타율성의 양상이 변화하였다.

16. 윗글의 천 개념에 해당하는 예를 <보기>에서 골라 바르게 묶은 것은?

<보 기>

ㄱ. 천은 크기로 보면 바깥이 없고, 운행이 초래하는 변화는 다함이 없다.

ㄴ. 만물의 생성과 변화를 살피면 그와 같이 되도록 주재하고 운용하는 존재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ㄷ. 인심이 돌아가는 곳은 곧 천명이 있는 곳이다. 그러므로 사람을 거스르고 천을 따르는 자는 없고, 사람을 따르고 천을 거스르는 자도 없다.

ㄹ. 이 세상 사물 가운데 털끝만큼 작은 것들까지 천이 내지 않은 것이 없다고들 한다. 대체 하늘이 어떻게 하나하나 명을 내단 말인가? 천은 텅 비고 아득하여 아무런 조짐도 없으면서 저절로 되어 가도록 맡겨 둔다.

	자연천	상제천	의리천
①	ㄱ	ㄴ, ㄹ	ㄷ
②	ㄴ	ㄱ	ㄷ, ㄹ
③	ㄹ	ㄴ	ㄱ, ㄷ
④	ㄱ, ㄹ	ㄴ	ㄷ
⑤	ㄱ, ㄹ	ㄷ	ㄴ

17. ㉠와 가장 가까운 뜻으로 쓰인 것은?

- ① 폭우가 내릴 가능성이 짙어 건물 외벽을 점검했다.
- ② 짙게 탄 커피를 마시면 잠이 잘 안 온다.
- ③ 철수는 짙은 안개 속에서 길을 잃었다.
- ④ 정원에서 꽃향기가 짙게 풍겨 온다.
- ⑤ 해가 지고 어둠이 짙게 깔렸다.

[18~2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10.09

심해저의 다양한 퇴적물 중에서 생물의 골격과 그 파편 등에 의해 생성된 것을 생물기원퇴적물이라 한다. 심해저의 가장 흔한 생물기원퇴적물은 ㉠ 연니(軟泥, ooze)이다. 이는 주로 죽은 부유 생물의 껍질, 골격 등과 바람이나 유수에 의해 육지로부터 멀리 운반된 점토류가 섞여 형성된다. 심해저에서 연니를 형성하지 않는 점토류는 1,000년에 걸쳐 2mm 정도가 퇴적되는데 비해, 연니는 1,000년 동안 약 1~6cm 가 퇴적된다. 연니는 표층수에 사는 부유생물의 양이 많을수록, 해저에서 형성된 후의 용해 속도가 느릴수록 많이 퇴적된다.

코콜리스나 유공충과 같이 탄산염으로 구성된 석회질의 생물체 잔해가 적어도 30% 이상 포함된 퇴적물을 '석회질연니'라고 하고, 규소를 함유한 규질 성분으로 이루어진 생물체의 잔해를 30% 이상 포함한 퇴적물을 '규질연니'라 부른다.

석회질연니는 비교적 따뜻하고 얇은 곳에 분포한다. 왜냐하면 차가운 해수는 탄산염을 용해시키는 이산화탄소를 더 많이 포함하므로, 탄산염보상수심*보다 깊은 곳에서는 탄산염 성분으로 구성된 생물체의 골격이나 잔해가 녹아 없어지기 때문이다. 심해저 표면의 약 48%를 덮고 있는 석회질연니는 대서양 중앙 부분과 동태평양 등에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다.

한편, 심해저 표면의 약 14% 정도를 차지하는 규질연니는 탄산염이 녹는 수심보다 깊은 곳에서도 발견된다. 특히 용승 현상으로 영양분이 풍부한 물이 표층으로 올라오는 곳에 규질 연니가 많이 분포하는데, 이는 용승이 일어나는 곳에 규질연니를 구성하는 부유생물이 많이 서식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용승이 일어나고 차가운 해류가 흐르는 남극 부근에서는 용승 현상으로 규조류가 많이 서식하므로 심해저에서 규질연니가 가장 흔하게 나타난다. 또한 태평양의 적도 부근에 길게 분포하는 용승 지역에 규질연니가 많이 형성된 것도 규질 생명체 중 하나인 방산충이 많이 서식하기 때문이다.

연니의 형성과 분포, 그리고 구성물의 내용 등을 과학적으로 분석하면, 퇴적물이 쌓일 당시의 고해양 환경, 생물의 서식 분포 등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즉, 연니는 과거의 해양 환경을 연구하는 데 열쇠 구실을 한다.

* 탄산염보상수심: 탄산염의 공급량과 용해량이 같아지는 수심. 평균적으로 약 4,500m임.

18. ㉠과 관련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연니는 죽은 생물체의 잔해와 점토류가 섞여 생성된다.
- ② 유공충의 잔해가 40% 포함된 퇴적물은 석회질연니이다.
- ③ 표층수에 서식하는 생물체의 양과 연니의 양은 비례한다.
- ④ 규질연니는 탄산염보상수심보다 깊은 곳에서도 발견된다.
- ⑤ 연니의 퇴적 속도는 심해저 점토류의 퇴적 속도보다 느리다.

19. 밑줄에 제시된 내용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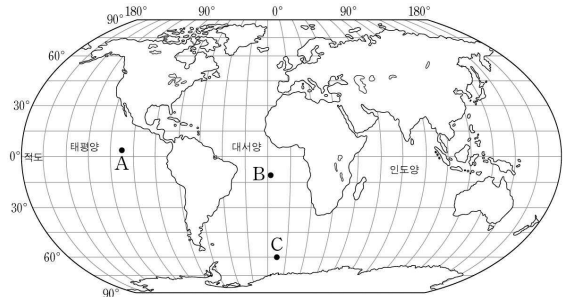
ㄱ. 연니의 생성 시기
 ㄴ. 연니의 유형
 ㄷ. 연니의 지리적 분포
 ㄹ. 연니의 시추 방법
 ㅁ. 연니 연구의 효용성

-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ㄱ, ㄷ, ㄹ
- ④ ㄴ, ㄷ, ㅁ ⑤ ㄷ, ㄹ, ㅁ

20. 밑글과 <보기>를 참고하여 다음 지도에서 시추 지점을 바르게 추정한 것은?

<보 기>

시추 지점 조사 항목	(가) 지점	(나) 지점	(다) 지점
수심	약 5,000m	약 2,500m	
표층 수온 (상대적 비교)	낮음		높음
기타 사항	해수의 수직 운동이 활발함	탄산염 성분 퇴적물로 구성됨	표층수에 방산충이 많이 분포함



- | | (가) 지점 | (나) 지점 | (다) 지점 |
|---|--------|--------|--------|
| ① | A | B | C |
| ② | A | C | B |
| ③ | B | A | C |
| ④ | C | A | B |
| ⑤ | C | B | A |

[31~3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01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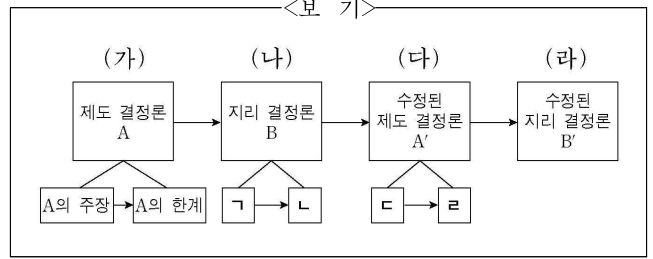
(가) 많은 경제학자들은 제도의 발달이 경제 성장의 중요한 원인이라고 생각해 왔다. 예를 들어 재산권 제도가 발달하면 투자나 혁신에 대한 보상이 잘 이루어져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다. 제도의 발달 수준과 소득 수준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제도는 경제 성장에 영향을 줄 수도 있지만 경제 성장으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그 인과관계를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나) 그런데 최근에 각국의 소득 수준이 위도나 기후 등의 지리적 조건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진다는 통계적 증거들이 제시되었다. 제도와 달리 지리적 조건은 소득 수준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 때문에 지리적 조건이 사람들의 건강이나 생산성 등과 같은 직접적인 경로를 통해 경제 성장에 영향을 끼친다는 해석이 설득력을 얻게 되었다.

(다) 제도를 중시하는 경제학자들은, 지리적 조건이 직접적인 원인이라면 경제 성장에 더 유리한 지리적 조건을 가진 나라가 예나 지금이나 소득 수준이 더 높아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례가 많다는 사실에 주목하였다. 이들은 '지리적 조건과 소득 수준 사이의 상관관계'와 함께 이러한 '소득 수준의 역전 현상'을 동시에 설명하려면, 제도가 경제 성장의 직접적인 원인이고 지리적 조건은 제도의 발달 방향에 영향을 주는 간접적인 경로를 통해 경제 성장과 관계를 맺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 지리적 조건은 지금의 경제 성장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는 것이다. 오히려 지리적 조건은 과거에 더 잘살던 지역에서는 경제 성장에 불리한 방향으로, 더 못살던 지역에서는 유리한 방향으로 제도가 발달하게 된 '제도의 역전'이라는 역사적 과정에 영향을 끼쳤다는 것이다.

(라) 이제 지리적 조건의 직접적인 영향을 강조하는 학자들도 간접적인 경로의 존재를 인정하게 되었다. 하지만 직접적인 경로가 경제 성장에서 더욱 중요하고 지속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31. <보기>는 윗글을 순서대로 정리한 것이다. ㄱ~ㄴ에 해당하는 것은? [3점]



	ㄱ	ㄴ	ㄷ	ㄹ
①	B의 주장	B의 한계	A'의 증거	A'의 주장
②	B의 주장	B의 한계	B에 대한 반증	A'의 주장
③	B의 증거	B의 주장	B에 대한 반증	A'의 주장
④	B의 증거	B의 주장	A'의 주장	B에 대한 반증
⑤	B의 한계	B의 주장	A'의 주장	A'에 대한 반증

32. (가)~(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례를 <보기>에서 찾아 바르게 짝지은 것은?

<보 기>

ㄱ. 대체로 기온이 높은 나라일수록 질병 등의 문제로 사람들의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하고 생산성도 낮다. 이에 따라 경제 성장이 잘 이루어지지 못하여 1인당 소득 수준이 낮다.

ㄴ. 영국은 명예혁명 이후에 재산권 제도가 발달하였지만, 스페인은 그렇지 못했다. 이 때문에 스페인의 제도가 이식된 중남미 국가들이 영국의 제도가 이식된 북미 국가들보다 소득 수준이 낮다.

ㄷ. 기후가 사탕수수 등의 상업성 작물에 적합한 지역에서는 노예 노동을 이용했기 때문에 재산권 보호와 정치 참여 면에서 불평등한 제도가 정착했다. 이로 인해 현재까지 경제 성장에 바람직한 제도가 잘 발달하지 못하고 있다.

	(가)	(나)	(다)
①	ㄱ	ㄴ	ㄷ
②	ㄴ	ㄱ	ㄷ
③	ㄴ	ㄷ	ㄱ
④	ㄷ	ㄱ	ㄴ
⑤	ㄷ	ㄴ	ㄱ

[33~3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010.09

비교 언어학은 언어 간의 친족 관계를 밝히고, 친족 관계가 확인된 언어들의 조어(祖語, 조상 언어)를 추정하며, 각 언어들이 조어에서 분화된 후의 역사적 변천에 대해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비교 언어학을 통해 세계의 언어를 여러 어족(語族)으로 나눌 수 있고, 문자로 기록되기 이전 언어의 모습에 대해서도 알 수 있으며, 한 언어의 역사도 알아볼 수 있다.

언어 간의 친족 관계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언어들 사이에 널리 혹은 우연히 존재할 수 있는 유사성이 아니라 그들이 친족이기 때문에 공유할 수밖에 없는 체계적인 유사성이 있음을 밝혀내어야 친족 관계를 증명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비교 언어학에서는 비교 방법이라는 방법론을 개발해 내었다. 비교방법에서는 음운 대응 규칙을 중시한다. 음운의 대응이란 같거나 유사한 의미를 지니는 단어들 사이에서 한 언어의 특정 음운이 다른 언어의 특정 음운에 대응하는 것이다. 친족 관계가 증명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음운의 대응이 규칙적으로 나타나야만 한다. 가령 다음과 같은 언어들이 있다고 하자.

	붐	불	하나	
A 언어	<u>t</u> om	<u>t</u> el	<u>t</u> ark
B 언어	<u>s</u> om	<u>s</u> el	<u>s</u> ark

위의 예에서 우리는 A 언어와 B 언어 간에 보이는 /t/↔s/의 대응을 통해 이들 언어 간에 음운 대응의 규칙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음운의 대응은 언어의 변화가 규칙적이고 체계적으로 일어나는 것임을 말해 준다.

언어들의 친족 관계가 증명되면 각 어족에 속한 언어들을 상호 비교하여 조어를 추정할 수 있다. 인도-유럽 어족에 속하는 언어들에서 ‘아버지’를 뜻하는 단어의 예를 보자.

산스크리트어	pitár
라틴어	pater
고대영어	fæder

이들을 비교해 보면 첫 자음이 산스크리트어와 라틴어에서는 /p/로, 고대 영어에서는 /f/로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오래된 형태가 더 조어에 가까우므로 이들의 기원은 /p/였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나머지 음들을 추정하여 언어학자들은 이 단어의 조어가 ‘pātēr’였을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와 같이 비교 방법을 사용하여 조어를 추정하는 것을 ㉠ 외적 재구라 한다.

한편 한 언어의 자료만을 가지고 그 언어의 옛 모습을 추정하는 것을 ㉡ 내적 재구라 한다. 언어는 변화 과정에서 시간적·공간적 흔적을 남기게 되는데, 이 흔적을 통해 언어의 변화 과정을 복원하여 그 변화가 일어나기 전의 어형을 추정할 수 있다. 이때 일반적으로 시간적 흔적은 문헌을 통해, 공간적 흔적은 방언을 통해 확인된다. 한 언어 안에서 어떤 단어의 어형이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다양하게 존재할 때 외적 재구보다 내적 재구를 사용하게 된다.

33. 윗글로 미루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해당 언어들의 친족 관계가 확인된 후에 그 언어들의 조어를 추정할 수 있다.
- ② 조어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그 언어의 가장 오래된 어형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 ③ 한 언어에서 과거와 현재의 단어를 비교하여 더 오래된 어형을 추정하는 것은 내적 재구에 해당한다.
- ④ 비교 방법을 적용할 때 대부분의 언어에서 ‘어머니’를 뜻하는 말에 /m/이 들어 있는 것과 같은 유사성은 배제해야 한다.
- ⑤ 친족 관계에 있는 언어 간에 음운의 대응이 나타나는 것은 이들이 조어로부터 갈라져 나온 이후 동일한 규칙에 따라 변화했기 때문이다.

34. ㉠보다 ㉡을 적용하는 것이 더 적합한 경우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 기>—————

- a. 단어들의 방언형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경우
- b. 다른 언어와의 친족 관계가 증명되지 않은 경우
- c. 조어로부터 갈라져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경우

- ① a
- ② b
- ③ c
- ④ a, b
- ⑤ a, c

35. 윗글을 참조하여 <보기>의 자료에 대해 탐구한 결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국어	pom(붐)	pul-(불다)	pil-(빌다)
만주어	fom(계절)	fulgije(불다)	firu-(빌다)
몽고어	hon(년)	hülie-(불다)	hirtier-(빌다)

- ① 국어의 ‘pom’과 몽고어의 ‘hon’을 보니 그 조어는 ‘phom’이겠군.
- ② 만주어의 /f/가 몽고어의 /h/에 대응하는 것을 보니 이 두 언어는 친족 관계에 있을 가능성이 있겠군.
- ③ 국어의 ‘pil-’과 만주어의 ‘firu-’를 보니 국어의 /l/이 만주어의 /r/에 대응하는 음운 대응의 규칙이 있음을 알 수 있군.
- ④ 국어의 /p/가 만주어의 /f/에 대응하는 것을 보니 만주어가 국어보다 예전의 모습을 더 잘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군.
- ⑤ 만주어의 /m/이 몽고어의 /n/에 대응하는 것을 보니 조어에서 갈라져 나온 후 /n/이 /m/으로 바뀌는 음운 변화가 일어났겠군.

MEMO

MEMO

[36~3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10.09

매일 쏟아지는 수많은 우편물들은 발송 지역별로 분류되어야 한다. 우편물 분류 작업은 우편번호 숫자를 인식함으로써 자동화될 수 있다. 이때 자동분류기는 환경과의 상호 작용에 기반한 경험적인 데이터로부터 스스로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학습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 학습은 상호 작용의 정도에 따라 경험하는 데이터가 달라지고, 이러한 학습 데이터에 따라 자동분류기의 성능이 달라지게 된다. 즉, 자동분류기는 단순히 데이터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경험에서 새로운 정보를 추론하여 스스로 분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학습 데이터	실험 데이터
필기체 숫자	5 5 0 0	5
입력 특징		
목표치	5 5 0 0	

우편번호 자동분류기가 학습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편번호 숫자를 하나씩 분할하고, 0부터 9까지를 잘 구별할 수 있는 입력 특징을 찾아야 한다. 위 그림은 필기체 숫자를 가로, 세로 8등분하여 연필이 지나간 자리를 1, 그렇지 않으면 0의 값을 주어, 입력 특징을 추출한 것이다.

다음으로, 추출된 특징으로 학습할 때 분류기에 목표치를 제공함으로써 학습을 감독할 수 있다. 즉, 입력 특징에 대한 목표치가 제시되면 분류기는 데이터를 제시된 목표치로 분류하도록 학습한다. 이렇게 목표치를 이용하는 학습을 ㉡ 감독학습이라 한다. 숫자 분류기에 0부터 9까지 각각의 숫자에 대한 목표치가 제공되면, 분류기는 감독학습을 수행한다. 위의 그림에서 분류기는 네 개의 학습 데이터에 대한 입력 특징과 목표치를 통해 학습한다. 이 학습을 통해 두 개의 '5'와 두 개의 '0'을 각각 같은 숫자로 인식하면서, 동시에 '5'와 '0'을 서로 다른 숫자로 분류해 내는 함수를 만든다. 감독학습을 통해 올바르게 학습하였다면, 그림의 실험 데이터는 숫자 '5'로 인식된다.

그러면, 목표치를 주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어떻게 학습할까? 목표치가 없을 때는 학습 데이터로 주어진 입력 특징들의 유사성을 찾아 군집화한다. 이와 같이 목표치가 제시되지 않는 학습을 무감독학습이라고 한다. 예컨대 위 그림에서 네 개의 필기체 숫자에 대한 입력 특징만 주어지면, 무감독학습은 비슷한 입력 특징을 가진 숫자들을 ㉢ 모아 '5' 또는 '0'에 대해 군집화하는 함수를 만든다. 무감독학습을 통해 올바르게 학습하였다면, 실험 데이터는 '5'의 군집과 유사한 것으로 인식된다.

이렇게 학습된 자동분류기는 실험 데이터를 정확하게 분류하였는지에 따라 그 성능이 평가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편번호 자동분류기는 우편물을 지역별로 분류할 수 있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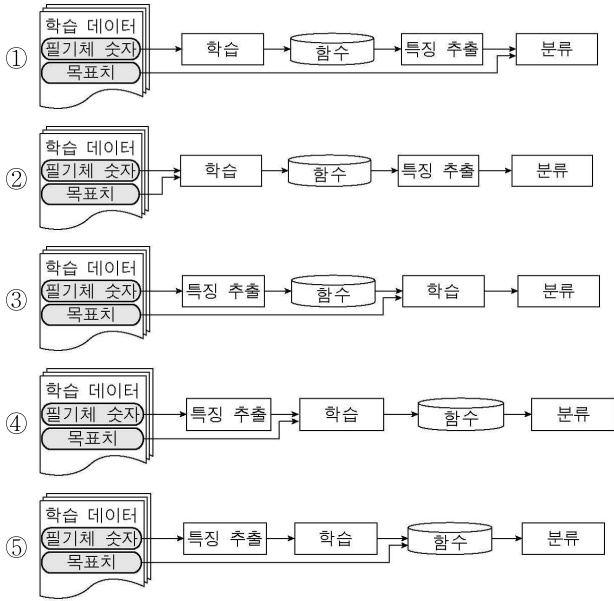
36. 위글의 '우편번호 자동분류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자동분류기의 성능은 학습 데이터의 양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 ② 우리나라 우편번호 자동분류기는 총 6종류의 목표치를 이용한다.
- ③ 자동분류기의 학습은 일정한 종류의 필기체 숫자를 기억하는 것이다.
- ④ 자동분류기는 0부터 9까지의 차이를 최소화하는 입력 특징을 사용한다.
- ⑤ 자동분류기의 학습은 필기체 숫자의 목표치가 없으면, 유사한 입력 특징을 가진 것끼리 모은다.

37. 휴대 전화의 기능을 소개하는 문구 중, ㉣의 기능을 담은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전화가 걸려 오면 등록된 수신 거부 목록과 일일이 대조하여, 목록에 있는 번호이면 수신을 거부한다.
- ② 휴대 전화를 든 손으로 등록된 단축 번호를 공중에 쓰면, 전화기가 숫자를 인식하여 자동으로 전화를 건다.
- ③ 사용자의 음성 특징을 추출하여 사용자와 타인의 음성을 분류하면, 사용자의 음성으로만 휴대 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
- ④ 휴대 전화에 닿는 형태를 유형화하여 접촉과 비접촉을 구별하면, 전화벨이 울리는 중에 휴대 전화에 손이 접촉할 경우 진동으로 전환된다.
- ⑤ 휴대 전화의 카메라로 촬영한 얼굴 영상들에서 색상값과 얼굴 형태 정보를 이용하여 얼굴과 얼굴이 아닌 것으로 분류하면, 사람이 움직여도 얼굴을 중심으로 촬영한다.

38. ㉠을 이용한 필기체 숫자 분류기의 구성도로 옳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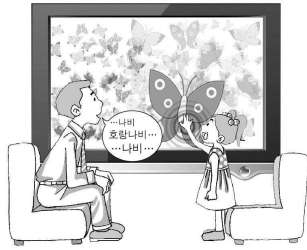


39. 문맥상 ㉠과 바꾸어 쓸 수 있는 한자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취합(聚合)하여 ② 융합(融合)하여
- ③ 조합(組合)하여 ④ 규합(糾合)하여
- ⑤ 결합(結合)하여

[44~4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10.09

기차 안에서처럼 두 개의 의자가 서로 마주보고 있고, 그 옆에는 스크린이 창문처럼 설치되어 있다. 관객들이 이 의자에 앉아 대화를 나누면 대화 속의 단어들에 상응하는 이미지들이 화면 가득히 나타나 입체적 영상을 만들어 낸다.



이는 소머러와 미그노뉴의 디지털 아트 작품인 「인터넷 타기」에 대한 설명이다. 이와 같은 최근의 예술적 시도들은 ㉠ 작품과 수용자 사이의 경계를 넘어 작품의 생성과 전개에 수용자를 참여 시킴으로써 ㉡ 작품과 수용자 사이의 상호 작용을 가능하게 한다.

이는 분명 종래의 예술관에 대한 도전이다. 종래의 예술관은 수용자의 참여를 허락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예술 감상을 미적 관조로 한정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즉 예술 작품에 대한 감상은 ㉢ 예술 이외의 모든 관심과 욕구로부터 ㉣ 초연한 상태에서 가능하다는 것이다. 더구나 이러한 관조적 태도와 함께 예술 작품 자체도 모든 것에서 벗어난 순수한 객체가 됨으로써 이제 예술은 그 어떤 ㉤ 권위도 침해할 수 없는 자율적 영역이 된다. 이 때문에 종종 예술은 쓸모없는 것으로 평가절하되기도 하지만, 현실의 모든 ㉥ 긴장과 갈등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 해방 공간으로 승화되기도 한다.

그렇다면 최근의 예술적 시도들이 예술을 상호 작용 공간으로 만들 경우 미적 해방 공간마저 일상적 삶의 긴장과 갈등, 그리고 예술 이외의 관심과 욕구로 얼룩지고 마는 것인가? 넓게 보자면 인간은 세상과의 상호 작용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경험이란 세상과의 ㉧ 부단한 상호 작용의 결과이다. 상호 작용이 외적·내적 요인으로 인해 긴장과 갈등을 낳을 때, 인간의 경험은 대립과 분열 속에 빠지며, 이것이 지속될 때 삶은 위기를 맞는다. 반면 각각의 상호 작용의 고유성이 보호되면서도 이것이 하나의 전체 속에서 통일될 때 인간의 삶은 ㉨ 극치를 이룬다. 존 듀이는 이러한 통일성에 대한 체험을 ㉩ 미적 체험으로 간주한다. 물론 이러한 미적 체험은 현실적 삶에서 실현되기 어렵다. 오히려 이것은 예술 작품 속에서 상이한 요소, 행동, 사건, 주체들이 고유성을 상실하지 않으면서도 하나의 통일성을 이룰 때 가능하다.

이런 점에서 듀이는 예술의 신성화가 아니라, ㉪ 예술의 세속화 를 원한다. 대립되고 분열된 일상의 수많은 상호 관계와 경험들은 이 세상 속에서 미적 체험으로 통합되어야 한다. ㉫ 상호 작용을 강조하는 예술적 시도가 이러한 미적 체험을 실험하고 연습하는 장을 만든다면, 이는 예술 작품을 넘어 삶 속에서도 미적 체험을 성취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44.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예술 작품을 창작하는 데 수용자의 참여를 배제함으로써 예술 작품을 예술가만의 창작 결과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
- ② ㉡: 수용자가 완결성을 갖는 작품을 변형하면서 이를 감상하는 것을 말한다.
- ③ ㉢: 실용적, 윤리적,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욕구 혹은 과학적 호기심 등 예술 작품 자체를 향유하려는 것 이외의 관심과 욕구를 말한다.
- ④ ㉣: 사람들이 삶의 긴장과 갈등으로부터 벗어나 오직 예술 작품에만 관심을 집중하는 상태를 말한다.
- ⑤ ㉤: 한 인간이 맺고 있는 수많은 관계가 서로 조화를 이루어 자신의 삶에 대해 아름다움을 느끼는 것을 말한다.

45. <보기>의 입장에서 ㉪ 예술의 세속화 에 대해 비판적으로 반응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쇼펜하우어에 따르면 이 세상은 의지의 표현이며, 이 의지는 스스로를 보존하려는 맹목적 충동일 뿐이다. 이 충동은 하나가 만족되면 새로운 충동으로 이어지고, 결국 인간은 맹목적 충동의 사슬이 불러일으키는 불만족과 갈등에 시달린다. 미적 관조는 이러한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이며, 인간은 잠시나마 이를 통해 불교에서 말하는 해탈의 경지에 이르게 된다.

- ① 예술의 세속화는 자기 보존을 둘러싼 대립과 갈등 때문에 실현 불가능한 것은 아닐까?
- ② 예술의 세속화는 상호 관계를 강조함으로써 결국 예술의 순수성을 위협하는 것은 아닐까?
- ③ 예술의 세속화는 역으로 예술을 인간의 맹목적 충동에 종속시킬 위험성을 갖는 것은 아닐까?
- ④ 예술의 세속화는 오히려 인간이 현실적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차단하는 것은 아닐까?
- ⑤ 예술의 세속화는 미적 관조를 현실 세계로 확산시키므로 삶의 통일성에 대한 경험을 가로막는 것은 아닐까?

46. 윗글의 「인터넷 타기」에 대한 관람객의 반응 중, ㉔의 입장에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전화기라는 단어를 말했다. 수많은 종류의 전화기가 실제 보는 것처럼 입체적으로 나타났다. 아마 작가는 영상을 활용하여 사물의 생생함을 전달하려고 한 것 같았다.
- ② 얼굴이란 단어를 말하자 수많은 얼굴 모습이, 인간을 말하자 각양각색의 사람들 이미지가 나타났다. 한순간이나마 세상의 관심과 욕구에 초연한 채 바로 내가 순수한 예술가가 된 것 같았다.
- ③ 정말 재미있었다. 내가 하는 말이 바로 영상으로 나타났고, 스크린을 만지니 영상이 정지하기도 했다. 나는 이 단어, 저 단어를 말하며 다양한 영상을 보았다. 컴퓨터 기술이 이렇게 까지 발전한 것에 감탄했다.
- ④ 우리는 대화를 나누며 인터넷 검색하듯이 대화 속의 단어에 상응한 이미지를 볼 수 있었다. 그런데 스크린에 이미지로 등장한 사물들은 일상생활의 맥락에서와는 달리 무언가 신비스런 느낌을 주는 것 같았다.
- ⑤ 생활이 어려워 결혼반지를 팔았던 일을 아내가 이야기했다. 그런데 똑같은 반지만, 반지의 모습이 나타난 것이다. 우리는 옛일을 회상했다. 삶과 작품 공간이 하나가 되고, 이 속에서 아내와 나도 하나 되는 느낌을 받았다.

47. ㉠~㉣의 사전적 의미로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어떤 현실 속에서 벗어나 그 현실에 아랑곳하지 않고 의젓하다.
- ② ㉡: 일정한 분야에서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위신.
- ③ ㉢: 마음을 조이고 정신을 바짝 차림.
- ④ ㉣: 아주 가깝게 맞닿아 있다. 또는 그런 관계에 있다.
- ⑤ ㉤: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정취나 경지.

[17~1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10.06

언어학에서는 지리학의 방법을 활용하여 언어 현상을 설명하기도 하는데, 그 예로 언어 지도가 있다. 언어 지도는 일정 지역의 언어적인 차이를 한눈에 알아보도록 지도 형식을 빌려 표시한 것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언어를 공간적으로 투영한 것이다. 이것은 ㉠ 동일한 의미를 지닌 단어가 지역에 따라 형태가 어떻게 달리 나타나는가, ㉡ 동일한 형태의 한 단어가 지역에 따라 의미가 어떻게 분화되는가 등을 시각적으로 일목요연하게 보여 준다.

언어 지도는 현재 언어 상태의 생생한 모습을 보여 주고, 국어의 역사적인 변화에 관한 정보를 드러내 주며, 해당 지역의 역사나 문화를 반영하여 민속학적, 문화사적 연구에 도움을 준다. 또 지도에 담긴 방언형을 통해 이전 시기의 언어를 재구성하거나, 문학 작품에 나타난 방언 어휘를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을 준다.

언어 지도는 자료를 기입해 넣는 방식에 따라 몇 가지로 나누는데, 그 중 한 분류법이 진열 지도와 해석 지도로 나누는 방식이다. 전자가 원자료를 해당 지점에 직접 기록하는 기초 지도라면, 후자는 원자료를 언어학적 관점에 따라 분석, 가공하여 지역적인 분포 상태를 제시하고 설명하는 지도를 말한다.

진열 지도는 각 지점에 해당하는 방언형을 지도에 직접 표시하거나 적절한 부호로 표시하는데, 언어학적으로 비슷한 어형은 비슷한 모양의 부호를 사용한다. 가령 '누룽지'의 방언형으로 '누렁기, 누룽지, 소데끼, 소디끼' 등이 있다면, '누렁기, 누룽지'와 '소데끼, 소디끼'를 각각 비슷한 부호로 사용하는 것이다. 한편, 해석 지도는 방언형이 많지 않을 때 주로 이용하며, 연속된 지점에 동일한 방언형이 계속 나타나면 등어선(等語線)을 그어 표시한다. 등어선은 언어의 어떤 특징과 관련되느냐에 따라 그 굵기에 차이를 두어 표시하기도 한다. 이때 지역적으로 드물게 나타나는 이질적인 방언형은 종종 무시되기도 한다.

17. 윗글을 통해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언어 지도를 보면 김소월 시에 있는 토속적 어휘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 ② 언어 지도를 이용하면 문헌을 통한 통시적 연구에서 미흡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다.
- ③ 언어 지도를 통해 성별이나 세대 차의 요인에 따라 나타나는 방언형을 알아볼 수 있다.
- ④ 여러 방언형 중 하나를 표준어로 정할 때, 방언형의 분포를 보여 주는 지도를 활용할 수 있다.
- ⑤ 언어 지도를 만들기 위한 조사 대상자로는 외지 경험이 적은 순수한 토박이 화자가 적합하다.

18. ㉠, ㉡에 해당하는 예를 <보기>에서 골라 바르게 묶은 것은?

—<보 기>—

- a. '박쥐'를 어떤 지역은 '빨쥐', 어떤 지역은 '뽕쥐'라고 하는군.
- b. '아버지의 남동생'을 뜻하는 '아제'가 우리 지역에서는 '고모'나 '이모'를 뜻해.
- c. 언어 지도 '부추' 항목을 찾아보니, '술, 졸, 정구지' 등의 어형이 나타나는군.
- d. '진달래'를 우리 아버지는 '참꽃'이라고 하시는데, 다른 지역에서 이사 온 이웃 할아버지는 '연달래'라고 하셔.

- | | | |
|---|---------|---------|
| | ㉠ | ㉡ |
| ① | a, c, d | b |
| ② | b, d | a, c |
| ③ | b, c | a, d |
| ④ | a, c | b, d |
| ⑤ | a | b, c, d |

19. 표준어 '노을'로 <보기>와 같은 가상의 언어 지도를 만들어 보았다. 윗글과 <보기>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 '노을'의 방언형

노을 □	노으리 ◻
나불 ◇	나부리 ◇
복새 ☆	

<지도 A>

<지도 B>

* 점선은 임의의 행정 구역을 표시한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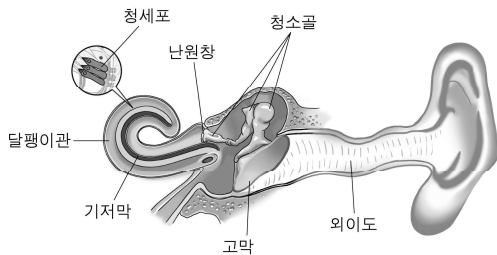
- ① '노을'과 '노으리'가 형태적으로 유사하니까 비슷한 형태의 부호 □, ◻를 사용한 것이로군.
- ② '복새'의 부호 ☆가 □, ◇와 유사성이 없는 것은 단어의 의미 차이를 반영한 것이로군.
- ③ 지도 A에서는 특정 지점의 방언형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겠군.
- ④ 지도 B를 만들 때 방언형이 같은 여러 지점을 묶어서 등어선을 표시했군.
- ⑤ 지도 A에 표시된 이질적인 방언형이 지도 B에서 표시되지 않은 것을 보니 지도 B에는 지도 편집자의 해석이 들어갔군.

[20~2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10.06

일반적인 청력 검사는 검사 받는 사람의 협조가 없으면 시행하기 힘들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의 하나로 ‘귀의 소리(otoacoustic emissions)’를 활용하는 기술이 있다. 이 기술은 1978년 데이비드 켈프에 의해 귀에서 소리를 방출한다는 놀라운 사실이 발견되면서 발달하였다.

특정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는 의식적인 행동은 생리학적으로 내이(內耳)의 달팽이관 안에 있는 청세포의 역할로 설명할 수 있다. 포유동물의 청세포는 외부의 소리를 감지하는 역할을 하면서, 수축과 이완을 통해 특정 음파의 소리에 대한 민감도를 증가시키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귀의 소리’가 발생하는데 ㉠이는 청세포가 능동적으로 내는 소리이다. 과거에는 ‘귀의 소리’를 외부 소리에 대한 ‘달팽이관의 메아리’로 여겼다. 하지만 주어진 외부 자극 소리로 발생하는 메아리보다 음압이 더 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귀의 소리’를 단순한 메아리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오른쪽 귀에만 외부 소리 자극을 가했는데 왼쪽 귀에서도 ‘귀의 소리’가 발생한다는 점 역시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귀의 소리’는 청세포에서 발생하여 기저막을 따라 난원창으로, 다시 청소골을 통해 고막과 외이도로 전달된다. 이 소리는 두 종류의 외부 소리를 이용하여 청세포를 자극한 후 특정한 주파수 대역에서 측정할 수 있다. 소리 자극으로는 여러 주파수가 섞인 복합음이나 두 주파수(f_1 과 f_2 , $f_1 < f_2$)만 이루어진 조합음을 이용한다. 전자에서 발생하는 ‘귀의 소리’는 4kHz 이하의 주파수 대역에서 측정되는데, 그 소리는 개인마다 차이를 보이지만 개인별로는 일정한 패턴을 유지한다. 후자에서 발생하는 ‘귀의 소리’는 수학적으로 계산되는 여러 주파수 대역에서 측정되며, 특정 주파수 대역($f_x = 2f_1 - f_2$, $x = \text{최대}$ ‘귀의 소리’)에서 가장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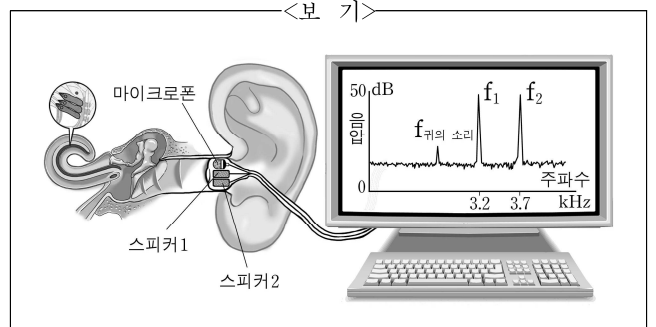
청세포는 작업장의 소음과 같은 특정 주파수나 악물 등에 반복 노출되면 손상될 수 있다. 청세포가 손상되기 시작하면, 청력 손실이 일어나고 ‘귀의 소리’도 감소한다. 청세포 손상이 진행되어 30dB 이상의 청력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귀의 소리’도 사라진다.

‘귀의 소리’는 조용한 환경에서 마이크를 외이도에 장착하여 측정한다. ㉡ ‘귀의 소리’ 측정 기술을 활용하면 검사받는 사람의 협조 없이도 청력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기술은 몇몇 국가에서 신생아의 청력 이상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선별 검사에 이용되고 있다.

20. ㉠과 같이 말할 수 있는 근거로 적절한 것은?

- ① 외부에서 소리 자극을 가했을 때 귀에서 소리가 측정된다.
- ② 한쪽 귀에 외부 소리 자극을 가했을 때 반대쪽 귀에서도 ‘귀의 소리’가 발생한다.
- ③ ‘귀의 소리’는 청세포에서 기저막을 따라 난원창으로, 다시 청소골을 통해 고막과 외이도로 전달된다.
- ④ ‘귀의 소리’는 다양한 주파수 대역에서 측정된다.
- ⑤ ‘귀의 소리’는 개인마다 차이를 보이지만, 개인별로는 일정한 패턴을 유지한다.

21. <보기>는 두 주파수의 조합음을 이용하여 ‘귀의 소리’를 측정하는 장치를 그린 그림이다.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귀의 소리’는 f_1 , f_2 자극 소리보다 빨리 감지될 것이다.
- ② 외이도가 막혔을 경우 ‘귀의 소리’ 측정이 어려울 수 있다.
- ③ 마이크를 통해서 감지되는 소리는 자극 소리, 메아리 소리, ‘귀의 소리’이다.
- ④ f_1 이 3.2kHz, f_2 가 3.7kHz일 때 발생하는 ‘귀의 소리’의 음압은 2.7kHz에서 가장 크다.
- ⑤ 스피커를 통하여 두 주파수의 소리 자극을 가하고, 마이크를 통하여 감지되는 소리를 측정한다.

22. ㉡을 활용할 수 있는 사례로 보기 어려운 것은?

- ① 귀를 이용한 실험에서 청력 측정을 할 경우
- ② 일부러 안 들리는 척하는 사람을 찾아내려 할 경우
- ③ 청력 측정을 통해 개인을 식별하는 기계를 만들 경우
- ④ 소음성 난청이 있는 사람의 청세포 손상 여부를 판단할 경우
- ⑤ 청세포가 파괴되어 인공 달팽이관 이식을 받은 사람의 청력을 평가할 경우

[27~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010.06

(가) 조선 전기 조선군의 전술에서는 기병을 동원한 활쏘기와 돌격,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보병의 다양한 화약 병기 및 활의 사격 지원을 중시했다. 이는 여진족이나 왜구와의 전투에 효과적이었는데, 상대가 아직 화약 병기를 갖추지 ㉠ 못한 데다 전투 규모도 작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전술적 우위는 일본군의 조총 공격에 의해 상쇄되었다.

(나) 16세기 중반 일본에 도입된 조총은 다루는 데 특별한 무예나 기술이 필요하지 않았다. 그 결과 신분이 낮은 계층인 조총 무장 보병이 주요한 전투원으로 등장할 수 있었다. 한편 중국의 절강병법은 이러한 일본군에 대응하기 위해 고안된 전술로, 조총과 함께 다양한 근접전 병기를 갖춘 보병을 편성한 전술이었다. 이 전술은 주력이 천민을 포함한 일반 농민층이었는데, 개인의 기량은 떨어지더라도 각각의 병사들 특성에 따라 편제하고 운용하여 전체의 전투력을 높일 수 있었다. 근접전용 무기도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이 이용되었다.

(다) 조선군의 전술은 절강병법을 일부 수용하면서 기병 중심에서 보병 중심으로 급속히 전환되었다. 조총병인 포수와 각종 근접전 병기로 무장한 살수에 전통적 기예인 활을 담당하는 사수를 포함시켜 편제한 삼수병 체제에서 보병 중심 전술이 확립되었음을 볼 수 있다. 17세기 중반 이후 조총의 신뢰성과 위력이 높아지면서 삼수 내의 무기 체계의 분포에도 변화가 시작되었다. 상대적으로 사격 기술을 익히기 어렵고 주요 재료를 구하기 어려웠던 활 대신, 조총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증가했다.

(라) 조선에서의 새로운 무기 수용과 전술의 변화는 단순한 군사적 변화에 그치지 않고 정치적, 경제적 변화를 수반하였다. 군의 규모는 관노와 사노 등 천민 계층까지 충원되면서 급격히 커졌고, 군사력을 유지하기 위해 백성에 대한 통제도 엄격해졌다. 성인 남성에게 이름과 구역 등이 새겨진 호패를 차게 하였으며, 거주지의 변동이 있을 때마다 관가에 보고하게 하였다. 대규모 군사력의 운용으로 국가 단위의 재정 수요도 크게 증대했는데, 대동법은 이러한 수요에 부응하는 제도이기도 했다. 선혜청에서 대동법의 운영을 전담하면서 재정권의 중앙 집중화가 시도되었으며, 이에 따라 지방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던 재정의 상당 부분이 조정으로 귀속되었다. 한편 가호(家戶)를 단위로 부과하던 공물을 농지 면적에 따라 쌀이나 무명 등으로 납부하게 하여, 논밭이 없거나 적은 농민들의 부담은 줄어들었다.

27.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일본이 중국이나 조선보다 먼저 조총을 실전에 사용했다.
- ② 조선과 중국에서는 조총을 받아들이면서 전술이 변화되었다.
- ③ 조선이 조총을 도입한 뒤 구성된 보병의 무기 체계는 중국과 달랐다.
- ④ 조선에 조총이 보급된 뒤에도 원거리 무기인 활의 사용 비중은 여전히 높았다.
- ⑤ 조선·중국·일본에서는 조총의 도입으로 하위 신분의 군사적 비중이 높아졌다.

28. 윗글과 관련하여 <보기>를 참고 자료로 제시할 때, (가)~(다)에 적절한 자료를 바르게 제시한 것은? [3점]

<보 기>

가. 화포가 적에 대응하는 데에는 그 이익이 크니, 왜구나 야인들이 두려워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나. 기병은 평지에서 이롭고 보병은 험지에서 이롭습니다. 우리나라는 구릉이나 논이 많아 진실로 보병을 쓰는 것이 합당합니다.

다. 지방의 군사 제도는 지극히 허술하다. 수령의 휘하에 한 명의 군졸도 없으니 만약 급박한 일이 생겼을 경우 실로 방어할 도리가 없다.

라. 낭선은 가지를 다 자르지 않은 대나무에 창날을 꽂아 만들고, 당파는 작살을 개량해 만든다. 나이가 장성하고 얼굴이 크고 힘이 센 사람이 낭선을 다루고, 살기와 담력이 있는 자가 당파를 다룬다.

	(가)	(나)	(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ㄷ	ㄹ
③	ㄴ	ㄷ	ㄱ
④	ㄴ	ㄷ	ㄴ
⑤	ㄷ	ㄴ	ㄷ

29. (라)를 통해 추론한 당시 사람들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관노: 양민들이 담당하던 군역을 이제는 우리도 맡게 되었군.
- ② 양반: 집안에서 부리는 종놈은 개인 재산인데, 군대에 끌고 가니 너무한걸.
- ③ 양민: 호패를 늘 차야 하는 데다 이사할 때마다 신고해야 하니 귀찮네그려.
- ④ 지주: 집집마다 내던 공물을 논밭의 면적에 따라 내도록하니 우리만 불리해졌어.
- ⑤ 수령: 백성들을 단속하는 업무가 늘었지만 고을의 재정 형편은 훨씬 나아지게 되었군.

30. ㉠을 표준 발음으로 읽을 때, <보기>의 ㉡, ㉢에 해당하는 변동 유형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보 기>

- 음운 변동은 다음과 같이 유형화할 수 있다.

	변동 이전	→	변동 이후	
㉠	XaY	→	XbY	(교체)
㉡	XY	→	XaY	(첨가)
㉢	XabY	→	XcY	(축약)
㉣	XaY	→	XY	(탈락)
㉤	XabY	→	XbaY	(도치)

- ‘못한 $\xrightarrow{\text{㉡}}$ [] $\xrightarrow{\text{㉢}}$ []’의 과정을 거쳐 발음된다.

- | | | | | | |
|---|----------|----------|---|----------|----------|
| | <u>㉡</u> | <u>㉢</u> | | <u>㉡</u> | <u>㉢</u> |
| ① | a | c | ② | a | d |
| ③ | b | d | ④ | b | e |
| ⑤ | c | e | | | |

[36~3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01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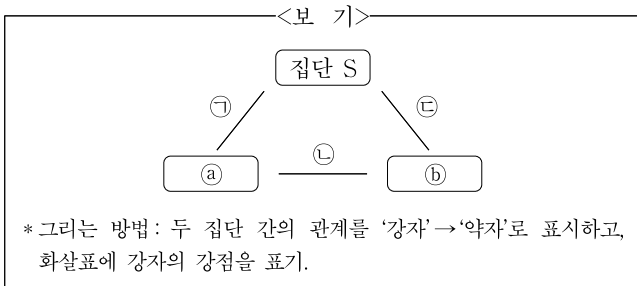
가위, 바위, 보! 무엇을 내느냐에 따라 서로의 승패는 확연히 갈리지만 이 게임의 묘미는 영원한 승자도, 영원한 패자도 없다는 데 있다. 이렇게 서로 끝없이 물고 물리는 가위바위보의 관계가 생물 다양성을 설명하기 위한 모델이 될 수 있다는 연구가 있어 눈길을 끈다.

[A] 한 연구팀은 동물의 장내에 서식하는 대장균 중 서로 다른 세 집단 간의 증식 경쟁에서 가위바위보의 관계를 관찰했다. ‘집단 C’는 콜리신이라는 독소를 생산하고, ‘집단 S’는 다른 집단에 비해 빠른 속도로 증식하지만 콜리신에 의해 증식이 억제된다. ‘집단 R’은 ‘집단 C’보다 빠르고 ‘집단 S’보다 느린 증식 속도를 가진 반면 콜리신에 저항성을 지닌다. 세 집단 중 두 집단씩을 각각 섞어 배양하면 증식 속도의 차이로 인해 집단 간 증식 경쟁에 따른 승패가 확실하다. 반면 세 집단을 서로 인접시켜 배양하면, 각 두 집단 간의 경계에서는 일방적으로 영역을 침범하는 현상이 나타나지만, 결과적으로 가위바위보의 관계처럼 서로 물고 물리는 삼자 간의 공존 관계가 관찰된다.

다른 연구팀은 생쥐들의 장내에 세 대장균 집단을 투여한 후 각 집단 간의 증식 경쟁을 살폈다. 그 결과 한 시점에는 생쥐 개체별로 어느 한 집단이 우세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세한 집단이 일정한 순서로 계속 바뀌는 것을 발견했다. 이는 서로 격리된 여러 공간에서 세 집단이 동시에 우세 집단으로 존재할 수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위 사례는 생태계에서 절대 강자가 없을 수도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본보기로 거론된다. 생물 간 경쟁을 설명하는 방식 중 승패가 명확한 양자 간의 관계에 비해, 삼자의 병존 가능성을 보여주는 가위바위보의 관계는 생물 다양성의 설명에 보다 적합한 모델이 될 수 있다.

36. [A]의 내용을 <보기>와 같이 그렸을 때, ㉠~㉣과 ㉠, ㉡에 들어갈 내용이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3점]



화살표의 방향 설정	강점	집단
① 모두 시계 방향	㉠: 콜리신 생산	㉡: 집단 R
② 모두 시계 방향	㉠: 증식 속도	㉡: 집단 C
③ 모두 시계 방향	㉢: 저항성 및 증식 속도	㉡: 집단 R
④ 모두 반시계 방향	㉢: 콜리신 생산	㉡: 집단 C
⑤ 모두 반시계 방향	㉢: 증식 속도	㉡: 집단 C

37. 잇글의 대장균에 대한 실험 결과를 검토하여 해석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대장균 세 집단을 동일한 비율로 섞어서 배양한다면, 콜리신을 생산하는 집단이 가장 먼저 우세하게 나타나는 집단이 되겠군.
- ② 독소의 생산에 따른 저항성 집단의 출현이 필연적이라면, 독소의 생산은 생물 다양성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된다고 할 수 있겠군.
- ③ 생쥐 실험 내용이 다른 포유동물의 경우에도 적용된다면, 토끼 등을 이용해 동일한 실험을 반복하더라도 비슷한 결과를 얻을 수 있겠군.
- ④ 생쥐를 이용한 실험에서 생쥐의 수를 늘려 실험한다면, 각 대장균 집단의 우세가 균등하게 분포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겠군.
- ⑤ 생쥐 내장이란 격리된 공간에서 우세한 집단이 일정한 순서로 바뀐다면, 그 변화 순서는 가위바위보의 관계로부터 예측이 가능하겠군.

MEMO

MEMO

[38~4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010.06

언론 보도로 명예가 훼손되는 경우 피해를 구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 민법은 명예 훼손으로 인한 피해를 구제 받기 위해 손해 배상과 같은 금전적인 구제와 아울러 비금전적인 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비금전적인 구제 방식의 하나가 ‘반론권’이다. 반론권은 언론의 보도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당사자가 문제가 된 언론 보도 내용 중 순수한 의견이 아닌 사실적 주장 [A] (사실에 관한 보도 내용)에 대해 해당 언론사를 상대로 지면이나 방송으로 반박할 수 있는 권리이다. 반론권은 일반적으로 반론 보도를 통해 실현되는데, 이는 정정 보도나 추후 보도와는 다르다. 정정 보도는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달라 잘못된 사실을 바로잡는 것이며, 추후 보도는 형사상의 조치를 받은 것으로 보도된 당사자의 무혐의나 무죄 판결에 대한 내용을 보도해 주는 것이다.

반론권 제도는 세계적으로 약 30개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반론권 제도는 의견에도 반론권을 적용하는 프랑스식 모델이 아닌 사실적 주장에 대해서만 반론권을 부여하는 독일식 모델을 따르고 있다. 우리나라 반론권 제도의 특징은 정부가 반론권 제도를 도입하면서 이를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하여 행사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반론권 도입 당시 우리 정부는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한 반론권 행사가 언론에는 신뢰도 하락과 같은 부담을 주지 않고, 개인에게는 신속히 피해를 구제 받을 기회를 주기 때문에 효율적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언론사와 일부 학자들은 법정 기구인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반론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 언론의 편집 및 편성권을 침해하여 궁극적으로 언론 자유의 본질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반론권 존립 여부에 대해 판단하면서, 반론권은 잘못된 사실을 진실에 맞게 수정하는 권리가 아니라 피해를 입은 자가 문제가 되는 기사에 대해 자신의 주장을 게재하는 권리로서 합헌적인 구제 장치라고 보았다. 또한 대법원은 반론권 제도를 이른바 ㉠ 무기대등원칙(武器對等原則)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즉 사회적 강자인 언론을 대상으로 일반인이 동등한 공격과 방어를 할 수 있도록 균형 유지 수단을 제공하는 것이므로 정당하다는 것이다.

반론권 청구는 언론중재위원회 또는 법원에 할 수 있으며, 두 기관에 동시에 신청할 수도 있다. 이때 반론권은 해당 언론사의 잘못이나 기사 내용의 진실성 여부에 상관없이 청구할 수 있다. 언론 전문가들은 일부 학자들의 비판적인 시각에도 불구하고 언론과 관련된 분쟁은 법정 밖에서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측면에서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한 반론권제도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모두 ㉡ 만족할 수 있도록 중재의 합의를과 질적 수준을 높여야 할 것이다.

38. 윗글의 논지 전개 방식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외국의 사례를 열거하여 공통적인 논지를 도출한다.
 - ② 일반인의 상식을 제시한 후 이를 논리적으로 비판한다.
 - ③ 새로운 이론을 통해 기존의 주장을 반박하고 재해석한다.
 - ④ 개념을 정의한 후 대립되는 주장을 소개하고 필자의 견해를 밝힌다.
 - ⑤ 현상이나 사실을 설명한 뒤 필자의 생각과 반대되는 견해의 장단점을 분석한다.
39. 윗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 ① 반론권 제도는 프랑스에서 가장 먼저 도입하였다.
 - ② 보도 내용이 진실한 경우에도 반론권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피해자는 반론 보도와 정정 보도를 동시에 청구할 수 있다.
 - ④ 반론권은 개인은 물론이고 법인이나 단체, 조직도 행사할 수 있다.
 - ⑤ 반론권은 문제가 된 보도와 같은 분량의 지면이나 방송으로 행사되어야 한다.
40. [A]에 근거하여 볼 때, 반론 보도문의 성격에 가장 잘 맞는 것은?
- ① 본지는 2008년 1월 1일자 3면에서 공무원 A 씨가 횡령 혐의로 체포되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A 씨는 2009년 4월 20일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났음을 알려 드립니다.
 - ② ○○ 연구소의 B 소장은 ‘경기 회복 당분간 어렵다’는 취지의 본지 인터뷰 기사 내용에 대해, 이는 인터뷰 내용 중 일부 대목만을 인용하여 ‘경기 부양에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자신의 견해를 확대 해석한 결과라고 밝혀 왔습니다.
 - ③ C 기업은 해당 기업에서 제작한 핵심적 기계 장치의 안전성이 우려된다는 본지의 보도로 인하여 많은 손해를 보았다고 전해 왔습니다. 사실 관계를 확인한 결과 기계 자체가 아닌 사용상의 문제인 것으로 드러나 관련 기업과 독자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 ④ 본지는 D 병원장의 예를 들어 병원들이 보험료를 부풀려 신청한다는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D 병원장은 기사에서 지적된 사람은 자신이 아니라고 알려 왔으며, 확인 결과 기사의 D 병원장은 E 병원장의 오기(誤記)로 드러났음을 알려 드립니다.
 - ⑤ 본지는 F 금융공사가 미국보다 비싼 학자금 대출 금리로 부당한 이익을 남긴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F 금융공사는 미국에서 가장 널리 이용되는 학자금 대출 상품의 금리보다 자사의 금리가 더 낮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는 사실로 확인되었으므로 해당 내용을 수정합니다.

41. ㉠의 취지를 가장 잘 반영하는 것은?
- ① 피의자가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 ② 모성 보호를 위해 산모에게 일정 기간 유급 휴가를 제공한다.
 - ③ 저소득층 자녀들을 위해 구청에서 무료로 놀이방을 운영한다.
 - ④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에게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 ⑤ 청소년 보호를 위해 정부에서 지상파 방송 광고에 대해 사전 심의를 실시한다.

42. 밑줄 친 단어 중, ㉠의 의미를 포함하지 않는 것은?
- ① 선을 본 사람이 마음에 차지 않았다.
 - ② 엿그제 비가 흡족히 와서 가뭄이 해소되었다.
 - ③ 그는 자기 능력에 상당한 대우를 받고 기뻐했다.
 - ④ 철수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별로 달갑지 않았다.
 - ⑤ 형의 말을 들은 삼촌의 얼굴이 그리 탐탁해 보이지 않는다.

[47~5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010.06

일반적으로 영화는 구체적인 대상을 재현하는 데에는 그 어떤 예술보다 강하지만, 대사나 자막을 이용하지 않고서는 정신적인 의미를 표현하는 데 약하다. 그런데 영화의 출발이 시각 예술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언어적 요소에 의존하는 것은 영화 본연의 방식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영화가 독자적인 예술이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순수하게 시각적인 방식으로 추상적인 의미 표현에 이를 수 있어야 한다.

에이첸슈테인은 여기서 한자의 구성 원리에 주목한다. 한자의 육서(六書) 중 그가 주목한 것은 상형 문자와 회의 문자다. 상형 문자는 사물의 형태를 본뜬 문자다. 그러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형태를 본떠서 재현할 수 있지만,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재현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휴식’과 같이 추상적인 개념은 상형 문자로 표현할 수 없다. 이때 이를 표현할 수 있는 것이 회의 문자다. 회의 문자 ‘쉬 휴(休)’는 ‘사람 인(人)’과 ‘나무 목(木)’이 결합된 문자다. 이 두 문자를 결합하면 ‘휴식’이라는 추상적 의미가 만들어진다. 하지만 ‘휴식’이란 말의 의미는 ‘人’에도 ‘木’에도 들어 있지 않다. ㉠ 두 개의 문자가 결합되면서 두 문자의 단순한 총합이 아닌 새로운 차원이 열리며, 이를 통해 추상적인 의미를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에이첸슈테인이 회의 문자에서 주목한 지점이다.

이러한 원리가 영화의 시각적인 의미 표현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회의 문자를 이루는 요소들이 상형 문자라는 점이다. 묘사적이고 단일하며 가치중립적인 상형 문자의 특성은 영화의 개별 장면(shot)들의 특성에 상응한다. 회의 문자를 이루는 각각의 문자는 따로 떼어 놓고 보면 사물이나 사실에 대응되지만, 그 조합은 개념에 대응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 영화의 개별 장면들은 사물이나 사실에 대응되지만, 이들을 특정하게 결합시키면 그 조합은 개념에 대응된다. 따라서 회의 문자의 구성 원리를 이용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묘사할 수 없는 것, 추상적인 것을 순수하게 시각적인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러나 개별 장면들의 시간적 병치를 통해서 이루어 낸 추상적 의미는 영화를 보는 관객의 머릿속에서만 존재한다. 따라서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진 영화를 보면서 거기에 담긴 의미를 구성해 내는 것은 관객의 몫으로 남게 된다.

47. 윗글의 내용에 부합하는 것은?

- ① 영화는 구체적인 대상의 재현을 통해 독자적인 예술이 된다.
- ② 영화의 개별 장면과 회의 문자 사이에 구조적 유사성이 있다.
- ③ 영화의 정신적인 의미는 개별 장면들의 특성으로 환원될 수 있다.
- ④ 영화는 추상적인 의미를 표현하기 위해 언어적 요소를 풍부하게 이용해야 한다.
- ⑤ 영화 외의 영역에서도 영화가 독자적인 예술이 되기 위한 원리를 끌어낼 수 있다.

48. <보기>가 윗글의 필자가 택한 글쓰기 전략이라고 할 때, 글에 구현되지 않은 것은?

— <보 기> —

- 목표 설정 : 영화의 특성을 심층적으로 살필 수 있는 이론을 소개한다. ①
- 예상 독자 설정 : 영화에 관심이 많고, 일정 수준의 교양을 갖춘 독자를 대상으로 한다. ②
- 내용 선정 : 시각 예술로서 영화의 특질을 보여 줄 수 있는 핵심 내용을 선정한다. ③
- 자료 수집 : 소개하고자 하는 이론의 특성이 잘 드러나는 작품을 폭넓게 수집한다. ④
- 논지 전개 : 핵심 논제를 제기하고, 이론을 요약 소개하며 그에 대한 답을 제시한다. ⑤

49. 문맥상 ㉠과 같은 방법으로 만들어진 표현이 아닌 것은?

- ① 선생님은 얼굴을 익히려고 그 학생을 유심히 바라보았다.
- ② 나뭇거리는 아이들의 입방아 때문에 정신이 없었다.
- ③ 네 이야기는 모순이 있어 잘 이해할 수가 없다.
- ④ 그 이야기를 듣자 모두들 배꼽을 쥐었다.
- ⑤ 그는 개밥에 도토리 신세가 되었다.

[13~1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009.11

현대의 문장 부호는 독서의 편의를 위해 사용하는 보조적 기호의 일종이다. 일반적으로 문장의 의미를 명백하게 하거나 문장을 구별하여, 읽고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사용된다. 형태나 기능의 차이는 있지만, 옛 문헌에도 오늘날의 문장 부호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것들이 있었다. 띄어쓰기를 거의 하지 않았던 옛 문헌에서 이러한 부호들은 더욱 요긴하게 쓰였다.

현대의 마침표나 쉼표의 기능을 하는 것으로 ‘·’이 있다. ‘·’은 찍힌 위치에 따라 그 기능이 달랐다. 세로쓰기를 했던 옛 문헌에서 글자의 오른쪽 아래에 찍힌 점은 구점(句點)이라 하는데, 마침표와 비슷한 기능을 하였다. 글자 아래쪽 가운데에 찍힌 점은 두점(讀點)이라 하는데, 쉼표와 비슷한 기능을 하였다. ‘구두점’이란 말은 여기서 유래한다. 단락이 끝나고 공백이 오는 경우와 같이 문장이 끝났음이 명백할 때에는 문장 뒤에 구점이 생략된다. 『훈민정음해례』나 『용비어천가』 등에 이러한 구두점이 사용되었다.

‘○’은 새로운 단위의 내용이 시작될 때 쓰였다. 각각의 예문이나 단락, 조항 등이 시작하는 곳이나 화제가 전환되는 곳에 사용되었다.

주석을 달기 위해서는 ‘【 】’가 사용되었다. 단어나 구절의 뜻을 풀이하거나 보충 설명이 필요할 때 ‘【 】’ 안에 그 내용을 넣었다. 오늘날의 ‘()’, ‘[]’와 기능이나 형태가 유사하다. 다만 구점과 마찬가지로 단락이 끝나는 위치에서는 ‘】’가 생략된다.

① ‘ㄴ’, ‘ㅅ’, ‘ㅈ’은 앞 글자나 앞 어구와 동일함을 표시해주는 부호인데, 인쇄본보다는 손으로 쓴 필사본에 더 많이 나타난다. 한편 사전류에서는 설명의 대상인 표제어가 용례로 반복되어 나타날 때 ‘—’로 대체하였다. ‘ㄴ’ 등은 바로 앞에 오는 글자나 어구의 반복만 나타낼 수 있는 데 비해, ‘—’는 위치에 상관없이 표제어에 해당하는 것이 그 자리에 들어감을 나타낸다.

이러한 부호들은 한문 문화권에서 널리 사용되던 것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를 사용하여 우리의 문자 생활을 다채롭고 정확하게 하였다. 구점은 한글 맞춤법 규정에 포함되어, 세로쓰기를 할 때 마침표로 사용된다. ‘○’, ‘ㄴ’은 규정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지금도 쓰이고 있다.

※ 윗글에 쓰인 옛 문헌의 부호들은 가로쓰기에 맞게 방향을 바꿔 제시한 것임.

13. 윗글의 중심 내용은?

- ① 옛 문헌에 쓰인 부호의 기원
- ② 옛 문헌에 쓰인 부호의 변화 과정
- ③ 옛 문헌에 쓰인 부호의 종류와 기능
- ④ 옛 문헌에 쓰인 부호의 현대적 수용
- ⑤ 옛 문헌과 현대 문헌의 문장 부호 비교

14. ㉠을 사용한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단어의 의미를 분명히 드러내기 위해
- ② 문장 간의 관계를 잘 나타내기 위해
- ③ 띄어쓰기의 기능을 대신하기 위해
- ④ 쓰기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 ⑤ 글의 내용을 보충하기 위해

15. <보기>는 현대 어휘 용례 사전의 일부이다. 윗글을 읽고 옛 문헌에 사용된 부호를 적용해 본 활동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오늘
 ¶ 고량진미도 나물국부터 시작하고, 천 리 길도 문 앞에서
 부터 시작하는 법. 나의 오늘 역시 내일의 희망을 향해
 걸어가는 첫걸음이다. - 이규보(고려 시대의 문인)
 ¶ 오늘은 다시 오지 않는다는 것을 잊지 말라

- ① 옛 문헌이라면 ㉠의 ‘·’ 대신에 두점을 찍었겠군.
- ② 옛 문헌이라면 ㉡의 ‘·’ 대신에 구점을 찍었겠군.
- ③ 옛 문헌이라면 ㉢의 ‘오늘’ 대신에 ‘—’를 사용했겠군.
- ④ 옛 문헌이라면 ㉣의 ‘)’ 대신에 ‘】’를 사용했겠군.
- ⑤ 옛 문헌이라면 ㉤의 ‘¶’ 대신에 ‘○’을 사용했겠군.

MEMO

MEMO

[16~1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09.11

음악은 시간 예술이다. 회화나 조각과 같은 공간 예술과는 달리, 음악에서는 시간이 흐르면서 사라지는 음을 기억하기 위한 방법이 필요하다. 작곡가들은 그 방법의 하나로 반복을 활용했다. 즉 반복을 통해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기억하여 악곡의 전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러한 반복의 양상과 효과는 <비행기>와 같은 동요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 동요에서는 반복되는 선율이 노래를 하나로 묶어 주고 있다.



무반주 성악곡을 즐겨 부른 르네상스 시대의 다성 음악 양식에서는 입체적인 효과를 주기 위한 기술적인 방법으로 '모방'을 선택했다. 이때 ㉠ 모방은 노래의 시작 부분에서 돌림 노래와 비슷한 방식을 적용함으로써 구현된다. 예를 들어 소프라노 성부의 노래에 뒤이어 알토 성부가 시간 차를 두고 같은 선율로 시작하는 반복 기법을 적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돌림 노래처럼 시작한 후에는 각 성부가 서로 다른 선율로 노래를 이어 간다. 이로써 다성 음악 양식에서는 성부의 독립성을 추구하면서도 통일감을 느끼게 해 주는 짜임새가 만들어졌다.

다성 음악의 시대를 지나 바로크 시대로 들어서면 성악 음악을 구현하는 데 모방은 더 이상 효과적인 기법이 아니었다. 이제 음악가들은 화성을 중시해서, 여러 성부로 이루어진 음악을 연주하기보다 화성 반주에 맞추어 하나의 선율을 노래하는 짜임새를 선호하게 되었다. 화성 반주의 악보 중에는 저음 성부에서 일정한 패턴이 반복되는 경우가 있다. 이때 고음 성부에서는 선율이 반주에 맞춰 변화되는 이른바 장식적 변주가 나타난다. 이로써 반복의 일관성과 변주의 다양성을 통해 조화된 아름다움을 이룰 수 있게 되었다.

고전 시대에는 반복이 악곡의 형식을 결정하는 요소로 사용된다. 이 시대에 널리 쓰인 소나타는 주제가 다른 여러 악장이 음악적 대조를 이루는데, 마지막 악장은 첫 악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쉬운 음악으로 구성된다. 마지막 악장의 이런 성격을 표현하는 데에는 론도 형식이 적합하다. 이 형식은 악장의 주제를 주기적으로 반복하는 ㉡ 사이사이에 이와 대조되는 새로운 주제들을 삽입하는 방식이다.

각 시대의 작곡가는 입체적인 모방, 장식적인 변주, 형식적인 반복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시간의 흐름 속에 구현된 악곡 전체의 모습을 파악할 수 있게 하였다. 결국 음악은 시대마다 그 양상은 다르지만, 반복을 기본 원리의 하나로 활용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16. 윗글을 통해 알 수 없는 것은?

- ① 반복은 각 시대의 음악 양식에 따라 양상을 달리한다.
- ② 선율의 반복은 노래에 통일성을 부여하는 요소가 된다.
- ③ 돌림 노래는 무반주 성악곡에서 변주의 방식으로 사용된다.
- ④ 다성 음악의 시대를 지나 화성을 중시하는 시대가 시작된다.
- ⑤ 반복 기법은 단순한 노래부터 복잡한 악곡까지 널리 사용된다.

17. ㉠의 방법에 따라 <보기>를 사용하여 3성부의 악곡을 만들 때, 도입부의 짜임새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성부1 [A B]
성부2 [A D]
성부3 [A C]
- ② 성부1 [A B]
성부2 [A C]
성부3 [A D]
- ③ 성부1 [A B]
성부2 [C D]
성부3 [B A]
- ④ 성부1 [C D]
성부2 [D A]
성부3 [A B]
- ⑤ 성부1 [C D]
성부2 [A B]
성부3 [B C]

18. 윗글과 <보기>를 관련지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앵무조개 껍데기의 무늬는 반복의 미(美)를 보여 준다. 1:1.618의 황금 비율로 된 빈 종이도 아름다운데, 이 비율로 된 형태가 크기를 달리하며 반복되면 통일과 변화라는 또 다른 미감이 생긴다. 이런 반복과 변화의 미는, 르네상스의 건축 디자인에서도 볼 수 있다. 당시 건축물에서 문과 창 같은 형태에서는 반복의 미를, 다른 크기에서는 색다른 변화의 미를 느끼게 되는 것이다. 르네상스 건축가들은 이런 건축물을 세련되게 작곡된 음악에 비유해 '조화'라 불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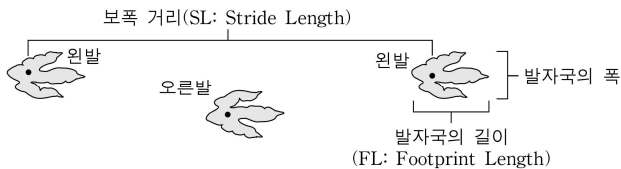
- ① 반복의 미적 쾌감은 음악이 아닌 다른 예술 양식이나 자연물에서도 느낄 수 있겠군.
- ② 소나타 악장의 대조는 황금 비율로 된 빈 종이에서 느껴지는 아름다움과 유사한 것이겠군.
- ③ 장식적 변주는, 크기를 달리하며 변화되는 문과 창에서 느껴지는 색다른 미감과 유사한 것이겠군.
- ④ 바로크 성악 음악에서 화성 반주의 저음 성부는 앵무조개 껍데기 무늬에서 느껴지는 미와 통하겠군.
- ⑤ '조화'라 불리는 건축물에서 통일성과 변화가 공존하는 것처럼 음악에서도 이런 양면성이 드러나는 경우가 있군.

19. ㉠은 단어의 반복을 통해 특정한 의미 효과를 나타낸다. 다음 중 ㉠의 효과와 유사한 것은?

- ① 발을 옮겨 놓을 때마다 걸음걸음 치마폭이 너풀거린다.
- ② 시간이 없으니까 대강대강 급한 일부터 끝내자.
- ③ 가뭄으로 논밭이 바싹바싹 타들어 간다.
- ④ 노랫소리가 멀리멀리 울려 퍼진다.
- ⑤ 공간을 곡식으로 가득가득 채웠다.

[34~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009.11

우리나라의 남해안 일대에서는 중생대 백악기에 살았던 공룡의 발자국 화석이 1만 개 이상 발견되었다. 이 화석들은 당시 한반도에 서식했던 공룡들의 특성을 밝히는 실마리를 제공한다. 공룡 발자국 연구에서는 발자국의 형태를 관찰하고, 발자국의 길이와 폭, 보폭 거리 등을 측정한다. 이렇게 수집한 정보를 분석하여 공룡의 종류, 크기, 보행 상태 등을 알아낸다.



우선 공룡 발자국의 형태로부터 공룡의 종류를 알아낸다. 남해안 일대에서 발견된 공룡 발자국은 초식 공룡인 용각류와 조각류, 육식 공룡인 수각류의 것으로 대별된다. 용각류의 발자국은 타원형이나 원형에 가까우며 앞발이 뒷발보다 작고 그 모양도 조금 다르다. 이들은 대체로 4족 보행렬을 나타낸다. 조각류의 발자국은 세 개의 뾰족한 발가락이 앞으로 향해 있고 발뒤꿈치는 완만한 곡선을 이룬다. 이들은 대개 규칙적인 2족 보행렬을 보인다. 수각류의 발자국은 날카로운 발톱이 달린 세 개의 발가락과 좁고 뾰족한 발뒤꿈치를 보인다. 조각류처럼 2족 보행렬을 나타내지만 발자국의 길이가 발자국의 폭보다 더 길다는 점이 조각류와 다르다.

다음으로 공룡 발자국의 길이로부터 공룡의 크기를 추정할 수 있다. ‘발자국의 길이(FL)’에 4를 곱해 ‘지면으로부터 골반까지의 높이(h)’를 구하여 $h = 4FL$, 그 크기를 짐작할 수 있다. 4족 보행 공룡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뒷발자국의 길이를 기준으로 한다. 단, h와 FL의 비율은 공룡의 성장 단계나 종류에 따라 약간씩 다르게 적용된다.

또한 ‘보폭 거리(SL)’는 보행 상태를 추정하는 기준으로 사용된다. 여기서 SL은 공룡의 크기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SL을 h로 나눈 ‘상대적 보폭 거리[SL/h]’를 사용한다. 학자들은 SL/h의 값이 2.0 미만이면 보통 걸음, 2.0 이상 2.9 이하이면 빠른 걸음이었을 것으로, 2.9를 초과하면 달렸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남해안 일대에서는 공룡 발자국 외에도 공룡의 뼈나 이빨, 다른 동식물의 화석 등도 발견된다. 공룡 발자국과 함께 발견되는 물결 자국이나 건열* 등의 퇴적 구조를 분석하여 발자국이 만들어진 당시의 기후나 환경을 짐작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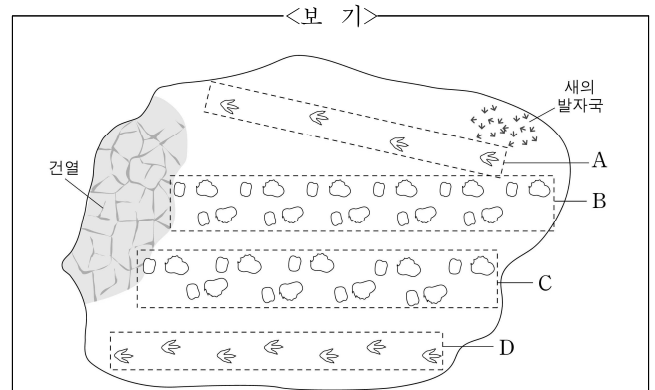
* 건열: 건조한 대기로 인해 땅 표면이 말라서 갈라진 것.

34. 윗글의 표제와 부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공룡 발자국 화석 연구와 그 의미
- 한반도의 공룡 발자국 화석을 중심으로
- ② 공룡 화석과 중생대 백악기의 기후 환경
- 공룡의 분포와 서식지 특성을 중심으로
- ③ 한반도 공룡 발자국 화석의 세계
- 공룡과 환경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 ④ 한반도 서식 공룡의 다양성
- 용각류, 조각류, 수각류의 공룡을 중심으로
- ⑤ 공룡 화석 연구의 가치
- 공룡 골격 화석의 학술적 활용 방안을 중심으로

※ <보기>는 중생대 백악기 지층의 공룡 발자국 화석을 조사한 결과이다. 윗글과 <보기>를 바탕으로 35번과 36번의 두 물음에 답하십시오.



[조사 결과]

- ㄱ. 발자국 길이 - A: 평균 25cm, D: 평균 25cm
- ㄴ. 뒷발자국 길이 - B: 평균 30cm, C: 평균 36cm
- ㄷ. 보폭 거리 - A: 평균 230cm, D: 평균 150cm
- ㄹ. 발자국 모양 - A와 D 모두 발톱 자국이 보이며, 발자국의 길이가 폭보다 깊.
- ㅁ. 동일한 지층에서 공룡 발자국, 건열, 새의 발자국이 발견됨.

35. 윗글을 읽고 <보기>로부터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A와 C를 남긴 공룡은 모두 초식 공룡이었을 것이다.
- ② 이 지층은 건조한 환경에 노출된 적이 있었을 것이다.
- ③ 중생대 백악기에는 공룡과 새가 함께 서식했을 것이다.
- ④ B를 남긴 공룡은 C를 남긴 공룡보다 'h'가 작았을 것이다.
- ⑤ B를 남긴 공룡은 4족 보행, D를 남긴 공룡은 2족 보행을 했을 것이다.

36. ‘상대적 보폭 거리’를 이용하여 A와 D로부터 공룡의 보행 상태를 바르게 추정한 것은?

- | | | | |
|---------|-------|---------|-------|
| A | D | A | D |
| ① 보통 걸음 | 보통 걸음 | ② 빠른 걸음 | 보통 걸음 |
| ③ 빠른 걸음 | 빠른 걸음 | ④ 달림 | 보통 걸음 |
| ⑤ 달림 | 빠른 걸음 | | |

[40~4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009.11

사람들은 어떤 결과에는 항상 그에 상응하는 원인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원인과 결과의 필연성은 개별적인 사례들을 통해 일반화될 수 있다. 가령, A라는 사람이 스트레스로 병에 걸렸고, B도 스트레스로 병에 걸렸다면 이런 개별적인 사례들로부터 ‘스트레스가 병의 원인이다.’라는 일반적인 인과가 도출된다. 이때 개별적인 사례에 해당하는 인과를 ‘개별자 수준의 인과’라 하고, 일반적인 인과를 ‘집단 수준의 인과’라 한다. 사람들은 오랫동안 이러한 집단 수준의 인과가 필연성을 지닌다고 믿어 왔다.

그런데 집단 수준의 인과를 필연적인 것이 아니라 개연적인 것으로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가령 ‘스트레스가 병의 원인이다.’라는 진술에서 스트레스는 병의 필연적인 원인이 아니라 단지 병을 발생시킬 확률을 높이는 요인일 뿐이라고 말한다. A와 B가 특정한 병에 걸렸다 하더라도 집단 수준에서는 그 병의 원인을 스트레스로 단언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스트레스와 병은 필연적인 관계가 아니라 개연적인 관계에 놓인 것으로 설명된다. 이에 따르면 ‘스트레스가 병의 원인이다.’라는 집단 수준의 인과는, ‘A가 스트레스를 받았지만 병에 걸리지 않은 경우’나 ‘A가 스트레스를 받았고 병에 걸리기도 했지만 병의 실제 원인은 다른 것인 경우’ 등의 개별자 수준의 인과와 동시에 성립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개별자 수준의 인과와 집단 수준의 인과는 별개로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개별자 수준과 집단 수준의 인과가 독립적이라고 주장하는 철학자들은, 두 수준의 인과가 서로 다른 방식으로 해명되어야 한다고 본다. 왜냐하면 이들은 개별자 수준의 인과가 지닌 복잡성과 특이성은 집단 수준의 인과로 설명될 수 없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가령 A의 병은 유전적 요인, 환경적 요인, 개인의 생활 습관 등에서 비롯될 수도 있고 그 요인들이 우연적이며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과정을 거치며 발생될 수도 있다.

이에 대해 ㉠ 개별자 수준과 집단 수준의 인과가 연관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병의 여러 요인들이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인과의 필연성이 성립된다고 본다. 개별적인 사례들에서 스트레스와 그 외의 모든 요인들을 함께 고려할 때 여전히 스트레스가 병의 필수적인 요인이라면 개별자 수준 인과의 필연성은 훼손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집단 수준 인과의 필연성도 훼손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40. 윗글의 서술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논의된 내용을 종합하면서 새로운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 ② 상반된 견해에 대하여 절충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 ③ 이론의 장단점을 비교하여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 ④ 대비되는 두 관점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다.
- ⑤ 일반인의 상식을 논리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41.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 ① 하나의 결과에는 항상 하나의 원인이 존재한다.
- ② 집단 수준 인과의 필연성은 오랫동안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③ 개별자 수준의 인과는 집단 수준의 인과를 일반화한 것이다.
- ④ 집단 수준의 인과는 개별자 수준 인과의 개연성으로 충분히 설명된다.
- ⑤ 집단 수준 인과의 개연성을 주장하는 사람은 집단 수준과 개별자 수준의 인과를 독립적인 것으로 본다.

42. ㉠의 입장에서 <보기>의 (가)로부터 (나)를 이끌어 내려 할 때, ㉡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가) · 좋은 씨앗을 심는 것은 좋은 열매가 열리는 원인이다.
· 영희네는 좋은 씨앗을 심어 좋은 열매를 수확했다.
· 철수네는 좋은 씨앗을 심었으나 물을 제때 주지 않아 좋은 열매가 열리지 않았다.
· 우리 집은 좋은 씨앗을 심었으나 병충해로 좋은 열매가 열리지 않았다.

②

(나) · 그러므로 좋은 씨앗을 심는 것과 좋은 열매가 열리는 것 사이의 필연적인 인과는 여전히 훼손되지 않는다.

- ① 좋은 씨앗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좋은 열매를 얻을 수 있다.
- ② 우리 집과 철수네가 좋은 열매를 얻지 못한 것은 필연적인 결과이다.
- ③ 좋은 씨앗이 좋은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은 경험적으로 증명하기 어렵다.
- ④ 다른 모든 요인에도 불구하고 좋은 씨앗은 좋은 열매를 맺게 하는 필수적인 요인이다.
- ⑤ 병충해 방제와 적절한 물 공급은 좋은 열매를 맺는 데에 결정적으로 작용하는 요인이다.

MEMO

MEMO

46. 밑줄 친 단어의 문맥적 의미가 ㉠와 거리가 먼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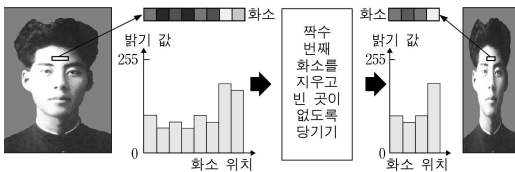
- ① 돌을 던지자 고요한 호수에 파문이 일었다.
- ② 눈 내린 마당에 강아지 발자국이 난 있다.
- ③ 주머니에 구멍이 생겨 동전을 잃어버렸다.
- ④ 새로 산 차에 흡이 가서 속상하다.
- ⑤ 그는 나이가 차 장가를 들었다.

[13~1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09.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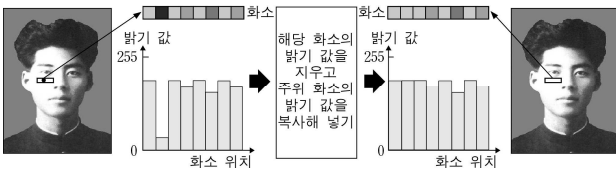
누구나 좀 더 멋있게 보이고 싶은 소망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이러한 꿈은 적어도 디지털 사진 속에서라면 쉽게 이룰 수 있다. 영상 편집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 실제 모습보다 날씬해 보이도록 할 수도 있고 주근깨를 지워서 달리 보이게 할 수도 있다. 이러한 일은 대부분 디지털 영상 처리라는 기술에 바탕을 두고 있다.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한 영상은 컴퓨터 안에서 영상을 구성하는 점인 수많은 화소의 집합으로 저장되고, 각각의 화소는 숫자로 표현된 밝기 값과 색상 값을 가진다. ㉠일반적으로 디지털 영상 처리란 각 화소의 밝기 값과 색상 값에 일정한 규칙을 적용하여 영상의 밝기와 색상은 물론 크기, 모양, 질감까지도 변화시키는 기술을 말한다.

설명을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8비트 해상도, 즉 0부터 255까지의 밝기 값만 가지는 흑백 영상이 있다고 하자. 이때 밝기 값 0은 완전한 검은색이고 255는 완전한 흰색이 된다. 날씬하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영상의 세로는 그대로 두고 가로로 1/2 크기로 줄이려면 <그림 1>과 같이 홀수 번째 화소는 그대로 두고 짝수 번째 화소를 없앤 다음, 빈 곳이 없도록 왼쪽으로 당기면 된다. 또 검은 점으로 표시된 주근깨를 지우고 싶다면 <그림 2>와 같이 해당 화소의 밝기 값을 지우고, 지운 자리에 주위에 있는 화소의 밝기 값을 복사해 넣는다. 이렇게 하면 주위 화소와 차이가 나던 검은 점이 주위와 똑같은 밝기 값을 가지게 되어 주근깨가 없어진다.



<그림 1>



<그림 2>

디지털 영상 처리는 간단한 규칙을 적용하는 것만으로도 여러 가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영상에 있는 붉은색 사과를 초록색으로 칠하고 싶다면 사과에 해당하는 모든 화소에서 밝기 값은 그대로 두고 붉은색 색상 값을 초록색 색상 값으로 바꿔 주면 된다. 뱀의 영상에 머리를 하나 더 달아서 머리가 두 개인 괴물 뱀을 만들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 경우에는 머리를 추가하고 싶은 부분에 해당하는 화소의 밝기 값과 색상 값을 지운 다음, 원래 영상에서 뱀의 머리 부분에 해당하는 화소의 밝기 값과 색상 값을 복사해 넣으면 된다.

디지털 영상 처리는 군사 목적에서 과학 수사에까지 다양한 분야에 널리 적용된다. ㉡첩보 위성이 찍은 어떤 영상은 화소의 밝기 값이 0에 가까워 어둡고, 밝기 값의 차이가 별로 없어 선명

하지도 않지만, 이 기술을 적용하면 밝고 선명한 영상을 얻을 수 있다. 과학 수사 요원이 범인의 희미한 지문만을 채취하고도 회심의 미소를 지을 수 있는 것도 이 기술을 믿기 때문이다. 하지만 디지털 영상 처리 소프트웨어가 일반화되면서 발생하기 시작한 위·변조 등을 방지하는 일은 앞으로 남겨진 시급한 과제라 할 수 있다.

13. <보기>가 윗글의 집필 지침이라고 할 때, 글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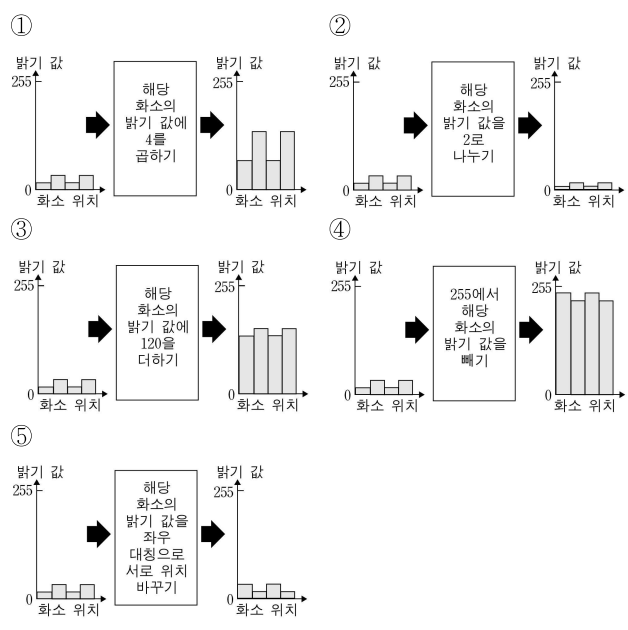
- <보 기>
- ㄱ. 실생활을 중심으로 설명할 것
 - ㄴ. 해당 기술의 개념을 제시할 것
 - ㄷ. 이해하기 쉽도록 그림을 활용할 것
 - ㄹ. 기술의 문제점과 해결 방법을 소개할 것
 - ㅁ. 사례를 제시하여 독자의 이해를 도울 것

-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ㄹ ⑤ ㅁ

14. ㉠의 내용으로 보아 디지털 영상 처리 기술을 사용하지 않고도 수행할 수 있는 작업은?

- ① 독사진의 디지털 영상에 손질을 가하여 친구들과 함께 찍은 것처럼 보이게 하였다.
- ② 과일 바구니를 촬영한 디지털 영상에서 과일을 방금 딴 것처럼 싱싱해 보이도록 하였다.
- ③ 촬영하다가 손 떨림으로 인해 흐려진 디지털 영상에서 번짐을 제거하여 깨끗하게 하였다.
- ④ 팩시밀리에서 문서를 디지털 영상으로 바꾸어 전송한 다음, 다른 팩시밀리에서 출력되도록 하였다.
- ⑤ 오래된 사진을 디지털 영상으로 바꾼 다음, 변색되거나 흠집이 난 부분을 없애서 최근에 촬영한 것처럼 보이게 하였다.

15. 밑글의 내용으로 보아 ㉠을 수행하는 과정에 가장 적합한 디지털 영상 처리 기술을 나타낸 것은? [3점]



[16~1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009.09

영웅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어떻게 신비화되고 통속화되는가, 영웅에 대한 기억이 시대에 따라 어떤 변천을 겪는가를 탐구하는 것은 ‘더 사실에 가까운 영웅’의 모습에 다가서려는 이들에게 필수적이다. 영웅을 둘러싼 신화가 만들어지고 전승되는 과정과 그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특히 국민 정체성 형성에 그들이 간여한 바를 추적함으로써, 우리는 영웅을 만들고 그들의 초상을 새롭게 덧칠해 온 각 시대의 서로 다른 욕망을 읽어 내어 그 시대로부터 객관적인 거리를 획득한다.

무릇 영웅이란 죽고 나서 한층 더 길고 ㉠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가며, 그런 사후 인생이 펼쳐지는 무대는 바로 후대인들의 변화무쌍한 기억이다. 잔 다르크는 계몽주의 시대에는 ‘신비와 경건을 가장한 바보 처녀’로 치부되었지만, 프랑스 혁명기와 나폴레옹 집권기에 와서는 애국의 ㉡ 화신으로 추앙받기 시작했다. 민족주의의 성장과 더불어 그 숭배의 열기가 더 달아올라, 19세기 공화주의적 민족주의자들은 잔을 ‘프랑스의 수호자’이자 ‘민중의 딸’로 재창조했다. 국경을 넘어 20세기 여성 참정권자들에게 잔은 ‘전투적 페미니즘’의 상징이었고 한국에서는 ‘프랑스의 유관순 열사’로 기억되었다.

영웅에 대한 후대인들의 기억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 추구하는 문제의식의 배경에는 ㉣ ‘기억의 관리’가 부와 권력의 분배 못지않게 중요한 사회적 과제라는 전제가 깔려 있다. 인간의 기억은 기본적으로 사회적 틀 내에서 형성되며, 시간적, 공간적으로 제한된 특정한 사회 집단에 의해서 선택적으로 전해진다. 그래서 기억의 문제는 개인적이라기보다는 집단적이며 사회적인 권력의 문제이다. 동시에 이는 기억과 ㉤ 포리 관계인 망각의 문제이기도 하다.

근대 역사에서 기억이 구성되고 가공되는 데 가장 중요한 단위는 ‘민족’이었다. 근대 역사학 자체의 탄생과도 밀접하게 관련되는 ‘민족의 과거’에 대한 기억에서 영웅은 중요한 기억의 터전을 차지해 왔다. 이때 영웅은 그저 비범한 능력의 소유자에 그치지 않고 민족의 영광과 상처를 상징하는 육화된 기호로서 구성원에게 동일시할 대상으로 나타난다.

이때 영웅은 종종 ‘애국’의 덕목과 결부되었다. 한국에서도 봉건 시대에 충군의 이념에 충실했던 인물이 계몽 운동기에 들어서 구국의 영웅으로 재탄생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다. 박은식, 신채호 등 개화기 지식인들이 ‘민족정신’에 눈뜨면서 재발견한 이순신이나 을지문덕과 같은 영웅은 이제 ‘충군’이 아닌 ‘애국’을 ㉥ 지상 과제로 삼는다. 이 같은 근대의 영웅은 서로 모르는 사람들을 하나의 ‘국민’으로 묶어 주는 상상의 원천이 되었다. 이렇게 영웅은 구성원 모두를 상하, 수평 관계 속에서 매개하고 연결한다는 의미에서 하나의 미디어였다.

16. 윗글로 미루어 알 수 있는 것은?

- ① 역사는 익명의 대중이 이끄는 것이다.
- ② 역사는 현재의 세계를 목적으로 하여 진보해 온 과정이다.
- ③ 역사는 객관성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과학으로서의 지위를 주장할 수 있다.
- ④ 역사는 우연의 지배를 받으므로 필연적인 인과 관계로 파악되지 않는다.
- ⑤ 역사는 과거의 사실 그 자체가 아니라 후대에 체계화된 지적 구성물이다.

17. ㉠의 사례로 보기 어려운 것은?

- ① 마을에 있는 효자비를 재정비하여 효행을 선양한다.
- ② 국민에게 존경받는 역사적 인물을 지폐 도안에 활용한다.
- ③ 역사 소설을 읽고 실재한 사실과 문학적 허구를 가려 본다.
- ④ 중요 무형 문화재 보유자를 지정하여 고유의 문화를 보존한다.
- ⑤ 전쟁 박물관의 전시를 통해 국난 극복의 역사를 널리 알린다.

18. <보기>는 역사 동아리 학생들이 윗글을 읽은 후 토론한 내용이다. <보기>에서 윗글의 논지에 부합하는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 기>

ㄱ. 영웅에 대한 각 시대의 평가는 곧 그 시대를 비추는 거울이요.

ㄴ. 영웅을 만들어 유포하는 체제는 결코 좋은 체제가 아닌 것 같아.

ㄷ. 근대 국가의 집단 정체성 형성에 애국적 영웅이 중요한 역할을 했군.

ㄹ. 영웅의 고난과 승리는 대중에게 강력한 정서적 영향을 끼치는 것 같아.

-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ㄱ, ㄴ, ㄹ
-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19. ㉠~㉥의 사전적 뜻풀이로 바르지 않은 것은?

- ① ㉠: 사람의 생활이나 일의 진행이 곡절과 시련이 많고 변화가 심함.
- ② ㉡: 분을 받을 만한 대상.
- ③ ㉢: 근본까지 깊이 캐어 들어가 연구함.
- ④ ㉣: 사물의 결과 속 또는 안과 밖을 통틀어 이르는 말.
- ⑤ ㉤: 가장 높은 위.

[24~2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009.09

영화의 역사는 신기한 눈요깃거리라는 출발점을 지나 예술적 가능성을 실험하며 고유의 표현 수단을 발굴해 온 과정이었다. 그 과정에서 미학적 차원의 논쟁과 실천이 거듭되었다. 그 중 리얼리즘 미학의 확립에 큰 역할을 한 인물로 프랑스 영화 비평가 바쟁이 있다.

바쟁은 '미라 콤플렉스'와 관련하여 조형 예술의 역사를 설명한다. 고대 이집트인이 만든 미라에는 죽음을 넘어서 생명을 길이 보존하고자 하는 욕망이 깃들어 있거니와, 그러한 '복제의 욕망'은 회화를 비롯한 조형 예술에도 강력한 힘으로 작용해 왔다고 한다. 그 욕망은 르네상스 시대 이전까지 작가의 자기 표현 의지와 일정한 균형을 이루어 왔다. 하지만 원근법이 등장하여 대상의 사실적 재현에 성큼 다가서면서 회화의 관심은 복제의 욕망 쪽으로 기울게 되었다. 그 상황은 사진이 발명되면서 다시 한 번 크게 바뀌었다. 인간의 주관성을 배제한 채 대상을 기계적으로 재현하는 사진이 발휘하는 모사의 신뢰도는 회화에 비할 바가 아니었다. 사진으로 인해 조형 예술은 비로소 복제의 욕망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

영화의 등장은 대상의 재현에 또 다른 획을 그었다. 바쟁은 영화를, 사진의 기술적 객관성을 시간 속에서 완성함으로써 대상의 ㉠살아 숨 쉬는 재현을 가능케 한 진일보한 예술로 본다. 시간의 흐름에 따른 재현이 가능해진 결과, ㉡더욱 많은 지문(指紋) 같은 현실을 제공하게 되었다. 바쟁에 의하면 영화와 현실은 본질적으로 친화력을 지닌다. 영화는 현실을 시간적으로 구현한다는 점에서 ㉢현실의 연장이며, 현실의 숨은 의미를 드러내고 현실에 밀도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현실의 정수이다. 영화의 이러한 리얼리즘적 본질은 그 자체로 심리적, 기술적, 미학적으로 완전하다는 것이 그의 시각이다.

바쟁은 형식주의적 기교가 현실의 복잡성과 모호성을 침해하여 현실을 왜곡할 수 있다고 본다. 그는 ㉣현실의 참모습을 변조하는 과도한 편집 기법보다는 단일한 썏*을 길게 촬영하는 롱 테이크 기법을 지지한다. 그것이 사건의 공간적 단일성을 존중하고 ㉤현실적 사건으로서의 가치를 보장하기 때문이다. 그는 또한 전경에서 배경에 이르기까지 공간적 깊이를 제공하는 촬영을 지지한다. 화면 속에 여러 층을 형성하여 모든 요소를 균등하게 드러냄으로써 현실을 진실하게 반영할 수 있으며 관객의 시선에도 자유를 부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영화는 현실을 겸손한 자세로 따라가면서 해석의 개방성을 담보해야 한다는 ㉠믿음, 이것이 바쟁이 내건 영화관의 핵심에 놓여 있다. 그 관점은 수많은 형식적 기교가 발달한 오늘날에도 많은 지지를 얻으며 영화적 실천의 한 축을 이루고 있다.

* 썏: 카메라가 한 번 촬영하기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의 연속된 한 화면 단위.

24. 윗글에 나타난 '바쟁'의 생각과 거리가 먼 것은?

- ① 조형 예술의 역사에는 '미라 콤플렉스'가 내재되어 있다.
- ② 영화는 회화나 사진보다 재현의 완성도가 높은 예술이다.
- ③ 영화는 현실을 의도적으로 변형하고 재구성하는 예술이다.
- ④ 영화는 현실의 풍부함과 진실을 드러낼 수 있는 예술이다.
- ⑤ 사진은 회화가 표현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

25. ㉠~㉣ 중 문맥상 지시하는 대상이 다른 하나는?

- ① ㉠ ② ㉡ ③ ㉢ ④ ㉣ ⑤ ㉤

26. 윗글에 동조하는 감독이 영화를 제작하였다. 이 영화에 대한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편집을 자제하고 있구나.
- ② 현실을 대하는 것 같은 공간적 깊이감을 보여주는구나.
- ③ 대상을 왜곡할 수 있는 기교를 배제하려고 노력하는구나.
- ④ 썏의 길이를 길게 하여 현실의 시간과 유사한 느낌을 주는구나.
- ⑤ 화면 속의 중심 요소에 주목하게 하여 관객의 시선을 고정하고 있구나.

27. <보기>의 내용을 근거로 볼 때, 단어의 구성이 ㉠와 같은 것은?

<보 기>

파생어는 어근과 접사가 결합한 말이다. 어근에는 여러 가지 품사의 말이 쓰일 수 있다. 가령 '가위질'은 접미사 '-질'이 명사 어근 '가위'에 붙은 말이고, '헛디디다'는 접두사 '헛-'이 동사 어근 '디디-'에, '새까맣다'는 접두사 '새-'가 형용사 어근 '까맣-'에 붙어 만들어진 말이다.

- ① 길이 ② 기쁨 ③ 털보
- ④ 오뎅이 ⑤ 달리기

[41~4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009.09

남극의 빙하는 과거 지구의 대기 성분과 기온 변화에 관한 기초 자료를 생생하게 보존하고 있다. 과학자들은 빙하를 분석함으로써 지구 온난화 등 지구가 겪고 있는 여러 문제에 대하여 중요한 정보를 얻고 있다.

남극의 표층에 쌓인 눈은 계속 내리는 눈에 덮이면서 점점 깊이가 매몰되고 그에 따라 눈의 밀도는 점차 증가한다. 일정한 깊이에 이르면 상부에 쌓인 눈이 가하는 압력 때문에 하부의 눈은 얼음으로 변형된다. 이때 눈 입자들 사이에 들어 있는 공기가 얼음 속에 갇히게 되고, 얼음이 두꺼워지면서 상부의 얼음이 가하는 압력이 증가하게 되면 클라트레이트 수화물*이 형성된다. 이 속의 기포들은 당시 대기의 기체 성분을 그대로 가지게 된다. 기포가 포함된 얼음을 시추하여 녹이면 원래의 상태로 바뀌고, 이때 기체 크로마토그래피 같은 정밀 기기를 사용하여 그 속의 기체 성분을 분석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이산화탄소나 메탄 등 과거 지구의 대기 성분과 농도를 알아낼 수 있다.

그러나 빙하 속 기포 내의 대기 성분 정보를 통해 그 당시의 기온을 알아내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과거의 기온을 조사하는 대표적인 방법은 빙하를 구성하는 물 분자의 산소나 수소의 동위원소비를 이용하는 것이다. 동위원소란 원자 번호는 같지만 원자량이 서로 다른 원소를 말하는데, 산소의 동위원소로는 원자량이 16인 산소(¹⁶O)와 원자량이 18인 산소(¹⁸O)가 있다. 남극 빙하를 구성하는 물 분자들의 산소 동위원소비(¹⁸O/¹⁶O)는 눈으로 내릴 당시의 기온 변화에 따라 증가하거나 감소하며 여름과 겨울 사이에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데, 그 증감은 일 년의 주기를 갖는다. 오늘날의 실험 결과에 따르면 산소 동위원소비의 증감은 기온 변화와 거의 정비례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관계를 적용하여 빙하가 만들어진 당시의 기온을 알아낼 수 있는 것이다.

빙하에 대한 최근 연구는 산소의 동위원소비뿐만 아니라 이산화탄소나 메탄의 농도 변화도 기온 변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이 기체들의 농도가 증가하면 기온이 올라가고 반대로 농도가 감소하면 기온이 내려간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빙하로부터 알게 된 과거 이산화탄소와 메탄의 농도 변화 폭과 비교해 볼 때, 오늘날 이들의 농도는 우려할 만큼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클라트레이트 수화물: 고압과 저온의 조건에서 물 분자가 결합하여 생성된 빈 공간에 메탄, 이산화탄소, 질소 등 분자량이 작은 기체가 들어 있는 결정체.

41. 윗글의 내용을 가장 잘 반영한 표제와 부제는?

- ① 남극 빙하의 가치
 - 기후 변화의 기록 보관소
- ② 남극 빙하 이야기
 - 지구 온난화와 환경오염 실태
- ③ 빙하 연구의 현주소
 - 과학적 연구 성과와 전망

- ④ 남극, 거대한 실험실
 - 동위원소 연구의 현황
- ⑤ 남극 빙하의 과거와 미래
 - 새로운 자원의 보고

42. 윗글을 바탕으로 과제를 수행할 때, <보기>의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 과제명: 1만 년 전부터 현재까지의 이산화탄소 농도와 기온 변화 양상
- 조사 대상: 남극에서 시추한 빙하
- 조사 방법 및 내용
 - 기체 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한 기체 성분 조사
 - 산소 동위원소비를 이용한 기온 측정
 - 산소 동위원소비 증감의 주기성을 이용한 (㉠) 조사

- ① 생성 연대 ② 오염 정도 ③ 평균 강도
- ④ 결정 구조 ⑤ 전체 부피

43. 윗글과 <보기>를 이용하여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그림은 시추한 빙하의 일부분과 그것을 확대한 것이다.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ㄱ. 시추한 빙하에는 화산재가 포함되어 있다.
- ㄴ. 시추한 지점의 표층 부분 눈의 밀도는 0.3g/cm³이다.
- ㄷ. 산소 동위원소비는 검은 띠 부분에서 증가하고 흰 부분에서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 ① A에 해당하는 시기에 화산 활동이 있었을 것이다.
- ② B 지점이 C 지점보다 당시 기온이 낮았을 것이다.
- ③ 시추한 빙하 하부의 밀도는 0.3g/cm³보다 클 것이다.
- ④ 시추한 빙하의 하부로 갈수록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증가할 것이다.
- ⑤ 깊이 50m인 지점보다 100m인 지점의 얼음이 먼저 만들어졌을 것이다.

[44~4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09.09

선거 기간 동안 여론 조사 결과의 공표를 금지하는 것이 사회적 책점이 되고 있다. 조사 결과의 공표가 유권자 투표 의사에 영향을 미쳐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다는 주장과, 공표 금지가 선거 정보에 대한 언론의 접근을 제한하여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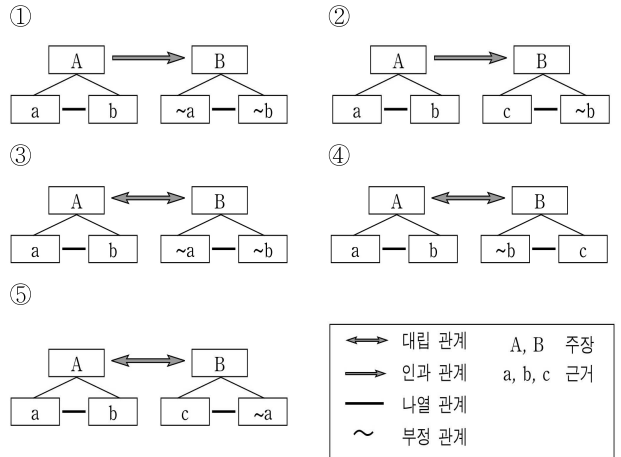
찬성론자들은 먼저 ㉠ ‘밴드왜건 효과’와 ‘열세자 효과’ 등의 이론을 내세워 여론 조사 공표의 부정적인 영향을 부각시킨다. 밴드왜건 효과에 의하면, 선거일 전에 여론 조사 결과가 공표되면 사표(死票) 방지 심리로 인해 표심이 지지도가 높은 후보 쪽으로 이동하게 된다. 이와 반대로 열세자 효과에 따르면, 열세에 있는 후보자에 대한 동정심이 발동하여 표심이 그쪽으로 움직이게 된다. 각각의 이론을

[A] 통해 알 수 있듯이, 여론 조사 결과의 공표가 어느 쪽으로든 투표 행위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선거일에 가까워질수록 공표가 갖는 부정적 효과가 극대화되기 때문에 이를 금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또한 공정한 여론 조사가 진행될 수 있는 제반 여건이 아직은 성숙되지 않았다는 점도 강조한다. 그리고 금권, 관권 부정 선거와 선거 운동의 과열 경쟁으로 인한 폐해가 많았다는 것이 경험적으로도 확인되었다는 사실을 그 이유로 든다.

이와 달리 반대론자들은 무엇보다 표현의 자유를 실현하는 수단으로서 알 권리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알 권리는 국민의 의사를 형성하는 데 전제가 되는 권리인 동시에 국민 주권 실천 과정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정보와 사상 및 의견을 자유롭게 구할 수 있음을 강조하는 권리이다. 그리고 이 권리는 언론 기관이 ‘공적 위탁 이론’에 근거해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아 행사하는 것이므로, 정보에 대한 언론의 접근이 보장되어야 충족된다. 후보자의 지지도나 당선 가능성 등에 관한 여론의 동향 등은 이 알 권리의 대상에 포함된다. 따라서 언론이 위임받은 알 권리를 국민의 뜻에 따라 대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론 조사 결과의 공표를 금지하는 것은 결국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논리이다. 또 이들은 조사 결과의 공표가 선거의 공정성을 방해한다는 분명한 증거가 제시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조사 결과의 공표가 선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확실하게 증명되지 않았음도 강조한다.

[B] 우리나라 현행 선거법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 당일까지 조사 결과의 공표를 금지하고 있다. 선거 기간 내내 공표를 제한했던 과거와 비교해 보면 금지 기간이 대폭 줄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점은 공표 금지에 대한 찬반 논쟁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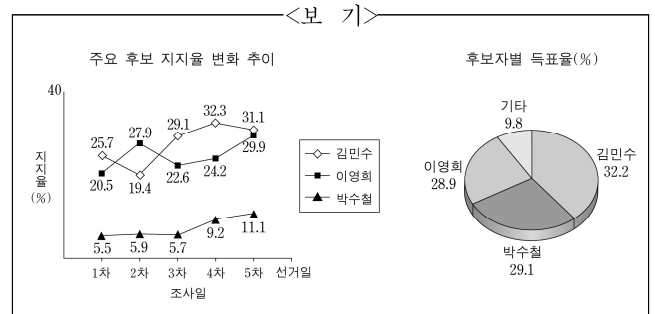
44. [A]와 [B]의 관계를 도식화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45. 밑글을 읽고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언론 기관이 알 권리를 대행하기도 한다.
- ② 알 권리는 법률에 의해 제한되기도 한다.
- ③ 알 권리가 제한되면 표현의 자유가 약화된다.
- ④ 알 권리에는 정보 수집의 권리도 포함되어 있다.
- ⑤ 공표 금지 기간이 길어질수록 알 권리는 강화된다.

46. ㉠을 바탕으로 <보기>를 적절하게 분석한 것은?



- ① 이영희 후보의 지지율과 득표율을 보니 밴드왜건 효과가 나타난 것 같군.
- ② 박수철 후보의 5차 조사 결과와 득표율을 보니 열세자 효과가 나타난 것 같군.
- ③ 2차와 3차 조사 사이에 김민수 후보에게 밴드왜건 효과가 나타난 것 같군.
- ④ 3차와 4차 조사 사이에 박수철 후보에게 밴드왜건 효과가 나타난 것 같군.
- ⑤ 김민수 후보와 이영희 후보의 득표율을 보니 열세자 효과가 나타난 것 같군.

[13~1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009.06

신기루는 그 자리에 없는 어떤 대상이 마치 있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을 말한다. 그러나 신기루는 환상이나 눈속임이 아니라 원래의 대상이 공기층의 온도 차 때문에 다른 곳에 보이게 되는 현상이다. 찬 공기층은 밀도가 크고 따뜻한 공기층은 밀도가 작다. 이러한 밀도 차이는 빛이 공기를 통과하는 시간을 변화시키는데, 밀도가 클수록 시간이 더 걸리게 된다. 이때 공기층을 지나는 빛은 밀도가 다른 경계면을 통과하면서 굴절한다. 따라서 신기루는 지표면 공기와 그 위 공기 간의 온도 차이가 큰 사막이나 극지방에서 쉽게 관찰할 수 있다.

뜨거운 여름, 사막의 지표면은 쉽게 햇볕을 받아 가열되고, 지표면 공기는 그 위층의 공기에 비해 쉽게 뜨거워진다. 뜨거운 공기는 차가운 공기에 비해 밀도가 작는데, 이러한 밀도 차이에 의해 빛이 굴절하게 된다. 나무 한 그루가 사막 위에 있다고 가정하자. 나무의 윗부분에서 나온 빛의 일부는 직진하여 사람 눈에 곧바로 도달하므로 우리 눈에는 똑바로 선 나무가 보인다. 그러나 그 빛의 일부는 아래로 가다가 밀도가 큰 공기층을 지나며 계속 굴절되어 다시 위로 올라가고, 나무의 아랫부분에서 출발한 빛은 계속 굴절되면서 더 위쪽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두 빛의 위치가 바뀌기 때문에 사람에게서 나무가 거꾸로 서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를 ‘아래 신기루’라고 한다. 따라서 멀리서 볼 때는 바로 선 나무와 그 밑에 거꾸로 선 나무의 영상이 동시에 보이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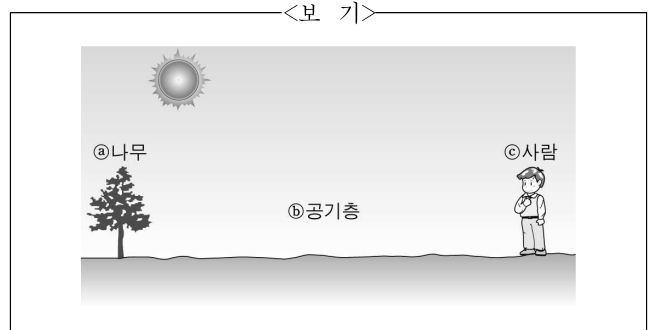
매우 추운 지역에서도 신기루는 일어난다. 극지방의 눈 덮인 지표면 공기는 늘 그 상공의 공기보다 훨씬 차다. 찬 공기층의 밀도는 크고, 따뜻한 공기층의 밀도는 작다. 이러한 밀도 차이에 의해 빛은 밀도가 큰 지표면 쪽으로 굴절되어 우리 눈에 들어 오게 된다. 따라서 극지방에 있는 산봉우리는 실제보다 위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현상을 ㉠ ‘위 신기루’라고 부른다.

신기루가 나타나는 상황은 다양하다. 더운 여름철 오후에는 지표면 온도가 쉽게 높아진다. 이때 가열된 아스팔트 도로 위를 차로 달리면, 전방의 도로 면에 물웅덩이가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 그런데 차가 접근하면 이는 곧 사라지고 얼마쯤 앞에 물웅덩이가 또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지표면과 그 위 공기 간에 온도 차이가 생겨서 하늘에서 오는 빛이 굴절되어 내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다. ㉡ 아지랑이도 신기루의 일종이다. 날씨가 갑자기 따뜻해지는 봄날, 지표면 부근의 가열된 공기는 상승·하강하면서 불규칙적인 밀도 변화를 일으킨다. 이러한 변화는 빛의 굴절 차이를 일으키게 되는데 이로 인해 아지랑이가 발생한다. 이 경우 물체의 위치는 변하지 않고, 아지랑이 때문에 물체가 그 자리에서 어른거리는 것처럼 보인다.

13. 윗글로 미루어 알 수 있는 것은?

- ① 신기루는 사막과 극지방에서만 나타난다.
- ② 빛은 밀도가 작은 쪽에서만 굴절하는 속성이 있다.
- ③ 신기루가 나타나려면 그 부근에 대상이 있어야 한다.
- ④ 공기층의 밀도 차이가 없어도 신기루가 생길 수 있다.
- ⑤ 도로에서 굴절 현상이 일어나려면 주변에 물이 있어야 한다.

14.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뜨거운 사막에서 거꾸로도 보인다.
- ② ㉠은 극지방의 산 정상에 있다면 본래 위치보다 위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
- ③ ㉠은 ㉢의 온도가 일정하면 ㉡에게 똑바로 보인다.
- ④ ㉢은 뜨거운 사막의 지표면에 가까워질수록 밀도가 더 커진다.
- ⑤ ㉢의 아랫부분이 윗부분보다 온도가 높으면 빛은 굴절되어 ㉡에게 간다.

15. ㉠과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은 ㉡에 비해 오랫동안 지속된다.
- ② ㉠은 흐린 날에, ㉡은 맑은 날에 보인다.
- ③ ㉠에서는 상공을 향해 빛의 굴절이 일어난다.
- ④ ㉠은 가까이 다가가도 사라지지 않지만, ㉡은 사라진다.
- ⑤ ㉠은 물체가 실제보다 위로 보이고, ㉡은 아래로 보인다.

[16~1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009.06

현대인은 타인의 고통을 주로 뉴스나 영화 등의 매체를 통해 경험한다. 타인의 고통을 직접 대면하는 경우와 비교할 때 그와 같은 간접 경험으로부터 연민을 갖기는 쉽지 않다. 더구나 현대 사회는 사적 영역을 침범하지 않도록 주문한다. 이런 존중의 문화는 타인의 고통에 대한 지나친 무관심으로 변질될 수 있다. 그래서인지 현대 사회는 소박한 연민조차 느끼지 못하는 불감증 환자들의 안락하지만 황량한 요양소가 되어 가고 있는 듯하다.

연민에 대한 정의는 시대와 문화, 지역에 따라 가지각색이지만, 다수의 학자들에 따르면 연민은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될 때 생긴다. 먼저 타인의 고통이 그 자신의 잘못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우연히 닥친 비극이어야 한다. 다음으로 그 비극이 언제든지 나를 엄습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야 한다. 이런 조건에 비추어 볼 때 현대 사회에서 연민의 감정은 무더질 가능성이 높다. 현대인은 타인의 고통을 대부분 그 사람의 잘못된 행위에서 비롯된 필연적 결과로 보며, 자신은 그러한 불행을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도 연민은 생길 수 있으며 연민의 가치 또한 커질 수 있다. 그 이유를 세 가지로 제시할 수 있다. 첫째, 현대 사회는 과거보다 안전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도처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둘째, 행복과 불행이 과거보다 사람들의 관계에 더욱 의존하고 있다. ㉠ 친밀성은 줄었지만 사회·경제적 관계가 훨씬 촘촘해졌기 때문이다. 셋째, 교통과 통신이 발달하면서 현대인은 이전에 몰랐던 사람들의 불행까지도 의식할 수 있게 되었다. 물론 간접 경험에서 연민을 갖기가 어렵다고 치더라도 고통을 대면하는 경우가 많아진 만큼 연민의 필요성이 커져 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볼 때 ㉡ 연민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며 그만큼 가치도 높다.

진정한 연민은 대부분 연대로 나아가간다. 연대는 고통의 원인을 없애기 위해 함께 행동하는 것이다. 연대는 멀리하면서 감성적 연민만 외치는 사람들은 은연중에 자신과 고통받는 사람들이 뒤섞이지 않도록 두 집단을 분할하는 벽을 쌓는다. 이 벽은 자신의 불행을 막으려는 방화벽이면서, 고통받는 타인들의 진입을 차단하는 성벽이다. ‘입구 없는 성’에 출구도 없듯, 이들은 성 바깥의 위험 지대로 나가지 않는다. 이처럼 안전지대인 성 안에서 가진 것의 일부를 성벽 너머로 던져 주며 자족하는 동정도 가치 있는 연민이다. 그러나 진정한 연민은 벽을 무너뜨리며 연대하는 것이다.

16.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사회가 위험해지면 연민은 많아진다.
- ② 동정으로 끝나는 연민도 가치가 있다.
- ③ 현대인은 타인의 고통에 무관심한 경향이 있다.
- ④ 연민은 가까운 사람에게만 느끼는 것은 아니다.
- ⑤ 연민은 동양과 서양에서 다르게 규정할 수 있다.

17. ㉠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제시할 수 없는 것은?

- ① 자연 환경이 파괴되면서 피부암 환자가 많아졌다.
- ② 행위 결과에 스스로 책임지지 않는 사람이 많아졌다.
- ③ 뉴스를 통해 이주민의 고통을 알게 된 사람이 많아졌다.
- ④ 사람들 간의 이해관계가 이전보다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다.
- ⑤ 공장 이전으로 직장을 얻는 사람이 있으면 잃는 사람도 있다.

18.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경수’를 평가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경수는 어떤 할머니의 고통을 소개하는 방송을 보았다. 경수는 할머니가 불행에 대비하지 못한 것이 할머니 자신의 탓이고, 그 불행이 자기에게는 닥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렇지만 할머니가 불쌍하다고 느껴져서 방송 도중 전화 모금에 참여했다. 마음은 뿌듯했지만 경수의 일상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 ① 불행의 원인을 사회적 관계에서 찾지 않는 아쉬움이 있군.
- ② 간접 경험을 통해서도 연민을 느낄 수 있음을 보여 주는군.
- ③ 사전에 예방이 가능한 불행을 연민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군.
- ④ 연민 때문에 도움을 주긴 했지만 연대로 나아가지 못한 아쉬움이 있군.
- ⑤ 타인의 비극이 나를 엄습할 수 있다는 인식이 없어도 연민을 가질 수 있군.

19. 밑줄 친 말 중, ㉡의 상황을 표현하는 데 쓰일 수 없는 것은?

- ① 그 사람과는 너나들이하는 사이다.
- ② 그들은 테면테면하게 수인사를 나누었다.
- ③ 그는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이방인처럼 걸돈다.
- ④ 석 달 동안 헤어져 있었대서 설면할 것은 없으련마는.
- ⑤ 그 일이 있은 후로 그 사람과 서먹서먹하게 지내고 있어.

[24~2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09.06

㉠ 현대 산업 체제에서 도량형의 통일된 표준이 없다면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18세기 말부터 국제적인 표준을 만들려는 노력이 꾸준히 이루어졌다.

1791년에 처음으로 프랑스 과학아카데미는 북극에서 파리를 지나 적도까지 이르는 자오선 길이의 1000만분의 1을 ‘1미터’라고 정의하였다. 그러나 자오선 길이는 측정이 어렵기 때문에 이 정의에 따라 ㉡ 눈금자를 만드는 일은 쉽지 않았다.

그 뒤 1875년에 미터 조약이 만들어졌고 이에 따라서 1889년에 열린 제1차 국제도량형총회(CGPM)는 안정성 높은 백금-이리듐 합금 막대로 제작된 ‘미터 원기(原器)’를 새 표준으로 정의하였다. 그러나 이렇게 만들어진 국제 미터 원기는 온도나 압력에 따라 물리적 특성이 변하거나 훼손될 경우, 원래와 똑같이 복원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변하지 않는 자연 대상을 바탕으로 언제든지 복원 가능한 표준을 새로 개발할 필요가 있었다.

20세기 과학의 발달로 원자 수준의 현상에 대한 정밀 측정이 가능해졌다. 원자는 내부에 일정한 에너지 준위(準位)들이 형성되어 있다. 이때 원자 안의 전자가 높은 준위에서 낮은 준위로 전이될 때 방출되는 복사선들은 각각 불변하는 고유의 파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1960년 제11차 총회는 크립톤이라는 원자에서 나오는 오렌지색 복사선의 파장 길이를 표준으로 정의하였다.

“미터는 크립톤-86 원자의 $2p_{10}$ 과 $5d_5$ 준위 간의 전이에 대응하는 복사선의 진공 중 파장의 1,650,763.73배와 같은 길이이다 (CGPM, 1960).”

그러나 이 정의도 크립톤 램프에서 나오는 빛의 세기가 약하므로 실제로 활용하려면 여전히 어려움이 많았다.

1960년대 이후 개발된 레이저 빛은 멀리까지 퍼지지 않고 직진하기 때문에 길이 측정에 유용함이 입증되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빛의 속력은 항상 일정하므로, 레이저를 이용하여 빛의 속력을 길이 표준에 이용하자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이 의견은 1983년 제17차 총회에 반영되어 미터 정의가 현재와 같이 개정되었다.

“미터는 빛이 진공에서 299,792,458분의 1초 동안 진행한 경로의 길이이다(CGPM, 1983).”

여기서 빛의 속력이 정확한 값으로 고정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과거에는 속력을 정하려면 이동 거리와 시간을 측정해야만 했다. 그런데 측정은 항상 오차를 가지게 마련이므로 측정으로 표준을 정하면 값을 확정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측정된 빛의 속력은 299,792,458(1.2)m/s라는 식으로 복잡하게 표현되었는데 여기서 괄호는 측정 불확정도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새로운 정의에서 빛의 속력은 불확정도가 0인 정확한 값으로 규정된다. 그 대신 길이의 정의에 따라 속력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역으로 빛의 속력을 기준으로 길이를 정의하게 된 것이다.

[A]

24. 윗글의 내용으로 알 수 있는 것은?

- ① 표준의 정의는 더 좋은 측정 방법이 발견되더라도 변경하면 안 된다.
- ② 자오선의 길이는 언제든지 측정이 가능하므로 복원 가능한 표준이 될 수 있다.
- ③ 원자에서 방출되는 복사선의 파장은 변하지 않으므로 표준이 될 수 있다.
- ④ 1960년의 길이 표준과 1983년의 길이 표준은 빛의 동일한 속성을 이용했다.
- ⑤ 백금-이리듐 합금은 인공물이기 때문에 국제적 표준이 될 수 없다.

25. ㉠의 사례로 보기 어려운 것은?

- ① 휴대폰 충전기가 모델마다 달라서 호환 문제가 발생한다.
- ② 병원의 체온계마다 측정된 온도가 달라서 오진이 우려된다.
- ③ 건전지 전압이 제조 회사마다 달라서 전자 제품이 고장 난다.
- ④ 생산된 부품들의 치수가 공장마다 달라서 자동차가 고장 난다.
- ⑤ 시계의 시각이 은행마다 달라서 사업자 간에 손해 배상 소송이 제기된다.

26. [A]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속력이 길이의 표준을 결정하게 되었다.
- ② 길이의 측정값은 불확정도가 0이 될 수 없다.
- ③ 빛은 진공에서 1초에 299,792,458미터를 진행한다.
- ④ 시간의 표준이 길이의 표준보다 먼저 결정되어야 한다.
- ⑤ 빛의 속력은 오차가 0이 되도록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

27. ㉡은 ‘눈금’과 ‘자’가 [형체]와 [형체가 새겨지는 대상]이라는 의미 관계로 결합한 합성어이다. 다음 중 이와 같은 의미 관계를 보이는 것은?

- ① 꽃무늬 ② 삼각자 ③ 저울눈
- ④ 그림물감 ⑤ 모눈종이

[40~4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009.06

몇 해 전 경북 안동의 묘에서 16세기에 쓰인 한글 편지가 발견되어 세간의 관심을 끌었다. 여기에는 먼저 세상을 떠난 남편에 대한 절절한 애도의 마음이 담겨 있었다. 이와 같이 조선 시대에 쓰인 옛 한글 편지를 ‘언간(諺簡)’이라 한다. 언간은 우리말의 옛 모습을 살펴볼 수 있고 당시 언중들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귀중한 문헌 자료이다. 지금까지 많은 언간이 전해지지만 사대부 간에 주고받은 것은 찾아보기 어렵다. 또한 그 내용에 있어서도 개인적인 사연이나 감정을 드러낸 것이 대부분이었다.

언간의 특징 중에서 두드러진 것은 언간이 당시 자료인 언해(諺解)*에 보이는 문체적 특징과 비교하여 큰 차이를 보인다는 점이다. 언해 자료는 번역의 속성상 원문인 한문의 간섭이나 제약이 많이 받는다. 예를 들어 17세기 언해 자료인 『동국신속삼강행실도』의 ‘그 어미와 밋 식어미로 더브러(與其母及姑)’ 부분을 보면, 우리말 어법에 필요 없는 ‘밋’이 더 들어 있다. 또한 ‘밤 들매 미처 ㅁ마니 나가’라고 해야 할 것을 ‘밋 밤 들매 ㅁ마니 나가(及夜間潛出)’라고 하여 어순이 부자연스럽다. 그러나 언간은 원문의 간섭이나 제약이 애초부터 없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우리말의 모습을 보여 준다.

언간은 특정 청자와의 대화 상황을 전제하기 때문에 어느 자료보다 구어적 성격이 강하다.

자네 여히고 아미려 내 살 세 업스니 수이 자네한테 가고져
 하니 날 드려 가소 자네 향히 ㅁ으물 츀싱 니줄 주리 업스니
 (자네 여히고 아무래도 내 살 수가 없으니 빨리 자네한테
 가고자 하니 날 데려 가소. 자네 향한 마음을 이승에서 잊을
 줄이 없으니)

위에서 보듯이 아내가 남편한테 ‘자네’라는 호칭어를 쓰면서 애절한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또한 조사 ‘에게’에 비해 구어적 성격이 강한 ‘한테’의 옛 형태인 ‘한테’가 이미 16세기 언간에서부터 쓰이고 있었고, ‘혀’가 ‘히’로 축약된 어형이 언해에 비해 상대적으로 일찍 나타나고 있다.

한편, 구어적 성격은 다른 언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체후 일행 만안흐옵신지 뵙 복모 간절흐옵고 …… 자서한 말심을’에는 당시 중앙어의 일반적인 어형인 ‘일향(一向)’, ‘병(竝)’, ‘말슴’ 등과 비교할 때, 고유어는 물론 한자어에도 방언형이 등장한다.

이 밖에 언간은 직접 손으로 쓴 편지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표기의 효율성과 관련된 특징이 나타난다. 하나는 ‘ㄴ’(재점)을 이용한 표기이다. ㉠ ‘총 ㄴ 그만 굿치압’, ‘더옥 ㄴ 근심코 인노라’, ‘너히나 가 보고자 ㄴ 브라느니’, ‘부디 ㄴ 잘 지니여라’, ‘황송 ㄴ 흐오이다’에서 재점은 각각 ‘총’, ‘더옥’, ‘보고자’, ‘부디’, ‘황송’을 반복한 것이다. 다른 하나는 생략 표기이다. 오늘날 ‘바빠’의 의미에 해당하는 ‘밧바’를 ‘밧’으로, ‘잠깐’으로 써야 할 것을 ‘잠’으로 쓰기도 한다. 또한 언간의 끝을 ‘이만 적습’으로 하거나 ‘여의치 못흐옵’을 ‘여의치 못’으로 쓰기도 한다.

* 언해: 한문을 한글로 풀어 쓴 글.

40. ‘언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언해보다 원문의 간섭과 제약이 컸다.
- ② 언해에 비해 우리말 어법에 부합했다.
- ③ 주로 공적인 목적으로 쓰였다.
- ④ 대화 상황을 전제하지 않았다.
- ⑤ 남성들이 주로 창작하였다.

41. <보기>는 오늘날 편지의 일부이다. 윗글과 ㉠~㉣를 관련지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 자네가 성공했다는 소식을 듣고 기쁘기 그지없었네. 십 년 전을 떠올리며 자네 ㉡한테 걸었던 기대를 다시 생각해 보았네. 앞으로도 목표를 ㉢ 향해 정진할 것을 믿네. 부모님 께도 안부 ㉣ 말씀을 전해 드리게. 앞날에 행운이 있기를 바라며 이만 ㉤ 적겠네.

2008년 ○월 ○일 홍길동

- ① ㉠은 오늘날 높임의 의미가 약화되었고 사용 범위도 제한적이다.
- ② ㉡는 오늘날에도 구어적인 말투에 더 잘 쓰이는 경향이 있다.
- ③ ㉢와 같이 축약된 형태의 말이 일찍이 언간에서도 확인된다.
- ④ ㉣는 언간에서 어느 지역에서나 ‘말심’으로 쓰였을 것이다.
- ⑤ ㉤는 언간에서 종결형 어미가 생략되어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42. ㉠에서 <보기>의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는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언간에 사용된 재점은 글자나 단어가 반복될 때 다시 쓰는 번거로움과 운필(運筆)의 노력을 덜기 위하여 사용되었는데, 글쓴이의 주관적 감정을 강조하는 효과를 낳기도 하였다.

- ① 총 ㄴ 그만 굿치압
- ② 더옥 ㄴ 근심코 인노라
- ③ 너히나 가 보고자 ㄴ 브라느니
- ④ 부디 ㄴ 잘 지니여라
- ⑤ 황송 ㄴ 흐오이다

[43~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009.06

정부는 조세를 부과해 재정 사업을 위한 재원을 마련한다. 그런데 조세 정책의 원칙 중 하나가 공평 과세, 즉 조세 부담의 공평한 분배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얼마의 조세를 부과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하다. 정부는 특정 조세에 대한 납부자를 결정하게 되면 조세법을 통해 납부 의무를 지운다. 그러나 실제로는 납부자의 조세 부담이 타인에게 전가되는 현상이 흔히 발생하는데, 이를 '조세전가(租稅轉嫁)'라고 한다.

[A] 정부가 불펜에 자루당 100원의 물품세를 생산자에게 부과한다고 하자. 세금 부과 전에 자루당 1,500원에 100만 자루가 거래되고 있었다면 생산자는 총 1억 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할 것이다. 이로 인해 손실을 입게 될 생산자는 1,500원이라는 가격에 불만을 갖게 되므로 가격을 100원 더 올리려고 한다. 생산자가 불만을 갖게 되면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한다. 그러나 가격이 한없이 올라가는 것은 아니다. 가격 상승으로 생산자의 불만이 누그러지지만 반대로 소비자의 불만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결국 시장의 가격 조정 과정을 통해 양측의 상반된 힘이 균형을 이루는 지점에 이르게 되며, 1,500원~1,600원 사이에서 새로운 가격이 형성된다. 즉 생산자는 법적 납부자로서 모든 세금을 납부하겠지만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에 자루당 실제 부담하는 세금을 그만큼 줄이게 되는 셈이다. 반면에 소비자는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게 되므로 가격이 상승한 만큼 세금을 부담하는 셈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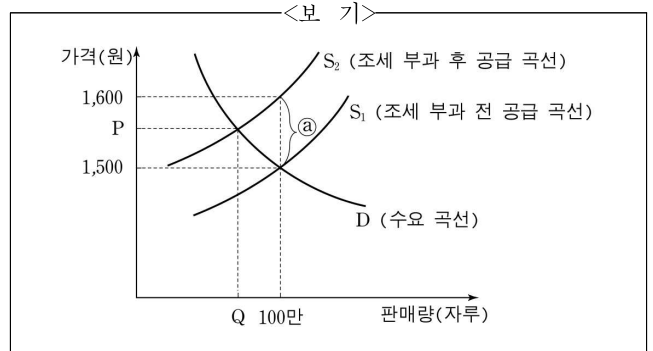
한편, 조세전가가 한 방향으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동일한 세금을 소비자에게 부과한다고 하자. 소비자는 자루당 1,500원을 생산자에게 지불해야 하므로 실제로는 1,600원을 지출해야 한다. 이에 대해 소비자는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다. 소비자의 불만이 시장에 반영되면 시장의 가격 조정 기능이 작동하여 가격이 하락하게 되며, 최종적으로 소비자는 가격 하락 폭만큼 세금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즉 정부가 소비자에게 세금을 부과한다 해도 생산자에게 조세가 전가된다.

그렇다면 양측의 실제 부담 비중은 어떻게 결정될까? 이는 소비자나 생산자가 제품 가격의 변화에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가격 변화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가 구입량을 크게 바꾸지 못하는 경우, 어느 측에 세금을 부과하든 ① 소비자가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생산자에게 세금을 부과할 때에는 가격 상승 요구가 더욱 강하게 반영되어 새로운 가격은 원래보다 훨씬 높은 수준에서 형성될 것이다. 즉 생산자의 세금이 소비자에게 많이 전가된다. 그러나 소비자에게 세금을 부과할 때에는 가격 하락 요구가 잘 반영되지 않아 가격이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 그로 인해 소비자가 대부분의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한편, 가격 변화에도 불구하고 생산자가 생산량을 크게 바꾸지 못하는 경우에는 누구에게 세금이 부과되든 ② 생산자가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조세전가 현상으로 인해 정부는 누가 진정한 조세 부담자인지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43. '조세전가'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소비자나 생산자가 제품 가격의 변화에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에 따라 조세 부담 비중이 달라진다.
- ② 누구에게 세금이 부과되든 소비자와 생산자가 동시에 조세전가의 혜택을 누린다.
- ③ 조세전가가 발생하면 그에 따라 물품세의 단위당 조세액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 ④ 생산자에게 조세가 부과될 경우 결국 소비자가 세금을 전액 부담하게 된다.
- ⑤ 조세전가가 발생하면 시장의 가격 조정 기능이 상실된다.

44. [A]를 <보기>와 같이 그래프로 그렸다. 이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조세 부과 후 소비자는 P를 자루당 가격으로 지불한다.
- ② 조세 부과 후 생산자는 ①을 자루당 조세액으로 납부한다.
- ③ 조세를 100원에서 50원으로 줄이면 공급 곡선 S₁이 오른쪽 아래로 이동한다.
- ④ 소비자의 자루당 세금 부담액은 P에서 1,500원을 뺀 것이다.
- ⑤ 조세 부과로 판매량이 100만 자루에서 Q로 줄어들게 된다.

45. ㉠, ㉡에 해당하는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바나나 가격이 오르면 곧 오렌지를 구매하는 소비자
- ② ㉠: 커피 가격이 오르면 커피 구입을 쉽게 줄이는 소비자
- ③ ㉠: 상표와 상관없이 가장 저렴한 샴푸를 구매하는 소비자
- ④ ㉡: 사과를 오래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소유한 농장주
- ⑤ ㉡: 유행이 바뀌어 재고를 처분해야 하는 액세서리 생산자

MEMO

MEMO

[19~2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008.11

촉매는 마법의 돌이라고도 불린다. 화학 공정을 통하여 저렴하고 풍부한 원료로부터 원하는 물질을 제조하고자 할 때, 촉매는 활성화 에너지가 낮은 새로운 반응 경로를 제공하여 마치 마술처럼 원하는 반응이 쉽게 일어나도록 ㉠ 돕기 때문이다. 제1차 세계 대전 직전에 수소와 질소로부터 암모니아의 합성을 가능하게 하여 식량 증산에 크게 기여하였던 철 촉매에서부터 최근 배기가스를 정화하는 데 사용되는 백금 촉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촉매가 의식주, 에너지, 환경 등 여러 가지 문제 해결의 핵심 기술이 되고 있다. 그러나 전통적인 공업용 촉매 개발은 시행착오를 반복하다가 요행히 촉매를 발견하는 식이었기 때문에 ‘촉매가 보였다’고 말하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촉매 설계 방법이 제안되었는데, 이는 표면 화학 기술과 촉매 공학의 발전으로 가능해졌다. 촉매 설계 방법은 ㉡ 회귀 경로를 통하여 오류를 최소 과정 내에서 통제할 수 있는 체계로서 크게 세 단계로 이루어진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대상이 되는 반응을 선정하고, 열역학적 검토와 경제성 평가를 거쳐 목표치를 설정한다. 이 단계에서 열역학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원하는 수준의 경제성에 도달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설계의 처음으로 되돌아간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반응물이 촉매 표면에 흡착되어 생성물로 전환되는 반응 경로 모델을 구상하며, 그 다음에 이 모델대로 반응의 진행을 쉽게 하는 활성 물질, 활성 물질의 기능을 증진시키는 증진제, 그리고 반응에 적합한 촉매 형태를 유지시키는 지지체를 선정한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앞에서 선정된 조합으로 촉매 시료를 제조한 후 실험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촉매의 활성, 선택성, 내구성을 평가한다. 여기서 결과가 목표치에 미달하면 다시 촉매 조합을 선정하는 단계로 돌아가며, 목표치를 달성하는 경우에도 설정된 경로 모델대로 반응이 진행되지 않았다면, 다시 경로 모델을 설정하는 단계로 회귀한다. 설정된 경로 모델에 따라 목표치에 도달하면 촉매 설계는 완료된다.

미래 사회에서는 에너지 자원의 효율적 사용과 환경 보존을 최우선시하여, 기존 공정을 개선하거나 환경 규제를 충족하기 위해서 다양한 촉매의 개발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특히 기존 공정을 개선하기 위해서 반응 단계는 줄이면서도 효과적으로 원하는 물질을 생산하고, 낮은 온도에서 선택적으로 빠르게 반응을 진행시킬 수 있는 새로운 촉매가 필요하게 된다. 촉매 설계 방법은 환경 및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는 마법의 돌을 만드는 체계적 접근법이다.

19. 윗글의 내용으로 알 수 있는 것은?

- ① 촉매 설계법의 회귀 경로를 따라가면 촉매를 재사용할 수 있다.
- ② 전통적인 촉매 개발 과정에서는 개발 완료 시점을 예측할 수 있다.
- ③ 전통적인 촉매 개발은 시각적 방법에 의존하기 때문에 비효율적이다.
- ④ 설계를 통한 촉매 개발은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에 도움을 줄 수 있다.
- ⑤ 반응이 열역학적으로 가능하도록 돕는 촉매는 원하는 수준의 경제성에 도달하게 한다.

20. ㉠과 가장 가까운 사례는?

- ① 영수는 사물함의 비밀번호를 잊어버려 고민하다가 여러 번호를 입력해 보았다. 그 결과 운 좋게 세 번 만에 사물함을 열었다.
- ② 영희는 중학생 때 「데미안」을 반복해서 읽었으나 잘 이해되지 않았다. 그 후 고등학생이 되어 다시 읽어 보니 내용이 쉽게 이해되었다.
- ③ 민수는 좋은 시어를 찾기 위해 사전을 뒤졌으나 적절한 시어를 발견할 수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소설을 읽다가 멋진 시어가 떠올랐다.
- ④ 유진은 방송국 홈페이지에 열심히 글을 올리다가 우연히 경품 응모에 당첨되었다. 그 후 유진은 계속해서 글을 올렸고, 경품을 타는 횟수가 더욱 늘어났다.
- ⑤ 철수는 수영 실력이 늘지 않아 코치의 조언에 따라 기본자세를 고쳐 기록을 향상시켰다. 그 후 기록이 정체되어 다시 코치의 조언을 받아 터하는 법을 고쳐 기록을 더욱 향상시켰다.

21. <보기>는 촉매 설계법에 따라 촉매를 개발한 사례의 일부이다. 밑줄로 보아 <보기>에 이어질 과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M사는 염화수소로부터 염소를 생산하는 공정에 사용될 새로운 촉매를 설계하려고 한다. 먼저 열역학적 검토와 경제성 평가를 거쳤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중형 규모의 공장의 경우, 조업 온도 350°C에서 촉매 1kg이 시간당 400L의 염화수소를 처리하고 염화수소의 전환율이 70%가 되도록 목표치를 설정하였다. 다음은 관련 사항을 검토하여 두 개의 반응식으로 구성된 반응 경로 모델을 설정하고, 설정된 경로대로 반응을 진행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촉매 조합인 ‘크롬 조합-1’을 선정하였다. 그 다음은 선정된 촉매 조합의 평가 실험을 수행하였다. 실험 결과를 분석해 보니 염화수소의 전환율이 65%였다.

- ① 다른 반응 경로 모델을 구상한다.
- ② 개발 목표 전환율을 하향 조정한다.
- ③ 촉매의 시간당 염화수소 처리량 목표치를 낮춘다.
- ④ 선정된 촉매 조합을 다른 촉매 조합으로 변경한다.
- ⑤ 설정된 반응 경로 모델대로 진행되었는지 점검한다.

22. ㉠와 관련하여 ‘돕다’가 쓰인 다양한 예문을 찾아보았다. 각 예문에 쓰인 ‘돕다’의 유의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예문	유의어
①	수재 의연금을 내서 수재민을 <u>도왔다</u> .	구명하다
②	임금님을 <u>도와</u> 좋은 나라를 만들었다.	보필하다
③	친구가 임무를 마칠 수 있도록 <u>도왔다</u> .	조력하다
④	이 약은 원기를 <u>돕는</u> 효과가 매우 크다.	증진하다
⑤	두 회사는 그 사업을 위해 회사끼리 <u>돕기로</u> 했다.	제휴하다

[23~2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008.11

예전에 당(唐) 태종이 방현령에게 이르기를 “선대(先代)의 사관(史官)이 기록한 것을 임금에게 보지 못하게 한 것은 무슨 이유인가?” 하니, 방현령이 대답하기를 “사관은 거짓으로 칭찬하지 않으며 나쁜 점을 숨기지 않으니, 임금이 이를 보면 반드시 노하게 될 것이므로 감히 임금에게 드릴 수가 없습니다.” 했습니다. 그러나 태종은 방현령에게 명하여 순서대로 편찬하여 올리게 했습니다. 방현령은 선대의 실록을 편찬하여 올렸지만, 말에 은근히 숨긴 것이 많았습니다. 어질고 슬기로웠던 태종 으로서는 마땅히 바른대로 쓰여 있더라도 싫어할 점이 없었을 것인데, 하물며, 혹시 태종에게 ㉠ 미치지도 못하는 후세의 군주가 자기 시대의 역사를 보고자 한다면, 아첨하는 신하가 어찌 방현령처럼 사실을 숨기고 피하는 것에 그치겠습니까?

삼가 생각하옵건대, 전하께서는 하시는 일마다 삼대(三代)*를 본받으시면서도, 근래에 특별히 명령을 내려서 지금 이 시대의 역사를 보고자 하시니, 저희들이 명령을 듣고는 조심스럽고 두렵습니다. 간절히 생각하옵건대, 당 태종도 그 시대의 역사를 보고 후세의 비난을 면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는 바로 태종이 덕망을 잃은 일이니 어찌 전하께서 마땅히 본받을 일이겠습니까?

을해년에 전하께서 이를 열람하고자 하셨다가 그 명을 거두셨으니, 한 시대의 법을 세움이 엄격하셨고 만세의 공론을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이러한 명령이 있게 되니, 저희들은 모르겠습니다만, ㉡ 그 옳고 그름을 보고서 교훈으로 삼고자 하시는 것입니까? ㉢ 거짓인지 참인지를 살펴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자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미진하게 기록되었는지 조사해 그것을 빠짐없이 쓰도록 하시려는 것입니까?

(중략)

삼가 생각하옵건대, 창엽한 군주는 자손들의 모범입니다. 전하께서 지금 이 시대의 역사를 열람하시면 대를 이은 임금이 이를 구실로 삼아 반드시, “우리 아버님께서 하신 일이며 우리 할아버님께서 하신 일이라.” 하면서 다시 서로 이어받아 당연한 일로 삼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사관이 감히 사실대로 기록하는 뜻을 잡겠습니까? 사관이 사실대로 기록하는 필법이 없어서 아름다운 일과 나쁜 일을 보어서 권장하고 경계하는 뜻이 어둡게 된다면, 한 시대의 임금과 신하가 무엇을 꺼리고 두려워해서 자신을 반성하겠습니까? 오늘날 역사를 열람하는 일은 자손들에게 좋은 계책을 전해 주는 방법은 아닐 것입니다.

- 『태조실록』 -

*삼대: 고대 중국의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

23. <보기>의 ㉠~㉤ 중, 윗글에서 확인할 수 없는 것은?

————<보 기>————

을해년(태조 4년), ㉠ 태조는 당 태종의 고사를 들어 즉위 이후의 ㉡ 역사 기록을 제출하라고 명을 내렸다. 신하들이 반대하자 태조는 ㉢ 자신의 주장을 철회했다. 그 후 태조는 ㉣ 또다시 역사 기록을 보겠다는 의사를 비쳤다. ㉤ 신하들이 또 반대했지만, 태조는 기어이 제출하게 했다.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24. 윗글의 글쓴이가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해 사용한 전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예상되는 부정적 결과를 언급해 결단을 촉구한다.
- ② 역사적 인물의 잘못된 선례를 들어 경각심을 일깨운다.
- ③ 시대의 변화를 상기시켜 그 흐름을 따를 것을 촉구한다.
- ④ 상대방의 특별한 지위를 부각시켜 사안의 중대성을 환기한다.
- ⑤ 상대방의 지난 행위의 긍정적인 면을 높이 평가하며 일관성을 요구한다.

25. ㉠, ㉡는 임금이 역사 기록을 보려는 이유를 글쓴이가 추정한 것이다. ㉠, ㉡에 대한 글쓴이의 반론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골라 바르게 배열한 것은?

————<보 기>————

㉠. 역사를 기록한 당사자와 역사에 서술된 대상자가 모두 생존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 사관은 소문이나 억측, 터무니없는 일을 기록하여 후세의 사람에게 전달하지 않습니다.

㉢. 왕실과 조정, 중앙과 지방의 크고 작은 많은 사건을 가리지 않고 거두어 모아 기록했습니다.

㉣. 옛날의 성현이 남긴 기록만 보더라도 치란(治亂)·홍망의 자취를 돌아보고 반성하기에 충분합니다.

- | | | | | | |
|---|---|---|---|---|---|
| | ㉠ | ㉡ | | ㉢ | ㉣ |
| ① | ㄱ | ㄴ | ② | ㄱ | ㄷ |
| ③ | ㄷ | ㄹ | ④ | ㄹ | ㄴ |
| ⑤ | ㄹ | ㅁ | | | |

26. ㉠과 문맥적 의미가 가장 유사한 것은?

- ① 그녀의 숨씨는 아직 어머니 숨씨에 미치지 못했다.
- ② 세계적인 불황의 여파가 우리나라에도 미쳤다.
- ③ 백성들의 원성이 왕에게까지 미치지 못했다.
- ④ 광고는 판매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 ⑤ 산업 시설에도 황사 피해가 미친다.

[31~3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008.11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음절을 많이 활용한다. ‘이야기-기상대-대리점’으로 이어 가는 끝말잇기 게임이나 ‘불고기 백반’을 ‘불백’이라고 하는 것 등은 모두 음절을 바탕으로 한다. 음절은 시에서 운을 맞추거나 랩에서 리듬을 맞출 때에 활용되기도 한다.

사람의 말소리는 물리적으로 연속되어 있으나, 우리는 이것을 음소, 음절 등으로 분절하여 인식한다. 음절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알기 위해, 이웃한 자음과 모음의 개구도(開口度, 입의 벌림 정도)를 비교하는 소쉬르의 방법을 많이 이용한다. 이 방법에 따라 국어 말소리의 개구도를 7단계로 나누면, 폐쇄음(ㄱ, ㄷ, ㅂ 등은 0도, 마찰음(ㅅ, ㅆ, ㅎ)과 파찰음(ㅈ, ㅉ, ㅊ)은 1도, 비음(ㅁ, ㄴ, ㅇ[ŋ])은 2도, 유음(ㄹ)은 3도, 고모음(ㅣ, ㅑ, ㅕ, ㅗ, ㅛ)은 4도, 중모음(ㅓ, ㅖ, ㅙ, ㅛ)은 5도, 저모음(ㅓ, ㅕ)은 6도가 된다.

이를 바탕으로 인접한 두 말소리의 개구도를 비교하여, 뒤쪽이 크면 ‘<’로, 뒤쪽이 작으면 ‘>’로 부등호를 매겨 나가되, 마지막 말소리는 ‘>’로 닫는다. ‘동대문’을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말소리	ㄷ	ㅓ	ㅇ	ㄷ	ㅓ	ㅁ	ㅛ	ㄴ
개구도	0	5	2	0	6	2	4	2
부등호	<	>	>	<	>	<	>	>

이러한 부등호 배열에서 ‘><’ 모양을 갖는 두 부등호 사이가 음절 경계가 된다. 이 경계를 중심으로 음절을 나누면, ‘ㄷㅓㅇ ㄷㅓㅁㅛㄴ’이 ‘동-대-문’으로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음절에서 개구도가 가장 큰 말소리가 음절의 핵이 된다. 국어에서 음절의 핵은 언제나 모음이고, 그 앞과 뒤에 자음이 하나씩 올 수도 있으므로, 국어의 음절 구조는 ‘(자음)+모음+(자음)’이 된다. 이러한 음절 구조에서 각 위치에 올 수 있는 자음과 모음은 제한되기도 한다. 음절 초에는 ‘ㅇ[ŋ]’을 제외한 대부분의 자음이 올 수 있지만, 음절 말에는 ‘ㄱ, ㄴ, ㄷ, ㄹ, ㅁ, ㅂ, ㅇ[ŋ]’ 7개의 자음밖에 올 수 없다. 그리고 음절 초 자음이 ‘ㅈ, ㅉ, ㅊ’이면 모음 ‘ㅑ, ㅕ, ㅛ, ㅜ’가 오지 못한다.

국어의 음절에는 모음이 하나씩 있으므로 모음의 수가 곧 음절의 수라고 할 수 있으나, 그것이 모든 언어에 통용되는 것은 아니다. 영어와 같이 [n]이나 [l] 같은 자음이 음절의 핵이 되는 언어도 있기 때문이다. 음절 구조가 다른 두 언어가 접촉하면 음절의 수나 구조에 변동이 오기도 한다. 영어에서 1음절인 [sprɪŋ]이 국어에 오면 3음절의 ‘스프링’이 된다. 이런 점에서 발음의 최소 단위인 음절의 구조는 해당 언어의 발음을 지배하는 기본 골격이라 할 만하다.

31.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모음이 변화하는 현상을 중심으로 국어 음절의 특성을 제시하고 있다.
- ② 특정한 방법론을 적용하여 말소리가 음절로 나누어지는 양상을 보여 주고 있다.
- ③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음절이 실생활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 ④ 국어의 음절 구조를 분석하여 위치에 따라 올 수 있는 요소가 제한됨을 제시하고 있다.
- ⑤ 언어 접촉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통하여 언어에 따라 음절 구조가 다를 수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32.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와 같이 국어의 음절을 정의할 때, ㄱ~ㄹ에 들어갈 말이 바르게 배열된 것은?

—<보 기>—

음절은 개구도가 (ㄱ) 모음을 핵으로, 그 앞과 뒤에 개구도가 (ㄴ) 자음이 각각 (ㄷ)까지 올 수 있는 (ㄹ)의 최소 단위이다.

	ㄱ	ㄴ	ㄷ	ㄹ
①	작은	큰	하나	발음
②	작은	큰	둘	글자
③	큰	작은	하나	발음
④	큰	큰	둘	글자
⑤	큰	작은	하나	글자

33. 윗글로 보아 부등호 배열이 ‘<><>>’의 모양을 가지는 것은?

- ① 가족 ② 다수 ③ 성질 ④ 승부 ⑤ 우정

[34~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008.11

중세부터 르네상스 시대에 이르기까지 생리학 분야의 절대적 권위는 2세기경 그리스 의학을 집대성한 갈레노스에게 있었다. 갈레노스에 따르면, 정맥피는 간에서 생성되어 정맥을 타고 온몸으로 영양분을 전달하면서 소모된다. 정맥피 중 일부는 심실벽인 격막의 구멍을 통과하여 우심실에서 좌심실로 이동한 후, 거기에서 공기의 통로인 폐정맥을 통해 폐에서 유입된 공기와 만나 동맥피가 된다. 그 다음에 동맥피는 동맥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 생기를 전해 주면서 소모된다. 이 이론은 피의 전달 경로에 대한 근본적인 오류를 포함하고 있었으나, 갈레노스의 포괄적인 생리학 체계의 일부로서 권위 있게 받아들여졌다. 중세를 거치면서 인체 해부가 가능했지만, 그러한 오류들은 고대의 권위를 추종하는 학문 풍토 때문에 시정되지 않았다.

16세기에 이르러 베살리우스는 해부를 통해 격막에 구멍이 없으며, 폐정맥이 공기가 아닌 피의 통로라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 후 심장에서 나간 피가 폐를 통과한 후 다시 심장으로 돌아오는 폐순환이 발견되자 갈레노스의 피의 소모 이론은 도전에 직면했다. 그러나 당시의 의학자들은 갈레노스의 이론에 얽매어 있었으므로 격막 구멍이 없다는 사실로 인해 생긴 문제, 즉 우심실에서 좌심실로 피가 옮겨 갈 수 없는 문제를 폐순환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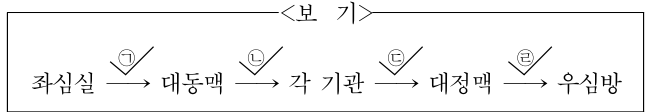
이러한 판도를 바꾼 사람은 하비였다. 그는 생리학에 근대적인 정량적 방법을 도입했다. 그는 심장의 용적을 측정하여 심장이 밀어내는 피의 양을 추정했다. 그 결과, 심장에서 나가는 동맥 피의 양은 섭취되는 음식물의 양보다 훨씬 많았다. 먹은 음식물보다 더 많은 양의 피가 만들어질 수 없으므로 하비는 피가 순환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이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실험을 했다. 하비는 끈으로 자신의 팔을 묶어 동맥과 정맥을 함께 압박하였다. 피의 흐름이 멈추자 피가 통하지 않는 손은 차가워졌다. 동맥을 차단했던 끈을 약간 늦추어 동맥피만 흐르게 해 주자 손은 이내 생기를 회복했고, 잠시 후 여전히 끈에 압박되어 있던 정맥의 말단 쪽 혈관이 부풀어 올랐다. 끈을 마저 풀어 주자 부풀어 올랐던 정맥은 이내 가라앉았다. 이로써 동맥으로 나갔던 피가 손을 돌아 정맥으로 돌아온다는 것이 확실해졌다.

이 실험을 근거로 하비는 1628년에 ‘좌심실→대동맥→각 기관→대정맥→우심방→우심실→폐동맥→폐→폐정맥→좌심방→좌심실’로 이어지는 피의 순환 경로를 제시했다. 반대자들은 해부를 통해 동맥과 정맥의 말단을 연결하는 통로를 찾을 수 없음을 지적하였다. 얼마 후, 말피기가 새로 발명된 현미경으로 모세혈관을 발견하면서 **피의 순환 이론**은 널리 받아들여졌다. 그리고 폐와 그 밖의 기관들을 피가 따로 순환해야 하는 이유를 포함하여 다양한 인체 기능을 설명하는 새로운 생리학의 구축이 시작되었다.

34. 윗글로 보아 **피의 순환 이론**의 성립이나 수용에 기여하지 않은 것은?

- ① 새로운 생리학의 구축
- ② 과학적 발견들과의 부합
- ③ 정량적 사고방식의 채택
- ④ 새로운 관찰 도구의 도입
- ⑤ 실험적 방법의 적극적 활용

35. <보기>는 ‘하비’가 제시한 피의 순환 경로의 일부이다. ‘하비’가 끈 실험에서 차단했던 위치를 바르게 지적한 것은?



- ① ㉠, ㉡
- ② ㉠, ㉢
- ③ ㉡, ㉣
- ④ ㉡, ㉣
- ⑤ ㉢, ㉣

36. <보기>의 관점에 따라 윗글의 사례를 해석한다고 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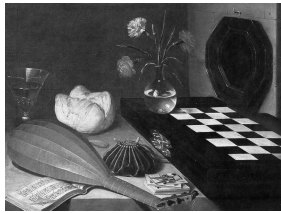
성공적인 과학 이론은 ‘패러다임’이 되어 후속하는 과학 활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과학자들은 패러다임에서 연구의 방법, 연구 주제 등을 발견한다. 이러한 ‘정상 과학’ 활동에서 때때로 기존의 패러다임과 조화를 이룰 수 없는 과학적 발견인 ‘변칙 사례’들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러한 변칙 사례들이 패러다임을 당장에 ‘무효화’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변칙 사례가 누적되면서 위기가 도래한다. 이때 새로운 과학 이론이 등장하여 기존의 패러다임과 경쟁을 벌인다. 그러다가 어떤 이유로 새로운 이론이 과학자들에게 받아들여지면서 새로운 패러다임이 되는데, 이것이 ‘과학 혁명’이다.

- ① 갈레노스의 이론은 오랫동안 널리 받아들여진 이론이므로 ‘패러다임’이었겠군.
- ② 갈레노스에 대한 강력한 추종이 있었던 중세의 생리학은 ‘정상 과학’이었겠군.
- ③ 폐정맥에서 피가 발견된 것은 갈레노스의 이론과 합치되지 않으므로 ‘변칙 사례’에 속하겠군.
- ④ 폐순환의 발견은 경험적으로 충분히 입증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갈레노스의 이론을 ‘무효화’하지 못했겠군.
- ⑤ 하비의 순환 이론이 갈레노스의 이론을 대신하여 수용된 것이 ‘과학 혁명’이었겠군.

[40~4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008.11

17세기 네덜란드의 경제가 급성장하고 부가 축적됨에 따라 새롭게 등장한 시민계급은 이전의 귀족과 성직자들이 즐기던 역사화나 종교화와는 달리 자신들에게 친근한 주제와 형식의 그림을 선호하게 되었다. 이러한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취향에 따라 출현한 정물화는 새로운 그림 후원자들의 물질에 대한 태도를 반영했다. 화가들은 다양한 사물을 통해 물질적 풍요와 욕망을 그려 냈다. 동시에 그들은 그려진 사물을 통해 부와 화려함을 경계하는 기독교적 윤리관을 암시했다.

루벤 보쟁의 <체스 판이 있는 정물 - 오감>에는 테이블 위로 몇 가지 물건들이 보인다. 흑백의 체스 판 위에는 카네이션이 꽂혀 있는 꽃병이 놓여 있다. 꽃병에 담긴 물과 꽃병의 유리 표면에는 이 그림의 광원인 창문과 거기에서 나오는 다양한 빛의 효과가 미묘하게 표현되어 있다. 그 빛은 테이블 왼편 끝에 놓인 유리잔에도 반사될 뿐만 아니라, 술잔과 꽃병 사이에 놓인 ㉠ 흰 빵, 테이블 전면에 놓인 만돌린과 펼쳐진 악보, 지갑과 트럼프 카드에도 골고루 비치고 있다. 이처럼 보쟁은 ㉡ 섬세한 빛의 처리를 통해 물건들에 손으로 만지는 듯한 질감과 함께 시각적 아름다움을 부여했다.



이 그림의 부제가 암시하듯, 그림 속의 사물들은 각각 인간의 오감을 상징한다. 당시 많은 화가들이 따랐던 도상적 관례에 의거하면, 붉은 포도주와 빵은 미각과 성찬을 상징한다. ㉢ 카네이션은 그리스도의 수난과 후각을, 만돌린과 악보는 청각을 나타낸다. 지갑은 탐욕을, 트럼프 카드와 체스 판은 악덕을 상징하는데, 이들은 모두 촉각을 상징하기도 한다. 그림 오른쪽 벽에 걸려 있는 팔각형의 거울은 시각과 함께 교만을 상징한다.

이와 같은 사물들의 다의적인 의미에도 불구하고, 당시 오감을 주제로 그린 다른 화가들의 작품들로부터 이 그림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당시 대부분의 오감 정물화는 세상의 부귀영화가 얼마나 허망한지를 강조하며, 현실의 욕망에 집착하지 말고 영적인 성장을 위해 힘쓰라고 격려했다. 이 사실로부터 우리는 중세적 도상 전통에서 '일곱 가지 커다란 죄' 중의 교만을 상징하는 거울에 주목하게 된다. 이때 거울은 자기 자신의 인식, 깨어 있는 의식에 대한 필요성으로 이해된다. 그런 점에서 ㉣ 이 그림은 감각적인 온갖 악덕에 빠질 수 있는 자신을 가다듬고 경계하라는 의미를 암시하고 있다. 보쟁의 정물화 속에 그려진 하나하나의 감각을 음미하다 보면 매우 은은하고 차분한 느낌과 함께 일종의 명상에 젖게 된다.

40. 윗글에서 언급된 것은?

- ① '보쟁' 이외의 화가들의 그림에 대한 자세한 묘사
- ② '보쟁'의 작품에 대한 당시의 비평
- ③ 정물화의 재료 및 작업 도구
- ④ 정물화 후원자의 미적 취향
- ⑤ '보쟁'의 예술적 생애

41. <보기>를 바탕으로 ㉠~㉣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17세기 정물화를 감상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림 속에 어떤 사물들이 그려졌는지 정확히 읽어 내야 한다. 다음으로 사물들의 상징적 의미를 도상적 전통과 관례에서 찾는다. 그 다음으로 이러한 상징적 의미로부터 이 그림의 내재적 의미를 해석해야 한다. 다의적인 도상들을 통해 올바른 의미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앞의 두 단계 읽기에 오류가 없어야 한다. 아울러 특정 미술가의 양식, 동일한 주제를 다룬 동시대 다른 미술가들에 대한 연구 등에 유념하면서 도상의 내재적 의미를 종합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 ① ㉠을 읽는 과정은 그려진 사물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이다.
- ② ㉢은 도상적 전통과 관례를 통해 그 상징적 의미를 해석한 것이다.
- ③ ㉠, ㉢의 읽기가 정확하지 않으면, ㉣의 의미를 제대로 읽기 어렵다.
- ④ ㉡처럼 읽을 수 있는 것은 사물들의 다의성에도 불구하고 시각이 다른 감각보다 우월하기 때문이다.
- ⑤ ㉠~㉣으로 보아 17세기 정물화는 일상의 사물을 그렸지만 단순하지 않은 의미 구조를 지니고 있다.

42. 빛의 사용 방식과 효과가 ㉡와 가장 유사한 것은?

- ① 빛과 어둠의 극단적 대비를 통해 인물의 내면적 고통과 외로움을 표현한 그림
- ② 시시각각 변화하는 빛에 대응하는 작은 색점을 통해 그 빛의 느낌을 추상적으로 표현한 그림
- ③ 프리즘을 통해 본 태양광을 무지개빛의 동심원 형태를 이용해 음악적 리듬감으로 치환한 그림
- ④ 촛불과 그 역광이 만들어 내는 엄숙하고 신비한 분위기를 통해 기독교적 경건함을 암시한 그림
- ⑤ 창문으로 들어오는 빛을 이용해 따스한 감촉의 양탄자와 다양한 색채의 과일, 번쩍이는 장식물을 조화시킨 그림

43. 오감 중에서 <보기>의 어휘들과 연관되지 않는 것은?

—<보 기>—

물랑물랑, 물씬물씬, 사각사각, 쉼쉼, 파릇파릇

- ① 미각 ② 시각 ③ 청각
- ④ 촉각 ⑤ 후각

[44~4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008.11

정부나 기업이 사업에 투자할 때에는 현재에 투입될 비용과 미래에 발생할 이익을 비교하여 사업의 타당성을 진단한다. 이 경우 물가 상승, 투자 기회, 불확실성을 포함하는 할인율의 요인을 고려하여 미래의 가치를 현재의 가치로 환산한 후, 비용과 이익을 공정하게 비교해야 한다. 이러한 환산을 가능케 해 주는 개념이 할인율이다. 할인율은 이자율과 유사하지만 역으로 적용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현재의 이자율이 연 10%라면 올해의 10억 원은 내년에는 (1+0.1)을 곱한 11억 원이 되듯이, 할인율이 연 10%라면 내년의 11억 원의 현재 가치는 (1+0.1)로 나눈 10억 원이 된다.

공공사업의 타당성을 진단할 때에는 대개 미래 세대까지 고려하는 공적 차원의 할인율을 적용하는데, 이를 사회적 할인율이라고 한다. 사회적 할인율은 사회 구성원이 느끼는 할인의 요인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이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그래서 시장 이자율이나 민간 자본의 수익률을 사회적 할인율로 적용하자는 주장이 제기된다.

시장 이자율은 저축과 대출을 통한 자본의 공급과 수요에 의해 결정되는 값이다. 저축을 하는 사람들은 원금을 시장 이자율에 의해 미래에 더 큰 금액으로 불릴 수 있고, 대출을 받는 사람들은 시장 이자율만큼 대출금에 대한 비용을 지불한다. 이때의 시장 이자율은 미래의 금액을 현재 가치로 환산할 때의 할인율로도 적용할 수 있으므로, 이를 사회적 할인율로 간주하자는 주장이 제기되는 것이다. 한편 민간 자본의 수익률을 사회적 할인율로 적용하자는 주장은, 사회 전체적인 차원에서 공공사업에 투입될 자본이 민간 부문에서 이용될 수도 있으므로, 공공사업에 대해서도 민간 부문에서만만큼 높은 수익률을 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시장 이자율이나 민간 자본의 수익률을 사회적 할인율로 적용하자는 주장은 수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우선 ㉠ 공공 부문의 수익률이 민간 부문만큼 높다면, 민간 투자가 가능한 부문에 굳이 정부가 투자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시장 이자율이나 민간 자본의 수익률이, 비교적 단기적으로 실현되는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자본 시장에서 결정된다는 점이다. 반면에 사회적 할인율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은 일반적으로 그 이익이 장기간에 걸쳐 서서히 나타난다. 이러한 점에서 공공사업은 미래 세대를 배려하는 지속 가능한 발전의 이념을 반영한다. 만일 사회적 할인율이 시장 이자율이나 민간 자본의 수익률처럼 높게 적용된다면, 미래 세대의 이익이 저평가되는 셈이다. 그러므로 사회적 할인율은 미래 세대를 배려하는 공익적 차원에서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44. 윗글의 글쓴이가 상징하고 있는 핵심적인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시장 이자율과 사회적 할인율은 어떻게 관련되는가?
- ② 자본 시장에서 미래 세대의 몫을 어떻게 고려해야 하는가?
- ③ 사회적 할인율이 민간 자본의 수익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④ 공공사업에 적용되는 사회적 할인율은 어떤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하는가?
- ⑤ 공공 부문이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민간 부문과 어떻게 경쟁해야 하는가?

45. ㉠이 전제하고 있는 것은?

- ① 민간 투자도 공익성을 고려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 ② 정부는 공공 부문에서 민간 투자를 선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 ③ 공공 투자와 민간 투자는 동등한 투자 기회를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 ④ 정부는 공공 부문에서 민간 자본의 수익률을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⑤ 정부는 민간 기업이 낮은 수익률로 인해 투자하기 어려운 공공 부문을 보완해야 한다.

46. 윗글로 보아 <보기>의 ㉠에 대한 판단으로 타당한 것은? [3점]

—<보 기>—

한 개발 업체가 어느 지역의 자연 환경을 개발하여 놀이동산을 건설하려고 한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자연 환경의 가치를 중시하여 놀이동산의 건설에 반대하는 사람들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중시하여 찬성하는 사람들로 갈리어 있다. 그래서 개발 업체와 지역 주민들은 ㉠ 놀이동산으로부터 장기간 파급될 지역 경제 활성화의 이익을 추정하고, 이를 현재 가치로 환산한 값을 계산해 보기로 하였다.

- ① 사업의 전망이 불확실하다고 판단하는 주민들은 낮은 할인율을 적용할 것이다.
- ② 후손을 위한 환경의 가치를 중시하는 주민들은 높은 할인율을 적용할 것이다.
- ③ 개발 업체는 놀이동산 개발의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해 높은 할인율을 적용할 것이다.
- ④ 놀이동산이 소득 증진의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는 주민들은 높은 할인율을 적용할 것이다.
- ⑤ 지역 경제 활성화의 효과가 나타나는 데 걸리는 시간이 길다고 판단되면 낮은 할인율을 적용할 것이다.

MEMO

MEMO

[17~1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008.09

인간은 자음과 모음으로 분절되는 다양한 말소리를 발음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것은 인간의 발음 기관이 특유의 구조와 운용 방식을 가졌기 때문이다. 언어마다 말소리의 종류와 수는 다르지만, 말소리를 내는 데 참여하는 신체 기관과 그 기본적인 작동 원리는 같다.

말소리는 생존에 필수적인 여러 신체 기관의 협력 작용에 의해 만들어진다. 입 안의 여러 기관들과 코, 후두, 기관(氣管), 혀와 등이 그것들인데, 이 중 후두는 발성 작용과 관련하여 특히 주목할 만하다. 후두의 일차적 기능은 공기 외의 이물질이 기도로 넘어가는 것을 막는 일이기 때문에 목구멍 정도의 높이에 있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그런데 인간의 후두는 갓난아이 시기에는 목구멍과 비슷한 높이에 있다가, 자라면서 서서히 하강하여 더 아래쪽에 자리 잡는다. 흥미로운 사실은, 같은 영장류인 침팬지나 오랑우탄의 후두는 목구멍 정도의 높이에 있다는 점이다.

후두의 위치는 모음의 발음 및 분화와 직접 관계된다.

[A] 모음은 후두의 안쪽에 있는 목청이 떨리면서 소리 나게 되는데, 이것이 여러 종류로 분화되는 것은 후두 위쪽의 두 공간, 즉 목안과 입안을 울림통으로 사용하기 때문이다. 즉, 혀의 앞부분을 섰입천장에 최대한 가깝게 함으로써 입안을 최소화하고 목안을 최대화하면 ‘i’가 발음되고, 혀를 살짝 낮춤으로써 입안을 최대화하고 목안을 최소화하면 ‘u’가 발음되며, 혀의 뒷부분을 여린입천장에 가깝게 함으로써 두 공간의 크기를 비슷하게 하면 ‘ɪ’가 발음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모음은 전설 모음-후설 모음, 고모음-중모음-저모음 등으로 분화된다. 한편, 입술도 모음의 분화에 관여하는데, 입술을 오뜨리고 펴에 따라 원순 모음과 평순 모음이 나누어진다.

자음은 대개 입술과 입 안의 여러 기관의 작용에 의해 분화된다. 이 기관들은 후두를 통과해 올라온 공기의 흐름을 특정 위치에서 방해하는 작용을 통해 자음의 다양한 소릿값을 만들어낸다. 예를 들어, ‘ㄷ’은 혀끝을 윗잇몸 근처에 대어 공기의 흐름을 일단 막았다가 터뜨리듯 엮으로써 내는 파열음이다. 여기서 ‘혀끝-윗잇몸’은 이 자음의 조음 위치가 되고 ‘공기의 흐름을 막았다가 터뜨리듯 엮’은 조음 방법이 된다. ‘ㄱ’은 혀의 뒷부분을 여린입천장에 대고, ‘ㅂ’은 두 입술을 닫는다는 점에서 조음 위치는 ‘ㄷ’과 다르지만 조음 방법은 같다. 그 밖에도 짝을 이루는 아래위의 두 기관 사이를 최대한 좁히고 그 사이로 공기를 마찰시켜 내는 마찰음이 있고, 공기를 코로 내보내면서 코안을 울려서 내는 비음과, 혀끝을 잇몸에 가볍게 대었다가 떼거나 혀끝을 윗잇몸에 댄 채 공기를 그 양 옆으로 흘려보내는 방법으로 내는 유음도 있다.

17.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이 아닌 것은?

- ① 모음은 혀의 위치와 입술의 모양을 기준으로 분류할 수 있다.
- ② 자음을 발음할 때에는 공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작용이 나타난다.
- ③ 언어마다 말소리의 수가 다른 것은 발음 기관 구조의 차이 때문이다.
- ④ ‘마찰음’이나 ‘유음’은 조음 방법상의 특징에 따라 붙여진 이름이다.
- ⑤ 감기에 걸려 코가 막히면 ‘ㄴ, ㄹ, ㅇ’과 같은 비음을 제대로 발음하기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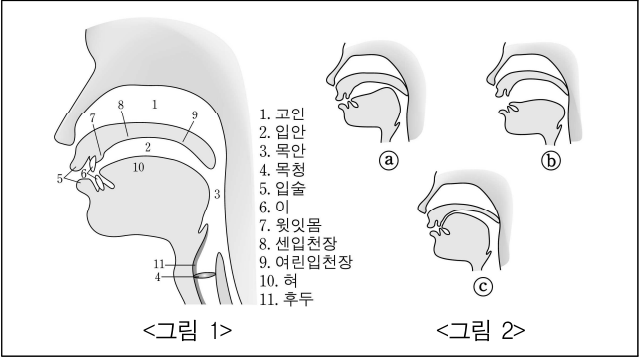
18. [A]와 <보기>의 정보를 종합하여 추론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 기>

- 갓난아이의 울음소리에서는 다양한 모음이 발견되지 않는다.
- 침팬지를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침팬지는 기본 모음인 [i], [a], [u]를 구별하여 발음하지 못했다.
- 화석 인류의 발성 기관을 재구성하여 실험한 결과, 불과 몇 개의 모음만이 발생되었다고 한다.

- ① 후두가 목구멍보다 아래쪽에 있는 것은 모음이 다양하게 분화되는 데 유리한 조건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 ② 갓난아이와 침팬지가 다양한 모음을 발음하지 못하는 이유는 같을 것이다.
- ③ 침팬지나 오랑우탄과 같은 유인원이 다양한 모음을 발성할 수 없는 것은 후천적인 요인에 기인할 것이다.
- ④ 화석 인류의 후두는 현대인에 비해 높은 곳에 자리 잡고 있었을 것이다.
- ⑤ 인간이 지금과 같은 다양한 말소리를 낼 수 있게 된 것은 생물학적 진화 과정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19. 윗글을 읽고 '구비'라는 단어를 'ㄱ-ㅍ-ㅂ-ㅣ'로 나누어 발음한다고 할 때, 자음의 조음 위치를 <그림 1>에서, 모음을 발음할 때의 발음 기관의 모습을 <그림 2>에서 찾아 순서대로 바르게 배열한 것은?



- ① 7-㉔-5-㉔
- ② 8-㉔-7-㉔
- ③ 8-㉔-7-㉔
- ④ 9-㉔-5-㉔
- ⑤ 9-㉔-5-㉔

[25~2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08.09

유기 화학자들은 화학 반응을 이용하여 유기 화합물의 조성과 구조를 분석하고 그러한 물질을 합성하는 것을 주업으로 삼는다. 20세기에 들어와서 유기 화학의 전통적인 구조 분석 방법을 대신할 수 있는 다양한 기술들이 개발되었는데, 그 중에서 1940년대 중반에 양자 이론에 힘입어 발명된 NMR 분광계는 물질의 구조 분석 방법에 혁신을 가져왔다. ‘핵자기공명’을 뜻하는 NMR은 원자핵이 자기장 안에서 특정 진동수의 전자 기파를 선택적으로 흡수하는 현상이다. 이렇게 해서 얻어지는 전자기파의 흡수 스펙트럼을 분석하여 분자의 구조를 알아내는 기구가 NMR 분광계이다. 이 기구를 사용하면 분자의 파괴나 변형 없이 화합물의 구조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

원래 물리학의 실험 기구였던 NMR 분광계를 유기 화학 연구의 핵심 장치로 만드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한 사람이 미국의 화학자 로버츠였다. 이 기구는 당시에 유일하게 배리언 사에서 제작하고 있었는데, 로버츠는 이것의 가치를 남들보다 ① 일찍 인식하고 1950년대부터 이 기구로 미지의 분자 구조를 밝혀내기 시작했다. 로버츠는 ‘선도 사용자’로서 유기 화학계에 이 기구의 유용성을 열심히 알렸다. 그는 NMR를 이용한 연구를 수행하는 한편 학생들에게 이 기구를 사용하여 연구하는 방법을 가르쳤고 그 내용을 정리하여 교재로 출판했다. 로버츠의 노력에 힘입어 이 기구를 사용하는 연구자의 수가 빠르게 늘어났다.

로버츠는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지위를 얻게 되자 이 기구가 자신의 연구 방향에 적합하도록 배리언 사에 이 기구의 업그레이드를 요구했다. 배리언 사는 그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였는데, 그것은 로버츠가 이 기구를 활용한 방법을 다수의 다른 연구자들도 채용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회사는 로버츠의 요구대로 업그레이드된 모델들을 계속 내놓았고, 로버츠는 그것으로 자신의 연구를 순조롭게 진척시킬 수 있었다.

시장이 커지면서 배리언 사는 자체적으로 이 기구의 판매 증진을 도모했다. 이 회사는 유망한 화학자인 슬러리를 고용하여 대학의 유기 화학자들과 함께 NMR를 이용한 협동 연구를 활발하게 추진하였을 뿐 아니라, 이 기구와 관련된 실험 연구 정보를 학술지보다 더 빠르고 자세하게 과학자들에게 제공하였다.

로버츠와 제조사의 노력으로, 1960년과 1961년 사이에 NMR에 바탕을 둔 학술 논문의 출판이 네 배로 증가하는 등, NMR 분광계를 사용한 연구가 급격한 성장세를 보였다. 다른 나라에서도 유기 화학 분야의 첨단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 이 기구를 구입하는 일이 당연하게 여겨졌고, NMR 분광학은 유기 화학에서 확고한 지위를 획득하였다.

25. 로버츠가 수행한 ‘선도 사용자’로서의 역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NMR 분광계의 작동 원리를 파악하여 그것의 개선에 기여했다.
- ② NMR 분광계의 사용자를 늘리기 위해 관련 학술지를 만들었다.
- ③ NMR 분광계를 일찍부터 사용하고 그것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 ④ NMR 분광계의 장점을 관련 과학 분야에 널리 알려 그것의 보급에 기여했다.
- ⑤ NMR 분광계의 제작사가 원하는 것을 이해하고 그에 맞는 이론을 제공했다.

26. 윗글에 제시된 로버츠의 ‘NMR 분광계’를 [A]라 하고 <보기>에 등장하는 웨버의 ‘중력과 검출기’를 [B]라 할 때, [A]와 [B]의 비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1916년에 발표된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은 중력 파의 존재를 예측했다. 미국의 물리학자 웨버는 중력파를 검출하기 위해 원통 형태의 기구를 직접 제작했다. 이 중력과 검출기는 자체적으로 많은 노이즈를 발생시켰지만, 웨버는 그 속에서 중력과 신호를 검출할 수 있었다고 발표했다. 웨버의 실험에 자극을 받아 여러 연구 팀이 자체 제작한 실험 기구로 중력파를 검출하고자 시도하였으나 어느 팀도 성공하지 못했다. 웨버는 조작 시비에 휘말렸고, 그의 중력과 발견 주장은 물리학계에서 공인받지 못했다.

- ① [A]는 과학계에서 그 가치를 인정받았으나, [B]는 인정받지 못했다.
- ② [A]는 전문 제조 회사에서 제작했고, [B]는 연구자가 직접 제작했다.
- ③ [A]는 대상의 존재 여부를, [B]는 대상의 속성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었다.
- ④ [A]는 검증된 이론에 기초해 제작되었고, [B]는 특정 이론의 검증을 위해 제작되었다.
- ⑤ [A], [B]는 모두 인간의 감각 기관으로는 지각하기 어려운 대상의 실체를 알아내기 위한 도구였다.

27. 윗글을 읽고 보일 수 있는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과학 분야들 간의 교류가 과학의 발전을 촉진할 수 있겠구나.
- ② 기업체는 회사의 수익에 도움이 안 되는 사업을 벌이기도 하는구나.
- ③ 새로운 연구 방법의 도입이 새로운 세부 연구 분야를 만들어 내기도 하는구나.
- ④ 기업체는 과학자들에게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일자리를 제공하기도 하는구나.
- ⑤ 어떤 세부 연구 분야의 연구 방향은 영향력 있는 과학자에 의해 결정될 수 있겠구나.

28. ㉠과 같은 의미로 쓰이지 않은 것은?

- ① 나는 오늘 일찍이 학교로 출발했다.
- ② 그녀는 아침 일찍이 밥을 해 먹었다.
- ③ 나는 일찍이 와서 오늘 업무를 준비했다.
- ④ 나는 일찍이 일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왔다.
- ⑤ 그런 일은 일찍이 경험하지 못했던 일이다.

[33~3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008.09

한 떨기 흰 장미가 우리 앞에 있다고 하자. 하나의 동일한 대상이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방식은 다양하다. 그것은 이윤을 창출하는 상품으로 보일 수도 있고, 식물학적 연구 대상으로 보일 수도 있다. 또한 어떤 경우에는 나치에 항거하다 죽어 간, 저항 조직 '백장미'의 젊은이들을 떠올리게 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이런 경우들과 달리 우리는 종종 그저 그 꽃잎의 모양과 순백의 색깔이 아름답다는 이유만으로 충분히 만족을 느끼기도 한다.

가끔씩 우리는 이렇게 평소와는 매우 다른 특별한 순간들을 맞는다. 평소에 중요하게 여겨지던 것들이 이때에는 철저히 관심 밖으로 밀려나고, 오직 대상의 내재적인 미적 형식만이 관심의 대상이 된다. 이러한 마음의 작동 방식을 가리키는 개념어가 '미적 무관심성'이다. 칸트가 이 개념의 대표적인 대변자인데, 그에 따르면 미적 무관심성이란 대상의 아름다움을 관정할 때 요구되는 순수하게 심미적인 심리 상태를 뜻한다. 즉 'X는 아름답다.'라고 판단할 때 우리의 관심은 오로지 X의 형식적 측면이 우리의 감수성에 쾌·불쾌를 주는지를 가리는 데 있으므로 '무관심적 관심'이다. 그리고 무언가를 실질적으로 얻거나 알고자 하는 모든 관심으로부터 자유로운 X의 존재 가치를 '목적 없는 합목적성'에 있다.

㉠ 대상의 개념이나 용도 및 현존으로부터의 완전한 거리 두기를 통해 도달할 수 있는 순수 미적인 차원에 대한 이러한 이론적 정당화는, 쇼펜하우어에 이르러서는 예술미의 관조를 ㉡ 인간의 영적 구원의 한 가능성으로 평가하는 사상으로서 발전하였다. 불교에 심취한 그는 칸트의 '미적 무관심성' 개념에서 더 나아가 '미적 무욕성'을 주창했다. 그에 따르면 이 세계는 '맹목적 의지'가 지배하는 곳으로, 거기에 사는 우리는 ㉢ 욕구와 결핍의 부단한 교차 속에서 고통받지만, 예술미에 도취하는 그 순간만큼은 해방을 맞는다. 즉 '의지의 폭정'에서 벗어나 ㉣ 잠정적인 열반에 도달한다.

미적 무관심성은 예술의 고유한 가치를 옹호하는 데 큰 역할을 하는 개념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극단적으로 추구될 경우에 가해질 수 있는 비판을 또한 존중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독립 선언이 곧 ㉤ 고립 선언은 아니기 때문이다. 예술의 고유한 가치는 진리나 선과 같은 가치 영역들과 유기적인 조화를 이룰 때 더욱 고양된다. 요컨대 예술은 다른 목적에 종속되는 한낱 수단인 것이 되어서도 안 되겠지만, 그것의 지적·실천적 역할이 완전히 도외시되어서도 안 된다.

33. ㉠~㉤의 의미에 대한 해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대상에 대한 지식이나 대상의 유용성, 실재 여부 등에 대한 관심을 철저히 도외시하는 심리적 태도
- ② ㉡: 개별적 취향의 만족에서 나아가 궁극적으로는 인간 정신의 구원으로까지 고양되는 경지
- ③ ㉢: 끊임없이 무엇을 얻고자 하나, 완전한 만족 대신에 부족함만이 지배하는 상태의 지속
- ④ ㉣: 예술미에 침잠하여 잠시나마 모든 집착과 고통에서 벗어나는 기쁨의 상태
- ⑤ ㉤: 예술가들이 작품 창조를 위해 세속으로부터 고립된 별도의 작업 공간을 요구하는 선언

34. 영화에 대한 감상 중, 윗글의 칸트의 입장에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이 영화는 그 시대의 모순 고발과 전망 제시라는 두 가지 숙제를 훌륭히 해내고 있는 우수작이야.
- ② 영화에 세상일을 개입시키려는 태도는 잘못이야. 영화는 보고 즐기는 생활의 활력소 역할을 하면 되지 않겠나?
- ③ 이 영화의 색채 묘사나 카메라의 시점 처리 같은 대담한 형식 실험은 상식을 뛰어넘는 독특한 심미적 가능성을 열어 줬.
- ④ 이 영화의 흥행 가능성에 대해 난 매우 부정적이야. 주인공만 해도 어른들이나 좋아할 스타일이지, 우리가 보기엔 좀 어색하지 않니?
- ⑤ 영화가 의미를 가지려면 어떤 새로운 깨달음을 우리에게 줘야 하는 것이 아닐까? 이미 소설을 통해서 다 알고 있는 내용을 영화로 만드는 것은 낭비야.

35. 윗글의 주요 개념을 사용하여 <보기>의 ' 쇤베르크의 음악'을 평가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쇤베르크의 음악은 음의 높낮이와 리듬만으로 구성된 작은 단위들의 변형과 발전을 통해 구현되지만, 주음-부음 관계를 파괴하는 불협화음 전락에는 억압적 사회 구조로 인한 고통, 이에 대한 폭로와 저항 등이 오묘하게 함축되어 있다.

- ① '미적 무관심성'에서 '미적 무욕성'으로 이행하는 음악의 발전 과정을 잘 보여 준다.
- ② '미적 무관심성'과 '미적 무욕성'이라는 조화되기 힘든 두 이념을 조화롭게 구현한다.
- ③ '미적 무관심성'과 예술의 '지적·실천적 역할'이라는 두 측면 모두에서 예술의 가치를 잘 드러낸다.
- ④ '미적 무관심성'에서 탈피하여 현실에 대한 직접적인 저항을 추구함으로써 음악의 '지적·실천적 역할'을 수행한다.
- ⑤ '미적 무관심성'을 극한까지 밀고 간 작품으로, '지적·실천적 역할' 같은 음악 외적 요소의 개입을 절대적으로 거부한다.

[36~3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08.09

인간은 감각과 더불어 사고를 통해 세계를 인식한다. 사고는 감각적으로 받아들인 특수한 것들을 일반화하고 그것들의 본질적인 연관과 구조를 해명함으로써 사물이나 사태에 관한 지식을 얻고자 한다. 그런데 이러한 사고 작용은 과연 사물이나 사태에 대한 총체적인 인식에 도달할 수 있는가?

사물은 우리의 의식 밖에 독립적으로 존재하며, 그것이 지닌 속성들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끊임없이 변한다. 이러한 사물을 사고는 어떻게 관념적으로 모사(模寫)하는가? 관찰 행위를 통해 경험적 지식을 획득하는 과정의 간단한 사례를 들어보자. 철수가 어떤 사물을 이모저모 살펴본 후 그것이 육면체라 판단한다고 하자. 그는 특정 시점 t_1 에서 그것의 특정 속성을 관찰한 자료 d_1 을 획득하고, 특정 시점 t_2 에서 그것의 또 다른 속성을 관찰한 자료 d_2 를 더해 가는 방식으로 관찰을 계속 진행한다.

그래서 그는 최종 판단 시점 t_N 에서 그때까지 그 사물의 모든 속성을 관찰하여 얻은 자료들, 즉 d_1 부터 d_N 까지를 토대로 '이것은 육면체이다.'라고 판단한다. 철수의 관찰 과정을 도식화하면 그림과 같다.

t_1	d_1
t_2	d_1+d_2
⋮	⋮
⋮	⋮
t_N	$d_1+d_2+\dots+d_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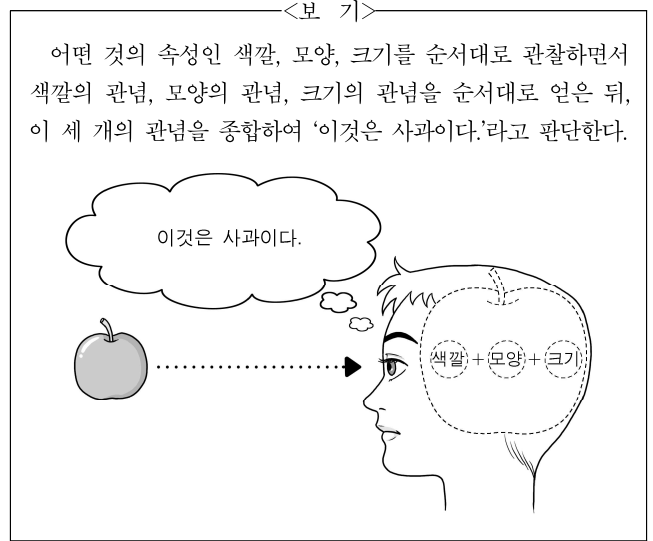
이 예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가 관찰을 통해 어떤 사물에 대한 지식을 얻을 경우, 일반적으로 그러한 지식은 서로 다른 시점에서 획득한 자료들을 토대로 한다. 그러한 자료들은 관찰이 진행되면서 각각 특정 시점에서 사물의 속성들로부터 추상된 것들, 즉 의식 속에 기억으로 남아 있는 관념들에 불과한 것이다. 이러한 관념들은 시간의 제약 속에 있지 않으므로 변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최종 판단 시점에서는 실제로 그 이전까지의 사물의 모든 속성들이 이미 변했음에도 ㉠ 불구하고 그 속성들의 관념은 그대로 보존되어 있으며, 우리의 사고는 바로 그러한 관념들을 종합하여 지식을 구성하게 된다.

이로부터 사고가 사물을 관념적으로 모사할 때 어떤 한계에 부딪히는지 알 수 있다. 최종 판단에 필요한 거의 모든 자료들은 어디까지나 최종 판단 시점 이전에 획득한 것들이다. 그것들은 과거의 속성들로부터 얻은 것이기에 최종 판단 시점의 사물에 대해서는 어떠한 정보도 알려 주지 않는다. 그것들이 최종 판단의 자료로 유효하려면 t_1 에서 t_N 까지 사물의 속성들에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는 점이 전제되어야 한다. 결국 우리의 사고는 시공 속에서 연속적으로 변화하는 현실을 추상 작용을 통해 변화하지 않는 것으로 고정시킴으로써 지식을 부분적이고 일면적인 것으로 만든다.

36. 윗글의 중심 화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감각과 분리된 사고의 한계
- ② 시간의 흐름 속에서 변하는 사물의 한계
- ③ 인간의 감각 기관의 발달 과정과 그 한계
- ④ 경험적 지식 형성 과정에서의 사고의 한계
- ⑤ 인간의 의식 발달의 조건과 생물학적 한계

37. '철수'의 사고 과정에 따라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색깔을 보는 시점에 크기의 관념은 의식 속에 없다.
- ② 색깔을 보는 시점에서는 이것이 사과임을 알 수 없다.
- ③ 모양을 보는 시점에 색깔은 변했다.
- ④ 모양을 보는 시점에 색깔의 관념은 기억으로 남아 있다.
- ⑤ 크기를 보는 시점에 모양의 관념은 변했다.

38. 윗글의 주제를 함축한 말로 강의를 시작한다고 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이 강의실이 어제의 이 강의실 맞나요?
- ② 오늘은 도형의 종류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 ③ 여러분은 평소에 자료 정리를 어떻게 하나요?
- ④ 우리는 곧잘 우리 자신이 한 약속조차 잊곤 합니다.
- ⑤ 오늘은 덧셈을 잘할 수 있는 비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39. ㉠의 어간 '불구하-'는 일부 어미와만 결합한다. 이와 같은 용언이 아닌 것은?

- ① 송아지가 애처롭게 울었다.
- ② 허구한 날 팔자 한탄만 한다.
- ③ 친구의 집은 막다른 골목에 있다.
- ④ 나는 서슴지 않고 계단을 따라 올라갔다.
- ⑤ 핵무기의 가공할 파괴력을 잘 알고 있다.

[44~4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008.09

인간 사회와 더불어 오래 전부터 존재해 온 기술은 산업혁명 이후 매우 빠른 속도로 발전을 거듭해 왔다. 그에 따라 기술의 영향력은 날로 증대되어 오늘날 우리는 그 누구도 기술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었다.

그렇다면 기술의 발전은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를 진보시키는데 긍정적인 영향만을 미치는가? 그렇지 않다. 기술의 발전은 인간과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을 동시에 미친다. 이러한 이유로 기술에 대한 사회적 통제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부응하여 등장한 국가 기술 정책의 수단이 기술 영향 평가(technology assessment)이다. 기술 영향 평가는 전문가와 이해당사자 및 일반 시민들이 특정한 기술의 사회적 영향을 평가한 다음, 긍정적 영향은 극대화하고 부정적 영향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기술 변화의 방향과 속도를 통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초창기의 기술 영향 평가는 이미 개발된 기술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사후에 평가하고 처방하는 데 주력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사후적 평가와 처방은 기술에 대한 **통제의 딜레마** 문제에 부딪히게 되었다. 통제의 딜레마란, 비록 기술 영향 평가를 통해 어떤 기술이 문제가 많다고 판단될지라도, 그 기술의 개발이 이미 상당히 진행되어 있는 상태라면 그것을 중단시키는 일이 거의 불가능하게 되는 상황을 말한다. 이 딜레마는 기술에 대한 사회적 통제를 어렵게 만든다. 결국 통제의 딜레마로 인해 사후적 기술 영향 평가는 기술을 통제하고자 했던 원래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한계를 드러내게 되었다.

이 딜레마를 극복하고자 기술 개발의 전 과정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를 통해 기술 변화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사전적이고 과정적인 기술 영향 평가가 새롭게 등장하였다. 기술이 일방적으로 사회에 영향을 미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도 기술 변화의 내용이나 속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기술사회학적 인식이 그 배경이 되었다. 이 새로운 기술 영향 평가는 기술 개발의 과정에 초점을 두으로써 기술 통제의 측면에서 전통적인 기술 영향 평가에 비해 좀 더 성공적이라고 평가받고 있다.

그러면 이 새로운 기술 영향 평가는 통제의 딜레마를 완전히 해결했는가? 이 질문에 아주 긍정적으로 답하기는 어렵다. 무엇보다 기술 발전의 방향은 불확실성이 많아 사전적이고 과정적인 평가조차도 기술의 영향을 정확하게 예측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설혹 잘 예측하여 기술 통제를 위해 적절한 기술 정책을 실시한다고 하더라도 그 정책이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낼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영향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기술들에 대한 평가와 통제의 필요성을 감안한다면 이 기술 영향 평가는 현재로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기술 정책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44. 글쓴이의 생각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 ① 기술과 사회는 상호 작용하는 관계이다.
- ② 과학적 기술 예측은 기술 통제의 성공으로 이어진다.
- ③ 기술 발전의 방향을 시장 원리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
- ④ 기술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문제 발생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 ⑤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도 기술 영향 평가에 참여할 수 있다.

45. 윗글의 논지 전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어떤 현상에 대해 제기된 비판들을 점검하고, 그에 대한 반박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 ② 어떤 현상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을 평가하고 있다.
- ③ 어떤 현상의 문제점을 상반된 관점에서 비교 분석하고, 절충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 ④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설정하고, 각각의 현상에 대해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 비판하고 있다.
- ⑤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을 구축하고, 실제 사례에 적용하여 실현 가능성을 점검하고 있다.

46. **통제의 딜레마**로 야기된 상황을 가장 잘 보여 주고 있는 것은?

- ① 비디오테이프에는 베타 방식과 VHS 방식이 있었다. 기술적으로는 전자가 후자보다 우월한 것으로 평가되었지만, 시장에서는 후자가 선택되었다.
- ② 구조력 체르노빌 핵 발전소에서는 작업자들이 원자로의 기계적 결함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방사능이 누출되어 수많은 사람들이 사망했다.
- ③ 홍수 방지를 위한 댐의 규모를 정하기 위해 수많은 전문가들을 동원했다. 하지만 규모에 따른 홍수 방지 효과를 잘못 계산하여 결국 홍수를 통제하는 데 실패했다.
- ④ 개발이 거의 완료된 어떤 청정 에너지 기술이 오히려 환경 오염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음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많은 자원이 투입된 까닭에 중단할 수 없었다.
- ⑤ 1986년 미 항공 우주국은 우주선 로켓 부스터의 접합부를 밀폐하는 오링(O-ring)이 불완전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를 허용 범위 이내의 문제로 인식하는 바람에 우주 왕복선이 폭발하는 대형 사고가 발생했다.

MEMO

MEMO

[47~5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08.09

은행의 핵심 업무는 여유 자금이 있는 사람들로부터 예금을
 ㉠ 유치해 자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대출하는 일이다. 은행은
 이 과정에서 대출과 예금의 금리 차이를 통해 수익을 얻으며,
 국민 경제 차원에서 자금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사회적 역할도
 수행한다. 그러나 고객 관련 정보 부족으로 인해 이 역할이 크게
 약화될 수 있다. 고객의 상환 능력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확보
 하지 못한 상태에서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할 위험에 늘 노출되는
 것이다. 이런 위험을 줄이기 위해 은행은 확실한 담보가 있거나
 신용 등급이 높은 사람들만 상대하는 전략을 채택한다.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매우 높은 금리에도 불구하고 사금융을 이용할
 수밖에 없게 된 상황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금융의 사회적 역할, 나아가 금융의 공공성을 강조하는 새로운
 관점에서 보자면, 금융은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 최소한의 이용이
 보장되어야 하는 보편적 권리의 대상이자, 우리 사회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영향력을 발휘하는 수단이기도 하다.
 물론 그것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적지 않다.
 가난한 사람일수록 경제 관념이 ㉡ 희박하고 소득 창출 능력
 또한 ㉢ 떨어지므로 대출금을 회수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하지만 금융 배제층에게 소액의 창업 자금을 무담보로 대출해
 주면서도 은행을 무색케 할 정도로 높은 성과를 ㉣ 거두는
 사례도 있다. 빈곤층의 자활을 지향하는 ‘마이크로크레딧
 (Microcredit)’가 그것이다.

세계적인 마이크로크레딧 단체인 방글라데시의 ‘그라민
 은행’은 용자를 희망하는 최저 빈곤층 여성들을 대상으로 ㉤ 공동
 대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다섯 명이
 자발적으로 짝을 지어 대출을 신청하도록 해, 먼저 두 명에게
 창업 자금을 제공한 후 이들이 매주 단위로 이루어지는 분할
 상환 약속을 지키면 그 다음 두 사람에게 돈을 빌려 주고,
 이들이 모두 상환에 성공하면 마지막 사람에게 대출을 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들이 소액의 대출금을 모두 갚으면 다음
 에는 더 많은 금액을 대출해 준다. 이런 방법으로 ‘그라민은행’은
 99%의 높은 상환율을 달성할 수 있었고, 장기 용자 대상자 중
 42%가 빈곤선에서 벗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마이크로크레딧은 아무리 작은 사업이라도 자기 사업을
 ㉥ 벌일 인적·물적 자본의 확보가 자활의 핵심 요건이라고
 본다. 한국에서 이러한 활동을 펼치는 ‘사회연대은행’이 대출뿐
 아니라 사업에 필요한 지식과 경영상의 조언을 제공하는 데
 주력하는 것도 이와 관련이 깊다. 이들 단체의 실험은 금융
 공공성이라는 가치가 충분히 현실화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사람들의 행동과 성과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유효한 수단을
 확보하는 일이 관건임을 입증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47. ‘마이크로크레딧’ 운동의 정신을 나타내기에 적절한 말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보 기>—

ㄱ. 산 입에 거미줄 치랴.
 ㄴ. 소도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
 ㄷ. 공평은 매섭지만 좋은 교사이다.
 ㄹ. 물고기를 잡아 주기보다는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야
 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48. ㉠에 관한 추론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여성들을 대출 대상으로 삼은 것은 창업 교육의 효과가 남성에 비해 크기 때문이겠군.
- ② 매주 조금씩 분할 상환하게 한 것은 대출금 상환에 대한 부담감을 줄이기 위한 것이겠군.
- ③ 자발적으로 짝을 짓도록 한 것은 자활 의지가 있는 사람을 효과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것이겠군.
- ④ 동료가 돈을 갚아야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은 구성원 간의 공동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겠군.
- ⑤ 대출금을 모두 갚을 경우 추가 용자를 제공하는 것은 돈을 빌려간 사람들의 상환 의지를 높이기 위한 것이겠군.

49. ‘마이크로크레딧’ 운동과 관련하여 <보기>와 같은 주장을 내세운 사람이 제시할 만한 방안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높은 헌신성에 기반하여 묵묵히 훌륭한 성과를 내던 단체들이 사회로부터 보다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받게 되면 초심을 잃고 외형상의 성장에만 주력할 가능성이 커진다. 따라서 양질의 창업 지원 서비스가 계속 제공되도록 하려면, 이들 단체의 도덕적 헤이를 예방할 대책이 필요하다.

- ① 전문성이 떨어지는 민간 단체 대신 은행이 마이크로크레딧 업무를 담당하도록 유도한다.
- ② 전문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할 전담 기구를 설치하고 대출 및 창업 지원에 관한 절차를 표준화한다.
- ③ 창업 지원 담당자의 보수를 민간 기업 수준으로 현실화하여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 ④ 창업 지원 프로그램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지표들을 개발하고 평가 결과의 공개를 의무화한다.
- ⑤ 정부가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에 사용될 기금을 조성하고, 단일한 중앙 조직이 전국의 각 지점을 통해 그 기금을 사용하도록 한다.

50. ㉠~㉣의 문맥적 의미를 살려 문장을 만들었을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정부는 민간 자본을 적극 유치하기로 결정했다.
- ② ㉡: 그 사람은 응석받이로 자라 자립심이 희박하다.
- ③ ㉢: 이 옷은 다른 옷에 비해 품질이 떨어지는 것 같다.
- ④ ㉣: 그 선수는 지난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었다.
- ⑤ ㉤: 그 둘은 만나기만 하면 입씨름을 벌인다.

[19~2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008.06

테니스 선수 그라프는 1992년에 우승을 통해 거액을 벌었지만, 유독 속적인 셀레스에게는 계속해서 패하였다. 그러나 이듬해 셀레스가 사고를 당해 더 이상 경기에 참여할 수 없게 되자, 그라프는 경기 능력에 큰 변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승률이 거의 두 배 이상 상승했다. 이에 따라 우승 상금은 물론 광고 출연 등의 부수적 이익 또한 전보다 크게 증가했다. 이런 현상은 '위치적 외부성'의 개념으로 설명된다. 한 사람의 보상이 다른 사람의 행동에 영향을 받음에도, 그에 대한 대가를 받지도 지불하지도 않는 현상을 외부성이라고 한다. 특히 자신의 상대적 위치에 따른 보상이 다른 경쟁자의 상대적 성과에 부분적으로 의존하는 것을 ㉠ 위치적 외부성이라고 한다. 위치적 외부성이 작용할 경우에 자신의 상대적 위치를 향상시키는 모든 수단은 반드시 다른 경쟁자의 상대적 위치를 하락시킨다. 그라프의 사례는 경쟁자의 성과에 의해 자신의 위치적 보상이 크게 상승했음을 보여 주는 좋은 예이다.

위치적 외부성이 개입되어 있는 상황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위치를 높이는 행동을 하려고 한다. 예컨대 한 경쟁자가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 지출을 늘리면, 이는 다른 경쟁자들의 위치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다른 경쟁자들 또한 지출을 늘리게 된다. 그러나 모든 경쟁자가 동시에 자신의 위치를 향상시키기 위해 지출을 반복적으로 늘린다면, ㉡ 경쟁자 간의 실질적인 위치는 변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다른 경쟁자의 상대적인 성과에 따른 각 경쟁자의 위치적 보상 정도가 클수록 이와 같은 투자의 유인은 커진다.

위치적 외부성이 존재하면 사람들은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경쟁적으로 투자를 늘린다. 그러나 경쟁자의 위치에 따른 이익이 한정되어 있고 투자의 결과 각자의 위치에 별 효과가 없다면 소모적인 지출일 가능성이 크다. 이와 같은 투자 행태를 군비 경쟁에 비유하여 ㉢ '위치적 군비 경쟁'이라고 부른다. 위치적 군비 경쟁은 사회 전체의 입장에서 볼 때 경제적 비효율성을 가져오는데, 이는 개인의 유인과 사회 전체의 유인이 다른 데서 비롯된 것이다.

개인의 입장에서는 모든 의사 결정에 있어 자신의 이익을 사회 전체의 이익보다 우선시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쟁의 결과가 사회 전체에 ㉣ 다소간 기여할 수 있다면 모든 구성원이 개인의 이익을 위해 경쟁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다. 하지만 경쟁이 과열되고 더 이상 사회 전체의 이익에 기여하지 못한다면, 개인의 이익만을 위한 과도한 투자는 자원 배분의 왜곡을 가져오는 비효율성을 야기한다. 더구나 개인 간에 위치적 외부성이 강하게 작용하면, 사회적 관점에서는 불필요한 경쟁으로 인해 초래되는 비효율성의 문제가 더욱 심각해진다. 사회가 이러한 심각성을 인식하는 단계에 이르면 경쟁을 자제시키는 사회적 규범이 생겨나거나 경쟁을 제약하기 위한 구속력 있는 사회적 협약이 마련되기도 한다.

19. 윗글의 내용으로 알 수 없는 것은?

- ① 위치적 외부성은 비슷한 수준의 경쟁자 사이에서 크게 작용한다.
- ② 위치적 외부성이 나타나면 경쟁자의 비용 지출이 수반될 수 있다.
- ③ 위치적 보상은 개인의 유인과 사회 전체의 유인의 차이가 클수록 증가한다.
- ④ 위치적 군비 경쟁의 비효율성을 인식하면 사회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 ⑤ 위치적 외부성으로 인한 경쟁의 결과가 경쟁자들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것은 아니다.

20. ㉠이 나타난 사례로 볼 수 없는 것은?

- ① 국회의원 선거에서 특정 후보의 사퇴가 나머지 후보들의 당선 여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 ② 프로 경기 식전 행사에서 유명 가수가 공연하면 관중이 크게 늘어 참가 선수들이 출전 수당을 더욱 많이 받게 된다.
- ③ 도서관을 이용하려는 사람이 많을 경우에는 좋은 좌석을 차지하기 위해서 도서관을 열기 전에 줄을 길게 서기도 한다.
- ④ 초등학교 취학 대상 아동이 다른 학생들보다 한두 해 늦게 입학하면 학업 성취도가 상대적으로 높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모들이 자녀의 취학을 미루려고 한다.
- ⑤ 폐쇄된 공간에서 여러 사람이 동시에 이야기하면 상대방이 잘 알아듣지 못하므로, 모두가 남보다 더 크게 이야기하려고 하기 때문에 결국 알아듣기가 더욱 힘들게 된다.

21. ㉢이 나타날 수 있는 조건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보 기>—

ㄱ. 다른 경쟁자에 대한 정보를 얻기 힘들다.
 ㄴ. 집단 내 경쟁자들의 이익의 합은 변하지 않는다.
 ㄷ. 경쟁을 예방하기 위한 사회적 협약의 효력이 강하다.
 ㄹ. 경쟁자들은 위치적 보상이 성과 향상을 위한 지출보다 클 것이라고 판단한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ㄱ, ㄹ
- ④ ㄴ, ㄹ
- ⑤ ㄷ, ㄹ

22. ㉠과 ㉡의 ‘간’이 지닌 의미와 용례를 <보기>에서 골라 바르게 묶은 것은?

<보 기>

의미 ㉠. 선택의 무차별성
 ㉡. 대상들 사이의 관계
 ㉢. 대상들 사이의 거리나 공간

용례 a. 그는 연단의 우중간에 앉아 있었다.
 b. 내외간에 숨기고 말고 할 일이 있겠습니까?
 c. 그 일에 대해서는 가부간 결정을 내려야 한다.

- | | | | | |
|------------------|------------------|--|---|---|
| ㉠ | ㉡ | | ㉠ | ㉡ |
| ① ㉠ - a ㉡ - c | ② ㉠ - b ㉡ - a | | | |
| ③ ㉠ - b ㉡ - c | ④ ㉠ - c ㉡ - b | | | |
| ⑤ ㉠ - a ㉡ - b | | | | |

[27~2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008.06

1895년 엑스선이 발견되기 전까지는 칼을 대지 않고 인체 내부를 들여다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누구도 하지 못했다. 엑스선 촬영 장치를 개량하여 인체의 단면까지 볼 수 있게 만든 컴퓨터 단층 촬영 장치(CT)는 이 방면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갔지만 구입비와 운영비가 엄청나게 비싸고 인체에 해로운 엑스선을 여전히 사용한다. 이러한 결점을 보완하여 저렴하고 안전하게 인체의 민감한 부분이나 태아까지 검진할 수 있는 장치로 널리 사용하게 된 것이 초음파 진단 장치이다.

초음파 진단 장치는 인체 내부를 들여다보기 위해 소리를 사용한다. 일반적인 소리는 사람의 귀로 감지할 수 있지만 초음파는 진동수가 20,000Hz가 넘어서 사람의 귀로 들을 수 없는 소리이다. 인체를 진단하는 도구로 초음파를 사용하게 된 것은, 그것이 짧은 파장을 가지므로 투과성이 강하고 직진성이 탁월할 뿐 아니라 미세한 구조까지 자세하게 볼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다.

이 진단 장치에는 초음파를 만들어 내고 감지하기 위한 압전(壓電) 변환기라는 특수한 장치가 있다. 압전 변환기의 핵심 부품인 압전 소자는 압력을 받으면 전기를 발생시키는데 이것을 ㉠ 압전 효과라고 한다. 초음파를 압전 소자에 가해 주면 압전 소자에 미치는 공기의 압력이 변하면서 압전 효과로 인해 고주파 교류가 발생한다. 역으로 높은 진동수의 교류 전압을 압전 소자에 걸어 주면 압전 소자가 주기적으로 진동하면서 초음파를 발생시키는데, 이를 역압전 효과라고 한다. 이렇게 압전 소자는 압전 변환기에서 초음파를 발생시키고, 반사되어 돌아오는 초음파를 감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즉, 압전 변환기는 마이크와 스피커의 역할을 모두 하는 셈이다.

검사하고자 하는 인체 부위에 압전 변환기를 접촉시킬 때에는 그 부위에 젤리를 발라 준다. 이는 압전 변환기와 피부 사이에 공기층을 없애 반사로 인한 음파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압전 변환기에서 나온 초음파는 상이한 생체 조직을 각기 다른 속력으로 통과하며, 각 조직 사이의 경계 부위를 지날 때에는 부분적으로 반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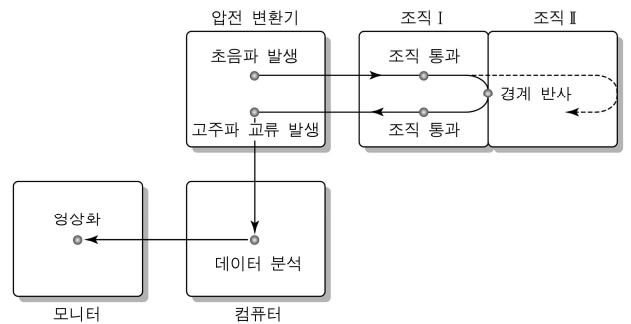
[A] 반사되어 압전 변환기로 돌아오는 초음파의 세기는 통과한 조직의 밀도와 두께가 클수록 약해진다. 이렇게 각 조직이나 기관에서 다층적으로 반사된 초음파는 수신 모드로 전환된 압전 변환기에서 시간차를 두고 각기 다른 세기의 교류 전기 신호를 발생시킨다. 컴퓨터는 이 전기 신호들의 세기와 지체 시간을 분석하여 모니터 화면에 영상을 만들어 낸다.

돌고래는 빛이 들어오지 않는 깊은 바다 속에서, 박쥐는 철쭉같이 어두운 동굴 속에서 초음파를 발생시키고 사물에서 반사되어 돌아오는 음파를 감지해서 대상이나 장애물의 형태와 위치를 인지한다. 초음파 진단 장치는 이러한 동물들의 놀라운 능력을 모방한 생체 모방 기술의 쾌거이다.

27. 윗글을 읽은 학생들의 반응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CT 촬영을 하면 태아에게 해로운 수도 있겠구나.
- ② 돌고래는 초음파를 이용해서 본다고 할 수 있겠구나.
- ③ 젤리는 신체 내부로 초음파가 잘 전달되도록 해 주겠구나.
- ④ 마이크에는 압전 소자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부품이 들어 있겠구나.
- ⑤ 성능 좋은 초음파 진단 장치일수록 긴 파장의 음파를 사용하겠구나.

28. 그림은 초음파 진단 장치의 작동 과정을 개략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 나타나는 단계는?



- ① 초음파 발생
- ② 경계 반사
- ③ 고주파 교류 발생
- ④ 데이터 분석
- ⑤ 영상화

29. [A]에서 설명된 초음파 진단 장치의 원리로부터 유추해 낼 수 없는 음향 현상은?

- ① 물속과 공기 중에서 소리의 전파 속도는 다르다.
- ② 벽을 두껍게 하면 밖에서 들어오는 소음이 줄어든다.
- ③ 관의 굵기와 길이에 따라 관에서 나는 소리의 높낮이가 다르다.
- ④ 가까운 곳에서 생긴 메아리가 먼 곳에서 생긴 것보다 빨리 들린다.
- ⑤ 눈을 감고 있어도 자기 목소리를 듣고 자신의 위치가 야외인지 실내인지를 구별할 수 있다.

[33~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008.06

(가) 탁월함은 어떻게 습득되는가, 그것을 가르칠 수 있는가? 이 물음에 대하여 아리스토텔레스는 지성의 탁월함은 가르칠 수 있지만, 성품의 탁월함은 비이성적인 것이어서 가르칠 수 없고, 훈련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고 대답한다.

(나) 그는 좋은 성품을 얻는 것을 기술을 습득하는 것에 비유한다. 그에 따르면, 리라(lyra)를 켜므로써 리라를 켜는 법을 배우며 말을 탐으로써 말을 타는 법을 배운다. 어떤 기술을 얻고자 할 때 처음에는 교사의 지시대로 행동한다. 그리고 반복 연습을 통하여 그 행동이 점점 더 하기 쉽게 되고 마침내 제2의 천성이 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어린아이는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 진실되게 관대하며 **㉡** 예의를 차리게 되는지 일일이 배워야 한다. 훈련과 반복을 통하여 그런 행위들을 연마하다 보면 그것들을 점점 더 쉽게 하게 되고, 결국에는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된다.

(다) 그는 올바른 훈련이란 강제가 아니고 그 자체가 즐거움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또한 그렇게 훈련받은 사람은 일을 바르게 처리하는 것을 즐기게 되고, 일을 바르게 처리하고 싶어하게 되며, 올바른 일을 하는 것을 어려워하지 않게 된다. 이처럼 성품의 탁월함이란 사람들이 ‘하는 것’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하고 싶어하는 것’과도 관련된다. 그리고 한두 번 관대한 행동을 한 것으로 충분하지 않으며, 늘 관대한 행동을 하고 그런 행동에 감정적으로 끌리는 성향을 갖고 있어야 비로소 관대함에 관하여 성품의 탁월함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라) 다음과 같은 예를 통해 아리스토텔레스의 견해를 생각해 보자. 감돌이는 성품이 곧고 자신감이 충분하다. 그가 한 모임에 참석하였는데, 거기서 다수의 사람들이 옳지 않은 행동을 한다고 생각했을 때, 그는 다수의 행동에 대하여 비판의 목소리를 낼 것이며 그렇게 하는 데에 별 어려움을 느끼지 않을 것이다. 한편, 수줍어하고 우유부단한 병식이도 한 모임에 참석하였는데, 그 역시 다수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판단을 했다고 하자. 이런 경우에 병식이는 일어나서 다수의 행동이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하려면 엄청난 의지를 발휘해야 할 것이고 자신과 힘든 싸움도 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병식이가 그렇게 행동했다면 우리는 병식이가 용기 있게 행동하였다고 칭찬할 것이다.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가 보기에 성품의 탁월함을 가진 사람은 감돌이다.

왜냐하면 ㉠

(마) 우리가 어떠한 사람을 존경할 것인가가 아니라, 우리 아이를 어떤 사람으로 키우고 싶은가라는 질문을 받는다면 우리는 아리스토텔레스의 견해에 가까워질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아이들을 감돌이와 같은 사람으로 키우고 싶어할 것이기 때문이다.

33. (가)~(마)의 서술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는 논제를 설정하기 위해 개념을 구분하고 있다.
- ② (나)는 함축된 의미를 분명히 하기 위해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
- ③ (다)는 논점을 명료하게 하기 위해 개념의 차이를 부각시키고 있다.
- ④ (라)는 논점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체적인 예화를 사용하고 있다.
- ⑤ (마)는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 논점을 실제적인 물음과 연결 짓고 있다.

34.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그는 옳은 일을 하는 천성을 타고났기 때문이다.
- ② 그는 주체적 판단에 따라 옳은 일을 하기 때문이다.
- ③ 그는 내적인 갈등이 없이 옳은 일을 하기 때문이다.
- ④ 그는 자신이 옳다는 확신을 가지고 옳은 일을 하기 때문이다.
- ⑤ 그는 다른 사람들의 칭찬을 의식하지 않고 옳은 일을 하기 때문이다.

35.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의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을 비판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3점]

— <보 기> —

어떤 행위가 도덕적인 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도덕 법칙을 지키려는 의지에서 비롯된 것이어야 한다. 도덕 법칙에 부합하는 행위라고 해도 행위자의 감정이나 욕구 또는 성향이 행위의 동기에 영향을 미쳤다면, 그것은 훌륭한 행위일 수는 있어도 도덕적인 행위는 아닌 것이다.

- ① 탁월한 성품에서 비롯된 행위는 행위자의 성향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지, 도덕 법칙을 지키려는 의지에 의해 결정된 행위가 아니므로, 도덕적인 행위라고 볼 수 없다.
- ② 도덕적 행동을 하기 위해서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 내야 한다. 옳은 행동을 즐겨하는 사람은 거의 없으며, 따라서 탁월한 성품을 갖춘 사람을 찾기는 어렵다.
- ③ 행위의 도덕성은 그 행위가 얼마나 도덕 법칙에 부합하는가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결과를 낼 수 있는 품성이나 자질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다.
- ④ 훈련의 결과 언제나 탁월한 성품이 얻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탁월한 성품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결국 본성에 기댈 수밖에 없다.
- ⑤ 훈련으로 얻어지는 성품에서 나오는 행동은 대개 이성적 성찰을 거치지 않으므로, 도덕적인 행위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36. ㉠의 의미는 결여되어 있으면서 ㉡의 의미는 들어 있는 낱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빈말 ② 너스레 ③ 생트집
- ④ 어깃장 ⑤ 인사치레

[37~3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008.06

전 세계 해양의 평균 수심은 4,000미터 가까이 되며, 심해저에는 태양 에너지가 도달할 수 없어서 광합성을 하는 일차 생산자가 생존할 수 없다. 심해저에 서식하는 동물은 결국 바다의 표면에서 해저로 떨어져 내리는 유기물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것들은 해양 생물들이 분해되고 남은 잔존물로서 ‘바다의 눈(marine snow)’이라 불린다. 해양 생물이 죽게 되면 다른 생물의 먹이가 되거나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어, 심해저에 도달할 때쯤이면 거의 남는 것이 없다. 그런 까닭에 심해저에 많은 수의 생물이 살기란 매우 어렵다. 하지만 생물은 항상 새로운 생존 방법을 찾아오지 않았던가?

1977년 생물학 역사상 가장 흥분되는 발견 중의 하나가 있었다. 일단의 해양학자들은 잠수정 앨빈 호를 이용하여 동부 태평양의 갈라파고스 제도 부근 해저 산맥에 있는 심해 열수구 지역을 탐사하고 있었다. 그들은 태양 에너지가 전혀 도달하지 못하는 그곳에서 뜻밖에 많은 생물의 군집을 발견하였는데, 모두가 처음 보고되는 새로운 생물이었다.

수천 미터 깊이의 심해저에 있는 열수구 지역은 지각 활동으로 인해 흘러나오는 뜨거운 용출수 때문에 주변의 해수에 비해 온도가 높다. 곳에 따라서는 열수구로부터 섭씨 350도가 넘는 해수가 뿜어져 나오기도 한다. 지각 틈새에서 흘러나오는 고온의 해수에는 다양한 광물질이 녹아 있으며, 다량의 황화수소가 포함되어 있다. 그 지역에서는 검은색의 매연을 내뿜는 굴뚝과 같은 구조가 광물질의 침전으로 형성된다.

심해 열수구 지역의 우점종은 ‘리프티아’라고 불리는 커다란 관벌레인데, 매우 독특하게 진화된 영양 방식을 갖고 있어서 입이나 소화 기관이 없다. 그 대신에 관벌레는 ‘영양체(trophosome)’라고 불리는 매우 특수한 기관이 있는데, 그 안에는 ㉠세균이 가득 차 있다. 리프티아의 몸통은 기다란 관의 안쪽에 들어 있다. 관의 바깥쪽으로 돌출된 밝고 붉은색의 깃털구조는 아가미와 같은 역할을 하며, 이산화탄소와 산소, 그리고 황화수소를 교환한다. ㉡관벌레의 순환계는 매우 잘 발달되어 있고, 순환계 속의 혈액은 황화수소와 화학적으로 결합하는 특수한 헤모글로빈을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관벌레는 황화수소를 세균에 충분히 공급할 수 있다. 그 세균들은 화학 합성을 통해서 관벌레에게 먹이가 될 유기물을 공급하며, 관벌레는 세균이 필요로 하는 황화수소를 비롯한 무기물을 공급한다.

이와 같이 심해 열수구에서는 화학 합성 세균이 해양의 표층에서 광합성을 하는 식물성 플랑크톤과 같은 일차 생산자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 수천 미터 깊이의 심해에서 태양 에너지에 전혀 의존하지 않는 새로운 생물이 진화되어 왔던 것이다.

37. 윗글의 내용을 가장 잘 반영한 표제와 부제는?

- ① 생명체의 신비
- 심해저 생물의 생존 방식
- ② 심해저의 생태
- 심해저 생물종 간의 먹이 사슬
- ③ 해양 생물의 역사
- 심해 열수구 진화의 현장
- ④ 심해저의 신비와 아름다움
- 바다의 오아시스인 심해 열수구 지역
- ⑤ 생물학의 역사를 바꾼 일대 사건
- 앨빈 호 탐사의 생물학적 성과

38. ㉠과 ㉡의 관계가 나타난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갑각류의 일종인 등각류의 일부 종들은 산호초 지역에 서식하는 어류의 표피에 붙어서 그 체액을 빨아 먹고 산다.
- ② 열대 산호초에 사는 놀래기는 곰치의 입 안에 남아 있는 찌꺼기나 곰치의 표피에 있는 기생충을 먹고 산다.
- ③ 바닷가에 사는 집게류는 소라고둥의 껍데기 안에 사는데, 성장하면서 더 큰 소라고둥의 껍데기로 옮긴다.
- ④ 바닷가에 서식하는 현화식물인 잘피는 많은 동식물의 서식처가 되거나 어류에게 산란 장소를 제공한다.
- ⑤ 이빨 고래류는 물개와 같은 해산 포유류나 다랑어와 같은 어류를 먹이로 삼기도 한다.

39. 윗글의 내용을 근거로 하여 <보기>의 천문학자가 ㉠와 같이 추론했다고 할 때, 이 추론의 개연성을 높여 줄 수 있는 증거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목성의 위성 유로파는 태양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광합성에 충분한 태양 에너지가 도달하기 어렵다. 유로파의 표면은 두꺼운 얼음 층으로 덮여 있으며, 그 아래에는 물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1990년대 후반 우주 탐사선 갈릴레오 호는 유로파의 표면 사진들을 지구로 전송하였다. 이 사진들을 조사한 천문학자들은 ㉠유로파의 밝은 얼음 층 밑의 물에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였다.

- ① 유로파에 소행성이 충돌했다는 증거
- ② 유로파가 지각 활동을 하고 있다는 증거
- ③ 유로파의 대기에 산소가 포함되어 있다는 증거
- ④ 유로파가 태양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증거
- ⑤ 유로파의 얼음 층 밑의 물이 지구의 바다만큼 깊다는 증거

[40~4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008.06

(가) 20세기 초에 이르기까지 유럽의 언어학자들은 언어를 진화하고 변화하는 대상으로 보고, 언어학이 역사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이러한 관점은 “언어가 역사적으로 발달해 온 방식을 어느 정도 고찰하지 않고서는 그 언어를 성공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라는 파울의 말로 대변된다.

(나) 이러한 경향에 반해 소쉬르는 언어가 역사적인 산물이라든 변화 이전과 변화 이후를 구별해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언어는 구성 요소의 순간 상태 이외에는 어떤 것에 의해서도 규정될 수 없는 가치 체계이므로, 그 자체로서의 가치 체계와 변화에 따른 가치를 구별하지 않고서는 언어를 정확하게 연구할 수 없다는 것이다. 화자는 하나의 상태 앞에 있을 뿐이며, 화자에게는 시간 속에 위치한 현상의 연속성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한 시기의 언어 상태를 기술하기 위해서는 그 상태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무시해야 한다고 하였다.

(다)



소쉬르에 따르면, 공시태는 위 그림에서 가로축에 해당한다. 공시태는 공존하는 사항 간의 관계를 말하는 동시성의 축이며, 시간의 어떠한 개입도 배제된 정적인 언어 상태이다 (A 시대, B 시대). 통시태는 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의 이행이다 (A 시대 → B 시대). 공시적, 통시적이라는 말은 현상 자체를 말하기도 하고, 언어 현상을 기술하는 언어학자의 방법론이나 관점을 말하기도 한다. 공시적 연구는 언어의 한 상태를 고찰하는 것이고, 통시적 연구는 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의 이행을 고찰하는 것이다.

(라) 소쉬르의 개념과 방법론은 언어학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하였으며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다만 소쉬르가 공시태를 정적인 상태, 즉 정태와 동일시하였던 점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논의가 있어 왔다. 언어는 변화하는 것이므로 시간의 개입이 완전히 배제된 정적인 상태라는 것은 현실에서 존재하기 어렵다. 야콥슨은 음운 변이는 변하지 않는 언어 요소들과 같은 자격으로 공시적 연구의 대상이 되어야 하며, ㉠ 정태와 ㉡ 공시태를 동의어로 보는 것은 오류라고 하였다. 마르티네도 언어가 변화하지만 기능이 그치는 것이 아니며, 또한 어떤 언어의 기능을 기술하려 할 때에도 그 언어가 변화하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논의들은 소쉬르가 말한 공시태 개념이 갖는 문제점을 비판하고 수정한 것이다.

40. (나)의 소쉬르의 관점에서 (가)의 파울의 관점을 비판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언어에는 역사의 유물과 같은 증거가 없기 때문에 언어학은 과거의 언어와 관련된 사실을 밝힐 수 없다.
- ② 화자의 말은 발화 당시의 언어 상태를 반영하므로 언어 연구는 그 당시의 언어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
- ③ 언어는 끊임없이 변화하므로 변화의 내용보다는 변화의 원리를 밝히는 것이 더 중요하다.
- ④ 현재의 언어와 과거의 언어는 각각 정적인 상태이지만 전자는 후자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 ⑤ 자연 현상과는 달리 과거의 언어와 현재의 언어는 인과 관계에 의해 설명될 수 없다.

41. <보기>와 같이 ‘줍쌀’이란 단어에 대해 정리한 후, (다)에 쓰인 용어들을 적용해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 ‘줍쌀’의 중세 국어 어형은 ‘조쌀’인데, 이는 ‘조ㅎ’과 ‘쌀’이 결합한 것이다.
- ‘조쌀’은 ‘ㅁ’이 ‘ㅅ’으로, ‘·’가 ‘ㅏ’로 변화하여 오늘날의 ‘줍쌀’이 되었다.
- ‘줍쌀’의 ‘ㅁ’은 ‘쌀’의 훈적이다.

- ①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줍쌀’은 현대 국어에서 공시태이겠네.
- ② 현대 국어를 공시적으로 연구할 때는 ‘줍쌀’의 ‘ㅁ’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겠네.
- ③ ‘쌀’이 어떻게 ‘쌀’이 되었는지를 고찰하면 그것은 통시적 연구이겠네.
- ④ ‘쌀’로 변하기 이전의 ‘쌀’은 중세 국어에서 통시태이겠네.
- ⑤ 중세 국어에서 ‘조쌀’을 ‘조ㅎ+쌀’로 분석하면 그것은 공시적 연구이겠네.

42. (라)를 바탕으로 ㉠과 ㉡의 개념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날아가는 화살이 한 순간에 정지되어 있다고 볼 수도 있고 그 순간에도 이동성을 갖고 있다고 볼 수도 있는데, 전자가 ㉠이고 후자가 ㉡이다.
- ② 사람은 태어나서 자라다가 어느 시점에서는 성장이 멈추는데, 이때 성장하는 과정이 ㉠이고 성장이 멈춘 상태가 ㉡이다.
- ③ 퍼즐 조각이 다 맞춰졌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 퍼즐판의 상태는 다른데, 전자가 ㉠이고 후자가 ㉡이다.
- ④ 음표는 악보에서는 기호이지만 연주될 때는 소리인데, 악보의 음표가 ㉠이고 연주된 소리가 ㉡이다.
- ⑤ 정지했을 때 보는 산과 이동 중일 때 보는 산의 모습이 다른데, 전자가 ㉠이고 후자가 ㉡이다.

[47~5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008.06

예술은 인간 감정의 구현체로 간주되곤 한다. 그런데 예술과 감정의 연관은 예술이 지닌 부정적 측면을 ㉔ 드러내는 데 쓰이기도 했다. 즉, 예술은 이성적으로 통제되지 않는 비합리적 활동, 심지어는 광기 어린 활동으로 ㉕ 여겨지곤 했다. 그렇지만 예술과 감정의 연관을 긍정적인 측면에서 해석하려는 입장도 유구한 전통을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입장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톨스토이와 콜링우드를 들 수 있다.

톨스토이의 견해에 ㉖ 따르면, 생각이 타인에게 전달될 필요가 있듯이 감정도 그러하다. 이때 감정을 타인에게 전달하는 주요 수단이 예술이다. 예술가는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감정을 떠올린 후, 작품을 통해 타인도 공감할 수 있도록 전달한다. 그런데 이때 ㉗ 전달되는 감정은 질이 좋아야 하며, 한 사회를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연대감이나 형제애가 그러한 감정이다. 이런 맥락에서 톨스토이는 노동요나 민담 등을 높이 평가하였고, 교태 어린 리스트의 음악이나 허무적인 보들레르의 시는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좋은 감정이 잘 표현된 한 편의 예술이 전 사회, 나아가 전 세계를 감동시키며 세상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반면, 콜링우드는 톨스토이와 생각이 달랐다. 콜링우드는 연대감이나 형제애를 사회에 전달하는 예술이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았다. 전체주의적 대규모 집회에서 드러나듯 예술적 효과를 통한 연대감의 전달은 때론 비합리적 선동을 강화하는 결과를 ㉘ 낳는다. 톨스토이 식으로 예술과 감정을 연관시키는 것은 예술에 대한 앞서의 비판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따라서 콜링우드는 감정의 전달이라는 외적 측면보다는 감정의 정리라는 내적 측면에 관심을 ㉙ 둔다.

콜링우드에 따르면, 언어가 한 개인의 생각을 정리하는 수단 이듯이 예술은 한 개인의 감정을 정리하는 수단이다. 우리의 생각을 정리하는 훈련이 필요하듯이 우리의 감정도 그러하다. 일상사에서 벌떡 화를 내거나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다 보면 감정을 지나치게 드러낸 듯하여 쑥스러운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런데 분노나 슬픔은 공책을 펴 놓고 논리적으로 곰곰이 추론한다고 정리되는 것이 아니다. 생각은 염주 알처럼 진해되지만, 감정은 불쑥 솟구쳐 오르거나 안개처럼 스멀스멀 밀려오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간의 감정은 그와 생김새가 유사한 예술을 통해 정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베토벤이 인생의 파란만장한 곡절을 「운명」 교향악을 통해 때론 용솟음치며 때론 진저리 치며 굽이굽이 정리했듯이, 우리는 자기 나름의 적절한 예술적 방식을 통해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예술을 통해 우리의 감정이 정리되었으면 굳이 타인에게 전달하지 않더라도 예술은 그 소임을 충분히 완성한 것이다.

톨스토이와 콜링우드 양자의 입장은 차이가 있지만, 양자 모두 예술과 감정의 긍정적 연관성에 주목하면서 예술의 가치를 옹호하였으며, 이들의 이론은 특히 질풍처럼 몰아치고 노도처럼 격동했던 낭만주의 예술을 이해하는 데 기여하였다.

47. 영국의 시인 키츠가 <보기>와 같이 말한 이유를 콜링우드의 견해를 바탕으로 가장 잘 설명한 것은?

—<보 기>—

불면의 밤을 보내며 완성한 시를 아침 해를 바라보며 불태워 버려도 좋다.

- ① 창작한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 ② 창작 작업에 근본적인 회의를 느꼈기 때문이다.
- ③ 혼란한 감정을 시를 통해 정화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 ④ 아침 해를 바라보며 불같은 열정을 새롭게 느꼈기 때문이다.
- ⑤ 다른 사람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키지 못할 것을 염려했기 때문이다.

48. <보기>의 관점에서 윗글을 비판적으로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음악의 아름다움이란 음악의 형식을 통해 드러나는 아름다움이다. 외부에서 주어질 어떤 내용도 필요치 않고, 오직 독립적인 음들 및 그것들의 형식적 연관으로만 존재하는 그러한 아름다움이 곧 음악적 아름다움이다. 매력 넘치는 소리들의 연관, 그 연관의 조화와 대립, 이탈과 도달, 상승과 소멸 등이야말로 우리 앞에 자유로운 형식으로 나타나 만족을 주는 것들이다.

- ① 예술의 본질은 감정보다는 형식이다. 우리에게 미적 즐거움을 주는 원천은 예술 고유의 조형적 아름다움이지 않은가.
- ② 예술이 감정을 전달하려면 감정의 전달 수단인 형식도 중요하다. 아름다운 형식을 갖추지 못하면 정치적 선동이 되는 것이 아닌가.
- ③ 예술은 감정이 아닌 절대적 이념의 표현이다. 예술과 감정의 연관을 너무 강조하는 것은 예술이 지닌 숭고한 정신적 이념을 간과한 것이 아닌가.
- ④ 용솟음치는 감정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는가. 감정이 정형화된 형식을 넘어 예술을 통해 자유로이 분출됨으로써 우리는 만족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닌가.
- ⑤ 예술의 핵심은 감정이라기보다는 파란만장한 인간 삶의 형식을 묘사하는 일이다. 그러한 묘사를 통해 우리는 타인의 삶을 가슴 깊이 이해할 수 있지 않은가.

49. ㉠의 관점이 가장 잘 드러난 작품은?

- ① 포수는 한 덩이 남으로/그 순수를 겨냥하지만,/매양 쏘는 것은/피에 젖은 한 마리 상한 새에 지나지 않는다.
- ② 밤에 홀로 유리를 닦는 것은/외로운 황홀한 심사이어니,/고운 폐혈관이 찢어진 채로/아아, 너는 산새처럼 날아갔구나!
- ③ 눈물 아롱아롱/피리 불고 가신 임의 밟으신 길은/진달래 꽃비 오는 서역 삼만 리./흰 옷깃 여며 여며 가옵신 임의/다시 오진 못하는 파촉 삼만 리.
- ④ 인생은 외롭지도 않고/그저 잡지의 표지처럼 통속하거늘/한탄할 그 무엇이 무서워서 우리는 떠나는 것일까/목마는 하늘에 있고/방울 소리는 귓전에 철렁거리는데
- ⑤ 보리밭에 내리던 봄눈들을 데리고/추위 떠는 사람들의 슬픔에게 다녀와서/눈 그친 눈길을 너와 함께 걷겠다./슬픔의 힘에 대한 이야길 하며/기다림의 슬픔까지 걸어가겠다.

50. ㉠~㉣를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부각(浮刻)시키는 ② ㉡: 치부(置簿)되곤
- ③ ㉢: 의거(依據)하면 ④ ㉣: 초래(招來)한다
- ⑤ ㉤: 전환(轉換)한다

[20~2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07.11

(가) 제2차 세계 대전 중, 태평양의 한 전투에서 일본군은 미군 혹은 병사들에게 자신들은 유색인과 전쟁할 의도가 없으니 투항하라고 선전하였다. 이 선전물을 본 백인 장교들은 그것이 혹은 병사들에게 미칠 영향을 우려하여 급하게 부대를 철수시켰다. 사회학자인 데이비슨은 이 사례에서 아이디어를 ㉠ 언어서 대중 매체가 수용자에게 미치는 영향과 관련한 ‘제3자 효과(third-person effect)’ 이론을 발표하였다.

(나) 이 이론의 핵심은 사람들이 대중 매체의 영향력을 차별적으로 인식한다는 데에 있다. 곧 사람들은 수용자의 의견과 행동에 미치는 대중 매체의 영향력이 자신보다 다른 사람들에게서 더 크게 나타나리라고 믿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선거 때 어떤 후보에게 탈세 의혹이 있다는 신문 보도를 보았다고 하자. 그때 사람들은 후보를 선택하는 데에 자신보다 다른 독자들이 더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여긴다. 이러한 현상을 데이비슨은 ‘제3자 효과’라고 하였다.

(다) 제3자 효과는 대중 매체가 전달하는 내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예컨대 대중 매체가 건강 캠페인과 같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내용을 전달할 때보다 폭력물이나 음란물처럼 유해한 내용을 전달할 때, 사람들은 자신보다 다른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더욱 크게 인식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수용자의 구체적인 행동에도 영향을 미쳐, 제3자 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사람일수록 내용물의 심의, 검열, 규제와 같은 법적·제도적 조치에 찬성하는 성향을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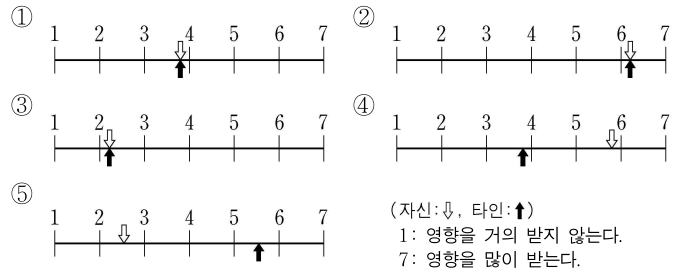
(라) 전통적으로 대중 매체 연구는 매체에 노출된 수용자의 반응, 즉 그들이 보이는 태도나 행위의 변화를 조사하였다. 이에 비해 제3자 효과 이론은 매체의 영향 자체가 아니라 그것에 대한 사람들의 차별적 인식 및 그에 따른 행동 성향을 조사했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특히 사회적으로 유해한 내용의 영향력에 대한 우려가 실제보다 과장되었을 수 있음을 보여 준다. 또한 ㉡ 검열과 규제 정책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사고가 어떠한 것인지도 짐작하게 해 준다.

(마) 제3자 효과 이론은 사람들이 다수의 의견처럼 보이는 것에 영향받을 수 있다는 이론과 연결되면서, 여론의 형성 과정을 설명하는 데에도 이용되었다. 이 설명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신은 대중 매체의 전달 내용에 쉽게 영향받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이 영향받을 것을 고려하여 자신의 태도와 행위를 결정한다. 즉 다른 사람들에게서 소외되어 고립되는 것을 염려한 나머지, 자신의 의견을 포기하고 다수의 의견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따라가게 된다는 것이다.

20. (가)~(마)의 중심 화제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 제3자 효과 이론의 등장 배경
- ② (나): 제3자 효과의 개념
- ③ (다): 제3자 효과 이론의 유형
- ④ (라): 제3자 효과 이론의 의의
- ⑤ (마): 제3자 효과 이론의 응용

21. 자신과 타인에게 미치는 대중 매체의 영향력에 대한 인식을 표시한 것 중, 제3자 효과가 나타난 것은?



22. ㉠의 문맥적 의미와 가장 유사한 것은?

- ① 돈을 얻을 곳이 또 어디 없을까?
- ② 책에서 얻은 지혜로 성공할 수 있었다.
- ③ 여행 중에 얻은 병이 아직도 낫지 않았다.
- ④ 발언권을 먼저 얻고 나서 말씀해 주십시오.
- ⑤ 늘그막에 자식을 얻더니 웃음이 끊이지 않는다.

23. ㉡의 입장을 뒷받침하는 진술로 보기 어려운 것은?

- ① 사회적으로 유해한 내용의 영향력이 실제보다 과장되어 있다.
- ② 대중 매체의 유해한 영향으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해야 한다.
- ③ 유해한 내용일수록 사람들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 ④ 검열과 규제가 사람들을 보호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 ⑤ 대중 매체에 쉽게 영향받는 사람들이 있다.

[24~2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007.11

일찍이 경제학자 클라크는 산업을 자연으로부터 원료를 채취하거나 생산하는가, 그 원료를 가공하는가, 가공된 원료를 유통하는가에 따라 1차, 2차, 3차 산업으로 분류했다. 그러나 이 방식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산업이 생겨나고 있다. 가령,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모두 포함하는 정보 통신 산업은 어디에 속할까? 이처럼 기술이 진보하고 산업 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새로운 분류 기준이 필요해졌고, 실제로 산업을 바라보는 관점과 목적에 따라 다양한 분류 기준이 존재한다.

먼저, 국가에서 제정한 표준산업분류가 있다. 이 분류는 소비자의 관점에서 재화 또는 서비스의 특성이 얼마나 유사한지, 생산자의 관점에서 투입물이나 산출물의 물리적 구성 및 가공 단계가 얼마나 유사한지를 모두 고려하여 작성된 것으로, 이 기준으로 분류된 제품이나 서비스의 집합을 동일한 산업으로 정의한다. 대분류, 중분류 등 모두 다섯 단계로 구성된 이 분류 방법은 주로 통계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각 산업의 기술 수준을 판단할 정보는 포함하지 않는다.

기술 수준에 따른 분류 체계의 대표적인 것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기준이 있는데, 이 기준은 연구 개발 투자가 많은 산업을 첨단 기술 산업으로 본다. 기술 수준을 측정하는 지표로는 기업의 총 매출액 대비 연구 개발 투자액의 비율로 정의되는 '연구 개발 집약도'를 사용하며, 그 평균이 4% 이상이면 그 산업을 첨단 기술 산업으로 분류한다. 이 방법은 첨단 기술 산업을 객관적으로 규정해 준다는 점에서 유용하다. 그러나 산업의 평균을 토대로 하기 때문에 산업 전체로는 첨단 기술 산업이지만 그 안에 얼마든지 저급 기술 기업이 있을 수 있다.

한편, 기술이 진보한 결과 새로운 기술 영역이 출현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등장한 기술 영역은 신속한 실용화의 요구 때문에 그대로 새로운 산업으로 형성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예를 들어 정보 기술에서 비롯된 정보 기술 산업은 이미 핵심적인 산업으로 자리 잡았고, 바이오 기술, 나노 기술, 환경 기술 등도 미래의 유망 산업으로 부각되고 있다.

산업의 변화는 기술 이외에 시장 수요의 측면에서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가령, 인구 구성과 소비 가치가 변화함에 따라서 과거의 고정관념에 얽매이지 않는 수많은 새로운 산업이 나타나고 있다. 패션 산업, 실버산업, 레저 산업 등은 표준산업분류에 나오지 않지만 현실적으로 이미 중요한 산업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를 고려할 때 앞으로 산업을 정의하거나 분류할 때에는 고정된 기준이나 체계보다 신속적이고 실질적인 접근 방식을 많이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 또, 기술 혁신이 가속화되고 구매력을 가진 인구의 구성이 달라지면 새로운 산업이 ④ 생겨나고 오래된 산업이 ⑤ 사라지는 현상도 더 활발히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제 ① 산업의 정의나 분류도 유연하고 전략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24.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클라크의 산업 분류는 기술 진보의 정도를 반영한다.
- ② 표준산업분류는 소비자와 생산자의 관점을 반영한다.
- ③ 연구 개발 집약도가 4% 이상인 산업이라도 그 안에 저급 기술 기업이 있을 수 있다.
- ④ 새로운 기술 영역이 새로운 산업을 형성하는 경우가 있다.
- ⑤ 시장 수요의 측면을 고려한 새로운 산업 분류가 가능하다.

25. <보기>의 A에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대학교는 기존의 어느 학과에도 소속시킬 수 없는 새로운 학문을 가르치기 위해 그 학문의 명칭을 사용한 학과를 신설하였다. 그래서 로봇공학을 가르치기 위해 로봇 공학과를, 분자생물학을 가르치기 위해 분자생물학과를 신설하였다. 이것은 새로운 학문의 명칭을 그대로 학과 명칭에 사용했다는 점에서, 윗글에서 설명한 기준이나 관점 중에 A 과 유사하다.

- ① 클라크의 기준
- ② 표준산업분류의 기준
- ③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기준
- ④ 기술 영역을 중시하는 관점
- ⑤ 시장 수요를 고려하는 관점

26. ㉠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기존의 분류로 파악하기 힘든 산업의 실상을 반영하기 위하여
- ② 연구 개발 투자를 확대해야 할 산업을 선정하기 위하여
- ③ 다양한 산업에 대한 통계적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 ④ 각 산업의 기술 수준을 판단할 정보를 찾기 위하여
- ⑤ 동일한 산업을 다양한 기준으로 분류하기 위하여

27. 낱말 사이의 의미 관계가 ㉠:㉡와 다른 하나는?

- ① 태어나다: 자라다
- ② 들어가다: 나오다
- ③ 올라오다: 내려가다
- ④ 떠오르다: 가라앉다
- ⑤ 나아가다: 물러나다

[33~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007.11

지식의 본성을 다루는 학문인 인식론은 흔히 지식의 유형을 나누는 데에서 이야기를 시작한다. 지식의 유형은 ‘안다’는 말의 다양한 용례들이 보여 주는 의미 차이를 통해서 ㉠ 드러나기도 한다. 예컨대 ‘그는 자전거를 탈 줄 안다’와 ‘그는 이 사과가 둥글다는 것을 안다’에서 ‘안다’가 바로 그런 경우이다. 전자의 ‘안다’는 능력의 소유를 의미하는 것으로 ‘절차적 지식’이라고 부르고, 후자의 ‘안다’는 정보의 소유를 의미하는 것으로 ‘표상적 지식’이라고 부른다.

어떤 사람이 자전거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갖고 있다고 해서 자전거를 탈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니며, 자전거를 탈 줄 알기 위해서 반드시 자전거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갖고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 아무 정보 없이 그저 넘어지거나 다치거나 하는 과정을 거쳐 자전거를 탈 줄 알게 될 수도 있다. ‘자전거가 왼쪽으로 기울면 핸들을 왼쪽으로 틀어라’와 같은 정보를 이용해서 자전거 타는 법을 ㉡ 배운 사람이라도 자전거를 익숙하게 타게 된 후에는 그러한 정보를 전혀 의식하지 않고서도 자전거를 잘 탈 수 있다. 자전거 타기 같은 절차적 지식을 갖기 위해서는 훈련을 통하여 몸과 마음을 특정한 방식으로 조직화해야 한다. 그러나 특정한 정보를 마음에 떠올릴 필요는 없다.

반면, ‘이 사과는 둥글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둥근 사과와 이미지가 되었건 ‘이 사과는 둥글다’는 명제가 되었건 어떤 정보를 마음속에 떠올려야 한다. ‘마음속에 떠올린 정보’를 표상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지식을 표상적 지식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어떤 표상적 지식을 새로 얻게 됨으로써 이전에 할 수 없었던 어떤 것을 하게 될지는 분명하지 않다. 이런 점에서 표상적 지식은 절차적 지식과 달리 특정한 일을 수행하는 능력과 직접 연결되어 있지 않다.

표상적 지식은 다시 여러 가지 기준에 ㉢ 따라 나눌 수 있는데, 그중에서도 ‘경험적 지식’과 ‘선형적 지식’으로 나누는 방법이 대표적이다. 경험적 지식이란 감각 경험에서 얻은 증거에 의존하는 지식으로, ‘그는 이 사과가 둥글다는 것을 안다’가 그 예이다. 물리적 사물들의 특정한 상태, 즉 사과와 둥근 상태가 감각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입력되고, 인지 과정을 거쳐 하나의 표상적 지식이 ㉣ 이루어진 것이다. ㉤ 우리는 감각 경험을 통해 직접 만나는 개별적인 대상들로부터 귀납추리를 통해 일반 법칙에 도달할 수 있다. ㉥ 따라서 자연 세계의 일반 법칙에 대한 지식도 경험적 지식이다.

한편, 같은 표상적 지식이라 할지라도 ‘2+3=5’를 아는 것은 ‘이 사과가 둥글다’를 아는 것과는 다르다. ‘2+3=5’라는 명제는 감각 경험의 사례들에 의해서 반박될 수 없는 진리이다. 예컨대 물 2리터에 알코올 3리터를 합한 용액이 5리터가 안 되는 것을 발견했다고 해서 이 명제가 거짓이 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감각 경험의 증거에 의존하지 않는 지식이 선형적 지식이다. 그래서 어떤 철학자들은 인간에게 경험 이외에 지식을 산출하는 ㉦ 다른 인식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며, 수학적 지식이 그것을 보여 주는 좋은 예가 된다고 믿는다.

33.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알’이란 어떤 능력이나 정보의 소유를 의미한다.
- ② 절차적 지식은 다른 지식 유형의 기반이 된다.
- ③ 표상적 지식은 특정한 수행 능력으로 바로 이어지지 않는다.
- ④ 경험적 지식은 표상적 지식의 일종이다.
- ⑤ 감각 경험의 사례를 근거로 선형적 지식을 무너뜨릴 수는 없다.

34. 밑줄 친 말이 의미하는 바가 표상적 지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나는 그 노래를 부른 가수의 이름을 알아.
- ② 나는 세종대왕을 알아. 그분은 한글을 창제한 분이시지.
- ③ 우리 아저씨만큼 개를 잘 다룰 줄 아는 사람은 아직 못 봤어.
- ④ 내 동생은 2를 네 번 더하면 8인 줄은 아는데, ‘2×4=8’은 모른다.
- ⑤ 퀴즈의 답이 ‘피아노’인 줄 알고 있었는데, 너무 긴장해서 아무 말도 못했다.

35. ㉠으로부터 ㉥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생략된 전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귀납추리는 일반 법칙에 기초해 있다.
- ② 귀납추리는 자연에 대한 지식을 확장해 준다.
- ③ 귀납추리는 지식의 경험적 성격을 바꾸지 않는다.
- ④ 귀납추리는 지식이 경험 세계를 넘어서도록 한다.
- ⑤ 귀납추리의 결론은 전제로부터 필연적으로 도출되지 않는다.

36. ㉠~㉦를 바꿔 쓴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천명(闡明)되기도 ② ㉡: 습득(習得)한
- ③ ㉢: 의거(依據)하여 ④ ㉣: 형성(形成)된
- ⑤ ㉤: 별개(別個)의

[37~4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007.11

많은 미술가들은 대중 매체를 조작이나 선전의 혐의가 있는 것으로 불신하며, 대중문화를 천박한 것으로 간주한다. 그들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자신들의 생각을 표현해 왔다. 예를 들어 샌들은 ㉠「자유를 위한 힘찬 일격」이라는 조각 작품에서 힘찬 몸짓으로 텔레비전을 부수고 있는 인물을 형상화하여 대중 매체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그러나 그저 전면적인 비난과 거부로는 대중 매체의 부정적 측면을 폭로하거나 비판하려는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기 어렵다. 작품만으로 작가가 왜 이처럼 분개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사실 텔레비전 수상기 몇 대가 부수어진들 대중 매체에는 아무 변화도 없을 것이기에, 이 힘찬 조각은 오히려 무력해 보이기도 한다.

대중 매체에 대한 부정적 태도는 소위 ㉡「근본주의 회화」에서도 찾을 수 있다. 이 경향의 미술가들은 회화 예술만의 특성, 즉 ‘회화의 근본’을 찾아내려고 고심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목표를 극단으로 추구한 나머지 결국 회화에서 대상의 이미지를 제거해 버렸다. 그것이 이미지들로 가득 차 있는 사진, 영화, 텔레비전 같은 대중 매체를 부정하는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사물의 이미지와 세상의 여러 모습들이 사라져 버린 회화에서는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주제나 내용을 발견할 수 없었다. 대신 그림을 그리는 과정과 방식이 중요해졌고, 그 자체가 회화의 주제가 되어 버렸다. 이것은 대중 매체라는 위압적인 경쟁자에 맞서 회화가 택한 절박한 시도였다. 그 결과 회화는 대중 매체와 구별되는 자신을 찾았지만, 남은 것은 회화의 빈곤을 보여 주는 텅 빈 캔버스뿐이었다.

회화의 내용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대중 매체를 성공적으로 비판한 경우는 없었을까? ‘팝 아트’는 대중문화의 산물들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면서 그 속에서 대중 매체에 대한 비판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이는 특히 ㉢영국의 초기 팝 아트에서 두드러진다. 그들은 ㉣대중문화의 이미지를 차용하여 그것을 ㉤맥락이 다른 이미지 속에 재배치함으로써 ㉥생겨나는 새로운 의미에 주목하였다. 이를 통해 그들은 ㉦비판적 의도를 표출했는데, ㉧대중문화에 대한 비판도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후 미국의 팝 아트는 대중문화에 대한 부정도 긍정도 아닌 애매한 태도나 낙관주의를 보여 주기도 하지만, 거기에도 비판적 반응으로 해석될 수 있는 작품들이 있다. 리히텐슈타인이 대중문화의 하나인 만화의 양식을 본떠 제작한 ㉨「파광!」과 같은 작품이 그 예이다.

리히텐슈타인은 색이나 묘사 방법 같은 형식적 요소들 때문에 만화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만화가 세계를 ‘어떻게’ 재현하는 지에 주목한 것이다. 예를 들어 만화가 전쟁을 다룰 경우, 전쟁의 공포와 고통은 밝고 경쾌한 만화의 양식으로 인해 드러나지 않게 된다. 「파광!」에서 리히텐슈타인은 만화에서 흔히 보는 공중전 장면을 4미터가 넘는 크기로 확대하여 과장하고, 색도 더욱 장식적으로 사용함으로써 만화의 재현 방식 자체를 주제로 삼았다. 이 점에서 「파광!」은 추상화처럼 형식에 주목하기를 요구하는 그림이다. 그러나 내용도 역시 작품의 감상에 중요한 요소로 관여한다. 관람객들이 「파광!」의 폭력적인 내용과 명량한

묘사 방법 간의 모순이 섬뜩한 것임을 알아차릴 때 비로소 작가의 비판적인 의도가 성취되기 때문이다.

37.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 ① 대중 매체에 대한 비판으로는 전면적인 거부가 가장 효과적이다.
- ② 근본주의 화가들은 처음부터 자신들의 목표를 달성할 수 없음을 알고 있었다.
- ③ 영국의 팝 아트는 미국에 비해 비판적 시각이 부족했다.
- ④ 미국의 팝 아트는 대중문화에 대해 다양한 태도를 보였다.
- ⑤ 리히텐슈타인의 미술은 근본주의 회화가 미국에서 성공한 사례이다.

38.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3점]

- ① ㉠과 ㉡은 대상의 이미지가 담겨 있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 ② ㉠과 ㉢은 반전(反戰)을 내용으로 한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 ③ ㉡과 ㉣은 대상의 이미지가 사라진 추상이라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 ④ ㉡과 ㉢은 그리는 방식이 주제가 된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 ⑤ ㉢과 ㉣은 작품의 의미가 공허하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39. ㉠~㉥ 중, <보기>의 사례에서 찾을 수 없는 것은?

—<보 기>—

영국 미술가 해밀턴은 1964년 당시 영국의 정치가 휴 게이츠켈의 정책에 반대하는 입장을 드러내기 위해 「영화 속 괴물 휴 게이츠켈의 초상」을 제작하였다. 그는 이 정치가의 확대된 얼굴 사진을 놓고 그 일부를 공포 영화 「오페라의 유령」에 등장하는 유령의 모습처럼 바꾸어, 이 정치가가 비인간적 면모를 감추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려 하였다.

- ① a ② b ③ c ④ d ⑤ e

40. 관람객의 입장에서 「파광!」이 대중문화에 대한 성공적인 비판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명량한 색감과 만화적 재현 방식 사이의 부조화
- ② 확대된 크기와 다른 형식적 요소들 간의 충돌
- ③ 밝은 색채와 세밀한 묘사 방법 간의 불협화음
- ④ 폭력적 주제와 비판적 의도 간의 불일치
- ⑤ 재현된 내용과 만화적 양식 간의 모순

[46~5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07.11

1894년, 화성에 고도로 진화한 지적 생명체가 존재한다는 주장이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이러한 주장은 당시 화성의 지도들에 나타난, ‘운하’라고 불리던 복잡하게 얽힌 선들에 근거를 두고 있었다. 화성의 ‘운하’는 1878년에 처음 보고된 뒤 거의 30년간 여러 화성 지도에 계속해서 나타났다. 존재하지도 않는 화성의 ‘운하’들이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천문학자들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었을까?

19세기 후반에 망원경 관측을 바탕으로 한 화성의 지도가 많이 제작되었다. 특히 1877년 9월은 지구가 화성과 태양에 동시에 가까워지는 시기여서 화성의 표면이 그 어느 때보다도 밝게 보였다. 영국의 아마추어 천문학자 그린은 대기가 청명한 포르투갈의 마테이라 섬으로 가서 13인치 반사 망원경을 사용해서 화성을 보이는 대로 직접 스케치했다. 그린은 화성 관측 경험이 많았으므로 이전부터 이루어진 자신의 관측 결과를 참고하고, 다른 천문학자들의 관측 결과까지 반영하여 당시로서는 가장 정교한 화성 지도를 제작하였다.

그런데 이듬해 이탈리아의 천문학자인 스키아파렐리의 화성 지도가 나오면서 이 지도의 정확성이 도전받았다. 그린과 같은 시기에 수행한 관측을 토대로 제작한 스키아파렐리의 지도에는, 그린의 지도에서 흐릿하게 표현된 지역에 평행한 선들이 그물모양으로 교차하는 지형이 나타나 있었기 때문이었다. 스키아파렐리는 이것을 ‘카날리(canali)’라고 불렀는데, 이것은 ‘해협’이나 ‘운하’로 번역될 수 있는 용어였다.

① 절차적 측면에서 보면 그린의 스키아파렐리보다 우위를 점하고 있었다. 우선 스키아파렐리는 전문 천문학자였지만 화성 관측은 이때가 처음이었다. 게다가 그는 마테이라 섬보다 대기의 청명도가 떨어지는 자신의 천문대에서 관측을 했고, 배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8인치 반사 망원경을 사용했다. 또한 그는 짧은 시간에 특징만을 스케치하고 나중에 기억에 의존해 그것을 정교화했으며, 자신만의 관측을 토대로 지도를 제작했던 것이다.

그런데도 승리는 스키아파렐리에게 돌아갔다. 그가 천문학계에서 널리 알려진 존경받는 천문학자였던 것이 결정적이었다. 대다수의 천문학자들은 그들이 존경하는 천문학자가 눈에 보이지도 않는 지형을 지도에 그려 넣었으리라고는 생각하기 어려웠다. 게다가 스키아파렐리의 지도는 지리학의 채색법을 그대로 사용하여 그린의 지도보다 호소력이 강했다. 그 후 스키아파렐리가 몇 번 더 ‘운하’의 관측을 보고하자 다른 천문학자들도 ‘운하’의 존재를 보고하기 시작했고, 이후 더 많은 ‘운하’들이 화성 지도에 나타나게 되었다.

일단 권위자가 무엇인가를 발견했다고 알려지면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다. 더구나 관측의 신뢰도를 결정하는 척도로 망원경의 성능보다 다른 조건들이 더 중시되던 당시 분위기에서는 이러한 오류가 수정되기 어려웠다. 성능이 더 좋아진 대형 망원경으로는 종종 ‘운하’가 보이지 않았는데, ㉠ 놀랍게도 ‘운하’ 가설 옹호자들은 이것에 대해 대형 망원경이 높은 배율 때문에 어떤 대기 상태에서는 오히려 왜곡이 심해서 소형 망원경보다 해상도가 떨어질 수 있다고 ‘해명’하곤 했던 것이다.

46. 윗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천문학과 지리학의 만남: 화성 지도
- ② 설명과 해명: 그린과 스키아파렐리
- ③ 과학의 신화: 화성 생명체 가설
- ④ 과학사의 그늘: 화성의 운하
- ⑤ 과학의 방법: 경험과 관찰

47. ㉠의 근거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보이는 대로 직접 그림
- ② 지리학의 방식대로 채색함
- ③ 더 높은 배율의 망원경을 사용함
- ④ 다른 관측자의 관측 결과를 반영함
- ⑤ 관측 조건이 더 양호한 곳에서 관측함

48. 윗글의 사례와 <보기>의 유사점이 아닌 것은?

—<보 기>—

17세기 초 갈릴레오는 당시로서는 배율이 가장 높은 망원경을 사용하여 달을 관측한 뒤, 달에서 산과 계곡을 발견했다고 보고했다. 갈릴레오는 이 발견을 토대로 전통적으로 믿어왔던 아리스토텔레스의 견해에 도전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견해에 따르면 달은 천상계의 물체이므로 완전한 구형이어야 했던 것이다. 당시 아리스토텔레스의 추종자들은 갈릴레오의 망원경이 달을 있는 그대로 보여 준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반대는 더 높은 배율의 망원경이 개발되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천상계의 완전성 개념이 무너질 때까지 수십 년간 지속되었다.

- ① 망원경에 대한 불신이 개입된 점
- ② 천상계의 완전성 개념이 논란이 된 점
- ③ 관측 결과의 수용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점
- ④ 천체의 지형에 대한 관측을 소재로 한다는 점
- ⑤ 권위자의 주장이 오류를 지속시키는 힘이 되었다는 점

49. 윗글을 읽은 독자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관측에서 사용하는 과학 장비의 우수성이 논쟁에서 승리를 보장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군.
- ② 과학적 관찰 결과가 이론의 진위를 판단하는 기준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군.
- ③ 어떠한 표현 방식을 채택하는가에 따라 과학적 주장의 설득력이 달라지기도 하는군.
- ④ 과학자들과 일반 대중의 인식 차이로 인해 과학적 논쟁이 벌어지기도 하는군.
- ⑤ 지금 널리 받아들여지는 과학 이론도 미래에는 틀린 것으로 밝혀질 수 있겠군.

50. 글쓴이의 의도가 직접 드러나도록 ㉠을 바꾸어 쓴다고 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경이롭게도 ② 굉장하게도
- ③ 기발하게도 ④ 감작스럽게도
- ⑤ 어처구니없게도

[57~6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07.11

언어는 배우는 아이들이 있어야 지속된다. 그러므로 ㉠성인들만 사용하는 언어가 있다면 그 언어의 운명은 어느 정도 정해진 셈이다. 언어학자들은 이런 방식으로 추리하여 인류 역사에 드리워진 비극에 대해 경고한다. 한 언어학자는 현존하는 북미 인디언 언어의 약 80%인 150개 정도가 빈사 상태에 있다고 추정한다. 알래스카와 시베리아 북부에서는 기존 언어의 90%인 40개 언어, 중앙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에서는 23%인 160개 언어,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90%인 225개 언어,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는 기존 언어의 50%인 대략 3,000개의 언어들이 소멸해 가고 있다고 한다. 사용자 수가 10만 명을 넘는 약 600개의 언어들은 비교적 안전한 상태에 있지만, ㉡세계 언어 수의 90%에 달하는 그 밖의 언어는 21세기가 끝나기 전에 소멸할지도 모른다.

언어가 이처럼 대규모로 소멸하는 원인은 중첩적이다. 토착 언어 사용자들의 거주지가 파괴되고, 종족 말살과 동화(同化) 교육이 이루어지며, 사용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는 것 외에 ‘문화적 신경가스’라고 불리는 전자 매체가 확산되는 것도 그 원인이 된다. 물론 우리는 소멸을 강요하는 사회적, 정치적 움직임들을 중단시키는 한편, 토착어로 된 교육 자료나 문학 작품, 텔레비전 프로그램 등을 개발함으로써 언어 소멸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 나아가 소멸 위기에 처한 언어라도 20세기의 히브리어처럼 지속적으로 ㉢공식어로 사용할 의지만 있다면 그 언어를 부활시킬 수도 있다.

합리적으로 보자면, 우리가 지구상의 모든 동물이나 식물 종들을 보존할 수 없는 것처럼 모든 언어를 보존할 수는 없으며, 어쩌면 그러서는 안 되는지도 모른다. 여기에는 도덕적이고 현실적인 문제들이 얽혀 있기 때문이다. 어떤 언어 공동체가 경제적 발전을 보장해 주는 주류 언어로 돌아설 것을 선택할 때, 그 어떤 외부 집단이 이들에게 ㉣토착 언어를 유지하도록 강요할 수 있겠는가? 또한, 한 공동체 내에서 이질적인 언어가 사용되면 사람들 사이에 심각한 분열을 초래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가 있더라도 전 세계 언어의 50% 이상이 빈사 상태에 있다면 이를 그저 바라볼 수만은 없다.

왜 우리는 ㉤위험에 처한 언어에 관심을 가져야 하나? 언어적 다양성은 인류가 지닌 언어 능력의 범위를 보여 준다. 언어는 인간의 역사와 지리를 담고 있으므로 한 언어가 소멸한다는 것은 역사적 문서를 소장한 도서관 하나가 통째로 불타 없어지는 것과 비슷하다. 또 언어는 한 문화에서 시, 이야기, 노래가 존재하는 기반이 되므로, 언어의 소멸이 계속되어 소수의 주류 언어만 살아남는다면 이는 인류의 문화적 다양성까지 해치는 셈이 된다.

57. 앞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언어의 소멸 가능성은 사용 인구의 수와 연관이 있다.
- ② 언어의 소멸은 토착 언어 사용자들의 거주지를 파괴한다.
- ③ 언어의 소멸에는 전자 매체도 영향을 미친다.
- ④ 언어의 소멸을 막으려는 노력은 도덕적인 문제와 연관될 수 있다.
- ⑤ 언어의 소멸은 문화의 손실을 가져온다.

58. 앞글의 글쓰기 전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실태를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고 있다.
- ② 문제의 복잡성을 드러내기 위해 관점이 다른 견해도 소개하고 있다.
- ③ 대책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권위 있는 전문가의 견해에 기대고 있다.
- ④ 독자의 관심을 환기하기 위해 묻고 답하는 방식으로 주장을 제시하고 있다.
- ⑤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내기 위해 예측할 수 있는 미래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59. 앞글의 논지에 비추어 <보기>를 가장 적절하게 해석한 것은?

—<보 기>—

영어에는 1인칭 복수로 we 한 가지만 있으나, 자이세어에서는 청자를 포함하느냐 제외하느냐에 따라 náy와 náy로 구별되고, 체로키어에서는 ‘화자+청자’를 가리키느냐 ‘화자+제3자’, ‘화자+복수의 타인’, ‘화자+청자+복수의 타인’을 가리키느냐에 따라 말이 달라진다.

- ① 언어가 발전해 가면서 구분 체계도 복잡하고 정교해진다.
- ② 언어 간의 차이는 인류의 언어 능력이 풍부함을 보여 준다.
- ③ 문법적으로 더 세밀히 구분을 하는 언어일수록 생존에 유리하다.
- ④ 국제간의 원활한 교류를 위해서는 언어 간의 차이를 줄여 가야 한다.
- ⑤ 경제적 발전을 위해서는 더 널리 쓰이는 언어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60. ㉠~㉤ 중, 문맥상 이질적인 것은?

- ① ㉠ ② ㉡ ③ ㉢ ④ ㉣ ⑤ ㉤

[20~2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07.09

한헌샘 주시경은 국어학자이면서 국어 교육자이다. 그는 과학적이고 독창적인 국어 연구를 통해 국어학을 하나의 학문으로 정립시켰을 뿐 아니라 국어 교육의 필요성을 널리 인식시키기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맞춤법의 통일 같은 국어 정책의 수립에도 관심을 갖고 참여하였다.

국어학자로서 주시경은 근대 국어학의 기틀을 세운 선구적인 인물이었다. 과학적 연구 방법이 전무하다시피 했던 국어학 연구에서, 그는 ㉠ 단어의 원형을 밝혀 적는 형태주의적 입장을 가지고 독자적으로 문법 현상을 분석하고 이론으로 체계화하는데 힘을 쏟았다. 이를 위해 순수 고유어를 사용하여 학술 용어를 만들기도 했다.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모호하거나 엄밀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의 연구는 체계적이고 분석적이었을 뿐 아니라 놀라운 통찰력을 보여 주는 것이었다. 특히 ‘늦씨’와 ‘속뜻’의 개념을 도입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그는 단어를 뜻하는 ‘씨’를 좀 더 작은 단위로 분석하면서 여기에 ‘늦씨’라는 이름을 붙였다. 예컨대 ‘해바라기’를 ‘해바라기’, ‘이더라’를 ‘이더라’처럼 늦씨 단위로 분석했다. 이는 그가 오늘날 ‘형태소’라 부르는 것과 유사한 개념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 준다. 이것은 1930년대에 언어학자 블룸필드가 이 개념을 처음 사용하기 훨씬 이전이었다. 또한 그는 숨어 있는 구조인 ‘속뜻’을 통해 겉으로는 구조를 파악하기 어려운 문장을 분석했고,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문장의 계층적 구조는 그림을 그려 풀이하는 방식으로 분석했다. 이러한 방법은 현대 언어학의 분석적인 연구 방법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연구사적 의의가 크다.

주시경은 국어학사에서 길이 기억될 연구 업적을 남겼을 뿐 아니라, 국어 교육자로서도 큰 공헌을 하였다. 그는 언어를 민족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징표로 보았으며, 국가와 민족의 발전이 말과 글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여 국어 교육에 온 힘을 다하였다. 여러 학교에서 우리말을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국어 강습소를 만들어 장차 교사가 될 사람들에게 국어 문법을 체계적으로 교육하였다. 이러한 교육은 그의 국어학 연구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창제하였다면, 주시경은 ‘한글’이라는 용어를 만들고 우리말과 글을 바르게 보급하는 일에 앞장섰던 인물이었다.

그는 맞춤법을 확립하는 정책에도 자신의 학문적 성과를 반영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연구 모임을 만들어 맞춤법의 이론적 근거를 확보하기 위한 논의를 지속해 나갔다. 그리고 1907년에 설치된 ‘국문 연구소’의 위원으로 국어 정책을 수립하는 일에도 적극 참여하였다. 그의 이러한 노력은 오늘날 우리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현행 ‘한글 맞춤법’도 일찍이 주시경이 취했던 형태주의적 입장에서부터 영향을 받은 바 크다.

20. 중심 화제에 대한 글쓴이의 서술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중심 화제의 위상을 자의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 ② 중심 화제의 성격을 객관적으로 논증하고 있다.
- ③ 중심 화제의 의의를 권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 ④ 중심 화제의 문제점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 ⑤ 중심 화제의 가치를 적극적으로 부각시키고 있다.

21. 주시경의 국어 연구에 대한 설명으로 볼 수 없는 것은?

- ① 고유어를 활용하여 학술 용어를 창안했다.
- ② 문장의 계층적 구조를 쉽게 설명하려고 했다.
- ③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문장의 구조를 밝히려 했다.
- ④ 단어보다 더 작은 문법 단위가 필요함을 인식했다.
- ⑤ 단어의 의미 변화 과정을 통시적으로 밝히려 했다.

22. 밑줄에 근거하여 판단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주시경이 국어 문법을 가르친 데에는 좀 더 효과적으로 국어 교육을 확산시키려는 이유도 있었겠구나.
- ② 주시경이 국어 연구에 새로운 개념을 도입한 까닭은 서구 언어학 이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였겠구나.
- ③ 주시경이 국어 보급에 앞장선 까닭은 국어가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겠구나.
- ④ 주시경의 연구에 부족한 점이 있었던 까닭은 당시에 과학적 국어 연구 방법이 정립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겠구나.
- ⑤ 주시경이 선구적인 인물인 까닭은 그가 독자적으로 문법 체계를 세웠을 뿐 아니라 그의 연구가 후대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었겠구나.

23. 현행 ‘한글 맞춤법’에서 ㉠의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체언과 조사를 구별하여 ‘집이’, ‘집을’처럼 적는다.
- ② 불규칙 용언 ‘돕다’의 경우 ‘도와’, ‘도우니’처럼 적는다.
- ③ 끝소리가 ‘ㄹ’인 말과 탄 말이 어울릴 경우 ‘소나무’, ‘바느질’처럼 적는다.
- ④ 접받침의 끝소리가 드러나지 않을 경우 ‘잘막하다’, ‘널따랗다’처럼 적는다.
- ⑤ ‘-이나’ ‘-음’ 이외의 접미사가 붙어서 품사가 바뀐 경우 ‘마개’, ‘마감’처럼 적는다.

[24~2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07.09

아이슬란드는 지진과 화산 분출 같은 지각 변동이 매우 활발한 화산섬이다. 동서로 약 540km, 남북으로 약 350km의 크기를 가지고 있는 아이슬란드는 일부 지역이 지난 2만 년 동안 쌓인 용암으로 뒤덮여 있다. 활발한 지각 변동 덕분에 아이슬란드 사람들은 화산의 열을 이용해 난방을 하고, 온천수로 작물을 재배하며, 화산 증기로 전기를 생산하는 등 지질학적 특성을 이용하며 살아가고 있다.

판구조론의 관점에서 보면, 아이슬란드의 지질학적인 위치는 매우 특수하다. 지구의 표면은 크고 작은 10여 개의 판으로 이루어져 있다. 아이슬란드는 북아메리카 판과 유라시아판의 경계선인 대서양 중앙 해령에 위치해 있다. 대서양의 해저에 있는 대서양 중앙 해령은 북극해에서부터 아프리카의 남쪽 끝까지 긴 산맥의 형태로 뻗어 있다. 대서양 중앙 해령의 일부가 해수면 위로 노출된 부분인 아이슬란드는 서쪽은 북아메리카 판, 동쪽은 유라시아 판에 속해 있어 지리적으로는 한 나라이지만, 지질학적으로는 두 개의 서로 다른 판 위에 놓여 있는 것이다.

지구에서 판의 경계가 되는 곳은 여러 곳이 있다. 그러나 아이슬란드는 육지 위에서 두 판이 확장되는 희귀한 지역이다. 아이슬란드가 위치한 판의 경계에서는 새로운 암석이 생성되면서 두 판이 서로 멀어지고 있다. 그래서 아이슬란드에서는 다른 판의 경계에서 거의 볼 수 없는 지질학적 현상이 나타난다. 과학자들의 관찰에 따르면, 아이슬란드의 중심부를 지나는 대서양 중앙 해령의 갈라져 있는 틈이 매년 약 15cm씩 벌어지고 있다. 이 벌어지는 틈으로 해양 지각의 하부에서 고온의 마그마가 상승하면서 새로운 지각이 끊임없이 만들어지고 있으며, 이렇게 생성된 해양 지각은 멀어져 가는 판의 일부가 되어 이동한다. 그 결과로 북아메리카 판과 유라시아판은 아이슬란드가 위치해 있는 대서양 중앙 해령에서 시작하여 서서히 확장되고 있다.

아이슬란드는 판의 절대 속도를 잴 수 있는 기준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도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과학자들은 북아메리카 판에 대한 유라시아 판의 시간에 따른 거리 변화를 추정하여 판의 이동 속도를 측정한다. 그러나 이렇게 알아낸 판의 이동 속도는 이동하는 판 위에서 이동하는 다른 판의 속도를 잴 것이다. 이는 한 판이 정지해 있다고 가정했을 때의 판의 속도, 즉 상대 속도이다. 과학자들은 상대 속도를 구한 것에 만족하지 않고, 판의 절대 속도, 즉 지구의 기준점에 대해서 판이 어떤 속도로 움직이는지도 알고자 했다. 판의 절대 속도를 ㉠ 구하기 위해서는 판의 운동과는 독립적으로 외부에 고정되어 있는 기준점이 필요하다. 과학자들은 지구 내부의 맨틀 깊숙이 위치한 마그마의 근원지인 열점이 거의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내고, 그것을 판의 절대 속도를 구하는 기준점으로 사용하였다. 과학자들은 지금까지 지구상에서 100여 개의 열점을 찾아냈는데, 그 중의 하나가 바로 아이슬란드에 있다.

24. 윗글로 보아 과학자들이 아이슬란드에 관심을 갖는 이유를 바르게 묶은 것은?

- <보 기>
- ㄱ. 판이 확장되는 곳에 위치해 있다.
 - ㄴ. 판의 모양과 크기를 알 수 있게 해 준다.
 - ㄷ. 판의 절대 속도를 구할 수 있게 해 준다.
 - ㄹ. 판의 생성 연대를 측정할 수 있게 해 준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 ④ ㄴ, ㄹ ⑤ ㄷ, ㄹ

25. 윗글을 읽고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아이슬란드는 지열 산업이 발달해 있을 것이다.
- ② 아이슬란드의 크기는 서서히 커지고 있을 것이다.
- ③ 북아메리카 판이 유라시아 판보다 이동 속도가 빠를 것이다.
- ④ 아이슬란드의 화산 분출은 판의 운동과 관련되어 있을 것이다.
- ⑤ 아이슬란드는 대서양 중앙의 해저 산맥과 연결되어 있을 것이다.

26. 윗글을 읽은 학생이 심화 학습을 하기 위해 설정한 주제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판을 움직이게 하는 힘은 무엇일까?
- ② 아이슬란드는 어떤 판 위에 위치하고 있을까?
- ③ 아이슬란드의 지진 발생 빈도와 규모는 어느 정도일까?
- ④ 확장되지 않는 판의 경계에서는 어떤 지질 현상이 일어날까?
- ⑤ 과학자들은 열점이 거의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27. ㉠의 문맥적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귀성 차표가 매진되기 전에 빨리 구해야겠다.
- ② 농사철에는 일꾼을 구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 ③ 그는 한 시간 내에 돈을 구해 오겠다고 큰소리를 쳤다.
- ④ 철수는 영수의 동의를 구한다는 듯이 그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 ⑤ 어렵다고 생각하는 문제일수록 답을 구하는 방식은 의외로 간단하다.

[35~3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007.09

(가) 사진술은 다양한 물질의 감광성에 대한 길고도 지루한 실험의 토대 위에서 출현하였다. 상(像)을 정착시키는 기술의 선구자인 니에프스와의 공동 연구 이후 다게르는 1837년에 동판 위에 감광성 물질인 요오드화은을 점착시키고 암상자 속에서 빛에 노출시킨 다음, 수은 증기를 쬐어 세부 묘사가 대단히 정밀한 상을 얻어 내었다. 한편 영국인 톨벗은 1835년에 최초의 ‘감광 소묘’에 성공했는데 이것은 염화은으로 감광성을 띠게 한 종이 위에 물건이나 식물을 놓고 산출한 음화(陰畵)였다. 그 직후 그는 작은 암상자를 이용하여 사물의 영상을 종이에 정착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거친 종이 면에 정착된 톨벗의 영상은 매끈한 다게르 동판의 선명도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약점을 갖고 있었다.

(나) 1839년에 두 기술의 운명을 갈라놓는 사건이 일어났다. 다게르는 ‘다게레오타입’이라고 명명한 자신의 기술을 프랑스 정부에 인도하는 대가로 거액의 종신 연금을 약속 받았다. 프랑스 정부는 공식적으로 다게레오타입의 제작 비결을 공개했고 이로써 저작권이 없어진 이 기법은, 다게르가 특허를 낸 영국을 제외하고 세계 어디서나 아무 제한 없이 누구라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다게레오타입은 프랑스와 미국에서 급속하게 퍼져 나갔다.

(다) 한편 톨벗의 기법은 후대의 간편성이라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거의 관심을 끌지 못했다. 이에 굴하지 않고 톨벗은 계속된 연구를 통해 1840년에 암상자에서 얻은 음화를 현상하여 여러 장의 양화(陽畵)를 인화하는 음화-양화 기법 개발에 성공하였다. 다게레오타입은 한 번의 촬영으로 단 한 장의 사진만을 얻을 수 있었으나 톨벗의 새 기술은 여러 장의 똑같은 종이 사진을 만들어 낼 수 있게 해 줌으로써 사진을 다량으로 복제하는 시대를 열었던 것이다. 톨벗은 자신의 새로운 기법을 ‘칼로타입’이라고 명명하였다. 하지만 톨벗이 칼로타입과 관련된 특허를 출원하고 그 기술에 대해 많은 사용료를 ㉠ 요구하는 바람에 이 기술의 확산에는 제동이 걸렸다.

(라) 사진이 산업으로서의 가능성을 최초로 보여 준 분야는 초상 사진이었다. 정밀한 세부 묘사를 장점으로 하는 다게레오타입은 초상 사진 분야에서 큰 인기를 누렸다. 여러 곳에 사진관이 들어서서 영구적인 초상을 금속판에 남기는 일로 많은 돈을 벌어들였다. 반면에 명암의 차이가 심하고 중간색이 거의 없었던 칼로타입은 초상 사진보다는 풍경·정물 사진에 제한적으로 이용되었다. 특히에 묶여 있었던 칼로타입이 그나마 퍼질 수 있었던 곳은 프랑스였다. 프랑스의 화가와 판화가들은 칼로타입이 흑백의 대조가 두드러진다는 점에서 판화와 유사함을 발견하고 이 기법을 활용하여 작품을 만들었다.

(마) 사람들의 지속적인 압력과 설득으로 톨벗은 1852년에 초상 사진 영역을 제외하고 칼로타입의 특허권을 포기했다. 그렇지만 영국에서 이 기법을 유행시키기에는 때가 이미 늦었다. 1850년대 초에 콜로디온을 유리에 발라 선명한 음화를 얻고

그것에서 원하는 대로 양화를 얻을 수 있는 콜로디온 기법이 특허권 없이 공개되면서 다게레오타입과 칼로타입은 모두 퇴조의 길을 걷기 시작했던 것이다.

35. 밑글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 ① 초기 사진술의 원리
- ② 초기 사진술의 장점과 단점
- ③ 초기 사진술의 보급과 쇠퇴
- ④ 발명과 창의적 발상의 관계
- ⑤ 특허가 기술 보급에 미치는 영향

36. 밑글에 따라 다게레오타입과 칼로타입을 비교하여 만든 표에서 잘못된 부분은?

	다게레오타입	칼로타입
① 용도	인물 사진	풍경·정물 사진
② 사진판의 재질	동판	종이
③ 주요 보급 지역	프랑스, 미국	프랑스
④ 영상의 특징	정밀한 세부 묘사	다양한 중간색
⑤ 복제 가능성	복제 불가능	다량 복제 가능

37. (가)~(마)를 읽은 학생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 다게르와 톨벗은 다른 감광 물질을 사용했었군.
- ② (나): 프랑스 정부는 기술의 공공화에 기여했군.
- ③ (다): 우수한 기술이 경쟁에서 이기는 법이야.
- ④ (라): 당시에는 사람들이 돈을 내고 초상 사진을 찍는 일이 많았겠어.
- ⑤ (마): 콜로디온 기법은 다게레오타입과 칼로타입의 장점을 모두 가졌겠군.

38. ㉠의 ‘-는 바람에’와 의미적 기능이 가장 유사한 것은?

- ① 함께 늙어 가는 마당에 가릴 것이 뭐가 있소?
- ② 친구들이 떠드는 통에 교실에선 공부를 못 하겠다.
- ③ 이 일이 들통 나는 날에는 큰 별을 받게 될 것이다.
- ④ 아직 거기까지는 멀었으니 참는 김에 더 참아 봅시다.
- ⑤ 경찰에서 풀려나는 길로 나는 그 애를 따라 서울로 갔어.

[39~4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07.09

(가) 자본주의 사회에 빈부 격차가 있듯이 디지털 정보사회에도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간의 격차가 있다. 디지털 매체의 도입 초기에는 ㉠ 매체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정보 격차가 곧 사라질 것으로 보는 낙관론이 우세하였다. 물론 정보 격차에 관한 비판적 관점도 있었지만 이 경우에도 매체 접근의 차이는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정보 격차는 사회에서 부분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며 접근 비용이 상대적으로 줄어들면서 자연스럽게 해결된다는 것이다.

(나) 그러나 2000년대 초부터 등장하기 시작한 ‘후(後) 채택 이론(post-adoption theory)’에 따르면, 정보 격차는 다차원으로 존재하며 지속된다. 저렴한 디지털 매체의 보급과 함께,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차이로 정보 격차를 설명하는 이분법적 논리는 설득력이 ㉡ 떨어진다. 따라서 정보 격차 문제는 다각도로 접근해야 한다. ㉢ 디지털 장비와 서비스에 대한 단순한 물리적 접근의 격차는 감소하는 반면에 새로운 유형의 격차가 증가한다. 디지털 매체에 대한 접근 격차가 해소되면서 또 다른 정보화 불평등이 나타나는 것이다. 정보 격차에 대한 현재의 논의들은 크게 이용의 자주성과 사용 여건의 공평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다) 이용의 자주성은 상황에 알맞게 디지털 매체를 적절히 활용하는 능력을 말한다. 디지털 매체에 대한 접근 가능성은 높아졌지만 여전히 두려움과 거부감을 갖는 사람들이 있다. 이것은 이용 능력의 부족에서 오는 심리적 위축감에서 비롯될 수 있다. ㉣ 디지털 시스템의 운용 장애를 해결하지 못하면서 겪는 열등감도 문제이다. 나아가 디지털 매체에서 획득한 정보를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 문제 해결 상황에 능동적으로 적용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이와 같이 이용의 자주성이 해결되지 않으면, 디지털 매체에 대한 접근이 이루어지더라도 실제로 이를 풍부하게 활용하기가 힘들다.

(라) 사용 여건의 공평성은 사회적 관계망과 같은 이용 기회의 균등성을 의미한다. 매체 활용 능력이 향상되었다더라도 주변 환경의 개선이 없다면 정보 격차는 지속된다. 개인이 처한 여건에 따라 ㉥ 활용법을 열심히 습득하였지만 자신의 희망과는 반대로 이용 기회가 적을 수 있다. 따라서 개인이 디지털 매체의 이용 방법을 알고 활용을 원할지라도 여건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정보 격차는 발생한다.

(마) 오늘날 연구에 의하면, 정보 격차의 새로운 측면들은 소득, 교육, 연령, 성별, 지역, 신체적 장애 등과 같은 인구 사회적 변인과 결합된다. 이것은 보다 세부적인 불평등을 야기하고 정보 활용의 질적 차이를 낳아서, ㉦ 개인의 학업 성취도와 노동 생산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향후 개인이 처한 상황과 디지털 매체를 이용하는 사회적 맥락에 따라 정보 격차의 존재와 유형은 지금보다 훨씬 복잡적일 수 있다.

39. (가)~(마)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 논의 대상에 대한 기존의 관점을 소개하고 있다.
- ② (나): 논의 대상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 ③ (다): 새로운 관점의 구체적 내용을 밝히고 있다.
- ④ (라): 새로운 관점과 기존의 관점을 절충하고 있다.
- ⑤ (마): 논의 대상의 향후 전개 양상을 전망하고 있다.

40. 윗글로 보아, 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지역 단위의 인터넷 동호회를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한다.
- ② 개인 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보 보안 시스템을 강화한다.
- ③ 노인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따로 묶어 노인을 위한 웹사이트를 만든다.
- ④ 디지털 매체의 활용 교육을 강화하고 교육 기관에 대한 재정 지원을 확대한다.
- ⑤ 정보화 낙후 지역의 주민을 대상으로 인터넷 경진 대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41. 문맥을 볼 때, 밑줄 친 ㉠~㉥에 대한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동사무소나 우체국에서 무료로 컴퓨터를 사용하게 되었다.
- ② ㉡: 컴퓨터 사용 중에 발생한 프로그램 오류를 고치지 못하고 있다.
- ③ ㉢: 인터넷 사용 시간이 많아져서 가족과의 대화 시간이 줄어들었다.
- ④ ㉣: 컴퓨터 자격증이 여럿 있지만 직장에서 사용할 기회가 많지 않다.
- ⑤ ㉤: 인터넷 검색법을 배우고 나서 유용한 자료를 더 빨리 수집하게 되었다.

42. ㉠의 관점을 수용해서 ‘공연 문화 활성화’에 관한 글을 쓴다고 할 때, 제시할 수 있는 주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공연 내용을 잘 알 수 있도록 홍보 활동을 강화하자.
- ② 공연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는 공연 문화 학교를 운영하자.
- ③ 우수 공연 작품이 해외에 소개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하자.
- ④ 다양한 관객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서 공연 작품을 기획하자.
- ⑤ 누구나 쉽게 관람할 수 있도록 관람료가 저렴한 공연장을 많이 만들자.

43. ㉞는 <보기 1>에서 보듯이 ‘기본적 의미’의 반대말과 ‘확장된 의미’의 반대말이 다르다. <보기 2>에서 이와 같은 것을 골라 바르게 묶은 것은?

<보기 1>

	‘기본적 의미’의 반대말	‘확장된 의미’의 반대말
떨어지다	올라가다	(설득력이) 떨어지다 ↔ (설득력이) [높다]

<보기 2>

	‘기본적 의미’의 반대말	‘확장된 의미’의 반대말
ㄱ. 풀다	묶다	(감정을) 풀다 ↔ (감정을) []
ㄴ. 주다	받다	(겁을) 주다 ↔ (겁을) []
ㄷ. 열다	닫다	(입을) 열다 ↔ (입을) []
ㄹ. 뻗다	삼키다	(말을) 뻗다 ↔ (말을) []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49~5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007.09

예술이 무엇이나는 질문에 우리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나 베토벤의 교향곡이나 ㉠ 발레 ‘백조의 호수’ 같은 것이라고 대답할지 모른다. 물론 이 대답은 틀리지 않았다. 하지만 질문이 이것들 모두를 예술 작품으로 특징짓는 속성, 곧 예술의 본질이 과연 무엇인지를 묻는 것이라면 그 대답은 무엇이 될까?

사실 같은 이름으로 불리는 ㉡ 어떤 그룹에 속한 것들 모두에게 공통되는 속성이 하나쯤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은 자연스럽다. 그렇지 않다면 대체 이들을 같은 이름으로 부르는 근거가 무엇이었는가. 예술의 본질을 찾으려는 노력도 이러한 가정 하에서 전개되었다. 그래서 예술은 곧 모방이라는 서양의 전통적 시각이나, 예술은 감정의 표현이라는 주장, 또 예술은 형식이라는 주장까지 모두 예술의 본질에 대한 답변으로 간주되었다. 하지만 이들이 모두 정답으로 경쟁한다면, 그 중 어느 것이 정말 예술의 본질인가?

20세기 들어 비트겐슈타인의 철학은 이 문제에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비트겐슈타인은 ‘게임’을 예로 든다. 누군가가 게임의 본질적 속성을 ‘경쟁’으로 본다고 해 보자. 곧 반례가 만들어질 것이다. 예를 들어, 전쟁은 경쟁이라는 속성을 가졌지만 게임은 아니다. 한편 게임 중에도 경쟁이 아닌 것이 있다. 무료한 시간에 ㉢ 혼자 하는 카드놀이가 그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따져 가다 보면 모든 게임에 공통적인 하나의 본질을 찾는 일은 불가능해 보인다. 그런데 비트겐슈타인은 이것이 바로 게임이라는 개념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라고 한다.

비트겐슈타인에 따르면, 게임은 본질이 있어서가 아니라 게임이라 불리는 것들 사이의 유사성에 의해 성립되는 개념이다. 이러한 경우 발견되는 유사성을 ‘가족 유사성’이라 부르기로 해 보자.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어머니와 나와 ㉣ 동생의 외양은 이런 저런 면에서 서로 닮았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셋이 공통적으로 닮은 한 가지 특징이 있다는 말은 아니다. ㉤ 비슷한 예로 실을 꼬아 만든 밧줄은 그 밧줄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관통하는 하나의 실이 있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짧은 실들의 연속된 연결을 통해 구성된다. 그렇게 되면 심지어 전혀 만나지 않는 실들도 같은 밧줄 속의 실일 수 있다.

미학자 와이즈는 예술이라는 개념도 이와 마찬가지로 주장한다. 그에게 예술은 가족 유사성만을 갖는 ‘열린 개념’이다. 열린 개념이란 주어진 대상이 이미 그 개념을 이루고 있는 ㉥ 구성원 일부와 닮았다면, 그 점을 근거로 하여 얼마든지 그 개념의 새로운 구성원이 될 수 있을 만큼 테두리가 열려있는 개념을 말한다. 따라서 전통적인 예술론인 표현론이나 형식론은 있지도 않은 본질을 찾고 있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 된다. 와이즈는 표현이니 형식이니 하는 것은 예술의 본질이 아니라 차라리 좋은 예술의 기준으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한다. 그는 열린 개념으로 예술을 보는 것이야말로 무한한 창조성이 보장되어야 하는 예술에 대한 가장 적절한 대접이라고 주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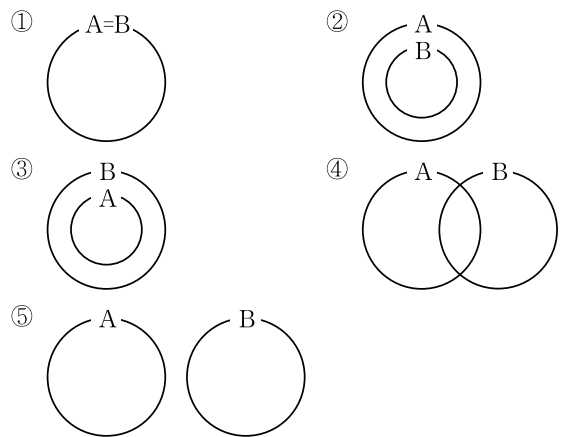
49.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친숙한 사례를 통해 화제에 접근하고 있다.
- ② 상반되는 관점들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있다.
- ③ 타인의 견해에 기대어 논지를 전개하고 있다.
- ④ 유추를 통해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화하고 있다.
- ⑤ 질문을 던짐으로써 독자의 호기심을 유발하고 있다.

50. 윗글을 읽고 와이즈 예술론의 의의나 한계에 대해 토론했다고 할 때, 이 이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발언은? [3점]

- ① 와이즈의 이론에 따르면 예술 개념은 아무런 근거 없이 확장되는 거야. 결과적으로 예술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진다는 것을 주장하는 셈이지.
- ② 와이즈는 예술의 본질은 없다고 본 거야. 예술이 가족 유사성만 있는 열린 개념이라면 어떤 두 대상이 둘 다 예술이면서 서로 닮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군.
- ③ 와이즈는 무엇이 예술인가와 무엇이 좋은 예술인가는 분리해서 생각해야 한다는 것 같아. 열린 개념이라고 해서 예술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까지도 포기한 것은 아니야.
- ④ 현대 예술은 독창성을 중시하고 예술의 한계에 도전함으로써, 과거와는 달리 예술의 영역을 크게 넓힐 수 있게 되었어. 와이즈 이론은 이러한 상황에 잘 부합하는 예술론이야.
- ⑤ 영화나 컴퓨터가 그랬던 것처럼, 새로운 매체가 등장하면 새로운 창작 활동이 가능해지지. 미래의 예술이 그런 것들도 포괄하게 될 때, 와이즈 이론은 유용한 설명이 될 수 있어.

51. [가]에서 설명하고 있는 ‘게임’(A)과 ‘경쟁이라는 속성을 가진 것’(B) 사이의 관계를 나타낸 그림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52. ㉥에서 ‘밧줄’과 ‘짧은 실’의 관계로 보아 ㉠~㉥ 중, 문맥상 이질적인 하나는?

- ① ㉠ ② ㉡ ③ ㉢ ④ ㉣ ⑤ ㉥

[57~6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007.09

한국사 연구에서 임진왜란만큼 성과가 축적되어 있는 연구 주제는 많지 않다. 하지만 그 주제를 바라보는 시각은 지나치게 편향적이었다. 즉, 온 민족이 일치단결하여 ‘국난을 극복’한 대표적인 사례로만 제시되면서, 그 이면의 다양한 실상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다. 특히 의병의 봉기 원인은 새롭게 조명해 볼 필요가 있다.

종래에는 의병이 봉기한 이유를 주로 유교 이념에서 비롯된 ‘임금에 대한 충성’의 측면에서 해석해 왔다. ㉠ 실제로 의병들을 모으기 위해 의병장이 띄운 격문(檄文)의 내용을 보면 이러한 해석이 일면 타당하다. 의병장은 거의가 전직 관료나 유생 등 유교 이념을 깊이 체득한 인물들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의병장이 의병을 일으킨 동기를 설명하는 데에는 적합할지 모르지만, 일반 백성들이 의병에 가담한 동기를 설명하는 데에는 충분치 못하다.

미리 대비하지 못하고 느닷없이 임진왜란을 당했던 데다가, ㉡ 전쟁 중에 보였던 조정의 무책임한 행태로 인해 당시 조선 왕조에 대한 민심은 상당히 부정적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백성들이 오로지 임금에 충성하기 위해서 의병에 가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임금에게 충성해야 한다는 논리로 가득한 ㉢ 한자 투성이 격문의 내용을 백성들이 얼마나 읽고 이해할 수 있었는지도 의문이다. 따라서 의병의 주축을 이룬 백성들의 참여 동기는 다른 데서 찾아야 한다.

의병들은 서로가 혈연(血緣) 혹은 지연(地緣)에 의해 연결된 사이였다. 따라서 그들은 지켜야 할 공동의 대상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래서 결속력도 높았다. 그 대상은 멀리 있는 임금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가족이었으며, 추상적인 이념이 아니라 그들이 살고 있던 마을이었다. 백성들이 [A] 관군에 들어가는 것을 기피하고 의병에 참여했던 까닭도, 조정의 명령에 따라 이리저리 이동해야 하는 관공과는 달리 의병은 비교적 지역 방위에만 충실하였던 사실에서 찾을 수 있다. 일부 의병을 제외하고는 의병의 활동 범위가 고을 단위를 넘어서지 않았으며, 의병들 사이의 연합 작전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의병장의 참여 동기도 단순히 ‘임금에 대한 충성’이라는 명분적인 측면에서만 찾을 수는 없다. 의병장들은 대체로 각 지역에서 사회·경제적 기반을 확고히 갖춘 인물들이었다. 그러나 전쟁으로 그러한 기반을 송두리째 잃어버릴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 의병장들이 지역적 기반을 계속 유지하려는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유교적 명분론과 결합하면서 의병을 일으키는 동기로 작용하게 된 것이다. 한편 관군의 잇단 패배로 의병의 힘을 빌리지 않을 수 없게 된 ㉤ 조정에서는 의병장에게 관직을 부여함으로써 의병의 적극적인 봉기를 유도하기도 했다. 기본적으로 관료가 되어야 양반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던 당시의 상황에서 관직 임명은 의병장들에게 큰 매력이 되었다.

57. 윗글에서 언급되지 않은 내용은?

- ① 의병의 참여 동기 ② 의병장의 이념적 기반
- ③ 의병장과 조정의 관계 ④ 의병의 전투 활동 상태
- ⑤ 의병 활동의 공간적 범위

58. ㉠~㉣ 중, <보기>의 역사 자료 그과 ㄴ을 그 근거로 제시하기에 적절한 것을 순서대로 배열한 것은?

—<보 기>—

- ㄱ. 왜적이 대동강변에 나타나자 조정의 대신들은 피난을 떠나기 위해 먼저 평양성을 나섰다. 이에 성안의 아전과 백성들이 난을 일으켜 칼을 빼어 들고 그 길을 막으면서 크게 꾸짖어 말하였다. “너희들은 평소에 나라의 녹봉만 훔쳐 먹다가 이제 와서는 나랏일을 그르치고 백성들을 속임이 이와 같으냐?”
- ㄴ. “진실로 기운을 내고 떨쳐 일어나, 우리 조상 임금님들께서 남기신 은덕을 저버리지 않는다면, 창고에 가득한 물건과 벼슬자리를 나는 아끼지 않을 것이다. 살아서는 아름다운 칭송이 있을 것이고, 자손에게까지 은택이 흘러 전해질 것이니, 어찌 홀륭하지 않으랴!”

- ① ㉠ - ㄴ ② ㉡ - ㄱ ③ ㉢ - ㄴ
- ④ ㉣ - ㄱ ⑤ ㉣ - ㄴ

59. [A]의 내용에 근거하여 의병에 참여한 일반 백성의 심경을 추론한다고 할 때, 그 내용으로 거리가 먼 것은?

- ① 관군에 들어가느니 의병이 낫고말고.
- ② 조정의 명이 있으니 기꺼이 동참해야지.
- ③ 사랑하는 처자식은 내 손으로 지켜야지.
- ④ 내 고장에 왜놈들을 들여놓을 수야 있나.
- ⑤ 친구도 많고 친척도 있으니 싸울 힘이 나는군.

60. ㉢의 접미사 ‘-투성이’는 일부 명사 뒤에 붙어 ‘그것이 너무 많은 상태’를 나타낸다. 이와 유사한 의미 기능을 하는 접미사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단어는?

- ① 사냥-꾼 ② 동갑-내기 ③ 대장-장이
- ④ 벼슬-아치 ⑤ 잠-꾸러기

[20~2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07.06

쇼윈도는 소비 사회의 대표적인 문화적 표상 중의 하나이다. 책을 읽기 전에 표지나 목차를 먼저 읽듯이 우리는 쇼윈도를 통해 소비 사회의 공간 텍스트에 입문할 수 있다. ‘텍스트’는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소통할 목적으로 생산한 모든 인공물을 이르는 용어이다. 쇼윈도는 ‘소비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공간 텍스트이다. 기호학 이론에 따르면 ‘소비 행위’는 이런 ㉠ 공간 텍스트를 매개로 하여 생산자와 소비자가 의사소통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옷 가게의 쇼윈도에는 마네킹이 멋진 목걸이를 한 채 붉은색 스커트를 날씬한 허리에 감고 있다. 환한 조명 때문에 마네킹은 더욱 선명해 보인다. 길을 걷다가 환한 불빛에 이끌려 마네킹을 하나씩 살펴본다. 마네킹의 예쁜 모습을 보면서 나도 모르게 ㉡ 이야기를 시작한다. ‘참 날씬하고 예쁘기도 하네. 저 비싸 보이는 목걸이는 어디서 샀을까. 짧은 스커트가 눈부시네……. 나도 저 마네킹처럼 되고 싶다.’라는 생각에 곧 옷 가게로 들어 간다.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은 소비자가 쇼윈도라는 공간 텍스트를 읽는 행위로 이해할 수 있다. 공간 텍스트는 세 개의 층위(표층, 심층, 서사)로 존재한다. 표층 층위는 쇼윈도의 장식, 조명, 마네킹의 모습 등과 같은 감각적인 층위이다. 심층 층위는 쇼윈도의 가치와 의미가 내재되어 있는 층위이다. 서사 층위는 표층 층위와 심층 층위를 연결하는 층위로서 ㉢ 이야기 형태로 존재한다.

서사 층위에서 생산자와 소비자는 상호 작용을 한다. 생산자는 텍스트에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고 이를 이야기 형태로 소비자에게 전달한다. 소비자는 이야기를 통해 텍스트의 의미와 가치를 해독한다. 이런 소비의 의사소통 과정은 소비자의 ‘서사 행로’로 설명될 수 있다. 이 서사 행로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과정을 거쳐 진행된다.

첫 번째는 소비자가 제품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과정이다. 이때 소비자는 쇼윈도 앞에 멈추어 공간 텍스트를 읽을 준비를 한다. 두 번째는 소비자가 상품을 꼼꼼히 관찰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소비자는 쇼윈도와 쇼윈도의 구성물들을 감상한다. 세 번째는 소비자가 상품에 부여된 가치를 해독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소비자는 쇼윈도 텍스트에 내재된 가치들을 읽어 내게 된다. 네 번째는 소비자가 상품에 대한 최종적인 평가를 내리는 과정이다.

이 네 과정을 거치면서 소비자는 구매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서사 행로는 소비자의 측면에서 보면 이 상품이 꼭 필요한지, 자기가 그 상품을 살 능력을 갖고 있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20.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쇼윈도는 소비자를 소비 공간으로 유인한다.
 - ② 소비자는 서사 행로를 통해 구매 여부를 결정한다.
 - ③ 책을 읽는 능력은 공간 텍스트 해독에 도움을 준다.
 - ④ 마네킹을 통해서 소비자는 생산자와 의사소통을 한다.
 - ⑤ 공간 텍스트에는 생산자가 부여한 의미가 담기게 된다.

21. 윗글에 쓰인 설명 방법으로 볼 수 없는 것은?
- ① 대상을 단계별로 나누어 설명한다.
 - ② 핵심적인 용어의 개념을 정의한다.
 - ③ 현상들 사이의 인과 관계를 밝힌다.
 - ④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이해를 돕는다.
 - ⑤ 특정한 이론에 따라 현상을 분석한다.

22. 윗글의 내용으로 보아 ㉠에 대한 진술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메시지를 담고 있다.
 - ② 판매를 촉진할 수 있다.
 - ③ 소비자와 생산자를 연결한다.
 - ④ 특정한 장소를 점유하고 있다.
 - ⑤ 공연 예술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23. ㉡, ㉢의 뜻을 **보기**에서 찾으시면?

—<보 기>—

이야기 ㉡ ㉠ 어떤 사물이나 사실, 현상에 대하여 일정한 줄거리를 가지고 하는 말이나 글. ㉣ 자신이 경험한 지난 일이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표현하는 말. ㉤ 어떤 사실에 관하여, 또는 있지 않은 일을 사실처럼 꾸며 재미있게 하는 말. ㉥ 소문이나 평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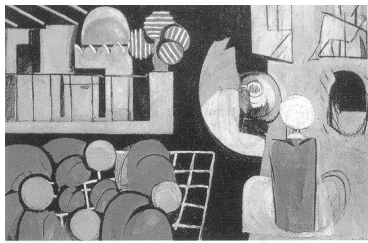
- | | | |
|---|---|---|
| | a | b |
| ① | ㉠ | ㉣ |
| ② | ㉣ | ㉠ |
| ③ | ㉣ | ㉤ |
| ④ | ㉤ | ㉠ |
| ⑤ | ㉤ | ㉥ |

MEMO

MEMO

[29~3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07.06

뉴욕 현대미술관에 있는 ‘모로코 사람들’은 마티스의 동방적(oriental) 주제에 대한 동경과 동방의 미술 전통 속에서 확인한 장식적·평면적인 것에 대한 추구가 교차하면서 탄생했다. 제목이 암시하듯 이 그림은 1911년과 1912년에 이루어진 모로코 여행의 추억에서 구상되었다. 여행 중이거나 그 직후에 그려진 작품과는 달리 이미 4~5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후에 그려진 이 작품에서, 모로코의 추억은 마티스의 머릿속에서 조형적으로 소화되어 거의 추상적 형태에 가까울 정도로 단순화되어 있다. 그래서 이 그림에 그려진 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두고 온갖 논의가 벌어졌다.



화면의 왼편 위쪽에 그려진 회색의 형태가 테라스에서 본 이슬람 사원이고, 테라스의 난간 한쪽 끄트머리에 있는 파란색 바탕에 하얀 줄무늬가 있는 네 개의

원이 남국의 어떤 식물을 나타내는 것 같다는 데에는 모두 의의가 없다. 그러나 그 아래 ㉠ 흰 선의 격자 위에 황색의 원과 녹색의 형태가 그려져 있는데 이것이 무엇을 나타내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한 미술사학자는 이것을 모로코 사람들이 타일을 깔 바다 위에 이마를 붙이고 기도하는 모습이라고 보았다. 이에 따르면 ㉡ 황색의 원은 터번을 두른 아랍인의 머리가 되고, 녹색의 형태는 아랍 특유의 민소매 긴 옷이 된다. 반면에 다른 비평가는 ‘기도하는 모로코 사람들’을 ‘푸른 잎사귀에 싸인 네 개의 멜론’으로 해석한다.

각각의 모티프가 멜론인지 모로코 사람인지에 대한 논의가 이 작품을 이해하는 데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한다. 애초에 마티스의 마음속에는 아마 명확한 이미지가 있었을 터이지만, 완성된 작품에서 그것은 추상적으로 승화되었다. ㉢ 황색의 원형은 오른쪽에 등을 돌리고 앉아 있는 인물의 머리와 호응하고, 나아가 뒤편의 파란 꽃과 이슬람 사원의 둥근 지붕과 어우러지면서 화면에 부드러운 리듬을 자아내고 있다. 이 원은 멜론이나 아랍 사람의 머리이기에 앞서 화면의 구성 요소가 되는 기하학적 형태이다.

위에서 언급한 황색과 녹색 외에 ㉣ 화면 오른편 아래쪽의 장방형에는 청색이, 바탕에는 옅은 보라색이 각각 칠해져 있다. 한편 화면 왼편에는 화분에 핀 꽃의 청색과 건물의 회색, 그리고 전체의 바탕에 깔린 검정색이 등장한다. 색 그 자체는 화려하거나 다양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이 화면에서는 분명히 남국의 창을 생각나게 하는 밝음이 느껴진다. 야수파 시기의 격렬한 색채의 혁명을 거친 마티스는 화면의 밝음, 풍부함이라는 것은 결코 튜브에 들어 있는 물감 색의 생생함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훗날 그는 “하나의 색은 단순한 물감에 불과하다. 두 개의 색이야말로 화음이요, 생명이다.”라고 말했다. 마티스에게 색채의 비밀은 무엇보다도 그 조화와 울림에 있었던 것이다. ‘모로코 사람들’에서 전체의 배경이 되는 검정색은 어두운 느낌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남국의 투명한 밝음을 느끼게 해 준다. 마티스 자신도 이 감정을 가리켜 ‘빛의 색’이라고 했는데, 본래 어둠의 색인 검정을 ‘빛의 색’으로 변모시킨 것에 ㉠ 색채의 마술사 마티스의 비밀이 있다. ㉡ ‘모로코 사람들’은 마티스의 그런 놀라운 표현력을 보여 주는 걸작이다.

29. ‘모로코 사람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마티스는 이 그림에서 야수파 시기의 격렬하고 화려한 색채를 사용했다.
- ② 모로코 여행 직후에 그려진 이 그림은 모로코의 풍광을 사실적으로 그려 냈다.
- ③ 마티스에 대한 전문가들은 이 그림의 특정 모티프에 대해 각기 다르게 해석한다.
- ④ 이 그림이 밝게 보이는 주된 이유는 화가가 즐겨 사용하는 물감의 생생함 때문이다.
- ⑤ 황색의 원과 녹색의 형태에 대한 분명한 규명과 해석이 이 그림 이해에 중요한 요소이다.

30. <보기>에 제시된 미술 비평 단계에 대한 설명을 토대로 ㉠~㉣의 성격을 판단해 보았다.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일반적으로 미술 비평은 기술과 분석, 해석, 평가의 세 단계로 나누어진다. 기술과 분석의 단계에서는 작품 속에 나타나는 객관적인 사실(소재)들의 목록이 작성되고, 그들의 관계에 대한 정리 작업이 이루어진다. 해석의 단계는 전 단계에서 모은 자료를 활용하여 작품의 주제나 의미를 파악한다. 평가 단계에서는 선행 단계의 작업 결과를 토대로 작품의 가치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진다.

	기술과 분석	해석	평가
①	㉠	㉡, ㉢, ㉣	㉠
②	㉡	㉠, ㉢, ㉣	㉠
③	㉠, ㉡	㉢	㉢, ㉣
④	㉠, ㉡	㉡, ㉢	㉠
⑤	㉢, ㉣	㉠, ㉡	㉢

31. ㉠이 내포하는 의미를 가장 잘 파악한 것은?

- ① 자신만의 비밀스러운 물감 혼합법을 사용했다.
- ② 검정색만으로 화면에 신비스러운 효과를 연출했다.
- ③ 검정색과 흰색을 대비시켜 남국의 밝음을 표현했다.
- ④ 검정색이 주위 색과의 조화를 통해 밝은 느낌을 주었다.
- ⑤ 어둠의 색인 검정색이 흰색과의 혼합으로 ‘빛의 색’이 되었다.

32. 마티스의 문하생이 ‘모로코 사람들’에 나타난 회화적 특성을 최대한 반영해서 그림을 그렸다고 할 때, 그 결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이슬람 사원과 기도를 올리는 사람들을 마치 사진처럼 세밀하게 그렸다.
- ② 보기 좋게 배치된 멜론을 분명한 윤곽선과 멜론 고유의 노란색을 이용해 그렸다.
- ③ 연속된 동심원의 형태와 수수한 색채를 통해 화사한 봄별의 느낌을 울동감 있게 그렸다.
- ④ 아름다운 선율과 화음으로 그를 감동시킨 음악가의 초상화를 그리되, 악보를 그려 나가는 그의 손을 강조해 그렸다.
- ⑤ 인류에게 조화로운 삶을 강조했던 성인(聖人)의 일화를 안정된 삼각형 구도 속에서 차분한 색채와 웅장한 형태를 통해 감동적으로 그렸다.

[33~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007.06

어느 공장에서 길이가 7미터인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고 하자. 이때 가장 이상적인 제품의 길이는 7미터이다. 하지만 아무리 공정이 안정되고 설비가 우수하다 하더라도 생산된 모든 제품의 길이가 하나같이 7미터가 되게 하는 것은 ㉠ **어렵고**, 7미터를 중심으로 약간씩 오차를 갖기 마련이다. 일반적으로 제품의 품질 특성값은 평균을 중심으로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으며, 특성값이 평균에서 멀리 떨어진 제품일수록 생산될 가능성은 점차 줄어든다. 여기서 품질 특성값들이 그 평균에서 떨어져 흩어져 있는 정도를 산포도라고 하며, 산포도를 측정하는 척도로 표준 편차를 이용한다. 시그마(σ)는 표준 편차를 나타내는 기호로 그 값이 작다는 것은 평균을 중심으로 품질 특성값이 덜 흩어져 있음을 의미하며, 이는 곧 생산된 제품의 품질이 상대적으로 균일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모든 제품에는 나름대로의 규격이 있는데 이 규격은 일반적으로 규격 하한과 규격 상한으로 주어진다. 규격을 벗어나는 제품은 모두 불량품이 된다. 원편의 그림처럼 두 공정 A, B에서 생산된 제품들의 품질 특성값 평균이 규격 하한과 규격 상한의 중간인 목표값에 모두 일치하였다고 가정하자. A 공정에서 생산된 제품은 산포도가 작아서 규격을 벗어나는 것이 거의 없으나, ㉡ B 공정에서 생산된 제품은 산포도가 커서 규격을 벗어나는 불량품이 발생하고 있다. 평균에서 규격 하한 혹은 규격 상한까지의 거리를 시그마의 배수로 표현할 때, A 공정은 시그마가 작아 그 배수가 큰 반면, B 공정은 시그마가 커서 A 공정에 비해 그 배수는 작다. 이와 같이 평균에서 규격 하한 혹은 규격 상한까지의 거리가 시그마의 몇 배가 되느냐에 따라 불량률이 작아지기도 하고 커지기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미국의 한 회사가 천명한 6 시그마 품질 향상 계획은 기본적으로 규격 하한과 규격 상한이 제품의 규격 평균으로부터 각각 6 시그마의 거리에 위치하도록 공정을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이 수준은 10억 개 중에서 2개만이 불량인 것으로 거의 무결점에 가까운 것이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기계나 원자재의 특성, 작업 환경 등의 원인에 의하여 품질 특성값의 평균이 목표값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고 대략 ± 1.5 시그마까지 흔들릴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6 시그마 수준이 성취되면 불량률은 100만 개 중에서 3.4개 이하로 관리될 수 있게 된다. 이 수치도 충분히 작은 값이기 때문에 6 시그마 수준은 새로운 품질 기준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통계적 개념인 6 시그마를 조직이 도달해야 하는 품질 목표로 설정하는 것이 최근에 널리 보급되고 있는 6 시그마 경영의 출발점이다. 6 시그마는 매우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6 시그마 경영은 아주 적은 불량에 대해서도 그것의 발생 원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하는 활동에 초점을 둔다. 따라서 특정한 공정을 바꾸는 것처럼 ㉢ **부분적인 처방**보다는 주로 시스템 자체를

개선의 대상으로 삼게 되는데, 필요하다면 6 시그마 수준을 달성하는 데 적합하도록 이에 시스템 전체를 새로 설계하기도 한다. 6 시그마를 도입한 세계적인 기업들은 공통적으로 품질 문제로 야기되는 비용이 감소하였으며, 제품과 서비스의 품질이 개선되었고, 고객 만족도가 향상되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33. 윗글의 내용으로 알 수 없는 것은?

- ㉠ 품질 관리의 기술은 통계적 개념에 바탕을 두고 있다.
- ㉡ 공정의 목표값과 품질 특성값의 평균은 서로 일치하는 경우가 많다.
- ㉢ 표준 편차가 작을수록 불량률이 적은 우수한 공정으로 판정하게 된다.
- ㉣ 6 시그마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 ㉤ 평균에서 규격 상한까지의 거리가 표준 편차의 6배이면 공정은 6 시그마 상태에 있다.

34. ㉠과 문맥상 의미가 가장 가까운 것은?

- ㉠ 요즘 그가 바빠 만나기가 너무 어렵다.
- ㉡ 그 사람은 까다로워 대하기가 어렵다.
- ㉢ 선생님의 소설은 모두들 어렵다고 합니다.
- ㉣ 어려운 살림에 너무 무리하지 않았나 합니다.
- ㉤ 그는 가난과 외로움으로 청소년기를 어렵게 보냈다.

35. <보기>의 과정을 통해 품질 개선을 한다고 했을 때, ㉠, ㉡의 정보가 생성되는 단계는?

<보 기>

가. 정의 단계: 중요한 품질 특성들 가운데 개선 대상을 선정한다.

나. 측정 단계: 측정 방법을 결정하여 현재 품질의 상태를 측정한다.

다. 분석 단계: 현재 품질의 상태와 그 영향 요인 간의 인과 관계를 파악한다.

라. 개선 단계: 품질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과 조건을 찾는다.

마. 통제 단계: 개선된 상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한다.

- | | | |
|---|---|---|
| | ㉠ | ㉡ |
| ① | 가 | 나 |
| ② | 가 | 라 |
| ③ | 나 | 다 |
| ④ | 나 | 라 |
| ⑤ | 나 | 마 |

36. 윗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강연을 할 때, 강사가 <보기>의 자료를 가지고 설명할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보 기>

시그마 수준	면적	비용	시간	거리
3 시그마	동네 슈퍼마켓	$\frac{270\text{만 원의 부채}}{10\text{억 원의 자산}}$	$\frac{3.5\text{개월}}{100\text{년}}$	미국 대륙 횡단 거리
4 시그마	가정집 거실	$\frac{63,000\text{원의 부채}}{10\text{억 원의 자산}}$	$\frac{2.5\text{일}}{100\text{년}}$	고속도로 45분 거리
5 시그마	공중전화 박스	$\frac{570\text{원의 부채}}{10\text{억 원의 자산}}$	$\frac{30\text{분}}{100\text{년}}$	가까운 주유소까지의 거리
6 시그마	다이아몬드 반지 앞	$\frac{2\text{원의 부채}}{10\text{억 원의 자산}}$	$\frac{6\text{초}}{100\text{년}}$	네 걸음

- ① 시그마 수준에 따른 규격의 변화
- ② 시그마 수준에 따른 불량률의 크기
- ③ 시그마 수준을 구현하기에 적합한 장소
- ④ 시그마 수준의 차이에 따른 공정의 분류
- ⑤ 시그마 수준을 높이는 데 필요한 시간과 비용

[43~4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007.06

‘사전’ 하면 흔히 ‘ㄱ, ㄴ, ㄷ’ 순으로 배열된 국어사전을 떠올리지만, 인간의 머릿속에도 사전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머릿속 사전’이라 부른다. 그런데 책으로 된 종이 사전과 머릿속 사전의 조직은 서로 다른 것으로 보인다. 종이 사전은 한글 자모 순서로 단어들을 배열하는 것이

[A] 표준이다. 머릿속 사전도 이와 동일한 방식으로 조직되어 있다면 말실수를 할 때 한글 자모 순서상 가장 근접해 있는 단어가 선택될 것이다. 가장 가까이 있으므로 그 단어를 얼른 생각해 낼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예컨대 ‘청진기’라는 단어 대신에, 사전에서 그 다음에 배열될 것으로 예상되는 ‘청진선’이 선택되는 식이다. 그러나 그런 경우는 드물다. 머릿속 사전의 조직을 살펴보는 방법의 하나로 단어 연상 실험을 들 수 있다. 이 실험은 자극어를 준 뒤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를 말해 보게 하거나 떠오르는 단어들을 생각나는 대로 모두 말해 보게 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자극어로 ‘바늘’을 제시했을 때 나오는 전형적인 반응어는 ‘실, 핀, 날카롭다, 꿰매다’ 등이다. 이는 깊이 사고하지 않고 자동적으로 나오는 반응어가 머릿속에서 자극어와 연관을 맺고 있는 단어들이라는 가정에 부합한다. 우리는 ‘하늘’이라든가 ‘공부’와 같이 ‘바늘’과 상관이 없는 반응어를 기대하지 않으며, 실제로도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은 드물다.

연상이라는 것이 비록 언어의 규칙 기반적인 다른 측면들처럼 명쾌한 설명력을 지니지 못한다 해도, 그동안의 연구 결과 사람들은 주로 ③ 등위적, 배열적, 상위적, 동의적 연결 관계에 있는 단어들을 떠올리는 것으로 드러났다. 등위적 연결은 ‘나비-나방’처럼 수준이 유사한 단어들과 ‘왼쪽-오른쪽’처럼 반의 관계에 있는 단어들의 연결을 말한다. 배열적 연결은 ‘소금-물’처럼 함께 나열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단어들의 연결을, 상위적 연결은 ‘나비-곤충’처럼 하위어와 상위어의 연결을, 동의적 연결은 ‘배고프다-굶주리다’처럼 뜻이 유사한 단어들의 연결을 말한다. 이들 중 사람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단어들은 등위적, 배열적 연결 관계에 있는 단어들로 알려져 있다. 이는 이것들의 연결이 다른 것들보다 훨씬 더 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위에 덧붙여 실어증 환자들에 관한 실험 연구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실험에 의하면, 어떤 환자는 부엌 용구의 이름은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았지만 과일 이름은 모두 잊어버렸고, 어떤 환자는 의복 이름은 낼 수 있었지만 옷감의 종류는 말하지 못했다. 이는 ‘부엌 용구, 과일 이름, 의복 이름, 옷감 이름’ 등이 모두 독립된 장(場)으로 머릿속에 저장되어 있음을 함축한다.

위와 같은 실험들을 통해 머릿속 사전이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조직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첫째, 머릿속 사전은 서로 관련을 맺는 단어들이 하나의 장을 이루어 거미줄처럼 조직되어 있을 것이다. 둘째, 단어들 사이의 연결 정도는 그 관계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데, 특히 강력한 연결 관계를 맺는 단어들이 있어서 이 단어들은 서로 가까운 곳에 저장되어 있을 것이다. 셋째, 단어들은 일정한 주제들을 중심으로 무리지어 모여 있는데, 어떤 주제를 중심으로 모여 있는 각 장들은 독립

성을 확보하고 있다. 이 말은 하나의 장이 다른 장과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는 뜻이 아니라 어느 정도 독립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장치를 갖고 있다는 의미이다.

43.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머릿속 사전에서 단어들은 거미줄처럼 얽혀 있다.
- ② 단어 연상 실험으로 단어들의 연결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 ③ 자극어와 반응어는 머릿속에서 가까운 곳에 저장되어 있을 것이다.
- ④ 실어증 환자들의 사례는 단어들이 장으로 조직되어 있음을 보여 준다.
- ⑤ 반응어는 깊은 사고를 통해 나오므로 머릿속 사전의 연결 방식을 잘 반영한다.

44. [A]의 논지를 약화시킬 수 있는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어-, 춥다. 문 들어온다, 바람 단아라.”
- ② “그는 상당한 언어 곤경, 아니 언어 장애를 가지고 있어.”
- ③ (‘고맙습니다’와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동시에 떠올라) “곰사합니다.”
- ④ 갑: (하늘의 별을 보려고) “거기 현미경 좀 가져와 봐.”
을: “망원경 말하는 거야?”
- ⑤ 갑: “그거 있잖아, 그……. 생각이 날 듯한데. 장어, 쟁어, 정어, 정우 그게 뭐더라.”
을: “도대체 뭘 말하려는 거야.”

45. <보기>의 예들을 ㉠의 구분에 따라 알맞게 나열한 것은?

—<보 기>—		
㉠. 고무 - 줄	㉡. 잠자리 - 채	㉢. 두껍다 - 얇다
㉣. 남자 - 사람	㉤. 북쪽 - 남쪽	

	등위적 연결	배열적 연결	상위적 연결
①	㉠	㉡	㉢
②	㉣	㉠	㉢
③	㉣	㉠	㉤
④	㉤	㉣	㉢
⑤	㉤	㉢	㉡

46. 윗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보기>의 국어사전을 머릿속 사전의 조직 원리에 따라 새롭게 구성하기 위한 기획 회의를 할 때 적절하지 않은 발언은?

<보 기>

오릉(五陵) ㉠ 〔고적〕 경상북도 경주시 탑동에 있는 다섯 능묘. 사적 제172호.

오리¹ ㉡ 〔동물〕 오리과의 새를 통틀어 이르는 말.

오리²(汚吏) ㉢ 청렴하지 못한 벼슬아치.

오리³ ㉣ 실, 나무, 대 따위의 가늘고 긴 조각.

오리-가리 ㉤ 여러 가닥의 오리나 갈래로 갈라지거나 쪼갠 모양. ㉥ 가리가리.

- ① ‘오릉’, ‘오리’, ‘오리가리’처럼 한글 자모 순서로 배열하지 말고, 의미 및 주제를 고려해서 재배열하는 방법을 찾아야겠어.
- ② ‘오리’은 ‘오리²’와 분리해서 ‘동물’을 의미하는 단어들과 묶어 제시하면 좋겠어.
- ③ ‘오리’은 ‘오리밭’, ‘오리결음’과 같은 단어들을 연상시키는데, 이 단어들의 관련성이 드러나게 하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아.
- ④ ‘오리가리’도 ‘오리’와 형태적 유사성이 있어. 이 단어도 ‘오리³’과 함께 제시하면 좋을 것 같아.
- ⑤ ‘가리가리’처럼 보통 사전에는 ‘유의어’가 제시되는데, 그러한 방식은 그대로 따라도 좋을 것 같아. 필요하면 반의어도 제시하면 좋겠어.

[47~5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007.06

도덕적 선택의 순간에 직면했을 때 상대방에게 개인적 선호(選好)를 드러내는 행동이 과연 도덕적으로 정당할까? 도덕 철학자들은 이 물음에 대해 대부분 부정적 반응을 보이며 도덕적 정당화의 조건으로 공정성(impartiality)을 제시한다. 공평주의자들의 관점에서 볼 때 특권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다. 사람들은 인종, 성별, 연령에 관계없이 모두 신체와 생명, 복지와 행복에 있어서 동일한 가치를 지닌다. 따라서 어떤 개인에 대해 행위자의 선호를 표현하는 도덕적 선택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공평주의자들은 사람들 간의 차별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개인이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떠한가에 따라 행동의 방향을 결정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런데 우리 모두는 특정 개인과 특별한 친분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간다. 상대가 가족인 경우는 개인적 인간관계의 친밀성과 중요성이 매우 강하다. 가족 관계라 하여 상대에게 ㉠ 특별한 개인적 선호를 표현하는 행동이 과연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을까? 만약 허용된다면 어느 선까지 가능할까? 다음 두 경우를 생각해 보자.

철수는 근무 중 본부로부터 긴급한 연락을 받았다. 동해안 어떤 항구에서 혐의자 한 명이 일본으로 밀항을 기도한다는 첩보가 있으니 그를 체포하라는 것이었다. 철수가 잠복 끝에 혐의자를 체포했더니, 그는 하나밖에 없는 친형이었다. 철수는 고민 끝에 형을 놓아주고 본부에는 혐의자를 놓쳤다고 보고했다.

민수는 두 사람에게 각각 오천만 원의 빚을 지고 있었다. 한 명은 삼촌이고 다른 한 명은 사업상 알게 된 영수였다. 공교롭게도 이 두 사람이 동시에 어려운 상황에 처해서 오천만 원이 급히 필요하게 되었고, 그보다 적은 돈은 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를 알게 된 민수는 노력한 끝에 오천만 원을 마련하였고, 둘 중 한 명에게 빚을 갚을 수 있게 되었다. 민수는 삼촌의 빚을 갚았다.

철수의 행동은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가? ㉠ 혐의자가 자신의 형임을 알고 놓아주었으므로 그의 행동은 형에 대한 개인적 선호를 표현한 것이다. 따라서 그는 모든 사람의 복지와 행복을 동일하게 간주해야 하는 공정성의 기준을 지키지 않았다. 그의 행동은 도덕적으로 정당화되기 어려워 보인다.

그렇다면 민수의 행동은 정당화될 수 있는가? 그는 분명히 삼촌에 대한 개인적 선호를 표현했다. 민수가 공평주의자라면 삼촌과 영수의 행복이 동일하기 때문에 오직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만약 영수가 더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고 삼촌이 어려운 상황이 아니었다면, 선택의 여지가 없이 영수의 빚을 갚아야 한다. 그러나 삼촌과 영수가 처한 상황이 정확하게 동일하기 때문에 민수에게는 개인적 선호가 허용된다.

강경한 공평주의자들은 이런 순간에도 주사위를 던져서 누구의 빚을 갚을지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개인적 선호를 완전히 배제하기 위해서이다. 반면 ㉡ 온건한 공평주의자들은 이러한 주장이 개인에 대한 우리의 자연스러운 선호를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고려할 여지를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여지가 개인적 선호의 허용 범위라는 것이다. 그들은 상황적 조건이 동일한 경우에 한정하여 개인적 선호를 허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47. 위글의 중심 화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공평주의의 종류
- ② 공평주의의 적용 방식
- ③ 도덕적 정당성의 의미
- ④ 공평주의의 개념과 의의
- ⑤ 개인적 선호의 도덕적 정당성

48. ㉠의 추론 과정에 생략되어 있는 전제는?

- ① 철수가 형을 놓아주었다면 그는 누구라도 놓아줄 수 있을 것이다.
- ② 철수가 체포한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었다면 철수는 그를 놓아주지 않았을 것이다.
- ③ 철수가 놓아준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었다면 철수는 거짓 보고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 ④ 철수가 공평한 사람이었다면 그는 개인적 선호를 표현하는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 ⑤ 철수가 형을 놓아주지 않았다면 그는 비인간적인 사람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었을 것이다.

49. 위글의 내용으로 보아 <보기>의 '순이'가 ㉢이라고 할 때, '순이'가 취할 행동과 그 이유로 적절한 것은?

—<보 기>—

순이는 오늘 외할머니와 친할머니 중 한 분을 하루 동안 간병하기로 했다. 연세가 더 많으신 외할머니께서는 간병할 사람이 있고, 친할머니께서는 간병할 사람이 없다는 것 이외에 두 분이 처한 상황 조건은 완전히 동일하다. 어려서부터 외할머니와 가까웠던 순이는 친할머니보다는 외할머니를 더 좋아한다.

- ① 두 분 다 소중하므로 누구를 도와도 상관없다.
- ② 외할머니를 더 좋아하므로 외할머니를 돕는다.
- ③ 친할머니께서 더 젊으시므로 친할머니를 돕는다.
- ④ 친할머니를 간병할 사람이 없으므로 친할머니를 돕는다.
- ⑤ 외할머니께서 연세가 더 많으시므로 외할머니를 돕는다.

50. 윗글을 읽은 학생이 <보기>의 대화를 접하고 보일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A: 효심이 지극한 왕이 있습니다. 왕의 아버지가 사람을 죽였다면, 법의 집행관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B: 당연히 왕의 아버지를 잡아들여야겠지.
 A: 그러면 왕이 그것을 막지 않겠습니까?
 B: 왕이 사사로이 막을 수는 없지. 왕의 직분으로 판단해야 하니까.
 A: 이런 상황에서 왕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B: 내가 그 왕이라면 왕의 직분을 버리고 아버지와 도망가겠네.

- ① 왕이 아버지의 체포를 허락한다면 그것은 개인적 선호가 작용한 거야.
- ② 집행관이 왕의 아버지를 잡아들인다면 강경한 공평주의자들의 지지를 받을 거야.
- ③ 왕이 사사로이 판단하더라도 지위를 버린다면 공평주의자들은 비난하지 않을 거야.
- ④ 강경한 공평주의자들은 왕의 신분도 지키고 아버지도 구하는 길을 찾으려고 할 거야.
- ⑤ 온건한 공평주의자들이 볼 때, 왕이 아버지의 체포를 금지하는 것은 '민수'의 행동과 차이가 없어.

51. 문맥으로 보아 ㉠와 바꿔 쓰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각별한 ② 고유한 ③ 독특한
- ④ 상이한 ⑤ 특이한

[57~6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007.06

소리굽쇠는 굽기가 일정한 금속 사각 막대를 U자형으로 구부리고 아래쪽에 쇠못을 ㉠ 단단하게 용접한 것으로, 작은 망치로 때리면 일정한 진동수의 음을 발생시키는 장치이다. 일반적으로 소리굽쇠는 작을수록 높은 음을 낸다. 원래 소리굽쇠는 1711년에 영국의 트럼펫 연주자인 존 쇼어가 악기를 조율할 때 기준음을 내는 도구로 개발한 것이었다. 처음에 사람들은 소리굽쇠가 건반악기의 어떤 음을 낸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것이 정확하게 초당 몇 회의 진동을 하는지는 알지 못했다. 이렇게 만들어진 소리굽쇠로 악기를 조율하였기에 지역마다 연주자마다 악기들은 조금씩 다른 기준음을 가졌다. 소리굽쇠가 정확하게 얼마의 진동수를 갖는지를 알아내는 것은 정확한 측정 장치가 없는 당시로서는 매우 어려운 문제처럼 보였다. 이 문제는 독일의 음향학자인 요한 샤이블러에 의해 1834년에 명쾌하게 해결되었다.

샤이블러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 다른 진동음을 내는 두 개의 소리굽쇠가 만들어 내는 맥놀이 진동수를 세는 방법을 사용했다. 맥놀이란 진동수가 약간 다른 두 개의 소리가 간섭을 일으켜 소리가 주기적으로 ㉡ 세어졌다 ㉢ 약해졌다 하는 현상이다. 서로 다른 진동수를 갖는 두 음이 함께 울릴 때 생기는 맥놀이의 진동수는 두 음의 진동수의 차에 해당한다. 맥놀이 진동수는 초당 4회, 즉 4Hz(헤르츠) 정도일 때 귀로 들으면서 측정하기에 적당하다.

샤이블러의 실험에는 여러 개의 소리굽쇠가 필요했다. 그는 어떤 건반악기의 A음과 같은 음을 내도록 만든 1번 소리굽쇠와 그것보다 약간 크게 만든 2번 소리굽쇠 사이의 맥놀이 진동수가 4Hz가 되게 하였다. 이것은 1번 소리굽쇠의 고유 진동수가 2번 소리굽쇠의 고유 진동수보다 4Hz만큼 큼을 의미한다. 그 다음에 샤이블러는 좀 더 큰 3번 소리굽쇠를 만들어서 2번 소리굽쇠와 함께 울렸을 때 역시 초당 4회의 맥놀이가 일어나도록 조절 하였다. 이렇게 해서 3번 소리굽쇠는 1번 소리굽쇠에 비하여 8Hz만큼 낮은 진동수의 음을 내게 되었다. 샤이블러는 이런 방법으로 1번 소리굽쇠보다 정확하게 한 옥타브 낮은 음을 내는 소리굽쇠가 만들어질 때까지 계속 새로운 소리굽쇠를 만들었다. 그랬더니 56번 소리굽쇠가 1번 소리굽쇠보다 정확하게 한 옥타브 낮은 음을 내었다. 샤이블러는 56번 소리굽쇠가 1번 소리굽쇠에 비하여 $4\text{Hz} \times 55$, 즉 220Hz만큼 낮은 진동음을 낸다는 것을 계산할 수 있었다.

한 옥타브만큼 차이 나는 두 음 중 높은 음의 진동수는 낮은 음의 진동수의 두 배가 된다는 것은 이미 알려져 있었으므로, 이로부터 샤이블러는 소리굽쇠의 고유 진동수를 계산해 낼 수 있었다. 1번 소리굽쇠의 고유 진동수는 56번 소리굽쇠의 고유 진동수의 두 배이고 그 차이는 220Hz이므로, 1번 소리굽쇠의 고유 진동수는 440Hz, 56번 소리굽쇠의 고유 진동수는 220Hz임을 쉽게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성과에 의지하여 샤이블러는 1834년에 독일의 슈투트가르트에서 열린 과학자들의 회의에서 건반의 A음을 440Hz로 삼아 음 높이의 기준을 삼을 것을 제안하였다. 이렇게 해서 만들

어진 ㉣ '슈투트가르트 피치'는 이후 유럽 여러 나라에서 조율의 기준음으로 한 동안 널리 쓰였다.

57. 샤이블러의 업적을 바르게 말한 것은?

- ① 맥놀이 현상을 최초로 발견하였다.
- ② 악기의 기준음의 정확한 진동수를 구하였다.
- ③ 음 높이가 높아질수록 진동수도 커짐을 발견했다.
- ④ 악기의 조율에 사용하기 위해 소리굽쇠를 발명했다.
- ⑤ 소리굽쇠를 음향학 연구를 위한 실험 도구로 채택했다.

58. 윗글의 내용으로 보아 샤이블러가 사용한 1번 소리굽쇠가 200Hz의 고유 진동수를 갖는다고 할 때, 실험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보 기>

ㄱ. 1번 소리굽쇠보다 한 옥타브 낮은 음을 내는 소리굽쇠는 100Hz의 고유 진동수를 가질 것이다.

ㄴ. 처음과 마지막 소리굽쇠의 고유 진동수의 차이는 220Hz일 것이다.

ㄷ. 이 실험에서 사용해야 하는 소리굽쇠의 개수는 50개일 것이다.

-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ㄱ, ㄷ ⑤ ㄴ, ㄷ

59. ㉣이 도입된 곳에서 일어났을 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악보의 형태가 바뀌었을 것이다.
- ② 음악 애호가들이 증가했을 것이다.
- ③ 낮은 음을 쓰는 곡이 많아졌을 것이다.
- ④ 맥놀이에 대한 실험 연구가 증가했을 것이다.
- ⑤ 음악가들이 표준 소리굽쇠를 요구했을 것이다.

60. ㉠, ㉡, ㉢의 의미 관계를 <보기>와 같이 정리했을 때, 이런 배열로 보기 어려운 것은?

<보 기>

단단하다 ← 반의 관계 → 약하다 ← 반의 관계 → 세다

- ① 어리다 ↔ 젊다 ↔ 늙다
- ② 나쁘다 ↔ 좋다 ↔ 싫다
- ③ 받다 ↔ 주다 ↔ 빼앗다
- ④ 밋다 ↔ 굽다 ↔ 거칠다
- ⑤ 밀다 ↔ 당기다 ↔ 늦추다

[20~2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006.11

독일의 발명가 루돌프 디젤이 새로운 엔진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고 특허를 얻은 것은 1892년의 일이었다. 1876년 오토가 발명한 가솔린 엔진의 효율은 당시에 무척 떨어졌으며, 널리 사용된 증기 기관의 효율 역시 10%에 불과했고, 가동 비용도 많이 드는 단점이 있었다. 디젤의 목표는 고효율의 엔진을 만드는 것이었고, 그의 아이디어는 훨씬 더 높은 압축 비율로 연료를 연소시키는 것이었다.

일반적으로 가솔린 엔진은 기화기에서 공기와 연료를 먼저 혼합하고, 그 혼합 기체를 실린더 안으로 흡입하여 압축한 후, 점화 플러그로 스파크를 일으켜 동력을 얻는다. 이러한 과정에서 문제는 압축 정도가 제한된다는 것이다. 만일 기화된 가솔린에 너무 큰 압력을 가하면 멋대로 점화되어 버리는데, 이것이 엔진의 노킹 현상*이다.

공기를 압축하면 뜨거워진다는 것은 알려져 있던 사실이다. 디젤 엔진의 기본 원리는 실린더 안으로 공기만을 흡입하여 피스톤으로 강하게 압축시킨 다음, 그 압축 공기에 연료를 분사하여 저절로 착화가 되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디젤 엔진에는 점화 플러그가 필요 없는 대신, 연료 분사기가 장착되어 있다. 또 압축 과정에서 공기와 연료가 혼합되지 않기 때문에 디젤 엔진은, 최대 12:1의 압축 비율을 갖는 가솔린 엔진보다 훨씬 더 높은 25:1 정도의 압축 비율을 갖는다. 압축 비율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효율이 좋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용하는 연료의 특성도 다르다. 디젤 연료인 경유는 가솔린보다 훨씬 무겁고 점성이 강하며 증발하는 속도도 느리다. 왜냐하면 경유는 가솔린보다 훨씬 더 많은 탄소 원자가 길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가솔린은 5~10개, 경유는 16~20개의 탄소를 가진 탄화수소들의 혼합물이다. 탄소가 많이 연결된 탄화수소물에 고온의 열을 가하면 탄소 수가 적은 탄화수소물로 분해된다. 한편, 경유는 가솔린보다 에너지 밀도가 높다. 1갤런의 경유는 약 1억 5,500만 줄(Joule)*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지만, 가솔린은 1억 3,200만 줄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연료의 특성들이 디젤 엔진의 높은 효율과 결합되면서, 디젤 엔진은 가솔린 엔진보다 좋은 연비를 내게 되는 것이다.

발명가 디젤은 디젤 엔진이 작고 경제적인 엔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그의 생전에는 크고 육중한 것만 만들어졌다. 하지만 ㉠ 그 후 디젤의 기술적 유산은 이 발명가가 꿈꾼 대로 널리 보급되었다. 디젤 엔진은 원리상 가솔린 엔진보다 더 튼튼하고 고장도 덜 난다. 디젤 엔진은 연료의 품질에 민감하지 않고 연료의 소비 면에서도 경제성이 뛰어나 오늘날 자동차 엔진용으로 확고한 자리를 잡았다. 환경론자들이 걱정하는 디젤 엔진의 분진 배출 문제도 필터 기술이 나아지면서 점차 극복되고 있다.

* 노킹 현상: 실린더 안에서 일어나는 비정상적인 폭발.
* 줄: 에너지의 크기를 나타내는 물리량.

20.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 ① 디젤 엔진은 가솔린 엔진보다 먼저 개발되었다.
- ② 디젤 엔진은 가솔린 엔진보다 내구성이 뛰어나다.
- ③ 가솔린 엔진은 디젤 엔진보다 분진을 많이 배출한다.
- ④ 디젤 엔진은 가솔린 엔진보다 연료의 품질에 민감하다.
- ⑤ 가솔린 엔진은 디젤 엔진보다 높은 압축 비율을 가진다.

21. <보기>에서 디젤 엔진에 없는 부품끼리 묶은 것은?

—<보 기>—		
ㄱ. 기화기	ㄴ. 피스톤	ㄷ. 점화 플러그
ㄹ. 실린더	ㅁ. 연료 분사기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ㅁ ④ ㄷ, ㄹ ⑤ ㄷ, ㅁ

22. [A]에서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손으로 만지면 경유보다는 가솔린이 더 끈적끈적할 거야.
- ② 가솔린과 경유를 섞으면 가솔린이 경유 아래로 가라앉을 거야.
- ③ 특별한 공정을 거치면 경유를 가솔린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 거야.
- ④ 주유할 때 차체에 연료가 묻으면 경유가 가솔린보다 더 빨리 증발할 거야.
- ⑤ 같은 양의 연료를 태우면 가솔린이 경유보다 더 큰 에너지를 발생시킬 거야.

23. ㉠의 이유를 <보기>와 같이 정리할 때, 문맥상 ()에 들어갈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디젤 엔진 제작 기술이 ()되어 보다 작고 경제적인 것이 개발되었기 때문이다.	

- ① 개조(改造) ② 개선(改善) ③ 진보(進歩)
- ④ 향상(向上) ⑤ 발전(發展)

[31~3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006.11

(가) 피테는 젊은 시절에 이탈리아로 여행을 떠나면서 “나의 조국을 알기 위해서 이탈리아로 가노라.” 하는 말을 남겼다. 이 말은 언어를 이해하는 데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외국어를 통해서 한국어에 없는 문법 장치를 발견함으로써 우리는 언어에 대한 인식의 지평을 넓힐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이 때로는 한국어의 고유성에 대한 재확인(再確認)의 계기가 되기도 한다.

(나) “칠수가 추구를 하였다.”라는 문장을 생각해 보기로 하자. 이 문장으로는 화자가 ‘칠수가 추구한 것’을 직접 보았는지 아니면 남으로부터 들었는지를 구별하기가 어렵다. 그런데 콜롬비아의 토속어인 투유카어에서는 이것을 명확하게 구별하는 장치가 있다. 화자의 목격 여부가 동사에 형태적으로 표시되는데 그것을 ㉠ ‘증거법’이라고 부른다.

- diiga apéwi (그가 추구한 것을 내가 보았다.)
- diiga apéti (그가 추구한 것을 내가 소문은 들었지만 보지 못했다.)
- diiga apéyi (그가 추구한 것을 내가 알지만 보지는 못했다.)
- diiga apéyigi (그가 추구한 것을 나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들었다.)
- diiga apéhiyi (그가 추구한 것을 나는 짐작했다.)

○ 증거법의 구성 요소 = {wi=시각적, ti=비시각적, yi=명백함, yigi=전혀 들음, hiyi=짐작함}

(다) 위 예문들의 공통 의미는 ‘그가 추구를 하였다’이다. 그런데 투유카어의 문장으로 이 의미만을 표현할 수는 없다. 투유카어는 증거법의 형태들이 문장에 필수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반면에 한국어에는 증거법이라는 문법 범주가 없으므로 이러한 내용을 한국어로 표현하기 위해서 문법 형태들을 사용할 수가 없다. 단어나 문장 등 다른 차원의 언어적 장치에 의해서 이러한 것들을 표현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한국어로 사실을 표현하는 방식과 투유카어의 그것이 다름을 보여 준다.

(라) 그러면 한국어는 어떠한가? 한국어의 특성을 잘 드러내는 것은 ㉡ ‘높임법’이다. “준비를 하십시오.”라는 말에는 ‘화자가 청자를 높이고 있다’는 정보가 들어 있다. 한국어 화자들이 말을 할 때는 언제나 다음과 같은 묵시적인 질문에 답해야만 한다. ‘당신은 청자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까? 듣는 사람을 높입니까? 아니면 높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고민이 우리에게는 당연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높임법을 보편적인 언어 현상이라고 할 수는 없다.

(마) 외국어는 자국어(自國語)를 비추는 거울이다. 우리는 언어 간의 대조나 비교를 통하여 자신의 사고방식을 돌아켜볼 기회를 가질 수 있다. 투유카어의 증거법을 이해한 한국인들은 문장 속 동사의 역할에 대해서 한국어에서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차원의 인식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인간의 언어는 산업화의 정도나 사용 인구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나름대로의 고유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토착민의 언어든 문명국의 언어든 서로 존중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이러한 언어들의 특징을 이해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언어의 그림’을 보다 객관적으로 그릴 수 있을 것이다.

31.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 ① 문명국(文明國)일수록 언어 체계도 우수하다.
- ② 언어는 언중이 세상을 대하는 사고방식과 무관하다.
- ③ 외국어를 통해서 자국어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다.
- ④ 언어 간의 접촉을 통하여 언어 체계의 변화가 일어난다.
- ⑤ 언어 간의 대조를 통하여 언어의 변화 과정을 알 수 있다.

32. (가)~(마)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 인용을 통하여 흥미를 유발하고 있다.
- ② (나): 예시를 통하여 설명을 구체화하고 있다.
- ③ (다): 대조를 통하여 대상의 이해를 돕고 있다.
- ④ (라): 유추를 통하여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 ⑤ (마): 비유를 통하여 설명의 효과를 높이고 있다.

33. ㉠과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을 통해 사건에 대한 화자의 목격 여부를 드러낸다.
- ② ㉡는 여러 개의 구성 요소로 이루어진 문법 범주이다.
- ③ ㉠을 통해 청자에 대한 화자의 심리적 태도를 드러낸다.
- ④ ㉠과 ㉡는 모두 문장에 형태적으로 표시된다.
- ⑤ ㉠보다 ㉡가 개별 언어의 고유성을 더 잘 드러낸다.

34. 윗글에 담긴 글쓴이의 관점과 상통하는 것을 <보기>에서 골라 바르게 묶은 것은? [3점]

—<보 기>—

ㄱ. 언어는 본능의 일종이지만, 문자 언어는 본능이 아니다. - 스티븐 핑커 -

ㄴ. 인간은 유한한 문법 장치로 무한한 문장들을 생성해 낼 수 있다. - 노암 촘스키 -

ㄷ. 어떠한 언어도 혼자만으로는 인간이 이루어 낸 모든 것들을 표현할 수가 없다. - 에즈라 파운드 -

ㄹ. 세계는 여러 시각이 모인 모자이크이다. 언어가 하나씩 사라질 때마다 그 모자이크 한 조각을 잃는 것이다. - 아린 달리냐 로드리게스 -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35~3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006.11

이누이트(에스키모) 하면 연상되는 것 중의 하나가 이글루이다. 그들의 주거 시설에는 빙설을 이용한 집 외에도 목재나 가죽으로 만든 천막 등이 있다. 이글루라는 말은 이러한 주거 시설의 총칭이었으나, 눈으로 만든 집이 외지인의 시선을 끌어 그것만 일컫는 말이 되었다. 이글루는 눈을 벽돌 모양으로 잘라서 반구 모양으로 쌓은 것이다. 눈 벽돌로 만든 집이 어떻게 얼음집으로 될까? 이글루에서는 어떻게 난방을 할까?

일단 눈 벽돌로 이글루를 만든 후에, 이글루 안에서 불을 피워 온도를 높인다. 온도가 올라가면 눈이 녹으면서 벽의 빈틈을 메워 준다. 어느 정도 눈이 녹으면 출입구를 열어 물이 얼도록 한다. 이 과정을 반복하면서 눈 ㉠벽돌집을 얼음집으로 변하게 한다. 이 과정에서 눈 사이에 들어 있던 공기는 빠져나가지 못하고 얼음 속에 갇히게 된다. 이글루가 뿌옇게 보이는 것도 미처 빠져나가지 못한 기체에 부딪힌 빛의 산란 때문이다.

이글루 안은 밖보다 온도가 높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이글루가 단위 면적당 태양 에너지를 지면보다 많이 받기 때문이다. 이것은 적도 지방이 극지방보다 태양 빛을 더 많이 받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다른 이유로 일부 과학자들은 온실 효과를 든다. 지구에 들어오는 태양 복사 에너지의 대부분은 자외선, 가시광선 영역의 단파이지만, 지구가 열을 외부로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는 적외선 영역의 장파이다. 단파는 지구의 대기를 통과하지만, 복사파인 장파는 지구의 대기에 의해 흡수된다. 이 때문에 지구의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된다. 이를 온실 효과라고 하는데, 온실 유리가 복사파를 차단하는 것과 같다는 데서 유래되었다. 이글루도 내부에서 외부로 나가는 장파인 복사파가 열음에 의해 차단되어 이글루 안이 따뜻한 것이다.

이글루 안이 추울 때 이누이트는 바다에 물을 뿌린다. 마당에 물을 뿌리면 시원해지는 것을 경험한 사람은 이에 대해 의문을 품을 것이다. 여름철 마당에 뿌린 물은 증발되면서 열을 흡수하기 때문에 시원해지는 것이지만, 이글루 바다에 뿌린 물은 곧 얼면서 열을 방출하기 때문에 실내 온도가 올라간다. 물의 물리적 변화 과정에서는 열의 흡수와 방출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이때, 찬물보다 뜨거운 물을 뿌리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바다에 뿌려진 뜨거운 물은 온도가 높고 표면적이 넓어져서 증발이 빨리 일어나고 증발로 물의 양이 줄어들어 같은 양의 찬물보다 어느 온도까지 빨리 도달하기 때문이다.

이누이트가 융해와 응고, 복사, 기화 등의 과학적 원리를 이해하고 이글루를 짓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절착제를 사용하지 않고도 눈으로 구조물을 만들었으며, 또한 물을 이용하여 난방을 하였다. 이글루에는 극한 지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경험을 통해 터득한 삶의 지혜가 담겨 있다.

35.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오늘날 이글루라는 말은 의미가 축소되어 사용되고 있다.
- ② 태양 빛은 이글루의 실내 온도를 높이는 데 영향을 미친다.
- ③ 이누이트는 물의 화학적 변화를 난방에 이용하는 지혜를 지녔다.
- ④ 극지방의 지면과 이글루는 같은 면적에서 받는 태양 에너지의 양이 다르다.
- ⑤ 이글루의 얼음과 온실의 유리는 방출되는 복사파를 차단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36.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상반된 관점을 절충적으로 종합하고 있다.
- ② 과학적 근거를 들어 통념의 오류를 비판하고 있다.
- ③ 다른 대상과의 비교를 통해 가설을 검증하고 있다.
- ④ 실험 결과로부터 특정한 원리를 이끌어 내고 있다.
- ⑤ 구체적 현상에 들어 있는 과학적 원리를 밝히고 있다.

37. 윗글로 미루어 답을 알 수 있는 질문을 <보기>에서 골라 바르게 묶은 것은?

—<보 기>—

ㄱ. 호수가 어느 날씨에도 바다는 왜 얼지 않는가?
 ㄴ. 냉동실에서 얼린 얼음의 가운데 부분은 왜 뿌옇게 보이는가?
 ㄷ. 겨울에 세차를 위해 자동차에 온수를 뿌리면 왜 바로 어는가?
 ㄹ. 겨울에 실외에 놓은 음료수가 얼면서 병이 깨지는 것은 왜일까?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 ④ ㄴ, ㄹ ⑤ ㄷ, ㄹ

38. <보기>를 참조할 때, 단어의 구조가 ㉠과 다른 것은?

—<보 기>—

‘벽돌집’은 ‘재료+대상’의 의미 구조를 지닌다. 따라서 ‘벽돌로 만든 집’이라는 뜻이다.

- ① 두부콩 ② 유리창 ③ 보리밥
- ④ 비단옷 ⑤ 밀짚모자

39. 윗글의 내용으로 보아 이글루의 건축 과정에서 ㉡의 구실을 하는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이글루 안에 피운 불
- ② 이글루 바다에 뿌린 물
- ③ 얼음벽을 통과한 태양 빛
- ④ 불의 열에 의해 융해되는 눈
- ⑤ 이글루 안에서 발생한 복사파

[40~4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006.11

나는 10년 전에 금강산을 유람하여 한 달 동안 다니다가 돌아왔다. 바다는 출렁이고 산은 높이 솟아 그 광경은 무어라 말로 형용할 길이 없었다. 유람하는 이들은 줄지어 이어지고 안개와 구름은 무심하였다. 여기저기 신령스런 골짜기와 신비한 전각들, 이런 것들이 마침내 일대 장관으로 다가왔다. 구룡연·만물상·수미봉·옥경대 같은 여러 뛰어난 경치는 금강산에서도 특히 이름난 것이다. 그런데 ㉠ 경관이 기이하고 그윽한 언덕과 골짜기가 또 있어, 만일 이름을 붙여 널리 전파한다면 명승의 대열에 끼일 수 있을 터였다. 그러나 모두 ㉡ 거친 수풀과 우거진 넝쿨 사이에 가려지고 묻혀 있었다.

이로 말미암아 생각하건대 사람 또한 이와 같다. 관각(館閣)*에서 능력을 발휘하여 문화를 빛내고, 낭묘(廊廟)*에서 예복을 입고 왕정(王政)을 보좌하여, 육경(六經)의 참뜻이 못 백성에게 파급되게 하는 분들은 말할 필요도 없다. 그런데 여항의 사람에 이르러서는 기릴 만한 경술(經術)이나 공적은 없지만, ㉢ 그 언행에 혹 기록할 만한 것이 있는 사람, 그 시문에 혹 전할 만한 것이 있는 사람이라도 모두 적막한 구석에서 초목처럼 시들어 없어지고 만다. 아아, 슬프도다! 내가 『호산외기(壺山外記)』를 지은 까닭이 여기에 있다.

친구인 겸산(兼山) 유재건(劉在建)이 나와 뜻이 통하여 여러 사람의 문집 속에서 더듬고 찾아서 이미 전(傳)에 오른 사람 약간 명을 얻었다. 그리고 ㉣ 전이 없는 사람은 겸산이 직접 전을 지었다. 그리하여 모두 280여 편이 된다. 정성스럽게 책을 만들어 제목을 ㉤ 『이향견문록(里鄉見聞錄)』이라 붙이고 나에게 서문을 요청하였다. 내 어찌 감히 사양할 수 있겠는가!

나라 수천 리 안에 인물이 번성하니 언행이나 시문으로써 후세에 전할 만한 사람이 어찌 이루 다 헤아릴 수 있겠는가마는 인멸되어 아는 이가 없게 되었다. 겸산은 흥금이 바다 같아 남의 좋은 점을 즐거워하여 귀로 듣고 눈으로 본 것을 그물질하듯 끌어 모았다. 또한 그 언행이나 시문 외에도 한 가지 기예, 한 가지 재능이라도 있으면 모두 기록하였다. 그 부지런한 뜻이 어찌 헛되겠는가? 후세 사람으로 하여금 이 책을 읽고 감동하고 분발함이 있기를 바라는 것이니, 어찌 다만 한 사람의 글에 그치겠는가? 세상의 교화에 크게 보탬이 될 것이다.

이 뜻은 내가 명산(名山)에서 깨달아서 겸산의 글에 기록하여 두는 바이다. 아아! ㉥ 숨은 빛을 찾아내어 찬연히 세상에 나오게 하였도다. 사관(史官)이 기록하여 석실(石室)에 보관한 역사 기록 이외에 태평한 시절 교화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것은 아마 이 책에 있으리라.

- 조희룡, 「이향견문록 서(里鄉見聞錄序)」 -

* 관각: 조선 시대에, 홍문관·예문관·규장각을 통틀어 이르던 말.
* 낭묘: 조정의 정무(政務)를 돌보던 궁전(宮殿).

40. 윗글에 나타난 글쓴이의 태도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역사 기록의 의의를 인정하고 있다.
- ② 당대의 정치 이념을 비판하고 있다.
- ③ 저술의 교화적 가치를 중시하고 있다.
- ④ ‘겸산’의 인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 ⑤ 여항 사람들의 행적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41. ㉠~㉣ 중, 문맥상 의미하는 바가 다른 하나는?

- ① ㉠ ② ㉡ ③ ㉢ ④ ㉣ ⑤ ㉥

42. <보기>를 참고할 때, ㉦에 수록되었을 인물의 심정이 가장 잘 표현되어 있는 것은?

— <보 기> —

『이향견문록』은 조선 후기 중인(中人)들의 전기를 모아서 엮은 책이다. 중인은 여항인(閩巷人)이라고도 하였다. 이들은 자기들의 신분이 사대부보다 낮고 능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데 대한 불만이 있었다. 동시에 그들은 나름대로의 포부를 지니고 있었고, 자신들의 재능에 대한 자긍심도 있었다.

- ① 반중(盤中) 조홍(早紅) 감이 고와도 보이나다
유자(柚子)가 아니라도 품음지도 하다마는
품어 가 반길 이 없으새 글로 설위하나이다
- ② 어리고 성긴 매화(梅花) 너를 믿지 않았더니
눈 기약(期約) 능히 지켜 두세 송이 피었구나
촉(燭) 잡고 가까이 사랑할 제 암향(暗香)조차 부동(浮動)터라
- ③ 삼동(三冬)에 배옷 입고 암혈(巖穴)에 눈비 맞아
구름 긴 별뿔도 췌 적이 없건마는
서산(西山)에 해 지다 하니 눈물겨워 하노라
- ④ 농암(農巖)에 올라 보니 노안(老眼)이 유명(猶明)이로다
인사(人事)가 변한들 산천(山川)이야 변할까
암전(巖前)에 모수 모구(某水某丘)가 어제 본 듯하여라
- ⑤ 형산(荊山)의 박옥(璞玉) 얻어 세상 사람 보이러 가니
걸이 돌이니 속 알 이 뉘 있으리
두어라 알 인들 없으랴 돌인 듯이 있거라

43. 윗글로 보아 ‘유재건’과 ‘나’의 관계를 뜻하는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지기지우(知己之友) ② 오월동주(吳越同舟)
- ③ 근묵자흑(近墨者黑) ④ 동상이몽(同床異夢)
- ⑤ 순망치한(唇亡齒寒)

[44~4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006.11

최근에 새로운 경향의 공연 예술가들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춤과 연극의 경계를 허무는 한편, 기승전결을 지닌 기존의 작품 구조를 해체한 새로운 형식을 창조하고자 하였다. 무엇보다도 논리와 이성이 투영되지 않은, **신체의 언어**를 중요하게 사용함으로써, 춤에서는 연극처럼 배우들이 말을 하고, 연극에서는 춤처럼 배우들의 몸짓 표현을 강조하게 되었다. 연출가들은 극장의 무대에서 공연하기도 하고, 극장이 아닌 길거리나 들판 혹은 공장과 같은 일상 공간을 무대로 활용하기도 하였다. 이를 위해서 연출가들은 문자로 쓰인 대본에 의존하기 보다는 배우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즉흥적인 연출을 시도하였다. 나아가 자신들의 공연을 영화로 옮기기도 하였다.

‘춤연극’으로 잘 알려진 피나 바우쉬의 영화 ㉠ 「황후의 탄식」에는 각 장면들이 연극 무대처럼 펼쳐진다. 이 작품은 **일정한 줄거리**가 없는 대신, 상이한 연상을 불러일으키는 다양한 장면들로 구성된 몽타주*와 같다. 연출가는 배우들의 모습을 클로즈업하여 그들의 표정과 행동을 자세하게 관찰하고, 그들이 도시와 숲 속에서 돌아다니는 모습을 먼 거리에서 바라보고 있다. 도시와 자연 배경은 주위와의 연관 관계로부터 떨어져 나와 원래의 지리적 공간이 아닌 낯설고 새로운 추상적인 공간이 된다. 그 공간에 등장하는 배우들은 갈 곳을 잃고 헤매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낮과 밤의 구별이 없는 도시의 거리, 마른 나뭇가지들이 여기저기 흩어진 숲 속의 빈터, 너른 풀밭, 어두운 숲 등은 그 빛과 어둠으로 우리 존재의 슬픈 내면을 비춘다. 밝음 속에서 소외되는 것과 어둠 속에 갇히는 것은 본원적으로 같다. 이렇게 상징적인 이미지를 통해서 연출가는 작품을 고정되고 완성된 것이 아니라, 새롭게 생성되는 ‘과정 속의 작품’으로 만들게 된다.

위와 같이 현대 공연 예술의 연출가들은 **극적 사건**이라는 허구를 통해서가 아니라, 무대 위에서 배우의 몸이 겪는 고통과 상처의 느낌을 관객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직접 전달하려고 한다. 이것을 위해서 연출가들은 오브제*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한다. 일상생활에서 고정된 기능을 가진 가구·가방·책·옷 등이 무대 위에서는 전혀 다른 상징적 의미를 갖게 되어 공연에 시적(詩的)인 특질을 부여하게 된다. 이런 것은 지금까지 오브제를 무대 장치에 필요한 소품(小品) 정도로 여겨 온 것과 크게 다르다. 상대적으로 공연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인물들은 이제 마네킹처럼 오브제로 변형되어 존재한다. 기존의 **공연 예술의 관습**이었던 인간과 사물 사이의 위계질서가 사라져 버리는 것이다.

우리 주위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오브제를 사용하고, 장면들을 자유롭게 ㉡ 뒤엎어 놓음으로써 공연은 보다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제의적(祭儀的), 시적인 성격을 지니게 된다. 이렇게 해서 현대 공연 예술은 **단순한 재현**을 넘어 표현 주체의 행위와 상태를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 언어이자, 기승전결이라는 우회로를 거치지 않은 현존의 언어가 된다. ㉢ 이미지의 표면이 이야기 그 자체가 되는 것이다.

*몽타주: 둘 이상의 장면을 하나로 편집하는 영화나 사진 등의 기법.
*오브제: 예술 작품에서 새로운 느낌을 일으키는 상징적 기능의 물체.

44. 윗글에 나타난 ‘현대 공연 예술’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연출의 즉흥성을 중시한다.
- ② 전통적인 작품 구조를 해체한다.
- ③ 공연 예술 간의 경계를 허물어뜨린다.
- ④ 인물과 오브제 간의 위계가 사라진다.
- ⑤ 고정된 대본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45. <보기>가 ㉠에 대한 비평문이라고 할 때, 윗글의 논지와 다른 것은?

—<보 기>—

「황후의 탄식」은 ㉠ 이미지의 나열로 일관한다. ㉡ 모든 장면은 하나의 서사적 구조에 종속되지 않으며, 나름대로의 독자성을 지닌다. 이처럼 인간의 이성에 대한 믿음에 기반하고 있는 ㉢ 인과적인 플롯을 거부하는 것은, 인간의 존재 조건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던지기 위해서이다. 이 영화에서는 ㉣ 자연의 구체적 묘사와 배우의 사실적 연기가 중요하다. 결국 ㉤ 자연과 인간은 시적 의미를 갖게 된다.

- ① a ② b ③ c ④ d ⑤ e

46. ㉡의 ‘뒤’와 의미가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주례사에 뒤이어 축가가 있겠습니다.
- ② 술래가 도망가는 아이들을 뒤쫓았다.
- ③ 배추에 갖은 양념을 뒤섞어 버무린다.
- ④ 시대의 변화에 뒤쳐지지 말아야 한다.
- ⑤ 고향을 자주 뒤돌아보며 산마루를 넘었다.

47. ㉢의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신체의 언어 ② 일정한 줄거리
- ③ 극적 사건 ④ 공연 예술의 관습
- ⑤ 단순한 재현

[52~5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006.11

‘옵션(option)’이라면 금융 상품을 떠올리기 쉽지만, 알고 보면 우리 주위에는 옵션의 성격을 갖는 현상이 참 많다. 옵션의 특성을 잘 이해하면 위험과 관련된 경제 현상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옵션은 ‘미래의 일정한 시기(행사 시기)에 미리 정해진 가격(행사 가격)으로 어떤 상품(기초 자산)을 사거나 팔 수 있는 권리’로 정의된다.

역사에 등장하는 최초의 옵션은 고대 그리스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기하학의 아버지로 우리에게 친숙한 탈레스는 올리브유 압착기에 대한 옵션을 개발했다고 전해진다. 당시 사람들은 올리브에서 기름을 얻기 위해서 돈을 주고 압착기를 빌려야 했다. 탈레스는 파종기에 미리 조금의 돈을 주고 수확기에 일정한 임대료로 압착기를 빌릴 수 있는 권리를 사 두었다. 만약 올리브가 풍작이면 압착기를 빌리려는 사람이 많아져서 임대료가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탈레스는 파종기에 계약한 임대료로 압착기를 빌려서, 수확기에 새로 형성된 임대료로 사람들에게 빌려줌으로써 큰 이윤을 남길 수 있다. 하지만 ㉠ 흉작이면 압착기를 빌릴 권리를 포기하면 된다. 탈레스가 파종기에 계약을 통해 사 둔 권리는 그 성격상 ‘살 권리’라는 옵션임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상황에 따라 유리하면 행사하고 불리하면 포기할 수 있는 선택권이라는 성격 때문에 옵션은 수익의 비대칭성을 낳는다. 즉, 미래에 기초 자산의 가격이 유리한 방향으로 변화하면 옵션을 구입한 사람의 수익이 늘어나게 해 주지만, 불리한 방향으로 변화해도 그의 손실이 일정한 수준을 넘지 않도록 보장해 주는 것이다. 따라서 이 권리를 사기 위해 지급하는 돈, 즉 ‘옵션 프리미엄’은 이러한 보장을 제공 받기 위해 치르는 비용인 것이다.

옵션 가운데 주식을 기초 자산으로 하는 주식 옵션의 사례를 살펴보면 옵션의 성격을 이해하기가 한층 더 쉽다. 가령,

[A] 2년 후에 어떤 회사의 주식을 한 주당 1만 원에 살 수 있는 권리를 지금 1천 원에 샀다고 하자. 2년 후에 그 회사의 주식 가격이 1만 원을 넘으면 이 옵션을 가진 사람 으로서는 옵션을 행사하는 것이 유리하다. 만약 1만 5천 원이라면 1만 원에 사서 5천 원의 차익을 얻게 되므로 옵션 구입 가격 1천 원을 제하면 수익은 주당 4천 원이 된다. 하지만 1만 원에 못 미칠 경우에는 옵션을 포기하면 되므로 손실은 1천 원에 그친다.

여기서 주식 옵션을 가진 사람의 수익이 기초 자산인 주식의 가격 변화에 의존함을 확인할 수 있다. ㉡ 회사가 경영자에게 주식 옵션을 유인책으로 지급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이 경우에는 옵션 프리미엄이 없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경영자가 옵션을 지급 받는 대신 포기한 현금을 옵션 프리미엄으로 볼 수 있다.

수익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옵션은 적은 돈으로 기초 자산의 가격 변동에 대응할 수 있게 해 준다. 이 때문에 옵션은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처하게 해 주는 위험 관리 수단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옵션 보유자가 기초 자산의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옵션은 보유자로 하여금 더 큰 위험을 선택하도록 부추기는 측면도 있다. 예컨대 주식을 살 권리를 가진 경영자의 경우에는 기초 자산의 가격을 많이 올릴 가능성이 큰 사업을 선택할 유인이 크지만, 그런 사업일수록 가격을 많이 하락시킬 확률도 높기 때문이다. 옵션의 이러한 특성을 이해하는 것은 주주와 경영자의 행동을 비롯하여 다양한 경제 현상을 이해 하는 데 무척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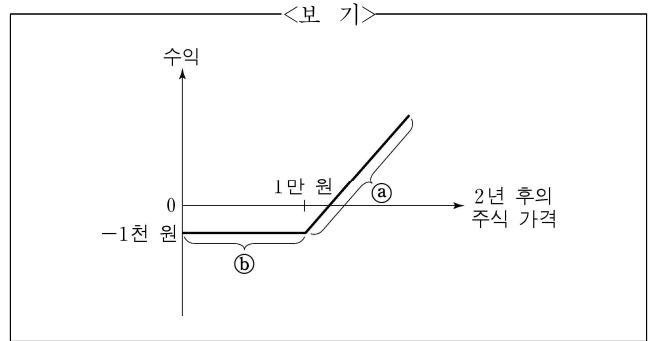
52. 앞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 ① 주식 옵션은 매매될 수 없다.
- ② 옵션은 반드시 행사해야 하는 권리는 아니다.
- ③ 옵션의 행사 가격은 행사 시기에 가서 정해진다.
- ④ 주식 이외의 자산을 기초 자산으로 하는 옵션은 없다.
- ⑤ 옵션 프리미엄은 옵션을 행사한 후에 얻게 되는 이득이다.

53. ㉠의 이유로 적절한 것은?

- ① 압착기의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 ② 압착기를 빌리기 힘들어지기 때문에
- ③ 압착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 ④ 압착기 임대 계약금을 돌려받기 쉬워지기 때문에
- ⑤ 압착기의 임대료가 계약한 수준보다 낮아지기 때문에

54. [A]에서 2년 후의 상황을 <보기>의 그래프로 설명할 때, 적절 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주식 가격이 1만 원을 넘으면 옵션을 행사하는 것이 유리함을 보여 준다.
- ② ㉡는 주식 가격이 아무리 낮아져도 손실은 일정하다는 것을 보여 준다.
- ③ ㉡의 모양이 수평인 것은 구입한 주식 옵션을 행사하였기 때문이다.
- ④ ㉡가 세로축의 0보다 아래에 위치하는 것은 옵션 프리미엄이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 ⑤ ㉠과 ㉡의 모양이 다른 것은 수익의 비대칭성을 보여 주는 것이다.

55. ㉠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경영자가 노동자들의 복지 증진을 추구하도록
- ② 경영자가 주식 가격의 상승을 추구하도록
- ③ 경영자가 덜 위험한 사업을 선택하도록
- ④ 경영자가 사업의 다각화를 추구하도록
- ⑤ 경영자가 사회 공익을 추구하도록

[22~2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06.09

조선 왕조는 유교 정치를 표방하여 오래도록 문(文)을 숭상하였다. 규장각은 이러한 전통 아래 정조(正祖) 때 왕실 도서관 겸 학술 연구 기관으로 출발하여, 나중에 정책 연구의 기능까지 발휘한 특별 기구였다.

규장각은 정조가 즉위하던 해(1776년)에 창설되었다. 이것은 전혀 새로운 발족이 아니라, 정조가 동궁(東宮) 시절에 경희궁에 살면서 설치·운영해 온 기구를 발전시킨 것이었다. 정조는 즉위한 다음날 창덕궁 후원의 연지(蓮池) 북쪽 언덕에 이층 건물을 새로 짓도록 하고 이름을 주합루(宙舍樓)라 하였다. 이 건물 1층의 이름을 처음에는 어제존각(御製尊閣)이라 하였다가 얼마 후 규장각(奎章閣)으로 개칭하여 자신의 왕위(王威), 즉 국왕으로서의 위엄에 관련되는 자료들을 보관하기로 하였다. ‘규장’이란 본래 제왕이 지은 시문이나 조칙 등의 글을 가리키는 용어이다.

원래 규장각은 ㉠ 국왕 관련 자료들을 봉안하는 기구로 출발하였으나, 정조가 직접 정사를 주재하면서부터 정치적 선도 기구로 일신되었다. 이때부터 규장각의 제학(提學) 이하 관리 6인으로 하여금 다른 관직을 겸하게 하였다. 이들 대부분을 홍문관(弘文館)의 관직을 겸하게 함으로써, ㉡ 이들 중심으로 근시직(近侍職), 즉 임금을 가까이에서 모시는 관직을 일원화하였다. 이들은 왕을 가까이에서 보좌하였을 뿐 아니라, ㉢ 과거 시험과 초계문신(抄啓文臣) 제도*를 함께 주관하기도 하였다. 이들은 일반 정사에 관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았으며, 비행을 저지른 관원을 탄핵하는 권한도 가졌다.

문(文)을 숭상하던 조선 왕조의 국왕은 ㉣ 도서의 수집·관리를 중시하였다. 이 업무가 규장각의 고유 기능에 해당하였다. 정조는 세손(世孫) 시절부터 도서를 수집하였는데, 이들 장서는 즉위 후에 주합루 옆의 서재로 옮겨졌다. 정조가 자신의 즉위를 알리기 위해 청나라로 가는 사신들에게 『사고전서(四庫全書)』를 사 오라고 명령한 것은 그의 도서 수집열을 보여주는 유명한 일화이다. 청나라의 『사고전서』 편찬 사업은 이때 아직 진행 중이었으며, 실령 그것이 완성되었다 하더라도 다른 나라로 ㉤ 빠져나갈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이었다. 규장각의 장서 규모는 정조 20년 무렵 8만여 권에 달한 것으로 알려진다.

한편 규장각에는 부속 기관으로 교서관(校書館)이 있어서 서적 출판을 전담하였다. 조선 시대 정부 인쇄소라고 할 수 있는 교서관은 본래 예조 소속이었는데, 규장각이 설치되면서 국왕의 거처인 창덕궁 가까이로 옮긴 것이다. 정조는 인쇄술에도 대단한 관심을 기울여 최소한 5종 100만 자 가량의 활자를 만들어 ㉥ 새 저술을 간행하였다.

규장각은 정조 왕정 체제의 중심 기구였기 때문에, 정조의 죽음으로 커다란 타격을 받았다. 규장각 관리들에게 부여되었던 특별한 권한이 정조 사후 모두 철회되면서, 정치적 선도 기구로서의 기능은 유지될 수 없었다. 규장각은 역대 왕들의 글과 도서를 관리하는 기능만 가지는 기구로 남게 되었다.

* 초계문신 제도: 젊은 문신들을 뽑아 재교육시키던 제도.

22. 윗글에서 언급하지 않은 것은?

- ① 규장각의 위치
- ② 규장각의 창설 목적
- ③ 규장각의 변모 과정
- ④ 규장각 관리들의 권한
- ⑤ 규장각의 장서 보관 방법

23. ㉠~㉣에서 <보기>와 가장 관련 깊은 것을 찾아 바르게 묶은 것은?

— <보 기> —

“승정원이나 홍문관은 그 인선 방식이 해이해져 종래의 타성을 조속히 지양할 수 없으니, 짐이 의도하는 혁신 정치의 중추로서 규장각을 세웠노라.”

- 정조(正祖) -

- ① ㉠, ㉡ ② ㉠, ㉣ ③ ㉡, ㉣
- ④ ㉡, ㉣ ⑤ ㉢, ㉣

24. 윗글의 설명 방식에 해당하는 것을 <보기>에서 골라 바르게 묶은 것은?

— <보 기> —

ㄱ. 구체적인 숫자를 들어 글의 객관성을 높이고 있다.

ㄴ. 어려운 용어를 풀어 써서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ㄷ. 전문가의 견해를 인용하여 핵심을 부각시키고 있다.

ㄹ. 대조와 유추의 방법으로 대상의 특징을 밝히고 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 ④ ㄴ, ㄹ ⑤ ㄷ, ㄹ

25. ㉤의 문맥적 의미와 같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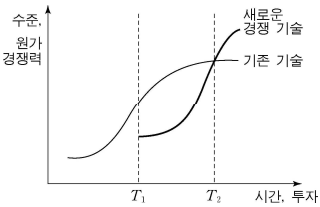
- ① 그는 포위망을 뚫고 그곳을 빠져나갔다.
- ② 학생들이 빠져나간 교실에 혼자 남아 있었다.
- ③ 기업 정보가 경쟁 기업에 빠져나가는 것을 통제하고 있다.
- ④ 나는 너무 오랫동안 걸어서인지 기운이 다 빠져나간 듯했다.
- ⑤ 동네 처녀들은 이 시골구석에서 빠져나가기를 원하고 있었다.

MEMO

MEMO

[26~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006.09

기존 기술과 새로운 기술의 경쟁과 대체 과정을 S 곡선으로 설명하는 이론이 있다. 그림에 나타난 S 곡선은 기술의 수준 및 원가 경쟁력이 시간의 경과와 지속적인 투자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 보여준다.



시장의 입지를 확보한 기존 기술은 그림에서 왼쪽에 위치하며 경쟁 기술을 나타내는 S 곡선은 오른쪽에 위치한다. 기존 기술의 수준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어떻게 변해왔는지 곡선의 모양에 주목

해야 한다. 이 곡선은 처음에는 가파르게 상승하다가 시간이 흐를수록 완만하게 상승한다. 경쟁 기술이 처음 등장할 때(T_1) 기존 기술은 많은 발전을 이루어 성숙기에 다다른 상태이다. 성숙기에 이르면 기술 수준의 개선 속도가 현저히 둔화된다. 그 이유는 일정한 기간 동안에 개선이 반복되면서 원가 절감과 기술 수준 향상의 기회를 대부분 사용해 버렸기 때문이다.

한편, 경쟁 기술은 기존 기술과 비교했을 때 일반적으로 조약한 편이며, 미해결 문제도 많이 남아 있다(T_1 부근). 이러한 약점 때문에 기존 기술에 기반을 둔 기업들은 경쟁 기술을 위협적이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고객들 역시 경쟁 기술의 수준이 떨어지고 가격이 높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를 무시한다. 조지 이스트먼이 19세기 후반에 개발한 카메라용 롤필름은 당시의 표준 기술이었던 화학 코팅 유리판이 만들어 ① 내는 뛰어난 영상 수준에 전혀 미치지 못했다. 따라서 사진 전문가들은 물론 아마추어까지 롤필름을 완강히 거부했다.

그러나 경쟁 기술의 초기 문제들은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해결된다. 제조 공정을 개선하고 대량 생산 체제를 갖추면서 원가도 떨어진다. 즉, 경쟁 기술의 수준이나 원가는 처음에는 개선의 속도가 느리지만 점점 그 가속도가 붙는다. 특정 시점(T_2)에 이르면 경쟁 기술은 기존 기술의 수준과 원가를 모두 따라잡는다. 그리고 기존 기술과 달리 경쟁 기술은 개선될 기회가 여전히 많다. 꾸준히 개선된 경쟁 기술은 마침내 기존 기술을 밀어내고 주역을 차지한다. 오늘날 롤필름 사진은 다시 예상치 못한 새로운 기술인 디지털 영상의 도전을 받고 있다. 롤필름은 개선의 한계에 이른 상태이지만, 디지털 영상은 지속적인 기술적 개선을 기대할 수 있고 실제로 그런 일이 이미 발생하고 있다.

경쟁 기술은 처음부터 기존의 기술과 전면적으로 대적할 수는 없다. 그 대신 경쟁 기술은 그 가치를 인정하는 선도 사용자를 파고든다. 예를 들면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엔진 기술은 혁신적인 것이었지만, 이것이 처음 등장했을 때 고속 주행의 성능은 없었다. 그러나 연비와 생태계에 관심이 많은 일부 운전자는 전통적인 성능상의 특징을 문제 삼지 않았다. 이 고객들은 신기술의 위험과 비싼 차량 가격도 꺼려 하지 않았다. 현재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S 곡선 이론에 따라 성능과 원가의 개선이 이루어지면서 실제 판매량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가까운 장래에 이것은 새로운 기술이 어떤 방법으로 기존 기술을 몰아냈는지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가 될 가능성이 크다.

26. 윗글을 통해 알 수 없는 것은?

- ① 기존 기술은 성숙기를 지나면서 기술의 개선이 어려워진다.
- ② 경쟁 기술은 초기에 선도 사용자들에 의해 그 가치가 인정된다.
- ③ 경쟁 기술은 가격을 높임으로써 기존 기술과 경쟁하려고 한다.
- ④ 경쟁 기술은 시간이 흐르면 새로운 경쟁 기술의 도전을 받는다.
- ⑤ 기존 기술의 수준은 특정 시점에 이르러 경쟁 기술에 의해 추월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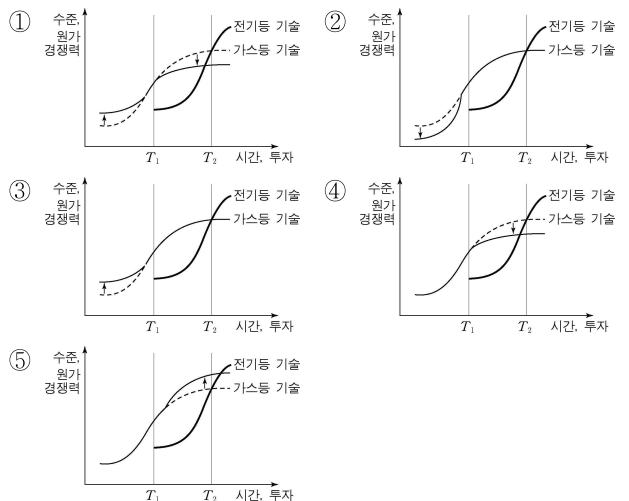
27. 윗글에서 중심 화제를 다루는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개념의 정의와 설명 대상의 유형화
- ② 이론의 변모 과정에 대한 통시적 고찰
- ③ 통계 수치를 활용한 객관적 자료의 제시
- ④ 실제 사례와 시각 자료를 통한 구체적 설명
- ⑤ 다양한 사례를 기반으로 한 일반적 원리 도출

28. <보기>의 상황을 그래프로 바르게 나타낸 것은? (단, 점선은 변화되기 이전의 곡선이고, 실선은 변화된 이후의 곡선이며, 화살표는 변화 방향이다.) [3점]

< 보 기 >

전기등(電氣燈)의 보급이 시작되어 가스등(gas燈)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을 무렵, 발명가 벨스바크는 가스등의 효율을 다섯 배 개선하고 가스 사용량도 3분의 1을 절감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 이 기술 하나가 초기 단계에 있는 전기등 사업을 좌초시킬 수 있을 만큼 위협적이었다. 그로 인해 에디슨은 전기등 사업에서 이익을 얻는 데 12년이나 걸렸다.



29. S 곡선 이론을 공부한 학생들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경쟁 기술에 투자를 늘리면 기존 기술을 더 빨리 따라잡겠군.
- ② S 곡선의 구체적인 형태는 충분한 시간이 지나지 않으면 알 수 없겠어.
- ③ 기존 기술과 경쟁 기술의 경쟁이 시작되는 시점은 T_2 시점부터일 거야.
- ④ 기존 기술을 뛰어넘는 데 실패한 경쟁 기술은 이 이론으로 분석될 수 없군.
- ⑤ 기술의 대체 과정을 일반화한 것이어서 실제 적용상에는 주의할 점이 있을 거야.

30. ㉠과 쓰임이 다른 것은?

- ① 이순신은 적의 침공을 막아 내었다.
- ② 김 선생은 시험 문제를 이틀에 걸쳐 내었다.
- ③ 오빠는 유리에 묻은 페인트를 닦아 내려고 애썼다.
- ④ 어떻게 해서든 손해 배상금을 받아 내고야 말겠다.
- ⑤ 우리는 이 난국을 타개할 방법을 도출해 내야 한다.

[36~3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006.09

날마다 언론에서는 주식 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의 움직임을 설명하면서 투자 심리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정작 경제학에서는 ‘심리’에 대해 그다지 가르쳐 주지 않는다. 이 때문에 2002년에 카네만이라는 심리학자에게 노벨 경제학상이 수여되었을 때 많은 이들이 의아해했던 것이 사실이다. 경제학과 심리학이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물론, 1930년대 세계 대공황의 시기에 등장하여 자유방임의 철학에 수정을 가했던 케인스의 경제학이 인간의 심리적 측면에 대한 성찰에 근거하고 있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케인스는 인간의 심리 그 자체를 과학적으로 파고들었다기보다, 우리의 의사 결정은 늘 미래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이루어진다는 점과 우리가 직면하는 불확실성은 확률적으로도 파악하기 힘든 것이 대부분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도 무엇인가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운명 이기에 인간의 행동은 경제학에서 가정하는 합리성을 갖추기 보다는 때로는 직관에 의존하기도 하고 때로는 충동에 좌우 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 그의 생각은 경제학도들 사이에서 인간 심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경구로 회자되었을지언정 합리성을 전제로 한 경제학의 접근 방법을 바꾸어 놓는 데까지 나아가지는 못했다.

그런데 카네만과 같은 확률 인지 심리학자들의 연구는 경제학의 방법론을 바꾸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그들은 사람들이 확률에 대해 판단할 때에 ‘주관적 추론’에 의존하는 경향이 매우 크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예를 들어, A가 B에 속할 확률을 판단할 때 실제 확률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보다 A가 B를 얼마나 닮았는지에 더 영향을 받는다는 거나, ㉡ A의 구체적인 예를 떠올리기 쉬울수록 A가 발생할 확률이 더 크다고 판단한다는 거나, 또한 새로운 정보가 추가됨에 따라 자신의 평가를 조정하지만 최종적인 추정 결과는 처음의 평가 쪽으로 기울기 쉬운 경향이 있다는 것 등이다. 이러한 주관적 추론은 편리한 인지 방법이지만, 체계적인 편향이나 심각한 오류를 낳기 쉽다.

이러한 성과에 기초하여 이들은 합리적인 인간 행동에 대한 기존의 인식을 비판하는 연구로 나아갔다. 그 가운데 하나가 이득에 관한 의사 결정과 손실에 관한 의사 결정 사이의 비일관성에 대한 연구이다. 이들은 매우 다양한 실험을 통해, 이득이 생기는 경우에는 사람들이 ‘위험(risk)’을 기피하지만, 손실을 보는 경우에는 위험을 선호 하는 비일관성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행동은 이해할 만한 것이기는 해도 불확실한 상황에서의 합리적인 행동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가정, 즉 위험에 대한 태도의 일관성과는 모순된다. 카네만 등은 이러한 실험 결과가 사람들이 위험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손실을 싫어하는 것임을 보여 준다고 해석하였다. 손실은 언제나 이득보다 더 크게 보인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는 합리성에 대한 일정한 가정에 기초하여 사회 현상을 다루어 온 경제학으로 하여금 인간의 행동에 대한 가정 보다는 그에 대한 관찰에서 출발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라 하겠다.

과연 심리학이 경제학을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바꾸어 놓을지 그 귀추가 기대된다.

36.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 ① 카네만은 경제학에서 인간 심리의 중요성을 처음으로 강조하였다.
- ② 케인스는 심리학의 성과를 바탕으로 경제학의 접근 방법을 변화시켰다.
- ③ 확률 인지 심리학은 주관적 추론의 체계적인 편향이나 오류를 시정했다.
- ④ 확률 인지 심리학의 성과는 경제학의 접근 방법에 중요한 변화를 요구한다.
- ⑤ 기존의 경제학에서는 인간 행동에 대한 가정보다 관찰에 기초하여 합리성을 논한다.

37. 문맥상 ㉠에 들어갈 말로 적당한 것은?

- ① 투자 관리는 예술도 과학도 아니고 공학이라는
- ② 직관은 많은 것을 하지만, 모든 것을 하지는 않는다는
- ③ 시장에만 맡겨둔다면 비참한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는
- ④ 기업 투자는 이자율보다 기업가의 동물적 본능에 더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 ⑤ 과학의 장점은 우리 인간을 미혹으로 이끄는 감정을 배제한다는 것이라는

38. ㉡의 구체적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동전던지기를 하는데 앞면이 다섯 번 연이어 나왔을 때, 다음에는 뒷면이 나올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한다.
- ② 교통사고 소식이 위암으로 인한 사망 소식보다 대중 매체에 더 자주 언급되기 때문에, 교통사고로 사망할 가능성이 위암으로 사망할 가능성보다 더 크다고 생각한다.
- ③ 50달러와 25달러로 나누어 받는 것보다 75달러를 한꺼번에 받는 것을 선호하는 데 반해, 150달러를 한꺼번에 지불하는 것보다는 100달러를 내고 다음에 50달러를 지불하는 것을 선호하였다.
- ④ ‘1×2×3×4×5×6×7×8’이라고 칠판에 쓰면서 5초 이내에 답하라고 하였을 때 응답자들이 낸 답의 중앙값은 512였으나, ‘8×7×6×5×4×3×2×1’이라고 쓴 경우에는 2,250이었다. 정답은 40,320이다.
- ⑤ 값이 15달러인 계산기를 구입하는 상황에서 5달러를 절약하기 위해 20분 더 운전을 하겠느냐는 질문에 대해 68%가 그렇게 하겠다고 답한 데 반해, 125달러인 계산기를 구입하는 상황에서는 29%만이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했다.

39. [A]와 관련지어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피실험자들에게 4,000달러를 벌 확률이 80%이고 한 푼도 못 얻을 가능성이 20%인 경우와, 100%의 가능성으로 3,000달러를 버는 경우 가운데 어느 쪽을 선택하겠느냐고 물었다. 앞의 것을 선택할 경우에 수학적 기댓값(3,200달러)이 더 높음에도 불구하고 피실험자의 80%가 확실하게 3,000달러를 버는 쪽을 선택하였다. 경제학적으로 표현하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위험을 기피한 것이다.

다음으로, 4,000달러를 잃을 확률이 80%이고 한 푼도 잃지 않을 가능성이 20%인 경우와, 100%의 확률로 3,000달러를 잃는 경우 가운데 어느 쪽을 선택할지를 물었다. 이 실험에서는 92%의 응답자가 손실의 기댓값이 더 큰 도박 쪽을 택했다. 이번에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위험을 선호한 것이다.

- ① 경제학에서는 위험을 선호하는 사람을 비합리적인 사람이라고 보는 것 같군.
- ② 위험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가 일관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실험 결과이군.
- ③ 경제학적 합리성에는 위배될지라도 사람들은 그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하는군.
- ④ 위험을 기피하는 사람은 기대되는 이익이 조금 적더라도 확실한 쪽을 더 낫다고 생각하는군.
- ⑤ 경제학에서는 실현될 수 있는 결과 값이 기댓값에서 얼마나 벗어나 있는지를 가지고 위험을 측정하는군.

[40~4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006.09

인간은 세계를 자기 중심으로 인식한다. 이러한 심리 구조는 언어 표현에도 반영된다. 예컨대 시간이나 공간에 관한 한 쌍의 단어를 열거할 때 화자에게 더 가까운 것을 먼저 들고 더 먼 것을 나중에 든다. ‘내일오늘’이 아니라 ‘오늘내일’이라 하고 ‘저기여기’가 아니라 ‘여기저기’라 하는 것은 ‘나’에게 가까운 ‘오늘’과 ‘여기’를 먼저 말하기 때문이다. ‘아빠 엄마’가 아니라 ‘엄마 아빠’라고 하는 것도 어린이가 자기 마음에서 더 가까이 느껴지는 엄마를 먼저 표현하기 때문이다.

이른바 사은유(死隱喩)의 대부분이 신체 일부의 이름을 빌려 쓰는 현상도 화자의 심리를 반영하는 언어 표현이다. 바늘에서 실을 꿰는 부분을 ‘바늘귀’라 하는 것은 신체의 일부인 ‘귀’를 빌려 바늘의 특정 부분을 표현하고자 하는 데서 나왔다. 영어에도 ‘eye of a needle’이라는 표현이 있다는 사실은, 신체 부분이 화자와 가장 가깝고 친숙한 것이므로 이를 빌려서 사물을 표현하는 현상이 범언어적임을 말해 준다.

사물에 대한 인간의 인식과 그 언어 표현에는 상응 관계가 있다. 그리하여 단순한 개념은 그 표현도 단순하고, 복잡한 개념은 그 표현도 복잡하게 나타난다. 예를 들면 ‘사람’에 ‘들’을 붙여 복수 개념인 ‘사람들’을 표현하지, 어떤 복수 개념을 나타내는 말에 일정한 형태소를 첨가하여 단수 개념을 표현하지 않는다. 또한, ‘하다’에 ‘안’을 더해 ‘안 하다’라는 표현을 형성하거나 ‘do’에 ‘not’을 더해 ‘not do’라는 표현을 만들지만, 그 반대의 표현 현상은 나타나지 않는다.

언어 표현은 인간의 심리 구조에서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인간의 심리 작용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하나의 단위를 이루는 구성 요소는 어떤 외부적인 요소가 그 단위를 분리시키거나 중단시키는 것을 거부하려는 경향이 있다. 보통 여러 사람이 대화를 하는 중에 끼어들고 싶을 때, 사람들은 화자가 말하는 중간에 아무데서나 끼어들지 않고, 적어도 한 문장이 끝났을 때를 기다려 자기 말을 한다. 사람들이 말을 할 때에도 문장 중간이 아닌 주어와 술어의 경계에서 휴지(休止)를 갖고, 단어의 중간이 아닌 단어와 단어의 경계에서 “어-, 어-” 하는 말을 삽입하는 경향이 있다. 이것도 한 단위를 분리 혹은 중단시키지 않으려는 심리 작용이 일어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언어가 심리 작용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여, ㉠언어가 인간의 사고를 완전히 지배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인간의 사고가 언어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 사례도 종종 발견되기 때문이다. 우리말에서 청색과 녹색을 ‘푸르다’라는 단어로 표현한다고 해서 우리가 두 색을 구별하여 인식하지 못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색채어가 그다지 많지 않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도 색채어가 풍부한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과 색에 대해 같은 감각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사실은 인간의 심리 작용이 언어의 구조와 관계없이 어떤 보편성을 띠고 있음을 말해 준다.

40. 윗글은 전체적으로 어떤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볼 수 있는가?

- ① 언어가 인간의 심리를 결정하는가?
- ② 언어와 인간의 심리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 ③ 언어 표현이 사고력 향상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
- ④ 인간의 의식이 언어 표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⑤ 언어 구조가 문화권에 따라 어떻게 달리 나타나는가?

41. [A]의 논지로 볼 때, [바늘귀]와 같은 예로 볼 수 없는 것은?

- ① 입방아를 찧다.
- ② 말허리를 자르다.
- ③ 상다리가 부러지다.
- ④ 병목 현상이 생기다.
- ⑤ 치마가 버선코를 가리다.

42. [B]의 논지를 보강할 수 있는 사례로 보기 어려운 것은?

- ① 대명사 ‘너, 저’에 ‘-회’가 붙어 ‘너회, 저회’가 만들어진다.
- ② 양수사 ‘셋, 넷’에 ‘-째’가 붙어 서수사 ‘셋째, 넷째’가 만들어진다.
- ③ 예사말 ‘사장, 과장’에 ‘-님’이 붙어 높임말 ‘사장님, 과장님’이 만들어진다.
- ④ 동사 어간 ‘오-, 가-’에 ‘-라, -자’가 붙어 활용형 ‘오라, 가자’가 만들어진다.
- ⑤ 능동사 ‘보다, 막다’에 ‘-이-, -히-’가 붙어 피동사 ‘보이다, 막히다’가 만들어진다.

43. 두 문장의 논리적 관계가 ㉠과 가장 유사한 것은?

- ①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거짓말을 하게 되면 탄로날 것을 우려한 나머지 긴장과 두려움으로 자율신경계에 혼란이 오기 때문이다.
- ② 운동이 언제나 건강에 이로운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운동을 할 때 어떤 경우에는 체내에 활성 산소가 축적되어 노화를 촉진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 ③ 범죄자라고 해서 인권을 함부로 침해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사람은 기본적인 인권을 가지고 태어나며, 인권은 어떤 사람도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 ④ 언어가 갖는 현실의 창조와 사람됨의 창조, 이 두 기능은 서로 불가분의 필연적인 보충 관계에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외부 세계와 내부 세계로 이루어지고, 이 두 세계는 서로 대응적인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 ⑤ 속담은 화용론적 부차 기능이 생생한 역할을 할 때에 비로소 속담으로 쓰인 효과를 완성시킨다. 왜냐하면 속담의 일차적 기능이 비유에 있다 하여 특정한 사실에 대한 비유적 서술만으로 속담이 수행해야 할 모든 기능을 끝마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MEMO

MEMO

[53~5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006.09

(가)

생물학을 비롯한 다른 과학 분야에는 물리학에서 찾아볼 수 없는 문제가 있다. 이 문제를 표현할 적절한 단어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역사적 질문’이라고 해 두자. 만일 우리가 생물학의 모든 것을 이해하게 되었다면, 그 다음에는 “지구 위에 그런 생물들이 왜 존재하는가?”에 대해 궁금해질 것이다. 이 의문에 부분적인 해답을 주는 이론이 바로 진화론인데, 이는 생물학에서 매우 중요한 분야이지만, 아직은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 많은 미완의 이론이다. 지질학의 경우에도 우리는 산의 생성 과정뿐만 아니라 지구 자체의 생성 과정, 더 나아가서는 은하계의 기원 까지도 알고 싶어 한다. 물론 이러한 의문은, “이 세상은 어떤 물질들로 이루어져 있는가?”라는 질문으로 귀결된다. “별들은 어떻게 진화하는가?”, “별이 처음 생성되던 시기의 초기 조건은 어떠한가?” 이것은 또 천문학에서 다루어야 할 ‘역사적 질문’이다. 별과 우리 자신을 이루고 있는 원소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사실들이 알려져 있으며, 아주 조금이긴 하지만 우주의 기원도 베일을 벗기 시작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물리학은 ‘역사적 질문’으로 고민하지 않는다. “여기 물리학 법칙이 있다. 그런데 왜 하필 이런 법칙이어야 하는가?” 물리학에서는 이런 식의 질문이 없다. 물리학자는 하나의 물리 법칙을 발견했을 때, “이 법칙은 어떤 변천 과정을 거쳐서 지금과 같이 되었을까?”, “변하기 전의 법칙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등등의 의문으로 골머리를 앓지 않는다. 물론 물리 법칙은 시간과 함께 변할 수도 있다. 만일 이것이 사실로 판명된다면, 물리학의 ‘역사적 질문’은 곧 우주의 역사에 대한 질문으로 발전할 것이며, 이때부터 물리학자는 천문학자나 지질학자, 생물학자 등과 동일한 주제를 놓고 대화하게 될 것이다.

(나)

생물학자가 “왜 구대륙에는 별새가 없는가?” 또는 “인간 종은 어디서 유래했는가?”와 같은 특수한 사건에 관한 물음에 답하고자 할 때, 보편적 법칙에 의존할 수는 없다. 생물학자는 특수한 문제와 관련하여 알려진 모든 사실들을 연구해야 하고, 재구성된 한 무리의 요인들로부터 모든 종류의 결과들을 추론해야 하며, 이러한 특수한 경우의 관찰 사실들을 설명할 시나리오를 구성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그는 ‘역사적 서술’을 구성하는 것이다.

이러한 접근은 인과 법칙적 설명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논리학, 수학 또는 물리학에서 출발한 고전 과학철학자들은 그것을 아예 수용할 수 없는 것으로 여겼다. 그러나 최근의 학자들은 고전적 관점이 편협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고, ① ‘역사적 서술’의 접근이 타당할 뿐만 아니라 특수한 사건에 대한 설명에서는 과학적으로도 철학적으로도 유일하게 타당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물론 ‘역사적 서술’이 ‘진실’이라는 것을 단언적으로 증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나의 과학이 포괄하는 체계가 복잡할수록

그 체계 내의 상호 작용은 더 많아진다. 그리고 이들 상호 작용은 관찰만으로 그 인과 관계를 밝혀낼 수 없는 경우가 아주 흔하다. 단지 추론만이 가능하다. 그러한 추론은 본질적으로 해석하는 학자의 배경과 경험에 의존하기 쉽기 때문에, 당연히 ‘가장 훌륭한’ 설명을 두고 종종 논쟁이 야기된다. 또한 모든 ‘역사적 서술’은 반증이 가능하고 언제라도 또다시 시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53. 앞글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것은?

- ① 우주의 기원에 대한 비밀이 조금씩 밝혀지고 있다.
- ② 진화론은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 많은, 생물학의 한 분야이다.
- ③ 과학철학자 중에는 인과 법칙적 설명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있다.
- ④ 지질학에서는 은하계의 기원에 대해서는 알고 싶어하지 않는다.
- ⑤ 복잡한 체계일수록 관찰만으로 그 상호 작용을 규명하기가 어렵다.

54. (가)의 글쓴이와 (나)의 글쓴이가 말을 주고받았다고 할 때, 각자의 관점에 비추어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 물리학자는 현재 ‘역사적 질문’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 ② (나): 생물학자는 보편적 법칙으로 특수한 문제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 ③ (가): 그 특수한 문제는 ‘역사적 질문’과 상통하는 것이겠지요.
- ④ (나): 그것은 ‘역사적 서술’이라는 접근 방법으로 타당한 설명이 가능합니다.
- ⑤ (가): ‘역사적 질문’은 우주의 기원에 대한 질문으로 발전할 것 같군요.

55. (나)의 글쓴이가 <보기>를 평가한 내용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보 기>—

다음과 같은 견해는 공룡 멸종 이후 포유류가 번성할 이유에 대한 생물학계의 설명 가운데 가장 훌륭한 역사적 서술로 받아들여진다. 백악기 말기에 공룡이 멸종했는데, 이로 인해 기존의 생태학적 환경 속에서 많은 생물들이 가졌던 역할 및 지위가 없어지게 되었다. 그 틈을 타 포유류가 눈부시게 번성하였다.

- ① 이 시나리오는 고전 과학철학자들에게는 수용되지 않았군.
- ② 생물학계에서 가장 훌륭한 설명이므로 반증 가능성이 없겠군.
- ③ 포유류 번성이라는 특수한 문제에 알맞은 연구 방법을 사용하였겠군.
- ④ 연구자의 배경과 경험에 의존한 추론으로 이 시나리오를 구성하였겠군.
- ⑤ 이 시나리오의 구성을 위해 포유류 번성과 관련하여 알려진 모든 사실들을 연구하였겠군.

56. 밑줄의 논지로 보아 ㉠과 거리가 먼 것은?

- ① 별의 구성 물질
- ② 별의 진화 과정
- ③ 산맥의 생성 과정
- ④ 구대륙에 별새가 없는 이유
- ⑤ 지구 위에 존재하는 생물의 유래

[57~6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006.09

오늘날 불리는 가곡의 종류는 모두 41곡으로 남자가 부르는 남창(男唱)에 26곡, 여자가 부르는 여창(女唱)에 15곡이 있다. 그러나 그 레퍼토리는 무한정 늘어날 수 있는데, 한 가지의 선율에 두 가지 이상의 다른 시조시(時調詩)를 ㉠ 엮어 부를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예로 ‘초삭대엽(初數大葉)’이라는 곡이 있다면, 그것의 선율에 ‘동창이 밝았느냐……’의 가사를 엮어 부르기도 하고, 다른 시조인 ‘동짓달 지나긴 밤을……’의 가사를 엮어 부르기도 한다. 이것은 오늘날 유행하고 있는 ‘노래 가사 바꾸기’와 유사하다.

실제 노래를 부를 때는 맨 첫 곡인 ‘초삭대엽’부터 끝 곡인 ‘태평가’까지 한꺼번에 이어서 부르는 연창 형식을 취한다. 그러나 오늘날은 이러한 연창의 무대를 ㉡ 접하기는 힘들고 프로그램에 가곡을 한두 곡 정도 끼워 넣어 들려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가곡의 장단에는 16박(拍)과 10박의 두 가지가 있다. 장단은 장구로 치는데, 북판을 치지 않고 주로 변죽을 쳐 다른 악기들과의 음량을 조절한다. 16박과 10박 모두 10점(點)으로 장단을 친다. 그래서 ‘10점 16박’, ‘10점 10박’ 등으로 일컫는다. 10점이라고 하는 것은 장구에 손이 가서 소리를 내는 타점(打點)이 10번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16박과 10박에는 장단의 기본 형태인 덩(㉢), 쿵(○), 덕(|), 기덕(|), 더러러러(∴) 등이 10번 들어간다는 말이다.

10점 16박 장단의 보기 (1칸 20~40 빠르기)



10점 10박 장단의 보기 (1칸 75~80 빠르기)



위의 그림에서 10점 16박의 빠르기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한 칸이 서양 음악의 빠르기를 기준해서 20~40이다. 음악의 빠르기는 특정 음표 하나를 1분에 지정하는 수만큼 연주하라는 것이다. 빠르기가 20이라면 1박은 3초가 소요되고, 30이라면 1박은 2초가 된다. 보통 빠르기가 90~110 정도인 서양 음악과 비교하면 가곡은 너무 ㉣ 느리다. 그래서 실제 가곡을 들어 보면, 그 가사 내용을 알아듣기가 힘들다.

이처럼 가곡의 가사를 알아듣기 어려운 데는 노래 가사에 한문구(漢文句)가 종종 등장하는 것도 한 가지 이유이지만, 무엇보다도 노래 가사가 모음 변화를 하는 것이 주된 이유이다. 즉, ‘아’는 ‘아으’로, ‘에’는 ‘어으이’ 등으로 발음한다. ‘청석령’이라는 노래 가사는 ‘청서—호—역려—오’으로 부르기 때문에 그 가사의 내용을 좇아가기란 쉽지 않다. 이러한 현상은 가곡이 성행하던 시대에도 그러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래서 가곡이란 명칭도 가사를 노래한다기보다, 곡조를 노래한다는 뜻으로 풀이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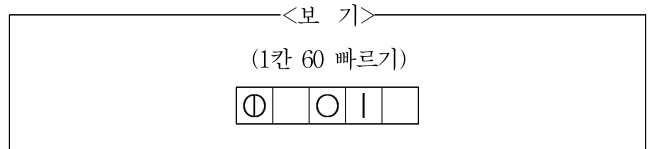
하지만 조금 인내하며 눈을 지그시 감고, 첫 곡인 ‘초삭대엽’을 한번 끝까지 감상해 보라. 곡의 중반부를 ㉤ 지나기도 전에 시시

콜콜한 일상의 잡념들은 사라지고, 해질녘의 고즈넉한 평온이 조용히 찾아올 것이다. 그리고 곡이 언제 끝났는지도 모르게 그 감흥에 ㉥ 젖어 있는 자신을 발견할 것이다.

57. 윗글의 중심 화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음악 속에 담긴 선인들의 여유
- ② 소재로 살펴본 시조와 가곡의 관계
- ③ 우리 가곡에 끼친 서양 음악의 영향
- ④ 장단과 가창 방식으로 본 가곡의 특성
- ⑤ 자유로운 변주가 가능한 우리 음악의 속성

58. 윗글의 내용을 참고하여 <보기>의 장단과 연주 시간을 나타내면?



	장단	연주 시간
①	3점 3박	3초
②	3점 3박	4초
③	3점 5박	4초
④	3점 5박	5초
⑤	5점 3박	5초

59. 윗글을 읽은 독자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곡은 동일한 노래에 가사만 바꿔 부를 수 있는 여지가 많구나.
- ② 가곡을 한두 번 듣게 되면 가사의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겠구나.
- ③ 가곡은 가사가 시조시인 것으로 봐서 식자층이 많이 향유했겠구나.
- ④ 성격이 급한 사람이 가곡을 들으려면 약간의 인내심이 필요하겠구나.
- ⑤ 현대인은 가곡이 연창 형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직접 체험하기는 어렵겠구나.

60. ㉠~㉥를 대체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붙여
- ② ㉡: 만나기
- ③ ㉢: 더디다
- ④ ㉣: 넘어가기
- ⑤ ㉥: 잡겨

[20~2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006.06

많은 성인들은 청소년 문화가 하위 문화의 특성을 띠고 있으며, 성인 문화에 비해 미숙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성인 문화가 생산적 노동 관습에 순응하고 책임감을 갖는 데 비해, 청소년 문화는 소비에 열중하고 쾌락 추구적이며 기존 가치를 거부하려는 무책임한 양상을 보인다는 것이다. 그들은 청소년을 경계에 놓인 존재이자 '정상적인' 문화로 계도해 가야 할 대상이라고 여긴다. 반면 이러한 생각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청소년이 그 나름의 원칙과 질서에 따라 사는 독립적인 존재이므로 그들의 문화도 가능성을 지닌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청소년 문화를 ㉠ 둘러싸고 벌어지는 이러한 견해 차이는 청소년이 과연 고유한 문화를 가질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사회가 받아들일 만한 가치 있는 집단적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서로 다른 전망에서 비롯된다. 현상적으로는 청소년 문화의 독자성을 말하기는 아직 이른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 청소년의 행동 양식 속에는 그들 자신의 문화를 만들어 내려는 의미 있는 시도들이 있다. 그 중의 하나가 '길거리 문화'이다.

청소년의 길거리 문화는 청소년이 길거리에서 누리는 생활을 근간으로 한다. 대부분의 청소년은 많은 시간을 가정과 학교에서 보내지만 여가 시간은 길거리라는 공간 속에서 걷고, 만나고, 놀고, 소비하며 보낸다. 이때 '길거리'는 사람이 다니는 길이나 차량이 다니는 거리만이 아니라 광장이나 공원,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곳, 함께 노래를 부르거나 게임을 할 수 있는 곳, 각종 공연이나 문화 예술 행위가 이루어지는 곳을 포함하는 공간 개념으로 사용된다.

학업 부담 때문에 여가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청소년들은 방과 후나 주말, 시험이 끝난 날 등 여유 있는 시간을 잡아 친구들과 함께 길거리로 나선다. 하지만 어떤 단일한 목적이 그들의 행위를 결정짓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는다. 패스트푸드점, PC방, 노래방, 공연장 같은 곳을 전전하는 경우에도 그들의 행위는 특별한 목적이 없어 보인다. 만나서 반동거리다가 물건을 구경하고, 웃고 떠들다가 편의점이나 패스트푸드점에서 음식을 사 먹고, 다시 길거리로 나선다.

청소년들은 왜 이렇게 특별한 목적 없이 길거리를 배회하는 것일까?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하자면, 그들이 길거리로 나서는 것은 학교나 가정의 틀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가 아닐까? 그들은 무엇인가를 찾고 있는 것이다. 청소년들이 많이 모이는 길거리에서 비슷한 나이, 비슷한 차림새의 또래들이 모이고 흩어지는 가운데, 그들은 일시적인 해방감을 느끼고 나아가 자신들만의 연대 의식과 소속감을 느끼게 된다.

문제는 이러한 경험이 바람직한 문화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길거리 문화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그들의 유대 관계가 아직까지는 일시적이라는 것이 아쉬운 점이다. 여전히 그들의 문화는 '길거리'라는 상황과 결합되어 있다. 이 상황이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청소년들은 길거리 문화를 소비 문화로만 받아들일게 된다. 청소년의 길거리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계도나 관리가 아닌 지지와 여건 조성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20. 청소년과 관련된 현재의 상황에 대한 글쓴이의 생각과 거리가 먼 것은?

- ① 청소년은 학업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 ② 청소년 문화는 또래 집단을 중심으로 형성된다.
- ③ 청소년을 위한 문화 공연장이 부족한 실정이다.
- ④ '길거리'는 소비 공간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 ⑤ 청소년 문화를 계도 대상으로 보는 성인이 많다.

21. 밑줄 친 단어의 문맥적 의미가 ㉠과 유사한 것은?

- ① 잠시 일을 놓고 쉬는 중이다.
- ② 중매쟁이를 놓아 혼인을 주선했다.
- ③ 건강을 위해 밥에 콩을 놓아 먹는다.
- ④ 정신을 놓고 창박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 ⑤ 뒤편이만 놓고 보면 나무랄 데 없는 사람이다.

22. ㉡에서 이끌어 낼 수 있는 진술은?

- ① 문화는 새롭게 만들어질 수 있다.
- ② 문화는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다.
- ③ 문화는 세대를 이어 계승된다.
- ④ 문화는 사회 정책의 산물이다.
- ⑤ 문화는 지속적으로 축적된다.

23. 길거리 문화에 대한 반응 중, 윗글의 논지와 가장 잘 어울리는 것은?

- ① 길거리 문화는 어른들도 겪을 수 있는 욕망의 표출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러므로 성인들도 향유할 수 있는 길거리 문화를 조성해야 합니다.
- ② 길거리 문화는 어른들의 문화를 모방하는 측면을 띠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과정에서 어른들의 퇴폐 향락 문화에 물들지 않을까 우려되는 점이 있습니다.
- ③ 청소년 문화는 잠재력과 창의성을 지닌 문화입니다. 미래의 문화를 위해서도 무엇이 그들을 길거리로 이끌어 내고, 그들이 길거리에서 무엇을 느끼는지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 ④ 길거리 문화라는 불분명한 현상을 인정하는 것은 청소년들의 문화라는 불완전한 문화를 인정하는 셈이 됩니다. 따라서 청소년 길거리 문화는 전체 사회의 소비 문화라는 맥락에서 검토되어야 합니다.
- ⑤ 우리 청소년들은 여가 시간에도 텔레비전 시청, 인터넷 이용 외에는 마땅히 할 일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길거리 문화를 강력하게 규제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28~3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06.06

분청사기는 전통 도자 양식 중 하나로서 점토[청자토]로 만든 형상 위에 화장토[백토]를 칠한 전후에 바탕을 장식하고 유약을 발라 구워 낸 그릇을 말한다. 고려 말 퇴락해 가던 상감청자의 뒤를 이어 등장한 분청사기는 조선 중기 이전까지 널리 쓰였다. 우리나라 도자기 중에서는 가장 순박하고 서민적이며, 일상의 생활 용기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예술적 조형미도 매우 뛰어났다. **㉠**

퇴락해 가는 예술로부터 태어나 실용적 목적에서 사용되었던 분청사기는 어떻게 해서 예술성을 얻게 되었을까? **㉡** 분청사기의 역사적 형성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해당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고려 말에 이르기까지는 국가에서 도자의 생산과 유통을 관장하였다. 서남해안 일부 지역에 설치되었던 관요(官窯)에서는 국가의 강력한 보호와 규제 속에 상감청자 등이 만들어지고 있었다. 이 도자들은 왕실과 사원, 귀족층을 위한 제품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품질이 일정했다. 국가의 철저한 감독 아래 도공들은 독점적 생산자로서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지만, 동시에 신분의 구속과 강력한 규제를 받아야만 했다. **㉢**

14세기 후반 고려 왕조가 쇠운을 맞게 되자, 도공들은 정치적 혼란과 왜구의 침입을 피해 각지로 흩어져 살길을 찾게 되었다. **㉣** 이 과정에서 전국적으로 민간 가마터인 민요(民窯)가 만들어졌다. 민요의 등장은 관요에서 만들어 내던 상감청자가 근본적으로 쇠퇴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서민층으로까지 확대된 도자기 수요에 부응하여 저렴한 생활 용기들을 제작하는 생산 환경이 조성되었다.

그런데 당시의 상황으로는 새로운 기술의 도입이나 개발을 크게 기대할 수 없었고 이전에 사용하던 재료들을 쉽게 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제품의 질이 일정하지 못하고 전반적으로 조악해지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하지만 숙련된 제조 기술을 보유한 도공들은 지역 특성에 맞는 질 좋은 제품들을 만들어 냈으며, 차츰 전통적인 도자 기술에 구애되지 않는 새로운 방식의 분장기법들을 시도하기 시작했다. **㉤** 새로 만들어진 제품들은 상감청자의 전통 위에서 서 있기는 했지만, 더 이상 상감청자와는 같지 않았다. 분청사기라는 새로운 전통 도자 양식이 탄생한 것이다.

각 지방에서 **㉥** 이름을 얻은 분청사기들은 왕실이나 관에서 사용되기도 했다. 뛰어난 제품들은 토산 공물로서 중앙에 진상되었다. 그런데 상당수가 품질이 떨어지거나 중간에서 착복되어 사라지는 일이 발생하게 되자, 세종 3년에 이르러 진상하는 분청사기 제품의 밑면에 **㉦** 장명(匠名)을 쓰게 하는 조치가 내려졌다. 개인의 창작이라는 개념이 아직 존재하지 않던 시대였지만, 이 조치는 도자 생산의 질 관리를 가능하게 하였고, 도공들에게 두터운 전통의 경험 위에 그들 나름의 독특한 장인 정신을 발휘하게 만들었다. 이 과정에서 분청사기는 기능적이면서도 심미적인 조형미를 갖춘 예술 형식으로 발전해 갔다.

28. 윗글에서 언급한 분청사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공예품으로서의 조형미가 뛰어났다.
- ② 여러 지역의 민간 가마터에서 만들어졌다.
- ③ 품질 관리를 위해 국가가 개입하는 경우가 있었다.
- ④ 다양한 신분과 계층에서 사용한 생활 공예품이었다.
- ⑤ 상감청자를 계승하였지만 그것보다 뛰어난 기법을 획득했다.

29. 윗글의 전개 방식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 ① 가설을 설정한 다음, 여러 관점에서 의견들을 검토하였다.
- ② 자신의 관점을 제시한 다음, 구체적인 사례에 적용하였다.
- ③ 핵심적 문제를 제시한 다음, 역사적 고찰을 통해 해명하였다.
- ④ 비교되는 두 대상을 제시한 다음, 상반된 관점에서 각각을 평가하였다.
- ⑤ 통념을 비판한 다음, 구체적인 근거를 밝혀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였다.

30. ㉠~㉣에 앞 문장의 내용을 보충하는 뒷반침 문장을 추가한다고 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싹 게 비지떡이라고, 뛰어난 작품은 숙련된 제조 기술을 요구하기 때문에 비할 수밖에 없었다.
- ② ㉡: 분청사기가 화룡점정(畫龍點睛)의 놀라운 예술성을 보여 줄 수 있었던 비결이 궁극하다.
- ③ ㉢: 국가의 간섭이 그들에게는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했던 것이다.
- ④ ㉣: 도공들은 어둠 속에서 길을 찾듯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한 채 방황하고 있었다.
- ⑤ ㉤: 그들은 절치부심(切齒腐心)하면서 새로운 도자 기술을 얻기 위해 노력했다.

31. ㉥의 문맥적 의미와 거리가 먼 것은?

- ① 이 고장은 도자기로 이름이 난 곳이다.
- ② 그 식당은 산채비빔밥으로 이름을 날렸다.
- ③ 그는 어릴 적 바둑 신동으로 이름이 높았다.
- ④ 농산물에 지역의 이름을 붙이자 판매량이 늘어났다.
- ⑤ 이번 대회에는 세계적으로 이름 있는 선수들이 참여한다.

32. ㉦에 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 ① 개인의 창작 욕구를 위축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 ② 분청사기의 유통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 ③ 국가에서 공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방편이었다.
- ④ 도공들의 도자 생산에 대한 책임 의식을 높이는 계기였다.
- ⑤ 도자의 품질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게 한 바탕이었다.

[33~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006.06

오늘날 널리 회자되고 있는 공론장(公論場)이라는 용어는 공적 문제에 대한 개인의 의견이 공적 영역으로 확장되는 공개된 담론의 장(場)을 말한다. 즉 사회적 의제(議題)에 대해 개인이 자신의 의견과 신념을 표현하고, 서로 다른 [A] 의견을 조율해 가며, 이 과정에서 형성된 건전한 여론을 국가의 정책에 반영하는 장이란 뜻이다. 이러한 공론장은 민주주의의 요체라 할 수 있는 집회 및 결사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건전한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하겠다.

사회가 다원화되고 구성원들 사이의 갈등이 분출되면서 공론장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사람들은 최근 방송 편성이 늘고 있는 텔레비전 토론 프로그램이 공론장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텔레비전 토론 프로그램이 진정한 모습의 공론장을 구현하고 있는지에 대한 회의적 견해도 제기되고 있다.

텔레비전 토론 프로그램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견지하는 학자들은 상당수의 프로그램이 다양한 공적 문제에 대해 공개적으로 상호 의사소통을 하기보다는 이해 관계에 있는 집단들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공론장과는 거리가 멀다고 주장한다. 그리하여 텔레비전 토론 프로그램이 사회적 의제에 대한 공중(公衆)의 관심을 오히려 멀어지게 하고, 특정 입장을 홍보하는 이른바 ‘유사 공론장’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그들은 비판한다. 그들은 토론 프로그램이 [㉠]는 점을 우려하는 것이다.

비슷한 시각에서 텔레비전 토론 프로그램이 공중을 수동적인 방관자로 전락시켜 합리적 판단과 비판적 의견을 스스로 형성할 수 없게 한다고 비판하는 학자들도 있다. 그들에 의하면 텔레비전 토론 프로그램이 공중에게 자신들이 공적 논의 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환상을 갖게 함으로써 수동적인 수용자로 계속 남아 있게 한다는 것이다. 그들은 또한 프로그램의 주제 선정, 진행 방법, 방송 시간대와 방송량, 토론자의 특성, 시청자의 참여, 사회자의 성향 등과 같은, ㉠ 방송사가 미리 설정해 놓은 형식과 구성 요소들이 토론의 진행 방향이나 논쟁의 결과를 일정한 방향으로 제한한다고 지적한다. 시청자 참여 문제와 관련해서는 토론 프로그램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진지한 성찰을 제공하고 있다 하더라도, 관심 있는 사람들만 그 프로그램을 시청하기 때문에 시청자들이 토론 프로그램에 실질적으로 참여하거나 영향력을 미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덧붙인다.

텔레비전 토론 프로그램이 사회적 의제를 논의하는 주요한 공간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하지만 토론 프로그램이 진정한 공론장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 동안 제기된 비판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방송 관계자들의 숙고가 있어야 할 것이다.

33.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상반된 견해를 절충하는 방식으로 논지를 전개하고 있다.
 - ②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일반적인 논리를 끌어내고 있다.
 - ③ 질문에 대해 답변하는 방식으로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 ④ 예상되는 반론을 비판함으로써 글쓴이의 주장을 강화하고 있다.
 - ⑤ 학자들의 견해를 언급하면서 글쓴이의 관점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34.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여론을 왜곡할 수 있다
 - ② 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
 - ③ 정보 제공의 기능을 상실할 수 있다
 - ④ 사회 감시의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
 - ⑤ 모든 사안을 정치적으로 해석하게 만들 수 있다
35. 윗글의 맥락을 고려하여 ㉠을 바르게 이해한 것은?
- ① 토론자의 많고 적음이 토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않겠지.
 - ② 프로그램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 반론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지.
 - ③ 시청자 참여의 폭과 정도가 토론 프로그램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지.
 - ④ 텔레비전 토론 프로그램의 사회적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겠지.
 - ⑤ 정해진 순서에 따라 토론을 하기 때문에 자유로운 논쟁을 기대하기 어렵겠지.
36. [A]에서 설명한 ‘공론장’이 제대로 기능한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인터넷 신문이 유명인의 사생활에 대해 보도하니까, 누리꾼들에게 빠르게 전달되더라.
 - ② 반사회회를 통해 새로운 정책을 홍보하니까, 마을 사람들이 그 정책을 잘 알게 되더라.
 - ③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에서 사회적 현안을 다루면서, 소수 전문가와의 대담으로 일관하더라.
 - ④ 기존 안과 새로운 안을 설명하는 공청회에서, 주최 측이 새로운 안이 돋보이도록 설명하더라.
 - ⑤ 시민 토론회에서 합의된 의견에 대해, 정부 기관의 담당자가 여건이 조성되면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하더라.

[37~4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006.06

발명의 이론으로 알려진 트리즈(TRIZ)는 창의적 문제 해결을 위한 이론으로서, 구 소련의 겐리히 알츠슐러에 의하여 탄생하였다. 그는 4만 건의 특허를 분석한 결과, 우수한 특허는 모두 모순을 극복했다는 공통점을 발견하였다. 그 후, 알츠슐러는 모순의 극복이라는 관점에서 연구를 계속한 끝에 모순을 기술적 모순과 물리적 모순으로 유형화하여 그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게 되었다.

기술적 모순이란 두 개의 기술적 변수의 값이 서로 충돌하는 것이다. 가령 비행기의 속도를 높이려면 출력이 높은 엔진을 장착해야 한다. 그런데 출력을 높이려면 엔진이 커져야 하고, 그에 따라 엔진은 무거워진다. 결국 출력이 높은 엔진을 장착하면 비행기의 무게가 증가하여 속도는 떨어지게 된다. 그렇다고 가벼운 엔진을 장착하면 출력의 한계 때문에 속도를 증가시키기 어렵다.

트리즈에는 이와 같은 기술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40가지 발명의 원리가 있다. 현장에서 부딪히는 기술 문제에 발명의 원리를 하나씩 적용한다면 다양한 해결 방안들이 쏟아져 나올 것이다. 비행기의 속도 문제 해결에 ①'복합 재료를 사용하라'는 40번째 발명의 원리가 적용된 예가 있다. 당시, B1 폭격기의 무게를 줄여 달라는 정부의 요청을 받은 항공기 제작 회사는 금속 재료 대신 에폭시 계열의 플라스틱 복합 재료로 비행기의 날개를 만들어 폭격기 전체 무게의 15%를 줄였으며 비용도 절감하였다. 이렇게 무게가 줄면 동일한 엔진으로도 속도를 향상시킬 수 있게 된다.

한편, 물리적 모순이란 하나의 변수가 서로 다른 값을 동시에 가져야 하는 것이다. 예컨대, 비행기는 이착륙 시에 바퀴가 반드시 있어야 하지만, 비행 중에는 공기의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바퀴가 없어야 하는 모순을 갖는다. 비행 중에도 바퀴가 동체에 그대로 붙어 있는 초창기 비행기의 모습을 떠올릴 수 있는데, 오늘날 초음속 비행기에서 동체의 바퀴는 엄청난 공기 저항을 유발하여 치명적인 사고를 불러올 수 있으므로 비행 중에는 반드시 없어야 한다.

이러한 물리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하여 알츠슐러는 '시간에 의한 분리' 등 몇 가지의 원리를 제안하였다. ②시간에 의한 분리를 설명하기 위해 앞에서 예로 든 비행기 바퀴의 문제를 생각해 보자. 우선 이륙하기 위하여 비행기는 바퀴로 ③활주로를 달린다. 비행기가 완전히 이륙하면 바퀴를 동체에 접어 넣어 비행 중에 공기의 저항을 받지 않도록 함으로써 이 문제는 해결된다.

그렇다면 이러한 기술적 모순과 물리적 모순을 누구나 쉽게 알아내고 쉽게 풀어낼 수 있을까? 안타깝지만 그렇게 하려면 상당한 훈련과 경험이 있어야 한다. 현장에서 기술자가 우선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것은 대부분 기술적 모순이다. 그런데 기술적 모순을 면밀히 분석해 보면 물리적 모순이 문제의 핵심에 자리 잡고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기술적 모순의 해결도 의미가 있지만 바탕에 깔린 물리적 모순을 찾아내서 해결하는 것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⑥ 길이다.

37. 윗글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이 아닌 것은?

- ① 문제 상황을 물리적 모순의 관계로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다.
- ② 트리즈에는 기술적 모순을 해결하는 데 유용한 여러 개의 원리가 있다.
- ③ 기술적 모순과 물리적 모순은 하나의 문제 상황 속에 공존하는 경우가 많다.
- ④ 물리적 모순은 사물의 상태를 시간차를 두고 변화시킴으로써 해결되기도 한다.
- ⑤ 기술적 모순은 주로 복잡한 기계에서 발생하지만 물리적 모순은 그렇지 않다.

38. [A]를 읽고 <보기>와 같이 추론했다고 할 때,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속도의 향상에는 []가 서로 충돌한다.

- ① 엔진 크기라는 변수와 엔진 무게라는 변수
- ② 엔진 출력이라는 변수와 엔진 무게라는 변수
- ③ 엔진 크기라는 변수와 비행기 무게라는 변수
- ④ 엔진 무게라는 변수와 비행기 속도라는 변수
- ⑤ 엔진 출력이라는 변수와 비행기 속도라는 변수

39. ㉠, ㉡을 적용한 결과로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 | | |
|-------------|-----------|
| ㉠ | ㉡ |
| ① 무게의 감소 | 바퀴의 제거 |
| ② 무게의 감소 | 공기 저항의 감소 |
| ③ 무게의 감소 | 엔진 출력의 향상 |
| ④ 엔진 출력의 향상 | 바퀴의 제거 |
| ⑤ 엔진 출력의 향상 | 공기 저항의 감소 |

40. 윗글을 근거로 하여 만든, 발명 동아리 회원 모집의 홍보 문구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발명은 모순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트리즈로 발명왕, 특허왕에 도전하세요.
- ② 발명은 경험을 필요로 합니다. 트리즈 동아리에서 다양한 경험을 해 보세요.
- ③ 발명은 모순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과학에 관심 있는 신입생은 특별히 환영합니다.
- ④ 발명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기업들의 끝없는 스카웃 행렬, 트리즈 동아리만의 자랑입니다.
- ⑤ 발명은 성공의 열쇠입니다. 전국 대회에서 3년 연속 수상한 트리즈 동아리가 새내기를 기다립니다.

41. ㉠, ㉡의 관계는 <보기>와 같다. 밑줄 친 단어들이 ㉠, ㉡와 같은 관계를 갖고 있는 것은?

<보 기>

㉠는 어떤 단어 W의 하위어이고, ㉡는 어떤 단어 W의 의미가 추상화된 것이다.

- ① [동해를 지나가는 배
고요하고 잔잔한 바다
- ② [손가락도 까딱하기 싫어.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아.
- ③ [해바라기를 옮겨 심었다.
성실은 성공의 씨앗이다.
- ④ [어젯밤 악몽에 시달렸어.
내 꿈은 과학자가 되는 거야.
- ⑤ [오늘은 날풍이 불겠습니다.
나의 바람은 평화롭게 사는 거야.

[42~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006.06

(가) 최근 미국의 한 대학 총장이 “여성은 선천적으로 수학과 과학 능력이 떨어진다.”라고 발언했다가 거센 반발을 샀다. 이처럼 일부 사람들은 아직도 남녀 사이의 특성 차이를 거론한다. 지능 지수의 평균 점수는 차이가 없지만, 검사 결과를 유형별로 분석해 보면 의미 있는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그들은 여성은 언어적 능력에서, 남성은 수학적 능력과 공간 지각 능력에서 우수하다는 증거들을 제시한다. 그리고 지적인 능력은 아니지만 공격성이라는 특성에서도 성차(性差)가 나타난다고 생각한다.

(나) 남녀 간에 성차가 존재한다고 보는 이들은 그 원인을 환경적 요인이나 유전적 요인으로 설명한다. 유전적 설명에서는 남녀가 몇 가지 특성에서 차이를 보이는 것은 유전적인 요인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반면에 환경적 설명에서는 성차가 사회적·교육적 환경 때문에 생긴다고 주장하면서 유전적인 설명 자체에 강하게 반발한다.

(다) 그러나 적어도 평등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성차에 대한 유전적 설명이 옳은가 환경적 설명이 옳은가를 따지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그 대신 이런 설명들이 평등이라는 이상에 대하여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냐가 중요한 문제이다. 만약 유전적 설명이 그런 것으로 드러난다면 성차에 근거한 차별은 부당하다고 볼 수 있다. 반면에 유전적 설명이 옳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남녀 간의 차별을 옹호하고 평등의 원칙을 거부하는 근거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물론 유전적 설명이 옳다고 가정한다고 해서 그것이 사실이라고 믿는 것은 아니다. 유전적 설명이 차별을 정당화한다는 이유로 그 시도 자체에 반대할 경우, 뜻밖에도 유전적 증거들이 확인된다면 아주 당황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유전적 설명이 옳다고 가정해서 그 의미를 검토해 보는 것이다.

(라) 성차의 원인이 무엇이든 간에 차이는 오직 평균적으로 존재할 뿐이다. 남성의 공간 지각 능력의 우월성을 설명하기 위해 제시된 유전적 가설까지도 여성의 $\frac{1}{4}$ 이 남성의 절반보다 공간 지각 능력이 더 뛰어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실제로 주변에서 남성보다 공간 지각 능력이 뛰어난 여성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그러므로 유전적 설명이 맞든 안 맞든 간에, 너는 여자니까 엔지니어가 될 수 없다든지 너는 남자니까 야구를 돌볼 수 없다든지 하는 단정을 해서는 안 된다.

(마) 우리가 사람들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들을 ‘남성’이나 ‘여성’이라고 한 덩어리로 뭉뚱그려서는 안 된다. ㉠우리는 그들 각각을 하나의 개별체로 보고 접근해야 한다. 성차가 유전적으로 존재한다는 과학적인 근거가 입증된다고 해도 그렇다. 하물며 단순히 편견에 의존해서 집단 간에 차이를 부여하는 경우는 더 말할 나위가 없다.

42. 윗글은 어떤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볼 수 있는가?

- ① 성별에 따른 차이가 과연 존재하는가?
- ② 성별에 따른 차이의 원인은 무엇인가?
- ③ 성별에 따른 차별이 옹호될 수 있는가?
- ④ 성별에 따른 차별의 과학적 근거는 무엇인가?
- ⑤ 성별에 따른 차별은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가?

43. (가)~(마)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 인용을 통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 ② (나): 문제에 대한 대립적인 두 견해를 소개하고 있다.
- ③ (다): 문제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 ④ (라): 반대 사례들을 제시하면서 논지를 전환하고 있다.
- ⑤ (마): 주장을 요약하면서 논지를 강화하고 있다.

44. ㉠의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개개인의 인격을 동등하게 존중해야 한다.
- ②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 ③ 소속 집단보다는 개인에 따라 사람을 판단해야 한다.
- ④ 사람이 어느 한 집단에만 속한다고 보아서는 안 된다.
- ⑤ 집단은 개별체가 모여 이루어진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45. <보기>의 문맥을 고려할 때, ㉡~㉣에 적합한 말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보 기>—

○ 이 문제는 아직까지 (㉡)이 되지 않았던 것이다.
 ○ 어떤 학설이든 (㉢)이 되기 전에는 정설이라고 할 수 없다.
 ○ 이 작품은 어려워서 (㉣)을 듣지 않고는 이해하기가 어렵다.
 ○ 모두 자신이 옳다는 (㉣)을 굽히지 않아서 합의 하기가 어렵다.

- | | | | | |
|---|----|----|----|----|
| | ㉡ | ㉢ | ㉣ | ㉣ |
| ① | 거론 | 설명 | 입증 | 주장 |
| ② | 거론 | 입증 | 설명 | 주장 |
| ③ | 입증 | 주장 | 설명 | 거론 |
| ④ | 주장 | 설명 | 거론 | 입증 |
| ⑤ | 주장 | 입증 | 거론 | 설명 |

MEMO

MEMO

[51~5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06.06

과학적 지식은 어떻게 생성될까? 이에 대한 설명은 과학 철학적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 중 하나가 경험적 검증 가능성에 의해 과학적 진술의 의미를 평가하는 논리 실증주의적 관점이다. 언어의 회귀에 대한 연구 과정을 통해 과학적 지식의 생성 과정을 논리 실증주의적 관점에서 살펴보기로 하자.

과학자들은 언어가 어떻게 태어난 곳으로 돌아오는지 알고 싶었다. 인디언들은 초자연적인 힘에 의해 언어가 회귀한다고 믿고 있었는데, 과학자들은 이러한 설명이 경험적으로 검증될 수 없기 때문에 과학적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다. 과학자들은 시각 가설, 지구 자기장 가설, 후각 가설과 같은 설명 방법을 생각해 냈다.

시각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과학자들은 미국 북서부 지역의 두 하천인 이사과와 포크에 도착한 언어들을 각각 잡아 표시 하였다. 그런 다음 잡은 언어들을 두 집단으로 나누어, 한 집단은 눈을 가리고 다른 집단은 눈을 가리지 않은 채 두 하천이 만나는 지점보다 하류인 담수에 방류하였다. 실험 결과, 포획된 곳으로 돌아오는 언어의 수는 두 집단 간에 별로 차이가 없었다.

과학자들은 비둘기가 지구 자기장을 이용하여 집을 찾는다는 것에 착안하여, 언어도 지구 자기장을 이용한다는 가설을 생각 하였다. 그러나 실험 결과는 지구 자기장 가설을 지지해 주지 않았다.

과학자들은 뱀장어 연구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후각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시각 가설을 검증한 곳에서 같은 방법으로 실험 하였다. 두 하천에서 언어를 잡아, 한 집단은 코마개를 하고 다른 집단은 코마개를 하지 않았다. 이 언어들을 방류한 후, 산란을 위해 담수를 거슬러 오르는 언어들을 처음 포획한 곳에서 재포획하였다. 그들은 코마개의 유무와 처음 포획한 장소에 따라 재포획된 언어들을 분류하였다. 과학자들은 연역된 결과와 이들을 비교한 뒤, 통계적으로 가설이 지지된다는 사실을 알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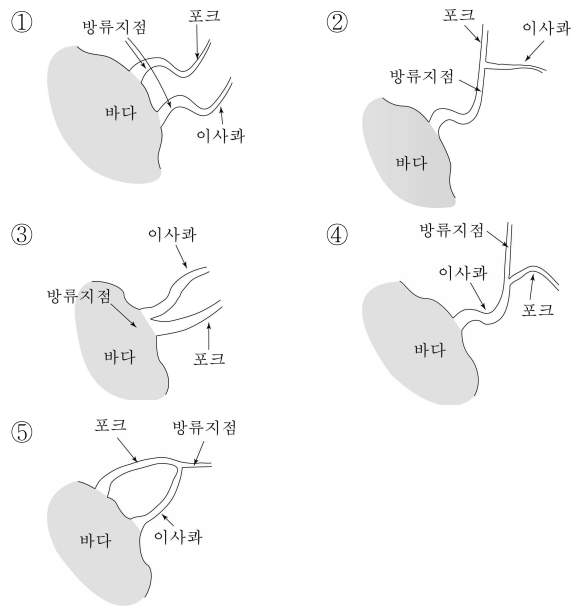
많은 과학자들은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새로운 지식을 생성 한다. 먼저 ㉠ 현재의 지식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의문스러운 현상에 직면한다. 의문은 설명하려는 욕구를 불러일으킨다. 그리고 ㉡ 현재의 상황과 유사한 사전 지식에 기초하여 잠정적 설명을 창안한다. 그 후, ㉢ 잠정적 설명에 대한 검증 방법을 생각해 낸다. 그리고 ㉣ 자료를 수집하고 ㉤ 이것을 잠정적 설명들로부터 연역된 결과들과 비교한다. 만일 가설이 지지 되지 않는다면 이 과정을 순환적으로 반복하며, 새로운 과학적 지식은 이러한 순환적 과정의 결과로 생성된다. 이때 가설은 실험과 관찰에 의해 검증되므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논리 실증주의자들이 과학과 비과학을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검증 가능성을 설정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51. 윗글의 내용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것은?

- ① 과학적 지식의 생성 과정에 대한 일치된 견해는 없다.
- ② 배경 지식은 과학적 가설 생성 과정에서 중요하지 않다.
- ③ 과학적 방법을 사용하는 목적은 과학적 지식의 생성이다.
- ④ 현상에 대한 과학자들의 의문은 과학적 탐구의 동기를 유발한다.
- ⑤ 과학자들은 가설이 지지될 때까지 새로운 가설을 생성하고 검증하는 과정을 반복한다.

52. 윗글에서 언어의 회귀 방법에 대한 실험을 수행한 지역을 바르게 나타낸 것은?



53. **논리 실증주의자**가 <보기>의 글을 읽고 ‘○○ 이론’을 평가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보 기>

○○ 이론은 우주와 자연의 궁극적 원리를 밝히려는 이론이다. 다수의 뛰어난 과학자들이 ○○ 이론에 몰두하고 있지만 아직 단 하나의 검증과 가능한 예측도 내놓지 못하고 있으며, 가까운 미래에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지 않다.

- ① 과학자가 이론으로 주장하였으므로 과학적 이론이다.
- ② 틀렸다는 증거를 제시할 수 있으므로 비과학적 이론이다.
- ③ 다수의 뛰어난 과학자들이 믿고 있으므로 과학적 이론이다.
- ④ 향후 밝혀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과학적 이론이다.
- ⑤ 실험과 관찰을 통해 참과 거짓을 가릴 수 없으므로 비과학적 이론이다.

54. 연어의 회귀에 대한 과학자들의 모든 연구 과정을 녹화한 후, '후각 가설'을 검증하는 과정을 편집한다고 할 때, ㉠~㉤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핵심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 연어가 회귀하는 이유를 초자연적인 힘으로 설명하는 인디언들의 사고방식과 문화적 배경에 대한 취재 내용
- ② ㉡: 뱀장어가 매우 낮은 농도의 무기물을 후각으로 탐지한다는 논문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후각 가설을 만들었다는 과학자의 설명
- ③ ㉢: 시각 가설을 검증한 방법에서 눈을 가리는 데 착안하여, 연어에게 코마개를 부착하고 같은 장소에서 조사하면 검증할 수 있을 것이라고 과학자가 설명하는 내용
- ④ ㉣: 과학자들이 실험 계획에 따라 두 하천에서 회귀하는 연어를 잡아 표시하여 방류한 후, 재포획하는 과정을 시간 순서에 따라 녹화한 내용
- ⑤ ㉤: 과학자가 연어를 재포획하면서 얻은 실험 결과를 예상된 결과와 비교하면서, 실험 결과의 의미를 설명하는 내용

[24~2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05.11

지구상에서는 매년 약 10만 명 중의 한 명이 목에 걸린 음식물 때문에 질식사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인간의 호흡 기관 [기도]와 소화 기관[식도]이 목구멍 부위에서 교차하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발생한다. 인간과 달리, 곤충이나 연체동물 같은 무척추동물은 교차 구조가 아니어서 음식물로 인한 질식의 위험이 없다. 인간의 호흡 기관이 이렇게 불합리한 구조를 갖게 된 원인은 무엇일까?

바다 속에 서식했던 척추동물의 조상형 동물들은 체와 같은 구조를 이용하여 물 속의 미생물을 걸러 먹었다. 이들은 몸집이 아주 작아서 물 속에 녹아 있는 산소가 몸 깊숙한 곳까지 자유로이 넘나들 수 있었기 때문에 별도의 호흡계가 필요하지 않았다. 그런데 몸집이 커지면서 먹이를 거르던 체와 같은 구조가 호흡 기능까지 갖게 되어 마침내 아가미 형태로 변형되었다. 즉, 소화계의 일부가 호흡 기능을 담당하게 된 것이다. 그 후 호흡계의 일부가 변형되어 허파로 발달하고, 그 허파는 위장으로 이어지는 식도 아래쪽으로 뻗어 나갔다. 한편, 공기가 드나드는 통로는 콧구멍에서 입천장을 뚫고 들어가 입과 아가미 사이에 자리 잡게 되었다. 이러한 진화 과정을 보여 주는 것이 폐어(肺魚) 단계의 호흡계 구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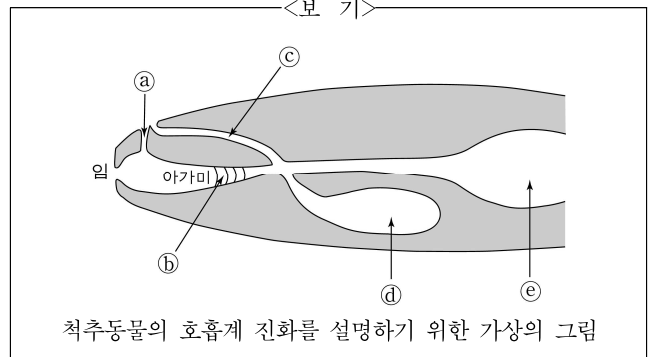
이후 진화 과정이 거듭되면서 호흡계와 소화계가 접하는 지점이 콧구멍 바로 아래로부터 목 깊숙한 곳으로 이동하였다. 그 결과 머리와 목구멍의 구조가 변형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호흡계와 소화계가 점차 분리되었다. 즉, 처음에는 길게 이어져 있던 호흡계와 소화계의 겹친 부위가 점차 짧아졌고, 마침내 하나의 교차점으로만 남게 된 것이다. 이것이 인간을 포함한 고등 척추동물에서 볼 수 있는 호흡계의 기본 구조이다. 따라서 음식물로 인한 인간의 질식 현상은 척추동물 조상형 단계를 지나 자리 잡게 된 허파의 위치 — 당시에는 최선의 선택이었을 — 때문에 생겨난 진화의 결과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진화는 반드시 이상적이고 완벽한 구조를 창출해 내는 방향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진화 과정에서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최선의 구조가 선택되지만, 그 구조는 기존의 구조를 허물고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 낸 최상의 구조와는 차이가 있다. 그래서 진화는 ㉠불가피하게 타협적인 구조를 선택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며, 순간순간의 필요에 대응한 결과가 축적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질식의 원인이 되는 교차된 기도와 식도의 경우처럼, 진화의 산물이 우리가 보기에는 납득할 수 없는 불합리한 구조를 지니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24. 윗글에서 글쓴이가 다룬 핵심 문제로 알맞은 것은?

- ① 인간이 진화 과정을 통하여 얻은 이익과 손해는 무엇일까?
- ② 무척추동물과 척추동물의 호흡계 구조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 ③ 인간의 호흡계와 소화계가 지니고 있는 근본적인 결함은 무엇일까?
- ④ 질식사에 대한 인간의 불안감을 해소시킬 방안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 ⑤ 진화 과정에서 인간의 호흡계와 같은 불합리한 구조가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25. 윗글에 따라, '폐어 단계'에서 관찰할 수 있는 호흡계 구조를 <보기>에서 찾아 바르게 묶은 것은?



- ① a, b, c ② a, b, d ③ b, d, e
- ④ a, b, c, d ⑤ a, c, d, e

26. ㉠과 같은 방식으로 설명하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상충하는 이익을 고려하여 그때그때 법률을 개정해 나가는 것
- ② 초보 운동 선수가 훈련을 통하여 숙련된 프로 선수가 되는 것
- ③ 두통약으로 개발된 아스피린이 혈전 용해제로도 쓰이는 것
- ④ 조금씩 조금씩 저축을 하여 나중에는 큰돈을 모으는 것
- ⑤ 단순한 기본 곡조를 가지고 복잡한 교향곡을 만드는 것

27. 윗글의 내용을 잘못 이해한 것은?

- ① 곤충이나 연체동물은 음식물로 인한 질식은 없겠군.
- ② 인간은 진화 단계의 최정점에 있는 동물답게 호흡계 구조가 이상적이군.
- ③ 진화가 항상 완전한 구조를 만들어 내는 방향으로만 진행되는 것은 아니군.
- ④ 몸집이 점점 커지면서 체내의 원활한 산소 공급을 위해 호흡계의 발달이 필요했겠군.
- ⑤ 이미 만들어진 구조를 바탕으로 하여 진화한다는 것이 때로는 제약 조건이 되기도 하겠군.

[28~3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05.11

「뉴욕 타임스」와 「워싱턴 포스트」를 비롯한 미국의 많은 신문은 선거 과정에서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표명한다. 전통적으로 이 신문들은 후보의 정치적 신념, 소속 정당, 정책을 분석하여 자신의 입장과 같거나 그것에 근접한 후보를 선택하여 지지해 왔다. 그러나 근래 들어 이 전통은 적잖은 ㉠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신문이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것이 실제로 영향력이 있는지, 또는 공정한 보도를 사명으로 하는 신문이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행위가 과연 바람직하지 등과 관련하여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신문의 특정 후보 지지가 유권자의 표심(票心)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강하지 않다는 것이 학계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1958년 뉴욕 주지사 선거에서 「뉴욕 포스트」가 록펠러 후보를 지지해 그의 당선에 기여한 유명한 일화가 있긴 하지만, 지지 선언의 영향력은 해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이 현상은 '선별 효과 이론'과 '보강 효과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

선별 효과 이론에 따르면, 개인은 미디어 메시지에 선택적으로 노출되고, 그것을 선택적으로 인지하며, 선택적으로 기억한다. 예를 들면, '가' 후보를 싫어하는 사람은 '가' 후보의 메시지에 노출되는 것을 꺼려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부정적으로 인지하고, 그것의 부정적인 면만을 기억하는 경향이 있다. 한편 보강 효과 이론에 따르면, 미디어 메시지는

[A] 개인의 태도나 의견의 변화로 이어지지 못하고, 기존의 태도와 의견을 보강하는 차원에 머무른다. 가령 '가' 후보의 정치 메시지는 '가' 후보를 좋아하는 사람에게서는 긍정적인 태도를 강화시키지만, 그를 싫어하는 사람에게서는 부정적인 태도를 강화시킨다. 이 두 이론을 종합해 보면, 신문의 후보 지지 선언이 유권자의 후보 선택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신문의 후보 지지 선언이 과연 바람직한가에 대한 논쟁도 계속되고 있다. 후보 지지 선언이 언론의 공정성을 ㉡ 훼손할 수 있다는 것이 이 논쟁의 핵심 내용이다. 이런 논쟁이 일어나는 이유는 신문의 특정 후보 지지가 언론의 권력을 강화하는 도구로 이용될 뿐만 아니라, 수많은 쟁점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선거에서는 후보에 대한 독자의 판단을 선점하려는 비민주적인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부 정치 세력이 신문의 후보 지지 선언을 정치 선전에 이용하는 문제점 또한 이에 대한 비판의 근거로 제시되고 있다.

신문이 특정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것은 사회적 가치에 대한 신문의 입장을 분명히 드러내는 행위이다. 하지만 그로 인해 보도의 공정성을 ㉢ 담보하는 데에 어려움이 따를 수도 있다. 따라서 신문은 지지 후보의 ㉣ 표명이 보도의 공정성을 해치지 않는지 신중하게 따져 보아야 하며, 독자 역시 지지 선언의 ㉤ 함의를 분별할 수 있는 ㉥ 혜안을 길러야 할 것이다.

28. 윗글로부터 알 수 있는 사실이 아닌 것은?

- ① 보강 효과 이론은 개인의 태도와 관련이 있다.
- ② 선별 효과 이론은 개인의 인지 작용과 관련이 있다.
- ③ 신문의 특정 후보 지지 문제는 보도의 공정성 문제로 이어진다.
- ④ 신문의 후보 지지 선언이 선거 결과와 항상 관련 없는 것은 아니었다.
- ⑤ 신문은 후보의 정치적 성향과 유권자의 표심을 분석하여 지지 후보를 선택한다.

29. 윗글의 논지 전개 방식을 바르게 묶은 것은?

<보 기>

ㄱ. 사례를 든 후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
 ㄴ. 이론을 활용하여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ㄷ. 상반된 두 주장을 비판하고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ㄹ. 통념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새로운 이론을 주장하고 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 ④ ㄴ, ㄹ ⑤ ㄷ, ㄹ

30. 윗글에 따를 때, ㉠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정치 세력의 신문 지배 ② 후보에 대한 판단의 선점
- ③ 정치 선전의 도구화 ④ 후보 지지 선언의 영향력
- ⑤ 언론 권력의 강화

31. [A]에서 제시한 이론들을 적용할 수 있는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조카가 원래 좀 거친 편인데 폭력 영화를 보더니 더 거칠어 졌어.
- ② 언론이 야간 범죄의 위험성을 보도하니 아무도 문밖으로 나오지 않더라.
- ③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은 드라마에서 악역을 맡아도 역시 멋있기만 하더라.
- ④ 나는 '가' 후보를 지지하는데, 텔레비전 토론을 보니 역시 '가' 후보가 설득력 있게 잘 하더라.
- ⑤ 아내가 나한테 금연 광고를 보여 주면서 담배를 끊으라고 하는데, 90세가 넘으신 우리 할머니는 하루에 두 갑을 피우면서도 아직 정정하셔.

32. ㉡~㉤의 사전적 뜻풀이로 바르지 않은 것은?

- ① ㉡: 체면이나 명예를 손상함.
- ② ㉢: 억지로 또는 강제로 요구함.
- ③ ㉣: 의사나 태도를 분명하게 드러냄.
- ④ ㉤: 말이나 글 속에 들어 있는 뜻.
- ⑤ ㉥: 사물을 꿰뚫어 보는 안목과 식견.

[33~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005.11

산업 기술은 적은 비용으로 더 많은 생산이 가능하도록 제조 공정의 효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다. 이러한 기술 발전은 제조 공정의 일부를 서로 결합함으로써 대폭적인 비용 절감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 혁신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17세기에는 유럽 귀족들의 사치품이었지만 오늘날에는 온갖 진열장에서 고층 건물의 외장재에 이르기까지 널리 사용되는 판유리의 경우가 그 좋은 예이다.

초창기 판유리의 제조 공정은 '원료 배합→용융→성형→서랭*→연마→광택'의 과정을 거쳤다. 이 제조 방법은 각 공정이 서로 분리되어 있었을 뿐 아니라 숙련공 의존도가 매우 높았기 때문에 생산 비용 또한 높을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1880년경 탱크가마 기술이 개발됨으로써 판유리 제조 공정에 일대 혁신이 일어났다. 판유리 제조에서 최초의 기술 혁신으로 손꼽히는 이 기술은 한 쪽에서 판유리의 원료를 주입하면 다른 쪽으로 액체 유리가 나와 주형(鑄型)으로 가도록 탱크가마를 설계함으로써, 원료 배합과 용융을 ① 하나의 공정으로 묶어 버렸다. 그 결과 생산성은 두 배로 향상되었고, 숙련공 의존도도 그만큼 감소하였다.

1959년경에 또 한 번의 도약이 있었는데, 필킹턴이라는 유리 제조 업체가 개발한 플로트 공정이 그것이다. ② 이 공정에서는 탱크가마에서 나온 녹은 유리가 곧바로 주석 욕탕 위를 지나도록 만들었다. 그리고 주석 욕탕 위를 통과하는 녹은 유리는 판유리 모양으로 성형되면서 점점 앞으로 나아가, 서랭 터널 속에서 물리에 의하여 운반되어 절단되기 전의 상태로 배출된다. 주석 욕탕 덕분에 연마나 광택 과정이 필요 없어진 이 혁신적인 공정에서는 원료 배합 및 용융, 성형, 서랭의 세 단계가 연속적인 하나의 공정이 되었다. 그 결과 생산성이 현저히 증가하면서, 생산 라인의 길이를 절반 이상 줄일 수 있었고, 노동 비용의 80%, 에너지 비용의 50%를 절감할 수 있었다.

하지만 기술 혁신을 통한 생산성 향상 시도가 곧바로 수익성 증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기술 혁신 과정에서 비용이 급격히 증가하거나 생각지도 못한 위험이 수반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 만약 필킹턴 사 경영진이 [A] 플로트 공정의 총개발비를 사전에 알았다라면 기술 혁신을 시도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필킹턴 경(卿)의 회고는 이를 잘 보여 준다. 필킹턴 사는 플로트 공정의 즉각적인 활용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엄청난 투자 때문에 무려 12년 동안 손익 분기점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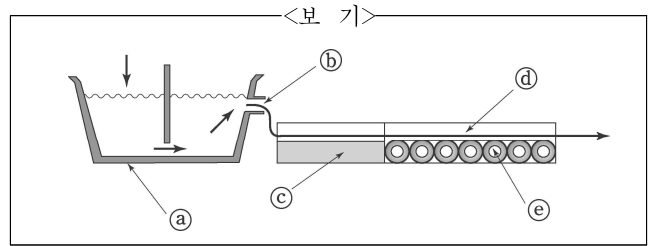
이와 같이 기술 혁신의 과정은 과도한 비용 지출이나 실패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험난한 길이기도 하다. 그렇지만 그러한 위험을 감수하면서 기술 혁신에 도전했던 기업가와 기술자의 노력 덕분에 산업의 생산성은 지속적으로 향상되었고, 지금 우리는 그 혜택을 누리고 있다. 우리가 ㉠ 기술 혁신의 역사를 돌아보고 그 의미를 되짚는 이유는, 그러한 위험 요인들을 예측하고 적절히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자만이 앞으로 다가올 기술 혁신을 주도할 수 있으리라는 믿음 때문이다.

* 서랭(徐冷): 서서히 냉각시킴.

33.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기기를 예로 들어 ㉠을 설명하려고 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비로 쓸고 쓰레받기로 담는 일을 진공 청소기로 한꺼번에 처리한다.
- ② 물을 뿌린 뒤에 옷을 다리는 일을 스팀 다리미로 한꺼번에 처리한다.
- ③ 벼를 베고 탈곡하여 자루에 담는 일을 콤바인으로 한꺼번에 처리한다.
- ④ 작은 트럭으로 여러 번 옮겨야 할 일을 큰 트럭으로 한꺼번에 처리한다.
- ⑤ 밀가루를 반죽하고 발효하고 빵을 굽는 일을 자동 제빵기로 한꺼번에 처리한다.

34. <보기>는 ㉡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주석 욕탕'에 해당 하는 부분은?



- ① a ② b ③ c ④ d ⑤ e

35. [A]로 미루어 알 수 없는 것은?

- ① 플로트 공정 활용이 곧바로 수익성 증가로 이어지지 않은 것은 과도한 투자비 때문이다.
- ② 플로트 공정이 개발되자 필킹턴 사는 곧바로 기존의 공정을 플로트 공정으로 교체했다.
- ③ 필킹턴 사는 플로트 공정 개발비를 회수하는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릴 줄 미처 예상하지 못했다.
- ④ 기술 혁신 비용에 관한 정확한 정보가 있었다면 필킹턴 사는 아마 플로트 공정 개발에 착수하지 않았을 것이다.
- ⑤ 필킹턴 사가 아니더라도 새로운 유리 제조 공정의 필요성을 알고 있었던 누군가가 플로트 공정을 개발했을 것이다.

36. ㉢과 가장 관련이 깊은 것은?

- ① 온고지신(溫故知新) ② 다다익선(多多益善)
- ③ 연목구어(緣木求魚) ④ 일거양득(一舉兩得)
- ⑤ 동상이몽(同床異夢)

MEMO

MEMO

[44~4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005.11

문자는 사물이나 자연 현상을 그림으로 나타내는 그림 문자에서 시작되었다고 한다. 그림 문자를 추상화하고 모양을 간략하게 한 것이 한자와 같은 표의 문자이다. 표의 문자는 하나의 개념을 하나의 글자로 표시해야 했기 때문에 점점 수가 늘어나 기억하기가 불편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표의 문자보다 글자 수가 훨씬 적으며, 글자를 의미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발음 표시 기호로 사용하는 표음 문자가 만들어졌다. 이 표음 문자는 음절 전체를 하나의 글자로 나타낸 음절 문자와, 더 나아가 자음과 모음 각각을 글자로 나타낸 음운 문자로 다시 나뉜다. 우리에게 익숙한 문자 중에서 음절 문자에는 일본의 가나가, 음운 문자에는 영어 알파벳이 있다.

한글은 문자 발달사의 마지막 단계인 음운 문자에 속한다. 그런데 한글은 발음 기관을 본떠서 만든 점, 가획을 통해 소리를 자형(字形)과 관련시키고 있는 점 등 매우 독특한 특성들을 가지고 있다. 이런 특성들 중 특별히 자형이 음운 자질을 반영한다는 점에 주목하여, ㉠ 음운 문자와는 별도로 '자질 문자'를 설정하고 한글을 여기에 귀속시키기도 한다. 즉, 발음 위치가 같은 쌍인 'ㄱ, ㅋ'과 'ㄷ, ㅌ'에서 추가된 획은 '거셉'이라는 자질을 나타내므로 한글을 자질 문자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자질 문자'란 명칭은 자질 자체를 글자로 만든 것에 붙여야 한다. 다시 말해, '거셉'이라는 자질이 자형에 반영되기만 해서 안 되고, 이 자질이 하나의 독립된 글자로 나타나야 한다. 이런 점에서 볼 때, 한글을 완전한 의미의 자질 문자로 보기는 어렵다.

문자 발달사의 단계가 반드시 문자의 우수성의 정도와 일치하는 것은 아니므로 한글이 자질 문자가 아니라는 것에 대해 아쉬워할 필요는 없다. 사실 각 문자 부류는 서로 다른 장점을 가지고 있다. 표의 문자는 음성을 매개로 하지 않고 직접 생각을 전달하는 것이 쉽다는 장점을, 음절 문자는 실제 말소리의 단위인 음절을 반영하고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음운 문자는 적은 수의 글자로 문자 생활을 하게 한다는 점에서 매우 효율적이며, 더욱이 한글처럼 자질 문자의 특성까지 가지고 있으면 자형끼리의 유사성에 의해 쉽게 배울 수 있다는 장점까지 추가로 가지게 된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한글이 몇 가지 문자 부류의 장점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하나의 문자가 서로 다른 문자 부류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예는 흔히 발견된다. 한자는 표의 문자이지만, '印度, 伊太利[나라 이름]'처럼 외국어 고유 명사를 표기할 때에는 주로 글자의 음을 이용하므로 문자 운용의 관점에서 보면 음절 문자의 특성도 가지고 있다. 한글은 음운 문자이면서 자질 문자의 특성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자음과 모음을 한 글자로 모아 씌으로써 문자 운용의 관점에서 보면 음절 문자의 특성까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한글은 문자 발달사의 각 단계 문자 부류들이 보여 주는 장점들을 다른 문자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문자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음운 문자이므로 효율적이고, 자질 문자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 배우기가 쉬울 뿐 아니라, 모아쓰기를 함으로써 음절 문자의 장점도 취하고 있는 것이다.

44.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표음 문자는 그림 문자보다 발달된 문자다.
- ② 음절 문자는 음운 문자보다 글자 수가 적다.
- ③ 한글은 몇 가지 문자 부류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
- ④ 한자는 외국어 고유 명사를 표기할 때 주로 글자의 음을 이용한다.
- ⑤ 문자 발달사 단계와 문자의 우수성 정도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45. 한자와 한글을 대비하기 위하여 윗글을 <보기>와 같이 정리할 때, ㄱ~ㄷ에 들어갈 말은?

<보 기>

비교 항목	한자	한글
문자 분류	표의 문자	표음 문자 (음운 문자)
자형에 반영된 특성	언급 없음	(ㄱ)
문자 운용에 이용된 특성	(ㄴ)	(ㄷ)

- | | | | |
|---|-------|-------|-------|
| | ㄱ | ㄴ | ㄷ |
| ① | 자질 문자 | 음운 문자 | 음절 문자 |
| ② | 음절 문자 | 음운 문자 | 자질 문자 |
| ③ | 자질 문자 | 음절 문자 | 음절 문자 |
| ④ | 음운 문자 | 자질 문자 | 음절 문자 |
| ⑤ | 자질 문자 | 음운 문자 | 음운 문자 |

46. <보기>는 ㉠과 같이 한글을 자질 문자로 분류하는 과정에서 제기했음직한 의문을 단계별로 정리한 것이다. 각각의 의문에 대한 답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한글은 다른 문자와 비교할 때 어떤 점이 특이한가?	음, 자세히 살펴보니, ‘ㄱ’과 ... ‘ㅋ’, ‘ㆁ’과 ‘ㄷ’처럼 서로 닮은 글자들이 많이 있네. ㉠
↓	
자형이 소리의 특성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	‘ㄱ → ㅋ’처럼 원래의 글자에 획을 더해서 만든 글자는 원래 글자와 소리는 조금 다르지만 발음 위치가 같군. ㉡
↓	
가획이 음운보다 더 작은 단위인 자질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음, 그리고 보니 가획이 ... ‘거셈’과 같은 음운 자질의 차이를 반영하고 있네. ㉢
↓	
다른 문자 중에서 자형이 자질의 차이를 체계적으로 반영하는 경우가 있을까?	‘木’과 ‘林’, ‘日’과 ‘目’을 보니, 한자도 글자 모양의 차이가 자질의 차이를 반영하는구나. ㉣
↓	
자형이 자질을 반영하는 문자를 따로 부르는 이름이 필요한가?	결국 문자들의 차이를 잘 구별해 주려면 별도의 이름이 있는 것이 좋겠어. ㉤

- ① ㉠ ② ㉡ ③ ㉢ ④ ㉣ ⑤ ㉤

47. <보기>의 조건에 따라 새로운 문자를 만들어, [도토리]라는 발음을 적어 보았다. 알맞은 것은?

<보 기>

- 음운 문자이면서 자질 문자의 특성을 가지게 할 것.
- 모아쓰기를 할 것.

- ① □ □ △ ② □ ◇ ◇
- ③ □ □ △ ④ □ □ △
- × × × × × ×
- ⑤ □ ⊖ △ ⑥ □ ⊖ △
- × × × × × ×

[48~5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005.11

“천운 우습 깊은 밤에 모진 광풍이 일어나 바람은 우루루루 루루루 쉼…….”

「춘향가」 가운데 춘향이 갇혀 있는 옥방(獄房)의 광경을 묘사한 ‘옥중가’의 한 대목이다. 이 ㉠ 소리를 듣고 바람이 천장을 휘몰아쳐 마룻바닥을 스쳐 가는 음산한 옥방의 분위기가 느껴져 청중이 공감하게 되었다면, 창자(唱者)는 이 대목의 ‘이면’을 잘 그렸다는 말을 듣게 된다.

그렇다면 ‘이면을 그린다’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 ‘그린다’는 말은 소리를 매개로 이루어지는 창자의 음악 행위를 나타내므로, 이면은 당연히 음악 행위에 의해 구현된 그 무엇에 해당한다. 창자는 ㉢ 소리를 통해 사실의 내용인 옥방의 광경을 묘사했으나, 이면이란 사실 내용을 의미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면을 이렇게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옥방의 광경을 제대로 묘사 하려면 그 음산하고 비감한 분위기, 거기에 내재되어 있는 본질적 의미까지도 있는 그대로 표현해야 한다. 이면을 잘 파악한 후 성음[음색], 조[음계], 장단 등을 복잡하게 선택하고 구성하여 사실 내용을 실감 나게 ㉡ 소리를 해야 이면에 맞는다는 평을 들을 수 있으니, 이면에 맞게 잘 그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면 찾다가 소리 못한다.”라는 말이 괜한 ㉣ 소리가 아니다.

사실 내용 그대로를 음악으로 표현해야만 이면을 그렸다고 생각하는 경우, 음악적 표현에 제약이 있을 수 있다. 만일 사실 내용에 대한 해석이 어떤 ‘권위’에 의해 고정되어 있다면, 이면을 그리는 일이란 이미 고정되어 있는 해석을 음악적으로 반복하는 것이 된다. 창자가 음악적 구성을 새롭게 변화시키면 “이면에 맞지 않는다.”라는 비판을 받게 된다. 판소리 유파나 계보의 음악적 특성을 의미하는 ‘제나 ‘바디’가 전승될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생각 때문에 가능했다.

그렇다면 사실 내용에 대한 해석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할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이 경우 이면을 그린다는 말에는 창자의 주체적 해석을 허용하는 의미도 포함된다. 따라서 창자는 사실 내용을 자신의 관점으로 해석하여 기존의 음악적 구성을 새롭게 변화시키려는 노력을 포기하지 않아도 된다. 판소리 전승상에 없던 독창적인 창법을 의미하는 ‘더늠’이 계속 만들어질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생각과 관련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은 자칫 자신의 미숙한 ㉤ 소리를 합리화하는 논리로 이용될 수도 있다.

사실 내용이 고정되어 있다고 생각하든, 새롭게 해석될 수 있다고 생각하든 간에, 이면이란 ㉦ 을/를 의미한다. 모든 판소리 창자들은 “이면을 잘 그렸다.”라는 말을 듣고 싶어한다. 하지만 ㉧ 이 말을 듣기란 쉽지 않다. 이면을 잘 그렸다는 찬사를 받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만 명창(名唱)의 영예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48. 윗글의 서술상 특징에 대한 대화로 바르지 않은 것은?
- ① 가람: 질문을 던지면서 화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
 - ② 나래: 예시를 통해서 화제에 대한 독자의 관심을 이끌어 내고 있지.
 - ③ 다희: 한편, 화제에 대해 서로 다른 관점을 대비하여 설명하고 있어.
 - ④ 하늘: 그 과정에서 각각의 관점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 측면도 지적하고 있군.
 - ⑤ 아영: 전체적으로는 화제에 대한 인식의 변화 과정을 통시적으로 설명하고 있지.

49. ㉠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 ① 창자가 가장 즐겨 부르는 판소리
 - ② 창자가 소리로 표현해 내고자 하는 바탕
 - ③ 창자가 최고의 경지로 표현해 낼 수 있는 목소리
 - ④ 창자가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판소리의 한 대목
 - ⑤ 창자가 부르는 판소리 가운데 가장 감동적인 대목

50. 윗글의 내용으로 볼 때, ㉡의 이유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청중의 공감을 이끌어 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 ② 독창적 창법을 개발하려는 창자가 드물기 때문이다.
 - ③ 분위기까지 음악적으로 표현해 내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 ④ 창자가 사실 내용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 ⑤ 사실 내용에 음악적 표현을 그대로 들어맞게 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51. ㉠~㉣ 중 문맥적 의미가 다른 하나는?
- ① ㉠ ② ㉡ ③ ㉢ ④ ㉣ ⑤ ㉤

[52~5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005.11

(가) 내 주변에는 나처럼 생기고 나와 비슷하게 행동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 나는 그들과 경험을 공유하며 살아간다. 그렇다면 그들도 나와 같은 느낌을 가지고 있을까? 가령, 나는 손가락을 베이면 아프다는 것을 다른 무엇으로부터도 추리하지 않고 직접 느낀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경우에는 “아야!”라는 말과 움츠리는 행동을 통해 그가 아픔을 느꼈으리라고 추측할 수밖에 없다. 이때 그가 느낀 아픔은 내가 느낀 아픔과 같은 것일까?

(나) 물론 이 물음은 다른 사람이 실제로는 아프지 않은데 거짓으로 아픈 척했다거나, 그가 아픔을 느꼈을 것이라는 나의 추측이 잘못되었다는 것과는 관계가 없다. “아프나? 나도 아프다.”라는 말에서처럼, 나는 다른 사람이 아픔을 느낀다는 것을 그의 말이나 행동으로 알고, 그 아픔을 함께 나눌 수도 있다. 하지만 그의 아픔이 정말로 나의 아픔과 같은 것인지 묻는 것은 다른 문제다.

(다) 이 문제에 대한 고전적인 해결책은 유추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다. 나는 손가락을 베었을 때 느끼는 아픔을 “아야!”라는 말이나 움츠리는 행동을 통해 나타낸다. 그래서 다른 사람도 그러하리라 전제하고는, 다른 사람이 나와 같은 말이나 행동을 하면 ‘저 친구도 나와 같은 아픔을 느꼈겠군.’ 하고 추론한다. 말이나 행동의 동일성이 느낌의 동일성을 보장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 이 논증의 결정적인 단점은 내가 아는 단 하나의 사례, 곧 나의 경험에만 의지하여 다른 사람도 나와 같은 아픔을 느낀다고 판단한다는 것이다.

(라) 이런 문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의 느낌을 직접 관찰할 수 없기 때문에 생긴다. 만일 다른 사람의 느낌 자체를 관찰할 방법이 있다면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기술이 놀라게 발달하여 두뇌 속 뉴런의 발화(發火)*를 통해 인간의 모든 심리 변화를 관찰할 수 있다고 ㉡ 치자. 그러면 제삼자가 나와 다른 사람의 뉴런 발화를 비교하여 그것이 같은지 다른지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이때에도 나는 특정한 뉴런 발화가 나의 ‘이런’ 느낌과 관련된다는 것은 분명히 알 수 있지만, 그 관련이 다른 사람의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되는가 하는 것까지는 알 수 없다.

(마) 일부 철학자와 심리학자는 아예 ‘느낌’을 ‘관찰할 수 있는 모습과 행동 바로 그것’이라고 정의하는 방식으로 해결책을 찾기도 한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행동 너머에 있는 것처럼 생각되는 느낌을 행동과 같다고 정의해 버렸다는 점에서 문제의 해결이라기보다는 단순한 해소인 것처럼 보인다. 그보다는 다양한 가설을 설정하고 그들 간의 경쟁을 통해 최선의 해결책으로 범위를 좁혀 가는 방법이 합리적일 것이다.

* 발화(發火): 뉴런이 신호를 전달하기 위해 화학 물질을 방출하는 것.

52. (가)~(마)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 ① (가): 일상적인 경험으로부터 화제를 이끌어 내고 있다.
- ② (나): 화제에 대한 보충 설명을 통해 문제 의식을 심화하고 있다.
- ③ (다): 제기된 의문에 대한 고전적인 해결책을 소개하고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 ④ (라): 제기된 의문이 과학적인 방법에 의해 해결될 수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 ⑤ (마): 제기된 의문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법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53. 윗글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보기>에 대해 바르게 설명한 것은?

<보 기>

A: 이 영화 참 슬프지? 슬픈 영화는 언제나 날 울게 만들어.
 B: 슬프니? 나도 슬퍼. 하지만 나는 너의 슬픔이 나의 슬픔과 같은지 확인할 수가 없어.

- ① B는 자신이 정말로 슬픈지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
- ② B는 A가 B의 슬픔을 직접 관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 ③ B는 A가 슬플 때 하는 말이 행동과 항상 일치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다.
- ④ B는 자신이 슬플 때 하는 행동과 A가 슬플 때 하는 행동이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다.
- ⑤ B는 A의 울음을 관찰할 수는 있지만 그의 슬픔은 직접 관찰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54. ㉠을 보충하여 설명하기에 적절한 것은?

- ① 이것은 똑같이 생긴 상자 더미에서 책이 든 상자 하나만을 열어 보고는 다른 상자에도 책이 있다고 추리하는 것과 다름없다.
- ② 이것은 우리 집 소가 이번에 수소를 낳았으니까 다음 번에는 암소를 낳을 거라고 추측하는 것과 다름없다.
- ③ 이것은 신랑과 신부가 훌륭한 인재들이므로 화목한 가정을 꾸려 나갈 것이라고 믿는 것과 다름없다.
- ④ 이것은 그 사람이 우리 편이 아니니까 그의 말은 무조건 틀렸다고 주장하는 것과 다름없다.
- ⑤ 이것은 피고가 무죄임을 입증하지 못했으므로 곧 유죄라고 생각하는 것과 다름없다.

55. ㉡과 의미가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너까지 치면 전부 열 명이다.
- ② 이 사과까지 전부 쳐서 얼마조?
- ③ 그만하면 값을 잘 쳐서 판 것이다.
- ④ 내가 잘못했다고 치고 그만 화해하자.
- ⑤ 큰아버지는 촌수로 치면 나와 삼촌 간이다.

[15~1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05.09

범죄가 언론 보도의 주요 소재가 되고 있다. 그 이유는 언론이 범죄를 취재감으로 찾아내기가 쉽고 편이에 따라 기사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범죄 보도를 통하여 시청자의 관심을 끌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보도는 범죄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공적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지나친 범죄 보도는 범죄자나 범죄 피의자의 초상권을 침해하여 법적·윤리적 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초상권은 얼굴 및 기타 사회 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을 타인이 함부로 촬영하여 공표할 수 없다는 인격권과 이를 광고 등에 영리적으로 [A] 이용할 수 없다는 재산권을 포괄한다. 언론에 의한 초상권 침해의 유형으로는 본인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무단 촬영·보도, 승낙의 범위를 벗어난 촬영·보도, 몰래 카메라를 동원한 촬영·보도 등을 들 수 있다.

[B] 법원의 판결로 이어진 대표적인 사례로는 교내에서 불법으로 개인 지도를 하던 대학 교수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려는 현장을 방송 기자가 경찰과 동행하여 취재하던 중 초상권을 침해한 경우를 들 수 있다. 법원은 '원고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연습실을 무단으로 출입하여 취재한 것은 원고의 사생활과 초상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시했다. 더불어 취재의 자유를 포함하는 언론의 자유는 다른 법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정되며, 비록 취재 당시 원고가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원고의 연습실과 같은 사적인 장소는 수사 관계자의 동의 없이는 출입이 금지되고, 이를 무시한 취재는 원칙적으로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이 사례는 법원이 언론의 자유와 초상권 침해의 갈등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보여 주고 있다. 또한 이 판결은 사적 공간에서의 취재 활동이 어디까지 허용되는가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언론 보도에 노출된 범죄 피의자는 경제적, 직업적, 가정적 불이익을 당할 뿐만 아니라, 인격이 심하게 훼손되거나 심지어는 생명을 버리기까지도 한다. 따라서 사회적 공기(公器)인 언론은 개인의 초상권을 존중하고 언론 윤리에 부합하는 범죄 보도가 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야 한다. 범죄 보도가 초래하는 법적·윤리적 논란은 언론계 전체의 신뢰도에 치명적인 손상을 가져올 수도 있다. 이는 범죄가 언론에는 매혹적인 보도 소재이지만, 자칫 [㉠]이/가 될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15. 윗글의 논지 전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사례를 열거하여 공통적인 논지를 도출하고 있다.
- ② 개념 정의와 사례 분석을 토대로 주장을 펴고 있다.
- ③ 대립되는 주장을 소개하고 합의점을 도출하고 있다.
- ④ 새로운 이론을 통해서 기존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 ⑤ 여러 주장의 문제점을 분석한 후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16. [A]를 바탕으로 다음의 표를 작성하였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권리의 내용	침해의 유형	법적 구제(救濟)
초상권	인격권	㉠	정신적 고통	㉡
	재산권	㉢	경제적 손실	손해 배상·부당 이득 반환

- | ㉠ | ㉢ | ㉡ |
|---------------|-------------|-------------|
| ① 무단 촬영·공표 금지 | 초상 사용의 독점 | 명예 회복 청구 |
| ② 무단 촬영·공표 금지 | 명예 회복 청구 | 초상 사용의 독점 |
| ③ 명예 회복 청구 | 초상 사용의 독점 | 무단 촬영·공표 금지 |
| ④ 초상 사용의 독점 | 무단 촬영·공표 금지 | 명예 회복 청구 |
| ⑤ 초상 사용의 독점 | 명예 회복 청구 | 무단 촬영·공표 금지 |

17. [B]의 법원 판결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알 권리는 절대적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인격권에 항상 우선할 수는 없다.
- ②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사람의 초상에 관한 인격권이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
- ③ 경찰과 동행 취재하는 것은 초상권 침해에 대한 면책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용인될 수 있다.
- ④ 범죄 보도가 공익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초상권을 침해할 경우에는 사법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⑤ 범죄 행위가 사적 공간인 연습실에서 이루어졌다고 하여 연습실이 법적 보호 대상의 지위를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18. ㉠에 들어갈 말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자 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부대랑 ② 아킬레스건 ③ 뜨거운 감자
- ④ 악어의 눈물 ⑤ 시금석

19. 윗글에서 언급되지 않은 것은?

- ① 범죄 보도와 언론 윤리
- ② 범죄 보도의 사회적 기능
- ③ 언론 자유와 초상권의 충돌
- ④ 언론에 의한 초상권 침해 유형
- ⑤ 범죄 보도에 대한 시청자의 책임

MEMO

MEMO

[30~3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005.09

만장(萬章)이 물었다. “공자께서 진(陳)나라에 계실 적에 ㉠ ‘어찌 돌아가지 않겠는가? 우리 마을의 선비들은 광간(狂簡)하고 진취적이거나 초심을 잃지 않았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공자께서는 진나라에 계시면서 어찌하여 노나라의 광견(狂獫)한 선비들을 생각하신 것입니까?”

맹자가 말했다. “공자께서는 ‘중도(中道)의 인물을 얻어 함께할 수 없다면 차라리 광견(狂獫)한 자와 함께하리라. 광(狂)한 자는 진취적이고, 견(獫)한 자는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하지 않는 바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셨다. 공자께서 어찌 중도(中道)의 인물을 얻고 싶지 않으셨겠느냐마는, 반드시 그런 사람을 얻을 수 없기에 차선의 인물을 생각하신 것이다.”

“어떤 사람이 광한 자인지 감히 여쭙겠습니다.”

“공자께서는 금장과 증석 그리고 목피와 같은 사람들을 광한 자라고 하셨다.”

“왜 광한 자라고 합니까?”

“뜻이 높고 커서 ㉡ ‘옛사람이여, 옛사람이여!’ 하지만, 그의 평소 행실을 살펴보면 자신의 말을 그대로 실천하지 못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자께서는] 이러한 광한 자를 얻지 못하면, 더러운 것은 하지 않는 선비를 얻어 함께하고자 하셨다. 이것이 견한 자이니, 광한 자 다음가는 사람이다.”

“공자께서는 ‘내 문 앞을 지나면서 내 집에 들어오지 않더라도 내가 유감스러워 하지 않을 자는 바로 향원(鄉原)이다. 향원은 덕(德)을 해치는 자이다.’라고 하셨는데, 어떤 사람을 향원이라 합니까?”

[A] “[광한 자는] 왜 그렇게 잘난 척하는가? 말은 행실을 외면하고, 행실은 말을 외면하는데도 입을 열었다 하면 옛사람이여, 옛사람이여 하는가.’하고 [견한 자는] 어찌 혼자서만 도도하게 살아가는고? 이 세상에 태어났으면 세상과 어울려 사는 것이 좋은 것이지.’하면서 자신은 음흉하게 세상에 아첨하는 자가 바로 향원이다.”

만장이 말했다. “한 마을 사람들이 모두 그를 ㉢ ‘점잖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는 어디서든 ‘점잖은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공자께서 그를 일컬어 왜 ‘덕을 해치는 자’라고 하시는 겁니까?”

“비난하려 해도 비난할 것이 없고, 풍자하려 해도 풍자할 것이 없다. 유행하는 풍속에 동화하고 더러운 세상에 영합하면서도 충직하고 신뢰할 만한 사람인 것처럼 굴고 청렴결백한 듯이 행동하여 여러 사람에게 호감을 사고, 스스로는 옳다고 여기지만 ㉣ ‘더불어 요순(堯舜)의 도에 들어서지 못한다. 그러므로 ‘덕을 해치는 자’라고 하신 것이다. 공자께서는 ㉤ ‘같은 듯 하면서 아닌 것[사이비(似而非)]’를 싫어하셨으니, 강아지풀을 싫어하는 것은 벼싹을 어지럽힐까 걱정해서요, 아침하는 자를 싫어하는 것은 의(義)를 어지럽힐까 걱정해서다. 듣기 좋은 말을 잘하는 자를 싫어하는 것은 믿음을 어지럽힐까 걱정해서요, 정(鄭)나라 소리*를 싫어하는 것은 바른 음율을 어지럽힐까 걱정해서다. 자주색을 싫어하는 것은 붉은색을 어지럽힐까 걱정해서요, 향원을 싫어하는 것은 덕을 어지럽

힐까 걱정해서다.’라고 하셨다. ㉠ 군자라면 떳떳한 도로 돌아갈 뿐이다. 떳떳한 도가 바르게 되면 못 백성이 흥기(興起)하고, 못 백성이 흥기하면 사특함이 없어질 것이다.”

*정(鄭)나라 소리: 음란하고 아비한 음률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30. 윗글의 인물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민호: ‘만장(萬章)’은 공손하고 지적 호기심이 많은 사람이겠군.
- ② 은혜: ‘중도(中道)의 인물’이란 주관이 뚜렷하지 않은 유형의 인물이겠군.
- ③ 철수: ‘향원(鄉原)’은 시류에 지나치게 영합하는 인물을 가리키는 것 같아.
- ④ 영희: ‘광(狂)한 자’는 이상은 높지만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인가 봐.
- ⑤ 수영: ‘견(獫)한 자’는 깐깐해서 남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일 수도 있겠어.

31. [A]에는 여러 층위의 화자가 존재한다. 대상에 대한 화자의 태도로 적절한 것은?

- ① 맹자는 향원을 비판하고 있다.
- ② 맹자는 광한 자를 조롱하고 있다.
- ③ 향원은 광한 자를 흠모하고 있다.
- ④ 향원은 견한 자를 칭찬하고 있다.
- ⑤ 광한 자는 옛사람을 비난하고 있다.

32. ㉠의 의미가 삶의 자세로 가장 잘 표현된 시조는?

- ①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리/만수산 드렁침이 엮어진들 그 어떠하리/우리도 이같이 엮어져 백년까지 누리리라.
- ② 공명도 나는 몰라 부귀도 나는 몰라/허랑한 인생이 세상 일도 나는 몰라/아마도 이 강산 아니면 내 몸 둘 데 없으라.
- ③ 흥로 가운데 타는 발에서 종일 일하는 저 농부야/네 고생이 저러하거늘 내 놓고 먹음은 어인 일인가/우리도 군자를 길러 내는 노력을 하여 백성을 사랑하기 바라노라.
- ④ 북풍은 나무 끝에 불고 명월은 눈 속에 찬데/만리 변성에 일장검 쥘고 서서/긴 휘파람 큰 한 소리에 거칠 것이 없으라.
- ⑤ 옛 성인도 날 못 보고 나도 옛 성인을 못 배/옛 성인을 못 배도 가던 길 앞에 있네/가던 길 앞에 있으니 아니 가고 어쩔꼬.

33.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의 이유는 진나라에 중도의 인물은 없고 광견한 이들만 있기 때문이다.
- ② ㉡의 말버릇을 가진 사람은 과거에 얽매어 현실을 개혁하려는 마음을 잃은 자들이다.
- ③ ㉡를 공자가 비판하는 이유는 그들이 너무 원칙에 사로잡혀 소극적이기 때문이다.
- ④ ㉠과 같은 사람들은 융통성이 없고 지나치게 비판적인 사람들이다.
- ⑤ ㉡를 공자가 싫어하는 이유는 그것이 올바른 기준을 흐려 놓기 때문이다.

[34~3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005.09

우주의 만물은 모두 원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지금까지 알려진 원소의 종류는 약 100여 종이다. 흔히 이들은 우주가 생겨날 때부터 존재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원소에 따라 그 생성 기원이 다르다. 우주가 생겨날 때 만들어진 것, 별의 진화 과정에서 만들어진 것, 별이 폭발할 때 만들어진 것이 있다.

우주가 생성될 때 일어난 대폭발로 수소와 일부의 헬륨이 생겼다. 그리고 별이 진화하는 과정 속에서 나머지 헬륨과 또 다른 원소들이 만들어졌다. 태양보다 질량이 큰 별의 생성 초기에는 수소로부터 헬륨이 만들어지는데, 여기에는 천만 도(10^7K) 이상의 높은 온도가 필요하다. 고온에서 원자핵이 반응하여 더 큰 원자핵이 되는 것을 핵융합이라고 한다. 수소가 핵융합을 하여 헬륨을 생성하는 단계가 끝난 후, 별의 중심부 온도가 일억 도(10^8K) 정도로 올라가면 헬륨보다 무거운 원소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한다. 헬륨 3개가 결합하여 탄소가 만들어지며, 탄소에 하나의 헬륨이 더 더해져 산소가 3개의 헬륨 탄소가 만들어진다. 별의 중심부 온도가 십억 도(10^9K) 이상이 되면 탄소와 산소가 다시 작은 원소로 깨어지고 서로 합쳐져 질량이 더 큰 마그네슘, 규소, 황 등 다양한 원소들이 만들어진다.



그러나 현재 존재하는 원소 중 철보다 무거운 것은 단순히 핵융합에 의해 만들어지지 않는다. 비록 철 원소가 만들어지는 조건에서 일시적으로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만들어지더라도 곧 다시 분해되어 안정된 철로 되돌아간다. ㉠이것은 철의 원자핵 내 핵자 결합 에너지가 원소 중에서 가장 크기 때문이다. 핵자는 양성자나 중성자이며, 그 결합 에너지는 핵으로부터 핵자를 떼어내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말한다. 철보다 가벼운 원소는 질량이 클수록 핵자 결합 에너지가 크지만, 철보다 무거운 원소는 질량이 클수록 핵자 결합 에너지가 작다.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은 다음과 같이 별이 폭발할 때 만들어지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 핵융합에 의해 만들어진 철이 많아질수록 별의 수축이 일어난다. 별 중심부로의 수축이 진행될수록 온도가 높아지다가 어떤 한계점에 이르게 되면 별은 폭발한다.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은 별이 폭발할 때 생기는 높은 밀도의 양성자와 중성자가 그 전에 만들어진 원소와 결합하여 순간적으로 만들어진다. 라듐이나 우라늄 등이 이렇게 만들어진 원소이다.

결국 수소와 일부의 헬륨을 제외한 원소들은 오래 전에 존재 하였던 별의 잔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원소들도 우주에서 태어난 탄생 순서가 있다고 볼 수 있다.

34. 윗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 ① 산소는 핵융합에 의해 만들어진다.
- ② 헬륨 중에는 별에서 만들어지지 않은 것도 있다.
- ③ 우주가 생성될 때 대부분의 원소도 같이 만들어졌다.
- ④ 탄소가 만들어지려면 일억 도(10^8K) 이상의 온도가 필요하다.
- ⑤ 현재 존재하는 원소 중 철보다 무거운 원소는 별이 폭발할 때 만들어진다.

35. 윗글의 서술상 특징을 바르게 설명한 것을 묶은 것은?

<보 기>

ㄱ. 비유적 진술을 활용하고 있다.
 ㄴ. 대상을 몇 가지로 묶어 설명하고 있다.
 ㄷ. 개념에 대한 설명을 통해 이해를 돕고 있다.
 ㄹ. 대립적인 견해를 통해 결론을 이끌어 내고 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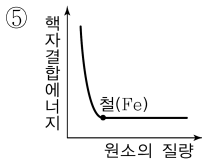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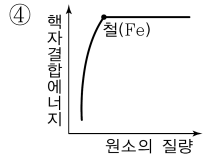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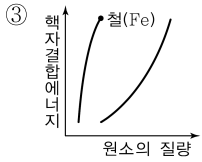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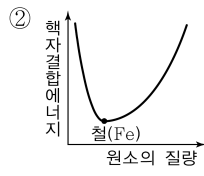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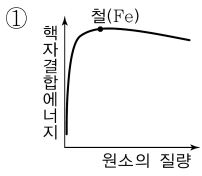
36. 윗글로 보아 온도가 약 일천 오백만 도($1.5 \times 10^7\text{K}$)인 별에서 주로 만들어지는 원소는?

- ① 수소 ② 헬륨 ③ 탄소 ④ 황 ⑤ 우라늄

37. 윗글에 나타난 사실의 인과 관계를 바르게 정리한 것은?

- ① 철의 생성 → 별의 중심부 온도 상승 → 헬륨의 생성
- ② 헬륨의 생성 → 별의 중심부 온도 상승 → 수소의 생성
- ③ 마그네슘의 생성 → 별의 중심부 온도 상승 → 탄소의 생성
- ④ 별의 내부에 철 축적 → 별의 수축 → 별의 중심부 온도 상승
- ⑤ 핵융합에 의한 별의 중심부 온도 상승 → 라듐의 생성 → 별의 폭발

38. ㉠의 내용을 적절하게 나타낸 그래프는?



[39~4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005.09

전통 수사학에서는 환유(換喩)를 비유법의 한 종류로 기술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에는 환유와 같은 다양한 비유법을 사용할 줄 아는 능력이 인간이 지닌 인지(認知)의 기본적 특성의 하나로 밝혀지면서 비유법은 여러 언어 현상을 설명하는 데에도 이용되고 있다. 우리에게는 비유법을 활용할 줄 아는 인지 기제(機制)가 있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환유적 표현을 무리 없이 이해하거나 우리의 경험이나 생각을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다.

환유는 인접성(隣接性)을 바탕으로 사물이나 관념을 지칭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 가령 ‘주전자가 끓고 있다’는 표현에서 실제 끓고 있는 것은 주전자의 물이지만, ‘주전자’라는 용기(容器)의 이름이 그 내용물을 지칭한다. 이러한 지칭 기능은 지시물 사이의 인접성에서 비롯된다. 우리가 ‘주전자가 끓고 있다’는 표현을 ‘물이 끓고 있다’로 이해하는 것은 ‘주전자’와 ‘물’ 사이에 ㉠ 밀접한 인접성이 있어서 의미 연상을 통한 의미 전이(意味轉移)가 신속하고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인접성에 의한 의미 전이로 인해서 환유는 일상 언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는데, 대체적으로 ‘확대 지칭’과 ‘축소 지칭’으로 구별된다. 확대 지칭은 부분으로 전체를 지칭하는 것이며, 축소 지칭은 전체로 부분을 지칭하는 것을 말한다. 가령 ㉡ ‘손이 모자라다’에서는 신체의 부분인 ‘손’으로 ‘일꾼’을 확대 지칭하며, ‘온 동네가 기뻐했다’에서는 전체인 ‘동네’로 ‘동네 사람’을 축소 지칭한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직설적인 표현 대신 이러한 환유 표현을 사용할까? 언어를 더욱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이다. 만일 우리가 전체로 부분의 의미를 [A] 전달할 수 있다면 시간과 노력을 적게 들이고 정보를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부분으로 전체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면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의 의미가 훨씬 쉽게 지각될 수 있을 것이다.

환유가 사용된 표현을 살펴보면 의미가 불충분하거나 표현이 생략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표현이 의사소통에 크게 지장을 주지 않는 이유는 전체로 부분을 지칭하거나 ㉢ 부분으로 전체를 지칭하는 인간 인지의 융통성 때문이다. ‘차를 열다’ 또는 ‘차를 수리하다’의 경우, 이를 차의 문이나 트렁크를 열거나 차의 부품을 수리하는 것으로 받아들인다. 실제의 사물을 구성하는 여러 다른 면을 자유자재로 부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차’라는 전체로 부분을 이해하는 것이다.

그러나 환유의 지칭 기능이 모든 조건에서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환유의 지칭 기능은 다분히 상황 의존적이다. ㉣ 동일한 낱말이 환유적으로 쓰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으며, ㉤ 환유적으로 쓰인다고 해도 상황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환유 표현이 자연스럽게 쓰일 수 있으려면 화자와 청자 사이에 상황에 대한 공유(共有)된 지식이 있어야 한다.

39. 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예를 들어 중심 화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② 화제를 나열하면서 최종적인 결론을 맺고 있다.
- ③ 상반된 견해를 절충하는 방식으로 전개하고 있다.
- ④ 핵심 개념을 제시하고 이에 비추어 문제점을 도출하고 있다.
- ⑤ 문답 형식을 통해 통념을 부정하는 방식으로 서술하고 있다.

40. 윗글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사람은?

- ① 영희: 환유의 예는 일상 언어 표현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어.
- ② 병근: 환유와 같은 비유적 표현은 인지적 융통성 때문에 가능한 거구나.
- ③ 철수: ‘아침을 먹다’나 ‘새 얼굴이 등장했다’는 표현에도 환유가 사용됐구나.
- ④ 민정: 특정 사물이나 구체적 상황을 상세히 설명해야 환유의 효과가 클 거야.
- ⑤ 명현: 환유를 사용할 때는 화자와 청자 사이에 상황에 대한 공통된 이해가 있어야 의사소통에 무리가 없겠군.

41. [A]의 내용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은?

- ① 언어의 형태와 의미는 자의적 관계로 이루어진다.
- ② 언어는 소리의 체계와 의미의 체계로 분리되어 있다.
- ③ 인간은 연속적인 세계를 분절적으로 인식하여 표현한다.
- ④ 인간은 언어를 좀 더 경제적으로 사용하려는 성향이 있다.
- ⑤ 언어는 그 언어가 쓰이는 사회 현상을 잘 반영해 주고 있다.

42. 다음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그릇’이 ‘용기’라는 뜻과 ‘담긴 내용물’이라는 뜻으로 쓰일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해 준다.
- ② ㉡으로 보면 ‘비둘기’가 ‘평화’의 환유임을 알 수 있다.
- ③ ㉢에서 ‘부분’은 대상 전체로 인지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나 특징이어야 한다.
- ④ ㉣의 예로는 ‘김 과장은 자리를 옮겼다’를 들 수 있다.
- ⑤ ㉤으로 보면 ‘손’이 상황에 따라 식당에서는 ‘요리사’, 병원에서는 ‘의사’를 지칭할 수 있다.

[48~5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005.09

우리는 흔히 예술 작품을 감상한다는 말 대신에 예술 작품을 향유(enjoyment)한다고 하기도 하며, 예술 작품을 평가(appreciation)한다고 하기도 한다. 향유한다거나 평가한다는 것은 곧 예술 작품에서 쾌감을 얻거나 예술 작품의 가치를 따지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의미 속에는 예술 작품은 감상의 주체인 감상자의 수용을 기다리는 존재이며, 고정된 채 가치를 측정당하는 대상이라는 인식이 내포되어 있다. 하지만 예술 작품은 그 가치가 확정되어 있거나 감상자의 수용을 기다리기만 하는 존재가 아니다.

예술 작품은 창작자와 창작된 시간, 문화적 환경과의 관계 속에서 창작되는데, 예술 작품의 창작과 관계되는 이 요소들에는 사회 규범과 예술 전통, 작가의 개성 등이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그런 것들로 예술 작품의 의미를 확정할 수는 없다. 그런 것들은 창작자에 의해 텍스트로 조직되면서 변형되어 단지 참조 체계로서의 배경으로만 존재할 따름이다.

예술 작품의 의미는 역사의 특정한 순간에 만나게 되는 감상자에 의해 해석된다. 그런데 의미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일정한 준거틀이 있어야 한다. 준거틀이 없다면 해석은 감상자의 주관적 이해를 벗어나기 어렵기 때문이다.

[A] 해석의 준거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참조 체계이다. 감상자가 예술 작품과 만나는 역사적 순간의 참조 체계는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내며, 이러한 새로운 관계에 의거해 감상자는 예술 작품으로부터 새로운 의미를 생산해 낸다.

따라서 예술 작품이 계속 전해지지만 한다면, 그것은 끊임 없이 새로운 참조 체계를 통해 변화하며 새로운 의미를 부여 받게 된다. 근본적으로 예술 작품의 의미는 무궁하다. 이것은 ㉠ “셰익스피어는 모두 다 말하지 않았다.”라는 말과도 같다. 이때 ‘다 말하지 않았다’는 것은 의미가 예술 작품 그 자체에서 기인한다는 뜻이 아니다. 작품의 의미는 예술 작품 밖에 존재하는 참조 체계의 무궁함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텍스트는 끊임 없이 새로운 (㉠)를 찾으며 그로부터 새로운 (㉡)를 획득하고, 끊임없이 새로운 (㉢)를 형성하며 새로운 (㉣)를 생산한다.

감상의 과정은 주체와 주체의 대화이다. 감상 과정에서 예술 작품과 감상자는 서로 다른 관점과 개성을 지닌 두 명의 개인과 마찬가지로 묻고 대답하면서 서로의 관점을 교정해 가는 개방적 태도를 갖는다. 자신의 ㉤ 시계(視界) 속으로 상대방을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대화를 통해 진리로 나아간다. 감상자는 예술 작품 속에 존재하는 진리를 얻는 것이 아니라 대화 방식의 감상을 통해 예술 작품과 소통함으로써 새로운 진리를 만들어 낸다. 예술 작품을 자신이 갖고 있는 전이해(前理解)의 예증(例證)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외재(外在)하는 예술 작품을 통해 이를 초월·확대·변화시킴으로써 새로운 시야(視野)를 획득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예술 작품도 자신과는 다른 감상자를 통해 자신의 의미를 초월하게 된다.

감상은 감상자와 예술 작품이 양방향으로 초월하는 미적 체험의 과정이다. 예술 작품은 감상자를 향하여, 감상자는 예술 작품을 향하여 서로 열려 있는 것이다.

48. 윗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예술 작품 감상의 의의
- ② 예술 작품 감상의 배경
- ③ 예술 작품의 창작과 감상
- ④ 향유로서의 예술 작품 감상
- ⑤ 소통으로서의 예술 작품 감상

49. [A]의 내용으로 볼 때 ㉠~㉣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	㉡	㉢	㉣
①	참조 체계	감상자	의미	관계
②	감상자	참조 체계	관계	의미
③	참조 체계	감상자	관계	의미
④	감상자	참조 체계	의미	관계
⑤	참조 체계	관계	감상자	의미

50. ㉠의 문맥적 의미를 바르게 설명한 것은?

- ① 셰익스피어 작품의 의미는 준거틀이 달라짐에 따라 변화한다.
- ② 셰익스피어는 모든 것을 말해 버려서 더 이상 할 말이 남아 있지 않았다.
- ③ 셰익스피어의 작품은 새로운 감상자들에게 언제나 한결같은 의미로 다가간다.
- ④ 셰익스피어는 그의 작품에서 그가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모두 다 말하지 않았다.
- ⑤ 셰익스피어 작품에서 감상자들은 셰익스피어가 말하고자 하는 의미를 모두 읽어 내지 못했다.

51. 윗글의 문맥으로 보아 ㉢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 ① 과정 ② 전이해 ③ 외재 ④ 시야 ⑤ 초월

[57~6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005.09

(가)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을 살 때, 다른 사람이 내 컴퓨터와 인터넷 쇼핑몰의 컴퓨터 사이에 오고가는 정보를 읽어서 내가 입력한 신용카드 정보를 ㉠ 빼내면 어쩌나 하고 걱정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공개키 암호화 방식을 이용하면 정보를 주고받는 당사자 이외에는 그 정보를 볼 수 없도록 할 수 있다.

(나) 공개키 암호화 방식에서는 각각의 컴퓨터가 다른 컴퓨터와 절대로 겹치는 법이 없는 한 쌍의 키를 준비한다. 내 컴퓨터가 준비한 키 쌍을 각각 공개키 A와 비밀키 a라고 하자. 공개키 A는 다른 컴퓨터에 알려주는 데에 사용하고 비밀키 a는 내 컴퓨터에만 보관한다. 공개키 A로 암호화된 정보는 오직 비밀키 a가 있어야만 해독되어 원래의 정보로 만들 수 있으며, 공개키 A를 가지고도 해독될 수 없다. 따라서 비밀키 a만 내 컴퓨터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게 하면 공개키 A는 다른 컴퓨터에 알려 주어도 무방하다.

(다) 이제 인터넷 서점 '책마을'에 접속하여 책을 구매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책마을 컴퓨터가 공개키 B와 비밀키 b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내 컴퓨터가 책마을 컴퓨터에 접속하자마자 두 컴퓨터는 자동적으로 자신들의 공개키를 교환한다. 즉 내 컴퓨터는 B를, 책마을 컴퓨터는 A를 알게 되는 것이다. 이제 내가 책을 주문하기 위해서 신용카드 정보를 내 컴퓨터에 입력하면 내 컴퓨터는 이것을 책마을 컴퓨터의 공개키 B로 암호화하여 전송한다. 책마을 컴퓨터는 암호화된 정보를 자신의 비밀키 b로 해독하여 원래의 신용카드 정보를 얻는다. 공개키 B로 암호화하여 보내진 정보는 비밀키 b를 갖고 있는 책마을 컴퓨터만 해독할 수 있으므로 다른 사람이 내 신용카드 정보를 해독하기는 불가능하다.

(라) 내 컴퓨터의 공개키 A는 다른 컴퓨터에서도 알 수 있으므로 다른 사람이 나인 척하고 자기 컴퓨터에서 공개키 A를 알려주고 책을 주문한다면 곤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책마을 컴퓨터가 받고 있는 정보의 송신자가 내 컴퓨터라는 것을 확인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책마을 컴퓨터는 내 컴퓨터에 '책마을만세'와 같은 임의의 단어를 보내면서 이 단어를 내 컴퓨터의 비밀키 a로 암호화한 후, 원래 단어와 암호화된 단어를 함께 보내달라고 요구한다. 공개키 암호화 방식에서는 비밀키 a로 암호화된 정보가 공개키 A로만 해독이 가능하다. 따라서 ㉡ 내 컴퓨터는 원래의 단어와 암호화된 단어를 함께 전송하고, 이 두 정보를 전송 받은 책마을 컴퓨터는 암호화된 단어를 공개키 A로 해독한 후에 전송 받은 원래 단어와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만약 이들이 일치한다면 공개키 A를 가진 컴퓨터(내 컴퓨터)가 보낸 정보임에 틀림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 어떤 사람은 자기 컴퓨터가 가르쳐 준 공개키 A에서 비밀키 a를 알아내면 어쩌나 하고 걱정할지 모른다. 그러나 이러한 일은 기술적으로만 본다면 거의 불가능하다. 비밀키 a에서는 간단한 계산만으로 공개키 A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공개키 A에서 비밀키 a를 구하기 위해서는 현재 가장 속도가 빠른 슈퍼컴퓨터를 동원하더라도 수십 년 동안 계산해야 할

정도로 엄청난 시간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공개키 암호화 방식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안심하고 사용해도 좋다고 할 수 있다.

57. 각 단락의 중심 화제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 공개키 암호화 방식의 효용성
- ② (나): 공개키와 비밀키를 생성하는 방법
- ③ (다): 공개키 암호화 방식의 동작 원리
- ④ (라): 송신자 컴퓨터를 확인하는 원리
- ⑤ (마): 공개키 암호화 방식의 안전성

58. 윗글에 나타난 '공개키 암호화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정보를 주고받는 컴퓨터끼리는 공통의 비밀키를 사용한다.
- ② 공개키로 암호화하여 보내는 정보는 비밀키로 해독될 수 없다.
- ③ 컴퓨터의 속도가 빨라지면 공개키 암호화의 안전성은 높아진다.
- ④ 정보를 주고받는 컴퓨터끼리는 상대방 컴퓨터의 비밀키를 모르고 있다.
- ⑤ 공개키로 암호화된 정보는 암호화에 사용된 공개키를 알면 해독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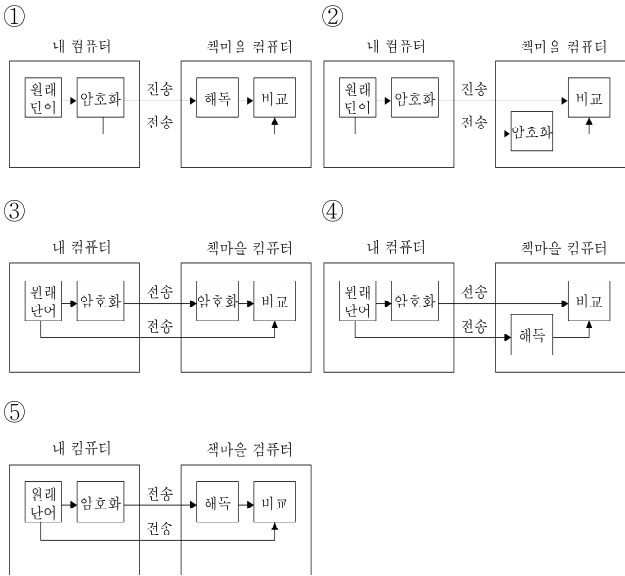
59. 국어사전에서 ㉠의 의미를 바르게 찾은 것은?

—<보 기>—

빼-내다 [빼 : --] [-내어(-내), -내니] ㉡ (...에서 ...을)
 (1) 박혀 있거나 끼워져 있는 것을 뽑다. (2) 여럿 가운데에서 필요한 것 혹은 불필요한 것만을 골라내다. (3) 남의 물건 따위를 돌려내다. (4) 남을 피어서 나오게 하다. (5) 얽매인 사람을 자유롭게 해 주다.

- ① (1) ② (2) ③ (3) ④ (4) ⑤ (5)

60. ㉠의 내용을 그림으로 올바르게 표현한 것은? [3점]



[16~1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005.06

(가)

저는 주로 붓으로 글씨를 쓰고 있습니다만 가끔 ‘매직펜’으로 줄을 긋거나 글씨를 쓸 일이 생깁니다. 이 매직펜은 매직잉크가 든 작은 병을 병째 펜처럼 들고 사용하도록 만든 편리한 문방구(文房具)입니다. 이것은 붓글씨와 달라 특별한 ㉠ 숙련이 요구되지 않으므로, 초보자가 따로 없습니다. 마치 피아노의 건반을 아무나 눌러도 정해진 음이 울리듯, 매직펜은 ㉡ 누가 굵더라도 정해진 너비대로 줄을 칠 수 있습니다. 먹물 갈거나 붓끝을 가누는 수고가 없어도 좋고, 필법(筆法)의 수련 같은 귀찮은 노력은 더구나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휘발성이 높아 건조를 기다릴 것까지 없고 보면 가히 인스턴트 시대의 총이라 할 만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모든 편의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종이 위를 지날 때 내는 날카로운 마찰음—기계와 기계의 틈새에 끼인 문명의 비명 같은 소리가 좋지 않습니다. 달려들 듯 다가오는 그 ㉢ 자극성의 냄새가 좋지 않습니다.

붓은 결코 소리 내지 않습니다. 어머니의 약손같이 부드러운 감촉이, 수줍은 듯 은근한 그 묵향(墨香)이, 묵의 깊이가 좋습니다. 추호(秋毫)처럼 가는 획에서 필관(筆管)보다 굵은 글자에 이르기까지 흡사 피리 소리처럼 이어지는 그 폭과 유연성이 좋습니다. 붓은 그 사용자에게 상당한 양의 노력과 수련을 요구하지만 그러기에 그만큼의 애착과 사랑을 갖게 해 줍니다. 붓은 좀체 호락호락하지 않은 매운 지조의 선비 같습니다.

매직펜이 실용과 편의라는 서양적 사고의 산물이라면 붓은 동양의 정신을 담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의 버릇집 속에는 이 둘이 공존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제가 소위 ‘동도서기(東道西器)’라는 절충의 논리를 수공하는 뜻이 아닙니다.

절충이나 종합은 흔히 은폐와 호도(糊塗)의 다른 이름일 뿐, 역사의 특징한 시점에서는 그 사회, 그 시대가 당면하고 있는 객관적 제 조건에 비추어, 비록 상당한 진리를 내포하고 있는 주장이라 하더라도 그 경중, 선후를 준별하고 하나를 다른 하나에 종속시키는 실천적 과당성(派黨性)이 도리어 ‘시중(時中)’의 진의이며 중용의 본도(本道)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역시 붓을 선호하는 쪽입니다. 주로 도시에서 교육을 받아온 저에게 있어서 붓은 단순한 취미나 여기(餘技)라는 공연한 사치로 이해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 신영복, 「매직펜과 붓」 -

(나)

서구의 도시에서 볼 수 있는 분수는 대개가 다 하늘을 향해 솟아오르는 분수들이다. 화산이 불을 뿜듯이, 혹은 로켓이 치솟아 오르듯이, 땅에서 하늘로 뻗어 올라가는 힘이다. 분수는 ㉣ 대지의 중력을 거슬러 역류하는 물이다. 자연의 질서를 거역하고 부정하며 제 스스로의 힘으로 중력과 투쟁하는 운동이다. 물의 본성에 도전하는 물줄기이다.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는 천연의 성질, 그 물의 운명에 거역하여 그것은 하늘을 향해서 주먹질을 하듯이 솟구친다. 가장 물답지 않은 물, 가장 부자연

스러운 물의 운동이다. 그들은 왜 분수를 좋아했는가? 어쩌서 비처럼 낙하하고 강물처럼 흘러내리는 그 ㉤ 물의 표정과 정반대의 분출하는 그 물줄기를 생각해 냈는가? 같은 힘이라도 폭포가 자연 그대로의 힘이라면 분수는 거역하는 힘, 인위적인 힘의 산물이다. 여기에 바로 운명에 대한, 인간에 대한, 자연에 대한 동양인과 서양인의 두 가지 다른 태도가 생겨난다.

그들이 말하는 ㉥ 창조와 힘이란 것도, 문명의 질서란 것도, 그리고 사회의 움직임이란 것도 실은 저 광장에서 내뿜고 있는 분수의 운동과도 같은 것이다. 중력을 거부하는 힘의 동력, 인위적인 그 동력이 끊어지면 분수의 운동은 곧 멈추고 만다. 끝없이 인위적인 힘, 모터와 같은 그 힘을 주었을 때만이 분수는 하늘을 향해 용솟음칠 수 있다. 이 긴장, 이 지속, 이것이 서양의 역사와 그 인간 생활을 지배해 온 힘이다.

- 이어령, 「폭포와 분수」 -

16.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는 (나)에 비해 글씨의 선호가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다.
- ② (가)는 (나)에 비해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경험이 나타나 있다.
- ③ (가)와 (나)는 비유적인 표현을 활용하여 대상의 속성을 드러내고 있다.
- ④ (가)와 (나)는 서로 관련되는 대상을 대비하여 자신의 관점을 드러내고 있다.
- ⑤ (가)와 (나)는 대상을 문화적 관점에서 분석하면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있다.

17. ㉠~㉥ 중 문맥적 의미가 유사한 것끼리 묶은 것은?

- ① ㉠, ㉡ ② ㉢, ㉣ ③ ㉣, ㉤
- ④ ㉡, ㉢ ⑤ ㉠, ㉣

18. ㉡의 ‘누(구)’와 의미가 가장 비슷한 것은?

- ① 저 사람은 누구입니까?
- ② 둘 중에서 누가 먼저 할래?
- ③ 우리 반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 ④ 그에게 누구를 사랑하는지 물었다.
- ⑤ 누구든 나한테 한 명만 보내 줄래?

19. (가)의 관점과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중간 노선을 인정할 수 없는 것처럼 말하는 이들이 있다. 그러나 도덕을 제외한 모든 인간 문제는 회색에 속한다. 타협이 있어야 한다.
- ②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미지근함은 그저 중간일 뿐이다. 사랑할 때 사랑하고 미워할 때 미워할 줄 아는 절도에 삶의 본질이 있다.
- ③ 우리는 각자의 편견으로 물든 안경을 쓰고 있다. 인간은 대상을 주관적으로 보지 객관적으로 보지 않는다. 인식의 객관성이라는 환상을 버려야 한다.
- ④ 세상에는 가끔 편견과 인습의 사슬에 매인 사람들이 있다. 이들이 권력을 잡으면 다른 사람들을 배척하려 한다. 편견과 인습은 우리가 극복해야 할 대상이다.
- ⑤ 인간이 극단적인 것을 성취한다고 해서 그 위대함이 드러나는 것은 아니다. 동시에 두 극단에 도달하여 그 중간을 모두 채움으로써 인간은 위대해지는 것이다.

[20~2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05.06

㉠ 오늘날 여성들은 체중에 상관없이 스스로를 뚱뚱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빈부, 노소를 떠나서 하나같이 날씬해 지기를 원하고 그러한 욕망은 다이어트 열풍으로 이어진다. 몸이 우리의 다양한 욕구나 자기 표현과 관련된다는 점에서 다이어트 열풍은 우리 사회를 읽어 내는 하나의 ㉡ 거울이 될 수 있다.

몸에 대한 관심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한 사회학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에서 1930년대에는 바싹 마른 몸매의 여성이, 1950년대에는 마릴린 먼로와 같이 풍만한 몸매의 여성이 인기를 끌었다고 한다. 대공황으로 경제 사정이 좋지 않았던 1930년대에는 일하는 여성이 필요했기에 민첩해 보이는 마른 여성이 매력의 상징이 되었다. 하지만 경제 사정이 좋아지기 시작한 1950년대에는 여성이 행복한 가정을 꾸리기를 바라는 풍조로 바뀌면서 사람들은 풍만한 곡선미를 지닌 여배우의 이미지를 선호하였다.

소비 사회에서 몸은 자연스럽게 자기 표현의 중심이 된다. 산업의 발달로 물질이 풍요해지자 인간은 다양한 소비를 통해 자신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게 되었고 소비를 통해 자신을 표현한다고 믿게 되었다. 오늘날 소비는 대중 매체에 의해 조정되고 조절되는 경향이 짙다. 또한 인간은 ㉢ 영상 매체에서 본 이미지를 모방하여 자신을 표현하고자 한다. 이러한 점에서 소비를 통한 자기 표현은 타인의 시선에 의해 규정된다고 할 수 있으며, 주체적이고 ㉣ 능동적인 자기 이미지를 만드는 과정으로 보기 어렵다. 결국 소비를 통해 자신의 이미지를 형성하려는 행위는 자신의 상품 가치를 높이는 것에 불과할 뿐이다.

날씬한 여성의 이미지를 선호하는 것도 이와 밀접하게 닿아 있다. 모든 유형의 다이어트가 오늘날과 같은 이유로 행해진 것은 아니다. 중세에 다이어트는 종교적 생활 양식에서 영혼을 통제하려는 훈육(訓育)의 한 방법이었고, 18세기에는 특정 집단에 속한 사람들이 ㉤ 음식의 양과 유형을 조절하는 방식이었다. 이와 달리 오늘날의 다이어트는 대부분 날씬한 몸매를 만들어서 자신의 상품 가치를 높이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진다. ㉥ 외모에 대한 그릇된 인식은 이러한 다이어트 열풍을 부추겼으며, 대중 매체를 통해 점점 더 확대되고 재생산되고 있다.

㉦ 자기를 표현하는 수단으로서의 몸에 대한 관심은 자본주의의 상품화 논리에 지배되면서 오히려 자기 몸을 소외시키고 있다. 대중 매체를 통해 확산되는 상품으로서의 몸 이미지와 외모 지향적 가치관은 ㉧ 매력적인 몸에 대한 강박 관념을 강화하고, 사람들을 다이어트를 통한 날씬한 몸매 만들기 대열에 합류시킨다. 이처럼 대중 매체 속에서 만들어진 획일화된 몸 이미지는 우리에게 더 이상 몸은 없고 몸 이미지만 남게 한다.

20.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1950년대 미국에서는 풍만한 몸매의 여성이 인기를 끌었다.
- ② 사람들이 선호하는 몸의 이미지는 시대에 따라 변화해 왔다.
- ③ 경제 상황이 사람들의 몸 이미지를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
- ④ 소비 사회에서 사람들은 영상 매체에서 얻은 몸의 이미지를 모방한다.
- ⑤ 18세기의 여성들은 날씬한 몸매로 자신의 상품 가치를 높이 고자 하였다.

21. ㉠과 거리가 먼 것끼리 묶인 것은?

- ① a, b ② a, c ③ b, c
- ④ b, e ⑤ d, e

22. ㉡의 '거울'과 의미가 가장 유사한 것은?

- ① 그는 모든 사람의 거울이 된다.
- ② 사람의 얼굴은 마음의 거울이다.
- ③ 거울 속에 비친 풍경은 고즈넉했다.
- ④ 거울은 유리 뒤쪽에 아말감을 발라 만든다.
- ⑤ 그는 자신의 실수를 거울로 삼아 더욱 분발했다.

23. ㉤의 구체적인 사례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 ① 요즘은 왜 이리 바쁘지 모르겠어. 세수할 시간은커녕 밥 먹을 시간도 없어.
- ② 몸매 가꾸기 방송 봤니? 나는 그 방송만 보면 압박감을 느껴. 난 매번 다이어트에 실패하는데.
- ③ 너희들, 어제 저녁 방송에서 그 가수가 입고 나온 옷 봤니? 나도 그 가수와 똑같은 옷을 사 입었어.
- ④ 예전에는 개인의 집단적 가치와 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화장을 했다. 지금 화장의 의미는 다른데 말야. 요즘 남자들도 화장을 하잖아.
- ⑤ 난 랩을 좋아해. 빠른 지껄임, 그리고 경쾌한 율동과 몸놀림이 있어 좋아. 그래서 노래를 들을 때는 물론이고 평소에도 랩의 모든 것을 따라 해.

24. 윗글의 관점에서, 식사 장애를 겪고 있는 <보기>의 화자에게 증상의 원인을 진단하여 해 줄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나는 사회적으로 성공한 중산층 가정에서 자랐고, 학교에서 우등생이었다. 그러나 항상 무능하다는 느낌에 압도되어 있었다. 사람들은 나의 외모가 매력적이고 날씬하다고들 하지만 나는 만족할 수 없었다. 나는 연예인처럼 날씬해지기 위해 다이어트를 시도했고 그것은 어느 정도 성공하고 있다. 이제 나는 아무것도 먹을 수 없다. 내 체중은 눈에 띄게 감소되고 있다. 나의 체중 감소가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우선은 기쁘다. 체중이 줄수록 내가 서서히 아이의 몸으로 되돌아가는 것 같아 정말 좋다.

- ① 당신의 증상은 정신 병리적인 것이며 신경증의 일종으로 볼 수 있습니다.
- ② 당신의 증상은 자신의 몸을 스스로 통제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원초적 불안과 관련이 있습니다.
- ③ 당신의 증상은 일종의 음식물 섭취 혼란 증후군으로 먹는 것에 대한 왜곡된 태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 ④ 당신의 증상은 양육에 의해 만들어진 사회적 유대를 단절하는 반항적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 ⑤ 당신의 증상은 타인의 시선에 의해 만들어진 획일화된 몸 이미지에 깊이 종속되어 나타난 것입니다.

[25~2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05.06

오늘날 영화 한 편에 천만 명의 관객이 몰릴 정도로 영화는 우리 시대의 대표적인 예술 장르로 인정받고 있다. 그런데 영화 초창기인 1930년대에 발터 벤야민(W. Benjamin)이 영화를 비판적으로 조망하고 있어 흥미롭다. 그에 따르면 영화는 전통적인 예술 작품이 지니는 ㉠ 아우라(Aura)를 상실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우라는 비인간화되고 사물화된 의식과 태도를 버리고, 영혼의 시선으로 대상과 교감할 때 경험할 수 있는 ㉡ 아름다운 향기 내지 살아 숨쉬는 듯한 생명력과 같은 것이다. 그것은 우리들 가까이 있으면서도 저 멀리 있는데, 대상과 ㉢ 영혼의 교감을 통해 몰입할 때, 그때 어느 한 순간 일회적으로 나타난다. 예술 작품은 심연에 있는 아우라를 불러내는 것이고, 수용자는 그런 예술 작품과의 교감을 통해 아우라를 경험한다. 그런데 사진이나 카메라 등과 같은 기계적, 기술적 장치들이 예술의 영역에 침투하면서 예술 작품의 아우라는 파괴되는데, 벤야민은 그 대표적인 예로 영화를 든다.

벤야민은 영화의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 관객의 자리에 카메라가 대신 들어선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연극의 경우 배우와 관객은 직접적으로 교감하면서, 배우는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인물을 연출해 보이고 관중의 호흡에 맞추어 연기를 할 수 있다. 관객은 연극의 주인공을 둘러싸고 있는 아우라를 그 주인공 역할을 하는 배우를 통해 경험할 수 있다. 그러나 영화의 경우 배우와 관객 사이에 카메라가 개입된다. 배우는 카메라 앞에서 연기를 하지만, 카메라라는 기계가 갖는 비인간적 요소로 인해 ㉣ 시선의 교감을 나눌 수 없게 된다. 관객은 ㉤ 스크린에 비친 영상만을 접하기 때문에 배우와 교감할 수 없고, 다만 카메라와 일치감을 느낄 때만 배우와 일치감을 느낄 수 있다. 이로 인해, 관객은 카메라처럼 배우를 시각적으로 시험하고 비평하는 태도를 취한다. 그 결과 배우는 모든 교감의 관계가 차단된 유배지 같은 곳에서 카메라를 앞에 두고 재주를 부리는 것으로 만족해야 한다. 배우를 감싸고 있는 아우라도, 배우가 그려내는 인물의 아우라도 사라질 수밖에 없다.

영화 배우의 연기는 하나의 통일된 작업이 아니라 여러 개의 개별적 작업이 합쳐져서 이루어진다. 이는 연기자의 연기를 일련의 조립할 수 있는 에피소드로 쪼개어 놓는 카메라의 특성에서 비롯된다. 카메라에 의해 여러 측면에서 촬영되고 편집된 한 편의 완성된 영화에 담긴 동작의 순간들은 카메라 자체의 그것일 뿐이다. 영화 배우는 각 동작의 순간순간에 선별적으로 배치된 여러 소도구 중의 하나에 불과하다. 따라서 카메라에 의해 조립된 영상들에 아우라가 개입할 여지는 없다.

이런 점들을 들어, 벤야민은 전통적인 예술이 피어날 수 있는 유일한 영역으로 간주되어 온 ㉥ 아름다운 가상(假象)의 왕국으로부터 예술과 그 수용층이 멀어지고 있음을 영화가 가장 극명하게 보여 준다고 비판한다. 영화 초창기에 대두된 벤야민의 이러한 비판이 오늘날 문화의 총아로 각광받는 영화에 전면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25. 윗글에 나타난 벤야민의 견해와 거리가 먼 것은?

- ① 연극 배우는 관객과 호흡을 맞추어 연기한다.
- ② 영화 배우는 카메라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 ③ 영화에서 배우는 살아 있는 인격체로 취급되지 않는다.
- ④ 영화 관객은 배우에게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노력한다.
- ⑤ 기계적 장치들이 예술 영역에 침투하면서 수용층의 태도가 변한다.

26. 문맥상 ㉠과 가장 관련이 깊은 것은?

- ① 화원의 장미꽃이 예뻐서 화병에 한 다발을 꽂아 두고 늘 가까이했다.
- ② 한적한 시골에 가서 며칠 폭 쉬다 보니 세상만사 온갖 시름이 다 잊혀졌다.
- ③ 조용한 카페에 홀로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면서 여러 가지 상념을 떠올렸다.
- ④ 따뜻한 봄날, 들에 핀 한 송이 꽃을 그윽이 바라보자 그 꽃이 내게 미소로 답했다.
- ⑤ 방안이 너무 어둡고 칙칙한 것 같아서 화사한 색채를 지닌 그림을 벽에 걸어 두었다.

27. ㉡~㉥ 중에서 성격이 다른 하나는?

- ① ㉡ ② ㉢ ③ ㉣ ④ ㉤ ⑤ ㉥

28. 윗글에 나타난 벤야민의 주된 논지에 대한 비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요즘 좋은 영화가 얼마나 많은데, 화려하면서도 눈부신 영상미는 영화만이 갖는 큰 강점이지.
- ② 벤야민이 살던 시대의 영화 배우들은 연기를 못했나 봐. 요즘 영화 배우들은 연기를 정말 잘하잖아.
- ③ 우리나라 영화 규모가 얼마나 커졌는데, 제작비만 하더라도 몇 십 억이 들잖아? 그리고 영화관에 몰리는 관객 수도 엄청나.
- ④ 요즘 카메라 촬영 기법이 아주 좋아졌어. 배우들의 섬세한 표정은 물론이고 세밀한 행동 하나하나를 그대로 화면으로 옮겨 놓잖아.
- ⑤ 영화를 두고 예술인지 아닌지를 가르는 기준이 하나만 있는 것은 아니지. 사람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 그리고 시대가 변하면 기준도 변하잖아.

MEMO

MEMO

[29~3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005.06

(가)

신(臣) 부식은 아뢰입니다. 옛날 열국들도 각각 사관을 두어 일을 적었기에, 『맹자』에 “진의 승, 초의 도율, 노의 춘추는 한 가지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해동 삼국은 역사가 오래되어 그 사실이 응당 ㉠ 책에 밝혀져야 되겠기에, 늙은 신에게 명하여 이를 편집토록 하셨으나, 스스로 돌아봐도 부족할 따름이라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삼가 생각건대 성상 폐하께서는 (...중략...) “오늘날 학사·대부들이 오경·제자의 글 및 진한·역대의 사서(史書)에 대하여는 간혹 환하게 알아 상세히 말하는 자가 있지만, 우리나라의 일에 이르러서는 도리어 아득하여 그 전말을 알지 못하니, 매우 개탄할 노릇이다.”라고 여기셨습니다. 더군다나 신라, 고구려, 백제가 나라를 열어 출발처럼 맞서면서도 능히 예의로써 중국과 통하였기에, 『한서』와 『당서』에 모두 그 열전이 있기는 하나, 국내는 상세히 하고 외국은 간략히 하는 ㉡ 바람에 그 일이 자세히 실리지 않았습니다. 또 그 고기(古記)란 것도 문자는 거칠고 불합리하며 사적(史蹟)은 빠지고 없어져서, 임금의 선함과 악함, 신하의 충성스러움과 간사함, 나라의 평안함과 위태로움, 백성의 다스려짐과 어지러움을 모두 드러내어 이로써 ㉢ 후세에 권장하거나 경계할 수가 없습니다. 마땅히 뛰어난 인재를 얻어 훌륭한 사서를 이름으로써, 이를 만세토록 남기어 해와 별처럼 빛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신과 같은 자는 본래 뛰어난 인재도 아니고 깊은 지식도 없을 뿐더러, 황혼의 나이에 이르러 날로 혼미해져서, 글을 부지런히 읽어도 책을 덮으면 바로 잊어버리고 붓을 잡아도 힘이 없어 종이를 대하면 내려가지 않습니다. 신의 학술은 이렇게 짧고 얕은데 옛 사적은 저렇게 깊고 아득합니다. 이 때문에 온 정력을 쏟아 겨우 책을 엮었으나, 끝내 보잘 것이 없어 스스로 부끄러울 뿐입니다. 삼가 바라옵건대 성상 폐하께서는 두서 없이 간추린 솜씨를 양해하시고 되는 대로 만든 죄를 용서하옵소서. 비록 명산에 간직할 거리는 못 될지라도, 장독 덮개로 쓰이는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구구히 망령된 뜻은 밝은 해가 굵어 비출 것입니다.

- 김부식, 「진삼국사기표」 -

(나)

세상에서 동명왕의 신이한 일을 많이 말한다. 어리석은 남녀도 흔히들 말한다. 내 일찍이 그 얘기를 듣고 웃으며, “우리 스승 공자께서 괴력난신(怪力亂神)*을 말씀하지 않았다. 동명왕의 일은 황당하고 기괴하여 우리들이 얘기할 것이 못 된다.”라고 말하였다. ㉣ 나중에 『위서』와 『통전』을 보매 역시 그 일이 자세하지 못하니, 국내는 자세히 하고 외국은 소략히 하려는 뜻인지도 모르겠다. 지난번에 『구삼국사』의 「동명왕본기」를 보니 신이한 사적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것보다 더했다. 처음에는 믿지 못하고 귀(鬼)나 환(幻)으로만 생각하였는데, 세 번 되풀이 읽어 점점 ㉤ 근원에 들어가니, 환이 아니고 성(聖)이며 귀가 아니고 신(神)이었다. 하물며 국사는 사실 그대로 쓰는 글이니 어찌 허탄한 것을 전하랴. 김부식 공이 국사를 중찬하면서 그

일을 자못 생략하였으니, 국사는 세상을 바로잡는 글이므로 크게 이상한 일은 후세에 보일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여 생략한 것이 아닌가? 「당현종본기」와 「양귀비전」에는 방사(方士)*가 하늘에 오르고 땅에 들어갔다는 일이 없는데, 오직 시인 백낙천이 그 일이 인멸될까 두려워 노래로 기록하였다. 저것은 실로 황당하고 음란하고 기괴하고 허탄한데도 읊어서 후세에 보였다. 하물며 동명왕의 일은 변화의 신이함으로 여러 사람의 눈을 현혹한 것이 아니고 나라를 창시한 신성한 사적이니, 이를 기술하지 않으면 후인들이 장차 어떻게 보겠는가. 이에 시로써 기록하여 우리나라가 본래 성인의 나라임을 천하에 알리고자 한다.

- 이규보, 「동명왕편 서(序)」 -

* 괴력난신(怪力亂神): 이성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존재나 현상.
* 방사(方士): 신선의 도술을 익히는 사람.

29. (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 ① 왕명으로 사서를 편찬하여 널리 보급시켰다.
- ② 글쓴이는 평생에 걸쳐 사서 편찬에 종사하였다.
- ③ 우리나라 삼국을 다룬 고기(古記)는 길이 후세에 전할 만하다.
- ④ 당시의 학사·대부들은 자기 나라의 역사에 대하여 잘 몰랐다.
- ⑤ 중국의 역사서에는 우리나라 삼국의 사적이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30.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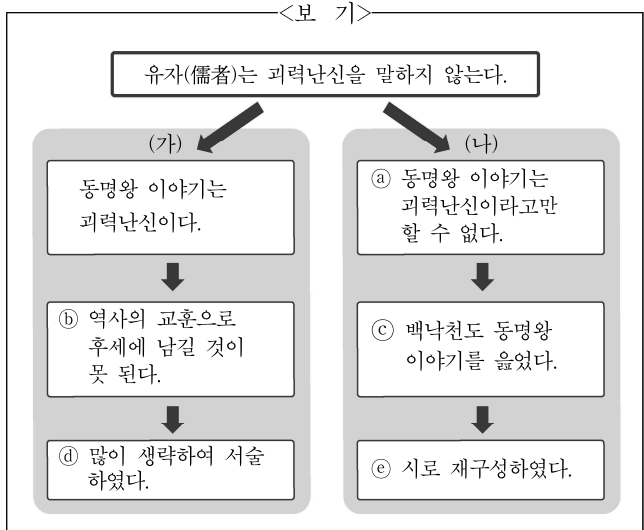
- ① (가), (나)는 글을 쓰게 된 경위를 설명하고 있다.
- ② (가), (나)는 옛일을 끌어들이어 논지를 보강하고 있다.
- ③ (가)는 왕을, (나)는 불특정 다수를 독자로 상징하고 있다.
- ④ (가), (나)는 대화를 인용하여 자신의 주장을 강화하고 있다.
- ⑤ (가)는 공순(恭順)한 태도를, (나)는 자신감 있는 태도를 보여 주고 있다.

31. ㉠~㉤ 중, <보기>의 ‘에서’와 쓰임이 가장 비슷한 것은?

<보 기>
나는 어제 도서관에서 철수를 만났다.

- ① ㉠ 책에 ② ㉡ 바람에 ③ ㉢ 후세에
- ④ ㉣ 나중에 ⑤ ㉤ 근원에

32. <보기>는 (나)를 바탕으로 (가), (나) 글쓴이의 사고 과정을 정리한 것이다. 알맞지 않은 것은?



- ① ㉓
- ② ㉑
- ③ ㉔
- ④ ㉒
- ⑤ ㉕

[45~4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05.06

1434년 7월 1일, 조선 왕조는 자격루(自擊漏)라고 불리는 자동 물시계를 국가의 새로운 표준 시계로 채택했다. 세종의 명을 받은 장영실은 더 정확한 물시계를 만들기 위해 시각을 측정하는 잣대의 길이를 4배 가량 키워 눈금을 세밀하게 새겨 넣고, 물받이 통을 비울 때도 연속적으로 시간을 썰 수 있게 통을 2개로 늘렸다. 여기에 자동으로 시간을 알려 주는 장치를 더하여 자격루를 완성하였다.

자격루는 시각을 측정하는 물시계, 물시계에서 측정된 시간을 소리로 바꿔 주는 시보 장치, 물시계와 시보 장치를 연결해 주는 방목(方木) 등 크게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현재 만 원짜리 지폐에서 볼 수 있는 물시계 부분은, 물을 공급하는 항아리인 파수호에서 물을 흘러 보내면 물받이 통인 수수호에 물이 고이는 구조로 되어 있다. 수수호에 띄워 놓은 잣대가 고인 물의 부력에 의해 떠오르면 잣대에 새긴 눈금을 읽어 시각을 알아낸다. 따라서 물시계의 정확도를 높이려면 수수호를 튼튼하게 제작하여 물이 가득 찼을 때 받는 수압에도 변형되지 않도록 만들 필요가 있었다. 실제 자격루의 수수호는 지금까지 원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시보 장치의 상단에 설치된 3개의 시보 인형은 시(時), 경(更), 점(點)마다 각각 종, 북, 징을 쳐서 시간을 알린다. 시보 인형 가운데 하나는 시를 알려 준다. 매 시각마다 인형의 팔뚝과 연결된 제어 장치가 작동하여 인형의 팔뚝을 움직이고 그 움직임이 종을 울리게 한다. 시를 담당한 인형이 종을 울리면 곧이어 시보 장치 하단에서 12지신 가운데 그 시에 해당하는 동물 인형이 시 이름이 적힌 팻말을 들고 나온다. 예를 들어 자시(子時)에는 쥐 인형이 '자(子)'라는 글자가 적힌 팻말을 들고 나와 지금 울린 종소리가 자시라고 알려 준다. 이러한 일련의 동작은 시보 장치 안에 있는 복잡하면서도 정교한 기계에 의해 자동으로 진행된다. 경과 점을 알려 주는 다른 2개의 인형은 경점법이라는 우리의 고유한 시간 표시 방법에 따라 작동하면서 시간을 더 자세하게 알려 준다.

아날로그-디지털 신호 변환기의 원리가 들어 있는 방목은 시보 장치가 자동으로 작동할 수 있는 동력을 제공한다. 즉, 수수호에 물이 차올라 잣대가 떠오르면서 방목 안에 설치된 장치가 구리로 만든 작은 구슬을 차례대로 떨어뜨린다. 연속적으로 흘러내리는 물의 양인 아날로그 신호가 일정한 간격마다 구슬이 떨어지는 불연속적인 디지털 신호로 변환되는 것이다. 그리고 구슬이 떨어지면서 발생하는 운동 에너지는 시보 장치에 전달되어 시간을 알려 주는 데 사용된다. ㉠ 한마디로 말해 자격루는 디지털 방식을 도입한 기계식 시계인 셈이다.

한편, 조선 왕조에는 자격루가 제작되기 전부터 시간을 측정하고 알려 주는 일을 담당하는 관청이 있었다. 물시계를 맡은 관리는 밤낮으로 물시계를 지켜보면서 시간을 알려 주었는데, 가끔씩 제때를 놓쳐 처벌되는 경우도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자동 시보 장치를 가진 정확한 물시계의 제작은 모든 시계 제작 기술자의 꿈이었으며, 예로부터 정확한 시간을 알려 줄 책무를 지닌 왕의 소망이기도 하였다. 자격루는 그 꿈을 실현시킨 15세기의 첨단 기술이었던 것이다.

45. 아래 그림은 윗글을 읽고 자격루의 구조를 추정하여 그린 것이다. ㉠~㉤의 명칭을 순서대로 배열한 것은?

㉠ ㉡ ㉢ ㉣

	㉠	㉡	㉢	㉣
①	수수호	파수호	잣대	시보 장치
②	물시계	파수호	방목	시보 장치
③	물시계	잣대	시보 장치	방목
④	파수호	수수호	방목	시보 장치
⑤	파수호	수수호	잣대	방목

46. <보기>를 이용하여 자격루에 대해 추론한 내용으로 잘못된 것은?

<보 기>

○ 경점법이란 해가 진 뒤부터 다음 날 해가 뜨기 전까지의 하룻밤을 5등분하여 5경으로 나누고, 1경은 다시 5등분하여 5점으로 나누는 방법이다.

○ 해가 뜨고 지는 시각은 매일 조금씩 변하므로 경과 점의 길이 역시 조금씩 달라진다.

- ① 경과 점을 알리는 시보 인형은 밤에만 작동한다.
- ② 12지신의 동물 인형은 항상 같은 간격으로 나타난다.
- ③ 밤낮의 길이 변화에 따라 눈금이 다르게 새겨진 잣대를 사용한다.
- ④ 북소리와 징소리가 울리는 시간 간격은 계절에 따라 달라진다.
- ⑤ 시보 인형 3개의 역할은 각각 오늘날 시계의 시침, 분침, 초침에 해당한다.

47. ㉠에 대해 판단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물시계 부분은 아날로그 방식이라고 생각해.
- ② 자격루는 기계식이라서 오늘날의 전자식 시계와는 차이가 있어.
- ③ 자격루를 자동 물시계라고 부르는 것은 디지털 방식이기 때문 이겠군.
- ④ 자격루에서 방목의 디지털 신호를 받아 작동되는 부분은 시보 장치야.
- ⑤ 시보 장치 안의 복잡한 기계 장치를 작동하기 위해 동력이 필요하구나.

48. 윗글을 읽고 ‘자격루의 원리’에 대한 심화 학습을 하고자 할 때, 던질 수 있는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자격루에서 발생하는 오차는 어떻게 보정했을까?
- ② 자격루는 언제까지 국가의 표준 시계로 사용되었을까?
- ③ 일반 백성들에게 시간을 알려 주는 방법은 무엇이였을까?
- ④ 조선 시대의 왕은 왜 그렇게 정확한 시간을 알려고 했을까?
- ⑤ 만 원짜리 지폐에 자격루 그림이 들어간 이유는 무엇일까?

[49~5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05.06

노래방이 청소년들의 문화 공간으로 자리잡은 지 오래이다. 지금 새삼스럽게 청소년의 노래방 문화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㉔ 진부한 일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노래방을 통해 청소년 문화의 문제를 바라볼 수 있다는 점에서 청소년의 노래방 문화를 살펴 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노래방에서 ‘방’은 두세 평 남짓한 ㉕ 밀폐된 공간이다. 이런 밀폐된 공간에 청소년들이 몰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청소년이 밀폐된 방을 찾아가는 여러 이유 중의 하나는 그들만의 문화 공간이 없기 때문이다. 밀폐된 ‘방’을 나와 탁 트인 사회의 ‘광장’으로 나오면 청소년들이 발붙일 곳이 없다. ‘광장’에는 기성세대의 문화만이 존재할 뿐 청소년 문화가 뿌리를 내리고 있지 못하다. 그리고 불순하고 병든 문화로부터 청소년을 보호 한다는 미명하에 각종 금기가 청소년을 ㉖ 억압한다. 청소년들이 그들만의 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공간을 광장에서 찾기는 어렵다. 그래서 청소년들은 노래방으로 향한다.

그런데 문제는 노래방 역시 청소년들만의 온전한 문화 공간이 되지 못한다는 점이다. 청소년들이 노래방에서 그들만의 독특한 문화를 만들어 가기란 매우 어렵다. 청소년들이 노래방에서 기성세대와는 다른 노래를 다른 방식으로 부르기에, 언뜻 보면 기성세대의 문화로부터 벗어나 자신들의 문화를 만들어 가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들이 부르는 노래는 상업주의에 몰든 기성 문화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문화도 상업 논리에 지배된다. 대중음악도 예외가 아니어서, 상업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노래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러한 경향은 공중과 방송에서 유행하는 십대 취향의 노래에서 잘 나타난다. 청소년들은 상업 논리에 따라 만들어진 노래를 노래방에서 부르면서 그 문화에 ㉗ 침윤되어 가고 있다. 실험적인 문화를 창출하는 데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할 ㉘ 청소년들이 상업화된 노래를 부르며 창의성을 상실해 가는 자리가 바로 노래방인 것이다.

자신들만의 문화 공간이 없어 노래방을 찾아가는 청소년들이, 기성세대의 상업적 문화에 몰들어 가는 이 안타까운 현상이야말로 오늘날 우리 사회의 청소년 문화가 갖는 문제점을 압축적으로 보여 준다. 이런 현상은 청소년들이 어둡고 밀폐된 ‘방’에서 밝고 환한 ‘광장’으로 나와 자유롭게 그들만의 문화를 ㉙ 향유하면서 다양한 문화 체험을 통해 창의적인 자기 계발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의무라는 점 또한 보여 준다. 청소년은 기성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여 그 빛깔에 물드는 스펀지와 같은 존재도 아니고 기성세대에 무조건적으로 대항하는 존재도 아니다. 청소년의 창의성이 한껏 발휘될 수 있는 열린 문화 공간이 마련된다면, 청소년 문화는 활성화되어 건강하게 꽃필 것이다. 이때 청소년은 기성세대의 보호와 감시의 대상이 아니라 밝고 건강한 문화를 창출하고 향유하는 주체가 되며, 청소년 문화는 우리 문화에 새로운 기운을 전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49.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특정 사례를 통해 문제를 일반화하고 있다.
- ② 사물이나 현상에 대해 관찰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 ③ 시간과 공간을 대비하여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
- ④ 현상의 원인을 사회적, 역사적 관점에서 진단하고 있다.
- ⑤ 대조되는 관점을 소개하고 그 중 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50. <보기>는 ㉚과는 다른 관점을 제시한 것이다.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청소년이 노래를 직접 만들어내야 청소년의 삶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다. 상업 예술은 상품을 구매하는 사람들에게 버림받으면 존재할 수 없다. 따라서 상업 예술의 생산자는 이러한 이유로, 노래방에서 불리는 노래에도 청소년들의 삶이 어느 정도는 담길 수 있다. 청소년들은 돈을 내고 문화 상품을 사는 행위를 통해서도, 자신들의 문화적 주체성을 어느 정도 실현시킨다고 할 수 있다.

- ① 상품을 고르는 구매자에게 최대한 편의를 제공할 수밖에 없다.
- ② 구매자의 욕구와 욕망과 취미를 짐작하고 거기에 맞출 수밖에 없다.
- ③ 구매자가 상품을 용이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생산량을 늘릴 수밖에 없다.
- ④ 구매자가 더 많은 상품을 살 수 있도록 적극적인 판촉 활동을 할 수밖에 없다.
- ⑤ 상업적 목적을 드러내면 구매자들에게 거부감을 주기 때문에 공익사업을 할 수밖에 없다.

51. 윗글의 논지에 따를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 ① 청소년을 위한 문화 공간을 마련한다.
- ② 청소년에게 기성세대의 문화를 이해하도록 한다.
- ③ 청소년에게 대중문화에 대한 비판 의식을 길러 준다.
- ④ 청소년이 노래방 출입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한다.
- ⑤ 학교 음악 교육에서 청소년들의 삶을 다룬 작품의 비중을 높인다.

52. ㉚~㉞의 사전적인 의미가 잘못된 것은?

- ① ㉚ 진부(陳腐)하다: 사상, 표현, 행동 따위가 낡아서 새롭지 못하다.
- ② ㉕ 밀폐(密閉)되다: 셀 틈이 없이 막히거나 닫혀 있다.
- ③ ㉖ 억압(抑壓)하다: 자기의 뜻대로 행동하지 못하도록 억누른다.
- ④ ㉗ 침윤(浸潤)되다: 병 따위가 들어 시들다.
- ⑤ ㉙ 향유(享有)하다: 누리어 가지다.

MEMO

MEMO

[57~6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05.06

생물다양성(biodiversity)이란 원래 한 지역에 살고 있는 생물의 종(種)이 얼마나 다양한가를 표현하는 말이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종의 다양성은 물론이고, 각 종이 가지고 있는 유전적 다양성과 생물이 살아가는 생태계의 다양성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확장해서 사용한다. 특히 최근에는 생태계를 유지시키고 인류에게 많은 이익을 가져다 준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생물 다양성의 가치가 크게 주목받고 있다.

생물다양성의 가장 기본적인 가치로 ㉠ 생태적 봉사 기능을 들 수 있다. 생물은 생태계의 엔지니어라 불릴 정도로 환경을 조절하고 유지하는 커다란 힘을 가지고 있다. 숲의 경우를 예로 들어 보자. 나무들은 서늘한 그늘을 만들어 주고 땅 속에 있는 물을 끌어 올려 다양한 생물종이 서식할 수 있는 적절한 환경을 제공해 준다. 숲이 사라지면 수분 배분 능력이 떨어져 우기에는 홍수가 나고 건기에는 토양이 완전히 말라 버린다. 이로 인해 생물 서식지의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되고 마침내 상당수의 종이 사라지게 된다. 이처럼 숲을 이루고 있는 나무, 물, 흙과 그곳에서 살아가는 다양한 생명체는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하면서 생태계의 환경을 조절하고 유지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다.

또한 생물다양성은 ㉡ 경제적으로도 커다란 가치가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의약품 개발을 꼽을 수 있다. 자연계에 존재하는 수많은 식물 중에서 인류는 약 20,000여 종의 식물을 약재로 사용해 왔다. 그 가운데 특정 약효 성분을 추출하여 상용화한 것이 이제 겨우 100여 종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전체 식물이 가지고 있는 잠재적 가치는 상상을 뛰어 넘는다. 그리고 부전나비의 날개와 사슴벌레의 다리 등에서 향암 물질을 추출한 경우나 야생의 미생물에서 페니실린, 마이신 등 약 3,000여 가지의 항생제를 추출한 경우에서도 알 수 있듯이, 동물과 미생물 역시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준다. 의약품 개발 외에도 다양한 생물이 화장품과 같은 상품 개발에 이용되고 있으며, 생태 관광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에도 기여한다.

㉢ 생물다양성은 학술적으로도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어 다윈(Darwin)은 현존하는 여러 동물들의 상이한 눈을 비교하여, 정교하고 복잡한 인간의 눈이 진화해 온 과정을 추적하였다. 그에 따르면 인간의 눈은 해파리에서 나타나는 원시적 빛 감지 세포로부터, 불가사리처럼 빛의 방향을 감지할 수 있는 오목한 원시 형태의 눈을 거친 다음, 빛에 대한 수용력과 민감도를 높인 초기 수정체 형태의 눈을 지나, 선명한 상을 제공하는 현재의 눈으로 진화되었다는 것이다. 이 사례에서 보듯이 모든 생물종은 고유한 형태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생물 진화의 과정을 추적하는 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형태적 특성 외에도 각각의 생물종이 지닌 독특한 생리적, 유전적 특성 등에 대한 비교 연구를 통해 생물을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축적된 정보는 오늘날 눈부시게 성장하고 있는 생명과학의 기초가 된다.

이와 같이 인간은 생물다양성에 기초하여 무한한 생태적, 경제적 이익을 얻고 과학 발전의 토대를 구축한다. 그런데 최근

급격한 기후 변화와 산업화 및 도시화에 따른 자연 파괴로 생물다양성이 크게 감소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억제하기 위한 생태계 보존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동시에 생물다양성 보존을 위한 연구 기관을 건립하고 전문 인력의 양성 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57. 밑줄에 나타나 있지 않은 것은?

- ① 생물다양성의 정의
- ② 생물다양성의 가치
- ③ 생물다양성의 보존 이유
- ④ 생물다양성의 보존 방안
- ⑤ 생물다양성 훼손의 정도와 양태

58. ㉠~㉢과 <보기>의 예를 적절하게 연결한 것은?

—<보 기>—

- ㉠ 미생물은 유기물을 무기물로 분해한다.
- ㉡ 식물에서 향료나 감미료로 사용될 수 있는 성분들을 분리하여 상품화한다.
- ㉢ 동물에서 새로운 원료를 채취하여 부작용이 없는化粧품을 만든다.
- ㉣ 생물종의 분포 양상을 대륙이동설과 연결하여 특정 생물종의 출현 시기와 이동 경로를 파악한다.
- ㉤ 식물은 광합성을 통해 동물의 호흡에 필요한 산소를 제공한다.
- ㉥ 리보솜 디엔에이(DNA)의 염기 서열 비교 연구로 생물이 진정세균, 지원세균, 진핵생물 등 세 영역으로 대별됨을 알게 되었다.

- | | ㉠ | ㉡ | ㉢ |
|---|------|------|------|
| ① | a, e | b, c | d, f |
| ② | a, e | b, d | c, f |
| ③ | a, f | b, c | d, e |
| ④ | b, c | a, f | d, e |
| ⑤ | b, e | a, d | c, f |

59. 윗글과 <보기>를 읽고 토의한 내용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생태계와 관련하여 일부 학자들은 ‘대갈못 가설’을 주장한다. 이 가설에서는 생태계를 마치 금속 조각판을 못으로 이어 만든 하나의 비행기에 비유한다. 만약 못이 하나씩 빠져나가면 비행기 동체는 점점 약해지고 어느 시점에 도달하면 비행기는 폭삭 무너지게 된다. 무너지기 직전의 마지막 못은 비행기 전체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요한 못이라고 할 수 있는데, 생태계에서 이에 해당하는 생물종을 이른바 ‘주춧돌 종’이라고 한다. 그런데 현재 우리는 생태계 구성 요소들 사이에 상호 작용하는 네트워크에 대해 거의 알고 있지 못하다.

- ① 비행기 동체가 점점 약해진다는 것은 생물다양성의 감소를 의미하는 거야.
- ② 생태계의 네트워크를 명확히 파악하면 ‘주춧돌 종’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
- ③ 비행기의 못 하나가 빠진다는 것은 생물종 하나가 사라지는 것을 비유하는 거야.
- ④ ‘주춧돌 종’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이를 중심으로 생물다양성을 보존해야 되겠어.
- ⑤ 생태계는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으므로 상시 감시 체계를 구축해 지속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겠어.

60. 글쓴이의 태도에 대해 비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 의지가 전혀 없다.
- ② 생물다양성의 경제적 가치를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다.
- ③ 생물다양성 문제를 주로 인간 중심적 시각으로 해석하고 있다.
- ④ 자연을 우선시하여 자연과 인간의 공존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
- ⑤ 인간과 자연을 대립 관계로 보면서 문제를 단편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34~3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05.예비 평가

한자로 우리말을 표기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었다. 하나는 한자의 음을 우리말 단어의 발음 기호로 활용하는 것으로서, '길동'이라는 지명을 적기 위하여 '吉[길]과 '同[동]을 끌어와 '吉同'으로 적고 [길동]으로 읽도록 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한자의 음을 빌려와 쓴다는 점에서 '음차 표기'라 한다. 다른 하나는 한자의 뜻, 다시 말해서 훈(訓)을 빌려와 우리말의 음을 표기하는 방법이다. '粟(밤 울)의 훈으로 [밤]을 나타내고, '峴(고개 현)의 훈으로 [고개]를 나타내어, '粟峴'으로써 우리말의 [밤고개]를 표기하는 것이다. '粟峴'을 [울현]이라 읽지 않고 [밤고개]로 읽는 이 방법은 한자의 뜻, 즉 훈(訓)을 빌려와 쓴다는 점에서 '훈차 표기'라 한다.

이러한 단어 중심의 한자 차용 표기는 점차 두 단계에 걸쳐 문장을 표기하는 방향으로 확대되었다. 문장 표기의 1단계는 '我愛汝'([아에여], 나 사랑 너)와 같이 '주어-서술어-목적어'의 중국어식 어순을, '我汝愛'(나 너 사랑)와 같이 '주어-목적어-서술어'의 우리말 어순으로 바꾸는 단계였다. 1단계는 점차 명사와 용언 어간에 각각 조사와 어미를 첨가하는 2단계로 이어졌다. 2단계에 속하는 향가 표기, 즉 향찰은 '我愛汝'에 조사나 어미를 붙여 '我隱 汝乙 愛爲隱如'([아은 여을 애위은여], 나는 너를 사랑하나다)와 같이 상당히 체계화된 문장 표기 모습을 보여준다. 향찰에서는 어절을 단위로 하여 대체로 뜻이 중요한 명사나 용언 어간은 '훈차'를 하고, 문법적 기능이 중요한 조사나 어미는 '음차'를 함으로써, 한 어절의 표기가 '훈차+음차'라는 일반적인 원칙을 갖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한자 차용 표기의 역사는 일본의 경우에도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런데 일본은 이러한 한자 차용 표기를 오늘날까지 계승하여 문자 생활을 하고 있지만, 우리의 경우에는 새 문자를 만들어 사용하고 있다. 그렇다면 한자 차용 표기를 알고 있던 세종대왕은 왜 일본과 달리 훈민정음을 창제하였는가? 이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일본어와 우리말이 갖는 음절의 특징에 주목하여 그 이유를 찾는다. 일본어는 음절이 간단하여 한자로 표기하는 데에 문제가 없었을 뿐 아니라 그 수도 50개 정도면 충분하였다. 이에 비해, 우리말은 [곳], [달]과 같이 한자로 나타낼 수 없는 음절이 많았을 뿐 아니라 그 수도 2,000개 이상이 필요하였다. 세종대왕은 이러한 한자 차용 표기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훈민정음을 창제한 것으로 보인다.

34. 윗글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것은?

- ① 훈차에서 한자 한 글자는 우리말 음절 하나와 대응되었다.
- ② '愛爲隱如(사랑하나다)의 '爲'(할 위)는 훈차 표기 방법을 따랐다.
- ③ [곳], [달]과 같은 음절은 한자 한 글자로 음차 표기할 수가 없었다.
- ④ '坪村'을 [평촌]으로 읽으면 음차가 되고, [별말](별마을)로 읽으면 훈차가 된다.
- ⑤ 한자 차용 표기는 '단어 표기 → 문장의 어순 조정 → 조사와 어미의 첨가' 순서로 전개되었다.

35.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훈민정음의 창제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향찰에서 보조 성분의 어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 ② 한자 차용 표기가 고려 시대 이후에는 사용되지 않아서
- ③ 한자로는 조사나 어미의 문법적 기능을 잘 드러낼 수 없어서
- ④ 한자 차용 표기로는 우리말의 소리를 충분히 표기할 수 없어서
- ⑤ 한자 차용 표기에서 음차는 문제가 없었지만, 훈차는 문제가 많아서

36. <보기>의 설명 중, 윗글로 미루어 타당한 것끼리 묶은 것은?

<보 기>

ㄱ. 고대에 우리말과 중국어의 발음은 달랐으나 어순은 비슷했다.

ㄴ. 어떤 언어 공동체의 문자와 표기는 그 공동체의 언어 특징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ㄷ. 한자 차용 표기에서 '훈차+음차' 표기의 단위는 현대국어 맞춤법의 띄어쓰기 단위와 관련이 깊다.

ㄹ. 현대 일본의 문자와 표기는 그들의 한자 차용 표기를 계승한 것이므로 향찰과는 공통점을 거의 찾을 수 없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 ④ ㄴ, ㄹ ⑤ ㄷ, ㄹ

37. <보기>의 우리말을 영어와 국어 로마자 표기법을 활용하여 향찰과 같은 방식으로 적어서 읽는다고 할 때, 쓰기와 읽기의 방법이 올바른 것은?

<보 기>

[나는 너를 사랑한다]

* 국어 로마자 표기법

ㄴ	ㄷ	ㄹ	ㅂ	ㅅ	ㅇ	ㅎ	ㅏ	ㅑ	ㅠ	ㅡ	ㅣ
n	d	r, l	b	s	ng	h	a	eo	yu	eu	i

- <쓰 기><읽 기>
- ① I-neun YOU-reul LOVE-handa. [na-neun neo-reul sarang-handa]
 - ② na-neun neo-reul sarang-handa [I-neun YOU-reul LOVE-handa]
 - ③ I-neun LOVE-handa YOU-reul. [I-neun LOVE-handa YOU-reul]
 - ④ ai-neun yu-reul reobeu-handa. [na-neun neo-reul sarang-handa]
 - ⑤ I-neun YOU-reul LOVE-handa. [ai-neun yu-reul reobeu-handa]

[38~4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005.예비 평가

(가) 흔히 '과학 기술'이라는 말을 하지만, 이론적 지식으로서의 과학과 실천적 지식으로서의 기술은 오랫동안 서로 다른 길을 걸어 왔다. 과학은 ① 사물이나 현상의 본질에 관심을 갖고 이론을 만들어 내는 데 중점을 두는 반면, 기술은 환경을 적극적으로 변형하여 실용적인 발명품을 만들어 내는데 ㉠ 중점을 둔다. 활동 성과를 평가할 때도 과학은 지식의 진위(眞僞)를 문제 삼지만, 기술은 결과의 성공 여부를 문제 삼는다. 또한 과학적 지식은 별 제약 없이 널리 보급되지만, 기술적인 발명은 특허로 보호되어 제한적으로 보급된다.

(나) 기술은 인류의 탄생과 함께 시작되었다. 태초부터 인간은 생존을 위해 자연을 이용하는 방법을 고안하였던 것이다. 고대의 발명품 가운데 인류 문화의 각 시기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이용되는 돌, 청동, 철 등은 ② 과학과 상관없이 순수한 기술 분야에서 얻어진 것이다. 이후 바퀴, 그릇, 선박, 인쇄술, 동력 등을 이용하면서 생활이 급격하게 변화되었던 것도 사실상 기술의 논리에 바탕을 두고 있다. 발명 과정에 작용하는 원리를 이론적으로 이해하기 이전에도 기술자들은 많은 고안물들을 만들어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하였던 것이다.

(다) 한편 희랍 시대부터 자연 철학에 속해 있던 과학은 16~17세기의 과학 혁명을 거치면서 자연계를 설명할 수 있는 학문적 체계를 갖추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과학은 기술과 어떤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별도의 세계로 존재했다. 산업 혁명의 3대 발명품이라고 할 수 있는 증기기관과 면직기, 선반을 발명할 때도 당시의 과학은 거의 기여하지 못했다.

(라) 이와 같이 과학과 기술은 그 특성과 역사에서 구별되며, 이는 지금도 마찬가지다. 즉, 기술 전체가 과학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니며, 모든 과학 이론이 기술에서 도출되는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세기 중반 이후부터 과학과 기술은 호혜적이며 공생적인 특성을 바탕으로 본격적으로 제휴하게 되었다. 기술은 ③ 새로운 과학적 사실을 검증하는 실험적 수단을 제공하거나 ④ 새로운 과학적 발견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였고, 과학은 ㉡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법칙과 이론을 제공하게 되었던 것이다.

(마) 기술자들은 과학자들의 연구 성과를 기술 개발에 직접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연구 성과를 분석하고 이를 적용할 수 있는 기술적 가능성을 다양한 방법으로 시험하며,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와 같이 '연구와 개발'의 절차를 강조하는 학문적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 응용 과학이다. 그리하여 응용 과학은 그 목적과 접근 방법이 서로 다른 과학과 기술 사이에서 과학적 이론을 기술에 적용하는 방법들을 연구하고, 기술에 과학적 근거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분과 학문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38. 앞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기술과 과학은 상호 보완적 특성이 있다.
- ② 응용 과학은 과학을 기술화하는 역할을 한다.
- ③ 과학은 기술의 실용성을 검증하는 수단을 제공한다.
- ④ 기술은 실용적인 발명품을 개발하는 데 중점을 둔다.
- ⑤ 과학은 새로운 기술 개발의 이론적 근거가 될 수 있다.

39. (가)~(마)의 내용과 그에 대한 설명 방법으로 올바른 것은?

- ① (가): 과학과 기술의 특징을 차이점에 주목하여 설명하였다.
- ② (나): 기술의 독자적인 발전 과정을 비판적으로 설명하였다.
- ③ (다): 과학의 변천 과정을 분야별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 ④ (라): 과학과 기술의 관계를 비유적인 방법으로 설명하였다.
- ⑤ (마): 응용 과학의 성립 과정을 시간 순서에 따라 설명하였다.

40. ㉠~㉡의 예로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 주장
- ② ㉠: 펜식기와 간식기의 발명
- ③ ㉡: 현미경을 이용한 생물학 이론의 검증
- ④ ㉡: 병리학을 바탕으로 한 의술의 발전
- ⑤ ㉡: 원자력 기술 개발에 대한 물리학의 기여

41. ㉠과 바꾸어 쓰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주력(注力)한다. ② 정진(精進)한다.
- ③ 착안(着眼)한다. ④ 기여(寄與)한다.
- ⑤ 몰입(沒入)한다.

42. 글쓴이의 궁극적인 의도를 가장 잘 나타낸 것은?

- ① 과학과 기술의 특징과 기원을 보여 주고자 하였다.
- ② 과학의 합리성과 기술의 실용성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 ③ 과학자와 기술자의 연구 방법론을 비교하고자 하였다.
- ④ 과학과 기술의 독자적 관심 영역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 ⑤ 과학과 기술의 제휴 가능성과 실재를 드러내고자 하였다.

[43~4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005.예비 평가

(가) 내가 감각하는 사물들이 정말로 존재하는가? 내가 지금 감각하고 있는 이 책상이 내가 보지 않을 때에도 여전히 존재하는지, 혹시 이것들이 상상의 산물은 아닌지, 내가 꿈을 꾸고 있는 것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내 감각을 넘어서 물리적 대상들이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할 길은 없다. 데카르트가 방법적 회의를 통해서 보여 주었듯이, 인생이 하나의 긴 꿈에 불과하다는 ‘꿈의 가설’에서 어떤 ㉠ 논리적 모순도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 논리적 가능성이 ㉢ 진리를 보장하지는 않으므로, 꿈의 가설을 굳이 진리라고 생각해야 할 이유도 없다.

(나) 꿈의 가설보다는, 나의 감각들은 나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대상들이 나에게 작용하여 만들어 낸 것들이라는 ‘상식의 가설’이 우리가 경험하는 사실들을 더 잘 설명한다. 개 한 마리가 한 순간 방 한편에서 보였다가 잠시 후 방의 다른 곳에 나타났다고 해 보자. 이 경우에 그것이 처음 위치에서 일련의 중간 지점들을 차례로 통과하여 나중 위치로 연속적인 궤적을 따라서 이동하였다고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러나 그 개가 감각들의 집합에 불과하다면 내게 보이지 않는 동안에는 그것은 존재할 수가 없다. 꿈의 가설에 따르면 그 개는 내가 보고 있지 않은 동안에 존재하지 않다가 새로운 위치에서 갑자기 생겨났다고 해야 한다.

(다) ㉣ 그 개가 내게 보일 때나 보이지 않을 때나 마찬가지로 존재한다면, 내 경우에 미루어 그 개가 한 끼를 먹고 나서 다음 끼니 때까지 어떻게 차츰 배고픔을 느끼게 되는지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개가 내가 보고 있지 않을 때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 동안에도 점점 더 배고픔을 느끼게 된다는 것은 이상해 보인다. 따라서 나의 변화하는 감각 경험은, 실재하는 개를 표상하는 것으로 간주하면 아주 자연스럽게 이해되지만, 단지 나에게 감각되는 색깔과 형태들의 변화에 지나지 않는다고 간주하면 전혀 설명할 길이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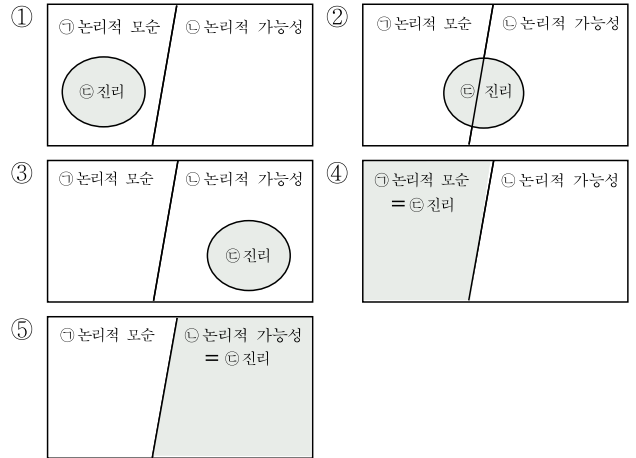
(라) 사람의 경우 문제는 더 분명하다. ㉤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들을 때, 내가 듣는 소리가 어떤 생각, 즉 내가 그러한 소리를 낼 때에 갖는 생각과 비슷한 어떤 생각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고 여기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최선의 설명을 제공하는 가설을 택하라’는 원칙에 따르면, 나 자신과 나의 감각 경험을 넘어서 나의 지각에 의존하지 않는 대상들이 정말로 존재한다는 상식의 가설을 택하는 것이 합당하다.

- 러셀, 『철학의 문제들』 -

43. 윗글의 논증 과정을 잘못 정리한 것은?

- (가)로부터 → 상식의 가설을 증명하는 방법은 없다. …… ㉠
- (나)~(라)로부터 → 꿈의 가설은 나의 감각 경험을 잘 설명하지 못한다. …… ㉡
- (라)로부터 → 상식의 가설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지지한다. …… ㉢
- 가설 선택의 원칙 → 최선의 설명을 제공하는 가설을 택하라. …… ㉣
- 결론 → 그러므로 상식의 가설을 받아들이는 것이 합당하다. …… ㉤

44. (가)의 설명에 따를 때, ㉠~㉤의 관계를 바르게 나타낸 것은?



45. ㉣와 ㉤에 공통된 추론 방식은?

- ① 사람들의 말에 기대어 추측하였다.
- ②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유추하였다.
- ③ 가정을 세우고 그 귀결을 검토하였다.
- ④ 직관을 통하여 사례의 본질에 도달하였다.
- ⑤ 알려진 진리로부터 새로운 진리를 연역하였다.

46. 윗글과 <보기>의 대비점을 가장 잘 지적한 것은?

—<보 기>—

인간은 본능적으로 독립적인 외부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믿는다. 우리는 윗글의 논증을 접하기 전부터, 반성 능력을 갖기 훨씬 전부터 이미 이런 믿음을 갖고 있었다.

- ① 윗글은 감각을 넘어서려고 하지만, <보기>는 감각을 본능적인 것으로 본다.
- ② 윗글은 감각을 통하여 믿음에 도달하지만, <보기>는 믿음을 통하여 반성에 도달한다.
- ③ 윗글은 상식을 확고한 사실로 간주하지만, <보기>는 상식에 대하여 회의를 제기한다.
- ④ 윗글은 합당한 가설을 찾는 데 실패하지만, <보기>는 그러한 가설에 성공적으로 도달한다.
- ⑤ 윗글은 믿음이 어떻게 정당화되는지를 논하지만, <보기>는 그러한 믿음이 선천적으로 주어진 것이라고 본다.

[47~5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005.예비 평가

현대 미술의 탄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9세기 후반의 인상파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인상파는 고전주의적 균형과 정확한 묘사를 중시하던 인습을 타파하고 색채 묘사의 혁명을 일으켰다. 인상파 화가들은 미술 학교에서 배운 대로 신화와 같은 품위 있는 주제를 완벽한 구성으로 그려 내는 대신에, 밝게 빛나는 자기 주변의 세계를 생동감 있게 옮겨 놓으려 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평범한 중산층의 행복한 생활 단면이나 해돋이와 같은 순간적 장면도 색채의 아름다운 배열만 지니고 있다면 그림의 소재로 삼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인상파는 하나의 유파로서 그리 오래 지속되지 못했다. 세잔과 고흐, 고갱 등의 후기 인상파 화가들이 한편으로 인상파가 이룩한 업적을 당연한 것으로 수용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인상파에 대한 반발과 저항을 시도하였기 때문이다. 세 화가는 눈에 비친 자연을 인상파처럼 묘사하는 과정에서 뭔가 중요한 것을 상실했다고 느꼈고, 그것을 찾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였다. 그런데 그들은 인상파를 극복하려 한 점에서는 공통적이었지만 그 지향하는 방향은 서로 달랐다.

먼저 세잔은 인상파가 순간의 감각에만 사로잡힌 나머지 자연의 변함없는 형태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생각했다. 그는 색채의 밝음을 상실하지 않으면서 화면에 깊이와 거리감을 부여하려 했고, 이를 위해 '세계의 모방'이라는 전통적 목적을 버린 채 기하학적 형태와 색채 간의 관계를 탐구하였다. 고흐는 인상파가 시각적인 인상에 너무 ㉠ 빠져 빛과 색의 광학적 성질만을 탐구했다고 판단했다. 인상파의 미술이 정열을 상실할 위험에 처해 있다고 보았던 것이다. 그리하여 그는 예술가의 활기찬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예술의 목적이라고 하면서, 이를 달성하기 위해 거친 붓자국으로 격정적 내면을 표출하였고 필요한 경우 형태의 왜곡까지도 감행하였다. 한편 고갱은 서구 문명이 축적한 근대적 학문과 예술 전반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 을 열망했고, 그것은 복잡한 물질 문명 속에서는 발견할 수 없다고 여겼다. 그래서 미련 없이 세련된 인상파적 요소를 버리고 원시적 가치를 찾아 나설 수 있었다.

현대 미술은 위에서 언급한 인상파와 후기 인상파를 계승한 것이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인상파의 주제 접근 방식은 현대 미술의 폭을 넓혀 주었고 세잔, 고흐, 고갱이 제기한 문제의식은 입체파, 표현주의, 원시주의, 야수파 등 현대 미술 사조가 등장할 수 있는 기초가 되었다. 그리하여 현대 미술가들은 사물을 눈에 보이는 그대로 재현한다는 관념에서 벗어나 어떤 시대보다도 자유롭게 창작 활동을 펼칠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47. 윗글을 바탕으로 '현대 미술'의 특징을 설명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인간이 겪는 여러 가지 심리적 상태를 포착하여 표현하였다.
- ②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형식미를 추구하였다.
- ③ 자연의 빛깔에 얽매이지 않고 강렬한 색채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였다.
- ④ 구(球), 원기둥, 원뿔, 육면체 등의 기본 요소들로 화면을 구성하였다.
- ⑤ 추상적 이론 대신 문명화되지 않은 토착민의 작품에서 창작 동기를 얻었다.

48. 세잔, 고흐, 고갱이 토론을 한다고 할 때, 윗글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은 것은?

- ① 세잔: 그림을 잘 그리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기하학을 더 공부해야 하지 않을까?
- ② 고흐: 수학적 지식이 그림 그리는 데 큰 도움을 줄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요즘 난 생물학에 매료되어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중이야.
- ③ 고흐: 그런 학문에 의지하는 것보다는 마음 속의 열정을 표현하는 게 진정한 예술가의 자세가 아닐까?
- ④ 세잔: 그래도 사물들의 형태를 무시할 수는 없잖아.
- ⑤ 고흐: 창조적인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대상을 약간 변형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

49. 세 화가가 인상파를 수용하고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을 중심으로 사실적인 전기 영화를 만들려고 한다. 고려할 사항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요소	고려사항
① 영화 배우	고흐 역은 열정적 성격이 겉으로 드러나는 배우를, 세잔 역은 과학도의 분위기를 풍기는 배우를 섭외한다.
② 촬영 장소	미술의 도시 파리, 날씨가 쾌청한 프랑스 남부, 남태평양 어느 섬의 토착민 마을로 설정한다.
③ 촬영 기법	다양한 기법을 사용한다. 고흐의 창작 과정을 촬영할 때에는 클로즈업(close-up)과 같이, 표정을 통해 내면의 변화를 포착할 수 있는 기법을 활용한다.
④ 의상과 소품	19세기 후반에 일반인들이 즐겨 입은 의상과 각종 그림 도구, 제도 용구 등을 준비한다.
⑤ 음악과 음향	잔잔하고 평탄한 곡조의 서정적인 주제 음악과 야외 장면엔 필요한 각종 효과음을 준비한다.

50. ‘빠진’이 ㉠과 같은 의미로 쓰인 것은?

- ① 차는 강가의 진흙 수렁에 빠진 상태였다.
- ② 새 왕은 먼저 빈곤에 빠진 농민들을 구제하였다.
- ③ 악마의 유혹에 빠진 주인공은 파멸의 길을 걸었다.
- ④ 어머니는 컴퓨터 게임에 빠진 아들을 몹시 걱정하였다.
- ⑤ 그의 우정은 궁지에 빠진 친구를 도와줌으로써 확인되었다.

51. <보기>는 고갱을 계승한 작품과 그에 대한 해설이다. 이를 바탕으로 ㉠에 들어갈 말을 고를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즐거운 어릿광대들’이라는 앙리 루소의 이 그림은 도시에서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소재를 때묻지 않은 시각으로 다루고 있다. 그림 속의 동식물들은 실제 모습과 달리 꿈속에서처럼 불가사의하게 보인다. 이 그림은 취향이 까다롭고 격조 높은 사람에게서는 우습게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순수한 색과 구성을 통해 드러나는 솔직한 정서는 보는 사람들을 감동 시키기에 충분하다.

- ① 고상하고 초월적인 것 ② 솔직하고 건강한 것
- ③ 신비하고 몽환적인 것 ④ 소박하고 순수한 것
- ⑤ 원시적이고 이국적인 것

[52~5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005.예비 평가

(가) 20세기 초반 천문학자 허블은 윌슨 산의 망원경을 통해 먼 은하들을 관측하다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였다. 은하들이 발하는 빛의 파장이 스펙트럼에서 본래 있어야 할 위치보다 붉은색 쪽으로 치우치는 ‘적색편이(赤色偏移)’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즉, 은하들이 발하는 빛의 파장이 본래의 파장값보다도 큰 값으로 지구상에서 관측된 것인데, 이는 은하들이 지구에서 점점 멀어져 가고 있음을 알려 주는 증거였다.

(나) 흥미로운 것은 지구와 관측 은하 사이의 거리가 적색편이의 비율과 서로 비례 관계를 가진다는 사실이었다. 여기에 ㉠를 결합시키면, 은하가 지구로부터 멀어지는 속도는 지구와 은하 사이의 거리에 비례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다) 가까운 은하보다 먼 은하의 후퇴 속도가 더 빠르다는 사실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일정한 간격으로 정렬한 사람들이 있는데, 사이가 좁아지는 순간이 없이 간격을 1m만큼 더 벌린다고 해 보자. 간단히 생각하면 어느 한 사람을 기준으로 삼아서 다음 사람부터 동시에 1m씩 이동하면 해결될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기준이 되는 사람에게서 첫 번째 사람은 1m 이동하면 되지만 두 번째 사람은 2m, 세 번째 사람은 3m를 물러서야 한다. 같은 방식으로 N 번째 사람이라면 Nm만큼 물러서야 할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의 사이가 좁아지지 않아야 하므로, 기준으로부터 먼 사람은 가까운 사람보다 빨리 움직여야 하는 것이다.

(라) 허블은 이러한 연구를 통해 은하가 우리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으며 우주가 팽창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그의 발견 이전에 많은 천문학자들은 우주는 움직이지 않는 존재라고 생각하여 정적(靜的)인 우주의 모습을 기술하려고 애썼다. 정적인 우주관이 당시의 지배적인 우주관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은하들의 움직임을 배제하고 우주를 엮어 놓으면 중력에 의해 은하들이 모여들기 때문에 그 정적인 모습은 바로 붕괴된다. 하지만 허블이 우주가 정적일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이 문제는 해결되었다.

(마) 팽창우주에서 재미있는 점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간다고 가정하면 어떤 은하에서 보더라도 주위의 다른 은하들이 그 은하를 향하여 접근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다. 팽창할 때 먼 은하가 더 빠른 속도로 멀어져 갔던 것처럼 이 경우에는 먼 은하일수록 더 빨리 우리에게 접근해 올 것이다. 그리고 어느 시점에 이르면 모든 은하가 한 곳에 모이게 되는 ‘태초’의 순간이 된다. 우주의 모든 물질이 모여 있었으니 태초의 우주는 엄청나게 밀도가 높고 뜨거웠을 것이다. 그 상태에서 대폭발을 일으켜 오늘날의 우주가 되었다는 것이 현대 우주론의 정설이다.

52.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가까운 은하보다 먼 은하의 후퇴 속도가 빠르다.
- ② 과거에는 은하들이 지금보다 서로 가까이 있었을 것이다.
- ③ 중력만 작용하는 은하들로는 정적인 우주를 만들 수 없다.
- ④ 먼 은하보다 가까운 은하에서 오는 빛의 파장값 변화가 크다.
- ⑤ 적색편이 현상은 은하들이 지구에서 점점 멀어진다는 것을 알려 준다.

53. ㉠을 참조할 때, <보기>의 ‘아인슈타인’에 대해서 보일 수 있는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아인슈타인은 자신의 중력장 방정식이 동적인 우주를 설명함에도 불구하고, 정적인 우주관에 따르기 위해 ‘우주론적 항’이라는 상수를 도입하여 방정식을 수정하였다. 5년 뒤 프리드먼이 우주론적 항을 제거하면서 아인슈타인의 원래 방정식이 맞다고 지적했지만, 아인슈타인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허블의 연구는 아인슈타인의 원래 방정식이 옳았다는 것을 입증해 주었다.

- ① 중력장 방정식을 만들어 동적인 우주의 타당성을 주장할 만큼 그는 앞서 가는 과학자였군.
- ② 정적인 우주관에 대해 반발하여 프리드먼의 비판을 수용하지 못한 것은 그의 커다란 실수야.
- ③ 방정식의 수정을 통해 동적인 우주관까지 수용하려 한 것은 그의 개방적인 태도를 보여 주는군.
- ④ 자신의 올바른 방정식을 수정할 만큼 그도 당시의 지배적 우주관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구나.
- ⑤ 당시의 지배적 우주관을 바꾸기 위해 그가 자신의 방정식을 수정했던 것은 다소 성급한 행동이었어.

※ 뒷글의 내용을 수업 시간에 발표하기 위해 <보기>와 같이 자료를 수집하였다. 뒷글과 <보기>를 바탕으로 54번, 55번 두 물음에 답하십시오.

<보 기>

시작: 학우들의 흥미를 끌 만한 자료
 → 월슨 산의 망원경 사진 ㉠

전개
 (가): '적색편이'의 개념 설명
 → 은하들이 발하는 빛의 파장을 스펙트럼 위에 표시한 사진 ㉢

(나): '적색편이, 속도, 거리'의 관계 설명
 → 이들의 관계를 나타내는 그래프

(다): 거리와 속도의 관계 설명
 → 거리가 멀수록 속도가 빠름을 보여 주는 삽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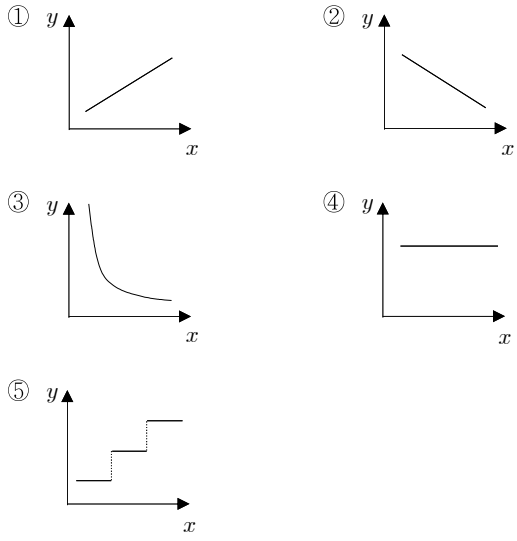
(라): 정적인 우주와 중력의 관계 설명
 → 은하들이 서로 점차 가까워지는 모습을 담은 플래시 동영상 ㉣

(마): 동적인 우주와 시간의 관계 설명
 → 은하의 모습과 지구의 공전 궤도를 그린 그림 ㉤

정리: 글 내용에 관한 간단한 문제

54. <보기>의 ㉠~㉤ 중, 발표를 위한 자료로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 ② ㉢ ③ ㉡ ④ ㉣ ⑤ ㉤

55. <보기>의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는 그래프를 그려 보았다. 뒷글의 ㉢에 들어갈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x : 적색편이의 비율, y : 멀어지는 은하의 속도)



[56~6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005.예비 평가

초기의 경제학 이론에서는 상품 가격이 수요와 공급의 요인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보고 있었다. 이 이론에서는 모든 인간들이 똑같은 욕구를 지니고 의사 결정을 한다고 전제하였다. 그러나 실제의 인간들은 같은 상황 속에서도 서로 다른 선택을 하며 성장 과정의 차이나 교육의 정도, 자신이 속한 집단의 특성 등에 따라 욕구의 우선 순위나 성취 방식이 다르다. 그러므로 인간들의 소비 욕구는 경제적 요인뿐만 아니라 차별화, 모방, 유행 등 문화적 요인에도 영향을 받는다.

㉠ 인간들은 소비를 통해 자신이 속한 집단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동시에 다른 집단과의 차별성을 나타낸다. 소비하는 품목과 방식은 성, 연령, 직업, 계층, 신분 등에 따라 달라진다. 부르디외에 따르면, '취향'은 가정 환경과 같은 개인의 성장 배경에서 길러진 것이지만 자신의 취향을 '타고난 성향'으로 인식하고 다른 사람의 취향을 ㉡ 백안시(白眼視)함으로써 계층을 구분하는 강력한 심리적 기제로 작용한다고 한다.

18세기 이전까지 영국에서 설탕은 이국적인 향신료이자 약품으로 귀족들만 향유하던 사치품이었다. 그러나 식민지에 플랜테이션이 만들어져 설탕이 대량으로 수입되면서, 설탕의 소비는 중산층과 노동자층까지 확산되기 시작했다. 중산층과 노동자층의 설탕 소비는 처음에는 귀족들을 모방한 것이었지만, 설탕이 대중화되면서 더 이상 특별한 사회경제적 지위를 표시하는 수단이 되지 못했다. 이렇게 되자 귀족들은 다른 소비재를 선택하여 다른 계층과의 차별성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이처럼 소비 방식에서 나타나는 모방과 차별화 전략은 한 사회 내에서 동시에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소비의 또 다른 특징적인 현상으로는 유행을 들 수 있다. 유행의 특징은 끊임없이 새롭게 만들어지며 빠르게 확산되고 소멸된다는 것이다. 유행은 낡은 것과 새로운 것을 대비시키며, 다른 사람과 자신을 구별하고자 하는 '개성화'에서 비롯되지만, 뒤떨어지지 않으려는 대중 심리를 자극하여 충분히 확산되면 그 수명을 다하게 된다. 인류 역사상 현대의 자본주의 체제만큼 유행이 소비에서 중요한 시대는 없었다. 현대의 자본주의적 생산 체계는 시장의 확대를 위하여 유행 메커니즘을 이용하고 있고, 광고나 백화점, 홈쇼핑 등에서 발전된 판매 기술은 유행의 소비를 촉진시키고 있다. 백화점은 새로운 상품을 찾는 소비자들의 일상적인 소비의 순례 장소가 되었고, ㉢ 광고는 대중에게 신상품의 이미지를 전달하는 가장 강력한 매체가 되었다. 유행이 소비를 주도하면서 현대의 소비는 점차 상품 자체보다는 그 상품이 표상하는 이미지와 기호에 따라 이루어지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되었다.

56. 윗글의 제목으로 적합한 것은?

- ① 소비에서 유행의 중요성
- ② 문화적 시각에서 본 소비
- ③ 현대 자본주의 사회와 문화
- ④ 소비 욕구의 보편성과 다양성
- ⑤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소비 형태

57. ㉠의 예로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 ① 친구들과의 대화에서 소외되지 않기 위해 유행하는 게임 프로그램을 산다.
- ② 아토피성 피부병을 앓고 있는 자녀를 위해 야채 위주로 시장을 본다.
- ③ 청소년들은 인터넷에서 아바타를 꾸미는 데 용돈을 아끼지 않는다.
- ④ 1920년대의 신여성들은 그들의 부모와 달리 금시계를 즐겨 샀다.
- ⑤ 신입 사원이 고급 외제 승용차를 타면 구설수에 오르기 쉽다.

58. ㉡과 같이 '-시(視)하다'를 붙인 말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동일시(同一視)하다 ② 당연시(當然視)하다
- ③ 문제시(問題視)하다 ④ 적대시(敵對視)하다
- ⑤ 달관시(達觀視)하다

59. ㉢을 바탕으로 <보기>의 내용을 이끌어 내려고 할 때, 근거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소비자들은 광고의 이미지를 일방적으로 수용하지 않는다. 그들은 마음에 드는 광고가 있으면 자기 감각에 맞게 독창적으로 받아들이며 주변으로 확산시킨다. 예컨대 글자를 깨치지 못한 어린아이라도 광고 내용을 일상생활에서 창의적으로 활용한다.

- ① 광고는 개인적 성격보다 공공적 성격이 강하다.
- ② 광고는 소비자와 상품을 일체화하는 경향이 있다.
- ③ 광고는 소비자의 문화적 상상력을 자극하는 중요한 원천이다.
- ④ 광고는 소비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상품의 구매를 유도한다.
- ⑤ 광고는 소비자로 하여금 상품 구매를 통해 우울감을 느끼게 한다.

60. 윗글의 내용을 심화 학습하기 위해 인터넷에서 ‘소비’, ‘유행’, ‘자본주의’를 함께 입력하여 검색해 보았다. 학습에 활용하기에 가장 거리가 먼 사이트는? [3점]

통합검색 디렉토리 웹문서 이미지 뉴스 백과사전

통합검색 소비+유행+자본주의 **검색**

웹페이지 [총 740개 중 1-5]

- ① **소비와 여가 생활** [현재창] <http://www.geen.pe.kr/content04.htm/.....>
 ...여가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새로운 여가 문화가 출현함에 따라 **소비** 형태도 특화... 같은 취미를 매개로 한 동호인 모임의 **소비** 형태를 소개...
- ② **신세대 소비 문화** [현재창] <http://seou.or.kr/ghstudy/.....>
 ...소위 신세대라 불리는 젊은이들은 **소비**를 통해 자신들을 어떻게 표현... 특정한 상표의 **유행**은 그들에게 어떤 의미로...
- ③ **유행의 필요성** [현재창] <http://www.mbard.ac.kr/s17.htm/.....>
 ...산업 사회에서 **유행**이 필요한 것은 짧은 시간에 대량 **소비**를 가능... **유행**은 **자본주의** 사회에 살아가는 한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사회 현상...
- ④ **유행 통신** [현재창] <http://magazie.co.kr/section1/.....>
 ...최신 **유행**하는 국내외 제품의 가격 비교, 할인 판매... 뷰티 뉴스, 라이프 스타일, 연예인 소식 등 제공...
- ⑤ **현대 자본주의와 소비** [현재창] <http://owun.gr.kr/210.104.18.1/.....>
 ...현대 **자본주의**에서는 **소비**를 통해 정체성을 느끼는 여러 집단이 탄생... 기업들도 우리 현실에 맞는 마케팅 기법을 개발하는 것이 생존을 위해...

⇨ 다음 페이지

[20~2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004.11

인간은 성장 과정에서 자기 문화에 익숙해지기 때문에 어떤 제도나 관념을 아주 오래 전부터 지속되어 온 것으로 여긴다. 나아가 그것을 전통이라는 이름 아래 자기 문화의 본질적인 특성으로 믿기도 한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전통의 시대적 배경 및 사회 문화적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여기에서 과거의 문화를 오늘날과는 또 다른 문화로 보아야 할 필요성이 생긴다.

홉스봄과 레인저는 오래된 것이라고 믿고 있는 전통의 대부분이 그리 멀지 않은 과거에 '발명'되었다고 주장한다. 예컨대 스코틀랜드 사람들은 킬트(kilt)를 입고 전통 의식을 치르며, 이를 대표적인 전통문화라고 믿는다. 그러나 킬트는 1707년에 스코틀랜드가 잉글랜드에 합병된 후, 이곳에 온 한 잉글랜드 사업가에 의해 불편한 기존의 의상을 대신하여 작업복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이후 킬트는 하층민을 중심으로 유행하였지만, 1745년의 반란 전 까지만 해도 전통 의상으로 여겨지지 않았다.



반란 후, 영국 정부는 킬트를 입지 못하도록 했다. 그런데 일부가 몰래 집에서 킬트를 입기 시작했고, 킬트는 점차 전통 의상으로 여겨지게 되었다. 킬트의 독특한 체크무늬가 각 씨족의 상징으로 자리 잡은 것은, 1822년에 영국 왕이 방문했을 때 성대한 환영 행사를 마련하면서 각 씨족장들에게 다른 무늬의 킬트를 입도록 종용하면서부터이다. 이때 채택된 독특한 체크무늬가 각 씨족을 대표하는 의상으로 ㉠ 자리를 잡게 되었다.

킬트의 사례는 전통이 특정 시기에 정치·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만들어지기도 한다는 것을 보여 준다. 특히 근대 국가의 출현 이후 ㉡ 국가에 의한 '전통의 발명'은 체제를 확립하는 데 큰 역할을 담당하기도 하였다. 이 과정에서 전통은 그 전통이 생성되었던 시기를 넘어 아주 오래 전부터 지속되어 온 것이라는 신화가 형성되었다. 그러나 전통은 특정한 시공간에 위치하는 사람들에 의해 생성되어 공유되는 것으로, 정치·사회·경제 등과 밀접한 관련을 맺으면서 시대마다 다양한 의미를 지니게 된다. 그러므로 전통을 특정한 사회 문화적 맥락으로부터 분리하여 신화화(神話化)하면 당시의 사회 문화를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없게 된다.

낯선 타(他) 문화를 통해 자기 문화를 좀 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듯이, 과거의 문화를 또 다른 낯선 문화로 봄으로써 전통의 실체를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관점은 신화화된 전통의 실체를 폭로하려는 데에 궁극적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과거의 문화를 타 문화로 인식함으로써 신화 속에 묻혀 버린 당시의 사람들을 문화와 역사의 주체로 복원하여, 그들의 입장에서 전통의 사회 문화적 맥락과 의미를 새롭게 조명하려는 것이다. 더 나아가 이러한 관점을 통해 우리는 현대 사회에서 전통이 지니는 현재적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20. 윗글 전체의 논지 전개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연관된 개념들의 상호 관계를 밝혀 문제의 성격을 규명하고 있다.
 - ② 사례를 통해 사회적 통념의 역사적 변화 과정을 추적하고 있다.
 - ③ 상반된 주장을 대비한 후 절충적인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 ④ 논지를 제시하고 사례를 통하여 그것을 뒷받침하고 있다.
 - ⑤ 사례의 비교를 통해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21. 윗글의 핵심 주장은?
- ① 신화화된 전통의 실체를 밝힘으로써 과거와 현재의 넘나들이 가능하다.
 - ② 전통을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과거의 문화를 낯선 타 문화로 볼 필요가 있다.
 - ③ 전통은 근대 국가의 출현 이후 체제를 확립하고 유지하는 역할을 하였다.
 - ④ 전통은 아주 오래 전부터 지속된 것으로서 문화의 본질적 특성을 이룬다.
 - ⑤ 전통은 특정한 사회 문화적 맥락에서 분리해서 보아야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22. 김치 문화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를 윗글의 주요 개념을 적용하여 분류하였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김치 문화에 대한 조사 결과	개념 적용
◦ 한국인은 먼 옛날부터 새빨갛고 매운 김치를 먹어 온 것으로 여기고 있다.	전통의 신화화 ①
◦ 고추는 임진왜란 무렵에 들어왔고, 오늘날 가장 널리 사용되는 배추의 품종은 100여 년 전에 들어왔다. ◦ 김치는 기본적인 음식이기는 했지만, 대표적인 민족 음식이라고 인식되지 않았다.	전통의 실체 ②
◦ 경제 성장과 문화 교류의 과정에서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 김치는 환경 친화적이며 발효 건강 식품으로 각광을 받게 되었다.	사회 문화적 맥락의 변화 ③
◦ 김치는 한국인이 먹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삶의 활력소이자 힘의 원천으로 간주된다. ◦ 김치는 한국인과 다른 나라 사람들을 뚜렷하게 구별해 주는 문화 요소이다.	전통의 현재적 의미 ④
◦ 김치는 한민족을 대표하는 전통 음식으로 자리를 잡았다.	전통의 타 문화화 ⑤

23. ㉠과 바꿔 쓰기에 알맞은 것은?
- ① 정돈(整頓)되었다. ② 정비(整備)되었다.
 - ③ 정제(精製)되었다. ④ 정리(整理)되었다.
 - ⑤ 정착(定着)되었다.

24. ㉠의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인도 사람들이 아주 오래된 것으로 믿고 있는 현재의 카스트 제도는, 영국이 종교 지도층인 브라만의 지위를 공고히 하여 왕권을 약화시킴으로써 식민 통치 질서를 세우는 과정에서 변형된 것이다.
- ② 멕시코가 스페인에 점령된 후, 원주민 앞에 나타난 갈색의 성모(聖母) ‘과달루페’는 오래된 민간 신앙과 서구 가톨릭 간의 문화 혼합의 상징으로, 원주민 사회를 통합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 ③ 남태평양의 트로브리안드 제도에서는 가치재(價値財)로 여기는 조개 목걸이와 조개 팔찌를 선물 형태로 주고받는데, 이는 사회적 위세와 명예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다.
- ④ 프랑스에서 교사나 지식인은 바흐의 ‘평균율 클라비어 곡집’을 선호하지만, 노동자나 상인은 요한 슈트라우스의 왈츠 곡을 선호하는데, 이는 계층 간의 문화 차이를 보여 준다.
- ⑤ 1930~40년대에 나치는 유대인을 싫어하는 당시 유럽인의 뿌리 깊은 정서를 이용하여 반유대주의 이념을 조직화하고 선전함으로써 독일 제3제국의 체제를 공고히 했다.

[34~3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004.11

언어 기호는 전체적으로 체계를 이루고 있다. 언어의 체계라는 말은, 사람에 따라 조금씩 다른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긴밀히 연관되어 있는 말소리나 단어들에 주로 적용되는 개념이다.

체계를 이루는 각 항목이나 범주는 서로 긴밀히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 중의 하나가 변화를 입게 되면 다른 항목이나 체계 전체에 영향을 끼쳐서, 변화 전까지 유지되어 있던 균형이 깨지기도 한다. 즉, ㉠ 체계 전체에 걸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다.

체계의 개념을 이해하는 데에는 '선택'이라는 개념이 중요하다. '선택'이란 한 체계를 구성하는 항목들 중에서 언어 사용자가 필요한 것을 골라 쓰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어떤 물건을 가리키고자 할 때, 대명사 '이것', '그것', '저것' 중에서 하나를 선택한다. 이러한 각각의 세 항목을 두고 선택 관계에 있다고 말한다. 이들이 곧 단어들의 체계이다. 즉 체계란, 서로 긴밀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선택 가능항(選擇可能項)의 집합이라 말할 수 있다.

선택이 가능한 단어의 수는 몇 개밖에 안 될 수도 있고, 그 수가 매우 많을 수도 있다. 앞에서 제시한 '이것', '그것', '저것'은 3항이었지만, 이른바 ㉡ '능동 표현'이나 '피동 표현', '단수'와 '복수' 같은 경우에는 선택이 가능한 항목이 둘뿐이다. 이와 같은 극히 제한적인 선택을 폐쇄적인 선택이라 한다. 폐쇄적인 선택의 대표적인 것으로 문법 범주(文法範疇)를 들 수 있다.

이러한 폐쇄적인 선택과는 달리 선택 범위가 매우 넓은 경우도 있다. "철수가 ()을/를 보고 있다."와 같은 문장에서 빈칸에 들어갈 수 있는 명사 또는 명사 상당형은 무수하게 많다. 철수가 볼 수 있는 물건이나 사건을 대표하는 언어 형식이면 무엇이든 선택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거의 제한이 없는 선택을 개방적인 선택이라 한다. 대체로, 문법 범주의 경우에는 폐쇄적인 선택이 이루어지고, ㉢ 어휘의 경우에는 개방적인 선택이 이루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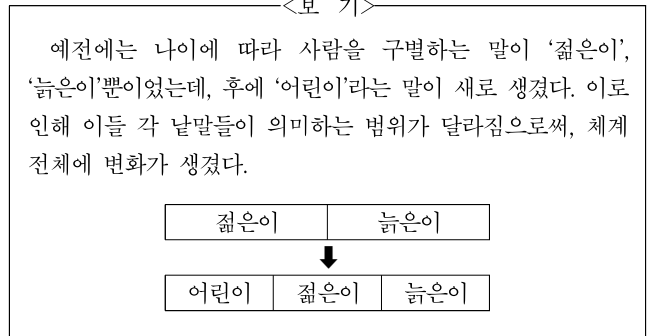
언어를 살필 때에 구조라는 개념 또한 중요하다. 구조란 대체로 언어 형식과 그것을 구성하는 요소와의 관계에서 등장한 개념이다. 앞에서 '체계'를 선택 관계로 설명한 바 있는데, '구조'는 이와 달리 통합 관계라는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

형태소는 의미를 가진 최소의 언어 단위이지만, 그것은 음운의 연쇄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음운은 구성 요소가 되고, 형태소는 구조가 된다. 예를 들어, 동사 '먹다'의 어간 '먹-'은 'ㄷ, ㅊ, ㄱ'의 세 음운을 구성 요소로 가진다. 거꾸로 말하면 'ㄷ, ㅊ, ㄱ' 세 구성 요소는 동사 '먹다'의 어간 '먹-'이라는 구조를 형성하는 것이다. 형태소는 이처럼 몇 개의 음운을 구성 요소로 하는 구조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한편, 형태소는 다시 상위 구조의 구성 요소가 될 수 있다. '-었-'과 '-고'는 각각 하나의 형태소이지만, 이 두 구성 요소는 '-었고'라는 어미가 됨으로써 다시 하나의 구조를 이룬다. 또, '사람은', '착한가'는 "사람은 착한가?"와 같이 문장이라는 구조를 만드는 구성 요소가 된다. 문장을 언어 연구의 가장 큰 단위로 보던 때에는 문장이 가장 큰 구조이므로 더 이상 단위는 없는

것으로 보기도 하였다. 그러나 요즘에는 시야가 넓어져서 ㉣ '담화'나 '이야기'나 하는 것을 언어 연구의 대상으로 삼게 되었는데, 이때에는 문장이 이들의 구성 요소가 된다.

34. ㉠을 <보기>와 같이 설명할 때, <보기>와 가장 가까운 사례는? [3점]



- ① 고유어 '피'가 한자어 '산(山)'으로 대체되었다.
- ② '천연두'라는 병은 사라졌지만, 아직도 그 말은 남아 있다.
- ③ 우리 학교에서는 '수-우-미-양-가'로 평가하던 것을 올해부터 '수-미-가'로 평가한다.
- ④ 예전에 없던 물건인 라디오가 서양에서 들어옴에 따라, '라디오'라는 말이 새로 생겼다.
- ⑤ 우리나라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뚜렷한데, 올해는 비가 많이 와서 계절의 차이를 거의 느낄 수 없다.

35. ㉤은 구체적인 문맥에서는 선택 가능항이 매우 제한되기도 한다. 이 현상을 설명하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는 덩치가 매우 큰 편이야.
- ② 철수는 ()을/를 많이 먹었어.
- ③ 철수는 어제 ()에서 공부를 했어.
- ④ 철수는 그 일을 하기에 나이가 너무 () .
- ⑤ 철수는 오늘 식물원에서 () 꽃을 보았어.

36. <보기>는 ㉔의 한 예이다. 밑글에 나온 개념들을 활용하여 <보기>를 설명한 것으로 잘못된 것은?

—<보 기>—

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㉕ 서둘러야 한다. 철수는 빠른 손놀림으로 ㉖ 책을 챙겨 가방에 넣는다. 어깨에 가방을 걸쳐 메고는 미끄러지듯 현관으로 달려간다. 신발장에서 운동화를 꺼내 운동화 끈을 조이며 생각한다.
 “㉗ 지각이나 아니냐는 ㉔이 두 발에 달려 있다.”

- ① <보기> 글은 전체적으로 하나의 '구조'이다.
- ② ㉔는 <보기> 글의 '구성 요소'이다.
- ③ ㉔와 ㉕는 서로 '통합 관계'에 있다.
- ④ ㉖를 대체할 수 있는 말들이 모여서 '체계'를 이룬다.
- ⑤ ㉗와 ㉔는 서로 '선택 관계'에 있다.

37. <보기>에서 설명한 '선택' 개념에 따를 때, '지역'을 기준으로 한 선택 관계를 보여 주는 것은?

—<보 기>—

'선택'이라는 말은 그 개념을 넓혀서 생각할 수 있다. 언어는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계층에 따라, 그 사람이 사는 지역이나 시대에 따라 차이가 있다. 이것은 '계층', '지역', '시대'를 기준으로 하여 같은 대상을 나타내는 서로 다른 선택항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① 서울 봉사 갯들진디 문수(問數)하오 웨런만년, 시골 봉사라 문복(問卜)하오 하며 외고 가니
- ② 예전에는 주인을 찾는 방식이 “이리 오너라!”라 하였는데, 요즘은 “여보세요.”란 표현이 즐겨 쓰인다.
- ③ 종이 진지를 고희거든 ‘올니라’ 말고 ‘드리라’ 호고, 숙낭을 먹으려 호거든 ‘가져오라’ 말고 ‘진지호라’ 호느니라.
- ④ 어스 왈, “저 농군 여복시. 검은 소로 밭출 가니 킴킴호지 아니호지?” 농뉘 디답호디, “그러키의 밭으라고 벗 다랏지오.”
- ⑤ 밥이라 하는 것이 나라에 오르면 수라요, 양반이 잡수시면 진지요, 하인이 먹으면 입시요, 제배(濟輩)가 먹으면 밥이요

38. 다음 피동 표현 중, ㉔ '능동 표현'으로 바꿀 수 없는 것은?

- ① 그 문제가 어떤 수학자에 의해 풀렸다.
- ② 그 책은 많은 사람에게 읽혔다.
- ③ 아이가 어머니에게 안겼다.
- ④ 토끼가 사냥꾼에게 잡혔다.
- ⑤ 철수가 감기에 걸렸다.

[39~4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004.11

그림책의 그림은 순수 회화와 구별해서 일러스트레이션이라고 한다. 일러스트레이션(illustration)은 ‘illustrate’라는 동사에서 나온 말로, ‘예를 들어 쉽게 설명한다’라는 뜻이다. 그림책에서 일러스트레이션은 그림책이 전하는 이야기를 설명해 준다. 오랫동안 그림책은 글자를 터득하지 못한 아이들에게 어른이 읽어 주는 책이었고, 일러스트레이션은 책을 장식하는 요소로 사용되어 왔다. 도구였던 일러스트레이션이 오늘날처럼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그림책이 독자적인 장르로 크게 발전하기 시작한 것은 제2차 세계 대전 이후이다. 오늘날 그림책 속에 담긴 일러스트레이션은 점점 회화적인 요소가 강해질 뿐만 아니라, 이야기를 설명한다는 목적 때문에 예술적 의의를 인정받지 못했던 한계를 넘어서고 있다. 좋은 일러스트레이션일수록 이야기가 풍부하다. 한 권의 그림책 속에 어우러지는 일러스트레이션은 작품을 입체적으로 만든다.

좋은 그림책이란 어떤 것인가? 회화의 공간성과 영화의 시간성이 간결한 언어와 입체적으로 만나서 풍부한 이미지를 주는 그림책이다. 글 속에 생략되어 있는 묘사와 서술을 세심하게 이행하고 있는 그림을 엮은 책이다. 그려져 있는 것과 그려져 있지 않은 것 사이의 새로운 관계를 모색하는 독자의 능동적인 참여를 기다리는 그림책 속에는 글과 그림의 조합 방식에 대한 면밀한 고려가 숨어 있다. 끊어질 듯 끊어질 듯 이어지는 가느다란 선으로 표현하여 어딘지 소극적이고 더듬거릴 것 같아 보이는 그림, 유창한 드로잉으로 힘 있게 날아오를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그림, 사인펜으로 북북 그어 놓은 선들 때문에 꼭 망친 것 같아서 인물의 절망감을 시각적으로 드러내는 그림, 하얀 바탕에 목탄을 문질러서 아련한 느낌을 주는 눈 쌓인 그림들은 들여다보면 볼수록 재미가 있다. 그림 자체가 보는 사람에게 전하는 감정이 풍부하기 때문이다.

그림의 배경들이 거의 흰색이거나 흰색에 얇은 색이 들어 있고, 물체를 표현하는 선들이 진하거나 날렵하면서도 많이 끊겨 있는 그림책도 있다. 그 끊겨진 선들마저 지워지는 곳에 빛이 있다. 그 빛은 그림 하나하나를 오로라처럼 둘러싸고 살아 있게 만든다. 이렇게 ㉠ 말이 줄어들어 생긴 빈 자리에 상상력과 사유가 깃든다. 이는 건축 설계시 형태, 장식, 공간과 같은 요소들 가운데 공간을 다양하게 변용하는 데에서도 볼 수 있다.

좋은 그림책은 완성되어 있는 글에 그림을 그려 넣은 책이 아니라 글과 그림이 함께 이야기를 완성해 나가는 책이다. 존재하는 물감들 속에서 존재하지 않는 색이 만들어지고, 선과 선, 색과 색, 혹은 선과 색이 만나면 화폭에 예상하거나 기대하지 못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다. ㉡ 영국의 화가 프란시스 베이컨의 말처럼 “그림을 그리는 동안 문득 그림 그 자체와는 상관없이 바깥에서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이러저러한 형태들과 방향들이 어찌어찌하여 그냥 나타나는” 것이다. 그림책을 본다는 것은 글로 쓰여진 개념이나 대상을 넘어 미지의 영역과 서로 맞닿고 대화를 나누는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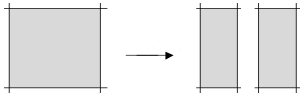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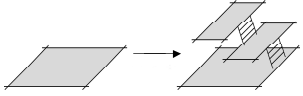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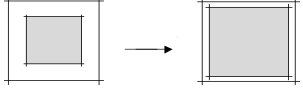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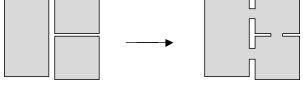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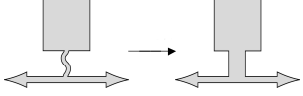
39.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 ① 그림책의 글은 시적 언어와 같이 비유적이어야 한다.
- ② 일러스트레이션과 그림책의 글은 독자적으로 발전해 왔다.
- ③ 그림책의 일러스트레이션은 순수 회화의 하나로 취급된다.
- ④ 그림책의 일러스트레이션은 공간성보다 시간성을 강조한다.
- ⑤ 일러스트레이션과 글이 조화를 이룰 때 좋은 그림책이 된다.

40. 윗글의 ‘일러스트레이션’이 겪은 변화와 유사한 것은?

- ① 뮤지컬은 오페라에 비해 다소 격이 떨어진다고 여겨졌으나, 이제는 오페라와 대등한 예술성을 지닌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 ② 독립 영화는 최근까지 사람들의 주목을 받지 못했으나, 현재는 영화 예술의 중요한 한 축을 이루고 있다.
- ③ 서양 고전 음악은 소수의 특권층이 독점하던 예술이었지만, 현재는 누구나 즐길 수 있게 되었다.
- ④ 행위 예술이 처음 등장했을 때는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으나, 이제는 낯익은 장르가 되었다.
- ⑤ 도자기는 처음에는 일상 용품으로 제작되었으나, 점차 독자적인 미적 가치를 인정받게 되었다.

41. ㉠의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한 채를 둘로 나누어 자연 공간을 끌어들이다. 
- ② 옥상을 다층적으로 설계해서 새로운 공간을 만든다. 
- ③ 건물 이외의 공간을 최소화 해서 생활 공간을 넓힌다. 
- ④ 건물들 사이에 통로를 만들어서 삶의 편의를 도모한다. 
- ⑤ 좁고 구부러진 길을 넓고 곧게 정비하여 접근성을 높인다. 

42. ㉠이 의미하는 바와 거리가 먼 것은?

- ① 그림을 그리는 과정에는 우연한 요소가 작용한다.
- ② 좋은 화가일수록 작품에서 자신의 의도를 잘 구현한다.
- ③ 독자는 그림의 선과 색을 넘어서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 ④ 독자는 그림을 감상하면서 화가의 의도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
- ⑤ 그리는 과정에서 그림이 어떻게 완성될 것인가는 예측하기 어렵다.

[43~4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004.11

고전 역학은 20세기 초까지 물리학자들이 세계를 기술하던 기본 이론으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가정을 포함한다. ㉠ 물리적 속성에 대한 측정은 측정 대상의 다른 물리적 속성을 변화시키지 않고 이루어질 수 있다는 가정과 ㉡ 물리적 영향은 빛의 속도를 넘지 않고 공간을 거쳐 전파된다는 가정이 그것이다. 예를 들어 어떤 돌의 단단한 정도를 측정한다고 해서 그 돌의 색깔이 변하는 것은 아니며, 돌이 유리창을 향해 날아가는 순간 유리창이 ‘미리 알고’ 깨질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고전 역학의 가정은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진다.

양자 역학은 고전 역학보다 더 많은 현상을 정확하게 예측함으로써 고전 역학을 대체하여 현대 물리학의 근간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자 역학이 예측하는 현상들 중에는 매우 불가사의한 것이 있다. 다음의 예를 살펴보자. 양자 역학에 따르면, 같은 방향에 대한 운동량의 합이 0인 한 쌍의 입자는 아무리 멀리 떨어져도 그 연관을 유지한다. 이제 이 두 입자 중 하나는 지구에 놓아두고 다른 하나는 ㉢ 금성으로 보냈다고 가정하자. 만약 지구에 있는 입자의 수평 방향 운동량을 측정하여 +1을 얻었다면, 금성에 있는 입자의 수평 방향 운동량이 -1이 된다. 도대체 그렇게 멀리 떨어진 입자가 어떻게 순간적으로 지구에서 일어난 측정의 결과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을까?

또한 양자 역학에 따르면 서로 다른 방향의 운동량도 연관되어 있다. 예컨대 수평 방향 운동량과 수직 방향 운동량은 하나를 측정하면 다른 하나가 영향을 받는다. 그 결과 지구 입자의 수평 운동량을 측정하여 +1을 얻은 후 연이어 수직 운동량을 측정하고 다시 수평 운동량을 측정하면, 이제는 +1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1과 -1이 반반의 확률로 나온다. ㉣ 두 번째 수직 방향 측정이 수평 운동량 값을 불확정적으로 만들어 버린 것이다. 게다가 지구 입자는 금성 입자와 연결되어 있으므로, 금성 입자의 수평 운동량을 측정하여 -1을 얻은 후 지구 입자의 수직 운동량을 측정하면, 그 순간 금성 입자의 수평 운동량 값 역시 불확실해진다. 그래서 수평 운동량을 다시 측정하면 -1과 +1이 반반의 확률로 나온다. 어떻게 지구에서 이루어진 측정이 엄청나게 멀리 떨어져 있는 입자의 물리적 속성에 순간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을까? 이 현상에 대해 고전 역학의 가정을 만족시키면서 인과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이처럼 불가사의한 양자 현상을 실험적으로 검증하기는 매우 어렵다. 하지만 1980년대에 이루어진 아스펙의 일련의 실험 이후, 이러한 양자 현상이 미시적인 세계에서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게 되었다. 양자 역학은 이 현상을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하지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인과적으로 설명해 주지는 못한다. 이러한 양자 역학의 한계에 대해 물리학자들은 대체로 두 가지 반응을 보인다. 첫째는 양자 역학을 자연에 적용할 때 매우 성공적이었으므로, 이러한 양자 현상이 우리에게 이상하게 보인다는 점은 별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둘째는 양자 역학은 미래에 더 나은 이론으로 대체될 것이고, 그때가 되면 불가사의한 양자 현상도 어떤 형태로든 설명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43. 윗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현대 물리학의 계보
- ② 불가사의한 양자 현상
- ③ 양자 역학의 운동량 측정
- ④ 고전 역학의 두 가지 가정
- ⑤ 고전 역학과 양자 역학의 만남

44. ㉠, ㉡, ㉢ 사이의 관계를 바르게 서술한 것은?

- ① ㉢은 ㉠이 맞다면 당연한 결과이다.
- ② ㉢은 ㉡가 맞다면 당연한 결과이다.
- ③ ㉢은 ㉠이 맞다면 불가능한 결과이다.
- ④ ㉢은 ㉡가 맞다면 불가능한 결과이다.
- ⑤ ㉢은 ㉠과 ㉡가 동시에 맞는 경우에만 당연한 결과이다.

45. <보기 1>의 A와 B에 들어갈 수 있는 말을 <보기 2>에서 모두 고르면?

—<보기 1>—

양자 구슬 한 쌍을 생각하자. 이 두 구슬은 뜨겁거나 차갑고, ‘딩’ 소리나 ‘땡’ 소리가 난다. 구슬의 온도와 소리라는 두 물리적 속성은 윗글에서 소개된 양자적 특징을 갖는다. 이제 구슬 하나는 내가 가지고, 다른 구슬은 친구에게 주어 멀리 보냈다고 하자. 내가 구슬을 두드려 보니 ‘딩’ 소리가 났다. 그런 후 내 구슬을 만져 보니 뜨거웠다. 그리고 구슬을 다시 두드려 보니 (A) 소리가 났다. 그 순간 멀리 있는 친구가 구슬을 두드린다면 (B) 소리가 날 것이다.

—<보기 2>—

A B	A B	A B	A B
ㄱ. ‘딩’ ‘딩’	ㄴ. ‘딩’ ‘땡’	ㄷ. ‘땡’ ‘딩’	ㄹ. ‘땡’ ‘땡’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46. 윗글을 읽고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현상들은 고전 역학의 가정과 잘 어울리는 것 같아.
- ② 물리학자들은 고전 역학이 양자 역학보다 예측력이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 ③ 양자 역학의 경우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정확한 예측과 인과적 설명은 구별할 필요가 있어.
- ④ 양자 현상은 이상하기는 하지만, 실험을 통해 검증되었으니 실재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 같아.
- ⑤ 돌이 날아가서 유리창을 깨는 현상과 지구 입자와 금성 입자가 서로 연관되어 있는 현상은 근본적으로 다른 것 같아.

47. ㉠을 ‘금성(金星)은 새벽의 동쪽 하늘에서 볼 수 있다. → 셋별’
처럼 설명할 때, 이와 유사한 사례 중에서 잘못된 것은?

- ① 유성(流星)은 빛을 내며 떨어진다. → 별뚥별
- ② 행성(行星)은 중심 별의 주위를 돈다. → 잔별
- ③ 혜성(彗星)은 긴 꼬리를 끌면서 돈다. → 꼬리별
- ④ 항성(恒星)은 상대적인 위치를 바꾸지 않는다. → 불박이별
- ⑤ 북극성(北極星)은 방위나 위도의 지침이 된다. → 길잡이별

[48~5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004.11

(가) 자연은 인간 사이의 갈등을 이용하여 인간의 모든 소질을 계발하도록 한다. 사회의 질서는 이 갈등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 갈등은 인간의 반사회적 사회성 때문에 초래된다. 반사회적 사회성이란 한편으로는 사회를 분열시키려고 끊임없이 위협하고 반항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를 이루어 살려는 인간의 성향을 말한다. 이러한 성향은 분명 인간의 본성 가운데에 있다.

(나) 인간은 사회 속에서만 자신을 더 나은 존재로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을 사회화하고자 한다. 인간은 사회 속에서만 자신의 자연적 소질을 실현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은 자신을 개별화하거나 고립시키려는 강한 성향도 있다. 이는 자신의 의도에 따라서만 행위하려는 반사회적인 특성을 의미한다. 그리고 저항하려는 성향이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 자신도 곳곳에서 저항에 부딪히게 되리라 예상한다.

(다) 이러한 저항을 통하여 인간은 모든 능력을 일깨우고, 나타내지려는 성향을 극복하며, 명예욕이나 지배욕, 소유욕 등에 따라 행동하게 된다. 그리하여 동시대인들 가운데에서 자신의 위치를 확보하게 된다. 이렇게 하여 인간은 야만의 상태에서 벗어나 문화를 이룩하기 위한 진정한 진보의 첫걸음을 내딛게 된다. 이때부터 모든 능력이 점차 계발되고 아름다움을 판정하는 능력도 형성된다. 나아가 자연적 소질에 의해 도덕성을 어렵듯하게 느끼기만 하던 상태에서 벗어나, 지속적인 계몽을 통하여 구체적인 실천 원리를 명료하게 인식할 수 있는 성숙한 단계로 접어들는다. 그 결과 자연적인 감정을 기반으로 결합된 사회를 도덕적인 전체로 바꿀 수 있는 사유 방식이 확립된다.

(라) ㉠ 인간에게 이러한 반사회성이 없다면, 인간의 모든 재능은 꽃피지 못하고 만족감과 사랑으로 가득 찬 목가적인 삶 속에서 영원히 묻혀 버리고 말 것이다. 그리고 양처럼 선량한 기질의 사람들은 가축 이상의 가치를 자신의 삶에 부여하기 힘들 것이다. 자연 상태에 머물지 않고 스스로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자연적 소질을 계발하여 창조의 공백을 메울 때, 인간의 가치는 상승되기 때문이다.

(마) 불화와 시기와 경쟁을 일삼는 허영심, 막힐 줄 모르는 소유욕과 지배욕을 있게 한 자연에 감사하라! 인간은 조화를 원한다. 그러나 자연은 불화를 원한다. 자연은 무엇이 인간을 위해 좋은 것인지를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인간은 안락하고 만족스럽게 살고자 한다. 그러나 자연은 인간이 나태와 수동적인 만족감으로부터 벗어나 노동과 고난 속으로 돌진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연은 인간이 노동과 고난으로부터 현명하게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발견하게 한다.

- 칸트, 「세계 시민의 관점에서 본 보편사의 이념」 -

48. (가)~(마)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 논지와 주요 개념을 제시한다.
- ② (나): 제시된 개념을 부연하여 설명한다.
- ③ (다): 논지를 확대하고 심화한다.
- ④ (라): 다른 각도에서 논지를 강화한다.
- ⑤ (마):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면서 논의를 마무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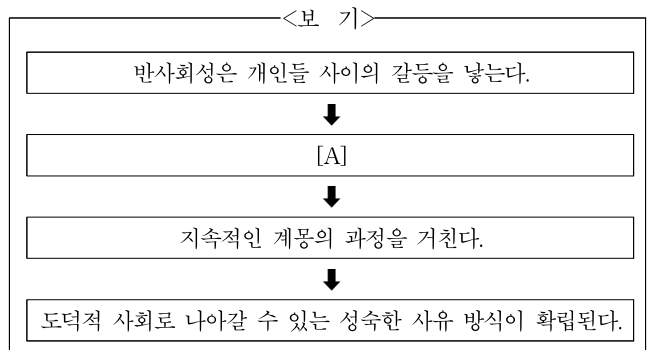
49. <보기>의 내용 중, 윗글에 나타난 인간의 양면성을 설명하려고 할 때 도움이 되는 짝끼리 묶인 것은?

—<보 기>—

- ㄱ. 예술가는 미리 존재하는 법칙을 거부하고, 자기 스스로 법칙을 부여한다.
- ㄴ. 예술가는 자신의 작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찾아온 영감을 표현할 따름이다.
- ㄷ. 예술가의 임무는 일어난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날 법한 일을 말하는 것이다.
- ㄹ. 위대한 예술가는 그 시대의 표현 양식을 뛰어넘는 자가 아니라, 그 시대의 표현 양식을 가장 잘 따르는 자이다.

- ① ㄱ-ㄴ ② ㄱ-ㄷ ③ ㄱ-ㄹ ④ ㄴ-ㄷ ⑤ ㄴ-ㄹ

50. 윗글에 제시된 '진보'의 과정을 <보기>와 같이 정리할 때, [A]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갈등을 약화시킬 수 있도록 사회성을 계발한다.
- ② 갈등을 계기로 조화롭고 목가적인 삶에 이른다.
- ③ 갈등을 극복할 도덕적 실천 원리를 인식한다.
- ④ 갈등의 과정 속에서 자연적 소질이 계발된다.
- ⑤ 갈등을 극복하여 사회를 이룬다.

51. ㉠에 대한 반론으로 가장 타당한 것은? [3점]

- ① 인간의 본성은 변할 수 없다.
- ② 동물도 사회성을 키울 수 있다.
- ③ 사회성만으로도 재능이 계발될 수 있다.
- ④ 반사회성만으로는 재능이 계발될 수 없다.
- ⑤ 목가적인 삶 속에서도 반사회성이 생겨날 수 있다.

MEMO

MEMO

[19~2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04.09

(가)

우리말에서 신경을 써서 가꾸고 다듬어야 할 요소들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반드시 강조해 두고 싶은 것은 규범을 지키는 언어생활이다.

우리는 우리말 사용에서 나타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표준어 규정, 맞춤법 규정, 표준 발음 규정, 외래어 표기법 같은 국가적 차원의 규범을 만들어 놓고 언어생활에서 이를 지키도록 하고 있다. 나는 소위 선진국이라는 나라에 몇 번 머무를 기회가 있었는데, 철자를 잘못 적는 일은 한 번도 목격한 적이 없다. 이에 반해 우리의 실정은 어떠한가? 거리에 나가 거닐면서 각종 상업의 간판, 광고, 표지 등을 잠깐만 살펴 보더라도, 규범을 지키지 않은 사례들을 한두 건은 어렵지 않게 찾아낼 수 있을 정도이다. 또, 공식적인 자리에서조차 표준어 규정이나 표준 발음에 어긋나는 말을 서슴지 않고 하거나, 심지어 ㉠ 영어 철자법에는 자신이 있는데 한글 맞춤법은 어려워 워서 영 자신이 없다고 무슨 자랑거리라도 되는 듯이 이야기 하는 지식인을 본 적도 있다. 사실, ㉡ 영어의 철자는 너무나도 불규칙해서 송두리째 암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에 비하면, 우리말의 맞춤법은 영어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쉽다. 그런데도 우리말의 맞춤법이 어렵다고 생각하게 되었다면, 그것은 결국 우리말을 소홀하게 생각해 온 데서 비롯된 결과가 아니겠는가?

(나)

현재 한국은 서울말을 표준어로 삼고 있다. 규정상으로 서울말이 표준어로 인정된 것은 1912년 ‘보통학교용 언문철자법’에서 “경성어를 표준으로 함.”과 같이 선포한 때다. 이것이 1933년 ‘한글 맞춤법 통일안’에서는 “표준말은 대체로 현재 중류사회에서 쓰는 서울말로 한다.”처럼 좀 더 정밀하게 규정되었고, 1988년 ‘표준어 규정’에서는 다시 “표준어는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와 같이 얼마간 표현을 바꾸었다.

위의 세 규정은 ‘서울말’을 표준어로 삼는다는 공통점을 보인다. 다만 1933년과 1988년의 규정에서는 ‘대체로’와 ‘원칙으로 한다’는 표현으로 서울말이 그대로 전부, 또는 서울말만 표준어가 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돌파구를 마련하고 있다. 그리고 ‘중류 사회’, ‘교양 있는 사람들’이란 조건은 ㉢ 사회 방언을 의식하여 궁중과 같은 특수 사회나 하층 계급의 말은 서울말일지라도 표준어의 대열에 들어올 수 없다는 제약 조건을 단 것이다.

그런데 표준어에 대해 위와 같이 규정을 하지 않았어도 한국어의 표준어가 서울말이 아닌, 더 정확히 교양 있는 사람들의 서울말이 아닌 다른 지역(및 다른 계층)의 말이 표준어가 되었을 가능성은 전혀 없었을 것이다. 서울은 600년 동안이나 한국의 행정적, 경제적, 문화적 중심지였다. 조선조가 한양으로 수도를 옮기기 전에는 개성이 475년 동안 고려의 수도였는데, 개성과 서울의 거리는 불과 73km로 두 도시는 언어적으로 동일한 방언권에 속한다. 이렇게 보면 서울말이 한국어의 표준어로서의 위치를 확보하게 된 것은 까마득한 옛날의 일이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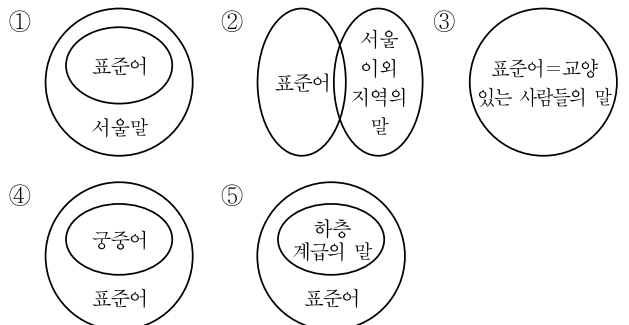
19. (가)를 통해 볼 때, 표준어 규정 및 맞춤법 규정 등이 지켜지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는?

- ① 정부의 정책적인 홍보가 부족하다.
- ② 우리말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적다.
- ③ 새로 바뀐 맞춤법의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 ④ 새로운 규범이 사회에 정착하려면 시간이 걸린다.
- ⑤ 표준어 규정이나 맞춤법 규정 등의 내용이 너무 어렵다.

20. ㉠을 논지로 하여 ㉡를 반박하는 글을 쓰려고 할 때, 제시할 수 있는 논거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한글	로마자 알파벳
①	언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분명히 알 수 있다.	언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분명히 알 수 없다.
②	‘ㅎㅏ ㅑㅓㅕ’처럼 풀어서 쓰지 않고 ‘학교’처럼 모아서 쓰므로, 시각적으로 음절 단위를 알기 쉽다.	lato p p 처럼 모아서 쓰지 않고 ‘laptop’처럼 풀어서 쓰므로, 시각적으로 음절 단위를 알기 어렵다.
③	낱글자를 모아 쓰기 때문에, 띄어쓰기가 틀려도 문장을 이해하는 데 별 어려움이 없다.	낱글자를 풀어서 쓰기 때문에, 띄어쓰기가 틀리면 문장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
④	/o/로 발음되는 모음이 ‘곰, 손, 불’에서처럼 항상 ‘ㄱ’로 표기되어, 발음을 알면 표기를 예상하기 쉽다.	/ɔ/로 발음되는 모음이 ‘cough, daughter, sorry’에서처럼 다양하게 표기되어, 발음을 알아도 표기를 예상하기 어렵다.
⑤	비슷한 발음의 글자가 비슷한 모양을 하고 있어서, 모양만 보고 비슷한 발음인지 예측하기 쉽다. (예: ‘ㄱ:ㅋ:ㆁ’ 또는 ‘ㅈ:ㅉ:ㅊ’)	비슷한 발음의 글자라도 모양의 관련이 없어서, 모양만 보고 비슷한 발음인지 예측하기 어렵다. (예: ‘d:t’ 또는 ‘g:k’)

21. 1933년과 1988년의 규정에 ‘대체로’나 ‘원칙으로 한다’와 같은 표현이 들어간 이유를 보인 것 중, (나)의 논지에 맞는 것은?



22. ㉔에 대한 사례를 설명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 ① 무속인들은 ‘머리’를 ‘석거리’, ‘놀라다’를 ‘노재다’라 한다.
- ② 재래 시장에서 상인들은 ‘1, 2, 3’을 ‘먹주, 대, 삼패’라 한다.
- ③ 군대에서 병사들은 “장군이 온다.”를 “별이 떴다.”라 한다.
- ④ 대학생들은 ‘단과대학’을 ‘단대’, ‘사범대학’을 ‘사대’라 한다.
- ⑤ 심마니들은 ‘산삼’을 ‘십’이나 ‘십메’, ‘호랑이’를 ‘산개’라 한다.

23. “행정 수도를 옮기면 표준어의 지역적 기준도 바꾸어야 한다.”
 와 같은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보기>를 이용하려고 한다. (가),
 (나)의 내용을 근거로 한 것을 모두 고르면?

— <보 기> —

가. 표준어를 바꾸면, 남북한 언어의 이질화가 심해진다.

나. 표준어는 인구 비례로 결정해야 하는데, 서울 지역의 인구가 가장 많다.

다. 행정만이 아니라 경제와 문화의 중심지라는 개념까지 포괄해서 표준어를 결정해야 한다.

르. 표준어는 공적인 언어생활을 위해 정한 것이므로, 표준어를 방언의 상위 개념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로. 언어생활의 혼란 방지가 표준어 제정의 취지인데, 행정 수도 이전에 따라 표준어가 바뀌면 혼란이 가중된다.

- ① 가, 다 ② 가, 르 ③ 나, 르 ④ 나, 로 ⑤ 다, 로

[33~3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04.09

무용은 다른 예술과 마찬가지로 반응을 기대한다는 점에서 외향적 활동이다. 즉 무용수는 관객에게 자신의 깨달음을 전달하고, 경험한 영감을 함께 느낄 생각으로 작품을 창조한다.

이러한 ㉠소통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무용수는 무대 위에서 관객에게 자신이 창조한 신체의 동작을 보여준다. 동작에는 반드시 정서적 의미와 삶의 경험이 담겨 있어야 한다. 그러나 삶의 경험이 사실적으로 재현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무용수가 이별의 아픔을 표현한다고 할 때, 그는 손을 흔들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상상의 대상을 포옹하는 등의 동작을 그대로 보여주지는 않는다. 다만 추상화된 몸짓의 형태로 보여줄 뿐이다.

무용수는 관객이 단순한 관객의 입장에서 벗어나 그들 앞에 펼쳐지는 동작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 기대한다. 겉으로 보기에는 조용히 의자에 앉아 있는 것 같지만 모든 근육 조식을 통합적으로 사용하여 함께 춤을 추게 될 것이라 생각한다. 처음 무용수 자신을 움직였던 정서적 연상을 관객에게도 일깨울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는 것이다.

하지만 단순히 관객의 감정을 자극하는 것만이 무용수의 목표가 될 수는 없다. 그는 어떤 대상에 대해 관객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느낌을 바꾸고 경험을 확대시키며, 습관적 반응으로부터 관객이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한다. 그리하여 현실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경험을 느낄 수 있게 한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무용수는 대부분 동작을 활용하겠지만 무대 배경, 음악 등 관객들의 정서적 연상을 일으킬 수 있는 재료들도 함께 활용한다.

이러한 무용수의 기대와 노력에 관객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예술 작품을 접할 때 대부분의 관객들은 작품에 대한 기대를 가지게 마련이다. 과거의 미적 경험이나 지식, 작가와 작품에 대한 정보 등을 통해 그 작품은 어떠한 것이라는 예상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무용의 경우에는 이러한 예상이 작품 감상을 그르치게 하는 경우가 많다. 관객이 무용수의 동작 자체에 몰입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무용을 감상하면서 어떤 한 부분, 예를 들어 무용수의 팔 동작이 그리든 도형이나 배경이 되는 음악에만 관심을 갖는 관객도 있을 것이다. 물론 이 경우에도 관객은 시각이나 청각과 같은 감각 기관을 사용하고 있지만, 온전하게 무용을 보고 있는 것이라 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무용을 온전하게 볼 수 있을 것인가? 한마디로 말하자면 자신이 무용수가 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어느 농부에 관한 짧은 이야기를 참조할 만하다. 농부가 말을 잃어버렸다. [] ㉢ [] 그 결과 말을 찾을 수 있었다. 이 농부와 같은 방법을 쓴다면 관객은 반드시 무용수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무용에 접근할 때 비로소 무용을 예술로서 바르게 지각할 수 있게 될 것이다.

33.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예시를 통해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 ② 예상되는 잘못된 태도를 경계하고 있다.
- ③ 상반된 견해를 분석하여 논의를 심화하고 있다.
- ④ 논의 대상을 두 측면에서 접근하여 설명하고 있다.
- ⑤ 의문을 던지는 방식으로 독자의 주의를 환기하고 있다.

34. ㉠을 이용하여 <보기>와 같이 ‘끝말잇기’ 방식의 낱말 연상 놀이를 해 보았다. ㉡~㉣ 중, ‘소통’과 관련된 어휘 가운데 의미상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보 기>—

소통 → ㉡ 통신(通信) → 신속(迅速) → ㉢ 속달(速達) → ㉣ 달성(達成) → 성문(城門) → 문서(文書) → ㉡ 서신(書信) → ㉣ 신호(信號) → 호소(呼訴)

- ① a ② b ③ c ④ d ⑤ e

35. 어떤 무용을 관람한 관객의 소감 중, ㉣이 실현된 반응으로 볼 수 있는 것은?

- ① 하늘을 향해 힘차게 치솟는 분수! 무용수는 그 분수처럼 생동하는 기운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어요.
- ② 빠르게 마구 몰아대는 음악이 인상적이었어요. 수직으로 상승하는 화려한 동작도 멋지게 보이더군요.
- ③ 무대 중심으로 힘차게 도약하다가 잠시 멈추고 다시 주변으로 힘차게 도약하는 동작이 계속해서 이어지더군요.
- ④ 순식간에 모여들었다가 다시 힘차게 퍼져나가는 춤사위는 바다 속을 유영하는 물고기떼 모습을 본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 ⑤ 순간적인 정지 동작에 이어지는 열정적인 상승의 몸짓! 연약한 존재라고 생각했던 여성이 매우 역동적인 존재임을 깨달을 수 있었어요.

36. ㉢에 들어갈 내용을 추리하여 보았다.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그는 이전에 말을 타고 갔던 곳을 찾아 다녀 보았다.
- ② 그는 이웃에서 다른 말을 빌려 타고 말을 찾아 나섰다.
- ③ 그는 자신이 말의 입장이 되어 말이 갈 만한 곳을 가 보았다.
- ④ 그는 마을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곳부터 말을 찾기 시작했다.
- ⑤ 그는 마을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그 사실을 알려 도움을 청했다.

37. 글쓴이가 제시한 무용 감상법에 대해 비판적 의문을 제기해 보았다. 적절한 의문으로 볼 수 없는 것은?

- ① 배경 지식은 작품 감상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그러나 과거의 경험이나 작품에 대한 정보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하지 않을까?
- ② 작품은 여러 가지 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다. 그러므로 특정한 부분에 주목하기보다는 총체적으로 접근하는 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 ③ 예술은 예술가와 관객 사이의 의사소통이다. 무용수가 기대를 가지고 있듯이 관객에게도 작품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
- ④ 작품 감상 방법에는 작품에 몰입하는 것도 있지만, 거리를 두는 방법도 있다. 장면이나 상황에 따라서는 거리를 두고 감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 ⑤ 무용수의 입장이 되려면 그들의 표현 방식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하지만 그것이 없는 관객이 자기 나름의 방법으로 작품을 감상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48~5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004.09

‘유럽’이라는 개념은 유럽인들에게 어떻게 형성되었을까? 유럽은 본래 동질성을 찾기 어려워 하나로 정의할 수 없는 실체였다. 중세에 유럽인들은 기독교 세계라는 관념을 가지고 있었으며, 더 세속적인 관념들은 교회가 무너지고 나서야 생겼다.

㉠ 유럽인은 유럽을 비(非)유럽, 곧 ‘다른 세계’를 통해 정의하여 왔다. 유럽보다는 ‘유럽 이외의 사람들’이 언제나 중요한 문제였으며, 이들은 유럽인과 기원이 같지 않기 때문에 무능할 뿐 아니라 영원히 정치적인 혼란을 지속할 것이라고 보았다. 유럽인은 자신들의 기원을 그리스·로마에 두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유럽 이외의 세계는 유럽의 과거를 비추어 준다고 생각하였다. 수세기 동안 유럽이 거쳐 왔던 과거가 다른 세계를 통해 유럽인들에게 더욱 분명하게 인식되었다.

유럽인은 아메리카와 같은 새로운 세계를 발견하면서 선사 시대를 알게 되었다. 아메리카 등은 그리스·로마 시대(고대)에는 알려지지 않았으며, 성서에도 기록되지 않았고, 상상으로만 그려지던 지역이었다. 탐험가들이 석기만을 사용하는 민족들이 아메리카나 태평양 지역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자, 퇴보론(退步論)이라는 관념이 주목받게 되었다. 이것은 유럽이라는 세계 중심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예전의 문명 단계에서 더 낮은 단계로 퇴보하였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로크(J. Locke, 1632~1704)가 전세계에 석기 시대가 존재하였고, 아직도 석기를 쓰는 사람들은 퇴보의 산물이라기보다는 그 상태에 머물러 잔존한 사람들이라고 주장하자 로크의 의견을 따르게 되었다.

유럽의 개념과 관련하여 이집트에 대한 유럽인의 생각을 살펴 보면 흥미롭다. 유럽인은 이집트를 유럽이 아닌 다른 세계에 귀속시켰다. 그들은 이집트가 문명의 원천이라고는 생각하였지만, 이집트가 지닌 지식은 쓸모 없는 것으로 여겼다. 이런 이집트에 그리스 사람들이 들어가 생명력을 불어넣었다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근대에 들어서 유럽이 이집트를 지배한 것을 두고 유럽인들은 유럽의 우수성이 증명된 것으로 보았다. 유럽인들은 ‘진부한 유럽 밖의 세계’나 이류(二流)를 가리키는 데 ‘동양’이란 단어를 사용하여, 유럽인의 우수성을 드러내려 하였다. 유럽의 역동성과 비교하면, 동양은 본질적으로 정체된 구조였으며, 열등하고, 감정적이라고 생각하였다.

유럽인은 이런 식으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냄으로써 ‘유럽’을 창조하였다. 유럽은 언제나 사상이나 전쟁을 통해 도전 받은 실체지만, ㉡ 유럽이라는 개념은 ‘다른 세계’라는 거울로 자신을 비추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여기에서 유럽은 다른 세계를 지배하는 정당성을 찾았다. 유럽에 관한 진보와 우월성의 이미지는 19세기에 절정에 달하였다.

이같이 자기중심적 역사가 바로 오늘날 유럽의 정체(正體)의 중심이 되는 것이다. 유럽인은 외부 세계를 열등한 세계로 파악하였다. 따라서 유럽인들은 다른 세계를 지배하는 것을 권리가 아니라 의무로 여겼다. 그 명분은 문명 사회의 질서 잡힌 이성을 미개인들에게 부여하여, 발전의 가능성을 준다는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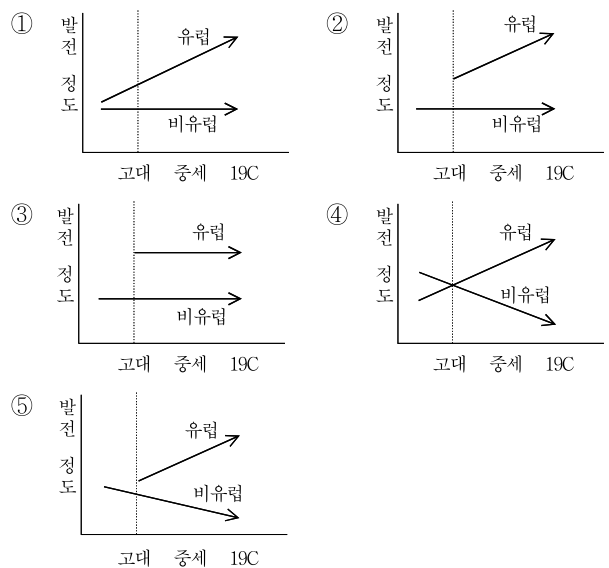
48. 윗글과 내용이 일치하는 것은?

- ① 퇴보론은 유럽의 선사 시대를 설명하기 위해 나왔다.
- ② 유럽의 개념은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는 데 이용되었다.
- ③ 유럽인은 유럽 밖의 사람들과 기원이 같다고 생각하였다.
- ④ 유럽인은 그리스 문명이 이집트의 영향을 받았다고 보았다.
- ⑤ 유럽은 원래부터 여러 가지로 공통된 속성을 가지고 있었다.

49. 밑줄 친 ㉠과 ㉡에 나타난 의미를 ‘유럽’은 ‘나’로, ‘비유럽’은 ‘김철수’로 바꾸어 표현하고자 한다. 윗글의 내용과 관련하여 가장 적절하게 표현된 것은?

- ① 김철수를 보니, 내가 누구인지 알겠다.
- ② 나는 나를 모르지만, 김철수는 나를 안다.
- ③ 나는 김철수를 알고, 김철수도 나를 안다.
- ④ 김철수는 나를 알지만, 나는 김철수를 모른다.
- ⑤ 김철수와 상관없이,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안다.

50. 윗글의 내용으로 보아, 로크 이후 19세기까지의 유럽인이 생각하였던 유럽과 비유럽의 역사 발전 과정을 그림으로 가장 잘 나타낸 것은?



51. 윗글을 읽고, ‘유럽인이 갖고 있는 역사관의 문제점’이라는 주제로 토론하였다. 토론 내용이 윗글의 내용과 거리가 먼 것은?

- ① 유럽이 동양에 비해 우월하다는 생각은 곤란해. 모든 문명은 각기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서로 장점을 배우기 위해서 노력해야 해.
- ② 유럽인이 역사를 왜곡하여 잘못된 관념을 형성한 것은 매우 위험한 결과를 초래했어. 외부 세계를 침탈하면서 문명을 전달한다고 생각한 것이 그 사례이지.
- ③ 유럽인들이 동양을 발달이 정체된 사회로 보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해. 각 나라나 민족은 서로 다른 조건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에 맞게 발전한 것이야.
- ④ 역사 발전을 보는 균형된 시각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봐. 유럽의 눈으로만 동양을 바라보거나, 동양의 눈으로만 유럽을 바라보는 것은 올바른 생각이라고 할 수 없어.
- ⑤ 동양의 아름다움은 정적인 것이 특징이고, 동양은 서양에 비해 정신 문명이 발전하였어. 이를 유럽인들에게 인식시키는 방안을 개발하여 실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봐.

[52~5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004.09

고대 그리스인들은 모든 물질이 ‘원자’라는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미세한 구성 원소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몇 종류의 원자들이 다양한 조합으로 결합하여 이토록 방대하고 다양한 물질 세계가 형성되었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많은 시간이 흐르는 동안 최소 단위에 대한 개념은 많은 변화를 겪었지만, ㉠ 고대 그리스인들이 세웠던 물질관은 여전히 진리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19세기 과학자들은 물질의 최소 단위로 생각되는 미세한 요소들을 발견하고 거기에 그리스인으로부터 물려받은 ‘원자’라는 이름을 붙였다. 그러나 이것이 물질의 최소 단위는 아니었다. 1930년대에 이르러 원자는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진 원자핵의 주변을 전자들이 돌고 있는 구조로 된 복합체라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이후로 한동안 물리학자들은 양성자와 중성자, 그리고 전자가 바로 그리스인들이 생각했던 최소 단위, 즉 원자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1968년에 스탠포드 선형 가속기 센터의 실험에 의해 양성자와 중성자조차도 물질의 최소 단위가 아니라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다. 양성자와 중성자는 ‘다운 쿼크’와 ‘업 쿼크’라고 명명된 두 가지 입자들의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다. 이후 물리학자들은 더욱 강력한 기구를 발명하여 여러 개의 새로운 입자들을 찾아냈다.

도대체 자연계에는 왜 이렇게 여러 종류의 입자들이 있는 것일까? 각각의 입자들이 갖고 있는 값(질량)들 사이에는 외관상 아무런 규칙성이 없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 여기다가 입자들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고려하면 의문은 더 커진다. 입자들 사이에는 중력(重力), 전자기력(電磁氣力)*, 강력(強力)*, 약력(弱力)*이라는 네 가지 힘이 작용하는데, 이들은 그 크기와 성질이 모두 다르다. 도대체 왜 이런 네 종류의 힘이 존재하는 것인가?

이러한 의문들을 해결할 만한 이론의 후보로 ‘초끈이론(superstring theory)’을 들 수 있다. 초끈이론의 기본 개념은 모든 물질이 진동하는 ㉡ 끈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다. 초끈이론에 의하면 만물의 최소 단위인 끈이 진동하는 방식에 따라 겉으로 나타나는 형태가 달라진다. 따라서 기존의 물리학자들이 발견해 낸 입자들은 모두 ‘진동하는 끈의 여러 가지 얼굴들’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은 네 종류의 힘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무거운 입자는 그 입자를 이루는 끈이 격렬하게 진동하고 있으며, 가벼운 입자들은 끈이 상대적으로 부드럽게 진동한다는 것이다.

이전의 물리학자들은 물질의 최소 단위로 생각되는 여러 가지 입자들이 저마다 고유한 형태와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왔다. 그러나 초끈이론은 이런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엎었다. 물질의 최소 단위인 끈들은 모두 동일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수없이 많은 끈들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진동하고 있는 이 우주는, 하나의 웅장한 ‘우주 교향곡’이 연주되고 있는 거대한 무대인 셈이다.

* 전자기력: 전하(電荷)를 띤 입자들 사이에서 작용하는 힘.
 * 강력: 원자핵을 구성하는 입자들을 강하게 결합시켜 주는 힘.
 * 약력: 방사능 붕괴를 일으키는 힘.

52.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은?

- ① 초끈이론은 우주 생성의 비밀을 해명해 주었다.
- ② 물질의 형태에 따라 그것이 보여주는 힘의 성질이 달라진다.
- ③ 초끈이론은 물질과 힘을 하나의 원리로 설명하려는 이론이다.
- ④ 물리학자들이 발견해 낸 입자들의 존재는 그리스인들이 이미 예상했던 것이다.
- ⑤ 입자들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이론적으로는 네 가지이지만 실제로는 그 이상이다.

53. ㉠을 비유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제시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아이들은 블록 조각들을 적절히 짜 맞추어 매우 다양한 형태의 물건을 만들어 낸다.
- ② 고무공은 힘을 가하는 방식에 따라 여러 가지 모양으로 변형된다. 그러다가 힘을 빼면 본래의 모양으로 돌아온다.
- ③ 음계의 낮은 ‘도’와 높은 ‘도’ 사이는 12단계의 반음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12단계의 진동수가 일정한 비율로 증가한다.
- ④ 나무는 자라면서 큰 줄기에서 가지가 나오고, 그 가지에서 더 작은 가지가 나온다. 다시 그 작은 가지에서 더 작은 가지가 나온다.
- ⑤ 알갱이들은 특이한 성질을 갖고 있다. 예컨대 모래 더미 위에 모래를 쏟아 부으면, 안쪽의 모래알들은 고정된 상태를 유지하는데 경사면의 모래알들은 흘러내린다.

54. 윗글을 학교 홈페이지에 소개하려고 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이 글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볼 수 있는 신기한 현상들을 알기 쉬운 예와 비유를 통해 설명하고 있다. 이 글을 통해 과학의 원리를 재미있게 배울 수 있을 것이다.
- ② 과학은 하나의 독립된 학문으로 존재해 온 것이 아니라 다른 학문과의 부단한 상호 교섭을 통해 성장해 왔다. 이 글을 통해 과학과 다른 학문이 어떤 관계를 맺어 왔는지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 ③ 과학은 끝없이 의문을 품는 태도에서 비롯된다. 사실이라고 믿어왔던 것이 새로운 발견에 의하여 부정되는 경우가 다반사로 일어나기 때문이다. 이 글을 통해 과학의 이러한 본질을 확인해 보기 바란다.
- ④ 서양의 과학자들 중에는 그들의 과학적인 사고가 우주의 모든 것을 설명해 주지 못한다는 한계를 인식하고 동양의 철학에서 해결책을 모색하려는 사람들이 있다. 이 글을 읽으면 그들의 고민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 ⑤ 과학자들의 연구는 과연 가치 중립적인가? 그렇지 않다. 연구의 주제인 과학자들의 가치관은 여러 가지 외적인 요인의 영향을 받아 일정한 방향으로 이끌리게 되기 때문이다. 이 글을 읽으면 이런 사실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55. 정확하고 풍부한 언어생활을 위하여 사전 찾기를 생활화하려고 한다. <보기>에서 ㉔의 뜻풀이 및 관련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 기>

끈 ㉓ ㉑ 물건을 매거나 꿰거나 하는 데 쓰는 가늘고 긴 물건. 노, 줄, 실, 형겔 오리, 가죽 오리 따위가 있다. ㉒ 물건에 붙어서 잡아매거나 손잡이로 쓰는 물건. ㉓ 살아갈 방도 = 벌잇줄. ㉔ 의지할 만한 힘이나 연줄.

노끈 ㉓ 실, 삼, 종이 따위를 가늘게 비비거나 꼬아서 만든 끈. ≒ 노내끈.

끄나풀 ㉓ ㉑ 길지 아니한 끈의 나부랭이. ㉒ 남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

* ㉓ 명사, = 동의어, ≒ 비슷한 말

- ① ‘끈 떨어진 뒤웅박’에서 ‘끈’은 ㉑의 뜻으로 쓰였다.
- ② ‘형겔 오리’의 ‘오리’는 ‘실 한 오라기’의 ‘오라기’와 의미상 관련성이 느껴진다.
- ③ “끈이 없어 앞날이 막막하다.”에서 ‘끈’은 ㉓의 뜻으로 이해할 수 있다.
- ④ “취직을 위해 끈을 대는 것은 좋지 않다.”의 ‘끈’은 ‘노끈’으로 바꾸기 어렵다.
- ⑤ “그는 위원장의 끄나풀이다.”에서 ‘끄나풀’은 의미상 ‘끈’으로부터 파생된 말이다.

[18~2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004.06

위기지학(爲己之學)이란 이른바 15세기의 초기 사림(士林)과 기묘 사림이 『소학(小學)』의 학습과 실천을 강조하면서 내세운 공부 태도를 가리킨다. 원래 이 말은 위인지학(爲人之學)과 함께 『논어(論語)』의 ‘헌문편(憲問篇)’에 나오는 말이다. “옛날에 공부하던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 공부했는데, 요즘 사람들은 남을 위해 공부한다.” 즉 공자는 공부하는 사람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를 가지고 학자를 두 부류로 구분할 수 있음을 지적했던 것이다. 북송 대의 유학자인 정이(程頤)는 다음과 같이 이 말의 의미를 부연했다. “위기(爲己)란 자아의 성숙을 추구하는 것이고, 위인(爲人)이란 남들로부터의 인정을 추구하는 것이다. 옛날의 학자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 공부했으나, 결국은 세상을 개선하는 일에 이바지했다. 오늘날의 학자들은 남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공부하지만, 그 귀결은 자아의 상실일 뿐이다.”

조선 초기의 유학자들 중 이런 위기적(爲己的) 태도를 견지했던 사람들은 ‘길재 - 김숙자 - 김종직 - 김굉필’로 이어지는 초기 사림이었다. 성종 대부터는 『소학(小學)』을 진지한 태도로 실천하려고 한 사람들은 소학계(小學契)라는 일종의 이념 서클을 ㉠ 만들어 자신들의 신념을 사대부 사회에 전파하려는 운동을 벌이기 시작했다. 성리학을 관통하는 정신은 바로 위기(爲己)에 있으며, 그것이 올바른 노선이라는 확신은 다음 세대인 ‘김제, 조광조, 박훈’ 등 기묘 사림에 이르러 더욱 뚜렷하게 표명되고 확산되었으며, 다시 명종·선조 대의 사림들로 이어졌다.

세 번째 세대에 속하는 이황(李滉)에게서 비로소 위기지학에 대한 흔들림 없는 확신을 전하는 분명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 “위기지학이란, 우리들이 마땅히 알아야 할 바가 도리(道理)이며 우리들이 마땅히 행해야 할 바가 덕행(德行)이라고 믿고 가까운 데서부터 착수해 나가되 자신의 이해[심득(心得)]를 통해서 몸소 실천하는 것[궁행(躬行)]을 목표로 삼는 공부이다. 위인지학이란, 심득과 궁행에 힘쓰는 대신 내면의 공허함을 감추고 관심을 바깥으로 돌려 지위와 명성을 취하는 공부이다.” 위기지학과 위인지학의 차이는 공부의 대상이 무엇이냐에 있다기 보다 공부를 하는 사람의 일차적 관심과 태도가 자신을 내면적으로 성숙시키는 데 있느냐 아니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데 있느냐에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학문의 목적이 외재적 가치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재적 가치에 의해서 정당화된다는 사고방식의 출현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고방식의 출현은 당시 사대부들의 현실적 삶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 주었다. 다시 말해 사대부로 하여금 치자층(治者層)의 일원으로서 출사(出仕)를 통해 정치에 참여하는 것 외에 학문과 교육에 종사하면서도 자신의 사회적 존재 의의를 주장할 수 있게 ㉢ 만들었던 것이다. 더 나아가 학자 또는 교육자로서의 삶의 방식이 관료 또는 정치가로서의 삶보다 우월하다고 주장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위기지학의 출현은 종래 과거제에 종속되어 있던 교육에 독자성을 부여했다는 점, 또 해석하고 외우는 공부의 수준을 넘어서기 어려웠던 경학(經學)이 교육의 힘을 가진 진정된 학문으로 승격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하나의 역사적 사건으로 평가받아 마땅한 것이다.

18.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위기적 태도를 견지한 사람들은 자아의 성숙을 추구했다.
- ② 국가의 장려로 위기지학의 신봉자들이 계속해서 늘어났다.
- ③ 위기지학의 정착으로 경학의 학문적 위상이 달라지게 되었다.
- ④ 위인지학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학문의 외재적 가치를 중시했다.
- ⑤ 공자는 학문하는 태도를 기준으로 학자들을 두 부류로 나누었다.

19. 윗글의 내용 전개상의 특징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 ① 인용을 통해 대상의 개념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 ② 추상적인 내용을 친숙한 사물에 빗대어 구체화하고 있다.
- ③ 다른 대상과의 대조를 통해 대상의 특징을 부각시키고 있다.
- ④ 시간의 흐름에 따른 대상의 사적 전개 양상을 설명하고 있다.
- ⑤ 대상과 관련된 역사적 사실을 설명한 후 그 의의를 밝히고 있다.

20. <보기>는 ‘이황(李滉)’이 임금의 부름을 받고 조정에 나아갔다가 고향으로 돌아와서 지은 ‘도산십이곡(陶山十二曲)’의 일부이다.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해석한다고 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 고인(古人)도 날 못 보고 나도 고인 못 배.
고인을 못 봐도 ㉡ 가던 길 앞에 있네.

㉢ 가던 길 앞에 있으니 아니 가고 어쩔고.

당시(當時)에 가던 길을 몇 해를 버려 두고

㉣ 어디 가 다니다가 이제사 돌아오고.
이제사 돌아왔나니 ㉤ 땀 데 마음 말으리.

- ① ㉠은 본받고자 하는 도리와 덕행의 표상이다.
- ② ㉡은 자아 성숙을 목표로 한 위기지학의 길이다.
- ③ ㉢은 학자 또는 교육자로서의 삶에 대한 긍정이다.
- ④ ㉣은 위기지학과 위인지학의 조화에 대한 모색이다.
- ⑤ ㉤은 지위와 명성을 추구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21. 윗글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기 위해 탐구 과제를 설정한다고 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과거제의 실시 목적과 그 기원
- ② 조선 시대 교육과 과거제의 관계
- ③ 위기지학을 바라보는 위인지학의 입장
- ④ 이황 이후 위기지학의 전개 과정과 계보
- ⑤ 위기지학에서 『소학(小學)』을 중시한 이유

22. ㉠와 ㉡의 뜻을 알아보려고 국어사전에서 '만들다'의 항목을 찾아 보았다. <보기>로 보아 설명이 잘못된 것은?

<보 기>

만들다 ㉠ (㉠)노력이나 기술 따위를 들여 목적하는 사물을 이루다. (㉡)기관이나 단체 따위를 결성하다. (㉢)돈이나 일 따위를 마련하다. (㉣)틈, 시간 따위를 짜내다. (㉤)('...을 -게/도록'의 형태로) 그렇게 되게 하다. (㉥)새로운 상태를 이루어 내다.

- ① '쾌적한 분위기를 만들다'라고 할 때에는 (㉠)의 뜻으로 쓰인 것이다.
- ② ㉠은 '협동조합을 만들다'의 경우와 같이 (㉡)의 뜻으로 쓰였다.
- ③ '여행 경비를 만들다'라고 할 때에는 (㉢)의 뜻으로 쓰인 것이다.
- ④ '짬을 만들다'라고 할 때에는 (㉣)의 뜻으로 쓰인 것이다.
- ⑤ ㉡는 '상대를 꼼짝 못하게 만들다'의 경우와 같이 (㉤)의 뜻으로 쓰였다.

[28~3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04.06

사진은 하나의 고립된 이미지이다. 시간적으로 한 순간이 잡히고 공간적으로 일부분이 찍힐 뿐, 연속된 시간과 이어진 공간이 그대로 찍히지 않는다. 현실이 현실 그대로 나타나지 않는 한, 사진은 결국 한 개의 이미지, 즉 영상일 뿐이다. 따라서 사진에 대한 이해는 사진이 시간적으로 분리되고 공간적으로 고립되어 현실과 따로 떨어진 곳에서 홀로 저를 주장하는 독자적 영상이라는 인식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근대 사진은 현실과 영상 사이에 ㉠ 벌어져 있는 이 틈을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 현실이 곧 사진이요, 사진이 곧 현실이라고 생각했다. 현대 사진은 현실과 영상 사이에 벌어져 있는 이 틈을 발견한 데서 출발한다. 그 틈을 정확히 보고, 자기 나름대로 채색도 하고 두께도 만들어 활용하는 것이 현대 사진인 것이다.

근대 사진은 현실이 그대로 사진의 내용이었기 때문에 현실을 어떻게 사진으로 수용할 것인가가 유일한 문제였다. 근대 사진은 현실이 포장지에 불과하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었다. 간과한 것이 아니라 현실이야말로 사진이 포장해야 할 내용물로 간주하고 있었다. 사진이 현실 재현 수단이라는 기본 구도 아래, 작가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하기에 알맞은 현실을 골라 이를 영상화한 것이 근대 사진이었다. 따라서 현실을 있는 그대로 재현하는데 그들의 능력을 집중시켰으며, 영상의 왜곡은 물론, 작가의 주관마저도 가능한 한 배제하고자 노력을 했다.

그에 비해 현대 사진은 현실을 포장지로부터 생각하지 않는다. 작가의 주관적 사상이나 감정, 곧 주제를 표현하기 위한 하나의 소재로 현실을 인식한다. 따라서 현실 자체의 의미나 가치에는 연연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 사진이 현실에 묶여 떠나지 못하는 것은, 대상이 없는 한 찍히지 않고 실체로서의 현실을 떠나서 성립할 수 없는 사진의 메커니즘 탓이다. 작가의 주관적 사상이나 감정은 구체적 사물을 거치지 않고서는 표현할 길이 없는 것이다. 그러나 사진이 추구하는 바가 현실의 재현이 아니다 보니 현대 사진은 연출을 마음대로 하고, 온갖 기법을 동원해 현실을 재구성하기도 한다. 심지어 필름이나 인화지 위에 인위적으로 손질을 가해 현실성을 지워 버리기도 한다. 현실이 왜곡되는 것에 아무런 구애를 받지 않는 것이다. 구체적인 사물의 정확한 재현에만 익숙해 있던 눈에는 이런 현대 사진이 난해하기만 하다.

이러한 현대 사진의 특성을 고려할 때, 창조적 사진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자유로운 눈이다. 이는 작가에게만 한정된 요구가 아니다. 사진을 현실로 생각하는 수용자 쪽의 고정관념 또한 현대 사진의 이해에 장애가 된다. 발신자와 수신자 사이에 암호가 설정되기 위해서는 수신자 쪽에서도 암호를 해독할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작가나 수용자나 고정관념과 인습에서 벗어날 때, 현실과 영상 사이에 벌어진 커다란 틈이 보이게 된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사진은 자기의 비밀을 털어 놓기 시작한다. 현대 사진에 대한 이해의 첫 관문은 그렇게 해서 통과할 수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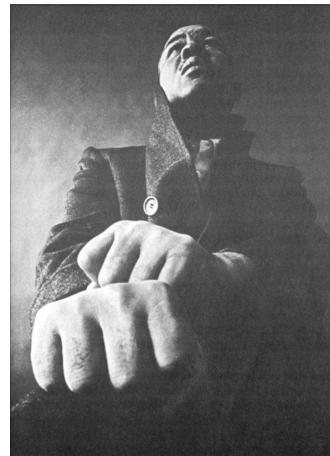
28.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근대 사진은 현실의 재현이 사진의 본질이라고 생각했다.
- ② 현대 사진은 현실과 영상 사이의 틈을 좁히려고 노력해 왔다.
- ③ 사진에서 작가의 사상과 감정은 구체적 사물을 통해 표현된다.
- ④ 사진의 현실 왜곡은 사진에 대한 인식의 변화에서 비롯되었다.
- ⑤ 현대 사진은 다양한 표현 기법을 동원해서 현실을 재구성하기도 한다.

29. 윗글에서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기사문을 쓰려고 한다. 표제와 부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창조적 사진 찍기
- 순간과 찰나를 보는 눈
- ② 현대 사진의 과제
- 현실을 어떻게 재현할 것인가
- ③ 사진이 추구하는 세계
-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
- ④ 사진 예술의 참된 출발
- 근대 사진과 현대 사진의 만남
- ⑤ 사진은 어떻게 변모해 왔는가
- 외형적 모사에서 내면적 창조의 세계로

30. 윗글에서 언급한 ‘현대 사진’의 관점에서 아래 사진을 감상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특수한 촬영 기법을 사용하여 실물을 왜곡하고 있군.
- ② 일상을 뛰어넘는 새로운 시각을 보여 주고 있어.
- ③ 이 사람에게 주먹이 갖는 의미가 크다는 것을 보여 주려고 한 게 아닐까?
- ④ 의도하지는 않았겠지만 주먹이 머리보다 크게 찍혀 색다른 느낌을 주고 있어.
- ⑤ 작품 속의 인물은 주제 의식을 표현하기 위해 작가가 선택한 소재라고 봐야 해.

31. 현대 사진 작가와 <보기>의 샤갈이 공통적으로 전제하고 있는 것은?

<보 기>

화가 샤갈이 거리에서 캔버스를 세워 놓고 그리기에 열중하고 있을 때, 마침 지나가던 행인 중 한 사람이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쳤다.

“별난 사람도 다 있군. 세상에 날아다니는 여자를 그리는 사람 처음 보겠네.”

이때 샤갈이 뒤돌아보지도 않고 웃으며 던진 한 마디는 이런 것이었다.

“그러니까 화가지.”

- ① 예술은 다양한 표현 기법을 써서 시대의 문제 의식을 표현한다.
- ② 예술은 현실에서 멀리 떨어져서 바라보는 관조의 대상이 아니다.
- ③ 고정관념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창조적인 작가 의식을 드러낼 수 있다.
- ④ 대중이 현대의 난해한 예술 작품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 ⑤ 예술 작품이 현실을 모방하는 것은 현실의 본질을 간파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32. ㉠의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괴리(乖離) ② 단절(斷絶) ③ 상충(相衝)
- ④ 격리(隔離) ⑤ 차별(差別)

[33~3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004.06

일반적으로 국가의 힘은 한 국가의 경제적·군사적·정치적 힘의 크기로 표현될 수 있다. 이러한 국가의 힘이 국가 간의 협상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는 두 가지 의견이 대립되고 있다. 하나는 현실주의적 입장이고, 다른 하나는 자유주의적 입장이다.

현실주의적 입장에서는 국가 간의 협상에 있어서 협상력은 기본적으로 국가의 힘에 의하여 좌우된다고 본다. 이들의 견해에 따르면 소위 강대국과 개도국의 협상에서는 강대국이 항상 유리한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다. 강대국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압도적인 힘으로 개도국의 협상에 대한 기대를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자유주의적 입장은 이와 다르다. 자유주의적 입장은 협상의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먼저 협상의 구조적인 면과 절차적인 면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 구조적인 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강대국과 개도국이라는 일반적인 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특정 협상의 주제와 관련된 힘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특정 주제와 관련된 힘이란 협상 테이블에 오른 아주 구체적인 협상의 대상과 관련된 힘을 의미한다.

대부분의 경우 이 힘은 협상 대상과 관련된 자원(resources), 즉 해당 산업의 규모·고용·국가 경제상의 위치·상대국에 대한 시장 접근도 등에서 나온다. 다시 말해 강대국은 국가 전체의 경제력이 개도국보다 월등할지 모르나 특정 산업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미국은 쿠바보다 힘센 나라이지만 켈런의 생산에 있어서는 쿠바보다는 ㉠ 떨어지고, 마찬가지로 고무의 생산에 있어서는 말레이시아에 떨어진다.

협상의 절차적인 면이란 협상의 전술을 의미한다. 협상의 전술이란 협상 과정에서 자신의 자원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동원하는, ㉡ 협상을 고의로 기피하거나 연기하기, 다른 협상 의제와 연결시켜 처리할 것을 주장하기, 자국 내부의 사정을 내세워 호소하기 등과 같은 방법을 의미한다.

구조와 절차의 두 측면을 고려하여 자유주의적 입장은 “협상력을 결정하는 주요 변수는 구조적 요소로서의 ‘특정 주제와 관련된 힘’과 절차적 요소로서의 ‘협상 전술’이다.”라고 결론을 짓는다. 이에 따라 약소국도 강대국과의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거나 협상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이다. 메리스 로버트라는 학자는 사례 분석을 통하여 이러한 결론을 적절하게 뒷받침한 바 있다. 그는 자원과 전술을 적절히 조화시킬 경우 약소국이 강대국과의 협상에서 이길 수 있지만, 이 두 가지 요소 중 하나라도 빠질 경우 협상에서 이기기는 매우 어렵다고 밝혔다.

자유주의적 입장대로 약소국이 강대국과의 협상에서 이기지 말라는 법은 없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자유주의적 입장은 수긍할 만하다. 다만 자유주의적 입장을 따른다 하더라도 특정 주제와 관련된 힘과 강력한 전술은 단지 실제 협상에 임하는 협상가의 개인적 능력에 좌우되는 것은 아니다. 협상 주제와 관계된 힘과 협상의 전술은 협상에 임하는 국가가 자신의 내부에서 어떠한 국민적 합의 혹은 성과를 만들어내느냐에 달려 있다. 다시 말해 이 두 요인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국내의 협의 과정을 통해 향상시킬 수 있는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약소국은 강대국과의 협상을 시작하기 전에 내부의 협의 과정을 통해 자신의 협상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33.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 ① 기존의 이론으로부터 새로운 이론을 도출하고 있다.
- ② 상반된 주장을 소개하고 필자의 의견을 덧붙이고 있다.
- ③ 가설을 설정하고 사례를 통해 타당성을 검증하고 있다.
- ④ 다양한 이론을 대비해 가며 객관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 ⑤ 필자의 생각과 반대되는 견해를 일관되게 비판하고 있다.

34. ㉠의 쓰임과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그는 발을 헛디뎈서 구덩이로 떨어졌다.
- ② 이미 그 일에 정이 떨어진 지 꽤 되었다.
- ③ 감기가 떨어지지 않아 큰 고생을 하였다.
- ④ 그의 실력은 평균에 비해 떨어지는 편이다.
- ⑤ 그 성이 적의 손에 떨어졌다는 전갈이 왔다.

35. 자유주의적 입장에서, <보기>와 같은 협상 상황에 대해 논리적으로 판단한 것은?

<보 기>

약소국인 B국은 강대국인 A국에서 생산하지 못하는 농산물을 수출하여 A국과의 무역 수지에서 흑자를 내고 있다. A국에서는 이 품목에 대한 관세를 현행보다 높임으로써 자국 내에서 이 농산물의 시장 점유율을 낮추어 B국과의 무역 수지를 개선하려 한다. 이 문제를 놓고 두 나라가 통상 협상에 임하였다.

- ① B국은 약소국이므로 불리한 협상 결과를 감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 ② B국은 협상 전술을 잘 구사한다면 유리한 협상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 ③ B국은 협상 주제와 관련된 힘을 키우면 자국의 뜻대로 협상의 결과를 얻을 것이다.
- ④ B국은 협상 주제와 관련된 힘이 상대적으로 열세에 있으므로 절충안을 들고 나올 것이다.
- ⑤ B국은 협상 주제와 전술이 모두 우위에 있으므로 유리한 협상 결과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36. ㉠과 같은 전술을 구사하는 협상 대표의 말로 보기 어려운 것은?

- ① “어제 회의에서 당신들이 제시한 협상안을 면밀히 검토해 보았습니다. 이제 협상을 속개하도록 합시다.”
- ② “이제 더 이상 협상이 진전될 것 같지 않군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1년 후에 다시 협상을 시작해 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 ③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이 의제는 단독으로 처리할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조만간 있을 다른 협상과 관련지어 다루어야 한다고 봅니다.”
- ④ “당신들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한다면 우리 국내 여론이 매우 악화될 것이 뻔합니다. 그렇게 되면 자칫 현 정권의 존립마저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 ⑤ “우리의 산업 구조에서 이 분야는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따라서 이 분야의 산업에 피해가 가는 결과가 초래되면 우리 경제가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37. 밑줄을 읽고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협상 주제와 관련된 힘에 비해 협상 전술이 훨씬 더 중요 하겠군.
- ② 약소국에서는 강대국에 비해 우위에 있는 산업을 잘 육성해야 하겠군.
- ③ 협상의 성공을 위해서는 내부의 협의 과정을 통해 협상력을 키워야겠군.
- ④ 협상에 실패했다고 해서 협상 대표에게 무조건 책임을 추궁할 일은 아니군.
- ⑤ 강대국이라고 해서 협상에서 항상 유리한 결과만 얻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군.

[48~5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04.06

(가)

일찍이 그라이스(Grice)는 ㉠ ‘협력 원리’라는 말로 대화에 내재하는 원리를 설명하고자 했다. 사람들이 대화의 방향이 어그러지지 않게 하는 일에 기여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대화에 임하기 때문에 대화가 원만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그라이스가 말하는 대화의 협력 원리는 그것을 지키기 위한 하위 규칙인 네 가지 격률로 구성되어 있다. 그것은 ‘거짓이라고 믿는 것, 혹은 적절한 증거가 없는 것은 말하지 말라’는 <질(質)의 격률>, ‘진행되는 대화 목적을 위해 필요한 만큼만 정보를 제공하라’는 <양(量)의 격률>, ‘관련성을 지니는 말을 하라’는 <관련성의 격률>, 그리고 ‘모호성이나 중의성을 피하고 간결하고 조리 있게 말하라’는 <태도의 격률> 등이다.

우리는 대부분의 일상 대화에서 이러한 원리가 적용되는 것을 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종종 발견하게 된다.

(손님을 초대하여 잘 차린 음식상 앞에서) “차린 건 별로 없지만 많이 드세요.”

이 발화는 한국 사람들이 관습적으로 하는 인사 표현 중의 하나이다. 그런데 사실과 다르게 말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표현은 협력 원리를 준수한 발화라고 할 수가 없다. 이것은 차린 것이 많다는 사실 그대로의 정보 전달에 충실하기보다는 사실과는 차이가 있더라도 청자에 대한 관계 유지를 생각해서 상대방에게 공손함을 나타낼 수 있는 표현을 선택한 것이다. 그리하여 의도적으로 협력 원리를 지키지 않은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처럼 협력 원리에 우선하여 적용하고 있는 대화의 원리를 ㉡ ‘공손 원리’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인 대화 상황에서는 협력 원리를 준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상호 관계의 증진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협력 원리보다 공손 원리를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이다.

(나)

인간은 사교적인 존재임을 자처한다. 개인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다른 사람들과 친교를 맺고 살아야 하고, 때로는 그것을 확인하려고 한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확보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수단을 동원하는데, 언어 또한 그 주요 수단의 하나로 이용된다. 이러한 언어 활동에서는 언어 형식의 관습적인 의미 내용이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우리 사회의 전통적인 인사 중에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등의 안부를 묻는 말이 있다. 아침에 일어나서 집안 어른께 문안을 드리거나, 집 밖에서 친지를 만났을 때 피차에 건강하고 유쾌한 모습을 확인하고자도 이와 같은 의문 형식의 인사를 한다. 이러한 발화 행위가 상황에 따라 의사와 환자의 사이에서처럼 애초부터 상대방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해질 수도 있는 것은 물론이나, 일상적인 인사의 경우에는 다만 친교를 확보하거나 확인하는 수단으로 이용되는 일이 많다.

㉢ 이와 같은 종류의 언어는 대체로 피차 합의에 도달하기 쉬운 문제를 화제로 선택하는 특징을 가진다. 이러한 언어는

서먹서먹한 관계를 개선하고, 부드러운 분위기를 조성하며, 친밀감을 느끼게 하는 데 효과적이다. 무엇인가 어려운 문제에 대한 합의나 승낙을 얻어내기 위한 교섭에서, 이처럼 의견의 일치를 보기 쉬운 화제로부터 시작하여 단계적으로 본론에 접근하면, 단도직입으로 난제를 꺼내는 것에 비해 좋은 결과를 얻는 일이 훨씬 수월해질 것이다.

48. (가), (나)를 통해 이끌어 낼 수 있는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언어는 사회 구성원들의 합의에 의해 변화할 수 있다.
- ② 대화는 민주적 의사 결정을 위해 거쳐야 할 과정이다.
- ③ 합리적인 사고는 곧 합리적인 언어 표현으로 나타난다.
- ④ 말은 글과 달리 사회적 관습을 벗어나려는 경향이 있다.
- ⑤ 언어의 의미는 언어 형식보다 발화 상황에 의해 결정된다.

49. (가)와 (나)의 내용을 토대로 하여 ‘효율적인 대화 요령’에 대해 강의를 하려고 한다. 강의안에 들어갈 항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근거가 없는 말은 하지 말라. 그러면 성공적인 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 ② 상대방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대화를 시작하라. 그러면 대화가 순조롭게 풀릴 것이다.
- ③ 어려운 문제일수록 급하게 말을 꺼내지 말라. 단계적으로 본론을 꺼내는 것이 해결의 지름길이다.
- ④ 비유적이고 모호한 말보다는 간결하고 명확한 말을 사용하라. 상대방과 원활하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
- ⑤ 상대방으로 하여금 항상 자신에게 주의를 집중하도록 유도하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상대방을 쉽게 설득할 수 없다.

50. ㉠:㉡의 관계와 가장 유사한 것은?

- ① 자전:공전
- ② 협력자:구원자
- ③ 교차로:신호등
- ④ 일반법:특별법
- ⑤ 하수도:상수도

51. <보기>에서 ㉔의 예로 볼 수 있는 것은?

—<보 기>—

- ㉑ “오늘은 꼭 돈을 받고 말겠어.”
주인은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가게로 들어섰다. 여자가 보이지 않았다.
- ㉒ “안에 누구 없어요?”
주인은 가게를 둘러보며 큰 소리로 여자를 찾았다.
“아, 오셨군요. ㉓ 식사는 하셨어요?”
방 안에 있던 여자가 문틈으로 얼굴을 내밀며 말을 건넸다.
- ㉔ “사글세가 여러 달 밀려 있다는 건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어요. 하지만 ㉕ 이번에도 형편이 안 되네요.
우선 밀린 거 한 달치만 받아 가시면 안 될까요?”

- ① ㉑ ② ㉒ ③ ㉓ ④ ㉔ ⑤ ㉕

[56~6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004.06

(가) 인공생명론은 생명체의 행동을 보여 줄 수 있는 인공물의 개발을 겨냥하는 학문이다. 인공물이 ‘살아 있는 것 같은 (lifelike)’ 행동을 보여 주려면 반드시 생명을 갖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인공생명론에서는 기계에 ‘생명을 불어넣는’ 방법의 연구가 가장 중요하다.

(나) 인공생명론에서 기계에 생명을 불어넣는다는 개념은 활력론(vitalism)과 혼동되기 쉽다. 활력론은, 뼈와 살 따위의 물질이 생명을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비물질적인 성분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생명관이다. 활력론에서는 생명의 성립에 필요한 비물질적인 성분을 ‘생명력(life-force)’이라고 부르며, 무생물에게 생명력을 불어넣을 때 생물체는 비로소 생명을 갖는 것으로 생각한다. 생명력의 존재를 과학적으로 입증한 사람은 아직까지 아무도 없다. 그러나 활력론은, 다윈의 진화론을 계기로 한 시대를 풍미한 유물론이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고귀한 위치로부터 끌어내려 단순한 물질로 격하시킨 것에 대한 방어 수단인 하나로서 지난 2세기 동안 강력히 옹호되었다.

(다) 한편 생명을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㉔ 생물학에서는 활력론을 거부하고, 생명이 궁극적으로 생화학에 의하여 완전히 설명이 가능한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생물학자들은 생명체를 하나의 복잡한 생화학적 기계로 간주한다.

(라) 그러나 ㉕ 인공생명론에서는 생명체를 ‘하나의 복잡한 기계’라기보다는 오히려 ‘비교적 단순한 기계의 복잡한 집단’으로 본다. 생명은 이러한 집단을 구성하는 요소들 사이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복잡한 행동을 보여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핵산이나 아미노산 따위의 생체 분자는 살아 있지 않지만 그들의 집합체인 생물체는 살아 있다. 요컨대 생명은 수많은 무생물 분자가 집합된 조직에서 나타나는 **창발적 행동(emergent behavior)**이라 할 수 있다. 창발적 행동은 인공생명론의 핵심 개념이다. 인공생명론에서는 생명을, 생물체를 조직하는 물질 자체의 특성이라기보다는 그 물질을 정확한 방식으로 조직했을 때 물질의 상호작용으로부터 출현하는 특성으로 간주한다. 생체 분자들이 생명을 갖기 위해서 생명력이 따로 있을 필요가 없으며 단지 생체 분자들을 정확한 방식으로 결합시키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다.

(마) 인공생명론에서는 생명체의 행동을 구성 요소로 분석하는 방법 대신에 구성 요소를 모아서 행동을 합성하는 방법으로 생명을 연구한다. 생물학은 생명을 다양한 계층 구조에 의하여 구성된 하나의 생화학적 기계로 보기 때문에, 상위 계층부터 하위 계층까지 더듬어 내려가는 ‘하향식(top-down) 방법’으로 물질을 분석하여 생명의 기계(機制)를 연구한다. 따라서 오로지 탄소 화합물의 생화학에 의존하는 생물학은, 모든 생명체가 본질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특성인 역동적인 형식을 설명할 수 없는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 이에 반해 인공생명론은 생명을 구성 요소 간의 상호작용에서 생겨나는 특성으로 보기 때문에, 상호 작용하는 간단한 구성 요소를 모아서 거대한 집합체를 만들어 내는 ‘상향식(bottom-up) 방법’으로 행동의

합성을 시도하여 생명의 역동적인 형식을 연구한다. ㉖ 아직까지는 아무도 규명해 내지 못한 생명의 역동적 과정을 인공생명론에서 설명하게 될 경우 생물학의 한계를 보완해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56. (가)~(마)의 중심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 인공생명론의 개념과 핵심 과제
- ② (나): 인공생명론의 대두 과정
- ③ (다): 생명체에 대한 생물학의 관점
- ④ (라): 생명체에 대한 인공생명론의 관점
- ⑤ (마): 인공생명론의 연구 방법과 학문적 의의

57. 윗글의 내용으로 보아 ‘활력론’의 관점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 ① 물질은 그 자체로 생명을 가질 수 없다.
- ② 인간을 단순한 물질로 보아서는 안 된다.
- ③ 다윈의 진화론은 인간의 위상을 격하시켰다.
- ④ 무생물도 생화학적 조합으로 생명체를 만들 수 있다.
- ⑤ 생명의 성립에는 비물질적 성분인 ‘생명력’이 필요하다.

58. <보기>를 이용하여 (라)의 내용을 설명한다고 할 때, 밑줄 친 ‘개개의 점’과 대응시킬 수 있는 것은?

—<보 기>—

신문의 인물 사진은 수많은 개개의 점들로 이루어져 있다. 신문지를 눈앞에 가까이 대어 놓고 자세히 들여다보면 얼굴의 모양은 나타나지 않고 점들만 보이지만, 적당한 거리로 물러나서 점들의 집합체를 전체적으로 보면 얼굴의 윤곽이 나타난다.

- ① 복잡한 기계 ② 생명 ③ 생체 분자
- ④ 생물체 ⑤ 창발적 행동

59. ㉠와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하향식 방법'을, ㉡는 '상향식 방법'을 쓴다.
- ② ㉡보다는 ㉠이 생명체의 본질을 잘 설명할 수 있다.
- ③ ㉡는 생명의 역동적 과정을 설명할 수 없는 ㉠의 한계를 보완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 ④ ㉠은 생명을 '하나의 복잡한 생화학적 기계'로 보지만, ㉡는 '단순한 기계의 복잡한 집단'으로 본다.
- ⑤ ㉠은 행동을 구성 요소로 분석하지만, ㉡는 구성 요소를 모아서 행동을 합성하는 방법으로 생명을 연구한다.

60. ㉠에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고진감래(苦盡甘來) ② 유일무이(唯一無二)
- ③ 진퇴유곡(進退維谷) ④ 질차탁마(切磋琢磨)
- ⑤ 전인미답(前人未踏)

[18~2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03.11

1908년에 아레니우스(S. Arrhenius)는 지구 밖에 있는 생명의 씨앗이 날아와 지구 생명의 기원이 되었다는 대담한 가설인 ‘포자설’을 처음으로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이 주장은 검증할 방법이 없었으므로 과학적 이론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 후 DNA의 이중 나선 구조를 밝혀 노벨상을 받은 크릭(F. Crick)이 1981년에 출판한 『생명의 출현』에서 ‘포자설’을 받아들였지만, 그의 아내조차 그가 상을 받은 이후 약간 이상해진 것이 아니냐고 말할 정도였다.

지구 밖에 생명이 있다고 믿을 만한 분명한 근거는 아직까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과학자들은 외계 생명의 존재를 사실로 인정하려 한다. 그들은, 천문학자들이 스펙트럼으로 별 사이에 있는 성운에서 메탄올과 같은 간단한 유기 분자를 발견하자, 이것이 외계 생명의 증거라고 하였다. 그러나 별 사이 공간은 거의 진공 상태이므로 생명이 존재하기 어렵다. 외계 생명의 가능성을 지지하는 또 한 가지 증거는 운석에서 유기 분자가 추출되었다는 것이다. 1969년에 호주의 머치슨에 떨어진 운석 조각에서 모두 74종의 아미노산이 검출된 데에서도 알 수 있듯이, 유기 분자가 운석에 실려 외계에서 지구로 ㉠ 온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한편, 이와는 달리 운석이 오히려 지구상의 생명을 멸종시켰다는 가설도 있다. 한때 지구의 주인이었던 공룡이 중생대 말에 갑자기 멸종했는데, 이에 대해 1980년에 알바레즈(W. Alvarez)는 운석 충돌을 그 원인으로 추정했다. 이때 그는 ㉡ 중생대와 신생대 사이의 퇴적층인 K·T층이 세계 여러 곳에서 발견된다는 점에 주목했다. ㉢ 이 K·T층에는 이리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 이리들은 지구의 표면에 거의 없는 희귀 원소로, ㉤ 운석에는 상대적으로 많이 포함되어 있다. 이를 바탕으로 그는, 중생대 말에 ㉥ 지름 약 10km 크기의 운석이 지구에 떨어졌고, 그에 따라 엄청난 많은 먼지가 발생하면서 수십 년 동안 햇빛을 차단한 나머지 기온이 급강하했으며, 이로 말미암아 공룡을 비롯한 대부분의 생명이 멸종되었다고 주장하였다.

화석 연구를 통하여 과학자들은 지구 역사상 여러 번에 걸쳐 대규모의 멸종이 있었음을 알아내었다. 예컨대 고생대 말에 삼엽충과 푸줄리나가 갑자기 사라졌다. 이러한 대규모 멸종의 원인에 관해서는 여러 가설이 있는데, 운석의 충돌도 그 중 하나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오늘날에는 생명의 원천이 되는 유기물이 운석을 통하여 외계에서 왔을 가능성과, 운석으로 인해 지구상의 생명이 멸종되었을 가능성을 그대로 받아들이려는 학자들이 많다. 하지만 지구상 유기물의 생성 과정에 대해서는 의견이 일치하지 않고 있다. 그렇기에 세이건(C. Sagan)은 외계에서 온 유기물과 지구에서 만들어진 유기물이 모두 생명의 탄생에 기여했을 것이라는 절충적인 견해를 제시하기도 했다. 결정적인 증거가 발견되기까지 생명의 기원을 설명하는 가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다양하게 제기될 것이다.

18. 윗글의 내용으로 미루어 알기 어려운 것은?

- ① 유기 분자는 생명의 탄생에 필요한 성분일 것이다.
- ② 삼엽충은 운석 충돌에 의해 탄생하고 멸종했을 것이다.
- ③ 지구상에서 자생적으로 유기물이 생성됐을 가능성이 있다.
- ④ 포자설을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 ⑤ 공룡 멸종 이후에 나타난 생물의 화석은 신생대 지층에서 발견될 것이다.

19. 윗글의 논지 전개 방식을 가장 잘 설명한 것은?

- ① 어느 한 주장에 입각해서 다른 주장을 논박하고 있다.
- ② 여러 주장의 문제점을 분석한 다음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 ③ 대립되는 주장을 소개한 다음 절충하여 마무리하고 있다.
- ④ 서로 다른 주장을 객관적으로 소개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 ⑤ 여러 주장을 바탕으로 하여 새로운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20. 윗글에서 이끌어 낼 수 있는, ‘가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타당성을 검증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 ② 중도적인 입장에서 현상을 설명해야 한다.
- ③ 최소한의 근거를 가져야 성립할 수 있다.
- ④ 다른 가설과 경쟁 관계를 형성하기도 한다.
- ⑤ 과학적 증거에 따라 그 운명이 결정된다.

21. 역사학자들은 <보기>를 바탕으로, 4~6세기경의 신라 고분에서 발견된 유리구슬의 원산지를 추론한다. [A]와 <보기>의 추론 과정이 동일하다고 할 때, ㉠~㉥ 중 <보기>의 내용과 대응하지 않는 것은?

<보 기>

- 4~6세기경에 축조된 신라 고분 금령총에서 유리구슬이 나왔다.
- 금령총에서 발굴된 유리구슬에서 알칼리 석회 성분이 검출되었다.
- 당시 아라비아에서만 알칼리 석회 성분이 포함된 유리를 생산했다.
- 지금까지의 연구에 의하면 당시 신라에서는 유리를 제조하지 않았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22. ㉦과 바꾸어 쓰기에 알맞은 것은?

- ① 투입(投入)된다는
- ② 수입(輸入)된다는
- ③ 유입(流入)된다는
- ④ 편입(編入)된다는
- ⑤ 도입(導入)된다는

MEMO

MEMO

[23~2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003.11

하사(下士)*는 오곡을 보면 중국에도 있는지를 묻고, 중사(中士)*는 중국 문장이 우리나라보다 못하다고 여긴다. 상사(上士)*는 중국에는 이학(理學)이 없다 한다. 과연 그러하다면 중국에는 배울 만한 것이 거의 없다 하겠다.

그러나 이 큰 천하에 무엇인들 없겠는가? 내가 지나가 본 곳은 중국의 한 모퉁이인 유주(幽州), 연주(燕州)이고, 만난 사람도 문인 몇 사람일 뿐이니 도(道)를 물려받은 큰 선비는 실상 보지 못했다. 하지만 ㉠ 반드시 그런 사람이 없다고 감히 말하지 못하는 것은 천하의 서적을 다 읽지 못했고 천하의 지역을 두루 돌아보지 못한 때문이다. 지금 중국에는 뛰어난 학자들과 걸출한 문인들이 있는데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중국의 학문과 문학을 볼 것 없다고 하는데 도대체 무얼 믿고 그러는지 알 수 없다.

대저 서적에 기재된 것은 그 범위가 대단히 넓고 의미가 무궁하다. 그런 까닭에 중국 서적을 읽지 않는 자는 스스로 금을 긋는 것이고, 중국을 다 오랑캐라 하는 것은 남을 속이는 것이다. 중국에 비록 육상산이나 왕양명 같은 사람들의 학설이 있다고 해도 주자학의 적통(嫡統)은 제대로 남아 있다.

우리나라는 사람마다 주자의 학설을 말할 뿐이며 나라 안에 이단이 없으므로 사대부는 감히 육상산이나 왕양명의 학설을 말하지 못한다. 이것이 어찌 도가 하나에서 나와서 그런 것이겠는가? 과거(科擧)로 몰아대고 풍기(風氣)로 구속하니 이와 같이 하지 않으면 몸이 편안하지 않고 그 자손마저 보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런 모든 것이 중국의 큰 규모와 같게 되지 못하는 요인이 된다. 무릇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좋은 기예를 다 발휘해도 중국의 물건 하나에 불과할 터이니 서로 비교하려는 것은 이미 자신을 알지 못함이 심한 자이다.

내가 연경(燕京)에서 돌아오니 국내 사람들이 잇달아 와서 중국 이야기를 들려주기를 청하는 것이었다. 나는 일어나면서, “그대는 중국 비단을 못 보았나? 꽃과 새, 용 따위의 무늬가 번쩍번쩍하여 살아 있는 듯하며, 가까이 보면 기빠하는 듯, 슬피하는 듯, 모습이 금세 달라진다. 그것을 보는 자는 다 직조 기술이 과연 여기까지 이를 줄은 몰랐다 하는바, 우리나라의 면포가 날과 씨만으로 짜여 있는 것과 어떠한가? 중국에는 어떤 물건이든지 그렇지 않은 것이 없다. ㉡ 그 말은 문자를 그대로 사용하며, 짙은 금빛과 채색 단장으로 꾸몄고, 통행하는 것 수레이고, 냄새는 향기로운 냄새뿐이다. 그 도읍, 성곽, 음악의 변화함이며, 무지개다리, 푸른 숲 속에 은은하게 오가는 풍경은 완전히 그림과 같다. 부인네 머리 모습과 긴 저고리는 모두 옛날 제도 그대로이며 멀리서 바라보면 몸매가 날씬하여 우리나라 부인네의 짧은 저고리와 폭넓은 치마가 아직도 몽고 제도를 이어받은 것과 같지 않다.”

하였더니 모두 허황하게 여겨 믿지 않았다. 평소에 생각하던 것과 아주 다르다는 듯이 이상한 표정을 짓고 돌아가면서, “호국(胡國)을 우단(右袒)*한다.”라는 것이었다.

아아, 나를 찾아왔던 사람들은 모두가 장차 이 유도(儒道)를 밝히고 이 백성을 다스릴 사람들인데 그 고루함이 이와 같으니

오늘날 우리나라 풍속이 진흥하지 못하는 것이 당연하다. 주자는 “의리를 아는 사람이 많기를 원할 뿐이다.” 하였는데, 그러므로 나도 이에 대해서 변론하지 않을 수 없다.

- 박제가, 『북학의』 -

- * 하사·중사·상사: 선비를 상·중·하로 나누어 표현한 것.
- * 우단: 한쪽 편을 들.

23. 윗글의 필자가 당시 우리나라 사정에 대해 지적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우리나라 여자들의 복식은 중국의 복식과는 다르다.
- ② 과거 시험에서 왕양명의 학설을 주장하면 불이익을 받는다.
- ③ 많은 사람들은 근거 없이 중국의 문화가 저급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 ④ 지식인들이 현재의 연경 상황에 대해서는 별로 흥미를 갖고 있지 않다.
- ⑤ 우리나라의 면직물은 무늬 없이 짜기 때문에 중국 비단에 미치지 못한다.

24. ㉠과 같은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은?

- ① 조물주의 존재 여부와 같은 신념의 문제는 사실의 진위와는 관계없다.
- ② 유럽의 백조가 희다고 해서 전 세계의 백조가 희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
- ③ 소 꼬리를 다리라고 부른다고 해서 소의 다리가 다섯 개가 되는 것은 아니다.
- ④ 이곳에서 키가 큰 사람이라고 하여 저곳에서도 키가 크다고 보장할 수는 없다.
- ⑤ 바닷물이 짠지 짜지 않은지를 알기 위해 모든 바닷물을 다 마셔 볼 필요는 없다.

25. <보기>의 견해를 가진 사람이 윗글의 필자에게 충고한다고 할 때, 그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지금까지 우리는 위인들이 남긴 업적을 숭배하고 따르는데에만 관심을 기울였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그들의 행동을 우리 행동의 모범으로 미화하게 되어, 주체적 가치관을 형성하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다. 사실 위인이 위인다울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이룩한 업적이 탁월해서라기보다는, 기존의 권위에 도전하고 갈등과 역경을 극복한 과정이 비범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위인의 삶을 통해 그들이 어떻게 권위에 도전했는지, 어떤 갈등을 겪었는지, 그리고 어떤 과정을 통해 역경을 극복했는지를 배워야 한다.

- ① 중국을 따르는 일이 역사적 과제임을 깨닫고 중국을 따르는데 반대하는 사람들을 설득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
- ② 중국을 배운다면 문물이나 제도를 배우기보다 중국이 스스로 변혁해 온 경로와 그 의지를 배워야 한다.
- ③ 중국에도 결함이 있으므로 중국의 문물을 따를 때에는 장점만을 선택하는 신중한 태도가 필요하다.
- ④ 중국 문물을 잘 모르는 일반 백성들이 받을 충격과 혼란도 감안하여 점진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 ⑤ 중국은 하나의 참조 대상일 뿐이므로, 우리는 중국과는 다른 우리의 장점을 발전시켜야 한다.

26. 필자가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 택한 글쓰기 전략은?

- ① 은유적 표현을 활용하여 우리의 후진성을 풍자한다.
- ② 반대 상황을 설정하여 도덕적 인재의 등용을 촉구한다.
- ③ 반대론자들의 주장을 이용하여 지식인의 속물근성을 비판한다.
- ④ 경험적 사례를 제시하여 사람들의 통념이 편협한 것임을 드러낸다.
- ⑤ 성현의 말씀을 인용하여 훌륭한 옛 제도를 현대에 시행할 방법을 제시한다.

27. 대상에 대한 태도가 ㉠과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분을 바른 듯이 하얀 얼굴, 기름 바른 머리, 여름에도 까만 지팡이와 같이 밤낮 팔에 걸고 다니는 외투, 속에도 없는 것을 지어서 하는 듯한 그 공손한 태도와 웃음.
- ② 고대 그리스 조각같이 매끈한 얼굴 윤곽, 그 밑으로 살짝 다물어도 선명하게 선이 지는 입매, 언제나 투명하고 파르스름해 보이는 그의 살결, 그 초연함. 그는 속눈썹마저 길었다.
- ③ 자신이 가진, 백 명 중 한 명꼴에 해당하는 아름다움을 소모하지 못해 늘 전전긍긍해 하는 여자였다. 화장과 옷맵시에 유달리 감각이 뛰어났던 그녀는 액자에 끼워 놓고 봐야 안성맞춤인 그런 여자였다.
- ④ 민주의 모습은 아득하게 사막의 흰 햇빛 속에 녹아들고 불에 패인 보조개로만 남는다. 그 보조개는 구름이 되기도 하고, 이슬이 되기도 하고, 안개가 되기도 하고, 그러다가 한 줄기 바람이 되어 옷깃을 시리게 파고든다.
- ⑤ 루비슈카도 아니고 터키 사람들의 옷도 아닌 참으로 기묘한 디자인의 옷을 그는 걸치고 있었다. 녹색과 갈색의 대담한 체크무늬의 옷은 이상하기도 하려니와 얼마나 컸는지 움직이면 사람이 아니라 옷이 움직이고 있는 형편이었다.

[37~4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003.11

지도는 지표(地表) 공간에 관한 인간의 의사소통 수단으로 매우 유용하기 때문에 일찍부터 활용되어 왔다. 아마도 먼 옛날에는 흙이나 모래 또는 돌 위에 간단하게 공간 정보를 나타내어 이용하였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약 3천 년 전의 선사인(先史人)이 남긴 암각화에 공간 정보가 그려져 있는 것이 확인되었고, 고구려 벽화에서는 요동성시(遼東城市) 그림이 발견되었다. 삼국 시대와 고려 시대에 군사용 혹은 행정용 지도가 제작되었다는 사실도 다양한 문헌 자료에 의하여 밝혀졌으나, 지금은 전하지 않는다. 이후 제작 기술이 발달하고 그 쓰임이 다양해짐에 따라, 지도는 많은 변천을 거치며 오늘날에 이르렀다.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지도는 조선 시대 이후에 제작된 것이다. 조선 초기에는 조선 건국의 에너지가 각종 지도로 표현되었다. 한 예로, 1402년에 제작된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混一疆理歷代國都之圖)'는 중국, 일본에서 유럽과 아프리카까지 당시의 세계를 종합적으로 나타낸 지도였다. 이 지도는 실제로 측량을 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당대의 기존 지도를 조합하여 제작한 것으로, 신흥 국가 조선을 세계 속에서 확인하고 싶어했던 당시 사람들의 소망을 담고 있다. 조선 후기에는 목판 인쇄술의 발달로 목판본 지도가 많이 제작되었는데, 지도의 크기가 대형화되었으며 지도에 표시되는 정보도 상세하고 풍부해졌다. 그런데 조선 시대에 제작된 지도들의 대부분은 관(官) 중심으로 만들어져 통치와 행정의 수단으로 주로 활용되었다.

개항 이후에는 서양의 인쇄 기술과 지도 제작 기술이 도입되었고, 일제 강점기에는 주로 일본인에 의해 서양의 정밀한 지도 제작 기술이 도입되었다. 이들은 한반도 수탈을 위해 지도를 제작하였으며, 그런 점에서 지도는 여전히 통치와 행정의 도구 역할을 했다. 광복 이후가 되어서야 비로소 지도는 대중에게 보급될 수 있었다.

근래 컴퓨터의 이용이 보편화되고 컴퓨터 용량이 대형화됨에 따라 컴퓨터 지도가 발달하였다. 컴퓨터 지도는 수치 지도 [디지털 지도]라는 점에서 기존의 종이 지도와는 크게 다르다. 수치 지도는 기존의 지도에서 사용되던 기호 체계를 사용하되, 각종 지리 정보들을 표준 코드로 분류하여 저장한 지도이다. 수치 지도는 토지 이용도, 지적도, 지하 시설물 위치도, 도로 지도, 기상도, 식생도와 ㉠ 같은 주제도(主題圖)에 널리 활용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수치 지도를 활용하는 체계를 '지리 정보 체계[GIS]'라고 부른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지도는 각 시대의 필요에 따라 점진적으로 발달해 왔다. 지도는 인간이 살아가는 공간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담고 있는데, 이들 정보는 당대 사람들의 삶에 의미를 가지는 것들이다. 우리는 여러 가지 지도를 통해서 우리 자신뿐 아니라 먼 과거에 살았던 사람들, 나아가 한 번도 가 보지 못한 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의 생각과 삶의 모습을 접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점에서 지도는 세계를 바라보는 창(窓)이라 할 수 있다. 우리가 지도라는 창을 통해 세계를 이해하고 갖가지 의미를 이끌어 낼 때 지도는 다양하고 풍부한 정보를 담은 두툽한 한 권의 책이 되는 것이다.

37.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지도는 인간의 의사소통 수단 중의 하나이다.
- ② 시대의 흐름에 따라 지도 사용 계층이 확대되었다.
- ③ 옛 지도는 주로 행정과 통치의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 ④ 과학 기술의 발달은 지도의 발달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 ⑤ 지도의 크기가 대형화되면서 다양한 주제도가 발달하였다.

38. 윗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지도'의 개념을 바르게 기술한 것은?

- ① 공간 정보를 기호 체계로 표현한 것이다.
- ② 공간 정보를 인쇄 매체로 구현한 것이다.
- ③ 공간 정보를 표준 코드로 체계화한 것이다.
- ④ 공간 정보를 비공간 정보와 결합한 것이다.
- ⑤ 공간 정보를 수치를 이용하여 저장한 것이다.

39. 윗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아래 지도를 해석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우리나라를 실제보다 크게 그린 것으로 보아, 실측 지도라고 보기는 어렵다.
- ② 중국이 지도의 중심에 있는 것으로 보아, 당시 우리나라 사람들의 세계관을 알 수 있다.
- ③ 기존 지도를 조합해서 만들었으므로, 당시 조선 국왕의 권위를 나타내기에는 어려웠을 것이다.
- ④ 유럽이 매우 미미하게 그려진 것은 당시 유럽에 대한 정보가 상대적으로 부족했기 때문이다.
- ⑤ 아프리카가 지도에 나타난 것으로 보아, 당시 우리나라 사람들의 지리적 인식 범위를 알 수 있다.

40. 밑줄의 내용으로 보아, ‘창’과 ‘책’의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 <u>창</u> | <u>책</u> |
|---|----------|----------|
| ① | 이념의 구현 | 이념의 체계 |
| ② | 세계의 창조 | 세계의 재현 |
| ③ | 과거의 기록 | 현재의 척도 |
| ④ | 자연적 공간 | 사회적 공간 |
| ⑤ | 인식의 매개 | 인식의 확대 |

41. ㉠과 동일한 의미로 쓰인 것은?

- ① 여행할 때는 소화제 같은 것을 준비해야 해.
- ② 우리 모두는 같은 고등학교를 졸업했다.
- ③ 오늘은 비가 올 것만 같은 날씨다.
- ④ 유수와 같은 세월을 어찌 막으랴?
- ⑤ 말 같은 말을 해야지.

[42~4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003.11

1952년 어느 날, 현대 음악가 존 케이지(J. Cage)는 미국의 한 대학에서 강의를 했다. 그가 강의를 한 곳은 사다리 꼭대기였고, 그 내용은 긴 침묵과 춤이었다. 이 행위는 일반적인 강의 형식과 내용을 뒤집어 놓은 것이어서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다. 또 어떤 작가는 거대한 얼음 덩어리 20개를 ㉠길거리에서 녹게 내버려 두어, 사물이 시시때때로 변화하는 과정을 송두리째 보여 주기도 했다. 다른 예로는 빌딩만한 립스틱이나 전기 플러그 등과 같은 작품을 떠올려도 좋겠다. 친숙한 것을 낯선 것으로, 낯선 것을 친숙한 것으로 보여 주어 인간을 먼 상상의 여행길로 나서게 하는 이런 예술 행위의 본질은 무엇일까?

해프닝(happening)이란 장르는 글자 그대로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여 준다. 이것은 즉흥적으로 이루어지며, 말보다는 시각적이고 청각적인 소재들을 중요한 표현의 도구로 삼는다. 공연은 폐쇄된 극장이 아니라 화랑이나 길거리, 공원, 시장, 부엌 등과 같은 일상적인 공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동성이 뛰어나다. 또한 논리적으로 연결되지 않는 사건과 행동들이 파편적으로 이어져 있어 기이하고 추상적이기도 하다. 대화는 생략되거나 아예 없으며, 때로 불쭙불쭙 튀어나오는 말도 특별한 의미를 지니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를 통해 해프닝은 우리 삶의 고통이나 희망 등을 논리적인 말로는 더 이상 전달할 수 없다는 것을 내세운다. 이러한 해프닝의 발상은 미술의 콜라주, 영화의 몽타주와 비슷하고, 삶의 부조리를 드러내는 현대 연극, 랩과 같은 대중음악과도 통한다. 우리의 삶 자체가 일회적이고, 일관된 논리에 의해 통제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야말로 해프닝과 삶 자체의 밀접한 관계를 보여 주는 것이 아닐까.

다양한 예술 사이의 벽을 무너뜨리는 해프닝은 기존 예술에서의 관객의 역할을 변화시켰다. 행위자들은 관객에게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고향을 지르거나 물을 끼얹으면서 관객들을 자극하고 희롱하기도 한다. 공연은 정해진 어느 한 곳이 아니라 이곳저곳에서 혹은 동시 다발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하며, 관객들은 ㉡볼거리를 따라 옮겨 다니면서 각기 다른 관점을 지닌 장면들을 보기도 한다. 이것은 관객들을 공연에 참여하게 하려는 의도라고 할 수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해프닝은 삶과 예술이 분리되지 않게 하고, 궁극적으로는 일상적 삶에 개입하는 의식(儀式)이 되고자 한다. 나아가 예술 시장에서 상징적 재화로 소수 사람들 사이에서 거래되는 것을 거부한다. 또 해프닝은 ㉢박물관에 완성된 작품으로 전시되고 보존되는 기존 예술의 관습에도 저항한다.

이와 같은 예술적 현상은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예술가들의 정신적 모험의 실천이라고 할 수 있다. 인습적인 사회 제도에 순응하는 것을 비판하고 고정된 예술의 개념을 변혁하려고 했던 해프닝은 우연적 사건, 개인의 자의식 등을 강조해서 뭐가 될지 알 수 없는 것이라는 비판을 듣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 사회에서 안락한 감정에 마비되어 있는 우리들을 휘저어 놓으면서 삶과 예술의 관계를 새롭게 모색하는 이러한 예술적 모험은 좀 더 다양한 모습으로 예술의 지평을 넓혀 갈 것이다.

42.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 ① 해프닝은 윤리적 규범으로부터 벗어난 예술 행위를 기피한다.
- ② 해프닝은 일상의 예술 행위로서 기존 예술의 입장과 궤를 같이한다.
- ③ 해프닝은 우연적 사건을 강조하므로, 관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배제한다.
- ④ 해프닝은 생의 고통과 부조리를 사실적으로 다룬다는 점에서 현실의 반영이다.
- ⑤ 해프닝은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렵고 반복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삶에 가깝다.

43. <보기>의 시 작품을 활용하여 윗글의 논지를 보강하는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시제4호
환자의용태에관한문제.

I I I I I I I I I I ·
 S S S S S S S S S S · I
 E E E E E E E E · S S
 t t t t t t t t · E E E
 c c c c c c c c · t t t t
 o o o o o o · c c c c c
 v v v v · o o o o o o
 8 8 8 · v v v v v v v
 e e · 8 8 8 8 8 8 8
 0 · e e e e e e e e e
 · 0 0 0 0 0 0 0 0 0

진단 0·1
26·10·1931
이상 책임의사 李 箱

- ① 이 시가 당시 현대시의 주된 흐름을 반영하고 있다는 비평 자료를 찾아볼 필요가 있겠어.
- ② 이 시에는 기존의 언어 체계를 불신하는 태도가 드러나 있는데, 그 점에 주목해야 할 거야.
- ③ 자신을 '미쳤다'고 하는 독자들의 반응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 시를 쓴 시인의 의도도 거론해야겠지.
- ④ 이 시처럼 상식적으로는 시라고 보기 어려운 작품들을 모아 놓은 선집(選集)이 있다면, 그걸 사례로 들어도 좋지 않을까.
- ⑤ 이 시를 포함한 연작시가 신문에 연재되다 편집진의 압력으로 중단되었다는 기록이 있다면, 그것도 유용한 자료가 될 거야.

44. ㉠의 입장에서 <보기>와 같이 윗글을 비판하는 글을 쓰려고 한다.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타당한 것은?

<보 기>

기존의 작가들은 자신의 창조적 개성과 예술적 전통을 조화시킨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예술적 가치를 인정받은 작품은 문화적 자산으로서 길이 보존되는 동시에 다수의 관객이 함께 즐기는 공동체의 산물이 된다.
이에 반해 해프닝은 ()

- ① 공연의 시작과 끝이 불분명해서 관객은 작품 해석의 기준을 상실한다.
- ② 관객의 상상력을 촉발하려는 의도가 강해 작품의 구조가 비교적 단순하다.
- ③ 개인과 사회의 본질적 문제를 가볍게 다루어 관객들은 이를 통해 자신의 삶을 반성하기 어렵다.
- ④ 자의식이 강하고 우발적이므로 관객 사이의 합의를 얻지 못할 뿐 아니라 예술적 전통으로 계승되기 어렵다.
- ⑤ 직관보다는 이해를 강조하므로 취향이 서로 다른 다수의 관객을 만족시키기 어렵고 이질감을 느끼게 한다.

45. <보기>는 해프닝 예술 작품을 소개하는 신문 기사이다. ㉠을 고려하여 <보기>의 내용이 잘 드러나도록 표제와 부제를 알맞게 붙인 것은?

<보 기>



1967년 미국의 작가 올덴버그(C. Oldenburg)는 「거대한 담배꽂초」라는 작품을 만들었다. 스티로폼으로 채워진 담배꽂초는 실제로 거대하다. 일상적인 사물이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관객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이 작품은 관객들에게 불쾌감마저 일으킨다. (후략)

- ① 고정된 정체성을 변화시키는 예술
- 사물의 확대를 통한 의미의 진복
- ② 사회적 일탈을 부정한 정형 예술
- 조화·균형·절제의 세계 지향
- ③ 논리적 시각으로 바라보는 예술
- 입체 공간에서의 현실감 체험
- ④ 과거와 현재를 넘나드는 예술
- 다양한 관점으로 사물을 해석
- ⑤ 관객의 무지를 폭로하는 예술
- 열린 시각으로 사물의 유용성 강조

46. 전자 국어사전을 사용하여 ㉠, ㉡의 '거리'와 관련된 말들을 검색하며 탐구 학습을 해 보았다. <보기>의 활동을 통해 알아낸 내용으로 잘못된 것은?

<보 기>

1단계: '거리'가 들어가는 단어 검색

*거리 → 국거리
 ㉠ 길거리
 김장거리
 땀거리
 떡거리
 먹을거리
 ㉡ 불거리
 해거리
 ⋮

2단계: 표제어 '거리' 찾기

거리¹ ㉠ 사람이나 차 등이 다니는 길.
거리² ㉡의 ㉠ 내용이 될 만한 재료.
 ㉢ 제시한 시간 동안 해낼 만한 일.
거리³ ㉡의 탈놀음이나 연극 등에서 장(場)을 세는 단위.
거리(距離)⁴ ㉡ 두 물건이나 장소가 공간적으로 떨어진 길이.
-거리⁵ ㉡ '비하'의 뜻을 나타내는 접미사.
-거리⁶ ㉡ (기간을 나타내는 명사 뒤에 붙어) '주기'의 뜻을 나타내는 접미사.
 ⋮

- ① ㉠의 '거리'는 거리¹의 뜻으로 사용되었으며, ㉡는 '명사+명사'의 구조임을 알게 되었다.
- ② ㉡의 '거리'는 '국거리, 김장거리, 땀거리, 먹을거리'와 같이 거리² ㉠의 뜻을 지님을 알게 되었다.
- ③ '땀거리'는 '무리'를 뜻하는 '땀'에 -거리⁵가 결합한 것임을 알게 되었다.
- ④ "과실이 해거리로 열린다."의 '해거리'는 '해'에 거리² ㉠이 결합한 것임을 알게 되었다.
- ⑤ 1단계에서 검색된 단어는 단어가 아니라 모두 복합어임을 알게 되었다.

[57~6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03.11

(가)

언어는 그것을 사용하는 언중(言衆)의 역사와 생활을 반영한다. 그러기에 ㉠ 언어를 문화의 색인(索引)이라고까지 말한다. 한 민족은 그 민족 나름의 독특한 역사와 문화를 지니고 있으며, 독특한 사상, 감정 및 사고방식도 아울러 지닌다. 이들은 그대로 언어에 반영되는데, 어휘 부문에서 가장 두드러진다. 국어의 어휘상의 특질 중 몇 가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량의 한자어들이 들어와 한자어가 전체 어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 한자는 대략 기원전 3세기경에 이 땅에 전래되어,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7세기경에는 이미 널리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하여 신라 22대 지증왕 때와 35대 경덕왕 때에 각각 ㉡ 인명과 지명 등을 한자어로 바꾸었다. 이러한 한자어는 그 후 고려 시대에 불교, 조선 시대에 유학이 융성함에 따라 더욱 많이 사용되었다.

둘째, 우리말에는 감각어가 매우 발달되어 있다. 우리 민족은 정서적이고 감각적인 편이었다. 이러한 특징이 언어에 반영되어 우리말에 감각적인 어휘가 풍부하게 발달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 노란색을 나타내는 말만 하더라도 매우 다양하다. 노란색을 나타내는 말이 영어에서는 'yellow' 하나 정도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국어의 감각어가 얼마나 다채롭게 발달되어 있는지 쉽게 알 수 있다.

셋째, 상징어의 발달을 들 수 있다. 상징어는 주로 소리, 동작 형태를 모사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이고 감각적인 표현 수단인 하나이다. 상징어는 국어에 특히 발달되어 있고, ㉣ 음상의 차이에 의해 다양하게 분화될 수 있다.

(나)

우리말의 특징을 고려하여 우리말을 표현력이 더욱 풍부한 언어로 만들려면 언어를 사용하는 구성원 전체의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말의 표현력을 높이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중에서 어휘와 관련되는 것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현력을 높이려면 우선 어휘의 절대량을 늘리는 일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 다양한 합성법을 사용하거나, '-보, -쟁이' 등 파생 접사를 이용한 파생법을 사용할 수 있다. 한편 어휘의 절대량을 늘리기 위해 외래 요소를 받아들이기도 한다. 우리가 오랫동안 한문을 사용해 온 까닭으로 우리말에는 다량의 한자어가 들어와 있다. ㉥ 우리 민족은 한자어를 받아들여 우리식 한자음으로 읽었으며, 한자어 명사나 부사에 '-하다'를 붙여 우리말 조어 규칙에 맞는 동사로 만들어 받아들였다. 바람직하다고는 볼 수 없지만, 최근에는 '스마트하다', '다이내믹하다'처럼 영어의 형용사에 '-하다'를 붙여서 새로운 단어를 만들기도 한다. 또 우리말에 발달한 의성어나 의태어를 새로 만드는 것도 부분적으로 가능하다. 사전에는 '사르르'만 실려 있는데, 실제 발화에서는 '사르르르', '사르르르르'식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소설류에는 '나홀나홀', '필릴리' 등 기존 사전에 없는 상징어들이 등장하는데, 이 중 일부는 개인이 만든 것일 수 있다. 새로 만들어진 어휘들은 이후에 사회적인 공인을 얻어 사전에 오를 수도 있을 것이다.

어휘의 절대량을 늘리는 일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기존 어휘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일이다. 예를 들면 방언이나 옛말 등을 찾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어촌 지역에서 주로 쓰이던 '하늬바람'이 시어 등에 자주 사용되면서 널리 쓰이게 되었고, '가람, 피' 등 옛말 어휘가 오늘날 인명, 상표명 등에 쓰이기도 한다. 이처럼 이미 우리말에 존재하던 어휘들이 새롭게 쓰이면서 정서적인 의미를 추가로 가지게 되어 우리말의 표현력을 높이는 데에 기여하기도 한다.

57. (가)와 (나)의 관계를 가장 잘 설명한 것은?

- ① (가)를 (나)에서 사례를 들어 보완하고 있다.
- ② (가)를 (나)에서 긍정하고 부연하여 설명하고 있다.
- ③ (가)에 대해 (나)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반론을 전개하고 있다.
- ④ (가)를 근거로 (나)에서 미래에 전개될 방향을 예견하고 있다.
- ⑤ (가)와 관련하여 (나)에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58. (가), (나)로부터 이끌어 내기 어려운 것은?

- ① 외래어도 해당 언어를 표현력이 풍부한 언어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 ② 사전에서 방언이나 옛말을 찾아 쓰는 것은 어휘량을 늘리기 위한 방안이다.
- ③ 언어를 발달시키기 위해서는 언어 생활에서의 실천적인 노력이 중요하다.
- ④ 소리나 동작 형태를 모사하는 상징어는 감각적 표현을 풍부하게 해 준다.
- ⑤ 생활 양식이나 의식이 변하면 어휘의 특질이 변할 수 있다.

59. ㉠~㉥의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김치, 된장, 온돌' 등 우리 생활을 반영하는 어휘
- ② ㉡: 고유어 지명 '매홀'을 한자어 지명 '수성(水城)'으로 바꿈
- ③ ㉢: '깜깜하다 - 깜깜하다'처럼 자음의 차이에 따라 어감이 다른 어휘로 분화됨
- ④ ㉣: '떡다 → 떡이다', '남다 → 남기다'처럼 '-이'나 '-기'를 붙여 사동사를 만들
- ⑤ ㉤: 중국 한자음으로 첫소리가 [ㄹ(1)]인 '來日', '老人'을 우리식 한자음 ['내일'], ['노인']으로 읽음

60. ㉠와 관련하여, <보기>의 원리에 따라 우리말 색채어의 다양성을 학습해 보고자 한다. () 안에 알맞은 것은?

<보 기>

<색채어 분화 원리>

1. '노랗다'와 같이 양성 모음을 갖는 어휘는 밝은 색깔을 표현하고, '누렇다'와 같이 음성 모음을 갖는 어휘는 어두운 색깔을 표현한다.
2. '쌔-'은 양성 모음을 갖는 어휘에, '싯-'은 음성 모음을 갖는 어휘에 붙는데, 둘 다 '색깔이 더 짙음'을 표현한다.
3. '-스름하다', '-스레하다'가 결합하면 '색깔이 분명하지 않다'는 의미를 더해 준다.

<예문>

개울가에는 노란 달맞이꽃이 오후 햇살에 눈이 부신 듯 얼굴을 찡그린 채 줄지어 서 있었다. 해가 지자 달맞이꽃들은 차츰 희미해져서 노르스름한 점들로 보였다. 시간이 흘러 산등성이에서 달이 뜨기 시작했다. 노르스레하던 달맞이꽃은 달이 떠오르자 점점 선명해져 여기저기 작고 () 얼굴을 내밀었다.

- ① 누런 ② 싯누런 ③ 쌔노란
- ④ 누르스레한 ⑤ 노룩노룩한

[13~1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003.09

얼마나 많은 여가 시간을 갖고 인간답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한 사회의 '삶의 질'을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 가운데 하나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의 법정 노동 시간은 주당 44시간으로, 대부분의 OECD 국가가 주당 40시간인 데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노동 시간 단축 문제를 두고 노동자, 사용자, 정부 간의 이른바 노·사·정 협의가 최근 진행되고 있다.

노동자 측에서는 노동 시간의 양보다 질적 성과가 더 중요하다는 점을 들어 노동 시간의 단축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즉, 노동 시간을 단축하게 되면 늘어난 여가 시간을 통해 자기 개발의 기회를 확대할 수 있게 되고, 이를 통해 획득한 지식과 경험이 업무 수행 능력을 높임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이 제고된다는 것이다. 아울러, 장시간의 노동에서 벗어나 가족이나 이웃과 함께 하는 시간이 많아지면, 한 개인으로서 인간 관계 회복에 도움이 되는 물론, 노동자로서도 재충전의 기회를 충분히 갖게 된다. 이 경우 직장과 일에 대한 애정을 느끼게 되어 생산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으며, 잔업이나 특근 등 지난날 장시간의 노동으로 인해 발생했던 직업병과 산업 재해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노동자 측의 주장이다.

반면에 기업 측에서는 법정 노동 시간의 단축이 실제로 노동 시간을 줄이기보다는, 시간 외 일에 대한 초과 임금 지급으로 인건비 부담만 가중시킴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킬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제도를 도입하는 시점에서의 생산 차질과 노동 조건을 둘러싼 노사 마찰 때문에 노동 비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인건비의 비중이 높고 기술 수준이 낮은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심각한 인력난을 겪을 우려도 크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기업들이 저임금의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외국으로 나가거나 기술 집약적인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고, 성급한 노동 시간의 단축으로 야기될 노사 갈등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 제도를 점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사용자 측은 주장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사 양측의 대립을 조정해야 하는 입장에 있는 정부는 노동 시간의 단축이 초래할 사회·경제적 파급 효과를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 실업 문제의 해소를 노동 시간 단축의 가장 긍정적인 효과로 기대하고 있다. 노동 시간이 단축되면 일자리가 늘어나 고용 창출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주당 노동 시간이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어든다는 것은 결국 토요일 휴무에 의한 주 5일제 근무를 의미하기 때문에, 여가·문화·교육 관련 산업이 활성화됨으로써 고용이 창출되고 경기가 부양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정부는 노동 시간 단축으로 인해 ㉡ 사회 집단이나 계층 간 갈등이 유발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그 결과 사회적 단절이 확산되면 국민 통합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13.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기업은 노동 시간이 단축되면 노동의 질이 하락하여 생산성이 저하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 ② 노동자는 노동 시간이 단축되면 장시간의 노동에서 벗어남으로써 삶의 질이 향상된다고 주장한다.
- ③ 노동자는 노동 시간의 단축이 능력 개발을 촉진함으로써 기업의 이익이 증대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 ④ 기업은 동일한 노동 생산성 하에서 노동 시간이 단축되면 기업의 이익이 감소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 ⑤ 정부는 노동자와 사용자의 입장뿐 아니라, 노동 시간 단축이 국가 전체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하고 있다.

14. ㉠에 대해 제기할 수 있는 반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노동 시간이 단축되어 노동 생산성이 증가하면 기업이 감량 경영 체제를 구축한다.
- ② 노동 시간이 단축되더라도 노동 생산성이 증가한다면 일자리가 늘지 않는다.
- ③ 노동 시간의 단축으로 실업자가 증가하여 일자리의 공유가 불가능해진다.
- ④ 노동 시간이 단축되면 기업이 노동자 수를 감축하여 실업자가 양산된다.
- ⑤ 노동 시간이 단축되면 노사 갈등이 심화되어 실업자 수가 증가한다.

15. ㉡의 예에 해당하는 것은?

- ① 노동 시간 단축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농어민의 불만이 증폭된다.
- ② 관광객 수의 증가에 따라 여가 관련 기업들 간의 경쟁이 심화된다.
- ③ 관광지의 환경이 파괴되어 기업과 환경 단체 사이의 대립이 늘어난다.
- ④ 주 5일 근무제를 시행하지 못하는 영세 기업 노동자의 박탈감이 커진다.
- ⑤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어 부유층과 빈곤층 사이의 갈등이 심화된다.

16. 윗글에서 노사 양측이 모두 동의하고 있는 것은?

- ① 기업의 사업 구조를 조정해야 한다.
- ②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 ③ 기술 수준을 끌어올려야 한다.
- ④ 중소기업을 육성해야 한다.
- ⑤ 고용을 확대해야 한다.

17. <보기>는 일본어의 잔재인 ‘잔업’을 ‘시간 외 일’로 순화해야 하는 이유를 밝힌 글이다. <보기>와 같은 관점이 적용된 것은?

<보 기>

‘잔업(殘業)’을 글자 뜻 그대로 ‘남은 일’로 바꾸게 되면, 노동자가 근무 시간 안에 해야 할 일을 다하지 못했다는 의미를 함축하게 된다. 그러나 ‘잔업’은 노동자의 처지에서 볼 때 사실상 초과 근무를 뜻하기 때문에 ‘시간 외 일’로 바꾸어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

- ① 스탕달의 소설 제목 『적과 흑』은 일본식 번역이므로 『적색과 흑색』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옳다.
- ② ‘한 해를 잊는다’는 뜻의 ‘망년회(忘年會)’보다는 ‘한 해를 보낸다’는 뜻의 ‘송년회(送年會)’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
- ③ ‘동학란’은 민중들의 저항을 반란으로 본 지배층의 시각을 반영한 것이므로 ‘동학 농민 운동’이라 부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 ④ 모차르트의 오페라 제목 『마적(魔笛)』은 ‘말 탄 도적떼’인 ‘마적(馬賊)’으로 오해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요술 피리』로 바꾸는 것이 좋다.
- ⑤ ‘엑기스’는 ‘뽑아내다’는 뜻의 네덜란드어 ‘extract’에서 일본인들이 ‘ex-’만 취하여 ‘에키스’라고 부르는 데 연유한 것이므로 ‘진액(津液)’이라고 바꾸어 쓰는 것이 옳다.

[23~2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03.09

엄밀하게 말하자면, 어떤 경우에도 내가 느끼는 감각은 타인과 공유할 수 없다. 왜냐하면 감각은 육체를 통해 발생하기 때문이다. 나의 육체는 오직 나만의 것이다. 따라서 ㉠ 나의 육체에서 발생하는 감각은 나의 육체를 넘어 타인의 육체로 이전될 수 없다. 그런 까닭에 우리는 원칙적으로 어떤 감각을 다른 사람과 공유할 수 없다. 감각은 개별적이고 일회적이다. 그리하여 만약 자신의 고통이나 쾌락이라는 감각에 대하여 지나치게 예민한 감수성을 가진다면, 우리는 자기 자신의 개별성에 함몰되기 쉽다. 다시 말해 쾌락과 고통에 대한 지나친 감수성은 사람을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으로 만들 수 있다. 자기가 고통받지 않기 위해 타인을 고통 속에 빠뜨릴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고통과 쾌락의 감각 속에서도 오로지 자기 자신에게 함몰되지 않고 보편적 고통과 보편적 쾌락의 감수성을 갖도록 할 수 있겠는가? 흄(David Hume)에 따르면, 그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본성적으로 주어져 있는 근원적 능력인 동정심이다. 동정심을 뜻하는 영어 'sympathy'는 그리스어 '심파테이아(sympatheia)'에서 온 것인데, 이는 '같이'를 뜻하는 'syn'이란 전치사와 '감각'이나 '정념'을 뜻하는 '파토스(pathos)'라는 말이 합쳐져서 이루어진 낱말이다. 그러니까 심파테이이란 파토스를 공유하는 것, 특히 슬픔이나 고통의 정념을 같이 느끼는 것을 뜻한다.

인간의 감각 능력이란 보편적인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고통은 표정이나 몸짓 혹은 소리 같은 외적 징표를 [A] 통해 우리 마음에 유사한 작용을 불러일으킨다. 비록 다른 사람의 고통을 똑같이 느끼지는 못하지만, 간접적인 상상과 짐작을 통하여 비슷하게 고통을 느낄 수 있는 것이다.

타인의 고통을 연상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그 고통에 대한 관념적 영상이 형성된다. 만약 우리가 예민한 감수성의 소유자이거나 또는 고통의 광경이 특별히 끔찍할 경우에는, 마음속에 만들어진 고통의 관념적 그림자가 마치 고통 그 자체인 듯 생생하고 강렬하게 느껴지기도 한다. 이처럼 타인의 고통을 강하게든 약하게든 같이 느끼는 것이 동정심이다. 요컨대 타인의 고통이 내 마음에 불러일으키는 고통의 감수성이 곧 동정심이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본성적으로 마음 깊은 곳에 갖추고 있는 이러한 동정심은 도덕성의 참된 근거가 된다. 도덕은 타인에 대한 관심을 전제한다. 그런데 인간이 오직 자기의 쾌락과 고통에 대해서만 예민할 뿐 타인의 기쁨과 슬픔에 대해 무관심하다면 도덕은 처음부터 불가능하다. ㉡ 자기에게 일어나는 고통을 피하듯 타인이 고통받는 것을 꺼리고, 자기의 기쁨을 추구하듯 타인의 기쁨을 추구하는 사람만이 도덕적인 사람일 수 있는 것이다.

23.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상상을 통해서도 강렬한 고통을 느낄 수 있다.
- ② 인간은 보편적 감수성을 가질 수 없는 개별적 존재이다.
- ③ 지나치게 예민한 감수성은 자기 중심적 행동을 낳을 수 있다.
- ④ 표정이나 소리 같은 외적 징표는 동정심의 발현에 작용한다.
- ⑤ 동정심은 고통과 슬픔뿐 아니라 쾌감이나 기쁨과도 관련된다.

24. ㉠의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불면증으로 인한 피로감
- ② 회초리 맞던 기억이 일으키는 고통
- ③ 어머니의 주름살이 전해 주는 안타까움
- ④ 언젠가 죽게 된다는 사실에 대한 두려움
- ⑤ 수술을 받는 친구를 보면서 느끼는 안쓰러움

25. 화자의 태도가 ㉢과 가장 잘 부합하는 것은?

- ① 이화(梨花)에 달이 밝고 은하수가 삼경인 제 한 가지 서린 봄뜻 두견새야 알라마는 다정(多情)도 병인 양하여 잠 못 이뤄 하노라. - 이조년 -
- ② 강호에 봄이 드니 미친 흥이 절로 난다. 막걸리 냇가에 물고기가 안주로다. 이 몸이 한가하움도 임금님 은혜로다. - 맹사성 -
- ③ 산은 옛 산이로되 물은 옛 물 아니로다. 밤낮으로 흐르거늘 옛 물이 있을쏘냐. 사람도 물과 같도다 가고 아니 오는도다. - 황진이 -
- ④ 지아비 발 갈러 간 데 밤 광주리 이고 가 밥상을 드리되 눈썹에 맞춥니다. 친코도 고마우시니 손님이냐 다르실까. - 주세붕 -
- ⑤ 내게 좋다 하고 남 싫은 일 하지 말며 남이 한다 해도 의(義) 아니거든 좃지 말리. 우리는 천성을 지켜서 생긴 대로 하리라. - 변계량 -

26. [A]의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비유를 든다고 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꽃이 피어나면 벌과 나비가 날아든다.
- ② 나뭇가지를 흔들면 잎사귀들이 흔들린다.
- ③ 낙숫물이 돌에 떨어지면 맑은 소리가 난다.
- ④ 현악기에서 한 현(絃)의 떨림이 다른 현에 전달된다.
- ⑤ 도미노 조각 하나가 쓰러지면 다른 조각들이 차례로 쓰러진다.

27. 윗글의 필자가 <보기>의 화자에게 대답할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솔직히 말해서, 나에게 소중한 사람은 나 자신뿐이야. 다른 사람의 아픔은 나에게 어떤 고통도 주지 않아. 오히려 그건 즐거움을 주는 쪽이지. 내가 그보다 더 행복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 본래 남의 집 불 구경하면서 쾌감을 느끼는 게 인간 아닌가?

- ① 감각이 시키는 대로 행동하는 건 위험한 일이야. 감각이란 실체가 없는 허상(虛像)에 불과해.
- ② 실제로 고통과 쾌감의 감각은 사람마다 차이가 있어. 그 차이가 바로 동정심의 바탕이 되는 것이지.
- ③ 돌아보면 너도 남의 고통에 아픔을 느끼고 남의 기쁨에 즐거워한 적이 있을걸. 그게 인간의 본 모습이야.
- ④ 남의 집이 불타는 걸 볼 때는 쾌감이 아닌 고통을 느껴야 해. 쾌감을 절제해야 도덕적 삶을 살 수 있어.
- ⑤ 너는 육체적 가치를 말하고 있는데, 정신적인 면이 더 중요해. 사랑과 희생 같은 도덕적 가치에 눈을 떠야 해.

[33~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003.09

국어 어휘의 변화

음운이나 문법과는 달리 어휘에는 그 시대의 다양한 특징적 상황들이 반영된다. 따라서, 우리말의 어휘가 변화해 온 양상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인 변화 양상까지도 읽을 수가 있다.

고대 국어의 어휘는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자세히 알 수가 없지만, 이 시기의 우리말 어휘는 외래 요소에 의한 오염이 없이 순수한 고유어로 이루어져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삼국 시대에 들어와 중국과의 교섭이 잦아지면서 수많은 한자어들이 들어와 우리말의 어휘는 고유어와 한자어로 된 이중적 체계를 이루게 되었다. 신라 경덕왕(景德王) 16년(서기 757년)에 원래 고유어였던 땅 이름, 사람 이름, 관직 이름 등이 대부분 한자어로 바뀌게 된 것도 한자어의 세력이 강해진 모습을 반영하는 것이다.

과거에는 지금보다 고유어가 훨씬 많이 사용되었다. 예를 들어, 중세 국어의 문헌들에는 ‘온[百], ‘즈믄[千], ‘ㄹ[江]과 같이 현대 국어에서는 잘 쓰이지 않는 많은 고유어들이 발견된다. 이들은 뒤에 대부분이 한자어로 대체되었다.

또, 외래어의 도입도 끊임없이 이어져서 그 결과 고유어는 수적으로 점점 위축되어 왔다. ‘분[筆], ‘먹[墨] 등의 단어는 중국어를 직접 차용한 것이며, ‘부터[佛陀], ‘미륵[彌勒] 같은 불교 용어는 범어(梵語)가 한자어를 통해서 우리말에 들어온 것이다. 고려 말기에는 관직, 군사에 관한 어휘를 비롯하여, 말과 매, 그리고 음식에 관한 단어들이 몽골어에서 들어왔다. ‘가라말[黑馬], ‘보라매[秋鷹], ‘수리[御飯] 등이 그 예이다.

갑오개혁으로 대표되는 개화기를 전후하여 우리말의 어휘에는 다시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다. 중국이나 일본에서 한자를 사용하여 번역된 서구의 신문명어들이 대량으로 도입되었던 것이다. ‘공기, 전기, 이발, 대학교, 권리, 석유, 철로, 병원,……’ 등과 같은 단어들은 모두 이 시기에 들어온 것이다. 또, 일제강점기에는 많은 일본어들이 우리말에 들어왔으나 광복 뒤 꾸준한 ㉠정리 작업을 통해서 지금은 많이 사라졌다. 광복 이후 미국을 비롯한 서구 문명과 직접 관계를 맺는 일이 잦아지면서 서구 외래어들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는 것은 현대 국어 어휘의 커다란 특징이다.

단어의 의미도 역시 변화하였다. 어휘의 의미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데, 의미 영역이 확장되기도 하고 반대로 축소되기도 하고, 전혀 다른 의미로 변화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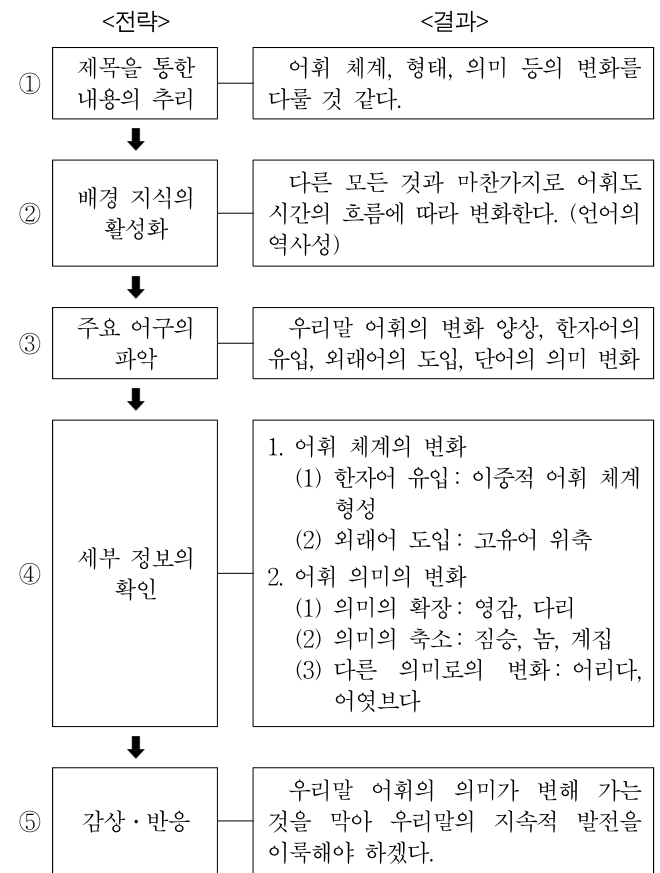
의미가 적용되는 영역이 원래보다 확장된 예는 많이 있다. ‘영감(令監)은 옛날에는 당상관(堂上官)에 해당하는 벼슬을 한 지체 높은 사람을 일컫는 말이었는데 지금은 남자 노인을 두루 가리키게 되었다. ‘다리[脚]도 사람이나 짐승의 다리에서 무생물의 다리조차도 의미 영역이 확장된 말이다.

앞의 경우와는 반대로, 의미가 적용되는 영역이 원래보다 축소된 경우도 있다. ‘짐승’은 원래 한자어인 ‘중생(衆生)에서 온 말로, 원래 유정물(有情物) 전체를 가리키는 불교 용어였지만, 이 말에서 비롯된 ‘짐승’이란 말은 인간을 제외한 동물만을

가리키게 되어 의미가 축소된 것이다. 이와 비슷한 예로는 ‘놈, 계집’ 같은 말이 있다. 이들은 원래 일반적인 ‘남자, 여자’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던 것인데, 그 의미 영역이 축소되어 지금은 비속어로 사용된다.

한편, 의미의 확대나 축소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가령, ‘어리다’는 중세 국어에서 ‘어리석다’는 뜻이었는데, 지금은 ‘나이가 적다’는 뜻으로 바뀌었다. 또, 중세 국어에서 ‘어엿브다’는 현대 국어처럼 ‘아름답다’는 뜻이 아닌 ‘불쌍하다’는 뜻이었다.

33. 한 학생이 윗글을 읽어 나간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읽기 전략에 따른 결과가 적절하지 않은 것은?



34. <보기>는 사전의 뜻풀이이다. ㉠의 의미에 가장 가까운 것은?

<보 기>

정리(整理) [정 : 니] ㉠ 흐트러지거나 혼란스러운 상태에 있는 것을 한데 모으거나 치워서 질서 있는 상태가 되게 함. ㉡ 책상 정리/집안 정리/교통 정리. ㉢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종합함. ㉣ 서류 정리/카드 정리. ㉤ 문제가 되거나 불필요한 것을 줄이거나 없애서 말끔하게 바로잡음. ㉥ 채무 정리/재개발 지역의 택지 정리. ㉦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지속하지 아니하고 끝냄. ㉧ 관계 정리. ㉨ 은행과의 거래 내역을 통장에 기록으로 나타냄. ㉩ 통장 정리.

- ① ㉠ ② ㉡ ③ ㉢ ④ ㉣ ⑤ ㉤

35. 중세 국어 시대의 인물과 현대인이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가상 시나리오의 한 장면이다. 단어의 의미 변화를 고려할 때, 대사가 잘못 구성된 것은?

구중세: 어허! 저것들이 다 무엇인고?	
신현대: 영감님! 저건 자동차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의 마차 같은 것이지요.	
구중세: (신기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그런가? 그런데, 저걸 모는 사람은 계집이 아닌가? (혀를 차며) 얼마나 어려우면 저런 일을 할꼬? 어엿브기도 하여라. ①
신현대: (혼잣말로) 별로 예쁘지도 않은데. (낮은 목소리로) 영감님! 계집이라는 말을 쓰시면 안 돼요. 여자가 들으면 싫어할 거예요. ②
구중세: (의아한 표정으로) 뭐라? 그건 그렇고. 이 사람아, 나는 영감이 아닐세. 아무한테나 영감이라고 해서는 안 되네. ③
신현대: (어리둥절해 하며) 네? 아! 그렇군요. 제가 나이가 어려서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④
구중세: 자네가 어리긴 뭘 어린가? 조금 있으면 장가들 나이인데. ⑤

36. 윗글에 관한 발표 수업을 준비하기 위해 모둠 토의를 하고 있다. 내용을 구성하기 위한 제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속영: 현대 국어에서 잘 쓰이지 않는 고유어에는 어떤 것이 더 있을까?
- ② 회숙: 우리가 채팅할 때 쓰는 말 중에서 원래의 의미와 다른 뜻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들은 무엇일까?
- ③ 영호: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말 중에서 우리말을 오염시키고 있는 은어, 비속어는 무엇일까?
- ④ 인희: '고유어-한자어-서구 외래어'로 이루어져 있는 현대 국어 어휘의 삼중 체계를 보여 줄 수 있는 예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 ⑤ 철수: 윗글에 제시된 우리말 어휘 변화의 양상을 통해 읽어 낼 수 있는 우리나라의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변화 양상은 무엇일까?

[37~4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003.09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는 현상은 물리 변화인가, 화학 변화인가?”, “진한 황산을 물에 희석하여 묽은 황산을 만드는 과정은 물리 변화인가, 화학 변화인가?”

이러한 질문을 받으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물리 변화라고 답하겠지만, 안타깝게도 정답은 화학 변화이다. 우리는 흔히 물리 변화의 정의를 ‘물질의 성질은 변하지 않고, 그 상태나 모양만이 변하는 현상’으로, 화학 변화의 경우는 ㉠ ‘어떤 물질이 원래의 성질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물질로 변하는 현상’이라고 알고 있다. 하지만 정작 ‘물질의 성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하다.

‘물질의 성질’은 물질을 구성하는 분자나 이온의 구조에 의해 나타나는 성질을 의미한다. 따라서 분자나 이온의 구조가 달라지면 물질의 성질은 변하게 된다. 예를 들어, 이산화탄소(CO₂)는 물과 결합해 탄산 이온(HCO₃⁻)을 형성하여 탄산수가 된다. 이것은 이산화탄소와 물과는 전혀 다른 성질을 가지기 때문에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는 현상은 화학 변화라고 말할 수 있다. 반면에 ㉡ 설탕이 물에 녹는 경우는 설탕의 색과 모양만 변하므로 이러한 용해 현상은 물리 변화에 해당한다.

그래도 진한 황산이 묽은 황산으로 변하는 것은 황산의 농도 변화에 지나지 않으니 물리 변화가 아니냐고 묻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역시 그렇지 않다. 굳이 분자 구조의 변화 여부를 따지지 않더라도, 진한 황산은 탈수 성질이 있는 반면에 묽은 황산은 그렇지 않고, ㉢ 진한 황산에 물을 섞을 경우 엄청나게 많은 열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 진한 황산과 물의 반응에서 물이 염기로 작용한다는 사실도 또 하나의 증거로 추가할 수 있다.

그렇다면, 소금이 물에 녹는 현상은 과연 어떤 변화에 해당할까? 이번에도 역시 물리 변화라고 답하기 쉽다. 그러나 설탕이 물에 녹는 경우와 달리 이 경우는 ㉤ 소금(NaCl)의 이온 결합이 끊어져서 나트륨 이온(Na⁺)과 염화 이온(Cl⁻)으로 분리되기 때문에 물리 변화라고 말하기 어렵다. 소금물을 가열하면 다시 소금이 석출되는 가역 반응이 일어나므로 소금이 물에 녹는 변화는 물리 변화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가역 반응은 화학 변화에서도 자주 일어나는 현상이다.

그렇다고 해서 소금이 물에 녹는 현상을 화학 변화라고 단정해서 말하기도 어렵다. 물론, 소금이 물에 녹으면 이온 결합이 깨지고, 그로 인해 ㉥ 전류가 통하지 않던 부도체가 전류가 통하는 전해질로 변화하기는 한다. 하지만 새로운 화학 결합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 사이의 화학 결합이 깨어지고 새로운 화학 결합으로 입자가 구성되는 것’으로 화학 변화를 정의한다면, 소금이 물에 녹는 현상도 물리 변화라고 할 수 있게 된다. 요컨대, 기준이 되는 관점이 달라지면 동일한 현상을 물리 변화로 볼 수도 있고, 화학 변화로 볼 수도 있다.

37.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탄산수에는 이산화탄소의 성질이 들어 있다.
- ② 진한 황산과 묽은 황산의 분자 구조는 서로 다르다.
- ③ 물리 변화와 화학 변화 모두 가역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
- ④ 물리 변화와 화학 변화를 정확하게 구별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 ⑤ 물질을 구성하는 분자나 이온의 구조가 달라지지 않으면 물리 변화이다.

38.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상식적인 반응을 유도하는 질문으로 글을 시작하여 독자의 관심을 이끌어내고 있다.
- ② 대립되는 두 관점을 제시하고 이를 새로운 관점에서 통합하여 문제를 해결하였다.
- ③ 예상되는 의문이나 반론에 대해 답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논지를 전개하였다.
- ④ 구체적 증거를 활용하여 통념이 잘못된 것임을 증명하였다.
- ⑤ 친근한 소재를 예로 들어 독자의 흥미를 유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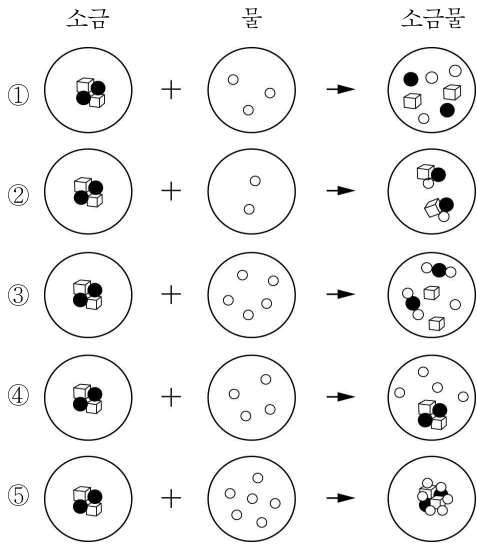
39. ㉠을 설명하기 위한 예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진흙에 물이 섞여 진흙탕이 되었다.
- ② 색종이를 접어 종이비행기를 만들었다.
- ③ 찬물과 더운물이 섞여 미지근하게 되었다.
- ④ 포도를 병에 넣어 두었더니 포도주가 되었다.
- ⑤ 흰색과 검은색 물감을 섞어 회색 물감을 만들었다.

40. ㉡~㉥로부터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설탕은 물에 용해되어도 분자 구조가 변하지 않는다.
- ② ㉢: 엄청난 발열 반응은 화학 변화의 증거일 수 있다.
- ③ ㉣: 산과 염기의 반응은 화학 변화이다.
- ④ ㉤: 소금은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의 성질을 모두 나타낸다.
- ⑤ ㉥: 소금은 전류가 통하지 않는데 소금물은 통한다.

41. 윗글을 바탕으로 발표 수업을 하기 위한 시각 자료를 준비 하려 한다. '소금의 용해 과정'에 관한 시각 자료로 적절한 것은?



[47~5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003.09

‘피아노와 여인’이라는 말을 듣는다면 대개는 그런대로 어울리는 한 쌍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렇다면, ‘예술과 돈’이라고 하면 어떨까? 이에 대해서는 기이함이나 당혹감, 심지어 불쾌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그들은 진정한 거장이 창조해 낸 예술 작품은 측량할 수 없는 값어치를 담고 있다고 여긴다. 예술 작품에 포함되어 있는 ‘정신적 가치’는 육체적 만족 등의 ‘물리적 가치’와는 차원이 다른 것이며, 전자는 후자로부터 조금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예술 작품은 세속에 물들지 않는, 움직일 수 없는 진리를 표상하고 있는 것으로, 그리고 미(美)란 진(眞), 선(善)과 같이 절대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어떤 사람들은 이와 달리 가치들은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입장을 취한다. 말하자면, 생산된 산물로서의 예술 작품 역시 하나의 중요한 경제재(經濟財)이며, 수요와 공급, 그리고 투자 등의 법칙을 따르는 모든 재화와 별로 다를 것이 없는 대상이 된다. 물질적 반대 급부를 기대하고 예술가를 돕는 ㉢후원자가 보기에는, 예술가의 재능은 하나의 경제적 가치를 가진 대상일 뿐이다. 이런 식으로 미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는 얽히게 된다.

아무리 뛰어난 예술적 재능을 지닌 예술가라 하더라도, 구매자를 찾아가 거래를 성사시켜 대가를 얻고자 한다면, 그는 후원자나 고객을 만족시키면서 작업할 방법들을 찾아야 할 것이다. 전적으로 자유로울 때와는 달리,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작업 조건을 기꺼이 받아들이기 위해 의식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재능은 있었으나 자신의 예술 세계에 대해서 엄격했기 때문에 고통을 받았던 다른 많은 ㉣화가들처럼, 르누아르도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이렇게 극심한 경제적 궁핍에 시달리던 그에게 그림을 팔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다. 부유한 ㉤베라르 부부로부터 딸의 초상화를 그려 달라는 요청이 들어왔던 것이다.

그는 당시의 평단(評壇)으로부터 혹평만 받아 왔던 자신의 예술 세계를 잠시 유보하고, 간단한 포즈와 수수한 색조를 사용하는 식의 알기 쉬운 방법을 사용하기로 했다. 그리하여 오늘날 우리는 그 그림에서 르누아르 특유의 작품성을 발견하기 어렵게 되었지만, 결과적으로 그의 선택은 성공적이었다. 베라르 부부는 대단히 만족하였고, 르누아르는 그 집에 머무르면서 더 많은 초상화를 그려 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었던 것이다. ㉠이름을 얻고 경제적으로 자리를 잡게 되자, 비로소 그는 화가로서의 미적인 자유, 곧 구성과 색조 구사의 자유를 누리게 된다.

[A] 그 후 많은 화가들은 현실 세계에서 예술가가 누리는 미적인 자유란, 양보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의 절충에 의해서 획득되는 것이라는 인식을 수용하였다. 생활이 어려운 경우에 물질적 조건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에도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화가로서 계속 존재할 수 있게 된 것은 다행한 일이었다.

47. 윗글에서 필자가 다루고자 한 문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예술의 자유를 위해 사회는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가?
- ② 예술가가 미적 자유를 얻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 ③ 예술가의 사회 경제적 지위는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
- ④ 위대한 예술가는 어떤 과정을 거쳐 탄생하는가?
- ⑤ 작품의 예술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48. ‘예술과 돈’의 관계에 대한 ㉠~㉤의 견해를 잘못 정리한 것은?

판 단	판단의 근거
① ㉠ 어울리지 않는다.	예술은 절대적 가치를 갖는다.
② ㉡ 어울린다.	예술을 매개로 돈을 벌 수 있다.
③ ㉢ 어울린다.	예술적 가치를 위해 돈을 투자해야 한다.
④ ㉣ 어울리지 않는다.	돈을 위해 예술을 포기할 수 없다.
⑤ ㉤ 어울린다.	돈을 매개로 예술을 향유할 수 있다.

49. ‘이름’의 의미가 ㉠와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그는 자신의 이름으로 등기된 집을 갖기 위해 청춘을 소비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 김인숙, 「먼 길」 -
- ② 무수한 집들이 무슨 무슨 이름에 어떠한 구실을 하는 것들인지 첫눈엔 그저 황홀하고 얼떨떨할 뿐이었다. - 김동리, 「등신불」 -
- ③ 이름 없는 신설 병원 같은 것은 숫제 비운 장날 시골 전방처럼 한산한 속에 찾아오는 손님을 기다리고 있는 형편이다. - 전광용, 「꺼삐딴 리」 -
- ④ 올라갈수록 덩불은 우거졌다. 머루며 다래, 찰, 게다가 이름 모를 잡초. 이것들이 위아래로 이리저리 서리어 좁체 길을 내지 않는다. - 김유정, 「만무방」 -
- ⑤ 붙잡아다 때리기나 하고 교만이나 피우고 하되 세미(稅米)는 국가의 이름으로 꼬박꼬박 받아 가면서 백성은 죽어야 모른체를 하고 하는 나라의 백성으로도 살아 보았다. - 채만식, 「논 이야기」 -

50. 윗글에 나타난 르누아르의 인생 역정에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음악성 있는 가수 임씨는 가난 때문에 대중이 선호하는 노래를 불러 인기를 얻은 후, 자신의 고유한 음악 세계를 펼칠 수 있었다.
- ② 촉망 받던 시인 김씨는 가난 때문에 지도층 인사의 전기를 영화처럼 멋지게 써 주어 돈을 벌었고, 그것을 계기로 유명한 전기 작가가 되었다.
- ③ 천재적인 화가 장씨는 고아로 태어나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지만 결국 성공했고, 부당한 그림 그리기 요구도 거절하는 등 곳곳한 삶을 살았다.
- ④ 재능 있는 도예가 박씨는 궁핍한 생활을 하면서도 도자기를 계속 제작했다. 자신의 예술적 기준에 조금만 미달해도 다 완성된 도자기를 과감히 깨뜨렸다.
- ⑤ 개성 있는 배우 정씨는 우리나라의 이미지 하락을 가져올 수도 있는 외국 영화에 출연을 거부하면서 개인적 불이익도 받았지만, 대중의 폭넓은 지지로 인기가 더욱 상승했다.

51. <보기>의 요구에 따라 [A]를 고쳐 쓴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수정 요구서

[A]와 같은 논지로 쓰게 되면 글을 읽는 청소년들이 예술가의 외적인 성공만을 중시할 우려도 있습니다. 그러나, 윗글 전체의 논지를 살리면서 예술가의 순위한 타협 가능성에 대한 비판 의식도 포함되도록 [A]를 다시 써 주시기 바랍니다.

- ① 위대한 예술가는 생계를 걱정하지 않는다. 미적 자유를 추구하여 뛰어난 예술적 성취를 얻게 되면 돈은 저절로 들어오기 때문이다.
- ② 사회의 양심인 예술가가 경제적 가치와의 타협만을 우선시한다면, 그 사회에 예술적 희망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예술이 없는 사회는 미래를 꿈꿀 수 없다.
- ③ 미적 자유를 위해서는 타협보다는 예술가의 강력한 의지에서 희망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예술가의 미적 가치 실현에 대한 의지만큼 고귀한 것은 없기 때문이다.
- ④ 예술가도 생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절충의 길을 발견한 것은 의미 있는 일이지만, 거기에 안주하기만 한다면 예술을 통해 부를 얻는 길은 멀고도 험하다.
- ⑤ 진정한 미적 자유를 위해 잠정적으로 타협할 수도 있겠지만, 그로 인해 잃는 것도 있을 것이다. 이 점을 철저히 자각해야만 비로소 예술가는 진정한 예술적 가치 실현을 꿈꿀 수 있다.

[57~6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003.09

살아 생전 내내 어머니는 나에게 써먹지도 못하는 문학은 해서 무엇하느냐는 질문을 던지셨다. 이제서야 당신께 뒤늦은 답을 한다. 문학은 권력에의 지름길이 아니며, 그런 의미에서 문학은 써먹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문학은 그 써먹지 못한다는 것을 써먹고 있다. 문학을 함으로써 우리는 ㉠ 배고픈 사람 하나 구하지 못하며, 큰돈을 벌지도 못한다. 그러나 바로 그러한 점 때문에 문학은 인간을 억압하지 않는다. 인간에게 유용한 것은 대체로 그것이 유용하다는 것 때문에 인간을 억압한다. ㉡ 유용한 것이 결핍되었을 때의 그 답답함을 생각하기 바란다. 그러나 문학은 유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을 억압하지 않는다.

문학은 억압하지 않으므로 그 원초적 느낌의 단계는 쾌락을 동반한다. 지금도 어렸을 때의 ㉢ 어머니의 음성이 들려온다. 어머니는 겨울밤이면 고구마나 감, 하다못해 동치미라도 먹을 거리로 내놓으시고, 나직한 목소리로 아벨과 카인의 이야기를, 도적질을 하다 벌을 받은 그녀의 친지 중 한 사람 이야기를 내가 잠들 때까지 계속하신다. 그때에 느낀 공포와 아픔을 나는 생생히 기억한다. 그러나 그 아픔이나 고통 밑에 있는 어머니의 나직한 목소리가 주는 쾌감을 내가 얼마나 즐겨했던가! 그 목소리가 불러일으키는 상상은 얼마나 놀랍고 즐거웠던가! 그 즐거움 안쪽에서 우리는 해서는 안 될 일에 대한 공포감을 느끼며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한 의무감을 느낀다. 그것은 의무이되 억압이 아니다. 쾌락이 일깨우는 원초적인 반성이자 깨달음이다.

억압하지 않는 문학은 억압하는 모든 것이 인간에게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을 보여 준다. 문학에서의 주장은 인간을 억압하기 때문에 문학은 명백한 길을 제시하지 못한다. 인간은 문학을 통하여 억압하는 것과 억압당하는 것의 정체를 파악하고, 그 ㉣ 부정적 힘을 인지한다. 한 편의 침통한 시는 그것을 읽는 자에게 인간을 억압하고 불행하게 만드는 것에 대한 자각을 불러일으킨다. 한 소설 속에서 진정한 가치를 추구하던 주인공이 끝내 패배를 당할 때, 우리는 고통스럽다. 그 고통을 함께 겪으면서 우리는 우리를 억압하는 세상의 부조리를 바라볼 수 있게 되고, 결국 인간은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래서 우리는 고통스럽게 ㉤ 행복을 생각하는 것이다.

문학은 배고픈 거지를 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문학은 그 배고픈 거지가 있다는 것을 추문(醜聞)으로 만든다. 그리하여 마침내는 인간을 행복으로 이끈다. 고통과 간난(艱難)의 시대에 행복을 생각하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프랑스 철학자 바슐라르가 말했듯, 인간은 행복스럽게 숨쉴 수 있도록 태어난 존재이다. 숨을 잘 쉬는 것을 어찌 포기할 수 있겠는가. 나는 문학을 포기할 수 없다.

- 김현, 『한국 문학의 위상』 -

57. 윗글의 성격을 가장 잘 설명한 것은?

- ① 문학의 사회적 효용성을 논증하는 글이다.
- ② 문학의 본질과 가치를 원론적으로 해명하는 글이다.
- ③ 문학과 함께한 자신의 삶의 편력을 전해 주는 글이다.
- ④ 문학 작품의 평가와 관련되는 주요 용어를 해명한 글이다.
- ⑤ 문학 작품의 가치를 체득할 수 있는 독서법을 설명한 글이다.

58. 윗글로 미루어 볼 때, 필자가 가장 높이 평가할 문학 작품은?

- ① 한적한 전원 지대에서 연쇄 살인 사건이 발생한다. 설록 흙즈가 살인 사건의 현장에 파견된다. 그는 경이로운 기지를 발휘해 살인 사건을 해결한다.
- 코난 도일, 「바스커빌가의 사냥개」 -
- ② 아들이 사회주의 운동을 하다가 투옥당한다. 아들에 이어 어머니도 혁명가가 된다. 작가는 모든 사람이 사회주의 운동가가 되어야 모순된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 고리키, 「어머니」 -
- ③ 젊은 변호사 허승은 농촌 계몽을 위해 안정된 직장을 버리고 농촌으로 간다. 농민들의 무지와 아집에 좌절한다. 그렇지만 불굴의 희생 정신으로 농민들에게 밝은 미래의 길을 제시한다.
- 이광수, 「흙」 -
- ④ 자유를 추구하는 이명준은 경찰서에 끌려가 공포를 경험한다. 이에 환멸을 느껴 북한으로 갔지만 역시 자유를 얻지 못한다. 결국, 남과 북이 아닌 제3국을 택함으로써 그 시대의 모순된 현실을 보여준다.
- 최인훈, 「광장」 -
- ⑤ 아버지가 암에 걸리지만, 다른 가족들은 그것을 모른 채 아버지의 무능을 탓한다. 나중에 아버지가 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게 된 가족들이 눈물로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그림으로써, 가족의 화해를 감성적으로 호소한다.
- 김정현, 「아버지」 -

59. ㉠~㉤의 문맥적 의미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실제적 가난이나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
- ② ㉡: 재화나 명예 등 세속적으로 추구하는 가치
- ③ ㉢: 문학의 가치를 부정하면서도 문학적인 삶을 살고 있는 사람
- ④ ㉣: 사회의 모순을 부정하고 극복하려는 적극적인 힘
- ⑤ ㉤: 사회의 부조리를 넘어선 이상적인 삶의 상태

60. <보기>의 필자 입장에서 윗글을 비판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굵어 죽은 수백만 귀신들을 곁에다 두고 1원이나 5원짜리 소설책이나 팔아서 배 한번 부르기를 구하려는 문예가들이 무슨 예술가냐. 솔거의 소나무 그림이 아무리 명작이라 할지라도 물에 빠진 사람의 눈에는 한 조각 목판(木板)만 못하다. 1원이면 한 집 식구가 며칠을 생활할 것을, 입에 물고 죽으려야 죽을 수도 없는 2원, 3원의 값비싼 소설을 지어 놓고 민중 문예라 칭호함은 문단의 수치이다.

- 신채호, 「낭객(浪客)의 신년 만필」 -

- ① 작가는 문인이기에 앞서 지식인이므로 현실과 맞서기 위해서는 문학을 포기할 수도 있어야 한다.
- ② 문학을 명예 획득이나 사회적 영달의 수단으로 삼는 기회주의적 태도는 비판받아야 한다.
- ③ 동시대 민중이 권력에 속고 있을 때, 문학은 크나큰 외침으로 민중을 깨우쳐야 한다.
- ④ 사람들의 생존 자체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문학은 상황 극복의 도구가 되어야 한다.
- ⑤ 민중들의 생활과 동떨어진 글을 써 놓고 행복 운운하는 태도는 견어치워야 한다.

[18~2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02.11

자본주의 경제 체제는 이익을 추구하려는 인간의 욕구를 최대한 보장해 주고 있다. 기업 또한 이익 추구라는 목적에서 탄생하여, 생산의 주체로서 자본주의 체제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곧 이익은 기업가로 하여금 사업을 시작하게 하는 동기가 된다.

이익에는 단기적으로 실현되는 이익과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실현되는 이익이 있다. 기업이 장기적으로 존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단기 이익보다 장기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실제로 기업은 단기 이익의 극대화가 장기 이익의 극대화와 상충할 때에는 단기 이익을 과감히 포기하기도 한다. 하루 세 번 ① 치솔질할 것을 권장하는 치과 의사의 경우를 생각해 보자. 모두가 이처럼 이를 닦으면 사람들의 치아 상태가 좋아져서 치과 의사의 단기 이익은 줄어들 것이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치아를 오랫동안 보존하게 되므로 치과 의사로서는 장기적인 고객을 확보하는 셈이 된다. 반대로 치솔질을 자주 하지 않으면 단기 이익은 증가하겠지만, 의치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장기 이익은 오히려 감소하게 된다.

자본주의 초기에는 기업이 단기 이익과 장기 이익을 구별하여 추구할 필요가 없었다. 소자본끼리의 자유 경쟁 상태에서는 단기든 장기든 이익을 포기하는 순간에 경쟁에서 탈락하기 때문이다. 그에 따라 기업은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주어진 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상품을 공급하게 되었다. 이는 기업의 이익 추구가 결과적으로 사회 전체의 이익도 증진시켰다는 의미이다. 이 단계에서는 기업의 소유자가 곧 경영자였기 때문에 기업의 목적은 자본가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으로 집중되었다.

그러나 기업의 규모가 점차 커지고 경영 활동이 복잡해지면서 전문적인 경영 능력을 갖춘 경영자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경영의 효율성이 높아졌지만, 동시에 기업이 단기 이익과 장기 이익 사이에서 갈등을 겪게 되는 일도 발생하였다. 주주의 대리인으로 경영을 위임받은 전문 경영인은 기업의 장기적 전망보다 단기 이익에 치중하여 경영 능력을 과시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주주는 경영자의 이러한 비효율적 경영 활동을 감시함으로써 자신의 이익은 물론 기업의 장기 이익을 극대화하고자 하였다.

오늘날의 기업은 경제적 이익뿐 아니라 ① 사회적 이익도 포함된 다원적인 목적을 추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현대 사회가 어떠한 집단도 독점적 권력을 행사할 수 없는 다원(多元) 사회로 변화하였기 때문이다. 이는 많은 이해 집단이 기업에게 상당한 압력을 행사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업 활동과 직·간접적 이해 관계에 있는 집단으로는 노동 조합, 소비자단체, 환경 단체, 지역 사회, 정부 등을 들 수 있다. 기업이 이러한 다원 사회의 구성원이 되어 장기적으로 생존하기 위해서는,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은 물론 다양한 이해 집단의 요구도 모두 만족시켜야 한다. 그래야만 기업의 장기 이익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18. 밑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기업은 자본주의 체제의 생산 주체이다.
- ② 기업은 단기적 손해를 감수하면 장기적 이익을 보장받는다.
- ③ 자본주의 초기에도 기업은 사회 전체의 이익을 증진시켰다.
- ④ 전문 경영인에 대한 적절한 감시가 없으면 기업의 장기 이익이 감소할 수도 있다.
- ⑤ 현대 사회에서 기업은 직·간접적으로 관계되는 이해 집단을 모두 만족시켜야 한다.

19. 밑글에서 설명한 기업 목적의 성격 변화 과정과 유사한 것은?

- ① 관객이 늘어남에 따라 극장이 점차 대형화되었다.
- ② 과학이 발달함에 따라 우주의 신비가 점차 밝혀지게 되었다.
- ③ 생산 활동의 신속·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자동화 설비가 도입되었다.
- ④ 인간은 자신의 생존만이 아니라 점차 환경과의 조화도 함께 고려하게 되었다.
- ⑤ 인류 역사의 초기에는 먹고 남은 음식을 버리다가 점차 미래를 위해 음식을 저장하게 되었다.

20. 밑글의 논지에 비추어 ‘기업:이익’의 관계와 가장 유사한 것은?

- | | |
|--------------|--------------|
| ① TV 방송: 카메라 | ② 시계: 톱니바퀴 |
| ③ 연주회: 지휘자 | ④ 스포츠: 규칙 준수 |
| ⑤ 정당: 정권 획득 | |

21. <보기>는 ‘한글 맞춤법’의 일부이다. ㉠의 표기 원칙을 설명한 항목은?

<보 기>

제30항 사이시옷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받치어 적는다.

1. 순우리말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
 - (1)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것
 - (2) 뒷말의 첫소리 ‘ㄴ, ㄹ’ 앞에서 ‘ㄴ’ 소리가 덧나는 것
 - (3) 뒷말의 첫소리 모음 앞에서 ‘ㄴㄴ’ 소리가 덧나는 것
2. 순우리말과 한자어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
 - (1)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것
 - (2) 뒷말의 첫소리 ‘ㄴ, ㄹ’ 앞에서 ‘ㄴ’ 소리가 덧나는 것
 - (3) 뒷말의 첫소리 모음 앞에서 ‘ㄴㄴ’ 소리가 덧나는 것
3. 두 음절로 된 다음 한자어: 곳간(庫間), 셋방(貰房), 숫자(數字), 차간(車間), 퇴간(退間), 횡수(回數)

- | | |
|--------------|--------------|
| ① 제30항 1-(1) | ② 제30항 1-(2) |
| ③ 제30항 2-(1) | ④ 제30항 2-(2) |
| ⑤ 제30항 3 | |

22. ㉠의 구체적인 사례로 보기 어려운 것은?

- ① 직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종업원 연수의 기회를 확대한다.
- ② 고객에게 동일한 품질의 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제공한다.
- ③ 환경오염을 막기 위한 시설 투자를 한다.
- ④ 지역 사회에 안락한 공원을 조성해 준다.
- ⑤ 불우 이웃을 위한 성금을 낸다.

[23~2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002.11

(가)

새말이란 ㉠ 이미 있었거나, 새로 생겨난 개념 혹은 사물을 표현하기 위해 지어낸 말, 그리고 ㉡ 이미 있던 말이라도 새 뜻이 주어진 것을 통틀어 일컫는다. 다른 언어로부터 사물과 함께 차용되는 외래어도 여기에 포함된다.

새말은 민중에 의해서 자연 발생적으로 만들어져 쓰이는 것과 언어 정책상 계획적으로 만들어져 보급되는 것이 있다. 자연 발생적으로 만들어지는 새말들은 새로운 사물을 표현하기 위한 실제적인 필요에 의해 생겨나는 것과, ㉢ 언어 표현이 진부해졌을 때 그것을 신선한 맛을 가진 새 표현으로 바꾸려는 대중적 욕구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 있다. 여기에는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 등이 모두 재료가 쓰인다.

정책적인 계획 조어의 경우는 대개 국어 순화 운동의 일환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주로 고유어가 사용되며, 한자말일지라도 아주 익어서 고유어처럼 된 것들이 재료로 쓰인다. ‘한글, 단팥죽, 꼬치안주, 가락국수, 덮밥, 책꽂이, 건넌목’ 등은 계획 조어로서 생명을 얻은 것들이며, ‘덧셈, 뺄셈, 모눈종이, 반지름, 지름’ 등의 용어들은 학교 교육에 도입되면서 자리를 굳혔다.

그러나 ‘불고기, 구두닥이, 신문팔이, 아빠, 끈끈이, 맞춤, 병따개, 비웃’ 등과 같이 누가 먼저 지어냈는지 모르지만 생명을 얻은 말들도 많다. 이렇게 해서 새로 나타난 말들은 민중들의 호응을 받아서 기성 어휘로서의 지위를 굳히는 것과 잠시 쓰이다가 버림을 받는 것, 처음부터 별로 호응을 받지 못하여 일반화되지 못하는 것 등이 있다. 잠시 쓰이다가 버림을 받게 되는 말들은 대개 어느 한 사회 계층이나 특정 지역에서만 호응을 받았을 뿐 널리 일반화될 기회를 얻지 못한 것들이다.

(나)

이미 써 오던 말을 새말로 바꿔 쓰자고 하면 민중으로부터 강한 저항을 받는 것이 보통이다. 하지만 특별한 경우 새말이 익히 쓰이던 말을 제치고 통용되는 일도 있다. ‘도시락’이란 말이, 이미 익히 써 오던 ‘펜토’를 대체한 것이 그 예다. 심지어 ‘덮밥’은 국어에서는 매우 흔하지 않은 조어(造語) 방식에 의해 만들어진 말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써 오던 ‘뚝부리’를 대체하고 완전한 생명을 얻었다 이런 새말들이 성공적으로 통용될 수 있었던 것은 대체된 말인 ‘펜토, 뚝부리’가 일본어에서 유래한 외래어이기 때문이었다. 이는 ㉣ 조어 방식에 문제가 되는 말이거나 느낌상 다소 어색하고 생소한 말이라도 ㉤ 강력한 동기가 제공될 때에는 생명을 얻을 수 있음을 보여 준다.

그러나 같은 계열의 외래어인 ‘센누끼’는 광복 후 오랫동안 ‘마개뽑이’가 권장되었지만 민중의 호응을 받지 못하고 후에 자연 발생적으로 만들어진 (병)따개로 대체되었다. 아마도 이는, ㉦ 새말이 내포하는 뜻이나 정서적 느낌이 대체될 말과 달랐던 것에서 비롯하였던 듯하다. 물론 조어 방식이나 길이가 문제 되었을 수도 있다. 또한 ‘데이트’를 ‘만날 약속’으로, ‘결벽(潔癖)’을 ‘깨끗버릇’으로 바꿀 것을 제안한 적도 있으나 이들도 생명력을 얻지는 못하였다. 전자는 그 뜻이나 느낌, 후자는

조어 방식이 문제가 되는 말이었던 까닭에 살아남지 못한 것으로 여겨진다. ‘데이트’는 만나기 위한 약속만을 가리키지는 않기 때문에, ‘버릇’은 ‘손버릇, 잠버릇’에서 보듯 명사와만 결합하며 ‘깨끗’과 같은 어간에는 결합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 되었다는 것이다. 새말을 만드는 일이, 그리고 익히 쓰이던 말을 대체하기 위해 새말을 만들어 보급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려 주는 예들이다.

23.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 ① 자연 발생적으로 만들어진 새말은 고유어로만 구성된다.
- ② 실제적 필요와 표현의 참신성을 위해 생겨난 새말은 누가 지어냈는지 모른다.
- ③ 언어 정책상 계획적으로 만든 새말은 민중으로부터 저항을 받지 않는다.
- ④ 흔하지 않은 조어 방식으로 만들어진 새말은 민중들의 호응을 얻지 못해 결국 사라진다.
- ⑤ 자연 발생적으로 만들어진 새말이 정책적으로 만들어진 새말을 대체하기도 한다.

24. ㉠~㉦의 구체적인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외국에서 들어온 새로운 종의 개구리를 가리키는 ‘황소 개구리’
- ② ㉡: 일부 사람들이 나이 어린 여자 점원을 부를 때 쓰는 ‘언니’
- ③ ㉢: 부사 ‘몰래’와 명사 ‘카메라’를 결합하여 만든 ‘몰래카메라’
- ④ ㉣: 동사 어간 ‘먹-’과 의존 명사 ‘거리’를 결합하여 만든 ‘먹거리’
- ⑤ ㉤: ‘헤어스타일’을 대체할 말로 제안되었던 ‘머리꼴’

25. 문맥상 ㉤가 뜻하는 것은?

- | | |
|----------|----------|
| ① 신개념 생성 | ② 실제적 필요 |
| ③ 참신한 표현 | ④ 민족 정서 |
| ⑤ 학교 교육 | |

26. 윗글에 비추어 판단할 때, <보기>의 밑줄 친 부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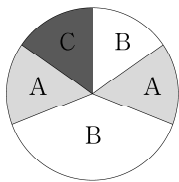
<보 기>

요즈음 휴대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 ‘반가워(요)’, ‘컴퓨터’를 ‘방가’, ‘킴’으로 바꿔 쓰는 현상이 급속히 확산되어 우리말을 오염시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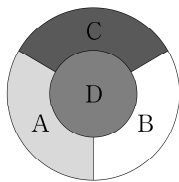
- ① 새로 생겨난 개념이나 사물을 표현하기 위해 지어낸 말이다.
- ② 기존 표현을 새롭게 바꾸려는 욕구에 따라 만들어진 말이다.
- ③ 글자 입력 속도를 고려하여 단어의 길이를 줄인 말이다.
- ④ 어법에 어긋나게 단어의 일부만 써서 만든 말이다.
- ⑤ 특정한 사회 집단에서만 호응을 얻는 말이다.

[27~3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002.11

1976년에 ㉠ 미국의 수학자 아펠(K. Appel)과 하켄(W. Haken)은 지도(地圖)의 채색과 관련된 '사색(四色)문제'를 증명했다고 발표했다. 사색문제는 한 세기 이상 수학자들을 괴롭혀 오던 문제로. 어떠한 지도라도 네 가지 색만 있으면 지도상의 모든 지역(국가, 도, 시, 군 등)을 ㉡ 구별하여 나타낼 수 있음을 증명하는 문제이다. 예를 들어, 아래에서 <그림 1>은 세 가지 색만 있으면 각 지역을 구별하여 나타낼 수 있다. 그러나 <그림 2>는 네 가지 색이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그림 2>보다 더 복잡한 지도의 경우에는 몇 가지 색이 필요할까? 이에 대한 답이 '어떠한 경우라도 네 가지 색이면 충분하다.'임을 증명하라는 것이 사색문제의 요구이다.



<그림 1>



<그림 2>

그런데 아펠과 하켄의 증명에서 수학자들의 관심을 끈 점은 증명했다는 사실 자체보다는 그 증명이 이루어진 방법이었다. 그 증명 과정에는 고려해야 할 경우가 대단히 많고 필요한 계산의 양도 엄청났다. 그들은 4년 동안의 집중적인 연구를 통하여 약 만 가지의 기본적인 경우를 분석했으나 인간인 수학자가 그 모든 과정을 점검하기란 불가능했다. 결국 증명 과정은 컴퓨터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으며, 컴퓨터도 이를 해결하는 데 무려 1,200시간이나 걸렸다. 그에 따라 증명의 결정적인 부분은 인간이 직접 확인할 수 없는 상태로 남게 되었다. 이것은 수리적 증명의 개념이 바뀌어야 함을 의미한다. 현대적인 컴퓨터가 개발된 이래 언젠가는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던 사건이 드디어 터진 것이다

당시까지 증명은 수학자가 어떤 주장의 진실성을 다른 수학자에게 확인시킬 수 있는, 논리적으로 건설한 추론의 일부였다. 수학자들은 그 증명을 읽음으로써 명제의 진실성을 확신하고, 그것이 진실인 이유도 이해할 수 있었다. 그런데 사색문제의 증명은 거의 컴퓨터에 의존해서 이루어졌다. 그 증명을 받아들이려면 증명에 사용된 컴퓨터 프로그램이 제작자의 의도대로 실행되었다고 믿어야만 한다. 하지만 처음에는 많은 수학자가 이에 대해 회의적으로 반응했다. 어떤 수학자는 ㉢ "컴퓨터에서 얻은 결과를 불가피하게 이용하는 이런 과정은 사람의 손으로 점검해 볼 수 없다는 점에서 수학적 증명으로 간주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런 사람들에게 사색문제는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남아 있다.

이 증명이 처음 발표되고 10여 년이 지난 뒤까지도 증명에 사용된 프로그램에서 그 증명을 무효로 만들 수 있는 오류가 발견되었다는 소문이 주기적으로 나왔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컴퓨터가 더욱더 많이 사용됨에 따라, 사색문제의 증명을 받아들이지 않는 수학자의 수는 점차로 줄어들었다. 오늘날 대다수의 수학자는 컴퓨터의 출현이 수학 연구의 방법뿐 아니라 '무엇을

증명으로 간주할 것인가'에 관한 개념마저도 변화시켰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다.

27. 윗글을 통하여 알 수 없는 것은?

- ① 수학적 증명에 대한 견해는 서로 다를 수 있다.
- ② 사색문제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수학자가 있다.
- ③ 사색문제를 증명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수학 이론이 나왔다.
- ④ 현재까지 컴퓨터를 이용하지 않고 사색문제를 증명한 사람은 없다.
- ⑤ 컴퓨터가 등장하면서 언젠가는 수학 연구에 활용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28. ㉠에 관해 신문 기사문을 작성한다고 할 때, 윗글의 논지를 가장 잘 반영한 표제와 부제는?

- ① 컴퓨터, 수학계의 난제 해결
- 백 년을 끌어 온 '4색문제' 증명
- ② 신비의 베일 벗은 '4색문제'
- 수학적, 컴퓨터의 능력 인정
- ③ 컴퓨터, '4색문제' 증명
- 수학의 실용성 입증
- ④ 컴퓨터의 개가
- 수학자와의 대결에서 승리
- ⑤ '4색문제' 증명에 성공
- 수학의 새로운 발전 방향 제시

29. ㉡의 용례로 바르지 않은 것은?

- ① 우리말의 용언은 동사와 형용사로 구별된다.
- ② 경제학과 경영학은 엄연히 구별되는 학문이다.
- ③ 토론 과정에서 비판자 비난은 구별되어야 한다.
- ④ 비전문가에게는 갈대와 억새의 구별이 쉽지 않다.
- ⑤ /h/와 /k/ 발음을 구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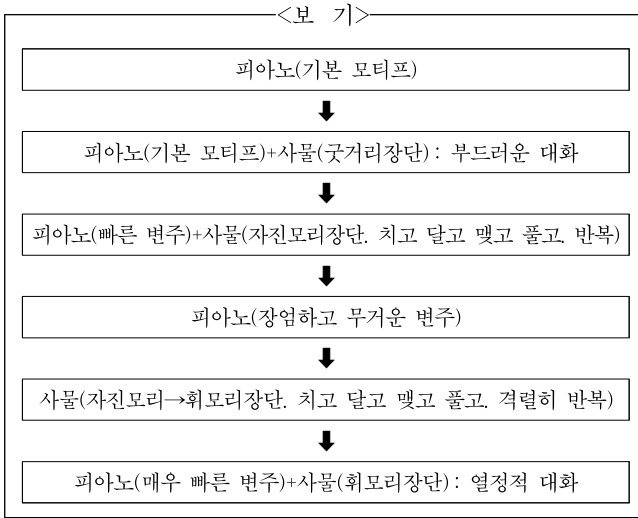
30. ㉢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한 사례로 적절한 것은?

- ① 사람이 어떻게 주식 시장의 변수들을 다 점검해? 주식 매매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면 더 확실하게 판단할 수 있지.
- ② 기계로 만든 가구가 값싸고 실용적이겠지만, 가구는 손으로 직접 만들어야 튼튼하고 보기도 좋겠지.
- ③ 자동 항법 장치를 어떻게 믿을 수 있어? 사람이 직접 보며 조종하는 게 제일 안전하지.
- ④ 컴퓨터로 원주율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는 없어. 그런데 사람도 마찬가지야.
- ⑤ 자동차 부품을 조립하는 로봇은 정교하지만, 단순한 행동을 반복할 뿐이지.

31. 밑글의 주된 내용을 발전시켜 제시할 수 있는 의견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다수 연구자가 지지하는 견해를 용인하는 자세가 요구된다.
- ② 전통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진 증명들을 재검검할 필요가 있다.
- ③ 컴퓨터에 의존하지 않고 사색문제를 증명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 ④ 수학에서는 효율적인 연구를 위해 가급적 컴퓨터를 이용해야 한다.
- ⑤ 수학적 증명에 사용되는 프로그램의 검토도 수학적 논의로 인정해야 한다.

51. <보기>는 ‘사물놀이와 재즈 피아노를 위한 협주곡’의 구성을 정리한 것이다. ㉠~㉥ 중 <보기>를 통해서 알 수 없는 것은?



- ① ㉠ ② ㉡ ③ ㉢ ④ ㉣ ⑤ ㉤

[56~6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02.11

우리는 매일 밤 자신의 피부를 감싸고 있던 ㉠ 덮개(옷)들을 벗어 벽에 걸어 둘 뿐 아니라, 신체 기관을 보조하기 위해 사용하던 여러 도구들, 예를 들면 안경이나 가발, 의치 등도 모두 벗어 버리고 잠에 든다.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우리는 잠을 잘 때 옷을 벗는 행위와 비슷하게 자신의 ㉡ 의식(意識)도 벗어서 한쪽 구석에 치워 둔다고 할 수 있다. 두 경우 모두 우리는 삶을 처음 시작할 때와 아주 비슷한 상황으로 돌아가는 셈이 된다. 신체적인 측면에서 보면 잠든다는 것은 평온하고 안락한 자궁(子宮) 안의 시절로 돌아가는 것과 다름이 없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잠을 잘 때 태아와 같은 자세를 취한다. 마찬가지로 잠자는 사람의 정신 상태를 보면 의식의 세계에서 거의 완전히 물러나 있으며, ㉢ 외부에 대한 관심도 정지되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꿈을 자세히 관찰함으로써 이러한 수면 중의 정신적인 상태에 대해 알아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우리는 그동안의 연구를 통해 꿈이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이라는 것과, 꿈의 세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인물은 항상 꿈꾸는 자 자신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것을 간단히 ‘수면 상태의 나르시즘(narcissism)’으로 부를 수 있는데 이는 정신의 작용 방향이 외부 세계에서 자기 자신으로 바뀌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또한, 사람들이 오랫동안 신비로운 현상으로 여겨 왔던 꿈의 ‘진단’ 능력에 대해서도 이런 맥락에서 설명이 가능해졌다. 꿈속에서는 모든 감각이 크게 과장되어 정신적이거나 신체적인 이상 증상이 깨어 있을 때보다 더 빨리, 더 분명하게 감지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꿈의 과장성’ 역시 외부 세계로 향하던 정신적 에너지가 자아로 되돌려지는 데서 나오는 것으로, ㉣ 깨어 있는 상태에서는 감지하기 어려웠던 미세한 정신적, 신체적 변화를 감지할 수 있도록 해 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는 꿈이 인간의 내면세계를 외면화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이를 ‘투사(投射, projection)’라고 하는데, 우리는 꿈속에서 평소에는 억누르고 있던 내적 욕구나 콤플렉스(강박 관념)를 민감하게 느끼고, 투사를 통해 그것을 ㉤ 외적인 형태로 구체화한다. 예를 들어 전쟁터에서 살아 돌아온 사람이 몇 달 동안 계속해서 죽은 동료의 꿈을 꾸는 경우, 이는 그의 내면에 잠재해 있는, 그러나 깨어 있을 때는 결코 인정하고 싶지 않은 죄책감을 암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우리에게 꿈이 중요한 까닭은 이처럼 자신도 깨닫지 못하는 무의식의 세계를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바꾸어서 보여 주기 때문이다. 우리는 꿈을 통해 그 사람의 잠을 방해할 정도의 어떤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일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대처해야 하는지까지도 알게 된다. 그런 일은 깨어 있을 때에는 쉽사리 알아내기가 어렵다. 이는 따뜻하고 화려한 옷이 몸의 상처나 결점을 가려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 때문이다. 우리는 정신이 옷을 벗기를 기다려 비로소 그 사람의 내면세계로 들어갈 수 있다.

56.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사람들은 잠이 들면서 의식의 작용이 거의 멈춘다.
- ② 꿈 속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는 인물은 꿈을 꾸는 사람 자신이다.
- ③ 꿈을 통해 신체적 이상의 징후를 발견할 수 있다.
- ④ 잠잘 때는 깨어 있을 때보다 내적 욕구가 더 강해진다.
- ⑤ 꿈은 인간의 내면 세계를 구체화하여 보여 준다.

57. 윗글의 내용 전개상의 특징과 효과로 바르지 않은 것은?

- ① 화제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주요 내용을 정리하며 끝을 맺어 주제를 선명히 드러내고 있다.
- ② 현상이나 사실을 설명한 뒤 그 내용을 간단한 용어로 정리하여 이해를 돕고 있다.
- ③ 필요할 때마다 적절히 예를 들어가며 설명하여 이해를 쉽게 하고 있다.
- ④ 여러 관점의 이론을 비교하며 논의를 전개하여 설득력을 높이고 있다.
- ⑤ 추상적인 내용을 익숙한 경험에 비유하며 설명하여 이해를 돕고 있다.

58. <보기>에 나오는 ‘이성계의 꿈’에 대해 윗글의 관점을 적용하여 적절하게 해설한 것은?

—<보 기>—

이성계가 아직 왕이 되기 전에 사흘 연달아 꿈을 꾸었다. 하루는 등에 서까래 셋을 지고 길을 가더니, 다음 날에는 양을 만나 뿔을 잡아 뿔이 모두 빠지고 꼬리를 잡아 꼬리도 빠졌으며, 마지막 날에는 땅 위에 작대기로 길다랗게 금을 긋는 것이었다. 한 스님이 이 이야기를 듣고는, “등에 서까래 셋을 지었으니 이는 ‘임금 왕(王)’ 자요, 양(羊)의 두 뿔과 꼬리가 없으니 이 또한 ‘임금 왕(王)’ 자며, 땅(土)에 작대기로 금을 그으니 이도 역시 ‘임금 왕(王)’ 자가 된다.”라고 하였다.

- ① 하늘이 이성계에게 나라를 맡기겠다는 뜻을 꿈을 통해 전달한 것이다.
- ② 자기가 왕이 되어야 한다는 여론을 퍼뜨리기 위해 이성계 스스로 지어낸 이야기다.
- ③ 이성계의 가슴속에 숨어 있던, 왕이 되고자 하는 욕망이 상징적으로 표출된 것이다.
- ④ 고려 왕조의 멸망을 예견한 사람들이 별 의미 없는 꿈을 의도적으로 ‘왕이 될 꿈’으로 해석한 것이다.
- ⑤ 이러한 꿈 이야기는 오래 전부터 전해 오던 것이었으나, 이성계가 자신의 처신을 정당화하기 위해 차용한 것이다.

59. 문맥상 ㉠에 들어가기에 적절한 것은?

- ① 잠이 콤플렉스의 심화를 막아 주기
- ② 꿈이 정신의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기
- ③ 깨어 있는 의식이 내면 세계의 관찰을 방해하기
- ④ 투사 작용이 정신의 약점이나 결함을 가려 주기
- ⑤ 수면 상태의 나르시시즘이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하기

60. ㉠~㉥ 중, 문맥적인 의미가 다른 하나는?

- ① ㉠ ② ㉡ ③ ㉢ ④ ㉣ ⑤ ㉥

[18~2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01.11

과도적 혼합 문화는 적어도 세 가지의 새로운 위기에 봉착하게 된다. 세 가지의 위기관, 첫째는 적합성(適合性)의 위기, 둘째는 정체성(正體性)의 위기, 셋째는 통합성(統合性)의 위기이다.

과도적인 생활 양식은 전통 사회의 생활 양식의 일부와 외래적인 생활 양식의 일부가 계층 간, 세대 간, 지역 간의 격차를 보이면서 서로 융합되지 않은 채로 혼재하거나, 아니면 어느 정도 변질된 과거의 생활 양식이 외래적인 유형과 적당히 다협해서 일시적인 적응을 가능하게 하는 형태의 관행(慣行)이 된다. 이와 같은 과도적인 행위 양식들도 행위 변화가 계속 진행됨에 따라 끊임없이 그 적합성에 새로운 도전을 받게 된다. 뿐만 아니라, 과도적인 행위 양식 속에 혼재해 있는 외래적인 양식들은 한국 사회의 구조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끊임없이 시험받게 마련이다. 그러므로 과도적인 혼합 문화는 잘 통합되어 있는 문화가 아니며, 충분히 제도화될 수 있을 정도로 영속적(永續的) 적합성을 지키기가 어려운 것이다.

과도적인 문화 속에는 한국 사회에 적합성을 가지지 못하는 차용된 외래 문화가 많다. 그와 같은 차용 문화는 사회 구조의 변화에 따른 전통 문화의 해체(解體)에 의해서 일어나는 문화적 공백을 메우기 위해 도입된 외래 문화이기 때문에, 충분히 선택적으로, 비판적으로, 주체적으로 수용되었다기보다는 모방과 도입에만 급급하면서 받아들인 문화이다. 그러므로 어느 정도의 모방과 도입기를 거쳐 외래적인 행위 양식이 상당히 널리 확산되는 단계에 이르면 외래 문화는 문화적 전통의 정체(正體)를 위협하게 된다.

이처럼 정체(正體)의 위기에 당면한 사회에서는 문화적 전통과 전통 문화에 대한 관심이 고조된다. 그러나 문화적 정체(正體)의 회복이 전통 사회 문화로의 복귀나 외래 문화의 배격과 같은 문화적復古주의(復古主義)나 문화적 폐쇄주의로 성취될 수 없음을 물론이다. 문화적復古주의나 문화적 폐쇄주의는 정체를 회복시키는 데에는 효과적일지 모르지만, ㉠ 적합성의 위기를 더욱 고조시키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정체(正體)의 회복과 문화적 전통의 확립은 문화의 적합성을 희생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즉 현대 사회와 적합성을 유지할 수 있는 '문화적 전통'의 재발견과 그와 같은 문화적 전통과 잘 통합되는 외래 문화의 선별적 수용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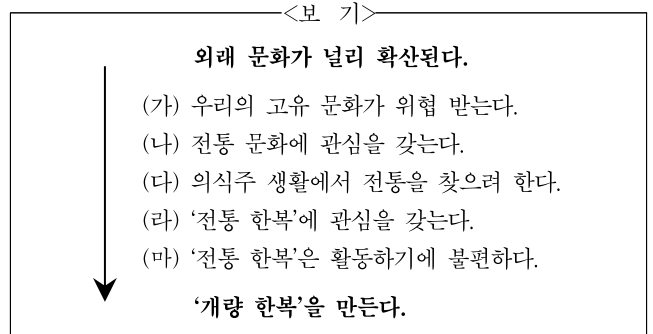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과도적인 문화는 많은 혼란과 갈등을 내포하고 있다. 전통 사회의 유형과 외래적인 유형이 혼재(混在)하며, 세대 간, 계층 간, 지역 간의 문화적 격차가 일어나고, 명확한 규범의 부재에서 일어나는 아노미가 발생하는 등 과도적인 문화는 그 통합성의 ㉡ 위기에 봉착하게 된다.

그러한 위기에서 계층 간, 세대 간, 지역 간의 문화적 격차가 줄어들고, 현대적 사회 구조와 한국의 문화적 전통과 적합성을 지닌 명확한 가치와 규범이 확립됨으로써 문화의 통합이 추구되어야 하는 것이다.

18. 윗글의 내용과 거리가 먼 것은?

- ① 과도적인 혼합 문화는 전통 문화와 외래 문화가 혼재해 있는 문화이다.
- ② 과도적인 차용 문화는 외래 문화를 비판적·주체적으로 수용한 문화이다.
- ③ 정체성의 위기에 당면하면 전통 문화에 대한 관심이 고조된다.
- ④ 문화적復古주의는 적합성의 위기를 고조시킬 수 있다.
- ⑤ 문화의 통합을 위해서 명확한 가치와 규범이 확립되어야 한다.

19. <보기>는 최근의 '개량 한복'이 나오게 된 과정을 보인 것이다. 윗글의 논지에 따를 때, ㉠의 단계에 해당하는 것은?



- ① (가)
- ② (나)
- ③ (다)
- ④ (라)
- ⑤ (마)

20. ㉡과 바꾸어 쓸 수 없는 것은?

- ① 위기에 빠지게
- ② 위기에 부딪히게
- ③ 위기와 마주치게
- ④ 위기를 맞이하게
- ⑤ 위기에 맞닥뜨리게

21. 글쓴이가 주장한 정체성 회복의 방법을 바르게 적용한 것은?

- ① 한글의 세계화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본다.
- ② 일상생활에서 남용되는 외래어를 순화하여 사용한다.
- ③ 외래어의 유입을 막기 위해 고유어의 어휘 수를 늘린다.
- ④ '산(山)'과 같은 한자어 대신 '피'와 같은 옛말을 살려 쓴다.
- ⑤ 한국 문학 작품을 번역하기 위하여 국어 어휘의 특성을 조사한다.

22. 밑글로 볼 때, <보기>의 대화에서 어머니의 역할은?

—<보 기>—

할아버지: 뭐 하니?

손 자: 인터넷으로 ‘이메일’ 보내는 중이에요.

할아버지: 뭘 보낸다고?

손 자: ‘이메일’이요, ‘이메일’.

할아버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구나.

어 머 니: 애, 할아버지께 잘 설명해 드려야지.

- ① 시아버지의 문화적 정체성을 문제 삼는다.
- ② 세 사람 사이의 문화적 폐쇄성을 확인한다.
- ③ 아들의 태도가 문화적으로 적합함을 주장한다.
- ④ 아들과 시아버지 사이의 문화적 통합을 추구한다.
- ⑤ 자신과 아들 사이에 새로운 문화적 규범을 확립한다.

[23~2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001.11

(가)

고자(告子) 말하기를, “성품은 웅덩이에 고인 물과 같아서 동쪽으로 터놓으면 동쪽으로 흐르고, 서쪽으로 터놓으면 서쪽으로 흐를 것이니, 사람의 성품이 착하나 그렇지 않으나를 구분할 수 없는 것은 마치 물의 동서(東西)를 구분할 수 없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에 맹자(孟子) 말하기를, “물은 진실로 동서를 구분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위와 아래의 구분도 없는가? 사람의 성품이 착하다는 것은 물이 아래로 흐름과 같으니, 착하지 않은 사람도 없고 아래로 흐르지 않는 물도 없는 것이다. 이제 물을 쳐 올리면 머리 위로 될 수도 있고, 물길을 막아 거스르게 하면 산 위로 올라갈 수도 있지만, 이것이 어찌 물의 본성이겠는가? 그 형세에 따라 그렇게 된 것이다. 사람이 때로 나쁘게 될지라도 그 성품은 또한 이와 같은 것이다.”

(나)

소크라테스: 자네 말은 이런 것이지. 재산, 권력, 건강, 영예, 그리고 용기를 가진 사람이 행복하다고 그러나 한편 생각하면 무엇보다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이 유용하게 쓰일 때 그 사람이 행복하지 않을까?

제 자: 그것도 그렇군요.

소크라테스: 그렇다면 만약 어떤 사람이 이와 같이 유용한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쓰지 않는다면, 과연 그것을 유용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제 자: 아니오, 아무 소용도 없겠지요.

소크라테스: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 사람은 유용한 것을 가지는 데 그치지 말고, 그것을 사용해야만 한다고.

제 자: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크라테스: 그러나 ㉠ 그저 사용하면 되는 것은 아니지. 올바른 사용법과 그릇된 사용법이 있을 테니까. 만약 목수가 연장을 잘못 쓴다면 재료를 버리게 되니 쓰지 않는 것보다 더 나쁘게 아닌가?

제 자: 그러면 목수가 연장을 올바르게 쓰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소크라테스: 목수가 톱이나 도끼를 올바르게 사용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악사가 연주를 잘하고, 조각가가 조각을 잘하는 데는 무엇이 필요할까? 자기 일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아닐까?

제 자: 바로 그렇군요. 옳은 말씀입니다.

소크라테스: 그렇다면 먼저 말한 재산이라든가 권력, 건강, 영예, 용기 따위도 그것이 있기는 하지만 해서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 아닌가? 그것이 참된 지식에 의해 올바르게 사용되어야만 선한 것이며, 만약 그것을 무지(無知)가 지배한다면 오히려 나쁘지 않을까?

23. (가)와 (나)의 공통적인 말하기 방식은?

- ① 상대방의 인품을 거론하고 있다.
- ② 상대방과의 논쟁을 회피하고 있다.
- ③ 비유를 통해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 ④ 상황 논리를 들어 상대방을 설득하고 있다.
- ⑤ 상대방의 주장을 임의로 해석하여 말하고 있다.

24. (가)의 내용을 풀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고자: 웅덩이에 고인 물 → 본디 악한 성품
- ② 고자: 동, 서를 구분할 수 없는 물 → 선과 악으로 구분할 수 없는 성품
- ③ 맹자: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물 → 본디 착한 성품
- ④ 맹자: 아래에서 위로 거스르는 물 → 때로 나쁘게 되는 성품
- ⑤ 고자·맹자: 물 → 인간의 성품

25. (나)에서 소크라테스가 제자에게 가르치려는 것은?

- ① 현실 참여의 방법
- ② 바람직한 토론 자세
- ③ 무지가 지배하는 이유
- ④ 세속적 행복을 위한 덕목
- ⑤ 참된 지식의 올바른 사용

26. (나)의 소크라테스의 견해에 따라 대중 음악을 감상한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대중 음악은 스승과 함께 들어야 해.
- ② 대중 음악은 열린 마음으로 들어야 해.
- ③ 대중 음악은 이론을 알고 들을 때 더 좋아.
- ④ 대중 음악은 여럿이 같이 들을 때 흥이 나.
- ⑤ 대중 음악은 고전 음악과 늘 함께 들어야 해.

27. <보기>는 사전의 뜻풀이이다. ㉠의 의미에 가장 가까운 것은?

— <보 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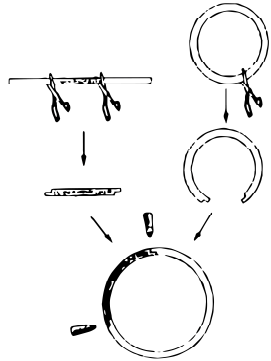
그저 ㉠ ㉡ 변함없이 이제까지. ㉢ 비가 그저 내리고 있다.
 ㉣ ('그러나', '그러하다' 따위와 함께 쓰여) 별로 신기한 일 없이. ㉤ 요새는 그저 그렇습니다. ㉥ 특별한 목적이나 이유 없이. ㉦ 그저 한번 해본 말이다. ㉧ (남을 책망하거나 비난하는 뜻으로) 아닌 게 아니라 과연. ㉨ 내 그저 그럴 줄 알았지. ㉩ 공짜로. → 거저³. (방언).

- ① ㉠ ② ㉣ ③ ㉤ ④ ㉥ ⑤ ㉧

[28~3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001.11

생명의 구조를 이용하여 인간 생활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기술을 생명 공학 기술이라 한다. 이 중 최근에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분자 생물학의 주된 방법인 유전자 재조합 기술을 이용하여 새로운 유전자 ㉠조성(組成)을 가진 생물, 즉 유전자 변형 생물을 인공적으로 만들어 내는 유전 공학 기술이다.

유전자를 재조합하기 위해서는 DNA를 절단하는 가위와 이를 접착하는 풀이 필요하다. 가위의 구실을 하는 것은 '제한 효소'라는 단백질인데, 이것은 DNA의 자기 다른 위치에서 작용한다. 풀 구실을 하는 것은 '리가아제'라고 부르는 효소인데, 이것은 절단된 DNA를 결합시키는 역할을 맡고 있다. 그리고 일단 시험관



내에서 제한 효소와 리가아제에 의해 재조합된 DNA는 다른 생물체 내로 이식되어 유전자 변형 생물을 만들어 내는데, 이를 위해서는 '벡터'라고 불리는 운반체가 이용된다. 요컨대 DNA라는 긴 실 위에 하나하나의 단편으로 존재하는 유전자 가운데 특별히 유용한 유전자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그 유전자 단편을 가위로 잘라 내어 그것을 운반체에 풀로 붙여 넣어야 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다.

유전자 변형 생물을 이용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유전자 변형 생물 그 자체를 이용하는 경우이다. 유전자를 변형시켜 만든 제초제 저항성 옥수수나 콩이 그 예에 속한다. 둘째는 유전자 변형 생물이 만들어 내는 부산물을 이용하는 경우이다. 유전자 변형 대장균으로부터 당뇨병 치료에 쓰이는 인슐린이나 인간 성장 호르몬을 추출하는 일 등이 이에 속한다. 셋째는 유전자의 기능 및 발현 패턴을 연구하기 위한 수단으로 유전자 변형 생물을 이용하는 경우이다. 가령 최근에 인간 게놈 프로젝트에 의해 알려진 수많은 유전자의 기능을 연구하고자 할 때, 바로 유전자 변형 생물이 이용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유전 공학 기술은 작물 개량 및 증산을 통한 식량 문제 해결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의약품 개발, 난치병 치료, 환경 정화 등에 매우 효과적으로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미 우리의 식탁에도 유전자 변형 식품이 매일 매일 오르고 있다.

그러나 유전자 변형 생물에 내재된 잠재적 위험성이 제기되기도 한다. 한 예로 ㉡일부 환경 운동 단체에서는, 제초제 저항성 작물이 그것과 유연(有緣) 관계에 있는 잡초와의 교잡에 의해 초강력 잡초를 생성시킬 가능성이 있고, 또한 유전자의 도입 과정에서 흔히 사용되는 항생제 저항성 유전자가 우리 몸 속에 있는 대장균으로 옮겨 가서 항생제에 저항성을 갖는 박테리아가 출현할 가능성이 있음을 우려한다. 또한 알레르기를 일으킬 가능성도 유전자 변형 생물의 잠재적 위험성으로 보기도 한다.

28.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유전자 변형 생물을 만드는 기술은 생명 공학의 한 분야이다.
- ② 유전자 재조합은 DNA를 대상으로 한다.
- ③ 유전자 재조합은 제한 효소와 리가아제가 필수적이다.
- ④ 벡터는 재조합된 DNA의 운반체로 사용된다.
- ⑤ 인간 게놈 프로젝트의 목적은 유전자 변형 생물을 만드는 것이다.

29. 윗글에서 설명한 '제한 효소'와 '리가아제'의 관계가 가장 유사한 것은?

- ① 화물차와 승용차
- ② 사무용 책상과 의자
- ③ 휴대용 전화와 배터리
- ④ 수술용 칼과 봉합용 실
- ⑤ 컴퓨터와 컴퓨터 마우스

30. ㉠의 의미를 바르게 추정한 것은?

- ① 환경과 관련된 테니까, 분위기를 만든다는 뜻으로 보이는데.
- ② 유전 공학 기술은 유익한 것이니까, 도와서 이룬다는 뜻으로 보이는데.
- ③ 유전자를 재조합하는 것이니까, 발생과 성장이 빠르다는 뜻으로 보이는데.
- ④ 새롭게 만들어 내는 것이니까, 무엇을 만들어서 이룬다는 뜻으로 보이는데.
- ⑤ 유전자는 생물을 구성하는 물질이니까, 요소들로 이루어진 구성이라는 뜻으로 보이는데.

31. 윗글처럼 유전자 변형 생물을 만들고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의 견해를 참조하여 조언하고자 한다. 가장 적절한 속담은?

- ①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 ②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다.
- ③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 ④ 앞전한 고양이 부뚜막에 먼저 오른다.
- ⑤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

[37~4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001.11

사회적 관계에 있어서 상호주의란 “행위자 갑이 을에게 베풀바와 같이 을도 갑에게 똑같이 행하라.”라는 행위 준칙을 의미한다. 상호주의의 원형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표현되는 탈리오의 법칙에서 발견된다. 그것은 일견 피해자의 손실에 상응하는 가해자의 처벌을 정당화한다는 점에서 가혹하고 엄격한 성격을 드러낸다. 만약 상대방의 밥그릇을 빼앗았다면 자신의 밥그릇도 미련 없이 내주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탈리오 법칙은 온건하고도 합리적인 속성을 동시에 함축하고 있다. 왜냐하면 누가 자신의 밥그릇을 발로 찼을 경우 보복의 대상은 밥그릇으로 제한되어야지 밥상 전체를 뒤엎는 것으로 확대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일대일 방식의 상호주의를 ‘대칭적’ 상호주의라 부른다.

하지만 엄밀한 의미의 대칭적 상호주의는 우리의 실제 일상 생활에서 별로 흔하지 않다. 오히려 ‘되로 주고 말로 받거나, 말로 주고 되로 받는다’ 교환 관계가 더 일반적이다. 이를 대칭적 상호주의와 대비하여 ‘비대칭적’ 상호주의라 일컫는다. 그렇다면 교환되는 내용이 양과 질의 측면에서 정확한 대등성을 결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환에 참여하는 당사자들 사이에 비대칭적 상호주의가 성행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 셀에 밝은 이른바 ‘경제적 인간(Homo economicus)’들에게 있어서 선호나 기호 및 자원(資源)이 다양하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교환에 임하는 행위자들이 각인각색(各人各色)인 까닭에 비대칭적 상호주의가 현실적으로 통용될 수밖에 없으며, 어떤 의미에서는 그것만이 그들에게 상호 이익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 비대칭적 상호주의에 의거한 호혜적(互惠的) 교환 관계가 가장 현저하게 이루어지는 사회적 공간이 바로 시장이다. 어떠한 행위자도 공짜로 재화를 얻을 수 없다고 가정하는 시장 상황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교환의 내용은 결코 등량(等量)·등가(等價)의 것들이 아니다. 행위자 갑은 을이 소유하고 있는 쌀을 원하고 을은 갑이 갖고 있는 설탕을 바랄 경우, 갑은 쌀에 대하여 그리고 을은 설탕에 대해 각각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하면서 양자를 서로 바꾸는 것이다. 이와 같이 시장은 각자의 선호와 자원의 범위 내에서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는다’ 장군 명군 식의 관계가 성립되는 사회적 영역이다.

그런데 시장이 본연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전제 조건이 요구된다. 교환에 참여하는 행위자의 자발성(自發性)과 교환 과정의 공정성(公正性)이 바로 그것이다. 이때 자발성은 행위자의 자율적 의사 결정을 의미하는 것이며, 공정성은 그들 간의 절차적 합리주의를 뜻한다. 예를 들어 강매나 사기, 도둑질 같은 행위는 선택의 자발성을 제한하고 절차의 공정성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반(反)시장적인 것이다. 이러한 반시장적 행위들은 시장의 논리만으로 통제되기 어렵다. 따라서 ㉢ 시장에는 자발성과 공정성의 원칙을 견지하는 윤리적 규범이나 사회적 규칙을 행위자들이 신뢰하고 준수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은 시장 속에 내재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시장의 비(非)시장적 요소’라 말할 수 있다.

37.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대칭적 상호주의는 우리의 일상생활에 보편화되어 있다.
- ② 사람들의 기호 및 자원에는 차이가 있다.
- ③ 비대칭적 상호주의는 쌍방에게 이익을 준다.
- ④ 행위자의 자발성과 절차적 공정성은 호혜적 교환 관계의 전제 조건이다.
- ⑤ 반시장적 요소와 비시장적 요소는 서로 다른 의미이다.

38. 윗글의 논지 전개 방식을 가장 잘 설명한 것은?

- ① 가설을 먼저 설정한 후, 그것을 구체적 현상에 적용하였다.
- ② 다양한 학설들을 소개한 다음, 그 공통점과 차이점을 열거하였다.
- ③ 정의, 비교·대조, 예시의 방법을 활용하여 현상에 대해 설명하였다.
- ④ 여러 가지 특수한 사례로부터 현상에 대한 보편적 이론을 도출하였다.
- ⑤ 현상을 바라보는 상반된 주장을 대비한 다음, 절충적 관점을 제시하였다.

39. ㉠과 같은 의미로 쓰인 것은?

- ① 내가 무슨 셀을 따져서 그들을 사랑했던 것이 아니었다.
- 정비서, 「비석과 금강산의 대화」 -
- ② 그로서는 만세를 불렀다는 말이 마지막 방패였던 셀이다.
- 박경리, 「토지」 -
- ③ 나는 처음에 어떻게 되는 셀인지 몰라서 떨거나 천장만 한참 쳐다보았다.
- 김유정, 「안해」 -
- ④ 조금만 셀이 피면 공부를 시켜서 제 손으로 벌어라도 먹게 만들어 주고 싶지만…….
- 염상섭, 「삼대」 -
- ⑤ 윤대는 벌써 한 달이 넘게 오르내린 층계건만 발을 옮길 때마다 번번이 그 숫자를 셀하게 되는 것이 싫었다.
- 유주현, 「하오의 연가」 -

40. ㉡의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모내기 철에 품앗이를 하였다.
- ② 사재기를 통해 폭리를 취했다.
- ③ 직장 동료끼리 교대로 점심을 샀다.
- ④ 할인 매장에서 싼값으로 물건을 샀다.
- ⑤ 알뜰 시장에서 중고 물건을 맞바꾸었다.

41. ㉢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려 할 때, 그 논거로 가장 타당한 것은?

- ① 반시장적 행위는 상호주의의 산물이다.
- ② 비시장적 요소는 시장의 기능을 보완한다.
- ③ 시장에서는 비대칭적 상호주의가 통용된다.
- ④ 시장에는 탈리오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 ⑤ 반시장적 요소는 시장 스스로도 해결할 수 있다.

[52~5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001.11

영화의 기본적인 단위는 프레임이다. 테두리 혹은 틀을 뜻하는 프레임은 영화가 만들어져 상영되는 단계마다 서로 다르게 정의된다. 촬영 과정에서는 카메라를 통해 들여다보는 장면의 구도로, 편집 과정에서는 필름에 현상된 낱말의 정지 사진으로, 그리고 상영 과정에서는 극장의 어둠과 화면을 가르는 경계선으로 규정되는 것이다. 그러나 어떻게 정의되든 간에 이 개념은 영화가 ① 프레임을 통해 비추어진 세계이며 프레임을 경계로 어두운 객석의 현실 세계와 구분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일치한다.

회화나 사진이 하나의 프레임만을 가지는 것과는 달리, 영화는 연속적으로 교체되는 많은 수의 프레임들을 가진다. 그리고 이 프레임들은 통합의 과정을 거치면서 한 편의 영화로 만들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프레임일지라도 그 시간과 동작의 원래 맥락에서 분리되지 않으며, 그 자체가 독립적으로 완결된 의미를 지니는 경우도 거의 없다. 그래서 관객은 눈앞에서 계속해서 이것에서 저것으로 바뀌며 재구성되는 프레임들을 그것의 극적이고 시간적인 맥락을 참작하여 이해하게 된다.

또한 회화나 사진이 소재나 구성에 프레임을 맞추는 것과는 달리, 영화는 가로 세로의 비율이 언제나 일정한, 같은 크기의 프레임에 맞추어 내용물을 배치하게 된다. 이렇게 프레임이 고정되는 것은 그것이 필름이나 극장 영사막의 규격화된 형식을 이용해야 하는 영화의 기계적, 기술적 조건을 벗어나기 어렵기 때문인데, 이로 인해 영화 프레임에서는 수직적 구성에 매우 큰 어려움이 따른다. 그래서 영화에서는 초고층 빌딩들이 들어선 거리를 한 번에 효과적으로 보여 줄 수 있는 수직적 프레임을 거의 볼 수 없는 것이다.

프레임의 완고한 형식성으로 인해 영화가 상영되는 조건에 따라서는 원래의 프레임이 변형되고 결과적으로 감독이 의도했던 화면 구성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일이 생기기도 한다. 특히 와이드 스크린의 장점을 효과적으로 이용한 극장용 영화가 TV를 통해 방영될 때 이러한 문제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35mm의 영화가 16mm로 축소된다는 것은 원래 프레임에서 화면의 3분의 1 정도가 잘리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화면을 자르면, 원래 프레임의 가장자리에 있던 등장 인물이 변형된 화면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을 수도 있고, 혹은 등장 인물이 시청자의 눈에는 보이지도 않는 것에 깜짝 놀라거나 공포에 찬 반응을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영화 프레임이 갖는 이러한 제약성 때문에 영화의 매력이 감소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이러한 형식의 제약성으로 인해 오히려 영화의 다양한 기법들이 개발되고 작품의 예술성이 더욱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점에 있어서 영화 감독은, 소네트*가 요구하는 형식적 요건에 오히려 구미가 당겨서 그 엄격한 형식을 택하는 소네트 작자에 견줄 수 있다. ① 우리가 소네트를 읽어서 얻는 즐거움은 대체로 형식과 내용 간의 긴장에서 유래하는 것이다. 기법과 소재가 이런 식으로 완벽히 융합할 때, 우리의 심미적인 즐거움은 고조된다. 이와 동일한 원칙이 영화의 프레임에 적용될 수 있다.

* 소네트: 하나의 시행이 10음절로 된 14행의 정형시

52.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 ① 영화의 각 프레임은 독립적으로 완결된 의미를 지닌다.
- ② 영화는 프레임에 맞추어 내용물을 배치한다.
- ③ 영화의 프레임은 모든 대상을 효과적으로 보여 주는 틀이다.
- ④ 영화 프레임의 규격은 대상에 따라 자유롭게 바뀔 수 있다.
- ⑤ 영화에서 프레임의 제약은 영화의 매력을 감소시킨다.

53. 윗글로 미루어 ㉠과 거리가 먼 것은?

- ① 유리창을 통해 본 세상
- ② 배 위에서 바라본 등대
- ③ 천체 망원경으로 본 우주
- ④ 동굴 속에서 바라본 바깥 풍경
- ⑤ 손거울에 비추어 본 자신의 모습

54. ㉡을 영화에 적용하여 설명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영화는 형식과는 무관하게 즐거움을 제공한다.
- ② 내용에 따라 형식이 결정될 때, 영화의 묘미가 커진다.
- ③ 영화를 즐기는 사람들은 대개 형식미에 관심을 갖게 마련이다.
- ④ 형식의 엄격성 속에서 내용의 새로움이 창조될 때, 영화의 심미적 즐거움은 커진다.
- ⑤ 영화의 심미적 즐거움은 내용과 형식이 각기 다른 의미를 만들어 내는 데서 발생한다.

55. 윗글에 대한 이해를 심화·발전시킨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 ① 영화를 제대로 감상하려면 영화관에 가서 보는 것이 좋겠어.
- ② 영화의 기법도 참조해 가면서 영화를 감상하는 것이 좋겠어.
- ③ 기법과 소재를 융합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
- ④ 배우의 대사나 연기에 관심을 갖고 영화를 감상하는 것이 좋겠어.
- ⑤ TV로 극장용 영화를 볼 때는 변형된 부분도 고려하여 감상해야겠어.

[13~1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00.11

세종이 조선 시대의 역대 왕 중에서 제도의 정비와 문치에 가장 많은 업적을 남긴 군주라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러나 우리의 실정에 맞게 음악을 정리하여 나라의 연례(宴禮)에 사용하도록 한 사실을 아는 사람은 드물다. 음악을 정리한 그의 업적은 훈민정음을 창제하여 백성 사랑의 정신을 실천한 것과 더불어 위대한 문화 애호 정신의 발로라 할 만하다.

세종은 왕위에 오르기 전부터 음악에 정통하였다. 『세종실록』에 실린 다음의 기록은 그의 음악에 대한 이해의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좋은 예가 된다. 세종은 박연이 제작한 경(磬)* 두 틀과 중국에서 도입한 경 한 틀을 시험해 본 다음, 중국의 경은 음이 잘 맞지 않지만 박연이 만든 경은 바르게 된 것 같아 기쁘다고 하면서, 이척(夷則)* 하나의 소리가 약간 높다는 사실을 지적하였다. 이척은 서양 음악에서 'G#'에 가까운 소리인데, 이처럼 반음의 미세한 높낮이까지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은 결코 보통 사람의 음악적 소양이라 하기 어렵다.

세종은 우리나라의 음악이 모두 잘 되었다고 할 수는 없으나,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중국에 뒤질 것도 없다고 보았다. ㉠ 중국의 음악이라고 하여 반드시 바른 것은 아니며, 따라서 우리나라의 고유한 음악을 새로 제정해야 할 필요성과 당위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우리의 음악을 중국의 음악과 대등한 것으로 인식한 것은 오늘날의 관점에서도 충분히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일이다. 고려 시대부터 전해 온 향악(鄕樂)보다 중국계 속악인 당악(唐樂)과 송나라에서 들어온 아악(雅樂)이 중심이었던 당시 상황에서 우리의 음악에 대해 이와 같은 생각을 가졌다는 사실은 세종의 음악관이 매우 주체적이고 선진적이었음을 웅변해 주고 있다.

세종은 종묘 제례에 중국과는 다른 우리의 음악을 사용하고자 하였다. 당시에는 종묘의 제례에서 당악을 먼저 연주하고 삼헌(三獻)*에 이르러서야 우리나라의 전통 궁중 음악인 향악을 연주하는 실정이었다. ㉡ 나아가 세종은 제례에서는 물론 사신을 접대하는 회례연(會禮宴)에서도 향악을 제외하고 중국계 아악만을 사용하고자 하는 당시의 흐름이 우리의 고유한 음악의 발전을 저해하는 것으로 보고, 새롭게 출발한 왕조에 걸맞은 음악을 제정하려 하였다. 그는 신하들에게 조상들이 평소에 듣던 음악을 제례와 회례연에 쓰는 것이 어떠할지 상의하라고 명한 바, 여기서 우리 음악에 대한 그의 주체적인 자세를 다시 엿볼 수 있다.

그렇다고 하여 세종이 중국의 음악에 대해 배타적인 자세만을 견지한 것은 아니었다. 중국계 아악에 편성되는 악기를 새로 제조하거나 아악을 정비하는 사업에 막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것은 국수주의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외래 음악의 좋은 점을 수용하려는 의도였다. 세종이 박연 등에게 조회에 사용할 아악을 정리하라고 명한 다음의 언급은 그러한 사정을 명확히 보여 준다.

내가 조회(朝會)에 사용할 아악을 창제하고자 하는데, 예로부터 법을 세우고 창제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어떤 때는 임금이 하고자 하는 바를 신하가 저지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신하가 하고자 하는 바를 임금이 듣지 아니하기도 한다. ㉢ 위와 아래에서 모두 하고자 하여도 시운(時運)이 불리한 때도 있는데, 지금은 나의 뜻이 먼저 정해지고 또 국가에도 별다른 일이 없는 좋은 기회이니 최선을 다해 이 일을 이루도록 하라.

그러나 당시 음악을 정리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던 사람들은 중국계 아악의 정리에 심혈을 기울이면서도 향악은 상대적으로 홀대하였다. 그때 참여했던 인물 중에 “가정에서 삼헌(三絃)* 가무를 가르치는 일은 실로 집안을 망치는 근원이니 삼가 그러한 뜻을 갖지 말라. ㉣ 금슬(琴瑟)은 정악의 그릇으로, 예로부터 군자가 늘 곁에 두고 이것으로써 성정(性情)을 길렀으니 조용히 스스로 연주함이 옳을 것이다.”라고 자손에게 유훈(遺訓)을 남긴 사람이 있다는 데서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세종이 “아악은 본래 중국의 음악인데, 그것을 제례에 사용한다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살아서는 향악을 듣다가 죽은 뒤에는 아악 연주를 들어야 하니 옳은 일인가?”라고 한 것과 명백히 대조된다.

세종의 처음 의도와는 달리 종묘 제례 음악이 중국계 아악으로 바뀌어오르며, 그의 주체적인 음악 정책은 만족할 만한 결실을 맺지 못하였다. 그러나 세종의 음악 정책과 거기에 깔려 있는 자주적인 음악 애호의 정신은 오늘날 우리의 국악이 서양 음악에 밀려 합당한 자리를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창조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이정표를 제시해 준다.

- * 경: 악기의 이름
- * 이척: 동양의 십이 음계에서 아홉째 음
- * 삼헌: 제사 때 세 번째 술잔을 올리는 일
- * 삼현: 거문고, 가야금, 비파
- * 금슬: 거문고와 비파

13.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세종은 제례 음악에 향악을 주로 사용하려 하였다.
- ② 세종은 박연 등을 통하여 향악을 정리하려 하였다.
- ③ 세종은 우리나라와 중국의 음악을 대등하게 인식하였다.
- ④ 세종의 음악 정책은 아악과 향악의 조화를 꾀하려는 것이었다.
- ⑤ 세종은 미세한 음의 차이까지 구별할 정도로 음악적 소양이 있었다.

14. <보기>는 정인지가 쓴 『훈민정음』 서문의 일부이다. ㉠의 주장과 상통하지 않는 것은?

<보 기>

천지자연의 소리가 있으면 반드시 그것을 표기할 글자와 글이 있다. 그래서 ㉠ 옛사람이 그 소리를 바탕으로 하여 글자를 만들어서 만물의 정(情)을 통하게 하고, 삼재(하늘, 땅, 사람)의 도리를 실었으니, 후세 사람이 선인이 만든 글자를 함부로 바꿀 수 없었다. 그러나 ㉡ 사방의 풍토가 다르고, 사람의 발음도 이에 따라 다르다. 대개 중국 이외의 외국어는 중국어와 다른 그 언어의 음이 있으나 그 음을 기록할 글자가 없어서 중국의 글자를 빌려서 쓰고 있다. 그러나 ㉢ 이것은 마치 동근 구멍에 모난 자루를 낀 것과 같이 서로 어긋나는 일이니 어찌 능히 막힘없이 통달하겠는가! 그러므로 ㉣ 중요한 것은 각각 처해 있는바를 따라 편하게 할 것이지 억지로 똑같이 할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 우리 동방은 예악, 문장 등 문물제도가 중국과 견줄 만하나 우리말과 사투리는 중국과 같지 않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15. 상황 인식과 대처 방향이 ㉠과 유사한 것은?

- ① 구보는 다시 밖으로 나오며, 자기는 어디 가 행복을 찾을까 생각한다. 발 가는 대로, 그는 어느 틈엔가 안전 지대에 가서서, 자기의 두 손을 내려다보았다.
- ② 현대인은 너무 약다. 전체를 위하여 약은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 자기 본위로만 약다. 백년대계(百年大計)를 위하여 영리한 것이 아니라, 당장 눈앞의 일, 코앞의 일에만 아름답다는 고식지계(姑息之計)에 현명하다.
- ③ 날씨는 급격히 변화되어, 이 골짜기 저 골짜기에 안개가 자욱하고 음산한 구름장이 산허리에 감기더니, 은계(銀梯), 금계(金梯)에 다다랐을 때 기어이 비가 내렸다. 젖빛 같은 연무(煙霧)가 짙어서 지척을 분별할 수 없다.
- ④ 흥보 치레를 볼작시면, 철대 부러진 현 파립, 버레줄 총총 매어 조새 갓끈을 달아 써, 머냇 떨어진 현 망건 밥풀 관자 노당줄을 뒷통 나게 줄라매고, 떨어지 현 도포 싹피로 총총 이어 고픈 배눌러 띠고, 한 손에다 곱돌 조대를 들고, 또 한 손에대가는 떨어진 부채 들고, 죽어도 양방이라고 여덟 팔자 걸음으로 엇비식이 들어간다.
- ⑤ 새봄이 온 세계에 돌아와 만물의 소생을 재촉하는구나. 흑심한 추위가 사람의 숨을 막아 꿈쩍 못 하게 한 것이 저 지난 한 때의 형세라 하면, 화창한 봄바람과 따듯한 햇볕에 원기와 혈맥을 떨쳐 퍼는 것은 이 한때의 형세이니, 천지의 돌아온 운수에 접하고 세계의 새로 바뀐 조류를 탄 우리는 아무 주저할 것도 없으며, 아무 거리낄 것도 없도다.

16. ㉠과 잘 어울리는 것은?

- ① 갑론을박(甲論乙駁) ② 공평무사(公平無私)
- ③ 동문서답(東問西答) ④ 천재일우(千載一遇)
- ⑤ 백년하청(百年河清)

17. 세종의 음악 정책에 담긴 지향점과 거리가 먼 것은?

- ① 우리 문화의 세계화 ② 문화적 정체성 확립
- ③ 민족 문화의 활성화 ④ 전통 문화의 재인식
- ⑤ 외국 문화의 창조적 수용

18. ‘㉠ 금슬(琴瑟): 부부의 금실이 좋다.’의 관계와 가장 비슷한 것은?

- ① 고간(庫間): 곳간이 비었다.
- ② 세월(歲月): 세월이 빠르다.
- ③ 중생(衆生): 짐승보다 못하다.
- ④ 내외(內外): 서로 내외를 한다.
- ⑤ 우레(雨雷): 우레 소리가 크다.

[19~2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000.11

(가) 인간만이 ㉠ 말을 한다는 주장을 인간 중심의 사고로 보는 견해가 있다. 벌이 춤으로 꿀에 대한 정보를 비교적 정확히 알려 주듯이, 인간 이외에도 의사소통 수단을 가진 동물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동물의 의사소통 수단과 인간 언어의 차이를 알기 위해 인간 언어의 특질 몇 가지를 알아보기로 한다.

(나) 우선, 언어 표현과 그것이 지시하는 내용 사이의 결합이 자의적이라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는 같은 의미를 가진 말을 언어마다 달리 발음하는 사실만으로도 쉽게 확인된다. 간혹 ㉡ 의성어의 경우는 이 관계가 필연적이라는 의의가 제기되기도 하지만, 여기에도 필연성은 없다. 예를 들어 국어로는 개가 짖는 소리를 ‘멍멍’이라고 하지만 러시아 어로는 ‘가브가브’라고 한다. 이는 우리가 지각한 소리에 대한 언어 표현이 꼭 그래야 할 필연성이 없음을 보여 준다. 게다가 실제 소리와 언어 표현은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소의 울음을 국어에서는 ‘음매’라고 발음하지만, 소는 그 소리대로 울지 않는다. ‘음매’라는 발음으로 우는 소가 있다면 그 소는 한국어를 구사하는 소라고 하겠다.

(다) 의미에 대한 언어 표현이 언어 사회마다 다른 것은 이들을 연결시키는 약속이 다른 데서 기인한다. 이러한 연결이 약속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사실을 아래의 예를 통해 살펴보기로 한다.

수업 시간에 선생님께서 연필을 달라고 하셨다. 연필을 드렸더니 그게 아니라고 하시면서 공책을 집으셨다. 그리고는 앞으로 이 수업 시간에는 공책은 ‘연필’로, 연필은 ‘공책’으로 부르자고 하셨다. 선생님께서 다시 ‘연필’을 달라고 하셨다. 나는 얼른 공책을 드렸다.

의사소통이 되지 않다가 새로운 약속을 하니 의사소통이 이루어졌다. 이는 언어의 내용과 표현이 약속에 의해 결합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러나 일단 사회에 수용된 약속은 개인이 마음대로 바꿀 수 없다.

(라) 벌들도 서로의 약속이 없다면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벌의 춤은 한정된 정보만 전달한다. 반면 인간은 한정된 수의 음소 및 단어와 그것들을 결합시키는 규칙을 토대로 새로운 단어와 문장 등을 만들어 낼 수 있다. 이렇게 유한한 요소로 들어 보지도 못한 새로운 표현을 창조해내는 것인 인간이다. 이러한 특성을 창조성이라고 한다.

(마) 인간의 언어는 지금 여기에 없는 대상에 대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특질도 가지고 있다. 어제의 일이나 다른 곳의 일을 오늘, 여기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다. 국어의 경우 과거의 사건은 어미 ‘-었-’으로, 다른 곳의 사건은 ‘저기에서’와 같은 부사어로 실현시킨다. 이처럼 현재 여기에 없는 상황을 전달하는 것을 ㉢ 전위(轉位)라고 한다.

(바) 이상에서 인간 언어의 특질 몇 가지를 살펴보았다. 인간의 언어와 동물의 의사소통은 내용을 전달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그러나 위에 든 특질들은 인간과 동물의 의사소통 수단을 구별해 주는 중요한 요소들이다.

19. 윗글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한 것은?

- ① 사고의 범위는 언어의 범위보다 좁다.
- ② 인간은 언어의 약속을 가지고 태어난다.
- ③ 동물과 인간은 의사소통 방법에 차이가 없다.
- ④ 일상적인 언어 생활에서도 창조성이 실현된다.
- ⑤ 언어가 내용과 형식을 모두 갖추어야 할 필요는 없다.

20. 윗글로 볼 때, (다)의 특질이 생기는 이유는?

- ① 인간 언어에 보편성이 있어서
- ② 국가에 따라 언어 규범이 달라서
- ③ 언어마다 독특한 어휘 체계가 있어서
- ④ 인종마다 청각 기관의 구조가 달라서
- ⑤ 말소리와 의미의 결합에 자의성이 있어서

21. (라)에서 설명한 인간 언어의 특질에 해당하는 것은?

- ① 전하고 싶은 바를 춤으로 표현한다.
- ② 작품성이 뛰어난 시를 외워서 낭송한다.
- ③ 인간과 벌 사이의 의사소통 수단을 고안한다.
- ④ 이미 있던 단어를 합성하여 새 단어를 만든다.
- ⑤ 영어를 잘하기 위해 국어의 /s/를 /z/로 발음한다.

22. ‘말’이 ㉠에 해당하는 뜻으로 쓰인 것은?

- ① 제가 먼저 말을 꺼내겠습니다.
- ② 말은 생각을 표현하는 수단입니다.
- ③ 그런데 말이야,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
- ④ 감정이 격해지니까 말도 거칠어지는데요.
- ⑤ 벌써 말이 퍼져서 이 일은 포기해야 하겠어요.

23. ㉡에 대해 ‘소의 울음’을 예로 들어 설명하려고 한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소의 울음을 나타내는 단어가 언어마다 다르다.
- ② 소의 실제 울음은 ‘음매’라는 발음과 똑같지 않다.
- ③ 소의 울음은 ‘음매’라고 발음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 ④ 소의 울음을 ‘음매, 엠매’ 등으로 달리 발음할 수 있다.
- ⑤ 소의 울음을 ‘음매’라고 하는 것은 한국어 화자가 그렇게 지각하기 때문이다.

24. ㉢의 사례에 해당하는 것은?

- ① 함께 감시다.
- ② 골고루 먹어라.
- ③ 비가 오는구나!
- ④ 이게 뭘지 알아?
- ⑤ 책은 안방에 있어.

MEMO

MEMO

[25~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000.11

(가)

뒷벽 중앙에 새긴 십일면관음보살은 더할 나위 없는 여성미와 육체미까지 나타내었다. 어디까지나 아름답고 의젓한 얼굴판은 그만두더라도, 곱고도 부드러운 곡선을 ㉠ 그리며 드리운 오른 팔, 엄지와 장지 사이로 살며시 구슬 줄을 들었는데, 그 어여쁜 손가락이 곱실곱실 움직이는 듯. 병을 치키어 쥔 포동포동한 왼쪽 팔뚝! 종교 예술품으로 이렇게 곡선미를, 여성미를 영절스럽게도* 나타낼 수 있으랴? 그나 그뿐인가! 수없이 늘인 구슬 밑에 하늘하늘하는 옷자락은 서양 여자의 아회복을 생각나게 한다. 그 아른아른웃자락 밑으로 알맞게 볼록한 젓가슴, 좁은 듯하면서도 슬만한 허리를 대어 둥그스름하게 떠오른 허벅지, 토실토실한 종아리가 뚜렷이 드러났다. 그는 살아 움직인다! 그의 몸엔 분명히 맥이 뛰고 피가 흐른다. 지름이라도 선뜻 벽을 떠나 지그시 감은 눈을 뜨고 빙그레 웃을 듯, 고급의 예술품을 얼마쯤 더듬어 보았지만, 이 묵묵한 돌부처처럼 나에게 감흥을 주고 범열(法悅)을 자아낸 것은 드물었다. 나는 마치 일생을 두고 ㉡ 그리고 그리던 고운 님(보살님이시여! 그릇된 말씨의 모독을 용서하시이다. 보살님이 내 가슴에 붙여 주신 맑은 불길은 이런 모독쯤은 태우고야 말았습니다.)을 만난 것처럼 그 팔뚝을 만지고, 손을 쓰다듬고, 가슴을 어루만지며, 어린 듯 취한 듯, 언제까지고 차마 발길을 돌릴 수가 없었다.

- 현진진, 「불국사 기행」 -

(나)

소백산 기슭 부석사의 한낮, 스님도 마을 사람도 인기척이 끊어진 마당에는 오색 낙엽이 그림처럼 깔려 초겨울 안개비에 촉촉이 젖고 있다. 무량수전, 안양문, 조사당, 응향각 등이 마치 그리움에 지친 듯 해쓷한 얼굴로 나를 반기고, 호젓하고도 스산스러운 희한한 아름다움은 말로 표현하기가 어렵다. 나는 무량수전 배흘림기둥에 기대 서서 사무치는 고마움으로 이 아름다움의 뜻을 몇 번이고 자문자답했다.

무량수전은 고려 중기의 건축이지만, 우리 민족이 보존해 온 목조 건축 중에서는 가장 아름답고 오래된 건물임이 틀림없다. 기둥 높이와 굵기, 사뿐히 고개를 든 지붕 추녀의 곡선과 그 기둥이 주는 조화, 간결하면서도 역학적이며 기능에 충실한 중심포의 아름다움, 이것은 꼭 갖출 것만을 갖춘 필요미이며, 문창살 하나 문지방 하나에도 나타나 있는 비례의 상쾌함이 이를 데가 없다. 무량수전이 지니고 있는 이러한 지체야말로 석굴암 건축이나 불국사 돌계단의 구조와 함께 우리 건축이 지니는 참 멋, 즉 조상들의 안목과 미덕이 어떠하다는 실증을 보여주는 본보기라 할 수밖에 없다. 무량수전 앞 안양문에 올라 앉아 먼 산을 바라보면 산 뒤에 또 산, 그 뒤에 또 산마루, 눈길이 가는 데까지 그림보다 더 곱게 겹쳐진 능선들이 모두 이 무량수전을 향해 마련된 듯싶다. 이 대자연 속에 이렇게 아늑하고도 눈맛이 시원한 시야를 터줄 줄 아는 한국인, 높지도 알지도 않은 이 자리를 점지해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한층 그윽하게 빛내 주고 부처님을 더욱 숭엄한 아름다움으로 이끌어 줄

수 있었던 안목의 소유자, 그 한국인, 지금 우리의 머릿속에 빙빙 도는 그 큰 이름은 부석사의 창건주 의상 대사이다

이 무량수전 앞에서부터 당간 지주가 서 있는 절 밖, 그 넓은 터전을 여러 층 단으로 담으면서 그 마무리로 쌓아 놓은 긴 석축들이 각기 다른 각도에서 이뤄진 것은 아마도 먼 안산(案山)*이 지니는 겹겹한 능선의 각도와 조화시키기 위해 풍수 사상에서 계산된 계획일 수도 있을 것 같다. 이 석축들의 짜임새를 바라보고 있으면 신라나 고려 사람들이 지녔던 자연과 건조물의 조화에 대한 생각을 알 수 있을 것 같고, 그것은 순리의 아름다움이라고 이름 짓고 싶다. 크고 작은 자연석을 섞어서 높고 긴 석축을 쌓아 올리는 일은 자칫 잔재주에 기울기 마련이지만, 이 부석사 석축들을 돌아보고 있으면 이끼 낀 크고 작은 돌들의 모습이 모두 그 석축 속에서 편안하게 자리 잡고 있어서 희한한 구성을 이루고 있다.

- 최순우, 「무량수전 배흘림기둥에 기대 서서」 -

*영절스럽다: 아주 그럴 듯하다

*안산: 집터나 밭자리의 맞은편에 있는 산

25. (가)와 (나)의 차이점을 잘못 말한 것은?

- ① (가)는 시선이 하나의 대상으로 초점화된 데 비해, (나)는 여러 대상으로 분산되어 있다.
- ② (가)는 현재의 시각에서 기술하고 있는 데 비해, (나)는 과거를 회상하면서 기술하고 있다.
- ③ (가)는 주관적 감흥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데 비해, (나)는 객관적 지식을 토대로 하고 있다.
- ④ (가)는 대상과의 거리가 밀착되어 있는 데 비해, (나)는 대상과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하고 있다.
- ⑤ (가)는 대상을 동적(動的) 이미지로 파악하고 있는 데 비해, (나)는 대상을 정적(靜的) 이미지로 파악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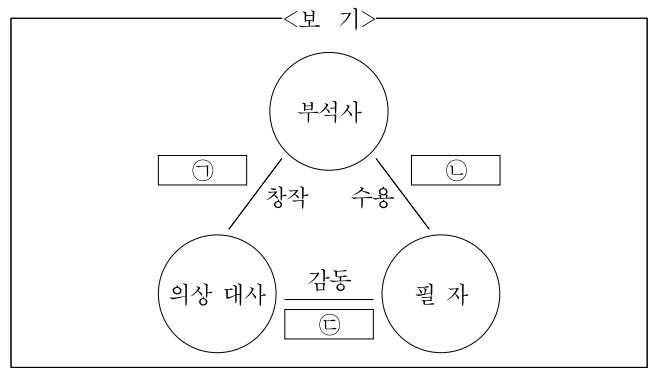
26. (가)를 '한국미의 순례'라는 영상물로 제작하려고 한다. (가)의 내용에 더 추가된 것은?

- ① 옥피리를 불며 승천하는 관음보살을 환상적으로 처리해 본다.
- ② 고풍스러운 음악과 함께 관음상의 전신(前身)을 두루 비추게 한다.
- ③ 관음보살이 웃음 지으며 움직이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표현해 본다.
- ④ 화자가 관음상에게 다가가 부드럽게 쓰다듬는 모습을 보여 준다.
- ⑤ 화자가 관음상을 바라보며 자신의 심경을 감동적인 어조로 말하게 한다.

27. 다음은 '석굴암 관음상을 보고'라는 제목으로 창작을 하기 위한 구상들이다. (가)에 나타난 필자의 느낌과 유사한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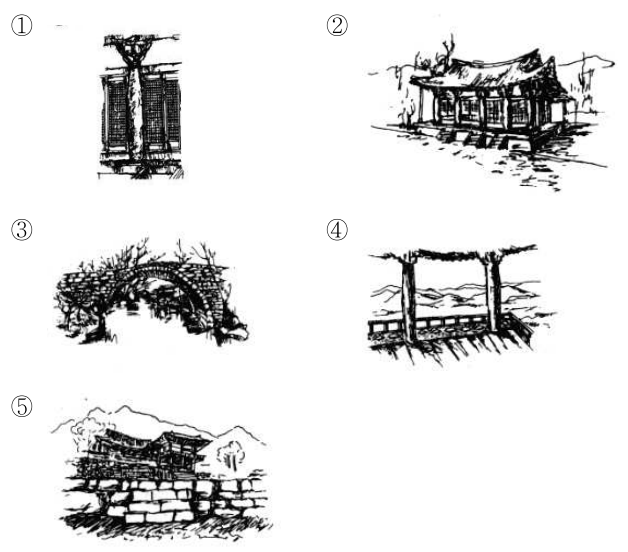
- ① 관음상은 종교적 대상이 아닐 수 없어. 엄숙함과 경건함이 잘 드러나도록 그림을 그리려고 해.
- ②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사람이 관음보살께 자기의 심정을 하소연하는 내용으로 편지를 쓰려고 해.
- ③ 관음상을 만든 석공은 위대한 장인이야 분명해. 그의 일대기를 소재로 한 소설을 쓰고 싶어.
- ④ 관음상은 단순한 돌덩이가 아니야. 차가운 돌에 뜨거운 생명을 불어넣는 내용을 담은 시를 쓰고 싶어.
- ⑤ 관음상은 선인들의 얼이 담겨 있는 고귀한 문화재이잖아. 여러 곳에 있는 관음상을 탐방하는 내용의 기행문을 쓰려고 해.

28. <보기>는 예술품의 창작과 수용 관계를 나타낸 그림이다. (나)의 [] 안의 말들을 ㉠~㉣에 바르게 대응시킨 것은?



- | | | |
|------------|----------|----------|
| ㉠ | ㉡ | ㉢ |
| ① 안목과 미덕 | 순리의 아름다움 | 사무치는 고마움 |
| ② 안목과 미덕 | 사무치는 고마움 | 순리의 아름다움 |
| ③ 순리의 아름다움 | 안목과 미덕 | 사무치는 고마움 |
| ④ 순리의 아름다움 | 사무치는 고마움 | 안목과 미덕 |
| ⑤ 사무치는 고마움 | 순리의 아름다움 | 안목과 미덕 |

29. (나)에서 필자가 주목한 대상을 그려 보았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30. <보기>는 (가)의 ㉠, ㉡와 관련한 사전 풀이이다. 설명이 틀린 것은?

<보 기>

그리다¹ ㉠(타) (어떤 대상을) 애뜻한 감정으로 간절히 바라거나 생각하다. ㉡고국을 ~.

그 : 리다² ㉢(타) (㉠)연필·붓 등으로 모습이나 형태를 이루어 나타내다. ㉣풍경을 ~. (㉡)글 따위로 나타내다. ㉤인간의 고뇌를 그린 소설. (㉢)마음으로 상상하거나 떠올리다. ㉥미래의 내 모습을 ~. (㉣)(물체의 형태나 움직임이) 어떤 모습을 만들어 내다. ㉦손가락으로 V자를 ~.

- ① 그리다¹와 그 : 리다²는 서로 다른 낱말이다.
- ② 그 : 리다²의 첫 음절 '그'는 길게 발음한다.
- ③ 그리다¹와 그 : 리다²는 모두 목적어가 필요한 동사이다.
- ④ ㉠은 그 : 리다²의 ㉣에 해당하며, ㉡는 그리다¹에 해당한다.
- ⑤ "마음 속으로 그 사람의 얼굴을 그려 보았다."라고 할 때의 '그려'는 그리다¹의 뜻이다.

[40~4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000.11

루소의 사상은 인간이 자연 상태에서는 선하고 자유롭고 행복했으나, 사회와 문명이 들어서면서 악해지고 자유를 상실하고 불행해졌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그는 『에밀』의 첫머리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 세상 만물은 조물주의 손에서 나올 때는 선하지만, 인간의 손에 와서 타락한다. 인간은 어떤 땅에다 다른 땅에서 나는 산물을 재배하려 드는가 하면, 어떤 나무에 다른 나무의 열매를 열리게 하려고 애를 쓴다. 인간은 기후·환경·계절을 뒤섞어 놓기도 한다. 무엇 하나 자연이 만들어 놓은 상태 그대로 두지 않는다.

루소에 의하면,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필요한 만큼의 욕구가 충족되면 그 이상 아무 것도 취하지 않았으며, 타인에게 해악을 끼치지도 않았다. 심지어 타인에게 도움을 주려는 본능적인 심성까지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인지(認知)가 깨어나면서 ㉠인간의 욕망은 필요로 하는 것 이상으로 확대되었다. 이 이기적인 욕망 때문에 사유 재산 제도가 형성되고, 그 결과 불평등한 사회가 등장하게 되었다. 즉 이기적 욕망으로 인해 인간은 타락하게 되었고, 사회는 인간 사이의 대립과 갈등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

이러한 인간과 사회의 병폐에 대한 처방을 내리기 위해 쓰여진 것이 『에밀』로서, 그 처방은 한마디로 인간에게 잃어버린 자연을 되찾아 주는 것이다. 즉 인간에게 자연 상태의 원초의 무구(無垢)함을 되돌려 주어, 선하고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게 하는 것이다. 루소는 이것이 교육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보았다.

그 교육의 실체는 ㉡가공(架空)의 어린이 ‘에밀’이 루소가 기획한 교육 프로그램에 따라 이상적인 인간으로 성장해 가는 과정을 통해 엿볼 수 있다. ㉢이 교육은 자연 상태의 인간이 본래의 천진무구함을 유지하면서 정신적·육체적으로 스스로를 도야해 가는 과정을 따르는 것을 원리로 삼는다. 그래서 지식은 실제 생활에 필요한 정도만 배우게 하고, 심신의 발달 과정에 따라 어린이가 직접 관찰하거나 자유롭게 능동적인 경험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자유로우면서도 정직과 미덕을 가진 도덕적 인간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게 된다. 이것은 자연 상태의 인간을 중시하는 그의 인간관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다.

루소의 자연으로 돌아가자는 주장은 공허한 외침으로 들리기도 한다. 루소가 말하는 자연으로 돌아가기에는 이미 인류의 역사가 너무 많이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간이 본래 무구한 존재라고 본 그의 인간관과 인간 사이의 유대를 도모하고 평등을 실천 할 수 있는 인간상을 추구했던 그의 이상은 인간을 탐욕의 노예로 몰고 가는 오늘날에 더욱 빛을 발한다

40. 윗글에 나타난 루소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문명의 발전을 인성의 발전과 동일시하였다.
 - ② 사유 재산 제도를 부정적인 시각에서 평가했다.
 - ③ 무구함의 회복이 인간의 행복과 통한다고 여겼다.
 - ④ 사회 병폐에 대한 처방책의 핵심을 교육으로 보았다.
 - ⑤ 도덕적 인간 양성이 이상적인 사회 구축의 첩경이라고 믿었다.
41. 윗글에서 루소가 말하는 ‘교육’의 개념과 가장 유사한 것은?
- ① 교육은 지식의 습득을 기본 목표로 한다.
 - ② 교육은 국가의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이다.
 - ③ 교육은 자아의 독립과 완전한 개성을 이루게 하는 것이다.
 - ④ 교육은 특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책임감을 부여하는 것이다.
 - ⑤ 교육은 제멋대로 흐르는 개울을 반듯한 수로로 변하게 하는 것이다.
42. 문맥상 ㉠의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식수를 구하려고 우물을 팠다.
 - ② 추위를 막기 위해 의복을 만들어 입었다.
 - ③ 먹고 남은 곡식으로 해마다 농토를 사들였다.
 - ④ 추수가 끝나면 신께 감사하는 의식을 치렀다.
 - ⑤ 외부의 침입에 대처하기 위해 공동 생활을 하였다.
43. ㉡의 사전적 의미는?
- ① 일부러 꾸며 놓음
 - ② 다듬어서 새롭게 만들
 - ③ 이루어질 가망성이 없음
 - ④ 사람의 힘으로 만들어 놓음
 - ⑤ 이미 있는 것에 새 것을 더함
44. ㉢에 제시된 교육 방법에 대해 반박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아는 것이 병이라는 말처럼, 쓸데없는 것을 너무 많이 알게 되면 해롭지 않을까?
 - ② 매를 아끼면 아이를 버린다는 말도 있듯이, 아이들을 제멋대로 내버려두면 버릇이 나빠지지 않겠어?
 - ③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말도 있듯이, 어려서 이루어진 성격은 평생을 좌우하지 않을까?
 - ④ 서당 개 삼 년이면 풍월을 읊는다는 말처럼, 아이들에게는 무엇보다 교육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닐까?
 - ⑤ 하나를 배우면 열을 아는 아이도 있는데, 뛰어난 아이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교육을 시켜야 하지 않을까?

[45~4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000.11

우리는 역사상의 모든 인간 사회들이 ㉠ 물질적 풍요라는 가치를 추구했을 덕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이러한 상식은 공동체적 유대와 평화로움을 중시하는 칼라하리 사막의 수렵 채집민인 쿡 족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들은 최소한의 식욕을 해결하면 각종 놀이와 의례 행위를 통해 정신적인 즐거움과 화목한 사회 관계를 유지하고자 노력한다. 이러한 쿡 족의 태도는 사바나 생태계에서 경험적으로 체득한 지혜에서 나온 것이다. 즉 이들은 건기와 우기의 생태적 변화 과정이나 먹이감의 이동 경로, 식용 식물에 대한 지식 등에 기초하여 노동을 배분한다. 또한 자신이 속한 씨족 집단의 구성원들과 생산물·사냥 도구를 공유함으로써 궁핍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적응 체계를 발전시켰다. 인간은 생존하기 위하여 우선 먹어야 하지만, 얼마나 먹을 것인가 하는 것은 문화에 따라 다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무분별한 ㉡ 부의 추구가 한 문화를 완전히 파괴시킨 경우를 아프리카의 유목민인 새홀 족에서 발견할 수 있다. ㉢ 1920년대부터 인구 증가로 고통 받던 이 부족은 1960년대 중반 평균 강수량보다 많은 비가 내려 목초가 풍부해지자 경쟁적으로 가축의 수를 크게 늘려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기 시작하였다. 그 후 날씨가 건조해지자 그들은 삶의 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더 많은 가축들을 방목하는 것으로 대응하였다. 그 결과 그들의 삶의 터전인 목초지는 서서히 사막으로 변하여 생존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전통적인 문화적 적응 방식에 담겨 있는 생태 체계와의 조화라는 원리가 ㉣ 개인적인 욕구 추구로 대체됨으로써 나타난 결과라고 하겠다.

부의 축적이 ㉤ 물질적인 안락함과 편리함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사례를 많은 인류학자들이 보고하고 있다. 북아메리카의 콰키틀 인디언은 20세기 초까지 ㉥ 낭비적 소비가 이루어지는 포틀라치라는 축제를 행하고 있었다. 이들은 더 높은 위신과 권위를 얻기 위해 경쟁적으로 손님을 초대하여 많은 선물을 주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귀중한 재화를 파괴하며, 심지어는 자신의 집을 불태우기도 하였다. 현대인의 눈에는 낭비적이고 파괴적으로 보이는 이 축제는 자연 자원이 풍부하고 사회적 신분이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조건을 배경으로 한 것이었다. 또한 정치적 위신과 권위를 얻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문화를 통해 부의 분배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부수적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뉴기니아 마링 족의 대규모 돼지 도살 축제도 이와 유사한 사례로 들 수 있다. 마링 족은 사육하는 돼지의 수가 곧 자신의 사회적 지위와 정치적 권위를 나타내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평소에는 정성껏 돼지를 돌보고 돼지고기를 식탁에 올리지 않는다. 이러한 금기가 깨어지는 것이 카이코라 불리는 축제 기간이다. 이 축제는 돼지의 수가 늘어나 먹을 것이 부족해지고 노동력이 달려서 돼지를 돌보기 어려워지는 시기에 열린다. 축제가 열리면 평소에 먹기 어려운 돼지고기를 실컷 먹고 동맹 부족의 사람들을 부려 돼지를 선물한다. 이를 통해 전쟁에서의 동맹 세력을 확보하고, 노동력에 여유를 얻으며 생태계의 균형을 복원한다.

이상의 사례들은 물질적 풍요의 추구가 한 문화의 중심적 가치가 아닐 수 있고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처럼 다양성이 나타나는 이유는 각 문화의 제도나 관습들이 그 나름의 역사적·경제적·생태적 조건 등을 기초로 발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하나의 기준으로 문화의 우열을 정한다든지, 어떤 문화 요소의 좋고 나쁨을 논하기는 어렵다.

45. 윗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정신 문화의 중요성 강조
- ② 다양한 문화와 그 가치의 인정
- ③ 우리 문화의 고유성에 대한 재인식
- ④ 물질적 풍요의 고유성에 대한 재해석
- ⑤ 서구적 가치의 지속적 추구에 대한 재평가

46. 윗글의 논지 전개 방식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 ① 여러 개념을 주관적인 기능에 따라 분석하고 있다
- ② 역사적 관점에서 대상의 변화 과정을 추적하고 있다.
- ③ 여러 사례를 들어 주장하는 바를 일관되게 설명하고 있다.
- ④ 여러 이론적 입장을 대비시켜 주장하는 바를 개진하고 있다.
- ⑤ 주장하는 바를 유사한 경험을 들어 순차적으로 밝히고 있다.

47. ㉠~㉥ 중 의미하는 바가 다른 것은?

- ① ㉠ ② ㉡ ③ ㉢ ④ ㉣ ⑤ ㉥

48. ㉣의 사례에 어울리는 속담은?

- ① 우선 먹기에는 꽃감이 달다.
- ②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 ③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한다.
- ④ 먼 사촌보다 가까운 이웃이 낫다.
- 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49. 윗글의 논지와 거리가 먼 진술은?

- ① 대중 가요도 '고급 문화'가 될 수 있어.
- ② 사람에 따라서는 채식만 하는 경우도 있어.
- ③ 중·고등학생들이 이성애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해.
- ④ 사주팔자를 보는 것도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거야.
- ⑤ 청소년들이 컴퓨터 게임을 즐기는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어.

[61~6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000.11

‘수학’이라고 할 때 우리는 일반적으로 서양의 수학을 떠올린다. 그렇다면 동양에는 수학적 사고방식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일까? 이러한 의문은 우리 선조들이 수학적인 문제 상황을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였는지 확인함으로써 풀릴 수 있을 것이다.

조선 후기의 실학자인 황윤석의 『이수신편(理藪新編)』에 있는 ‘난법가(難法歌)’의 문제 중 하나를 보자. “㉠ 만두 백 개에 ㉡ 스님이 백 명인데, ㉢ ‘큰 스님’에게 세 개씩 나누어주고 ㉣ ‘작은 스님’은 세 사람당 한 개씩 나누어 준다면, ㉤ 큰 스님은 몇 명이고 작은 스님은 몇 명일까?”

요즈음의 중·고등학생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풀까? 아마도 많은 학생들은 연립방정식을 세워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즉, 큰 스님의 수를 x , 작은 스님의 수를 y 라 하면, ‘ $x+y=100$, ㉡ $3x+\frac{1}{3}y=100$ ’이므로 이를 풀어 답을 구할 것이다. 이러한 해법은 서양에서 들어온 것으로, 서양에서는 17세기 경부터 쓰여 온 방법이다.

그런데 난법가에서는 이를 다음과 같이 풀이한다. 만두가 100개, 스님이 100명이니까, 큰 스님 1명이 먹는 3개와 작은 스님 3명이 함께 먹는 1개를 묶은 4개를 기본 단위로 삼는다. 이것은 만두 4개에 스님 4명이 대응한다는 데서 이루어진 발상이다. 그리고 만두 100개를 기본 단위인 4로 나누면 25가 나온다. 이 25는 3개씩 먹는 큰 스님의 수이면서 동시에 작은 스님들이 먹는 만두의 개수이다. 따라서 큰 스님의 수가 25이므로, 작은 스님의 수는 75가 된다.

창의적인 문제 해결의 예로 많이 이용되는 ‘계토산(鷄兔算)’ 문제도 『이수신편』에 소개되어 있다. “닭과 토끼가 모두 100마리인데, 다리를 세어보니 272개였다. 닭과 토끼는 각각 몇 마리인가?” 이 문제는 이율분신(二率分身)이라는 방법으로 풀고 있다. 이율분신이란 닭과 토끼가 모두 다리의 절반을 들고 있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그러면 닭은 다리가 하나, 토끼는 다리가 둘이 되고, 그 수는 모두 136이 된다. 여기서 다리 수와 총 마리수의 차이, 곧 36은 토끼의 마리 수가 된다. 왜냐하면 이율분신에 의해 닭은 다리 수와 마리 수가 같지만, 토끼는 다리 수가 마리수 보다 하나씩 많기 때문이다. 기발한 착상이다. 이율분신 역시 연립방정식을 세워 푸는 과정과 비교할 때 그 착상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다. 즉, ‘ $x+y=100$, $2x+4y=272$ ’에서 둘째 식의 양변을 2로 나누면 ‘ $x+2y=136$ ’이 되는 것과 동일한 조작이다.

연립방정식의 해법에 익숙한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 이러한 풀이는 상당히 낯설면서도 기발한 착상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이러한 풀이에 대해, 직관에만 의존하였을 뿐 수식에 입각한 논리적인 추론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비판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이들 풀이과정에서도 분명히 가설과 논리적인 추론이 작용한다. 직관적으로 만두 네 개와 스님 네 명을 대응시킨 것과 이율분신의 발상을 한 것은 가설에 해당하며, 이를 토대로 합리적인 설명을 해 가는 것은 바로 논리적 추론 그 자체이다.

이러한 사례는 서양과는 다른, 우리 식의 수학적 사고가 분명히 존재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만 그것이 현재까지 계승되지 못하였을 뿐이다.

61. 윗글에 나타난 우리 선조들의 수학적 사고의 특징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 ① 현실적 이해 관계의 중시
- ② 보편 타당한 방법론의 설정
- ③ 인간 중심적 세계관의 추구
- ④ 격식을 중시하는 가치관의 반영
- ⑤ 구체적인 문제 상황 설정과 해결

62. 난법가의 풀이와 연립방정식에 의한 풀이의 공통점은?

- ① 추론 과정이 있다.
- ② 적용 사례가 제한되어 있다.
- ③ 생활 경험에 기초하여 풀다.
- ④ 개념을 기호로 바꾸어서 풀다.
- ⑤ 실험과 관찰의 방법을 이용한다.

63. ㉡가 함축하는 의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 ② ㉡ ③ ㉢ ④ ㉣ ⑤ ㉤

64. ㉤와 같은 판단의 근거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서양식의 수학적 사고가 보편화되어 있어서
- ② 알려지지 않는 풀이 방법을 제시하기 때문에
- ③ 연립방정식에 의한 풀이보다 더 논리적이어서
- ④ 예상치 않은 방향에서 풀이의 실마리를 찾기 때문에
- ⑤ 수와 식을 사용하지 않고도 논리적으로 문제를 풀어서

65. 윗글의 논지를 바탕으로 학술 발표회를 개최하고자 한다. 초청장에 들어갈 발표회의 주제로 적절한 것은?

- ① 서양 수학의 동양적 해석
- ② 정보화 시대의 수학적 사고
- ③ 수학적 사고의 대중화 방안
- ④ 전통 수학과 서양 수학의 원류
- ⑤ 전통 수학의 재평가와 계승 방안

MEMO

MEMO

[18~2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999.11

(가)

전통적으로 서양화에서는 사생(寫生)을 중시하고, 사생을 할 때에는 특정한 시간과 장소, 일정한 거리와 각도에서 그 시야 안의 사물을 관찰하고 묘사한다. 상상이나 허구에 의한 작품 일지라도 작가는 대상을 고정된 시점에서 보는 것처럼 묘사하여, 대상의 선, 형태, 빛, 색 등 객관적 요소를 사실적으로 그려 낸다. 그래서 화면 안의 명암과 색채의 변화는 반드시 특정한 시간 및 공간과 관련된 객관적 요소의 제약을 받게 된다. 그런데 동양의 화가들은 산을 거닐고 경치를 즐길 때 여러모로 자세히 그 풍경을 살펴본다. 그러면 산의 경치는 걸음에 따라 변하고, 봉우리도 걸음에 따라서 다른 모습을 드러낸다. 이때 화가는 이러한 관찰에서 얻은 풍부한 감동과 인식을 더욱 진실되게 표현하기 위하여 자연스럽게 시점을 이동시키는 산점 투시(散點透視)를 채택함으로써 고정 시점의 제약을 벗어나게 된다.

산점 투시는 구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동양화는 산점 투시를 채택함으로써 구도에 융통성을 갖게 된다. 즉 시야를 고정시키는 초점 투시(焦點透視)의 제약을 벗어나므로써 한 공간 안에, 혹은 같은 시간대에 동시에 출현할 수는 없지만 서로 연관되어 있는 사물들을 한 폭의 화면에 처리할 수 있다. 그리하여 작품의 주제와 사상을 더욱 돋보이고 완전하게 표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나아가 산점 투시는 구도의 배치에 있어서도 더욱 많은 변화의 여지를 제공하였다. 구도의 필요에 따라 좌우와 상하의 거리 조정, 허와 실의 보완, 성김과 뻗뻗함의 변화 표현 등이 자유로워졌다. 그리하여 동양화가들은 사물의 외형적 질서를 맹목적으로 따르지 않게 되었다. 대상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화면의 예술적 효과를 얻어내기 위해, 화가 자신이 가장 절실하다고 느낀 부분을 적절하게 안배하고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대담하게 생략함으로써 동양화의 구도가 융통성을 갖게 되었다.

동양화의 특징인 여백의 표현도 산점 투시와 관련된 것이다. 동양화에서는 산점 투시를 택하여 구도를 융통성 있게 짜기 때문에 유묘취신(遺貌取神)적 관찰 내용을 화면에 그대로 표현할 수 있다. 즉 대상 가운데 주제와 사상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본질적인 부분만을 취하고, 주제와 관계없는 부분을 화면에서 제거한다. 그 결과 여백이 생기게 된 것이다. 이 여백은 하늘일 수도 있고 땅일 수도 있으며, 혹은 화면에서 제거된 기타 여러 가지일 수도 있다. 그런데 이 여백은 단순히 비어 있는 공간은 아니다. 그것은 주제를 돋보이게 할 뿐 아니라 동시에 화면의 의경(意境)을 확대시킨다. 당나라 때 백거이(白居易)는 「비파행(琵琶行)」이라는 유명한 시에서 악곡이 쉬는 부분을 묘사할 때, “이때에는 소리를 내지 않는 것이 소리를 내는 것보다 더 낫다.(此時無聲勝有聲)”라고 하였다. 여기서 ‘일시적으로 쉬는 것[無聲]’은 악곡 선율의 연속인데, 이는 “뜻은 다달았되 붓이 닿지 않은(意到筆不到)” 것과 같은 뜻이다. 이로 인해 보는 이는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여지를 더 많이 가질 수 있고, 동시에 작품은 예술적 공감대를 확대하게 된다.

(나)



위 그림은 단원(檀園) 김홍도(金弘道)가 만년에 그린 것으로 추정되는 「선상관매도(船上觀梅圖)」*이다. 이 그림에는 “늙그막에 꽃을 보니 마치 안개 속에서 보는 듯하네.(老年花似霧中看)”라는 제시(題詩)가 있다. 그리고 김홍도는 이 그림에 표현된 풍경과 정서를 다음의 시조로 그려 내어 우리의 감상을 돕는다.

봄 물에 배를 띄워 가는 대로 놓았으니,
물 아래 하늘이요 하늘 위가 물이로다.
이 중에 늙은 눈에 띄는 꽃은 안개 속인가 하노라.

* 선상관매도(船上觀梅圖): 배 위에서 매화를 보는 그림

18. (가)에서 설명한 동양화의 특징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 ① 산점 투시법(散點透視法)을 주로 사용한다.
- ② 화면의 구성에서 서양화보다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다.
- ③ 대상의 객관적 요소를 사실적으로 그려 내는 데 유리하다.
- ④ 동시에 출현할 수 없는 사물들을 한 쪽의 화면에 처리할 수 있다.
- ⑤ 발걸음을 옮기며 관찰한 풍경에 대한 인상을 종합하여 한 화면에 그려 낼 수 있다.

19. (가)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생긴 의문은?

- ① 동양화가이면서 서양화의 기법을, 서양화가이면서 동양화의 기법을 사용한 사람은 없었을까?
- ② 서양화가 동양화의 투시법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역사적 맥락을 무시했다는 점에서 지나친 해석이 아닐까?
- ③ 동양 미술에서는 시대적 변화가 없었을까? 과연 여기에서 말하는 동양 미술의 특징은 언제부터 나타났을까?
- ④ 동양화에는 표현 기법의 한계가 없을까? 동양화 기법의 장점만 언급해서 동양화의 기법은 완전한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야.
- ⑤ 동양화의 장점을 드러내기 위한 대조의 대상으로만 서양화의 특징을 언급하고 있어서 서양화가 갖는 장점이 잘 드러나지 않았는데, 서양화의 장점은 무엇일까?

20. <보기>의 현상이 나타난 까닭을 (가)의 첫째 문단에 비추어 설명한 것은?

—<보 기>—

우리는 종종 뛰어난 산수(山水) 속을 거닐며 그 풍경을 여러 각도에서 바라본다. 그리고 그 아름다움에 감탄하여, 그것을 한 장의 사진으로 찍어 보곤 한다. 그러나 정작 인화된 사진에서는 그 좋았던 경치가 감쪽같이 사라져 버리고 그저 평범한 풍경으로만 남아 있는 것을 체험하기도 한다.

- ① 사진의 구도를 잘못 잡아서
- ② 촬영자의 심리 상태가 바뀌어서
- ③ 풍경의 세밀한 부분까지 보여 주어서
- ④ 자연의 색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해서
- ⑤ 사진기의 특성상 풍경의 한 면만 담겨서

21. (가)의 셋째 문단에서 설명한 ‘여백의 미’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 ① 지아비 밭 갈러 간 데 밥 광주리 이고 가서, 밥상을 들되 눈썹에 맞추는구나. 친하고도 고마우시니 손님이나 다르실까.
- ② 산촌에 눈이 오니 돌길이 묻혔구나. 사립문 열지 마라, 날 찾을 이 뉘 있으리. 밤하늘 한 조각 밝은 달이 그 벗인가 하노라.
- ③ 잘 새는 날아들고 새 달이 돌아 온다. 외나무다리로 홀로 가는 저 선사(禪師)야, 네 절이 얼마나 하관대 원종성(遠鐘聲)이 들리나니.
- ④ 샷갓에 도롱이 입고 세우(細雨) 중에 호미 메고, 산전을 흘매다가 녹음에 누웠으니, 목동이 우양(牛羊)을 몰아 잠든 나를 깨우네.
- ⑤ 지당(池塘)에 비 뿌리고 양류(楊柳)에 내 끼인 제, 사공(沙工)은 어디 가고 빈 배만 매였는고. 석양(夕陽)에 무심한 갈매기는 오락가락 하더라.

22. 다음은 (가)를 읽고 난 뒤, (나)의 「선상관매도」를 감상하면서 한 이야기들이다. 잘못 이해한 것은?

- ① 주제와 관계없는 것들은 과감히 생략해 버렸구나.
- ② 인물과 매화를 각기 다른 위치에서 보는 것처럼 그렸는데!
- ③ 사람이 참 입체적으로 보이는데, 우리 옛 그림에서는 명암 표현을 중요하게 여겼구나.
- ④ 멀리 있는 매화를 배보다 크게 그린 걸 보니, 이 그림이 왜 「선상관매도」인지 짐작이 되네.
- ⑤ 배와 매화 사이의 여백에서 ‘매화꽃이 안개 속에서처럼 아련하게 보인다.’는 시정(詩情)이 느껴지는 듯한데.

23. (가)의 밑줄 친 ‘성김’과 ‘뻑뻑함’의 의미 관계와 같지 않은 것은?

- ① 굵다: 거칠다
- ② 무르다: 야무지다
- ③ 넉넉하다: 푹푹하다
- ④ 느슨하다: 팽팽하다
- ⑤ 가지런하다: 들쭉날쭉하다

[24~2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999.11

인류의 역사에는 위대한 사상가들이 많다. 그러한 사상가들은 현실의 문제를 새로운 관점에서 비추어 보고 해결하는 지혜를 후세들에게 제공해 준다. 독일의 시인이자 사상가인 괴테(Goethe)도 마찬가지이다. ‘진정한 인간성’을 추구하는 그의 사상은 현대에 사는 우리에게도 꺼지지 않는 불꽃으로 남아 있다.

괴테는 정신 세계에 다양한 요소를 지닌 사람이었다. 예리한 판단력, 풍부한 상상력 그리고 예민한 감수성을 괴테만큼 두루 지녔던 사람도 드물다. 그런데 이런 특성들이 선천적이라기 보다는 자기 스스로 노력하고 탐구하여 얻은 것이라는 데 그의 매력이 있다. 그는 평생 동안 완전한 자기 자신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 사람이다. 시인이자 자연 과학자이고, 사상가이며 정치가인 삶을 살았지만, 그는 이 모든 것에 앞서 인간다운 인간이 되고 싶어했다. 그가 말하는 ‘진정한 인간성’은 이러한 삶의 목표를 반영하고 있다. 여기서 인간다운 인간은 한 곳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이며, 동시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고결하고 선량하며 동정심을 잃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 아울러 그 바탕에는 내면세계를 부단히 성찰하면서 자신의 참 모습을 일구어 가는 진지함이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품성을 두루 갖춘 인간성을 괴테는 자연과 유사한 상태로 간주하였다.

‘진정한 인간성’을 강조하는 괴테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현대 사회의 척박함 속에서도 개인이 인간성을 자유롭게 실현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가져 본다. 여러 가지 점에서 현대인은 자연스럽지 못한 상태로 변해 가고 있다. 인간성의 근원인 자연에서 점점 멀어지면서, 현대인은 자신의 참 모습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물질이나 이념과 같은 외면적 가치에 더욱 매달리고 있다. 그리하여 우리는 왜곡된 인간성에 의해 저질러지는 폭력과 살생을 자주 목격한다. 인간에게 근본적으로 부여된 고귀함을 잊은 채 욕망이 이끄는 대로 휩쓸려 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 어둠 속에서 미소를 짓고 있는 악마 메피스토펠레스가 떠오른다.

한편 ‘진정한 인간성’에 대한 요구는 개인과 집단 간의 대립을 야기하기도 한다. 괴테는 인간의 목표가 각자의 개성과 존엄성을 통해 보편성에 이르는 데 있다고 보았다. 즉 그는 자연이라는 근원에서 나온 개체에 대해서는 자연과 동일한 권리를 부여하였지만, 개체와 근원 사이에 존재하는 중간 단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었다. 그리하여 나폴레옹이 그의 조국을 점령하였을 때에, 그는 피히테(Fichte)만큼 열성적으로 활동하지는 않았다. 물론 그도 자기 민족의 자유를 원했고 조국에 대해 깊은 애정을 표시했지만, 그의 마음을 더욱 사로잡은 것은 인간성이나 인류와 같은 관념이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괴테는 집단 의식보다는 개인의 존엄성을 더 중시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전보다 훨씬 다양한 집단에 속한 채 살아야 하는 현대인에게는 개인과 집단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 하는 문제가 더욱 중요하게 떠오른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때 다수의 논리를 내세워 개인의 의지를 배제한다면 그것은 [A] 바람직한 해결책이라 할 수 없다. 현대 사회가 추구하는

효율성의 원칙만을 내세워 집단을 개인의 우위에 두면 ‘진정한 인간성’이 계발되기 어렵다. 그러므로 우리는 개인이 조직 사회에 종속됨으로써 정신적 독립성을 잃게 되는 위험성을 항상 경계해야 한다.

괴테가 세상을 떠난 지 긴 세월이 지난 오늘날, 우리는 그의 의미를 새롭게 발견한다. 그는 현대의 공기를 마셔 보지 않았지만 대단히 현대적인 시각에서 우리에게 충고를 하고 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무서운 드라마를 끝내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이 다 함께 ‘진정한 인간성’을 추구해야 한다. 물질적 편리함을 위해 정신적 고귀함을 간단히 양보해 버리고, 집단의 목적을 위해 개인의 순수성을 쉽게 배제해 버리는 세태 속에서 우리는 자신의 혼을 가진 인간으로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순수하고 고결한 인간성을 부르짖은 괴테의 외침은 사람 자체를 존중하는 마음이 사라져 가는 오늘날의 심각한 병폐를 함께 치유하자는 ㉡ 세계사적 선서의 의미를 지닌다. 모든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지니고 있는 사랑하는 마음과 선량한 마음을 잃지 않고 각자 ‘진정한 인간성’을 행동으로 실천한다면, 현대 사회의 비인간화 현상은 극복될 수 있을 것이다.

24.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현대인은 정신적 고귀함보다는 물질적 편리함을 추구한다.
- ② 괴테는 민족 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진정한 인간성을 활용하였다.
- ③ 괴테는 개성과 존엄성을 통한 보편성의 획득을 인간의 목표로 간주하였다.
- ④ 위대한 사상은 당대에만 의미를 지니는 것이 아니라 후대에도 영향을 미친다.
- ⑤ 현대 사회의 비인간화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들의 실천 의지가 요구된다.

25. 윗글의 주된 논지 전개 방식은?

- ① 가설을 제시하고, 구체적 자료를 통해 이를 검증한다.
- ② 비유적인 예를 들어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일반화한다.
- ③ 상반된 두 주장을 비판하고, 여기서 절충적 관점을 도출한다.
- ④ 핵심 개념을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 ⑤ 개념의 일반적 정의를 소개하고, 이러한 정의의 문제점을 분석한다.

26. ㉠에서 ‘메피스토펠레스’가 미소를 짓는 근원적인 이유는?

- ① 인간의 동정심 고양
- ② 영혼과 육체의 합일
- ③ 인간과 자연의 괴리
- ④ 현실과 이상의 갈등
- ⑤ 인간의 내면적 가치 추구

27. 다음 중, [A]의 논지와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개인과 집단 사이에는 갈등이 있을 수 없다. 집단의 이익이 개인의 이익이며, 개인의 이익이 집단의 이익이다.
- ② 다수의 논리를 내세워 개인의 의지를 꺾는 것도 잘못이지만, 개인의 의지가 다수의 논리를 무시하는 것은 더 큰 문제이다.
- ③ 개인의 존엄성은 상대적인 것이다. 따라서 개인도 자기 목소리만을 높일 것이 아니라 집단의 목표에 부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④ 진정한 인간성은 이기주의와는 다른 것이다. 개인의 독립성을 지나치게 주장하여 집단의 운영에 차질을 주면 그것 역시 바람직하지 않다.
- ⑤ 개인이 집단의 목적에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은 민주 시민의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 구성원의 비판이 없는 집단은 자기 발전을 이루지 못한다.

28. ㉡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괴테의 정신 세계를 잘 보여 주므로
- ② 인류 사회의 본질적 문제와 관련되므로
- ③ 세계사와 관련된 문제를 다루고 있으므로
- ④ 개인보다는 집단에 더 중요한 문제이므로
- ⑤ 인류의 역사를 이해하는 데 꼭 필요하므로

33. '특급품'을 인생에 결부시킨 글쓴이의 관점과 가장 가까운 것은?

① 형은 아내와 동생의 관계를 오해한다. 그 때문에 아내가 목숨을 끊고 동생마저 집을 나간다. 그는 자신의 잘못이 엄청난 불행을 초래하였음을 깨닫고 후회와 슬픔 속에 살아간다.

- 김동인, 「배따라기」 -

② 징용에 끌려가 한 팔을 잃은 만도는 아들인 진수마저 전쟁으로 다리를 잃자 절망감에 빠진다. 그러나 그는 아들을 업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삶에 대한 새로운 희망과 의지를 다진다.

- 하근찬, 「수난이대」 -

③ 늙은 어부 산티아고는 바다에서 거대한 다랑어 한 마리를 잡는다. 고기와 대결하며 그는 인간의 존재에 대해 생각한다. 돌아오다가 상어의 습격으로 잡은 고기를 잃지만, 그는 좌절하지 않는다.

- 헤밍웨이, 「노인과 바다」 -

④ 나약한 소시민인 철호는 어머니가 실성하고 영호가 범죄를 저지르다 붙잡힌 뒤 아내까지 유산의 후유증으로 죽자 절망감에 빠진다. 그는 삶의 방향을 상실한 채 택시 안에서 심한 빈혈증으로 쓰러진다.

- 이법선, 「오발탄」 -

⑤ 가난과 굶주림 때문에 한 조각의 빵을 훔치다가 감옥에 갇힌 장 발장은 19년만에 출옥을 한다. 자신의 잘못에 회한을 느낀 그는 시장이 되어 선정을 베풀고, 고아인 코제트를 돌보며 그의 행복을 위해 노력한다.

- 위고, 「레 미제라블」 -

[56~6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999.11

21세기를 눈앞에 둔 인류에게 세계화는 커다란 역사적 전환의 의미를 갖는다. 세계화와 관련된 ‘무한 경쟁’, ‘국가 경쟁력’, ‘시장 개방’과 같은 논의 또한 개별 국가들에게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국제화가 단순히 개별 국가 간의 교류가 늘어나는 현상을 말한다면, 세계화는 교류의 양적 확대를 넘어서 개별 국가들의 사회 구조와 국가 간의 관계가 새로운 차원으로 재편되는 과정을 의미한다.

우선 경제 영역의 세계화는 국가 간의 교역, 투자, 통신, 교류 등이 확대되어 상호 의존 관계가 증대되고, 국제적으로 다자 간의 협의, 조정, 협력이 강화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이러한 경제 영역의 세계화에서 최근 주목되는 것은 초국적(超國的) 금융 자본의 비약적인 성장이다. 초국적 금융 자본은 1990년대 후반 현재 세계 무역 거래의 수십 배에 달하는 규모의 금융 거래를 주도하고 있다. 더구나 그것은 전 세계적 연락망과 전략적 제휴 관계를 통해 각국의 국민 경제에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초국적 조직의 역할이 증대되는 것 또한 세계화의 중요한 측면이다. 기존의 개별 국가 틀 안에서는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들을 담당하기 위해 결성된 초국적 조직은 그 중요성이 계속 증대되고 있다. 국제연합(UN), 국제통화기금(IMF), 세계 무역기구(WTO)와 같은 정부간 조직 이외에 국제사면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 그린피스(Green Peace) 등과 같은 비정부 조직(NGO)의 비중 또한 커지고 있다.

한편 문화 영역의 세계화도 주목해야 할 대상이다. 문화의 생산, 분배, 소비가 국제적인 차원의 연결망 속에서 이루어짐으로써 개별 국가들의 문화 및 생활 양식이 전 세계로 신속하게 퍼지고 있다. 세계 곳곳에서 만들어진 뉴스, 영화, 텔레비전 프로그램, 대중음악,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이 세계 시장에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유통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다른 한편으로는 선진국에 대한 문화적 종속을 심화시키기도 한다.

그렇다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세계 질서의 급속한 재구조화는 한국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무엇보다도 세계화가 우리 삶의 질과 구조를 크게 바꿔 놓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금융 자본의 세계화와 문화의 세계화가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초국적 금융 자본의 활동은 최근의 외환 위기를 낳았던 주요 요인 가운데 하나였으며, 그 결과로 등장한 국제 통화기금(IMF)의 경제 정책 관리는 우리 국민 경제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또한 서구의 음식, 의류 문화는 물론 미국 할리우드 영화와 팝 뮤직으로 대표되는 대중 문화의 유입은 우리의 일상 의식과 생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문화 유입의 가속화에 따라 우리의 민족 문화는 급속하게 변형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실들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세계화에 대해 우리들이 정확하게 인식하고, 이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세계화는 기존의 민족 단위로 이루어지던 사회 생활을 새로운 차원으로 재편하는 것이므로, 우리들은 세계화에 대해 보다 개방적인 민족주의적 시각을 지녀야 할 것이다.

여기서 개방적 민족주의란 정치, 경제, 문화 등 각 영역에서 일어나는 세계화 현상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되, 개별 국가 사이의 불평등은 거부하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 그것은 정치, 경제 및 문화적 종속을 거부하고, 자유주의와 평등주의, 그리고 인본주의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구체화될 수 있다. 기존의 국가 이기주의적인 발상에서 벗어나 개별 국가 간의 새로운 관계를 모색하는 이러한 개방적 민족주의야말로 앞으로 지역적, 지구적 호혜 평등의 질서 수립을 위한 기본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56.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세계화 과정에서 초국적 조직의 비중이 강화된다.
- ② 세계화 과정에서 초국적 금융 자본의 역할이 증대한다.
- ③ 개방적 민족주의는 개별 국가 사이의 불평등을 거부한다.
- ④ 세계화를 통해 민족 단위의 사회 생활이 새롭게 재구성된다.
- ⑤ 세계화로 인하여 개별 국가의 고유한 생활 양식이 고착된다.

57. 윗글의 주장이 전제하고 있는 것은?

- ① 민족주의는 세계화를 지향한다.
- ② 세계화는 피할 수 없는 추세이다.
- ③ 민족주의는 바람직한 국가 이념이다.
- ④ 세계화는 개별 국가들의 이해와 대립한다.
- ⑤ 세계화는 개별 국가들의 합의에 의해 추진된다.

58. ‘세계화’에 대한 윗글의 설명 방식을 가장 잘 말한 것은?

- ① 여러 가지 상반된 인식을 대비시키고 있다.
- ② 부분적인 현상에서 유추하여 일반화하고 있다.
- ③ 유사한 이론들과 비교 분석하면서 설명하고 있다.
- ④ 여러 분야에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고찰하고 있다.
- ⑤ 여러 가지 정의를 주관적인 기준에 따라 분석하고 있다.

59. 윗글에서 글쓴이의 태도를 가장 적절하게 지적한 것은?

- ① 선진국에 대해 너무 적대적이어야.
- ② 국가 간의 경쟁 현상에 대해 패배주의적이어야.
- ③ 초국적 조직의 성장에 대해서는 우호적이군.
- ④ 시장 개방에 대해 소극적 자세를 취하고 있어.
- ⑤ 개방적 민족주의에 대해 적극적 자세를 취하고 있어.

60. ‘문화 영역의 세계화’와 관련된 표어를 만들었다. 윗글의 주장과 거리가 먼 것은?

- ① 선진국의 문화 수용 민족 문화 초석된다
- ② 문화 산업 육성하여 세계화에 대처하자
- ③ 호혜 평등 문화 교류 인류 문화 꽃피운다
- ④ 슬기롭게 대처하자 세계화와 문화 개방
- ⑤ 자랑스런 민족 문화 함께 하는 세계 문화

[61~6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1999.11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힘센 거인 안타이오스는 땅의 여신 ㉠가이아의 아들이었다. 그는 대지(大地)에 발을 붙이고 있는 한 절대로 지지 않았다. 그의 영토를 통과하려는 여행자는 그와 겨루어야만 했는데, 살아서 지나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어느 날 헤라클레스와 맞붙는 일이 벌어졌다. 안타이오스의 어마어마한 ㉡힘의 원천을 알고 있던 헤라클레스는 그를 번쩍 들어 올렸다. 발이 땅에서 떨어진 안타이오스는 제대로 힘도 쓰지 못한 채 죽을 수밖에 없었다.

이 신화는 수학자들에게 중요한 사실을 시사해 준다. 안타이오스가 ㉢대지에서 태어나 거기에서 힘을 얻었듯이, 영속적이고 중요한 모든 수학이 ㉣자연 세계로부터 탄생하고 그 속에서 성장해 왔음을 수학의 역사는 보여 준다. 안타이오스의 경우와 같이, 수학도 자연 세계와 접촉하고 있는 경우에만 강력한 힘을 발휘할 것이다. 만약 수학이 자신이 태어난 견고한 대지에서 공기가 희박한 ㉤높은 공중으로 올라가서 순수하게 형식적이고 추상적인 상태로 너무 오래 머무르면, 힘이 약화되는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따라서 새로운 힘을 보충하려면 때때로 자연 세계로 돌아와야만 한다.

수학은 본래 자연에 대한 관찰과 실생활의 경험을 통해 얻은 실용적인 사실들의 수집에서 출발했다. 그 후 고대 그리스 시대에 이르러 증명과 공리(公理)적 방법의 도입으로 확고한 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여기에서 증명은 다른 사람을 설득하기 위한 논리적 설명이고, 공리적 방법은 증대된 수학 지식의 체계적인 정리(整理)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증명이나 공리적 방법은 발견의 도구가 될 수는 없으며, 창의적 발상을 저해할 수도 있다. 그리스 시대 이후 오랫동안 정체의 늪에 빠져 있던 수학은, 저명한 수학자이며 과학자인 갈릴레오와 케플러의 놀라운 발견이 이루어진 후, 17세기에 새로운 힘을 얻게 되었다. 갈릴레오는 일련의 실험을 통해 지구 중력장 내의 물체 운동에 관한 기초적인 사실을 많이 발견했고, 케플러는 그 유명한 행성의 운동 법칙 세 가지 모두를 밝혀냈다. 이들의 업적은 수학 발전의 위대한 계기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들의 발견이 현대 동역학(動力學)과 현대 천체 역학으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변화와 ㉥운동을 다룰 수 있는 새로운 수학 도구를 필요로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미분 적분학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수학이 탄생했다. 옛 수학과 새로운 수학을 비교하면, 옛것은 고정되고 유한한 대상을 고려하며 정적인 반면에, 새것은 변화하고 무한한 대상을 연구하며 역동적이다. 이렇듯 수학은 자연에 발을 딛고 있을 때, 현대 동역학이나 현대 천체 역학과 같은 자연 과학의 발전에 공헌함은 물론 수학 자체의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어 낼 수 있었다.

61. ㉠~㉥ 중, 문맥적 의미가 다른 하나는?

- ① ㉠ ② ㉡ ③ ㉢ ④ ㉣ ⑤ ㉥

62. 윗글의 논지에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자연 과학은 수학적인 경우에만 진정한 과학이다. - 칸트 -
- ② 수학의 발전은 국가의 번영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 나폴레옹 -
- ③ 수학을 통해서만 참된 과학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다. - 콩트 -
- ④ 자연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는 수학적 발견을 위한 풍성한 공급원이다. - 푸리에 -
- ⑤ 수학은 모든 종류의 추상적 개념을 다루는 데 매우 적절한 도구이며, 이 영역에서 수학의 힘에는 한계가 없다. - 디랙 -

63. 윗글의 서두에서 신화를 제시하여 얻은 효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신화와 본문의 내용이 서로 대응되니까 이해하기가 쉬워졌다.
- ② 신화는 원래 비유적인 것이므로 본문도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구나.
- ③ 딱딱한 내용인데도 이야기로 시작해서 그런지 별로 부담스럽지 않게 느껴졌다.
- ④ 본문을 다 읽어 내려간 것은 신화를 활용해서 흥미를 불러 일으켰기 때문일 거야.
- ⑤ 신화가 내포하고 있는 교훈 때문인지 글쓴이의 주장이 더욱 절실하게 와 닿는 것 같아.

64. ‘옛 수학’과 ‘새로운 수학’의 특징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옛 수학	새로운 수학
①	정적	역동적
②	분석적	종합적
③	구체적	관념적
④	비조직적	조직적
⑤	과학에 종속	과학에서 독립

65. ㉥과 같은 뜻으로 ‘운동’이 쓰인 것은?

- ① 지구의 자전 운동
- ② 국회의원 선거 운동
- ③ 수영하기 전의 준비 운동
- ④ 맨손 체조의 팔다리 운동
- ⑤ 자연 보호를 위한 환경 운동

MEMO

MEMO

18. 윗글의 논리 전개 방식을 바르게 말한 것은?

- ① 연관된 개념들을 제시함으로써 통념을 비판하고 있다.
- ② 대조되는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결론에 도달하고 있다.
- ③ 인공물을 자연물과 비교함으로써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
- ④ 대상의 변화 과정을 시간적 순서에 따라 설명하고 있다.
- ⑤ 논리보다는 재치있는 수사법을 동원하여 설득력을 얻고 있다.

30. ㉠의 구체적인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대학생들이 과외 활동을 하기 위해 만든 모임을 한때는 '서클'이라고 불렀는데, 요즘은 이를 '동아리'라고 고쳐 부르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 ② 본래 포르투갈 말이었던 '빵'이라는 말이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굳어진 것처럼, 좋은 외래어가 우리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
- ③ '키'라는 말은 '자동차'나 '아파트'와 잘 어울리고, '열쇠'는 '장롱'이나 '공간'과 잘 어울리기 때문에 이들을 혼동해서 써서는 안 된다.
- ④ 사람이 영리한 것을 가리켜 '브라이트하다'고 하는데, 이런 생소한 외국어를 사용하지 말고 좀 더 친숙한 '샤프하다'는 말을 써야 한다.
- ⑤ '컬러'는 색, 색조, 색채, 개성 등 다양한 의미로 사용하는데, 이를 단일한 의미로만 사용해야 한다.

31.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말의 잡풀을 걸러 준다.
- ② 민족의 참된 삶과 정신을 반영한다.
- ③ 민족적 자각을 가질 때 기능을 발휘하게 된다.
- ④ 객관적 세계와 인식의 세계 사이에서 작용한다.
- ⑤ 말이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을 때 저절로 생겨난다.

32. ㉢과 바꾸어 쓸 수 없는 것은?

- ① 배면 ② 가늘면 ③ 밋밋하면
- ④ 촘촘하면 ⑤ 조밀(稠密)하면

33. 윗글에 대한 비판으로 가장 타당한 것은?

- ① 정보화가 급속도로 진전되면서 지구 저편의 사건을 한두 시간 안에 안방에서 볼 수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지만, 그럴수록 고유한 우리말을 간직하려는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
- ② 언어 정책 입안자들은 과거로부터 전해져 오는 언어 규범에 얽매이기보다는 대중의 언어에 관심을 가지고, 이를 조사, 수집하여 우리말이 살아 있는 언어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 ③ 오늘날의 우리말에서 외래적 요소들을 제거해 버린다면 이 시대의 정신적, 물질적 발전에 부응하는 표현들을 제대로 처리할 수 없게 될 것이므로 이들을 무조건 배척할 수만은 없을 것이다.
- ④ 언어는 사용하는 사람의 취향에 맞아야 하는 것이므로, 요즘 젊은이들의 입맛에 맞게 서구어를 적절하게 받아들여서 우리말이 더 고급스러운 언어가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⑤ 오늘날은 외국과의 문화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외국인들의 생활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라도 외국어를 우리말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34. 윗글을 바르게 이해한 독자의 반응으로 볼 수 없는 것은?

- ① “말이란 생활 속에서 익히는 것인데, 요즘처럼 너도 나도 아이들에게 일찍부터 외국어를 가르치는 것은 별 효과가 없을 거야.”
- ② “요즘 거리와 간판에서도 우리말을 찾아보기가 어려운데, 이렇게 나가다가는 우리의 민족 정기마저 사라지는 것이 아닐지 몰라.”
- ③ “배웠다는 사람들이 오히려 토씨 빼고는 거의 모두 외래어나 외국어로 된 말을 사용하는 일이 많다니 참으로 문제야.”
- ④ “프랑스 사람들은 국가 기관에서 외래어 심사를 할 정도로 자기네 말을 아낀다는데, 참으로 본받을 만해.”
- ⑤ “오늘날 우리에게도 우리말에 대한 애착과 자긍심을 갖고 정확하고 예절 바르게 말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봐.”

[39~4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1998.11

대저 왜노(倭奴)란 것은 섬 가운데 조그만 오랑캐로서 천지 간에 사특한 기운을 타고난 것들이로되, 오늘날 우리나라의 난신적자(亂臣賊子)와 부화뇌동하여 기어이 우리 중묘 사직을 ㉠ 전복(顛覆)하고, 우리의 산과 바다를 제 자원으로 만들며, 우리의 민생을 종으로 만들려 하는도다. 그러나 그것은 오히려 작은 일에 속하는 것이니, 심지어 남의 정신을 파괴하고 남의 정치와 법마저 변경하기를 감히 기도하는도다.

애굽(埃及)*이 인종을 멸망당한 것은 서방에 밝은 전감(前鑑)*이 있고, 유구(琉球)*가 일본의 고을이 되고 만 것은 동양에 얻어진 전철(前轍)이 있도다. 우리 백성은 오라로 묵이고 형틀에 매어서 노예의 처지를 면하기 어려울 것이며, 저들은 수레로 실어 가고 배로 운반하여 장차 동해같이 깊은 욕망을 채우리로다.

이제 우리는 죽을 때에 임하여 부르짖기보다는 시기를 타서 일제히 일어날 일이다. 아, 저들은 변경과 개혁을 마음대로 하고, 우리 임금을 폐하고 세움조차 저들 손에 달렸구나. 그대들 향교(鄕校)·목사(牧使)·수령(守令)들과 무릇 사·농·공·상으로서 진실로 한푼 반푼의 사람 마음이 있다면, 오백 년 중국(宗國)을 어찌 잊을 수 있으랴! 28대의 현성(賢聖)이 차례로 계승하였으며, 이 나라 비록 쇠하였다 하나 삼천리 산천이 달라지지 않았다. 대신(大臣) 직을 맡은 자는 적의 앞잡이 노릇 아니하는 자 없고, 상투 자르고 알곳은 말하는 놈은 모두 왜놈의 배짱을 가진 자들이다. 비록 천벌에는 오랫동안 빠졌으나, 어찌 잠깐인들 사람의 배임에서 벗어나랴!

우리들은 조상의 피를 받아 이 문명한 나라에 태어났으니, 차라리 바다에 빠져 죽을지언정 작은 조정에서는 살지 못하겠고 하늘처럼 이고 살기는 오직 태황제(太皇帝) 계신 줄만 아리로다. 의사(義士)를 불러 이끌고 영웅을 불러 일으켜, 피를 뿌리며 단(檀)에 올라 천지에 고하여 맹세하고 울면서 대궐을 바라보매, 기운은 바야흐로 바람과 구름처럼 설레이도다.

비록 무기가 정예하지 못하다 하나, 맹자의 말과 같이 덕이 있으면 몽둥이를 가지고도 진·초(秦楚)의 갑옷 입은 군사를 칠 수 있나니, 금성탕지(金城湯池)*를 잃었다 하지 말라. 못사람의 애국심이 성을 이룰 수 있으리라. 관동과 영남의 의병들이 이미 연락의 형세를 이루었고, 구미의 강국들이 이미 연맹해 줄 기미가 있도다. 주저하여 남에게 뒤지지 말고, 다행스러운 이때에 맞춰 힘을 다하자. 궁벽하고 먼 고을은 기회를 보아 토벌할 수 있으니, 큰 성과 도시에 힘을 합쳐 함께 멸할지라.

제각기 반드시 죽겠다는 뜻을 분발하여, 일에 뒤떨어진 죽음을 뉘우치지 말라! 조선에 살고 조선에 죽어 아버지와 스승의 교훈을 저버리지 말라. 적을 죽이거나 적에게 붙거나 결단코 조종(祖宗)의 정한 상과 벌을 따를 것이라. 격문이 도착되거든 ㉡ 풀이 바람을 따르듯 하라. 복심(腹心)을 헤쳐 널리 고하노라.

- 한말(韓末) 의병을 모집하는 격문(檄文) -

* 애굽(埃及): 이집트
 * 전감(前鑑): 거울로 삼을 만한 지난 일
 * 유구(琉球): 지금의 오키나와 일대에 있었던 나라
 * 금성탕지(金城湯池): 견고한 성

39.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왜노에 동조하는 무리가 있다.
- ② 주권과 국력이 매우 위축되었다.
- ③ 실제의 전투 역량은 아직 충분치 못하다.
- ④ 다른 지역의 의병들과 힘을 합칠 수 있다.
- ⑤ 작은 고을부터 탈환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40. 윗글에 나타난 글쓴이의 태도가 아닌 것은?

- ① 왕조 질서를 존중하고 있다.
- ② 정신 자세를 중시하고 있다.
- ③ 우리의 문화에 대해 자부하고 있다.
- ④ 임금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다.
- ⑤ 역사적 선례에 비추어 앞날을 우려하고 있다.

41. 글쓴이가 독자를 설득하는 방법이 아닌 것은?

- ① 영탄적 어법을 반복하여 호소력을 얻고 있다.
- ② 고사(故事)와 비유를 사용하여 효과를 높이고 있다.
- ③ 극한적 상황을 설정하여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 ④ 피아(彼我)를 확실히 구분하여 적개심을 고취하고 있다.
- ⑤ 새로운 가치관을 제시하여 인식의 전환을 유도하고 있다.

42. 글쓴이가 독자에게 기대하는 것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 ① 민족적 긍지
- ② 인류애적 사명감
- ③ 승리에 대한 확신
- ④ 좌절하지 않는 용기
- ⑤ 우리의 처지에 대한 자각

43. ㉠의 뜻은?

- ① 뒤집어 엎고
- ② 구렁에 빠뜨리고
- ③ 흔들어 놓고
- ④ 더럽히고
- ⑤ 업신여기고

44. 문맥상, ㉡의 뜻은?

- ① 유연하게 대응하라.
- ② 은밀히 일을 도모하라.
- ③ 일제히 떨쳐 일어나라.
- ④ 민심을 살피 행동하라.
- ⑤ 사태에 신중히 대처하라.

MEMO

MEMO

[50~5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998.11

정보화가 급속히 진전됨에 따라 현대 사회에서 정보가 차지하는 비중은 비약적으로 증대하고 있다. 정보 사회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대세(大勢)로서 우리의 생활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세계적으로 ㉠ 생산 체계, 일을 조직하는 방법, 소비의 유형 등이 달라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주요 산업의 위상도 바뀌고 있다. 또한 여가 및 취미 생활, 사회적 인간관계 등 사람들의 생활 양식뿐 아니라 사고방식, 가치관마저도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들은 우리 생활의 모든 영역에 걸쳐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18세기 산업 혁명과 ㉡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을 정도의 변화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우리 사회의 모습이 바뀌리라는 생각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지만, 그 변화의 결과가 어떠한 것이냐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기술(技術)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그 변화의 방향이나 성격이 각각 다르게 예측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보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은 기술 결정론과 사회 구조론으로 구별된다. 기술 결정론적 관점에서는 정보 기술이 발전되면 정보 경제라는 새로운 경제 부문이 급격하게 떠오르게 되고, 그에 따라 고용 구조라든가 정부나 기업이 조직되고 작동하는 방식에까지도 커다란 변화가 일어남으로써, 사회 구조의 모든 영역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본다. 즉, 정보 통신 기술은 변동의 기본 동인(動因)으로서 사회 변동에 자율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관점이다. 이러한 기술 결정론을 탈산업 사회론이라 부르기도 한다. 이 관점에 선 학자들은, 정보 사회라는 탈산업 사회는 '재화를 생산하는 경제'보다는 '서비스를 중심으로 하는 경제'라는 특징을 지니게 된다고 보면서, 정보 지식을 탈산업 사회의 핵심 자원으로 간주한다. 또한 이들은 '의회 민주주의보다는 참여 민주주의, 시민 운동에 의한 사회 변동, 물질주의적 가치의 퇴조' 등이 미래 정보 사회의 주요 특성이 될 것이라고 강조한다.

한편, 사회 구조론적 관점에서는 정보 기술을 독립 변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들은 정보 기술의 발전에 따라 정보화가 진전되는 일도 결국은 자본주의 체제 내부에서 일어나는 변화일 따름이라고 본다. 정보 기술의 비약적 발전을 인정하기는 하면서도, 그 발전이 독립 변수가 아니라 일종의 매개 변수라고 보는 것이다. 요컨대, 기술 그 자체는 중립적일 수도 있지만 기술을 이용하는 방식은 결코 중립적일 수 없다는 것이다. 즉, 누가, 무엇을 위해, 그리고 어떠한 방향으로 기술을 이용하느냐 하는 점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사회 구조론자들은, 정보 사회란 부가가치가 높은 정보 기술을 생산과 관리에 도입함으로써 자본을 더욱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축적하고, 정보와 관련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상품화함으로써 이윤의 원천을 다양화할 수 있는 사회라고 본다. 정보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한편에서는 제조업을 포함한 기존 산업을 정보화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정보 자체를 산업화하는 양면 전략, 즉 '산업을 정보화'와 '정보의 상품화'를 동시에 추구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이 바라보는 정보 사회의 미래는 탈산업 사회론자들의 예측과는 달리 장밋빛 신세계가 아니다. 즉, 향후의 정보 사회에서는 경제적

불평등과 정보 불평등이 확대되고, 실업이 늘어나게 되며, 직무의 탈숙련화로 말미암아 노동자의 힘이 약화되고, 대규모의 다국적 조직을 통하여 정부가 지배력을 강화하게 되는 등의 부정적 특징들이 나타나게 되리라고 본다.

이처럼 정보 사회에 대한 예측이 학자들 간에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그 전망이 꼭 밝은 것만도 아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보 사회를 전혀 새로운 사회로 규정하기도 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현재 사회의 연장으로 받아들이기도 한다. 우리는 정보 사회와 관련된 갖가지 전망을 통하여 실제로 변화하게 될 것은 어떤 것이고 변화하지 않을 것은 어떤 것인지를 잘 분간하는 한편, 긴 역사적 과정 속에서 정보 사회가 어떠한 자리를 차지할 것인지를 주제적 관점에서 정리하는 일이 필요하다. 아울러 정보화 및 정보 사회에 관련된 다양한 논의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한국 사회의 구체적인 조건들에 맞는 바람직한 정보 사회의 모형을 설계하는 일이 중요하다.

50. 윗글의 주제는?

- ① 정보 사회와 산업 사회의 관계
- ② 정보 사회와 통신 기술의 역할
- ③ 정보 사회에 대한 정책적 대안
- ④ 정보 기술의 도입에 따른 문제점
- ⑤ 정보 기술의 발전과 사회 변동의 방향

51.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기술 결정론자들은 정보 사회의 미래를 낙관하고 있다.
- ② 정보 사회의 가치관과 인간관계는 산업 사회의 그것과는 다르다.
- ③ 탈산업 사회론자들은 정보 지식을 정보 사회의 핵심 자원으로 본다.
- ④ 사회 구조론자들은 정보 사회를 자본주의 사회와는 전혀 다른 사회로 본다.
- ⑤ 사회 구조론자들은 정보 사회에서는 이윤 획득의 원천이 다양화된다고 본다.

52. ㉠의 여러 변화들에 대한 유형화가 가장 바르게 된 것은?

- ① 경제적 변화, 문화적 변화, 이념적 변화
- ② 생산적 변화, 소비적 변화, 행동적 변화
- ③ 국가적 변화, 사회적 변화, 개인적 변화
- ④ 정치적 변화, 개인적 변화, 관념적 변화
- ⑤ 산업적 변화, 관계적 변화, 도덕적 변화

53. ㉠과 뜻이 같은 말은?

- ① 비교(比較)할
- ② 대조(對照)할
- ③ 상대(相對)할
- ④ 대립(對立)할
- ⑤ 비견(比肩)할

54. 사회 구조론자의 관점에서 정보 사회의 변화를 예측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실업이 늘어날 것이다.
- ② 정부의 지배력이 약화될 것이다.
- ③ 노동자들의 힘이 위축될 것이다.
- ④ 정보를 독점하려는 경향이 나타날 것이다.
- ⑤ 사회적 불평등 상태가 개선되지 않을 것이다.

55. 밑글에서 제시하고 있는 과제는?

- ① 정보 사회로 변화하는 속도를 조절하는 일
- ② 경제적 평등과 정보 기술의 발전을 조화시키는 일
- ③ 우리 사회에 맞는 정보 사회의 모형을 설계하는 일
- ④ 정보 사회의 진전을 위해 시민 운동을 전개하는 일
- ⑤ 정보화를 통해 자본주의 사회의 한계를 극복하는 일

[56~6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1998.11

(가) 시간이란 무엇인가? ㉠ “아무도 묻지 않았을 때에는 시간이 무엇인지 알지만, 정작 시간을 설명하려고 하면 시간이 무엇인지 알 수 없게 된다.”라는 성 어거스틴의 말은 시간의 성격을 잘 지적하고 있다. 시간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기는 어렵지만, 분명한 것은 시간이 마치 화살과 같이 과거로부터 미래를 향하여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시간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근대에 들어와 비로소 과학적으로 연구되기 시작하였는데, 시간을 바라보는 관점은 크게 ‘우주론적 시간’과 ‘열역학적 시간’의 두 가지가 있다. 우주론적 시간이란 우주가 팽창(膨脹)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시간에 관련되는 개념이며, 열역학적(熱力學的) 시간이란 엔트로피, 즉 무질서의 정도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시간에 관련되는 개념이다.

(나) 우주론적 시간, 즉 우주에 적용될 수 있는 시간의 개념은 뉴턴 법칙과 아인슈타인의 상대성(相對性) 이론을 통하여 제시되었다. 뉴턴의 법칙에 따르면, 물체의 현재 상태, 즉 물체의 위치와 속도를 알게 되면 그것의 미래나 과거의 상태를 알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 법칙을 우주 전체에 적용하게 되면, 그 시간의 방향이 과거로 향하는 것인지 미래로 향하는 것인지 알 수 없게 되고만다. 바꿔 말하면, 시간이 역으로 흘러간다고 가정하더라도 물체의 운동은 뉴턴 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게 된다는 말이다. 이를 ㉡ 시간의 대칭성(對稱性)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우주 탐사선에서 행성 운동을 촬영한 필름은 앞뒤 어느 방향으로 돌리거나 뉴턴의 법칙에 잘 들어맞은 것이다. 따라서 뉴턴의 법칙만 가지고는 현재 우주가 팽창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우주론적 시간의 방향성을 제대로 설명할 수가 없게 된다. 그뿐 아니라 지금까지 우주의 팽창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하는 이론이라고 알려져 있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조차도 시간의 방향성에 대해서만은 제대로 설명을 못하고 있다.

(다) 한편, 열역학적 시간이란 열역학 제2법칙으로 설명되는 시간을 말한다. 열역학 제2법칙에 따르면 자연 현상은 에너지가 무산(霧散)되어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도자기가 바다에 떨어져 깨지는 것처럼, 또는 방 안에서 피어 오르던 연기가 서서히 흩어지다가 창문을 열면 밖으로 더욱 퍼져 나가는 것처럼, 자연은 최대 무질서 상태를 향해서 나아간다. 이러한 사례에서 관찰되는 시간은 돌이킬 수가 없으므로 비가역적(非可逆的) 시간이라고 말한다. 이런 자연 현상의 진행 방향이 곧 열역학적 시간의 방향이다. 이 법칙은 우리가 일상 세계에서 경험하는 시간의 방향성을 실제와 어긋나지 않게 설명해 준다.

(라) 이러한 열역학 제2법칙에는 문제가 있는 것처럼 생각될 때도 있다. 이 법칙은 생명체가 탄생하여 질서 있는 조직체로 진화되어 간다는 것, 즉 진화론과는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왜냐하면 진화론은 단순한 생명체가 좀 더 복잡한 생명체로 진화된다고 보는 것인데, 이는 질서의 정도가 오히려 증가(增加)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모순처럼 보이는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프리고진은 무질서로부터 질서가 나올 수도 있다는 점을 보임으로써 진화론과 열역학 제2법칙이 양립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즉, 자연에는 열평형 상태, 곧 최대 엔트로피 상태를 지향하는 과정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엔트로피 증가를 최소화하려는 비평형 현상도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전체적인 자연계는 열평형 상태를 향하여 진행되는 것이 틀림없지만, 특정한 시공간에서는 비평형 상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가령, 물에 잉크 방울을 떨어뜨리면 마지막 상태는 얼은 색 평형 상태가 되지만, 그 과정을 관찰하면 잉크가 퍼져 나가면서 만드는 무늬와 구조들을 볼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물 속에서 잠정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비평형 상태의 예이다. 진화론도 이와 같은 비평형 상태가 지속(持續)되는 과정에 해당하는 현상이라고 본다. 이렇게 설명하게 되면, 열역학 제2법칙은 진화론과 모순 없이 양립하면서 일상적인 시간의 방향성을 잘 설명해 줄 수 있다.

(마) 그런데 이 열역학 제2법칙을 우주 전체에 확대 적용해 보면 어떻게 될까? 결국 우주는 엔트로피가 낮은 상태에서 엔트로피가 높은 무질서한 상태로 진행되어 갈 것이다. 이러한 엔트로피 증가 과정이 무한히 지속된다면, 우주는 최대 엔트로피의 상태, 즉 사용 가능한 모든 에너지가 완전히 무산되어 더 이상 활동이 일어나지 않는 ‘열사(熱死)’라고 부르는 상태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이 열사의 상태가 시간의 최종 도착점인 셈이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우주의 팽창 과정에서 만유인력이 작용한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단지 가정에 불과할 뿐, 실제 우주의 시간을 정확하게 설명하지는 못한다.

(바) 이처럼 열역학 제2법칙도 일상적인 세계 안에서만 설명력을 가질 뿐, 우주 전체에 적용되는 시간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제대로 설명을 하지 못한다. 마찬가지로 앞에서 설명한 뉴턴 법칙이나 상대성 이론도 또한 우주론적 시간의 방향성을 설명하지 못한다. 시간의 방향성에 대한 진정한 설명에 이르기 위해서는 일상적인 시간의 방향성과 함께, 우주 전체에 적용되는 시간의 방향성을 동시에 설명할 수 있는 통일된 이론이 필요하다. 이러한 이론을 개발하는 것이 현대 과학이 안고 있는 큰 과제이다.

56. ㉠이 말하고 있는 시간의 특성은?

- ① 친숙성, 난해성
- ② 관념성, 실천성
- ③ 방향성, 대칭성
- ④ 종교성, 과학성
- ⑤ 특수성, 보편성

57. ㉠을 가장 잘 보여 주는 사례는?

- ① 행성의 운동
- ② 연기의 흩어짐
- ③ 생명체의 진화
- ④ 도자기가 떨어져서 깨짐
- ⑤ 물에 떨어진 잉크의 퍼짐

58. (다)의 중심 화제는?

- ① 에너지와 엔트로피의 관계
- ② 열역학 제2법칙의 예외 사례
- ③ 시간의 대칭성과 시간의 방향성
- ④ 열역학 제2법칙과 열역학적 시간
- ⑤ 상대성 이론과 열역학 제2법칙 간의 모순

59. (라)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생명체가 진화되는 것은 질서의 정도가 높아지는 것이다.
- ② 자연에는 열평형 상태와 비평형 상태가 공존할 수 없다.
- ③ 물과 잉크를 섞으면 마지막 상태는 평형 상태가 된다.
- ④ 생명체의 진화는 비평형 상태가 지속되는 과정이다.
- ⑤ 열역학 제2법칙은 진화론과 모순되지 않는다.

60. (마)에서 ‘우주의 열사(熱死)’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 ① 엔트로피가 최대인 상태이다.
- ② 에너지가 완전히 무산된 상태이다.
- ③ 온도와 밀도가 극대화된 상태이다.
- ④ 만유인력을 고려하지 않은 가정이다.
- ⑤ 더 이상 아무런 활동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이다.

61. 다음 중, 반의(反義) 관계가 아닌 것은?

- ① 팽창(膨脹) : 수축(收縮)
- ② 상대성(相對性) : 절대성(絕對性)
- ③ 무산(霧散) : 평형(平衡)
- ④ 증가(增價) : 감소(減少)
- ⑤ 지속(持續) : 단절(斷絶)

[24~2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997.11

한국인의 전통적 명분관은 기본적으로 신분 질서나 상하 의식에 따라 각각의 분수를 지키도록 규정하여 사회적 역할을 제한하는 계층적 명분론의 성격을 지니며, 동시에 개인이나 사회가 당면하는 문제에 대응하는 판단이나 행위에 대하여 그 정당성을 부여하는 도덕적 명분론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계층적 명분관은 사회 내에 엄격한 계층 구조를 형성함으로써, 안정된 사회의 질서를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기능을 하였다. 가령, 부모와 자녀, 부부, 형제, 고부(姑婦)등 가족 구성원 사이에서 나타나는 계층적 성격에 따라 각자에게

[A] 명분을 부여함으로써 가족적인 질서를 지탱해 주었던 것이 그 예이다. 이러한 명분관에 따라 부모의 도리나 자식의 도리 또는 임금의 도리나 신하의 도리 등, 각자 지켜야 할 도리가 명분으로 주어지게 되면, 이 명분은 위아래의 어느 쪽에 대해서도 지켜야 할 규범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 경우 명분이 계층적이라 하여, 이것이 위사람에게는 관대하고 아랫사람에게는 억압적이었던 것은 아니다. ㉠우리는 어떤 공동체 안에서 흔히 일어나는 억압적인 현상은 힘있는 강자가 명분을 경시하거나 무시하는 데서 기인하는 것으로 볼 필요가 있다. 크게 보아 전통 사회에서는 오히려 위아래의 구성원이 각각 그 역할에 따라 명분의 제약을 받음으로써 공동체의 질서와 결속을 확보해 왔던 것이다. 그러나 실제 전통 사회에서는 신분에 따른 구속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인간의 자연적 욕구를 명분을 앞세워 억제한 측면도 없지 않았다. 또한 명분론은 기존의 안정적인 질서를 깨뜨리고 역동적인 변화를 추구하고자 하는 인간의 진보적 요구를 억누르는 보수적 성격도 띠고 있었다. 이 같은 계층적 명분관은 근대로 내려오면서 신분 제도가 동요하고 붕괴함에 따라 점차 타당성을 잃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 자신의 분수를 지키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면서, 도전과 모험의 진취적 태도를 부정하는 의식의 흔적이 도처에 남아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에 비해 도덕적 명분관은 인간의 모든 행위에 대해 인간의 본성에 근거하는 도덕적 정당성의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개인의 정의감이나 용기를 뒷받침한다. 즉, 불의에 대한 비판 의식이라든가 타협을 거부하는 선비의 강직한 정신 같은 것이 바로 그것인데, 이는 우리 사회를 도덕적으로 건전하게 이끌어 오는데 기여하였던 것이다. 또한 사회적 행위에 적용되는 도덕적 명분은 공동체의 정당성을 확고하게 하여 사회를 통합하는데 기여해 왔다. 그러나 자신의 정당성에 대한 신념이 지나친 나머지, 경직된 비판 의식을 발휘하게 되면 사회적 긴장과 분열을 초래할 수도 있다. 예컨대 조선 후기의 당쟁(黨爭)은 경직된 명분론의 대립으로 말미암아 심화된 측면이 있는 것이다.

또한 같은 시기에 도덕적 명분론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명분의 형식화와 ㉢ 체면치레가 성행하게 되면서 실용적인 측면이 소홀히 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특히, 성리학적 의리에 집착한 사대부들 사이에서는 현실과 동떨어진 논의가 만연되었던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는 ㉣ 실용적 관점에서 의리론적 명분론의 허구성을 비판한 견해를 당시 실학자들의 저술 가운데서 발견하기가 어렵지 않다.

현대의 우리 사회는 구성원 사이의 평등을 기본 원리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전통적인 계층적 명분관은 설득력을 잃어 가고 있다. 그러나 평등 사회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행동이나 역할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명분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요컨대 우리는 오늘의 시민 사회에 어울리는 새로운 명분을 찾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이다. 경제 정의의 실천이나 민족 통일 등 우리가 당면해 있는 이 시대의 구체적 과제가 현실적 조건에 따라 특수한 명분을 제시하여 우리를 제약할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24. 밑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 ① 도덕적 명분관은 현대 사회에서 설 땅을 잃었다.
- ② 계층적 명분관은 개인의 정의감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 ③ 우리나라 역사는 명분론적 세계관을 극복해 온 과정이었다.
- ④ 명분론의 변화와 현실 인식의 변화는 긴밀한 관련을 맺고 있다.
- ⑤ 계층적 명분관과 도덕적 명분관은 서로 상충하는 측면을 가진다.

25. [A]에서 제시한 계층적 명분관이 적용된 주장으로 볼 수 없는 것은?

- ① 오직 그 출생 계보만을 따져 백대까지도 노비로 만든다면 설령 훌륭한 인재가 노비 사이에 태어난다 해도 역시 남의 노비가 되고 마니, 이것이 어찌 도리어겠는가.
- ② 하늘로 말하자면 양은 강직하고 음은 유약하며 사람으로 말하자면 남자는 높고 여자는 낮거늘, 어찌 여자로 하여금 규방에서 나와 나라 일을 재단케 하겠는가.
- ③ 군주에게 예를 지키는 이를 보거든 마치 효자가 자기 부모를 모시듯 섬기고, 군주에게 무례한 이를 보거든 사나운 매가 새를 쫓는 것처럼 내쳐야 한다.
- ④ 좋은 약은 입에 쓰나 병에는 이로운 것이니, 옛날의 밝은 임금은 자기를 비우고 신하에게, 정사(政事)를 물었으며 안색을 부드럽게 하여 충고를 받아들였던 것이다.
- ⑤ 효자가 부모를 섬기는 것은 마땅히 곁에 떠나지 않고 효도를 다해야 하는 것이며 부모가 아들을 사랑하는 것은 바른길을 가르치어 나쁜 데로 들지 않게 해야 하는 것이다.

26. ㉠이 의미하는 바와 거리가 먼 것은?

- ① 힘 있는 강자도 명분의 제약을 받아야 한다.
- ② 억압적인 현상은 일상의 현실에서 드물지 않다.
- ③ 명분을 지키기 위해서는 개인이 희생될 수도 있다.
- ④ 공동체의 조화를 위해서는 명분이 존중되어야 한다.
- ⑤ 강자의 억압적인 행위는 명분을 짓밟는 경우가 많다.

27. ㉠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것은?

- ① 제 버릇 개 줄까.
- ② 핑계 없는 무덤 없다.
- ③ 송충이가 갈잎을 먹으면 죽는다.
- ④ 양반은 얼어 죽어도 것붙은 안 찢다.
- 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28. ㉡과 뜻이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가식(假飾) ② 면목(面目) ③ 위선(僞善)
- ④ 체통(體統) ⑤ 허식(虛飾)

29. ㉢의 예로서 가장 적합한 것은?

- ① 명나라를 위하여 복수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자기의 머리털 하나를 아끼고, 장차 말타고 달리면서 칼로 치고 활을 쏘며 싸움할 생각이면서 자기의 넓은 옷소매는 고치지 않는다.
- ② 하늘이 사람을 낸 것은 편히 앉아 놓고 먹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니 곡식과 누에는 초목이나 곤충과는 달리 밭을 갈고 먹이를 주어야만 열매를 맺고 고치를 만드는 것이다.
- ③ 수령이 곡물을 장사하고 세금을 도적질하며 자기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을 용서해 줄 뿐 아니라 그에게 가장 우수한 성적을 매겨서 임금을 속이니 이야말로 큰 도적이다.
- ④ 부모의 병환에 약을 달여 드리는 것은 효도이나 자기 살을 베어 먹여 몸을 상하는 것은 그릇된 것이니, 만약 이것이 의리를 해치지 않는 것이라면 성현들께서 먼저 행하였을 것이다.
- ⑤ 힘으로 다스릴 때는 비록 억만의 백성이 있을지라도 제각각의 생각을 갖지만 도덕으로 교화할 때는 열 사람의 정성이나마 생각이 같을지니, 보국 안민의 계책에 무슨 어려움이 있겠는가.

[30~3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997.11

(가)

생명의 진화 과정에서 중요한 사건 중의 하나는 생물이 바다에서 나와 육상으로 진출한 것이다. 그러나 최초로 육상에 진출한 생물은 중력이라는 한계에 직면하게 되었다. 물 속에서는 부력 때문에 덜했지만, 지상에서는 중력 때문에 무거운 몸을 움직이기 힘들었던 것이다. 이때부터 육상동물은 ㉠ 중력과의 투쟁을 시작했다. 육상 동물은 다리가 어정쩡한 상태로 기어다니던 양서류에서 완전히 수상 생활과 결별한 파충류를 거쳐 좀 더 긴 다리와 튼튼한 근육을 가진 포유류로 진화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지면에서 점차 몸통을 높이 일으킬 수 있게 된 것이다. 한편, 조류는 몸의 무게를 줄이고 모양을 유선형으로 만들어 하늘을 날 수 있게 되었다. 인간은 또 다른 방식으로 중력에 저항한 경우에 속한다. 인간은 두 발로 서게 됨에 따라 다른 포유류보다 지표면에서 멀리 몸통을 일으켜 세울 수 있었고, 더불어 두 손의 자유를 얻게 된 것이다.

스포츠와 ㉡ 춤이 추구하는 목표도 동일한 테두리 안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빨리뛰기, 멀리뛰기, 높이뛰기 등의 모든 육상 경기는 중력의 한계에 대한 도전에서 비롯된다. 중력의 한계에 도전하는 운동 경기는 포환이나 창을 던지는 행위, 역기를 드는 행위처럼, 대상물의 중력을 도전의 수단으로 삼은 경우에만까지 진전된다. 춤의 경우는 또 어떠한가. 중력의 한계에서 자유롭고자 하는 ㉢ 인간의 꿈이 반영된 대부분의 춤은 신체의 무거움을 극복하여 가벼워진 상태를 지향한다. 춤에서는 중력의 한계를 극복한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는데, 예를 들어 발레에서는 빠르고 가볍게 움직이는 동작을 통해 새의 모습을 표현한다.

(나)

우리는 모두 인습적인 형태와 색채만이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대체로 어린이들은 별이 모두 별표 모양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별을 관찰해 본 사람은 다양한 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그림 속의 하늘은 푸른색이어야 하고 풀은 초록색이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어린이들과 별로 다를 바가 없다. 그들은 그림에서 그들에게 ㉣ 익숙한 물상이 낯선 형태와 색채로 표현되어 있는 것을 모두 버리고, 우주 탐험 여행차 지구에 갓 도착하여 지구상의 사물을 처음 대하는 우주인의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는 사물들이 엄청나게 놀라운 또 다른 형상과 색채들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될 것이다. 화가들은 그러한 우주 탐험 여행을 하고 있는 사람에 비유 될 수 있다. 그들은 세계를 새롭게 보기를 원하고 있으며, 사람의 피부는 분홍색이고 사과는 둥글다는 기존의 관념과 편견을 버리려고 노력하고 있다.

미술 작품을 감상할 때 ㉤ 개인적인 선입견을 고집하는 것보다 더 큰 장애는 없다. 친숙하게 알고 있는 주제를 전혀 예기치 못한 ㉥ 일탈적인 방법으로 표현한 그림을 대했을 때 사람들은 흔히 그 그림이 정확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비난하곤 한다. 성격의 내용을 그린 그림의 경우에서도 이런 비난의 예를

찾아 볼 수 있다. ㉦ 우리에게 낯익은 그리스도 상이 과거의 미술가들이 가지고 있던 신에 대한 형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이러한 전통적인 형태에서 벗어난 것은 신에 대한 불경(不敬)이라고 생각한다.

30.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 ① 예술은 윤리적 가치보다 미적 가치를 추구해야 한다.
- ② 춤에는 사회적 제약이, 미술에는 물리적 제약이 작용한다.
- ③ 생명의 진화와 예술의 발달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 ④ 여러 예술 영역은 각기 고유한 미적, 정서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 ⑤ 창조적 예술 행위에는 유형, 무형의 굴레로부터 벗어나려는 욕구가 담겨 있다.

31. (가)에서 유추할 수 없는 것은?

- ① 연극 배우의 동작에는 언어 표현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의지가 담겨 있다.
- ② 교통 수단의 발달은 빠르고 자유로운 공간 이동을 추구해 온 노력의 결과이다.
- ③ 행글라이딩이라는 스포츠에는 하늘을 날고자 하는 인간의 꿈이 반영되어 있다.
- ④ 관중들이 흥분을 기대하는 것은 자유로워지려는 자신의 욕망을 야구공에 전이시킨 것이다.
- ⑤ 그네타기와 널뛰기는 지상의 속박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욕망의 표현이다.

32. ㉦을 뜻하는 말은?

- ① 독단(獨斷) ② 아집(我執) ③ 애착(愛着)
- ④ 자만(自慢) ⑤ 집착(執着)

33. ㉣에서 비판하고 있는 것은?

- ① 관습으로 굳어진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인습적 사고
- ② 예술 작품을 자기 식으로만 보려고 하는 자아도취적 사고
- ③ 자기 본위적인 기준에서 벗어난 것을 용납할 줄 모르는 편협한 사고
- ④ 상상된 형상과 실재하는 형상을 구별하지 못하는 무비판적 사고
- ⑤ 자신의 종교적 신앙에 배치되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배타적 사고

34. ㉠~㉥ 중, 의미하는 바가 다른 하나는?

- ① a ② b ③ c ④ d ⑤ e

MEMO

MEMO

[40~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1997.11

(가) 사람들은 좋은 그림을 보거나 음악을 들으면 쉽게 감동을 느끼지만 과학 이론을 대하면 복잡한 논리와 딱딱한 언어 때문에 매우 어렵다고 느낀다. 그래서 흔히 과학자는 논리적 분석과 실험을 통해서 객관적 진리를 규명하고자 노력하고, 예술가는 직관적 영감에 의존해서 주관적인 미적 가치를 추구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통념이 아주 틀린 것은 아니지만, 돌이켜 보면 많은 과학상의 발견들은 직관적 영감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었던 것들이었다.

(나) 아인슈타인은 누구에게나 절대적 진리로 간주되었던 시간과 공간의 불변성을 뒤엎고, 상대성 이론을 통해 시간과 공간도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정형화된 사고의 틀을 깨는 이러한 발상의 전환은 직관적 영감에서 나온 것으로, 과학의 발견에서 직관적 영감이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 잘 보여 준다. 그 밖에도 뉴턴은 떨어지는 사과에서 만유인력을 발견하였고 갈릴레이는 피사의 대사원에서 기도하던 중 천장에서 흔들리는 램프를 보고 진자(振子)의 원리를 발견하였다. 그리고 아르키메데스는 목욕탕 안에서 물체의 부피를 측정하는 원리를 발견하고 “유레카! 유레카!”를 외치며 집으로 달려갔던 것이다. 이렇게 볼 때 과학의 발견이 ‘1%의 영감과 99%의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말은 ㉗

(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영감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사람들은 대체로 과학자들이 논리적 분석과 추리를 통해서 새로운 발견을 하게 된다고 소박하게 믿고 있지만, 상당 부분 그 발견의 밑거름은 직관적 영감이고, 그것은 흔히 ㉘ 언어가 끝나는 곳에서 나온다. 대부분의 위대한 과학자들은 예술가와 마찬가지로 발견의 결정적인 순간에는 논리가 아니라 의식의 심연으로부터 솟아나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미적 감각에 이끌린다고 고백한다. 문제와 오랜 씨름을 한 끝에 마음의 긴장과 갈등이 절정에 다다른 순간, 새로운 비전이 환상처럼 나타난다는 것이다. 과학의 발견은 이러한 영감을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언어로 기술하여 체계화한 것이다.

(라) 한편, 화가나 조각가, 그리고 건축가들도 때로 완벽한 조화와 균형을 창조하기 위해서 사물을 분석하고 해부한다. 그리스 시대의 황금 분할은 최대의 미적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수학적 비례의 법칙을 ㉙ 치밀(緻密)하게 분석한 것이고, 아름다운 음악도 ㉚ 엄밀(嚴密)하게 계산된 소리의 배열과 공명 현상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예술가들의 분석적 시각은 “자연의 모든 형상은 구, 원통, 원추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세잔의 말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드러난다. 그런가 하면 울려 퍼지는 종소리에서 동심원을 그리며 퍼져나가는 물결을 연상했던 시인은 소리에 대한 ㉛ 과학적 지식을 지적 상상력 속에 융해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과학자들은 자신들의 이론을 구축하는 데 직관적 영감에 의존하는가 하면 예술가들은 과학적 지식과 관점을 도입하여 예술품을 창작해 내기도 한다.

(마) 이러한 과학과 예술의 창조적 행위는 모두 인간의 본능인 탐구 욕구에서 출발한다. 탐구 욕구는 과학자와 예술가를 미지의 세계로 인도하여 새로운 상상을 자극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한다. 물론 과학이 목표로 하는 것은 자연의 법칙을 이해하고 자연의 신비를 벗기는 것이지만, 그 동기는 예술에서와 마찬가지로 자연에 대한 외경(畏敬)과 경이(驚異)의 감정이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우주의 신비에 경이를 느낄 수 없는 사람, 감동하지 않는 사람, 명상에 잠길 수 없는 사람은 죽은 자와 마찬가지로 말했던 것이다. 이렇게 보면 과학과 예술은 본질적으로 구별되는 상이한 정신 활동이라고 할 수 없다. 마치 무지개 색깔이 서로 겹쳐 들어가면서 연속되는 것과 같이 어느 지점에 이르면 과학과 예술은 중첩되어서 분명하게 구별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40. 밑줄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직관적 영감이 과학의 발견에 밑거름이 된다.
- ② 예술 작품에도 과학적 지식이 반영될 수 있다.
- ③ 과학은 객관적 진리를, 예술은 아름다움을 추구한다.
- ④ 과학과 예술의 창조적 행위는 탐구 욕구에서 출발한다.
- ⑤ 과학과 예술이 중첩되는 부분에 진정한 진리가 존재한다.

41. 각 문단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 일반적 통념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 ② (나): 논지를 뒷받침하기 위해 사례들을 제시하고 있다.
- ③ (다): 과학자의 경험을 기술하면서 논지를 강화하고 있다.
- ④ (라): 반대 사례들을 제시하면서 논지를 전환하고 있다.
- ⑤ (마): 논지를 보강하면서 결론을 내리고 있다.

42. ㉗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과학자들의 천재성을 보여 주기에는 충분하지 못하다.
- ② 영감과 노력의 상호 작용을 나타내기에는 미흡하다.
- ③ 창조 과정에 있어서 과학과 예술의 유사성을 시사한다.
- ④ 과학의 발견에서 직관적 영감의 역할을 과소 평가한 것이다.
- ⑤ 과학적 발견의 어려움을 잘 표현하고 있다.

43. ㉘이 뜻하는 것은?

- ① 영감이 한 단계 비약되는 곳
- ② 직관적 영감이 체계화되는 곳
- ③ 논리적 분석이 적용될 수 없는 곳
- ④ 마음의 긴장과 갈등이 해소되는 곳
- ⑤ 과학적 발견이 더 이상 불가능한 곳

44. ㉠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은?

- ① 풀이 눕는다./바람보다도 더 빨리 눕는다./바람보다도 더 빨리 울고 / 바람보다도 먼저 일어난다.
- ② 순이(順伊) 벌레 우는 고풍(古風)한 뜰에/달빛이 밀물처럼 밀려 왔구나.//달은 나의 뜰에 고요히 앉아 있다./달은 과일보다 향그럽다.
- ③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별을 돌아보고/늦은 밤의 창문을 나는 단는다./어디선가 지구의 저쪽편에서/말 없이 문을 여는 사람이 있다.
- ④ 꿈을 아느냐 네게 물으면,/플라타너스,/너의 머리는 어느덧 파아란 하늘엔 젖어 있다.
- 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노을빛 함께 단 돌이서/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45. ㉠:㉡의 의미 관계와 같지 않은 것은?

- ① 인격(人格):인품(人品) ② 모순(矛盾):당착(撞着)
- ③ 납득(納得):수긍(首肯) ④ 오만(傲慢):거만(倨慢)
- ⑤ 분석(分析):분류(分類)

[46~5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1997.11

(가) 사회 복지는 “누구든지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훼손당하지 않으면서 인간답게 살 수 있어야 한다”라는 이념을 전제로 한다. 사회 복지 실천을 위한 방법론은 바로 이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서 발달하였다. 사회 복지 방법론은 고통을 받고 있는 ㉠ 사람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데 필요한 전문 지식과 기술로 구성되는데, 이는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개인에 초점을 맞추고 문제를 개별화하여 그 해결 방안을 찾는 미시적 방법론이고 다른 하나는 문제를 집합적으로 보면서 전체적인 사회 차원에서 그 해결 대책을 강구하는 거시적 방법론이다. 사회 복지 전문가들은 이러한 방법론에 따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로부터 문제를 찾아내어 그 원인을 진단해 냄으로써 ㉡ 그들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도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정부 정책이나 제도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문제의 해결에 도움을 주기도 한다.

(나) 이러한 두 가지 방법론은 사회 체제와의 관계에서도 차이가 있다. 미시적 방법론을 활용하는 사회 복지 전문가들은 사회 체제 자체에 별 관심을 보이지 않고, 따라서 사회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데에도 그다지 관여하려 하지 않는다. 이들은 단지 사회 체제 안에서 개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들 곧 ㉢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임상(臨床)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데 관심을 기울인다.

반면에 거시적 방법론을 주장하는 전문가들은 개인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의 정책이나 사회 체제 자체를 매우 중요시한다. 왜냐하면, 정부의 정책을 변화시키거나 사회 체제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그것이 궁극적으로 ㉣ 개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은 사회의 발전 과정에서 나타나는 사회 세력들 간의 역동적인 측면에 관심을 보이며, 정부의 정책 과정 및 그것을 둘러싼 정책 환경에 관련된 지식들을 바탕으로 사회 복지 방법론의 지식과 기술을 발전시키고자 한다.

(다) 역사적으로 볼 때, 사회 복지 방법론은 미시적 방법론을 중심으로 발전하였다. 현재의 사회 복지 방법론을 구성하고 있는 내용 중 대부분은 사회학, 심리학, 사회심리학, 정신의학, 집단역학(集團力學) 등 인접 학문으로부터 빌려 온 많은 지식들을 바탕으로 ㉤ 사람들을 돕는 데 필요한 실천 지향적인 전문 지식과 기술로 이룩된 것들이다. 그 결과 사회 복지 방법론은 개별적인 차원에서 문제들을 다루거나, 복지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데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갖추는 데에는 일단 성공을 하였다. 그러나 도움을 받는 사람과 사회 체제의 관계, 사회적 약자의 욕구가 정책에 반영되는 과정, 그리고 사회 체제에 내재해 있는 편향성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

(라) 이처럼 한쪽으로 치우쳐 발전된 사회 복지 방법론은 단지 사회 복지 서비스를 전달하는 일 자체에만 관심을 집중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의 유지 및 보존’이라는 사회 복지 본래의 목표 달성을 어렵게 만들었다. 왜냐하면, 기형적

으로 발전된 이러한 사회 복지 방법론만 가지고서는 사회 복지를 실천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기 어렵고, 창조적 대안을 제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마) 우리는 사회 복지 방법론의 발전 과정을 고찰함으로써 미시적인 사회 복지 방법론의 발전 과정을 고찰함으로써 미시적인 사회 복지 방법론만으로는 사회 복지의 이념을 달성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미시적 방법론과 거시적 방법론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사회 복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임상적 지식이 필요한 것은 물론, 사회 정책을 입안하거나 개선하기 위한 활동도 역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결국 미시적 방법론과 거시적 방법론을 양측으로 하는 사회 복지 방법론을 발전시키는 것만이 사회 복지의 이념을 효과적으로 앞당겨 달성할 수 있게 해 줄 것이다.

46. 각 문단의 중심 내용과 거리가 먼 것은?

- ① (가): 사회 복지 방법론의 개념과 유형
- ② (나): 미시적 방법론과 거시적 방법론 차이점
- ③ (다): 사회 복지 방법론과 인접 학문의 관계
- ④ (라): 사회 복지 방법론의 현재 상황
- ⑤ (마): 사회 복지 방법론의 바람직한 방향

47. 앞글에서 ‘미시적 방법론’과 ‘거시적 방법론’이 주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사항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미시적 방법론	거시적 방법론
①	과정	제도
②	기술	지식
③	이념	실천
④	입상	정책
⑤	입안	집행

48. ㉠~㉤ 중, 지시하는 대상이 다른 하나는?

- ① ㉠ ② ㉡ ③ ㉢ ④ ㉣ ⑤ ㉤

49. [A]의 구체적인 사례로 볼 수 없는 것은?

- ① 사회 복지 기관에서 상담하는 것
- ② 사회 복지에 관한 여론을 형성하는 것
- ③ 사회 정책의 결정 과정을 감시하는 것
- ④ 사회 문제 해결을 국회에 청원하는 것
- ⑤ 사회 복지를 위해 시민 운동을 벌이는 것

50. 밑줄에서 이끌어 낼 수 없는 주장은?

- ① 미시적 방법론과 거시적 방법론의 균형적 발전이 필요하다.
- ② 사회 복지 전문가는 정책 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해야 한다.
- ③ 사회 복지 방법론의 발전을 위해서는 학문 간의 교류가 필요하다.
- ④ 사회 체제의 개혁을 통해서 사회 복지의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
- ⑤ 사회 복지 실현을 위하여 거시적 방법론을 더욱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56~6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1997.11

일찍이 주시경 선생은 말과 글을 정리하는 일은 집안을 청소하는 일과 같다고 말씀하셨다. 집안이 정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 정신마저 혼몽해지는 일이 있듯이 우리말을 갈고 닦지 않으면 국민정신이 헤이해지고 나라의 힘이 약해진다고 보았던 것이다. 이러한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일제가 통치하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 선학(先學)들은 우리말과 글을 지키고 가꾸는 일에 혼신의 정열을 기울일 수 있었던 것이다. 나는 얼마 전 어느 국어학자가 정년을 맞이하면서 자신과 제자들의 글을 모아서 엮어 낸 수상집의 차례를 보고 우리말을 가꾸는 길이란 결코 먼 데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깊이 깨달은 일이 있다. ㉠ 차례를 ‘첫째 마당, 둘째 마당’과 같은 이름을 사용하여 꾸며뒀던 것이다. 일상생활에서 흔히 쓰는 ‘평평하게 담아 놓은 넓은 땅’을 뜻하는 ‘마당’에다 책의 내용을 가른다는 새로운 뜻을 준 것이다.

새로운 낱말을 만들 때에는 몇몇 선학들이 시도했듯이 ‘매가름, 목’처럼 일상어와 인연을 맺기가 어려운 것을 쓰거나, ‘엮, 묶’과 같이 낱말의 한 부분을 따오는 방식보다는 역시 일상적으로 쓰는 말에 새로운 개념을 붙여넣은 방식을 취하는 것이 언어 대중의 기호를 충족시킬 수 있겠다고 생각된다. 내가 어렸을 때, 우리 고장에서는 시멘트를 ‘돌가루’라고 불렀다. 이런 말들은 자연적으로 생겨 난 훌륭한 우리 고유어인데도 불구하고, 사전에도 실리지 않고 그냥 폐어가 되어 버렸다. 지금은 고향에 가도 이런 말을 들을 수 없으니 안타깝기 그지없다. 얼마 전, 고속도로의 옆길을 가리키는 말을 종전대로 써오던 용어인 ‘노견(路肩)’에서 ‘갓길’로 바꾸었다는 보도를 듣고, 우리의 언어 생활도 이제 바른 방향을 잡아가고 있구나 하고 생각했던 적이 있다.

우리말을 사랑하고 발전시키는 문제와 관련하여 지금까지는 우리말을 살려 쓰는 문제를 주로 이야기했지만, 한자어 문제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 한자어를 무조건 외래어로 보아 이를 배척하는 것이 국어를 갈고 다듬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지만, 그런 일은 우선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하다. 한자어 가운데 오랜 세월 동안 사용되어 오면서 우리말의 어휘 체계 속에 깊숙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미 외래어로 보기가 어렵게 된 말들이 많다. 이를 하루 아침에 사용하지 말자고 한다면, 우리가 가진 어휘의 양은 갑자기 절반 이하로 줄어들게 될 것이다.

우리말에서 고유어와 한자어는 각각 독특한 기능을 지니고 있다.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상황에 따라 한자어보다 고유어를 사용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고 이해가 쉬운 경우도 많다. 예를 들어 지하철에서 흔히 보는 “차례차례 승차합니다”는 “차례차례 탑시다”로 바꾸어 적는 것이 훨씬 이해가 빠르고 음절이 줄어 드니 그만큼 경제적이다. 이처럼 같은 개념을 나타내는 말로서 한자어와 고유어가 공존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유어를 선택하여 쓰는 것이 좋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감한다. 이를테면 ‘조류(鳥類)’와 ‘날짐승’의 경우, 그 뜻이 같다고 한다면 후자를 택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조류’를 완전히

버릴 수 있느냐 하면 반드시 그럴 수만은 없다는 점에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우리말에는 ‘이-치아(齒牙)’의 경우처럼 한자어가 존재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는 관습이 있다. 현재로서는 이 같은 한자어들을 무조건 사용하지 말자고 할 수는 없다. 만약, 나이 드신 분께 ㉡ “어르신 이는 아직 튼튼하시지요?”처럼 말을 한다면, 교양이 부족한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 어쩔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이다.

고유어가 일상용어로 사용될 때에는 큰 불편이 없지만, 전문 영역에서 사용될 때에는 정확하고 구체적인 의미를 나타내는데 부족한 면이 있기 때문에 한자어들을 무조건 버리기가 어려운 경우도 많다. 일상생활에서는 순우리말인 ‘값, 글, 옷, 생각’만을 사용하더라도 별다른 지장이 없다. 그렇지만 ㉢ 이들에게는 저마다 독특한 용법을 지니는 한자어들이 대응하고 있어, 한자어들은 고유어보다 의미가 더 구체적이면서 분화된 의미를 나타낸다. 따라서, 이러한 한자어들을 단지 한자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배척하는 일은 현실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하다. 어떤 사람이 읽을 글인가에 따라 어휘 선택의 폭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일반 대중들이 모두 보아야 하는 글에서는 쉬운 우리말을 써도 가능할 것이고, 정확한 표현이 필요한 글에서는 한자어라고 하더라도 바르게 구사할 줄 아는 것이 우리말을 풍부하게 가꾸는 길일 것이다.

56.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 ① 한자어는 외래어이므로 고유어로 바꾸어야 한다.
- ② 고유어와 한자어를 조화롭게 사용해야 한다.
- ③ 국력이 약해지면 국민 정신이 헤이해진다.
- ④ 새로운 낱말은 고유어로 만들어야 한다.
- ⑤ 사라진 고유어를 발굴해서 써야 한다.

57. ㉠에서 ‘마당’의 의미가 변한 것과 같은 경우를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보 기>—

ㄱ. ‘코는, “코가 흐른다.”에서 볼 수 있듯이 ‘콧물’의 뜻도 가지고 있다.

ㄴ. ‘가르치다’는 옛말에서 ‘가르치다(敎)’와 가리키다(堵)’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으나 지금은 ‘가르치다(敎)’의 뜻으로 사용된다.

ㄷ. ‘암산왕(暗算王)’, ‘광산왕(鑛山王)’에서의 ‘왕’은 제1인자를 뜻하고, ‘왕방울’, ‘왕거미’에서는 ‘크다’는 의미를 지니게 된다.

- ① ㄱ
- ② ㄱ, ㄴ
- ③ ㄱ, ㄷ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58. 문장이 잘못된 이유가 ㉠과 같은 것은?
- ① 사장님께서서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셨습니다.
 - ② 그 안전이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었습니까?
 - ③ 우리는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막연한 사이지요.
 - ④ 할아버님께서서는 올해 나이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 ⑤ 이 배는 사람이나 짐을 싣고 하루에 다섯 번씩 운항합니다.

59. <보기>는 ㉠의 한 예이다. 에 들어갈 수 없는 단어는?

<보 기>

생각: 견해(見解), 사유(思惟), 의사(意思), , ……

- ① 사상(思想) ② 상념(想念)
- ③ 심중(心中) ④ 의향(意向)
- ⑤ 지식(知識)

60. ‘돌가루’는 사라지고 ‘갯길’은 살아남은 언어 현상과 관련하여 <보기>와 같은 글을 썼을 때, 에 들어갈 알맞은 속담은?

<보 기>

“”라는 속담도 있듯이, 말이란 사람들의 호응을 얻으면 살아남고 호응을 얻지 못하면 사라지고 마는 것이다. 외국어도 일단 들어와서 우리 국민들이 쓰기 시작하면 순화하기 어려우므로, 처음부터 우리말로 바꾸어 사용하려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 ①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 ②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 ③ 발 없는 말이 천 리 간다.
- ④ 외손뼉이 못 울고, 한 다리로 못 간다.
- ⑤ 말은 해야 맞이요, 고기는 씹어야 맞이다.

[61~6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1997.11

사상(思想)은 개인의 소산(私産)이라기보다는 사회 공동체의 소산이다. 개인의 생각은 사람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지만, 그것의 원형(原形)이 되는 사상들은 사회적 산물이다. 개인은 그 원형들 중에서 하나 혹은 몇 개의 사상들을 주관에 따라 선택하여 자신만의 사상을 만들어 간다. 그러나 다양한 형태로 외부에 존재하던 사상들이 개인의 마음속에 들어왔을 때 반드시 통일되거나 조화를 이루는 것만은 아니다. 서로 모순(矛盾)되는 생각들이 마음속에서 서로 엉켜져 판단에 혼돈을 일으키게 되는 경우가 드물지 않기 때문이다. 개인이 수용한 사상들은 처음에는 대개 여러 갈래로 갈려서 마음속에서 웅성거린다. 이러한 생각의 ㉠ 웅성거림은 일단 그의 사상이 풍부함을 의미한다.

행동적인 인간은 이 중 어느 하나의 사상이 우위(優位)를 차지하여 다른 생각이 대두하는 것을 억누르면서 행동의 방향을 다잡아 간다. 따라서, 위대한 행동가는 대개 심오한 사상가가 되기 어렵다. 반면에 사색적인 인간은 상반(相反)되는 사상들이 마음속에서 서로 정당성을 주장하기 때문에 끝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만다. 이러한 사색가들은 대체로 회의주의(懷疑主義)쪽으로 기울어지는 경향이 있다. 이들은 행동의 지침이 될 수 있는 근거를 여러 곳에서 찾으려 하기 때문에 도리어 행동의 신속성 또는 행동 자체가 지장을 받게 된다. 따라서, 사색가는 대개 행동가가 되기 어렵다. 이들에게는 결단성 있는 행동을 취하지 못하는 결함이 있는 반면에, 그릇된 판단을 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사상의 가치는 하나의 사리(事理)를 여러 면에서 고찰함으로써 그것을 더 넓고 깊게 이해하도록 해 주는 데 있다. 더 깊이 숙려(熟慮)된 사상을 근거로 한 행동일수록 더 나은 성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간을 궁극의 선(善)으로 인도할 수 있는 절대적인 사상은 생각할 수 없다. 사상이란 결국 시대에 따라서 상대적인 것이다. 사람들은 대개 시대적 상황이나 자신의 입장을 기준으로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며, 또 그것이 인간의 보편적인 사상이 되기를 기대한다. 반면에 다른 사람이 자기와 같은 생각을 가져 주기를 바라면서도, 그의 생각이 자기의 것보다 나아 보일 때에는 슬그머니 그의 생각을 자신의 것으로 삼기도 한다. 이러한 추종성(追從性)은 인간의 주체성과 배척(背馳)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편으로는 상호간의 이해를 통하여 보편적인 사상이 성립하도록 해 주는 바탕이기도 하다. ㉢ 주관의 독창성과 객관적 수용 가능성이 조화를 이룰 때 사상의 가치는 빛을 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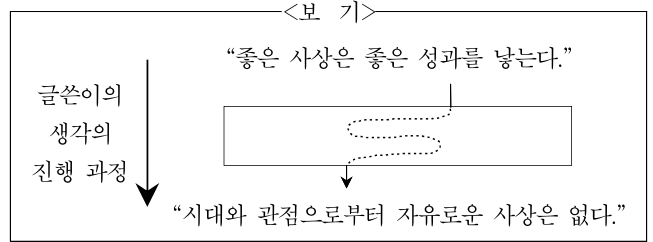
61.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사색가는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한다.
- ② 행동가는 다양한 생각들을 허용하지 않는다.
- ③ 상충하는 사상들은 판단에 혼돈을 일으킬 수 있다.
- ④ 개인마다 사상의 원형을 처리하는 방식이 다르다.
- ⑤ 보편적 사상은 인간들의 추종성을 극복함으로써 성립한다.

62. ㉠ ‘웅성거림’의 속성과 거리가 가장 먼 것은?

- ① 다수 ② 다양성 ③ 뒤틀림
- ④ 무질서 ⑤ 움직임

63. 그러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논지의 전환은 <보기>와 같이 예시될 수 있다. <보기>의 [] 부분에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궁극적인 선이 있다는 신념
- ② 사상의 효용 가치에 대한 회의
- ③ 사상의 발생 소멸 과정에 대한 회고
- ④ 최선의 성과를 낳을 사상에 대한 기대
- ⑤ 행동의 정당성에 대한 판별 기준의 확인

64. ㉡와 ㉢는 ‘사상의 가치’에 대한 언급이다. 그 차이점을 바르게 지적한 것은?

- ① [㉡: 사상의 가치에 대한 정의
 ㉢: 사상에 대한 정의
- ② [㉡: 사상의 기능에 대한 설명
 ㉢: 가치 있는 사상의 조건에 대한 설명
- ③ [㉡: 사상의 사회적 원형에 대한 설명
 ㉢: 개인의 사상에 대한 설명
- ④ [㉡: 사상과 사리의 관계 규정
 ㉢: 사상이 독창적이기 위한 조건 제시
- ⑤ [㉡: 사상과 행동의 관계 설명
 ㉢: 사상의 유용성에 대한 판단 기준 제시

65. 다음은 윗글을 읽은 학생들의 반응이다. 윗글의 핵심에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결단력이 부족한 사색적인 인간보다는 위대한 행동가가 역사를 창조한다.”
- ② “제 아무리 뛰어난 사상이라고 해도 그것은 결국 사회의 모든 사람들의 생각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 ③ “행동가는 신중함을, 사색가는 결단력을 갖추도록 해야겠다.”
- ④ “하나의 문제를 여러 각도에서 볼 수 있는 안목과 사상을 갖추는 데 힘써야 하겠다.”
- ⑤ “독창적인 생각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것도 또한 중요하다.”

[13~1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1996.11

우리는 흔히 어떤 현상이나 사람들의 행위가 정상적이지 못하거나 기대한 바와 다를 때, 혹은 잘못되었을 때, “문제가 있다.”라는 표현을 쓴다. 이때 문제라는 말속에는 분명 그 현상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반영되어 있다. 그런데, 부정적인 이미지는 홀로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준거를 필요로 한다. 말하자면, 무엇에 비추어 볼 때 부정적이고 무엇과 비교했을 때 비정상적인가를 판가름해 줄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문제라는 개념이 등장할 때에는 이미 그 문제 상황을 바꾸려 하거나 바꿀 수 있다는 기대 또한 내포되어 있는 것이 보통이다.

한편, 문제 상황은 개인적일 수도 있고 사회적일 수도 있다. 그러나 모든 ㉠ 사회적 현상이 다 사회 문제로 인식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감기에 걸렸든지 일시적으로 실업자가 되었다 하자. 이것도 분명 문제 상황이긴 하지만, 사람들이 여기에 사회 문제라는 개념을 적용시키지는 않는다. 또한, 홍수라든가 가뭄 등은 ㉡ 자연적 재해라고 하지 그 자체를 사회 문제라고 정의하지는 않는다. 흔히 우리는 신문에서 빈부 격차의 문제, 노동 문제, 실업 문제, 교육 문제, 가족 해체, 인구 문제, 청소년 비행, 교통 체증, 주택 문제, 부동산 투기 등의 내용과 마주치게 되는데, 이때 이것들이 중대한 사회 문제라는 사실을 곧 느낄 수 있게 될 것이다. 분명한 것은 위에 열거된 상황들이 자연 현상에 관계되거나 ㉢ 개인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어느 정도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사회적 차원의 문제들이라는 사실이다.

그런데, 위의 문제 상황들 중에는 오래전부터 인식되어 온 것들이 있는 반면, 최근에 들어와서야 비로소 부각되고 인식되는 문제들도 있다. 사회가 변화하고 복잡하게 됨에 따라 사회 문제로 포착되는 문제 상황들이 바뀌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 문제라는 용어 속에 포괄되는 구체적인 상황들은 필연적으로 역사성을 띠 수밖에 없다.

한편, 사회 문제의 ㉣ 개념적 규정을 위해서는 문제가 되는 객관적 상황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문제 상황이 모두 사회 문제로 규정되는 것은 아니다. 어떤 현상이 사회 문제라고 정의되기 위해서는 “문제 되는 상황을 견디기 힘들다.”하는 주관적 가치 판단이 덧붙여져야 한다. 이렇게 해서 동일한 상황에 대한 ㉤ 주관적 판단의 상이성과 상대성으로 말미암아 문제로 파악되는 방식과 영역은 달라지게 된다.

13. 윗글에서 설명하지 않은 것은?

- ① 사회 문제의 다양한 측면
- ② 사회 문제의 객관성과 주관성
- ③ 사회 문제와 문제 상황의 관계
- ④ 사회 문제의 발생 원인
- ⑤ 사회 문제의 역사성

14. 윗글을 바탕으로 ‘사회 문제’의 개념을 정리할 때, 적절한 것은?

- ①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문제 상황
- ② 지속성과 반복성을 지닌 개인적 차원의 문제
- ③ 현대 사회에 들어와서 인식된 사회적 차원의 문제
- ④ 많은 사람들이 문제로 여기는 객관적인 사회 상황
- ⑤ 정상적이지 못하고 기대한 바와 다른 현상이나 행위

15. 글쓴이의 견해와 부합하지 않는 것은?

- ① 노인 문제가 사회 문제의 하나로 부각된 것은 근대화가 일정한 수준에까지 진전된 시점부터이다. 따라서 노인 문제는 사회의 전반적인 변화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 ② 우리 사회의 심각한 사회 문제 가운데 하나는 권력형 비리와 부정 부패이다. 이러한 부정 부패가 근절되지 않는 한, 사회 개혁을 바라는 국민들의 기대 또한 계속 유지될 것이다.
- ③ 많은 사람들은 각종 선거에서 나타나는 지역감정을 시급히 없애져야 할 ‘망국병’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이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는 정도는 사람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 ④ 환경 오염은 인류의 역사만큼이나 오래 되었다. 그러나 예전의 환경 오염과 오늘날의 환경 오염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차원을 달리하기 때문에, 비로소 그것이 사회 문제로 인식되었다.
- ⑤ 산업화가 진행됨에 따라 노사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볼 때, 일반적으로 사회 문제라고 하는 것은 개개인의 가치 판단과는 상관없이 존재하는 현상이다.

16. 윗글에서 글쓴이가 사회 문제의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글을 전개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사회 문제에 관한 여러 가지 상반된 인식들을 대비시킨다.
- ② 사회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定義)를 주관적인 기준에 따라 분석한다.
- ③ 여러 가지의 부정적 이미지를 어떤 준거에 의해 차례차례 밝힌다.
- ④ 사회 문제로 규정되는 데 필요한 조건들을 하나씩 하나씩 살핀다.
- ⑤ 구체적인 사례들을 가급적 많이, 여러 각도에서 제시한다.

17. ㉠~㉥ 중 ‘적(的)’의 쓰임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 ① ㉠: 사회적 현상(社會的 現象)
- ② ㉡: 자연적 재해(自然的 災害)
- ③ ㉢: 개인적 차원(個人的 次元)
- ④ ㉣: 개념적 규정(概念的 規定)
- ⑤ ㉤: 주관적 판단(主觀的 判斷)

[22~2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996.11

1987년 2월 마지막 주에 과학자들은 오랜만에 육안으로 별의 장렬한 죽음을 목격했다.

큰 별은 수명을 다하는 순간, 대폭발을 하며 태양보다 몇억 배의 찬란한 빛을 내면서 타 버린다. 그리고 그 잿더미 속에 중성자별이나 블랙홀이라는 강한 중력장을 만드는 실체를 남긴다는 것이 천체 물리학의 통설이다. 이렇게 폭발하는 순간, 너무 멀리 있어서 보이지 않았던 별이 갑자기 밝아짐으로써 마치 새로운 큰 별이 나타난 것처럼 보이게 된다. 이러한 까닭에 과학자들은 이런 별을 초신성(超新星)이라고 부르는데, 우리 선조들은 객성(客星), 즉 손님별이라 불렀다. 아마 불쑥 찾아온 손님을 연상했던 모양이다.

실제로 『조선왕조실록』 선조 37년(1604년) 10월 31일 조를 보면 객성을 발견한 당시의 생생한 기록이 있다. 즉 “초저녁에 객성이 미수 10도 거극(去極) 110도 자리에 있었는데 목성보다 작고 황적색 빛깔로 흔들리고 있었다. 이른 새벽녘에는 안개가 끼었다.”라고 하였으며, 그 뒤 약 1년 동안 관측된 이 객성의 모습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또한 『증보문헌비고』에는 『삼국사기』 이래의 객성 관측 기록을 모아 정리하면서, 객성이란 돌연히 출현한 괴이한 별들을 이른다 하였다. 여기에서 특이한 것은 항성(恒星)의 하나인 노인성(老人星)을 객성에 포함시켰다는 점이다. 아울러 이 점에 대하여 편찬자는 노인성이 우리나라에서는 쉽게 관측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부연하고 있다.

그러나 일찍이 고려 시대에는 ㉠ 노인성을 수성(壽星)으로 보았으며, 따라서 이별이 나타나면 장수한다는 믿음이 널리 퍼져 있었다. 『고려사』에 의하면 의종 24년(1170년) 2월에 낭성(狼星)이 남극에 나타났는데, 이를 서해도 안찰사 박순가가 노인성으로 알고 역마를 달려 보고하게 했다. 의종은 이 노인성의 출현을 기꺼워하여 잔치를 거둬다가 그해 9월 정중부에 의해 왕위에서 쫓겨나고 말았다. 그후 낭성을 노인성으로 잘못 보고한 박순가에게는 그 자손까지 금고에 처해지는 벌이 내려졌다.

이렇게 인간의 삶과 연관 지어 파악되던 별들도 그 나름의 삶을 가지고 있다. 대부분의 별은 우주 공간에 퍼져 있는 수소가 중력에 의하여 뭉치지면서 탄생한다. 별의 중심부는 그 외부에서 가해지는 압력을 받아 수축하면서 내부 온도가 높아진다. 태양의 경우도 중력에 의한 압력 때문에 중심부의 온도는 수천만 도가 되어 ㉡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게 된다. 핵융합 반응은 핵들이 서로 합쳐지는 과정을 말한다. 이 과정에서 많은 에너지가 방출되며, 이 에너지는 태양이 붉게 타는 원천이 되고 있다. 그러나 별이나 태양의 중심부에 있는 핵연료는 언젠가는 소진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별은 짓누르는 중력의 압력을 감당하지 못하여 수축할 수밖에 없다. 수축이 한계에 다다르게 되면 별의 중심부는 마치 억눌린 거대한 용수철처럼 그 위에 떨어지는 물질들을 튕겨내고, 그때 생기는 거대한 충격파가 별을 폭발시켜 ㉢ 최후를 맞이한다.

22. 앞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객성은 갑자기 출현한다.
 - ② 별이 폭발해도 그 실체는 남는다.
 - ③ 별은 시간에 따라 그 형태가 달라질 수 있다.
 - ④ 전통 사회에서는 별의 관측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 ⑤ 별에 부여하는 의미는 시대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
23. 앞글에서 ‘별이 탄생하는 과정’과 ‘객성이 되는 과정’을 설명한 내용으로 공통적인 것은?
- ① 충격과 발생
 - ② 블랙홀 형성
 - ③ 수소의 뭉쳐짐
 - ④ 핵연료의 소진
 - ⑤ 중력에 의한 수축
24. 앞글로 미루어 ㉠과 관련된 진술로 바른 것은?
- ① 노인성은 블랙홀로 인해 생겨난다.
 - ② 노인성은 태양과 같은 원리로 밝게 빛난다.
 - ③ 의종은 노인성의 출현으로 왕위에서 쫓겨났다.
 - ④ 우리 선조들은 노인성을 상서롭지 못한 별로 생각했다.
 - ⑤ 노인성에 대한 최초의 관측 기록이 『고려사』에 나타난다.
25. 밑줄 친 ㉡과 관계 없는 것은?
- ① 별의 크기를 변화시킨다.
 - ② 압력이 매우 높은 상태에서 이루어진다.
 - ③ 수소 핵들이 있어야 한다.
 - ④ 별의 온도가 높아야 한다.
 - ⑤ 에너지를 방출하여 별이 빛나게 한다.
26. ㉢과 바꾸어 쓰기에 적합하지 않은 것은?
- ① 일생(一生)을 마감한다.
 - ② 미궁(迷宮)에 빠진다.
 - ③ 종언(終焉)을 고한다.
 - ④ 종지부(終止符)를 찍는다.
 - ⑤ 대단원(大團圓)의 막을 내린다.

[27~3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1996.11

(가) 언어의 역사에 대한 연구는 어원(語源)에 대한 관심에서 싹튼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김대문(金大問)의 어원 연구가 국어사 연구의 첫 업적이었다. ‘차차웅(次次雄)’, ‘이사금’, ‘마립간(麻立干)’ 등에 대한 그의 어원 해석이 『삼국사기(三國史記)』와 『삼국유사(三國遺事)』에 인용되어 있음을 본다. 그 뒤에도 어원에 대한 관심은 끊이지 않고 이어졌다. 그러나 전통적인 어원 연구는, ㉠ 몇몇 예외가 없지는 않았지만, 대개 어쭙지 않은 한자(漢字)의 지식에 기댄 것이었다.

(나) 한자와의 밀착을 특징으로 하는 전통적 방법을 떨쳐 버리고 새로운 어원 연구를 개척한 학자는 권덕규였다. 지난 1920년대에 그가 논한 단어는 모두 합해야 여남은에 불과하지만, 중세어(中世語)와 고대어(古代語)의 연구에서 ‘시내’를 ‘실’과 ‘내’의 복합어로 보고 『삼국유사』에 나타나는 인명 표기와 지명 표기의 예를 들어 ㉡ ‘실’이 골짜기를 뜻한 고대어 단어라고 한 것은 탁견(卓見)이었다. 그 뒤에 충청, 전라, 경상 지역의 속지명에 ‘밤실[栗谷]’, ‘돌실[石谷]’ 등이 ㉢ 경성드뭇하게 흩어져 있음이 확인됨으로써 ‘실[谷]’의 존재가 확증되었다.

(다) 이렇게 새로이 시작된 어원 연구는 오늘날까지 계속되었지만, ㉣ 아직 확고한 터전을 닦았다고 할 수 없는 처지에 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어원 연구는 음운, 문법, 어휘, 의미 등 여러 분야의 역사적 연구 성과가 충분히 축적되었을 때에 비로소 믿음직한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어원 연구는 하나하나의 단어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므로 체계와는 상관없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어느 한 단어의 내력을 밝히고 그 근원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일은 국어의 역사를 비추는 크고 작은 조명들이 그 단어에 초점을 맞출 때에 비로소 달성될 수 있는 것이다.

(라) 한 예로 ‘하루’를 들어 본다. 중세어에서 이 단어는 휴지(休止) 또는 자음으로 시작된 조사 앞에서는 ‘하르’로,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 앞에서는 ‘홀리, 홀릴’ 등으로 나타난다. 이런 경우에, ㉤ 학자들은 이보다 이른 시기에 이 명사가 단일형(單一形)을 가지고 있었으리라고 추측하고, 그것을 재구(再構)한다. 여기서는 ‘홀’을 재구하게 된다. 이 재구는 다행히도 제주도 방언의 지지를 받는다. 제주도의 늙은이들은 지금도 ‘홀’이란 단일형을 유지하고 있다.

(마) 탐색이 이에서 그친다면, 모처럼 ‘홀’을 재구한 것도 별로 큰 의미가 없다. 이 ‘홀’을 토대로 더 옛날로 거슬러 올라갈 수는 없을까? 먼저, 이 단어를 둘러싼 어휘 체계에 눈을 돌리면, 중세어 문헌에서 ‘이틀, 사울, 나울, 다췌, 여췌, 닐췌, 여드래, 아흐래, 열홀’ 등을 확인하게 된다. 이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모두 수사(數詞)를 가지고 있음을 깨닫게 된다. ‘이틀’의 ‘일’은 좀 특이하지만 ‘일히’에서 볼 수 있는 것이요, ‘사울, 나울’의 ‘사, 나’는 ‘서, 너’가 모음의 변화를 입은 것이요, ㉥ 나머지는 ‘다숯, 여숯, 닐굽, 여뿔~여뿔, 아홉, 열’과의 관련이 쉽게 인정된다. 그리고 ‘이틀, 사울, 나울, 열홀’ 등도 ‘홀’과 같이 ‘올~을’을 가지고 있음을 본다.

27. 각 단락의 중심 화제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 전통적 어원 연구의 역사
- ② (나): 과학적 어원 연구의 개척
- ③ (다): 어원 연구의 기초적 조건
- ④ (라): 어원 연구의 구체적 사례
- ⑤ (마): 어원 연구의 실제적 의의

28. (가)의 뒷부분을 보충할 수 있는 예로 적절한 것은?

- ① ‘개(犬)’는 ‘가이’에서 왔다.
- ② ‘우뢰’는 ‘우뢰(雨雷)로 표기해야 한다.
- ③ 잘못된 표기된 ‘이사’는 ‘의사(醫師)로 바꾸어야 한다.
- ④ 방언의 ‘사이’는 ‘새(鳥)로 교정해야 한다.
- ⑤ ‘밝은 달’은 ‘명월(明月)로 표현하는 것이 품위 있다.

29. ㉠~㉥의 각 진술을 뒷받침하는 내용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 ① ㉠: 전통적인 어원 연구에서도 과학적인 연구가 있었다.
- ② ㉡: 권덕규는 자료를 바탕으로 고대어를 재구하였다.
- ③ ㉢: 역사적 연구의 성과들이 충분히 축적되지 않았다.
- ④ ㉣: 국어의 명사들은 일반적으로 고대에 단일형이었다.
- ⑤ ㉤: 어원적으로 보면 수사는 낱자 명사에서 유래되었다.

30. ㉢의 문맥적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개재(介在) ② 산재(散在) ③ 실재(實在)
- ④ 잠재(潛在) ⑤ 편재(偏在)

31. (라)에서 ‘하루’의 어원을 재구하는 과정과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경호는 부뚜막에서 상어의 배를 가르는 장면을 보았다. 상어의 배 속에는 고등어가 있었다. 그 고등어의 배 속에서는 새우가 나왔다.
→ 고등어가 새우를 잡아 먹은 다음, 상어에게 잡아 먹혔다.
- ② 순희는 연못에서 올챙이를 잡은 후, 어항 속에 넣었다. 며칠 후, 순희는 어항 속에서 개구리를 발견하였다.
→ 올챙이는 얼마간 자란 다음, 개구리로 변한다.
- ③ 영희는 자기 집 비둘기의 발목에 고리를 끼운 후, 바깥으로 날렸다. 며칠 후 발목에 고리가 있는 비둘기가 영희의 집으로 날아왔다.
→ 비둘기는 귀소 본능이 있는 새이다.
- ④ 철수는 며칠 전 개구리가 심하게 울더니 곧 비가 오는 것을 보았다. 오늘 밤에는 개구리가 시끄럽게 운다.
→ 곧 비가 올 것이다.
- ⑤ 민철은 자기의 개에게 야구공의 냄새를 맡게 한 후, 공을 방망이로 힘껏 쳐서 멀리 날려 보냈다. 잠시 후, 개는 그 공을 입에 물고 민철이에게 돌아왔다.
→ 개는 후각이 대단히 발달하였다.

[37~4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1996.11

고대의 조각품을 올바르게 감상하기 위해서는 ㉠ 감상의 고전적인 척도가 필요하다. 동서양의 고대 조각품들은 대부분 그 당시 사람들의 종교적 이상을 실현시킨 것이기 때문이다. 고대의 조각품을 바람직하게 감상하기 위해서는 일치적으로 그 조각이 상징하는 그 무엇에 대한 숭배심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럴 때 그것은 단순히 돌로 만들어진 물질의 의미를 훨씬 증가하는 것이 된다. 우리가 고대의 조각품을 볼 때, 미적 정서가 직감적으로 촉발(觸發)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미적 정서를 중심으로 작품을 감상하게 된 것은 훨씬 후대에 와서야 가능해진 것이다. 한마디로 고대의 조각품은 보는 이로 하여금 '신성함', '거룩함' 등과 같은 초월적인 느낌을 갖도록 하기 위해 존재했던 것이다.

19세기 초 지중해 연안의 한 동굴에서 발견된 '미로의 비너스'상이 좋은 사례가 된다. 발견 당시 이것은 굴 안의 북쪽 벽 앞에 서 있었고, 그 앞에는 제단으로 보이는 큰 돌 주위에 토기(土器)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다. 이로 미루어 그리스 시대의 인체 조각상은 동양의 불상처럼 신전에 모셔졌으며, 당시 사람들의 종교적 숭배의 대상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현대의 조각품을 감상하는 방법으로 그리스의 조각품을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 조각상에 나타난 그들의 ㉡ 인체 탐구 정신은 지극히 사실적(事實的)이면서도 이상화(理想化)된 것이었다. 이런 정신은 서구 미술의 근본 정신이 되었다. 동양에서는 자연물이 표현의 주된 대상이었던 데 반하여, 서구에서는 자연물보다는 주로 인체를 표현의 대상으로 삼았던 것이다. 그런데 서구인들은 그 많은 소재 중에서 하필이면 인간만을 주된 대상으로 삼았을까? 그것은 인간이 만물의 척도라는 그들의 독특한 사상에서 비롯된다. 즉, 인간의 몸에는 다른 어떤 피조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황금비례가 있는데, 이 비례가 만물을 재는 기준이 된 것이다. 다시 말해, 인체를 탐구하는 것은 그 속에 신이 인간을 창조한 모든 비밀이 숨어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예술은 인간을 모방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것이 바로 서구의 미술가들이 누드를 평생의 소재로 삼게 한 불후(不朽)의 사상인 것이다.

한편, 동양의 화가들은 유구한 세월 동안 산·물·나무·동물·곤충·꽃 등과 같은 자연의 물상을 단골 소재로 삼았다. 동양에서는 그림을 그리는 일을 사생(寫生)이라고 일컬어 왔다. 사생은 산수나 화조(花鳥)처럼 자연을 그리는 일을 말한다. 이것은 자연물을 있는 그대로 모방한다는 의미와는 다르다. 그들이 그리고자 하는 목적은 단순히 자연물을 있는 그대로 모방한다는 의미와는 다르다. 그들이 그리고자 하는 목적은 단순히 자연물의 외형을 재현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 대상이 어떻게 스스로 살아서 움직이는가를 탐구하고 또 이러한 자연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파악함으로써 인간의 본성을 탐구했던 것이다.

동양 미술이 자연의 탐구를 통하여 인간의 본성을 확인하려 했던 것이다. 이렇듯 서구와 동양의 미술은 얼핏 보아 서로

대립적인 것 같지만, 궁극적인 정신의 지향점은 일치한다.
㉢ 자연은 인간과 별개의 것이 아니라, 자연이 곧 인간이고 인간이 또한 자연이기 때문이다.

37.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 ① 동양의 화가들은 자연물의 움직임은 재현하는 데 궁극적인 목적을 두었다.
- ② 고대의 조각품은 미적 정서를 표현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 ③ 동서양의 미술은 표현 방법과 표현 대상이 동일하다.
- ④ 서구의 미술가들은 인체 탐구를 통하여 신이 인체 탐구를 통하여 신이 인간을 창조한 비밀을 찾으려 했다.
- ⑤ 서구의 미술가들은 인간의 욕망을 승화시키기 위해 누구를 평생의 소재로 삼았다.

38. 글쓴이가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 ① 서구 미술은 동양 미술의 정신을 본받아야 한다.
- ② 미술은 인체를 탐구하려는 정신이 전제되어야 한다.
- ③ 동서양의 고대 미술은 모두 종교적 속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 ④ 고대 미술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대의 문화 특성을 알아야 한다.
- ⑤ 동서양의 미술은 모두 표현 대상에 숨겨져 있는 본질을 탐구하고 있다.

39. ㉠의 문맥적 의미를 바탕으로 대상을 바라 본 것은?

- ① 이 초상화는 생전의 근엄하신 할아버지의 모습을 생생하게 그리고 있어.
- ② 신라인의 얼굴을 생각하며 석굴암 본존불을 보니, 그 자비로움이 나를 숙연케 해.
- ③ 이 그림 속의 물방울은 마치 아침 이슬이 햇살에 반사되어 영롱하게 빛나는 것 같아.
- ④ 경복궁 경회루의 우아한 곡선미는 우리 조상의 예술적 감각이 대단히 뛰어났음을 알 수 있게 해.
- ⑤ 미로의 비너스는 두 팔이 잘려 나갔지만, 그리스인의 세련되고 섬세한 솜씨는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

40. 다음 중 ㉠의 성향이 가장 잘 드러난 작품은?

①



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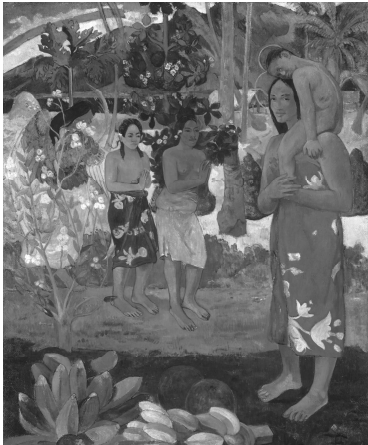
③



④



⑤



41. ㉠의 의미를 드러내기 위해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순례자를 위하여 미리 준비해 놓은 듯한 석간수는 얼마나 달고 시원한지 연거푸 몇 표주박을 들이키니, 상쾌한 기운이 더위를 씻어 준다.
- ② 봄철이라면 벚꽃이 대단하다. 그것도 겹벚꽃이다. 벚꽃이 제 아무리 맵시를 자랑해도 개심사 종루(鐘樓) 한 쪽에서 있는 늙은 매화는 매화의 기품을 벚꽃은 가히 넘보지 못한다.
- ③ 빛의 약동! 색의 환희! 만개한 복숭아 꽃, 오얏꽃, 그 새로이 파릇파릇 움트는 에메랄드의 싹들! 섬세하고 운택하게 자라나는 아름다운 꽃잎들. 회화(繪畵)는 여기서 나오는 것이다.
- ④ 벌거벗은 나무 끝을 사정없이 흔들어대며 지나가는 매서운 겨울 바람과 눈 덮인 별관을 차갑게 비쳐 주는 겨울 달빛 사이로 기러기와 청둥오리가 하늘을 비껴 줄지어 날아 가면 겨울은 깊어 같다.
- ⑤ 신록의 노래가 금시에라도 우렁차게 터져 나와, 산과 들을 흔들 듯한 이러한 때를 당하면, 나는 이러한 자연에 결눈을 파지 아니할 수 없으며, 그의 기쁨의 노래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할 수 없게 된다.

[42~4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1996.11

육경(六經)의 글은 모두 요·순 이래 성현의 말씀을 기록한 것으로서 조리가 매우 정밀하고 자세하며, 뜻이 깊고도 멀다. 정밀한 것으로 말하자면 털끝만큼도 어지럽힐 수 없고, 자세한 것으로 말하자면 미세한 것도 빠뜨린 것이 없다. 깊이를 헤아리고자 하나 그 밑바닥을 찾을 수 없고, 멀리 추구하고자 해도 끝 간 데를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진·한 시대로부터 수·당 시대에 이르기까지 갈래를 나누어 쪼개며 잘라내고 찢어발겨 마침내 대체(大體)를 훼손한 것이 이루 다 헤아릴 수 없다. 이단에 빠진 자는 근사한 것을 끌어다가 간사한 말을 꾸며내고, 옛 전적(典籍)만을 굳게 지키는 자는 고집스럽고 편벽되어 평탄한 길을 알지 못한다. 이것이 어찌 부지런하고 간절하게 육경을 지어 말씀을 남긴 성현들이 천하 후세에 기대한 뜻이겠는가.

『중용』에 이르기를 “먼 곳을 가려거든 반드시 가까운 곳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하였으니, 이른바 깊은 곳은 얕은 데서부터 들어가고, 자세한 부분 역시 간략한 데서부터 미루어가며, 정밀한 경지 또한 거친 데서부터 차츰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 육경을 탐구하는 자들은 대부분 얕고 가까운 것을 뛰어넘어서 깊고 먼 데로만 치달리며, 거칠고 간략한 것은 소홀히 하고서 정밀하고 자세한 것만을 엿보고 있으니, 어둡거나 어지럽고 빠져

[A] 헤어나지 못하거나 넘어지고 말아 끝내 아무 소득이 없는 것은 당연하다. 저들은 비단 깊고 멀고 정밀하고 자세한 것을 잃을 뿐만 아니라, 얕고 가까우며 거칠고 간략한 것마저 모두 잃게 될 것이니, 슬프다. 얼마나 미혹된 일인가. 무릇 가까운 것은 미치기 쉽고 얕은 것은 헤아리기 쉬우며 간략한 것은 알기 쉽고 거친 것은 터득하기 쉽다. 그 도달한 바를 딛고 한 발 멀리 가고 또 한발 멀리 간다면 먼 끝까지 갈 수 있을 것이며, 그 헤아린 바를 연유하여 차츰 깊게 들어가다 보면 마침내 깊은 끝까지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대저 귀먹은 이는 천둥과 벼락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눈먼 이는 해와 달의 빛을 보지 못한다. 그러나 이것은 그들 자신의 신체적 장애로 인한 것일 뿐, 천둥과 벼락, 또는 해와 달은 의연히 ㉠ 그대로인 것이다. 천둥과 벼락은 천지에 굴러 다녀 소리가 진동하고 해와 달은 고금에 비추어 빛이 찬연하니, 일찍이 귀먹은 이가 듣지 못하고 눈먼 이가 보지 못했다 하여 그 소리나 빛이 혹여 작아지거나 흐려진 적이 없다. 그러므로 송나라 때 정자(程子)와 주자(朱子)가 나와서 마침내 해와 달 같은 거울을 닦아 내고 천둥과 벼락같은 북을 울리어 소리가 멀리 미치고 빛이 넓게 퍼지게 되자 육경의 뜻이 다시 세상에 환히 밝혀졌으니, 이제 지난날의 편벽된 것들이 사람의 사려를 막을 수 없으며, 근사한 것들이 명분을 빌 수 없게 되어 간사한 선동과 유혹이 마침내 끊어지고 평탄한 표준이 뚜렷해졌다.

그러나 경전에 실린 말은 그 근본은 비록 하나지만 그 가닥은 천 갈래 만 갈래이니, 이것이 이른바 ㉡ “한 가지 이치인데도 백 가지 생각이 나오고 귀결은 같을지라도 이르는 길이 다르다.”는 것이다. 이처럼 아무리 뛰어난

[B] 지식과 깊은 조예를 가졌다 해도 그 뜻을 완전히 알아서 세밀한 것까지 잃지 않기는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여러 사람의 장점을 널리 모으고 보잘 것 없는 성과도 버리지 않는 다음에야 거칠고 간략한 것이 유실되지 않고 얕고 가까운 것이 누락되지 아니하여 깊고 멀고 정밀하고 자세한 체제가 비로소 완전하게 갖추어지는 것이다.

- 박세당, 「사변록」 -

42.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 ① 육경 연구는 훼손된 경전의 원형을 복구하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 ② 육경이 난해한 까닭은 일상의 구체적 현실을 다루지 않았기 때문이다.
- ③ 육경의 사상과 가치는 특정 시대와 상황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 ④ 육경에 대한 학자들의 다양한 견해는 동등한 비중을 지닌다.
- ⑤ 육경의 해석에는 윤리적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

43. 윗글에서 추론할 수 있는 글쓴이의 태도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인간의 능동적인 실천 강조
- ② 끊임없는 진리 탐구의 자세 견지
- ③ 일상에 토대를 둔 실용적 학문 추구
- ④ 주자의 연구성취에 대한 비판적 수용
- ⑤ 감각 기관 장애로 인한 오류의 극복 중시

44. [A]에서 논지를 전개하는 방식과 거리가 가장 먼 것은?

- ① 학문에 몰두하는 사람은 사리에 통달하고자 힘쓰고, 이익에 몰두하는 사람은 재화를 얻고자 힘쓰며, 권력에 몰두하는 사람은 비천하게 되고, 악행에 몰두하는 사람은 패망으로 끝난다.
- ② 학문을 하는 데는 본분에 따라 가깝고 평범한 공부에서 시작하여 그 연구와 체험을 오랫동안 쌓은 뒤에야, 원대하고도 끝없는 경지를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 ③ 오직 배운 연후에 도리를 알게 되고, 도리를 알아야 사물의 본말을 알 수 있으므로, 학문을 하고서 벼슬을 해야 선후와 본말의 순서를 잃지 않을 것이다.
- ④ 말단에 집착하여 근본을 잃기 때문에 도가 밝혀지지 못하는 것이며, 먼저 할 바를 뒤로 미루고 나중에 할 바를 먼저 하기 때문에 도가 행해지지 않는 것이다.
- ⑤ 농사에 힘써 우러러 아버이를 섬기고 굶어 자녀를 길러서 집집마다 넉넉해지고 마을마다 풍족하여 나라의 근본이 견고해지면, 태평성대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45. ㉠의 문맥적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동학 농민군은 관군 300 명을 장성의 황룡강 전투에서 대파한 후, 그대로 복진하여 별다른 저항을 받지 않고 전주성에 입성하였다.
- ② 대체로 역사가는 불만을 품은 한 농부를 무시할 수는 있겠지만, 그들이 한 지역의 불만 세력으로 성장했을 경우, 그대로는 지나칠 수 없게 된다.
- ③ 인류가 꿈꾸어 온 유토피아가 당장 실현되지 않는다고 하여, 이상 사회에 대한 우리의 동경마저 그대로 포기할 수는 없다.
- ④ 현실이 우리를 배신하는 것 같을지라도, 자유와 평등과 박애로 충만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는 유구한 역사의 물줄기는 그대로이기 때문에 우리는 실망하지 않는다.
- ⑤ 조선은 제국주의 열강의 시장 쟁탈이 격화되는 가운데 모든 주체적 대응에 실패한 나머지, 일제의 침략이 노골화하는 순간 그대로 식민지로 전락하고 말았다.

46. [B]의 문맥 속에서 ㉡의 의미를 바르게 설명한 것은?

- ① 경전의 내용이 추상적인 데서 초래되는 불변성에 주목한 것이다.
- ② 경전에 쓰인 개념의 모호함과 다의성에 대해 비유적으로 비판한 것이다.
- ③ 경전 연구에 다양한 관점과 방법론을 수용해야 할 당위성을 지적한 것이다.
- ④ 경전에 대한 연구자들의 주관적인 가치 판단이 배제되어야 함을 주장한 것이다.
- ⑤ 경전의 사상과 현실 사이의 괴리를 해석하는 두 가지 상반된 시각을 제시한 것이다.

[56~6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996.11

키케로가 이미 갈파했듯이, ㉠ 철학자의 책 속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어리석음뿐이다. 확실히 철학자들은 상식을 거부하고 온갖 지혜를 추구한다. 그리고 대부분의 철학적 비상(飛翔)은 희박한 공기의 상승력에 의존하고 있다. 그래서 과학은 항상 진보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반면에, 철학은 언제나 근거를 잃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와 같이 보이는 것은 철학이 과학적 방법으로는 해결하지 못하는 선과 악, 아름다움과 추함, 질서와 자유, 삶과 죽음 등과 같은 어렵고 위험한 문제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어떤 탐구 분야든지 정확한 공식화가 가능한 지식을 산출하면 곧 과학이라고 일컫는다. 과학은 철학에서 시작하여 기술(技術)로 끝나고, 또한 과학은 가설의 ㉡ 썩에서 발원(發源)하여 성취의 ㉢ 바다로 흘러간다. 철학은 미지의 것 또는 부정확한 것에 대한 가설적 해석이다. ㉣ 철학이 진리 세계를 탐구하는 최전선이고 과학이 점령 지대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지식과 기술로 건설된 후방의 안전지대라고 할 수 있다. 철학은 어쩔 줄 몰라 우두커니 서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철학은 승리의 열매를 과학에게 넘겨주고 나서, ㉤ 거룩한 불만을 간직한 채 아직도 탐구되지 않은 불확실한 지역으로 나아가고 있다.

좀 더 전문적으로 말하기로 하자. 과학은 분석적 기술(記述)이고 철학은 종합적 해석이다. 과학은 전체를 부분으로, 모호한 것을 확실한 것으로 분해하려고 한다. 과학은 사물의 가치나 이상적 가능성을 탐구하지 않으며, 사물의 전체적인 궁극적 의미를 묻지 않는다. 과학은 사물의 현상과 작용을 밝히는 데 만족하고, 현존하는 사물의 성질과 과정에만 시야를 국한한다. 과학자는 천재의 창조적 진통뿐만 아니라 버록의 다리에도 흥미를 느낀다.

그러나 철학자는 사실의 기술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한다. 철학자는 사실과 경험의 관계를 확정함으로써 그 의미와 가치를 찾아 내려고 한다. 철학자는 사물을 종합적으로 해석한다. 호기심 많은 과학자가 우주라는 거대한 시계를 분해해 놓으면, 철학자는 그 시계를 이전보다 더 훌륭하게 조립하려고 애쓴다. 과정을 관찰하고 수단을 고안해 내는 지식이 과학이라면, 여러 가지 목적을 비판하고 조절하는 지혜가 철학이다. 사실이 목적과 관련되지 않는 경우에는 아무 의미가 없다. 철학이 없는 과학, 지혜가 없는 지식은 우리들을 절망으로부터 구해내지 못한다. 과학은 인간에게 지식을 주지만, 철학은 인간에게 지혜를 제공한다.

56. 윗글의 내용으로 미루어 ‘과학’과 ‘철학’의 대비적 속성을 잘못 짚은 것은?

- | 과학 | 철학 |
|----------|--------|
| ① 지식(知識) | 지혜(智慧) |
| ② 분석(分析) | 종합(綜合) |
| ③ 사실(事實) | 가치(價値) |
| ④ 기술(記述) | 해석(解釋) |
| ⑤ 현존(現存) | 현상(現像) |

57. ㉠과 같이 말할 수 있는 직접적 논거에 해당하는 것은?

- ① 철학자들의 삶은 무의미하다.
- ② 철학자들은 지혜와 상식을 혼동한다.
- ③ 철학자들은 지식과 기술을 추구한다.
- ④ 철학자들은 상식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 ⑤ 철학자들은 자신의 생각을 어리석게 표현한다.

58. ㉣에서 유추할 수 있는 비유적 표현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철학이 전깃줄이고 과학이 그 전깃줄을 따라 흐르는 전류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어두운 밤을 밝게 비추는 전등불과 같다.
- ② 철학이 철로를 따라 운행하는 기관차이고 과학이 객차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객차의 좌석에 편안하게 앉아 있는 여행 객과 같다.
- ③ 철학이 거친 바다를 헤쳐 나가는 배이고 과학이 그 배를 운항하는 항해사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그 배에 타고 있는 승객과 같다.
- ④ 철학이 자갈밭을 걸어가는 두 다리이고 과학이 앞길을 살피는 두 눈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두 다리에 실려 가는 몸통과 같다.
- ⑤ 철학이 광맥을 찾아 나가는 탐사대이고 과학이 그 광물을 채굴하는 광부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그 광물을 실생활에 이용하는 소비자나 같다.

59. 밑줄 친 ㉤의 내포적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현실에 대한 종교적 성찰
- ② 철학 자체에 대한 회의
- ③ 진리에 대한 본원적 갈증
- ④ 자기를 포기한 자조적 독백
- ⑤ 자아 탐구의 본능적 욕구

60. 윗글의 문맥상 ㉡:㉢의 관계와 가장 유사한 것은?

- ① 짝: 열매
- ② 빛: 그림자
- ③ 비: 구름
- ④ 휘발유: 자동차
- ⑤ 바위: 이끼

[18~2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995.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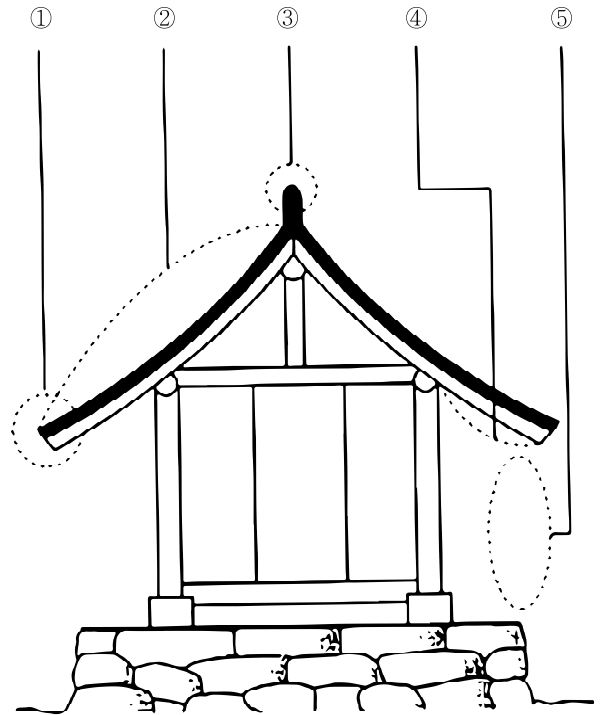
지붕은 집이 위치하는 지역의 환경과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다. 지붕의 형상을 결정짓는 가장 근본적인 조건은 지역의 기후라고 할 수 있다. 지붕의 크기는 ㉠ 처마의 깊이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처마의 깊이는 처마 폭에 의해 결정되는데, 처마 폭은 도리로부터 지붕 끝까지의 너비를 말한다. 처마가 깊다 깊지 않다 하는 것은 기둥의 높이에 비해 처마 폭이 얼마나 넓은지를 가늠하여 하는 말이다.

처마를 깊게 잡는 구조는 우리나라 건축의 특색 가운데 하나이다. 그 이유 중의 하나는 태양 때문이다. 무더운 여름은 시원하게, 겨울은 따뜻하게 지내고 싶다는 의지가 작용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중부 지방, 대략 북위 38도선 부근에서의 하짓날 태양의 남중 고도는 약 70도의 각도를 지닌다. 중천에 뜬 태양이 이글거리며 피약별이 쏟아진다. 그러나 깊은 처마가 차양이 되어 그늘을 드리우기 때문에, 방안이나 대청에서는 나무 그늘 밑에서와 같은 시원함과 청량감을 느끼게 된다. 동짓날 태양의 남중 고도는 대략 35도가량이다. 낮게 뜬 해가 따뜻한 햇살을 방 속 깊숙이 투사하여 준다. 따뜻해진 공기는 깊은 처마의 삼각상대에 머무른다. 방의 열을 바깥의 차가운 공기가 빼앗아 가려고 할 때, 이 삼각상대의 따뜻한 온기가 상당한 저항 작용을 하여, 그만큼의 훈기를 유지할 수 있게 해 준다.

처마를 깊게 하는 또 다른 이유로는 건축 자재의 취약성과 생활 관습을 들 수 있다. 목재가 집을 짓는 자재의 중심이 되던 시절에는 습기에 약한 목재가 빗물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일이 중요하였다. 따라서 낙숫물이 튀어 나무에 닿지 못하도록 처마를 깊게 하였던 것이다. 더구나 농사를 짓는 데는 깊은 처마가 필요하였다. 농사에 쓰이는 연모나 거둔 곡식을 저장하는 일차적인 장소로 처마 밑이 알맞았기 때문이다. 나아가 작업장으로도 유용한 공간이었기 때문에 처마는 점점 깊어지게 되었다.

이렇듯이 자연 여건 및 생활 관습이 반영된 처마는 우리나라 건축의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로 자리잡게 되었다. 이러한 특징은 농가의 자그마한 살림집뿐만 아니라 공공 건축물에도 그대로 채택되어, 규모가 큰 기와집이라 할지라도 깊은 처마를 가지게 되었다. 기와지붕은 초가지붕의 구성에서 발달한 것이며, 처마 구성 기법이 발전함에 따라 곡선 모양이 생겨나고, 그에 따라 형태와 아름다움이 갖추어지게 되었다.

18. ㉠은 다음 그림에서 어느 것인가?



19. 처마를 깊게 하는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농경 생활에 필요하기 때문이다.
- ② 집의 규모가 점점 커졌기 때문이다.
- ③ 집을 짓는 주된 재료가 목재이기 때문이다.
- ④ 그늘을 만들어 주고 비를 막아 주기 때문이다.
- ⑤ 여름에는 시원하게 겨울에는 따뜻하게 해 주기 때문이다.

20.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 ① 지붕의 곡선은 처마의 깊이에 따라 결정된다.
- ② 지붕의 형태는 생활의 필요를 반영한 결과이다.
- ③ 지붕의 구성 재료에 따라서 보온 상태가 달라진다.
- ④ 지붕의 크기는 소유자의 재산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
- ⑤ 지붕의 처장은 건물의 용도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MEMO

MEMO

[39~4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995.11

백성을 위하여 목(牧)*이 존재하는가, 백성이 목을 위해 태어났는가? 백성들은 곡식과 피륙을 내어 목을 섬기고, [A] 수레와 말을 내어 따르면서 목을 영송(迎送)하며, 고혈(膏血)을 다하여 목을 살찌게 하니 백성들이 목을 위해서 태어난 것인가?

태고 시절에는 백성만이 있었을 뿐이니 어찌 목이 존재했겠는가? 백성들은 한가로이 마을을 이루어 모여 살았다. 그런데 그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났을 때 이를 판결할 수 없었다. 이때 한 노인이 있어 공평한 말을 잘 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그 노인에게 가서 판정을 받았고, 모든 이웃 사람들도 판정에 복종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노인을 추대하여 이정(里正)이라고 불렀다. 또한 여러 마을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 판결하지 못하고 있을 때 어느 한 노인이 있어 현명하고 지식이 많았기 때문에 모두 그에게 가서 판정을 받고 복종하였다. 그리하여 함께 그를 추대하여 당정(黨正)이라고 불렀다. 역시 몇 개의 당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 해결하지 못하고 있을 때 한 노인이 어질고 덕이 있었기 때문에 모두 그에게 가서 판정을 받고 복종하였다. 그리하여 그를 추대하여 주장이라고 불렀다. 이와 마찬가지로 몇 개의 주의 주장들이 한 사람을 추대하여 우두머리로 삼아 국군(國君)이라 하고, 여러 국군들이 한 사람을 추대하여 우두머리로 삼아 방백(方伯)이하 하며, 사방의 방백들이 한 사람을 추대하여 가장 높은 우두머리로 삼아 황왕(皇王)이라 불렀다. 그러므로 황왕의 근본은 이정에서 나온 것이다. 한편 이정은 백성들의 희망을 좇아 법을 제정하여 당정에게 올리고, 당정은 백성들의 여망을 좇아 법을 제정하여 주장에게 올렸다. 역시 주장은 이를 국군에게 올렸으며, 국군은 다시 황왕에게 올렸다. 그러므로 그 법은 모두 백성들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후세에는 어느 한 사람이 스스로 황제가 되어 자기의 자제와 종복들을 제후로 삼고, 제후는 자기 심복을 뽑아 주장을 삼으며, 주장 역시 자기 심복을 가려 당정·이정으로 삼았다. 그러므로 황제는 자기 욕망을 좇아 법을 제정하여 제후에게 내리고, 제후는 다시 자신의 욕망대로 법을 제정하여 주장에게 내린다. 이와 같이 주장은 당정에게, 당정은 다시 이정에게 내리니, 그 법은 통치자를 존송(尊崇)하고 백성을 비하하며, 아랫사람에게는 각박하고 윗사람에게는 너그럽게 되었다. 이렇듯 백성은 한결같이 목을 위하여 태어난 것처럼 되어 버렸다.

오늘날 수령들은 옛날의 제후와 같아져 궁실과 수레, 의복과 음식, 그리고 좌우의 시종을 거느린 것이 마치 국군의 그것에 비길 만하다. 또 그들은 넉넉히 다른 사람을 경복(慶福)할 만하고, 그들의 형률(刑律)과 위엄은 충분히 사람들을 두렵게 할 만하다. 결국 수령들은 오만스럽게 자신을 뽐내고, 태평스럽게 스스로 안일에 빠져서 자신이 목이라는 것을 망각하고 만다. 사람들이 분쟁을 일으켜 찾아가 판결을 구하면 번거로우 하면서 “왜 이렇게 시끄러우냐?” 하고, 굶어 주는 사람이 있으면 “제 스스로 죽은 것일 뿐이다.”라고 한다. 곡식과 피륙을 바쳐서 섬기지 않으면 곤장을 치고 몽둥이질을 하여 피가 흘러서야 그친다. [B]

날마다 거뒀던 돈꾸러미를 헤아려 낱알이 기록하고, 돈과 피륙을 부고하여 전답과 주택을 장만하여, 권세 있는 재상가에 뇌물을 보내 뒷날의 이익을 기다린다. 이리고서야 백성이 목을 위하여 태어난 것이어니와, 어찌 이것이 타당한 이치이겠는가?

* 목: 백성을 맡아 다스리는 자의 총칭.

39. [A]와 같이 묻게 된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목과 백성은 결국 평등한 인간일 뿐이므로
- ② 백성들의 목에 대한 태도는 달라져야 하므로
- ③ 목과 백성의 본질을 규명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 ④ 목과 백성을 구별하는 의의를 알 수 없으므로
- ⑤ 현실 속의 목과 백성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으므로

40. [B]에 나타난 수령의 형태와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가렴주구(苛斂誅求)
- ② 환골탈태(換骨奪胎)
- ③ 자중지란(自中之亂)
- ④ 부화뇌동(附和雷同)
- ⑤ 자승자박(自繩自縛)

41. 글쓴이의 태도에 대한 설명으로 볼 수 없는 것은?

- ① 자신이 처한 시대 현실을 고뇌하고 있다.
- ② 기본적으로 다수의 백성을 신뢰하고 있다.
- ③ 태고의 정치 체제를 이상적으로 보고 있다.
- ④ 신분제적 질서를 역사적으로 합리화하고 있다.
- ⑤ 통치자 선임과 법 제정 절차가 상응한다고 보고 있다.

42. 윗글이 궁극적으로 주장하는 바는?

- ① 민본주의 회복
- ② 배금주의 추방
- ③ 충효 사상 고취
- ④ 사회 기강 확립
- ⑤ 분배 정의 실현

43. 글쓴이가 백성을 보는 관점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천하의 공통된 원리는 통치자가 다른 사람을 사역(使役)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수많은 사령(使令)과 노복은 관직에 있는 자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 유형원(柳馨遠) -

② 옛날에 법을 만드는 일은 모두 백성을 이롭게 하고 풍속을 선도하려는 뜻에서 비롯하였다. 형벌을 가하는 데는 공정하게 하고, 털끝만큼도 사사로운 편견이 없었다.

- 우하영(禹夏永) -

③ 인주(人主)가 백성을 존중하면 천자가 되지만 그렇지 못하면 펠부가 되어 버린다. 그러므로 백성이란 '임금의 하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 이수광(李睟光) -

④ 한 나라의 일은 마땅히 온 나라 사람들과 더불어 도모해야 한다. 한 나라의 공론은 온 나라 사람과 함께 생각하는 의논이다.

- 최한기(崔漢綺) -

⑤ 백성 개개의 힘은 지극히 작지만 그 백성의 도움이 있어야 큰 일을 이루게 된다. 그러므로 나라를 이롭게 하기 위해서는 백성을 이롭게 하는 길밖에 없다.

- 이익(李穡) -

[44~4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1995.11

(가) 프랑스 시민 혁명 후에 나온 인권 선언문은 모든 인간이 평등하다고 천명하였다. 그러나 그 당시 법적인 평등권은 상당한 재산을 소유한 남성에게만 주어졌을 뿐이다. 시민 혁명에 동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성과 신분이 낮은 남성에게는 법적인 평등권이 주어지지 않았다. 그리하여 프랑스 혁명 발발 2년 후인 1791년 올랭프 드 구즈를 중심으로 자유와 평등, 참정권을 주장하는 ‘여성 선언’이 발표되었고, 1792년 영국에서는 윌스톤 크라프트가 여권 옹호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나섰다.

(나) 여성의 평등권에 대한 주장과 요구는 19세기에 그대도 이어졌으나 여성이 법적인 시민권, 곧 보통 선거권을 획득한 것은 20세기 초의 일이다. 그 후 한동안 침체했던 여성 운동은 1960년대부터 다시 활성화되어 성 역할의 개선, 교육과 고용의 평등, 가사 노동의 가치 인정 등 여성의 자율과 평등에 관한 법률적 보장에 노력을 기울였다. 이와 더불어 여성 취업은 양적으로 늘어나고 여성의 사회적 지위도 어느 정도 상승되었다.

(다) 여성 문제에 관한 이론도 다양해지고 체계화되었다. 초기 여성 운동을 주도해 왔던 자유주의적 여성 해방론 외에 마르크스주의 여성 해방론, 사회주의 여성 해방론, 급진주의 여성 해방론 등이 새로이 출현하였고, 성차별의 사회화에 관한 문제들이 사회학과 심리학 분야에서 발전적으로 논의되었다. 이로써 남녀의 능력 차이는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적 환경과 교육에 의한 결과라는 사실이 이론적으로 뒷받침되었다. 또 가부장제 사회에서 남녀의 성 역할과 성격 형성이 사회적, 문화적 특성에 따라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이 인류학 분야의 연구를 통해서 밝혀지기도 하였다. 그 결과 사회적 역할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본질적으로 더 우월한 존재는 아니며, ① ‘여성다움’과 ‘남성다움’이라는 고정 관념은 성차별의 사회화 결과로서 그릇된 인간관을 형성시키는 원인이 된다는 인식이 사회적으로 확산되었다.

(라) 그러나 이것으로써 남녀의 불평등 구조가 아주 개선된 것은 아니다. 남편은 생산 활동을 하고 부인은 가사를 전담하는 식으로 가정에서의 남녀 역할이 엄격하게 구분되어 있는 한, 생산 활동에서 소외된 여성은 경제적으로 남성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다. 여성이 사회에 진출하는 경우에도 여성은 남성에게 비해 많은 차별 대우를 받는다. 여성이 직업을 갖는 일이 점차 늘어 가고는 있으나, 여성의 노동력은 자본가의 필요에 따라서 이용되거나 버려지기 쉬운, 매우 불안정한 고용 상태에 놓여 있다. 임금 역시 여성은 대체로 남성에게 비해 적은 편이다. 그렇지만 이처럼 불안정한 고용과 낮은 임금의 조건 속에서도 일하지 않을 수 없는 대수수의 저소득층 여성들로서는 자본을 위해 값싼 노동력의 ㉠ 저수지 역할을 그만둘 수가 없는 것이다. 그리고 생산 활동에 참여할 때에도 가사 노동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이들은 직장과 가정에서의 이중 역할로 인한 정신적, 신체적 고통에 시달리게 된다.

(마) 오늘날 여성의 지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점차 개선되고 있다. 그렇지만 여성의 가치나 능력에 대한 평가는 여전히 잘못되어 있다. 사회의 구성이나 역할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을 볼 때, 이것은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가 된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은 사회 구성원 각자의 인식 변화를 통하여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실질적인 남녀 고용 평등과 육아에 관한 법규를 개정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동시에 ㉡ 여성에 대한 편견을 극복하기 위한 교육적인 노력도 병행하여야 할 것이다.

44.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 ① 1960년대 이후에 남녀 간의 사회적 지위는 대등해졌다.
- ② 20세기 이전까지는 여성의 참정권이 보장되지 않았다.
- ③ 여성의 지위는 개인의 인식 변화를 통하여 개선해야 한다.
- ④ 여성들은 가사 노동 때문에 생산 활동에 참여할 수가 없다.
- ⑤ 프랑스 혁명 직후에는 모든 사람에게 시민권이 보장되었다.

45. 각 단락에서 평등에 관하여 말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 선언적 평등
- ② (나): 법률적 평등
- ③ (다): 사회적 평등
- ④ (라): 경제적 평등
- ⑤ (마): 교육적 평등

46. 윗글에서 말하지 않은 것은?

- ① 여성 문제를 개선하는 방안
- ② 여성 운동이 전개되어 온 과정
- ③ 여성 문제에 관한 이론의 발전
- ④ 여성이 사회에서 차별되는 현실
- ⑤ 여성의 사회적 기여에 대한 평가

47. ㉠이 가장 잘 드러난 것은?

- ① 우리 언니는 마음이 좋아서 좀처럼 화를 내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빠보다 언니를 더 좋아하지요.
- ② 요즘엔 사내아이들이 여자애들보다도 못한 것 같아요. 오히려 여자애들보다 더 나약하니,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 ③ 그 애가 공부를 잘하는 건 다 아버지 때문이야. 그 애 아버지는 어릴 때부터 아주 똑똑하다고 동네에서 소문이 났거든.
- ④ 어머니로부터 감정적으로 독립하지 못한 남성은 아내에게서 강한 모성을 느끼는 법이지요.
- ⑤ 대부분의 결혼한 여성들은 남편을 내조하면서 사회 활동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많은 여성들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고 있지요.

48. 문맥상 ㉠과 바꿔 쓸 수 있는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원천(源泉)
- ② 수문(水門)
- ③ 공급원(供給源)
- ④ 양성소(養成所)
- ⑤ 제조실(製造室)

49. ㉠의 논리적 전제로 볼 수 없는 것은?

- ① 남녀 평등은 실현되어야 한다.
- ② 여성의 능력을 개발해야 한다.
- ③ 교육은 인간을 변화시킬 수 있다.
- ④ 실질적인 남녀 평등이 실현되지 않고 있다.
- ⑤ 편견이 여성 문제 해결의 장애가 되고 있다.

[50~5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1995.11

(가) 과학 이론은 우리가 세계를 보는 눈이기도 하다. 흔히 과학이란 관찰과 경험에 토대를 두고 있기 때문에 어떤 과학 이론도 관찰 결과와 일치하지 않으면 수정되거나 폐기될 수밖에 없다고들 생각한다. 경험된 사실들을 토대로 해서 형성된 과학 이론은 자연 현상에 대해 기술하고 예측하는 데 그 존재 이유가 있는 것이므로, 어떤 이론에서 예측된 내용이 실제 관찰 결과와 일치하지 않을 때 그 이론은 쓸모가 없다는 것이다. 이런 견해에 따르면 관찰 결과가 이론의 생사를 결정하는 잣대가 된다.

(나) 그러나 관찰과 이론의 관계가 항상 그렇게 일방적인 것만은 아니다. 뉴턴의 예를 들어 보자. 뉴턴은 중력과 운동에 관한 이론을 발표하여 과학사상 거의 유례가 없는 존경과 찬사를 받았다. 그러나 그 당시 뉴턴의 이론이 모든 관찰 결과와 일치하지는 않았다. 천문 학자들은 뉴턴의 이론을 근거로 예측한 달의 운동이 관찰 결과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턴은 자신의 이론을 수정하거나 포기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천문학자들에게 달을 관찰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해서 다시 관찰하도록 충고하였다. 천문학자들은 뉴턴의 충고를 따라서 그들의 관찰 방법을 수정하였고, 그 결과 자신들의 오류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천문학자들이야말로 격이라 할 수 있다.

(다) 뉴턴의 이론이 발표된 이후 거의 한 세기가 지나서 천문학자들은 다시 천왕성의 궤도가 뉴턴의 이론이 예측한 위치에서 벗어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도 그들은 뉴턴의 이론을 의심하지 않았다. 따라서 천왕성의 궤도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행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이르렀다. 그들은 뉴턴의 이론을 토대로 그 행성의 위치와 질량을 계산해서 추적한 결과 실제로 해왕성이라는 새로운 행성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것은 이론이 새로운 발견을 유도한 사례이다. 이처럼 과학자들이 이론에 모순되는 관찰 결과가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의 이론을 쉽게 포기하지 않은 예는 과학사에 드물지 않다.

(라) 뉴턴의 이론은 그것을 신뢰했던 많은 과학자들에 의해서 명료하게 다듬어졌고, 과학사에 탁월한 업적으로 길이 남게 되었다. 이와 같이 권위 있는 과학 이론은 토마스 쿤이 말하는 패러다임의 역할을 한다. 패러다임이란 과학자 사회의 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있는 신념, 가치, 기술 등의 총체를 말한다. 패러다임은 과학적으로 탐구할 만한 문제를 규정해 주고, 과학자들이 취할 수 있는 문제 해결 모형을 제공하며, 연구 결과의 타당성을 분별하는 기준이 된다. 과학에서 패러다임의 존재는 거의 절대적이어서, 과학자들은 패러다임을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보호하려고 한다. 따라서 패러다임과 일치하지 않는 관찰 결과가 나왔을 때, 과학자들은 이론을 의심하기보다 관찰 결과를 재해석하고 새로운 실험을 통해서 그 불일치를 해결하려고 노력한다.

(마) 그러나 이론에 모순된 관찰 결과들이 증가하면 패러다임은 위기를 맞게 된다. 그렇게 되면 그런 관찰 결과들을 해석하기 위한 ㉠ 새로운 이론들이 쏟아져 나와 서로 경합하는 ㉡ 혼돈(混沌)의 시기로 접어들게 한다. 이때에도 과학자들은 하나의 이론이 승리하여 ㉢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확립되기까지 기존의 패러다임을 포기하지 않는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 이론에 모순되는 관찰들, 다시 말해서 이론이 옳지 않다는 것을 보여 주는 반례(反例)들을 앞에 놓고서도 기존의 과학 이론을 포기하지 않는 과학자들의 태도는 도저히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러한 과학자들의 태도가 불합리하다고 말할 수만은 없다. 과학적 이론이란 세계를 보는 도구이며, 도구 없이 세계를 본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50. 각 단락의 핵심 내용과 거리가 먼 것은?

- ① (가): 이론이 관찰에 의해 좌우된다는 통념
- ② (나): 이론이 관찰 방법을 수정시킨 사례
- ③ (다): 이론이 새로운 발견을 유도한 사례
- ④ (라): 패러다임의 성립과 이론적 근거
- ⑤ (마): 패러다임에 대한 과학자들의 태도

51. (나)의 내용으로 보아 ㉠에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길러 준 개 주인 문
- ② 돈 잃고 친구 잃은
- ③ 다 된 밥에 재 뿌린
- ④ 소 잃고 외양간 고친
- ⑤ 흑 때러 갔다가 흑 불인

52. ㉡의 사전적 의미는?

- ① 몹시 어수선하고 시끌벅적함.
- ② 무질서하게 뒤섞여 몹시 복잡함.
- ③ 뒤숭숭하고 수선스러워 어질어질함.
- ④ 뒤범벅이 되어 구별이 확실하지 않음.
- ⑤ 구별되어야 하는 것들이 같은 것으로 취급됨.

53. ㉔에 대한 과학자들의 답변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관찰 결과를 중시해야만 하니까요.
- ② 그것은 성급한 비판입니다. 새로운 대안이 없는 한, 완전하지 않은 이론일지라도 버릴 수는 없으니까요.
- ③ 그렇게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과학자들은 모름지기 자기 이론에 대해 확신을 가져야 하니까요.
- ④ 유감이지만 사실 그런 면이 없지 않습니다. 관찰과 모순되는 이론이란 존재 가치가 없는 것이니까요.
- ⑤ 뉴턴의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자기 주장을 견지하다 보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으니까요.

54. ㉑:㉒의 관계와 가장 유사한 것은?

- ① 장미:꽃
- ② 물고기:강
- ③ 악어새:악어
- ④ 후보자:당선자
- ⑤ 어머니:아버지

55. 뉴턴의 이론이 패러다임이라는 것을 보여 주는 사실이 아닌 것은?

- ① 뉴턴의 이론은 과학자 사회의 신뢰를 받았다.
- ② 뉴턴의 이론에 따라 새로운 행성을 발견하였다.
- ③ 뉴턴은 중력과 운동에 관한 이론을 발표하였다.
- ④ 뉴턴의 이론은 과학자들의 문제 해결에 모형을 제공하였다.
- ⑤ 뉴턴의 충고대로 천문학자들은 달에 대한 관찰 방법을 수정하였다.

[56~6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1995.11

6세기 초반, 가야국의 가실왕이 중국의 악기를 모방하여 가야금을 처음 만들었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보다 오래전의 것으로 추정되는 신라 고분에서 오늘날의 가야금과 같은 모양의 악기를 들고 있는 흙인형이 출토되었고, 3세기 후반 중국 진(晉)나라의 진수(陳壽)가 쓴 『삼국지』에 우리나라 남부 지방(변진(弁辰))에 지금의 가야금 비슷한 현악기가 존재하였다는 기록도 남아 있다. 이런 점으로 미루어 가실왕의 가야금 창제설, 특히 중국 악기의 모방이라는 『삼국사기(三國史記)』의 기록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고, 오래전부터 전해 오던 우리 악기를 가실왕이 중국 악기를 참조하여 개량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가야국의 악사인 우륵이 신라에 투항하고, 그를 통하여 가야의 음악이 신라에 정착되는 과정은 당시의 음악 사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기에 『삼국사기』의 기록을 인용해 본다.

신라의 옛 기록에 의하면, 가야국의 가실왕이 당나라의 악기를 보고 가야금을 만들었다. 왕이 “여러 나라의 방언이 서로 다른데 어찌 음악이 같을 수 있겠는가?” 하며 악사 우륵에게 명하여 열두 곡을 만들게 하였다.

나중에 그 나라가 혼란에 빠지자 우륵은 악기를 들고 신라 진흥왕에게 투항하였다. 왕은 우륵을 맞아들여 국원(國原)에 살게 하고, 계고·범지·만덕 세 사람으로 하여금 우륵의 음악을 전수받게 하였다. 세 사람이 그 음악을 다 배운 후 서로 의논하기를 “이 음악은 번거롭고 거칠어 아정(雅正)하지 못하다.” 하고, 이를 줄여 다섯 곡으로 만들었다.

우륵이 이를 듣고 크게 화를 내었으나, 다섯 곡의 음악을 다 듣고 나서는 감탄의 눈물을 흘리며 “재미있으며 저속하지 않고 [樂而不流], 슬프되 비통하지 않으니 [哀而不悲] 가히 올바른 음악이다. 그러니 왕께 나아가 연주하여라.” 하였다. 왕이 음악을 듣고 크게 기뻐하자, ㉠ “가야는 망한 나라인데, 그 나라의 음악을 취하는 것은 온당치 못한 일입니다.” 하고 신하들이 간언하였다. 그러자 왕은 “왕이 나라를 잘못 다스려 망한 것이지 음악이 무슨 죄가 있는가?” 하며 이 음악을 취하여 신라의 궁중 음악으로 삼았다.

『삼국사기』에는 우륵이 작곡한 열두 곡의 이름을 전하고 있는데, 이들 음악은 민요처럼 당시 가야 여러 지방의 향토적인 특성이 강하게 드러난 음악이었던 것 같다.

진흥왕이 우륵을 만난 낭성(娘城)은 지금의 청주 지방인데, 왕은 그를 지금의 충주인 국원에 살도록 하였다. 그리고 신라의 관리 세 사람을 선발하여 그에게서 음악을 배우도록 하였는데, 우륵은 제자들의 재능을 ㉡ 헤아려 계고에게는 가야금, 범지에게는 노래, 만덕에게는 춤을 가르쳤다고 한다. 우륵은 고향 생각이 날 때면 멀리 고향 하늘이 바라보이는 언덕에 올라 가야금으로 향수를 달랬는데, 그 언덕이 바로 지금의 탄금대(彈琴臺)이다.

56. 글쓴이가 『삼국사기』의 기록을 그대로 믿기 어려워하는 이유는?

- ① 우륵이 가야금을 만들었기 때문에
- ② 외국의 악기를 모방하였다는 점 때문에
- ③ 가야의 사실을 신라인이 기록하였기 때문에
- ④ 고고학적인 연구 결과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 ⑤ 삼국 시대의 사실을 고려 때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57. 윗글에 나타난 우륵의 음악관(音樂觀)은?

- ① 향토적인 특성이 담겨야 훌륭한 음악이다.
- ② 번거롭고 거친 음악은 아정한 음악이 아니다.
- ③ 망한 나라의 음악은 결코 훌륭한 음악이 될 수 없다.
- ④ 나라마다 말이 다르듯이 각 나라의 음악도 달라야 한다.
- ⑤ 기쁨과 슬픔의 감정이 짙게 표현된 것은 바르지 못한 음악이다.

58. 윗글의 내용으로 미루어 알 수 없는 것은?

- ① 가실왕의 가야금 창제설은 문헌적 근거가 있다.
- ② 우륵은 악(樂), 가(歌), 무(舞)에 능한 인물이었다.
- ③ 민요는 향토적인 특성이 강하게 드러나는 음악이다.
- ④ 신라 사람들은 주술적인 목적으로 흙인형을 만들었다.
- ⑤ 우륵은 적성에 따른 전문 교육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다.

59. ㉠과 같은 형태의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은?

- ① 그가 발표한 새로운 이론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는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후진국에서 온 학자인데 그런 사람이 제대로 된 이론이 뭔지 알기나 하겠습니까?
- ② 구름은 수증기의 응결체라고 한다. 그런데 원래 수증기의 입자는 너무 작아서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구름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 ③ 내가 어제 갈비를 뜯다가 이를 부러뜨릴 뻔했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절대로 갈비를 먹어서는 안 돼. 잘못하면 이가 부러진다.
- ④ 이 과목마저 낙제를 하면 전 졸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제 어머니께서 얼마나 낙담하시겠습니까? 그러니 선생님, 낙제만은 면하게 해 주십시오.
- ⑤ 신은 존재한다. 왜냐하면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성경의 기록은 모두 진리이다. 그것은 신의 계시이므로.

60. ㉡의 문맥상 의미와 거리가 먼 것은?

- ① 참작하여 ② 계산하여 ③ 판단하여
- ④ 고려하여 ⑤ 감안하여

[14~1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1994.제2차 수능

㉠ 학문의 궁극적 목적은 무엇인가? 학문이 실생활에 유용하고 그 자체의 추구가 즐거움을 가져오는 것은 모두가 학문이 다름 아닌 진리를 탐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실용적이지 않거나, 또는 재미가 나는 것이니까 진리요 학문인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인간 생활에 유용한 것이요, 재미도 나는 것이다. 유용하다든지 재미가 난다는 것은 학문에 있어서 부차적으로 따라올 것이요, 그것이 곧 궁극적인 목적이라고까지 말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학문의 목적은 진리 탐구 그것에 있다. 이렇게 말하면 또 진리의 탐구는 해서 무엇하나 할지 모르나, 학문의 목적은 그로써 족한 것이다. 진리 탐구로서의 학문의 목적이 현실 생활과 너무 동떨어져 우원(迂遠)함을 탓함직도 하다. 그러나 오히려 ㉡ 학문은 현실 생활로부터 유리(遊離)된 것처럼 보일 때, 가끔 그의 가장 풍성한 축복을 현실 생활 위에 내리는 수가 많다.

세상에서는 흔히 학문밖에 모르는 상아탑 속의 연구 생활을 현실을 도피한 것이라고 비난하기가 일쑤지만, 상아탑의 덕택이 큰 것임을 알아야 한다. 모든 점에서 편리해진 생활을 향락하고 있는 현대인이 있기 전에 그런 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도 오히려 그런 향락과는 담을 쌓고 진리 탐구에 몰두한 학자들의 상아탑 속에서의 노고가 앞서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고 남의 향락을 위하여 스스로는 고난의 길을 일부러 걷는 것이 학자는 아니다.

학자는 그저 진리를 탐구하기 위하여 학문을 하는 것뿐이다. 상아탑이 나쁜 것이 아니라, 진리를 탐구해야 할 상아탑이 제구실을 옹기 다하지 못하는 것이 탈이다. 학문에 진리 탐구 이외의 다른 목적이 선불리 앞장을 설 때, 그 ㉢ 학문은 자유를 잃고 왜곡될 염려조차 있다. 학문을 악용하기 때문에 오히려 좋지 못한 일을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진리 이외의 것을 목적으로 할 때, 그 학문은 한때의 신기루와도 같아 우선은 찬연함을 자랑할 수 있을지 모르나, 과연 학문이라고 할 수 있을까부터가 문제다.

진리의 탐구가 ㉣ 학문의 유일한 목적일 때, 그리고 그 길로 매진할 때, 그 무엇에도 속박됨이 없는 숭고한 학적인 정신이 만남을 극복하는 기백을 길러 줄 것이요, 또 그것대로 우리의 인격 완성의 길로 통하게도 되는 것이다.

학문의 본질은 합리성과 실증성에 있고, 학문의 목적은 진리 탐구에 있다. 위무(威武)로써 굽힐 수도 없고, 영달로써 달랠 수도 없는 학문의 ㉤ 학문으로서의 권위도 이러한 본질, 이러한 목적 밖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14. 윗글의 서술 방법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 ① 사실의 대조와 검증을 통해 설득하고 있다.
- ② 자문자답의 방법으로 논지를 확대하고 있다.
- ③ 대조와 역설의 방법으로 논지를 전개하고 있다.
- ④ 부정을 다시 부정함으로써 긍정적 결론에 이르고 있다.
- ⑤ 예상되는 다른 의견을 비판함으로써 주장을 강화하고 있다.

15. 윗글의 내용과 가장 가까운 삶의 태도를 보이는 것은?

- ①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칫이 얽어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어져 백 년까지 누리리라.
- ② 시대가 급전이면 그만인데 돈이나 몇백 냥 내라고 하야 우리 끼리 나누면 샌님도 좋고 나도 돈 냥이나 벌어 쓰지 않겠소.
- ③ 누군들 백이숙제(伯夷叔齊)가 되고 싶지 않으랴. 나만 깨끗이 굶어 죽으면 처지는 어찌느냐. 범의 굴에 들어가야 범을 잡지 않겠느냐.
- ④ 군자가 배부름과 편안함을 구하지 않으며, 일에 빨리 하며, 말씀을 삼가고, 도(道)에 나아가 질정(質正)하면 가히 배우기를 즐긴다 할지니라.
- ⑤ 대장부가 대장인(大將印)을 요하(腰下)에 빗기 차고 동정서벌(東征西伐)하여 국가에 대공을 세우고 이름을 만대에 빛냄이 장부(丈夫)의 쾌사(快事)이라.

16. ㉠~㉤ 중, <보기>에서 ㉢의 밑줄 친 예처럼 쓰인 것은?

<보 기>

- ㉠ 학생은 학교에서 공부하는 사람이다.
- ㉡ 우리는 학생답게 행동해야 한다.
- ㉢ 옆 집의 학생은 키가 크다.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22~2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1994.제2차 수능

예술이란, 일반적인 기술과 달라서 우리의 일상생활에 유용한 지식을 직접적으로 가르쳐 주지는 않는다. 그보다 예술은 인간의 심령에 작용하여 우리 인간 삶의 근원적인 힘이 된다. 그러면 예술이란 과연 우리 인간에게 어떤 점에서 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인가? 예술은 설명하기 어려운, 실로 다양한 여러 가지 기능을 지니지만 그것은 대체로 미적 기능과 사회적 기능 두 가지로 구분된다.

미적 기능이란 쾌락적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으로서 예술이 주는 ㉠감동적 자극을 의미하며, 사회적 기능이란 교시적(敎示的)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으로서 예술이 주는 정치적, 교육적, 도덕적인 여러 종류의 광범한 ㉡사회적 영향을 의미한다.

[A] 근대 이전의 문학은 대체로 윤리적 이념을 추구해 왔다. 이것은 고소설(古小說)에서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그렇다고 고소설이 도덕적, 윤리적 교화 수단으로서만 존재해 왔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것이 도덕적, 윤리적 의미를 강하게 지녔던 것은 도덕적, 윤리적인 문체의 제시와 해결이 문학이 지닌 본래의 기능의 하나였기 때문이다. 생성기(生成期)의 고대 예술, 가령 무용이나 음악 같은 것이 ㉢노동의 장려를 위하여 많이 이용되었다고 해서 그러한 고대 예술이 노동을 위한 수단이나 방법만에 그쳤다고 말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B] 이러한 여러 가지 기능은 물론 예술 자체의 본원적(本源的)인 기능인 미적 기능과 결부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여러 종류의 사회적 기능 그 자체가 예술의 전적인 기능 이거나 또는 그것이 예술의 목적이었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만일 그러한 여러 종류의 사회적 기능을 예술의 전적인 기능이라고 본다면, 예술은 정치나 도덕 또는 그 밖의 여러 가지의 문화적 사상(事象)과 구별되지 못할 것이다. 여러 가지 형태의 사회적 기능에도 불구하고 예술을 정치나 도덕과 같은 다른 문화적 사상과 구별하는 것은 ㉣예술의 사회적 기능은 예술의 미적 기능과 항상 결부되어 있는 까닭이다. 이 때문에 예술의 사회적 기능은 그 결과나 영향에 있어 예술 이외의 정치적, 도덕적, 그 밖의 여러 가지 종류의 ㉤사회적 사상(事象)과는 달리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물론 또 다른 이유도 있다. 그 다른 이유란 예술은 ㉥가정적(假定的) 상상(想像)의 산물이기 때문에 실제적인 현실적 산물과는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과 예술의 사회적 기능은 반드시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사회적 목적이나 동기가 그 전부는 아니라는 점이다.

22. 윗글의 주장에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예술은 궁극적으로 사회적 기능을 지향한다.
- ② 생성기의 고대 예술은 사회적 기능만을 중시하였다.
- ③ 미적 기능과 사회적 기능은 예술의 본원적 기능이다.
- ④ 예술은 가정적 상상의 산물이기 때문에 사회적 기능을 지닌다.
- ⑤ 미적 기능과 연관되지 않은 사회적 기능은 예술의 기능이라 할 수 없다.

23. ㉣의 관점이 가장 잘 나타나 있는 것은?

- ① 「운수 좋은 날」은 행운과 불행, 운명에 대한 무지와 깨달음이라는 반이적 구조를 통하여 1920년대 일제 강점기의 궁핍한 시대상과 사회상을 보여 준다.
- ② 「동백꽃」은 1930년대를 배경으로 우리 농촌 사회의 계층 간의 갈등이 상호 비방적인 갈등이 아니라, 화해와 융합의 공동체적 삶의 한 방식으로서의 갈등임을 보여 준다.
- ③ 「진달래꽃」의 서정적 자아인 ‘나’는 여성이고, ‘꽃’은 자아의 분신이다. 이 시는 ‘즈러 밧히는’ 외상(外傷)과 내면적 회생을 달게 받아들일겠다는 역설적 의미를 표상하고 있다.
- ④ 「와사동」은 아무것도 믿고 의지할 수 없는 어두운 현실 속에서 방향도 없이 어디론가 떠나가야만 하는 공허와 비애로 가득 찬 현대인의 고독과 불안 의식을 노래한다.
- ⑤ 「홍부전」에서는 불의한 방법으로 수탈을 하고 돈을 번 놀부가 패가망신하는데, 이는 흥부와 처지가 같은 서민층이 놀부 같은 계층에 대해서 갖는 적대 의식의 표현이다.

24. ㉠~㉥ 중, <보기>와 가장 관련이 깊은 것은?

<보 기>

현실은 우리의 일상적 삶의 공간이자, 모든 행위와 가치의 출발점이기도 하다. 작가는 현실과 동떨어져서 존재할 수 없고, 작품 역시 그러한 작가적 현실을 어떤 방식으로든 매개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작가는 ‘누구를 위해 쓰는가’를 항상 유념하면서 현실에 대한 새로운 안목(眼目)을 끝없이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는 현실을 생생히 묘파(描破)해 내고 있는 작품을 통해서 현실을 새롭게 인식하게 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25. 밑글에서 [A]와 [B]로 표시된 두 문단의 관계를 가장 잘 설명한 것은?

- ① [A]에서 예시된 것들이 [B]에서 상세하게 분석되고 있다.
- ② [A]에서 주장된 점이 [B]에서 다른 국면에 적용되고 있다.
- ③ [A]에서 주장된 점이 [B]에서 예를 통하여 설명되고 있다.
- ④ [A]에서 예를 통해 논증된 주장이 [B]에서 부정되고 있다.
- ⑤ [A]에서 예를 통해 주장된 점이 [B]에서 부연, 심화되고 있다.

[26~2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1994.제2차 수능

풍속화란 말할 것도 없이 인간의 풍속을 그린 그림을 의미한다. 따라서 한국 풍속화는 한국의 풍속을 묘사한 그림으로서 이에 대해서는 광의와 협의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넓은 의미에서 풍속화는 인간의 여러 가지 행사, 습관이나 인습, 그밖에 생활 속에 나타나는 일체의 현상과 실태를 표현한 것을 뜻한다고 하겠다. 즉, 왕실이나 조정의 각종 행사, 사대부들의 여러 가지 문인 취미의 행위나 사슴(士習), 일반 백성들의 다양한 생활상이나 전승 놀이, 민간 신앙, 관혼 상제와 세시 풍속 같은 것들을 묘사한 그림들이 모두 이 개념 속에 포괄된다고 볼 수 있다.

반면에 좁은 의미의 풍속화는 소위 ‘속화’라고 하는 개념과 상통한다고 하겠다. 이때의 ‘속(俗)’이라는 것은 단순히 풍속이라는 뜻이 아니라 ‘저급한 세속사’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이러한 개념의 풍속화는 지체 높은 사대부들의 품위 있는 생활과는 다른, 이른바 ‘속된 것’을 묘사한 그림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풍속화는 ㉠ 속인배(俗人輩)에게 환영받던 시정사(市井事), 서민의 잡사(雜事), 경직(耕織)의 점경(點景) 등을 묘사한 그림으로서 조선 후기의 김홍도나 신윤복의 작품들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 풍속화는 인간의 생활상을 적나라하게 표현해야 하므로 무엇보다 먼저 사실성을 중시하지 않을 수 없다. ㉡ 또한 인간 생활의 여러 단면들을 사실적으로 다루어야 하므로 자연히 많은 적든 기록적 성격을 지니게 된다. ㉢ 그러므로 이 사실성과 넓은 의미에 있어서의 기록성은 풍속화의 일차적인 요건이며 생명이라고 할 수 있다. ㉣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느 한 가지만 결여되어도 진실된 풍속화라고 보기 어렵다. ㉤ 또한 풍속을 추상적으로 표현한다거나, 현대의 화가가 현대의 풍속을 외면하고 조선 시대의 풍속을 상상해서 그린다면 그러한 그림들도 풍속화로서의 생명력을 지닐 수가 없게 된다. ㉥ 그러므로 풍속화는 사실성, 기록성과 함께 시대성이 언제나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이 밖에도 풍속화는 보는 이에게 공감과 감동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정취’, ‘시정(詩情)’, ‘감각미’ 같은 것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요건들을 모두 갖춘 풍속화는 어느 분야의 회화보다도 보는 이의 피부와 가슴에 와닿는 호소력을 지니게 된다. 김홍도나 신윤복의 풍속화가 당시의 조선 시대만이 아니라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까지도 많은 공감과 즐거움을 느끼게 해주는 이유는 그들의 작품들이 사실성, 기록성, 시대성과 함께 한국적 정취를 구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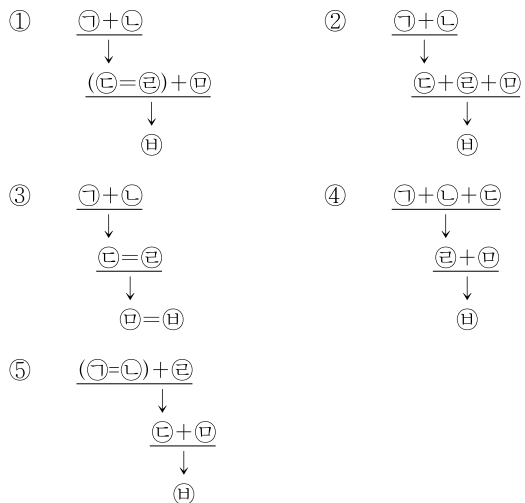
26. 윗글에서 알 수 없는 것은?

- ① 풍속화의 정의
- ② 풍속화의 특성
- ③ 풍속화의 대상
- ④ 풍속화의 범주
- ⑤ 풍속화의 전통

27. ㉠와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정월(正月)이라 십오일에 새해로다 새해로다
찬란한 오색 옷을 갖추갖추 같이 입고
떼를 지어 노니는 정월이라 새해로다
- ② 온 겨울을 떠돌고 와
여기 있는 낯선 지역을 바라보노라
나의 마음 속의 처음으로
눈 내리는 풍경
- ③ 새끼 꼬아 모디여서 벼도 묶고 짚도 묶고
짚 멍석 맨드러서 나락 넣고 서속 널자
빠야 온 뿌리광술 무덕무덕 불을 놓고
여기저기 느러안자 저녁마다 열거낸다.
- ④ 육조(六曹) 앞 넓은 길을 울며 뛰며 뒹굴어도
그래서 넘치는 기쁨에 가슴이 미어질 듯하거든
드는 칼로 이 몸의 가죽이라도 벗기어
커다란 북을 만들어 들쳐메고는
- ⑤ 두터비 파리를 물고 두힘 우에 치달아 안자
것넌 산 바라보니 백송골(白松골)이 떠 잇거늘
가슴이 급죽하여 풀덕 뛰어 내닷다가 두힘 아래 자빠지거고
모쳐라 날넌 널시망정 예힐질 번 하괘라

28. [A]의 논리적 구조를 가장 잘 나타낸 것은?



[33~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1994.제2차 수능

(가) 역사적 사실은 보편적 법칙이 적용되는 것인가, 아니면 특수한 것인가? 이 문제는 역사학자들의 지속적 관심과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다. 이 문제의 양편에 선 학자들은 각기 자기 관점을 심화하고 확장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나) 인간과 사회에 대한 계몽주의의 보편주의적 관점에 반기를 들고 출범한 독일 역사주의는 역사적 사실의 특수성을 주장한 대표적 관점이었다. 계몽주의 사상가들은 자연 세계를 지배하는 보편적 법칙들이 인간과 사회를 지배하며 바로 그 법칙들이 인간과 사회를 설명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관점에 반기를 들면서 발달한 역사주의에서는 역사적 사실이 가지는 고유하고 특수한 가치가 무엇보다도 중시되었다. 역사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은 그들 나름의 이유와 타당성을 가진 것들로 취급되었으며, 이들에 어떤 보편적 법칙이 작용한다고는 상정되지 않았다. 역사학자의 임무는 사료 조사를 통해서 역사적 사실의 특수성을 밝히는 데 있었다.

(다) 역사주의 이래 역사적 사실의 특수성에 관한 논의는 다양하게 전개되어 왔다. 이 중 특수성을 극단적으로 강조하는 일부 학자들은 역사 전체를 운행하는 보편적 법칙을 인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집단이나 시대에 대한 일반론도 역사적 설명으로서의 타당성을 갖지 못한다고 주장해 왔다. 어떤 집단이나 시대가 일반적인 동향, 분위기 등을 갖고 있어도 이들에 대한 설명은 결국 개인의 행동과 의식을 ㉠ 살피야 가능하다는 것이다. 역사적 사실의 특수성을 지나치게 개인의식에 의거해서 설명하고자 하는 경향은 그 반대파에 의해 심리주의라고 비판받기도 한다. 사람들의 행동이 어떤 사회적 현상으로 나타날 때, 그 사회적 현상에 관해서 서술은 가능하다고 인정하지만 정작 그에 대한 설명은 현상을 일으킨 개인의 심리 작용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라) 보편성을 강조하는 학자들은 역사 전체를 거대한 체제의 변동으로 본다. 역사 전체가 보편적 법칙에 따르고 있으며 그 법칙에 의해 단계적 변동을 한다는 것이다. 특수한 역사적 사실들은 보편적 법칙에 종속되어 있고 변동의 특정 단계에 놓여 있다. 개인의 의식이라는 것도 독립변수적인 것이 아니라 개인과 그가 속한 사회적 조건과의 상호작용에서 생겨나는 것이며 그 상호 작용에 대한 설명은 결국 보편적 법칙에 의거한다.

(마) 특수성과 보편성에 관한 논쟁은 결론에 도달될 성격이 아니다. 보편적 법칙들을 제아무리 교묘하게 배합해도 단 한 가지 역사적 사실도 얻어낼 수 없고, 역으로 보편적 법칙에 의존하지 않고서는 사실들을 연결 짓거나 사실의 궁극적인 역사적 의미를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33. 각 단락의 내용을 잘 정리하지 못한 것은?

- ① (가): 역사적 사실에 대한 두 관점
- ② (나): 특수성을 강조하는 관점
- ③ (다): 역사적 개인주의의 타당성
- ④ (라): 보편성을 강조하는 관점
- ⑤ (마): 두 관점의 한계

34. (다)의 관점을 취하는 역사가의 연구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사실을 설명할 수 있는 가설을 세우고, 관찰을 통해 그 사실을 입증한다.
- ② 한 집단이나 시대의 일반적 동향을 파악하고, 이 동향을 지침으로 삼아 사실을 설명한다.
- ③ 사료(史料)를 통해 인물의 의도, 신념 등을 찾아내고, 이렇게 하여 파악된 그 의식에 근거하여 사실을 설명한다.
- ④ 여러 집단과 여러 시대에 나타난 다양한 사례들을 종합하여 일반적 원리를 추출하고, 그 원리를 연구 대상에 적용한다.
- ⑤ 사실이 역사 발전 법칙에 따라 형성된 여러 단계 중 어느 위치에 해당하는가를 판단하고, 그 위치에 근거하여 사실을 설명한다.

35. (가)~(마) 중, <보기>와 가장 관련이 깊은 것은?

—<보 기>—

프랑스 혁명기 지식인들의 의식은 당시 프랑스의 사회적 조건 속에서 형성되었고, 그 사회가 처했던 인류 역사 변동의 특정 단계를 반영하는 것이었다.

- ① (가) ② (나) ③ (다) ④ (라) ⑤ (마)

36. ㉠의 문맥상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가정(假定)해야
- ② 보완(補充)해야
- ③ 구명(究明)해야
- ④ 성찰(省察)해야
- ⑤ 반영(反映)해야

[43~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1994.제2차 수능

경제학은 인간의 합리성을 강조한다. 일반적으로 경제 법칙은 합리적인 사람이 많고 국민의 의식 수준이 높은 사회에 잘 적용되는 법칙이다. 따라서 아무리 경제 정책이 좋다고 하더라도 그 구성원의 자질이 떨어질 때는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없다. 그리고 경제 문제에 대한 과학적 분석과 처방이 나왔다 하더라도 경제 동향에 미치는 ㉠ 민심의 흐름이나 경제 사회 분위기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현실 사회에 그 처방을 물리적으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 경제의 방향은 ㉡ 민심의 향방에 크게 좌우된다.

경제학은 인간의 합리성을 가정하나 동물 근성도 잘 감안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인간은 쉽사리 감정적이 되며, 경제 사회가 불안할수록 동물 근성이 잘 발동된다. 이런 의미에서도 경제 안정은 근본 문제가 된다. 그리고 경제는 이러한 인간의 경제 행위를 바탕으로 하므로 그 예측이 어렵다. 가령 일기 예보의 경우에는 내일의 일기를 오늘 예보하더라도 일기가 예보 자체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경기 예측(景氣豫測)의 경우에는 다르다. 예를 들어, 정부가 경기 침체를 예고하면, 많은 사람들은 이에 대비하여 행동을 하고, 반대로 경기 회복을 예고하면 또한 그에 따라 행동하기 때문에 ㉢ 경기 예측 그 자체가 경기 변동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예측이 어느 정도 빗나가는 것이 보통이다. ‘될 것이다’ 또는 ‘안 될 것이다’와 같은 예측은 이른바 ‘자기실현적 예언’이 될 소지가 크다.

경제 문제는 인간의 가치 판단과도 긴밀한 관계가 있다. 가령 ‘갑’은 젊고 유능하며 부양가족이 없는데도 많은 봉급을 받는 데 비하여, ‘을’은 늙고 무능하나 많은 식구를 부양하는데도 적은 봉급을 받는 경우, 양자의 소득 격차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집값이 집 없는 사람의 봉급보다 빨리 상승한다든가, 고급 주택의 건설이 많아진다고 할 때, 주택 정책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가 하는 문제 등은 감정이나 가치 판단에 따라 좌우될 소지가 크다.

43. 윗글에서 경제학이 고려할 사항으로 언급하지 않은 것은?

- ① 인간 감정 ② 합리성 ③ 가치 판단
- ④ 동물 근성 ⑤ 지역 경제

44. 문맥상 ㉠, ㉡에 공통적으로 바꾸어 넣을 수 있는 것은?

- ① 여파(餘波) ② 정세(政勢) ③ 사조(思潮)
- ④ 여론(輿論) ⑤ 풍문(風聞)

45. ㉣와 같은 인과적 구조를 보여 주는 것은?

- ① 기술의 혁신은 에너지 사용을 증가시키고, 그것은 다시 오염된 환경을 더욱 악화시킨다.
- ② 큰 목소리가 사람들의 대화를 방해하고, 그것은 다시 사람들의 목소리를 더욱 크게 만든다.
- ③ 실내의 온도가 올라가면 자동 온도 조절 장치에 의해 보일러가 꺼지고, 온도는 다시 내려간다.
- ④ 할아버지는 손자가 장차 큰 인물이 되리라고 늘 말하였고, 그 말에 용기백배한 손자는 열심히 일해서 큰 성공을 거두었다.
- ⑤ 풀어진 신발 끈을 다시 묶느라 집을 약간 늦게 출발하였고, 그래서 그는 기차를 놓쳤고, 그래서 그는 시험을 치르지 못했고, 그 결과 그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되었다.

[46~4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1994.제2차 수능

흔히 연극의 구성 요소로서 희곡, 배우, 무대, 관객을 지칭하는 데서 알 수 있듯이 연극은 극작가, 배우, 연출가, 관객의 협조로 이루어지는 예술이다. 관객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는 점은 모든 예술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연극은 언제나 배우와 관객의 직접적이고도 현실적인 대면을 통해서만 성립된다는 점에서 그 독자성을 지닌다. 따라서 연극의 관객은 단순한 구경꾼이나 물질적 원조를 제공하는 자 이상의 ㉠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대부분의 연극사를 보면 관객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었던 시대에 걸작들이 많이 만들어졌고, 또한 같은 작품을 공연하는 경우에는 관객의 호응도가 높을 때에 보다 훌륭한 공연이 이루어졌음을 잘 알 수 있다. 연극의 존재 이유에 핵심적인 요인을 부여하는 것은 직접 창조 행위에 관여하는 사람들이기보다는 오히려 관객 쪽이며, 이들 사이에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 원만한 호응 관계가 성립될 때에 비로소 연극은 생명력을 갖게 된다. 왜냐하면 관객이 작품을 인정하려 들지 않을 때 그 공연은 연극인들만의 ㉢ 자기만족 행위로 끝나 버릴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물론 관객만이 연극을 생산한다는 말은 아니지만, 관객의 내적인 영향력은 연극을 위해서는 없어서 안 될 구성 요소이고, 나아가 그것은 연극을 꽃피우는 ㉣ 대지(大地)인 것이다.

만드는 편에서 생각하면 극작가의 고심에 가득 찬 창작에서부터 연극 창조가 시작될 테지만, 향수(享受)하는 관객의 입장에서서는 일부터 먼 극장을 찾아가서 가까이 입장권을 사는 데서부터 관극 행위(觀劇行爲)가 출발된다. 능동적이건 수동적이건 관객이란 일단 관극 행위를 선택한 사람들의 집단을 말한다. 그렇지만 방송극을 듣거나 영화나 텔레비전 드라마를 보는 경우와는 달리, 연극에서는 관객의 자유로운 선택의 의지가 보다 더 확고하게 작용해야 한다는 점에서 그 ㉤ 능동성이나 참여 의식이 훨씬 강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관객은 연극을 보면서 공동체 의식과 집단 심리를 형성하게 된다. 그들은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에 직접 반응하면서 서로 간에 ㉥ 무언(無言)의 의사소통을 나누게 되며, 그와 함께 관객은 배우와 자신과의 동일화와 거리 두기의 감정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것이다. 연극의 독자성은 이러한 관객의 반응이 역으로 배우들에게 다시 전달되어 그들의 연기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있다. 따라서 어떠한 관객이 관극하느냐에 따라 연극의 완성도가 달라질 수 있으며, 이러한 의미에서 양질의 관객을 획득하는 일은 연극 창조의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되는 것이다.

46. 윗글로 미루어 알 수 있는 것은?

- ① 연극의 예술성은 관객의 많고 적음에 따라 결정된다.
- ② 공연을 위한 물질적 지원은 그다지 중요한 것이 아니다.
- ③ 관객의 취향에 잘 맞게 만든 작품일수록 훌륭한 연극이다.
- ④ 연극은 관객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는 점에서 다른 예술과 구별된다.
- ⑤ 같은 희곡을 공연하더라도 관객의 호응에 따라 연극의 완성도는 달라질 수 있다.

47. ㉠~㉣ 중, ㉡와 거리가 가장 먼 것은?

- ① ㉠ ② ㉡ ③ ㉢ ④ ㉣ ⑤ ㉤

48. 윗글에서 강조하고 있는 관객의 성격이 가장 두드러진 것은?

- ① 김 후보의 선거 연설을 들은 많은 유권자들은 그가 제시한 정책에 공감을 표시하고 그를 지지하게 되었다.
- ② 시사회(試寫會)가 끝난 후 관객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감독과 배우들을 환영하는 우레와 같은 박수를 보냈다.
- ③ 김 선생님은 자신을 응시하는 수많은 시선을 온몸으로 느끼자 가장 어려운 독무(獨舞)를 멋지게 마무리할 수 있었다.
- ④ 한국 선수들이 드디어 역전승을 거두자 중계방송을 시청하고 있던 대합실의 많은 사람들은 건물이 떠나가도록 환호했다.
- ⑤ 김 화백의 미술 전람회에 참여한 많은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그의 그림에는 시적 감수성이 풍부하다고 칭찬했다.

[49~5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1994.제2차 수능

사회 조직이나 살아있는 유기체는 여러 단계의 계층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하나의 생물체를 보면 개체는 여러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고, 기관은 조직으로, 조직은 세포로, 세포는 분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계속해서 원자나 소립자와 같은 더 낮은 차원으로 가지쳐 내려가서 마치 피라미드와 같은 구조를 보인다.

이러한 계층 구조의 각 구성 요소들을 홀론(holon)이라 부르는데, 이들은 상위 단계를 구성하는 부분인 동시에 하위 단계를 통합하고 있는 전체다. 다시 말하면, 부분이면서 전체이고, 전체이면서 부분인 야누스*적 실체다. 위를 보고 있는 얼굴은 보다 높은 단계에 소속된 부분으로서의 홀론이고,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는 얼굴은 낮은 단계를 통합하고 있는 전체로서의 홀론이다.

이것은 모든 홀론이 두 가지 성향, 즉 자율적 경향과 예측적 경향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율적 경향은 독립의 형태로 나타나는데 이를 홀론의 전체성이라 하고, 홀론의 부분성을 의미하는 예측적 경향은 복종의 형태로 나타난다. 홀론이 갖는 이러한 양면성이 역동적 평형 상태를 이룰 때 계층 구조는 안정을 유지할 수 있다. 그렇지 않고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강해지면 균형은 무너진다. 홀론의 자율적 경향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것은 전체의 구축을 벗어나게 된다. 반면에 예측적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면 그것은 전체의 노예가 된다.

홀론의 활동은 고정된 법칙에 의해서 제약을 받지만, 동시에 다양한 선택적 전략을 구사할 수 있는 여지도 주어진다. 생명체들은 이러한 법칙과 전략에 따라서 일관성과 통일성을 유지하면서도 다양한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해 나간다. 꿀벌의 집짓기나 누에의 고치짓기와 같은 본능적 행위들은 유전자의 청사진이라는 고정된 법칙을 따르면서도 상황에 유연하게 적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중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인간의 행위도 마찬가지다. 개인이나 가족, 사회, 국가도 일종의 사회적 홀론이기 때문에 법률이나 전통, 관습, 규칙 등 여러 가지 지배 법칙 아래서 행동을 선택한다. 예를 들어 언어 사용과 같은 습득된 행동은 문법에 의해 지배되고 있지만, 우리는 발음, 어휘, 문장 구조 등의 다양한 선택을 통해서 자유롭게 언어를 구사한다.

*야누스(Janus):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두 얼굴을 가진 신

49. 윗글의 내용에 따라 ‘홀론’을 가장 적절하게 정의한 것은?

- ① 홀론은 안정을 이루는 역동적 평형 상태이다.
- ② 홀론은 고정된 법칙과 선택적 전략에 따라 행동한다.
- ③ 홀론은 예측성과 자율성을 동시에 갖는 계층 구조의 구성 요소이다.
- ④ 홀론은 부분이면서 전체이고, 전체이면서 부분인 야누스 같은 실체다.
- ⑤ 홀론은 피라미드 구조를 이루는 사회 조직 또는 살아 있는 유기체이다.

50. <보기>에서 홀론의 부분성이 지니는 특징을 고른 것은?

<보 기>

㉠ 복종	㉡ 자율	㉢ 예측	㉣ 통합	㉤ 독립
------	------	------	------	------

- ① ㉠, ㉢ ② ㉠, ㉡ ③ ㉡, ㉣
- ④ ㉢, ㉤ ⑤ ㉣, ㉤

51. 윗글로부터 추론한 것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자율성이 예측성을 지배할 때 홀론의 자기희생적 행동이 나타날 수 있다.
- ② 법률가는 법률의 제약을 받지만 해석과 적용의 융통성을 발휘한다.
- ③ 운동 경기의 경우, 선수들은 경기 규칙 아래서 적절한 행동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 ④ 질병은 인체를 구성하고 있는 홀론적 계층 구조의 평형이 깨어진 결과라고 볼 수 있다.
- ⑤ 꿀벌의 집 짓기는 본능의 제약을 받지만 집의 위치는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52~5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1994.제2차 수능

자연의 이용이 도리어 재앙을 가져온 예들은 인류 역사의 초기부터 있어왔다. 지중해 연안은 한때 고대 그리스와 로마 문명을 비롯해서 여러 문명이 발생했다 사라진 곳인데 오늘날 날의 모습을 보면 과연 이곳이 당시 최고의 문명을 자랑했던 곳이었는지 의심스럽다. 그중에 에페소스는 로마가 거대한 제국을 건설했던 시기에 번성했던 유명한 해양 도시였다. 그러나 ① 지금은 거대한 원형 경기장을 비롯해서 대리석 기둥, 훌륭한 조각품의 잔재들만이 폐허로 변해 버린 도시 전체에 흩어져 있을 뿐이다. 이렇게 에페소스의 문명이 갑자기 몰락하게 된 원인은 무엇일까?

그 이유는 아직도 정확히 밝혀져 있지 않지만 아마도 생태계의 변화 때문이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생태계의 변화상은 그 당시 번성했던 식물상을 조사해 보면 알 수 있다. 식물의 꽃가루는 잘 썩지 않기 때문에 지층 속에서 아주 오랫동안 보존된다.

따라서 지층에서 발견되는 꽃가루를 분석해 보면 당시의 식물상과 기후뿐 아니라 농업의 형태나 사회상까지도 알 수 있다. 에페소스에서 채취한 흙에서 꽃가루를 분석해 본 결과 에페소스가 가장 번성했던 2천 년 전의 지층에서는 밀의 꽃가루가 주류를 이루고 있었는데, 이것은 밀을 중심으로 한 발농사가 성행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보다 오래된 지층에서는 목초지에서 발견되는 질경이의 꽃가루가 많이 발견되었고, 사람이 살지 않았던 4천 년 전 지층에서는 떡갈나무의 꽃가루가 다량으로 발견되었다. 이것은 에페소스의 환경이 삼림 지대에서 목초 지대를 거쳐 농경 지대로 변했다는 것을 말해 준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모여들자 농경 지대가 확대되고 그에 따라 삼림 지대는 점차 줄어들게 되었던 것이다.

숲은 물의 순환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삼림이 우거진 숲에는 낙엽과 표층토가 있어서 많은 물이 저장될 수 있다. 이곳에 저장되어 있던 물이 증발해서 구름이 되고, 구름은 다시 비가 되어 숲으로 돌아온다. 그런데 에페소스에서는 문명이 번창하면서 이러한 숲이 줄어들게 되었고 그에 따라 물의 순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여 강우량이 줄어들었다. 기후가 건조해지면서 땅이 점점 메마르게 되자 에페소스에는 흉년이 거듭되었고, 풍요로웠던 문명의 뿌리는 흔들리기 시작하였다. 게다가 험벗은 산의 표층토가 빗물에 씻겨 내려 서서히 바다가 메워지면서 에페소스의 교역도 사양길로 접어들어 해양 도시로서의 기능도 상실하고 말았다.

결국 사람들이 떠난 도시는 폐허로 남게 되었다.

52. 윗글로 볼 때, 인과 관계를 옳게 연결한 것은?

- ① 건조 기후 → 흉작 → 표층토 유실
- ② 삼림 감소 → 농경지 확대 → 도시화
- ③ 강우량 감소 → 흉작 → 교역의 사양화
- ④ 삼림 감소 → 기후 변화 → 문명의 몰락
- ⑤ 꽃가루 분석 → 식물상 규명 → 생태계 변화

53. ㉠과 가장 잘 어울리는 것은?

- ① 사필귀정(事必歸正) ② 상전벽해(桑田碧海)
- ③ 새옹지마(塞翁之馬) ④ 연목구어(緣木求魚)
- ⑤ 전화위복(轉禍爲福)

54. 윗글을 읽고 <보기>와 같이 추론하였다고 하자. 이와 같은 오류가 나타나 있는 것은?

— <보 기> —

에페소스 사람들은 참으로 어리석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자신들의 문명 기반을 파괴하려고 일부러 그런 일들을 하다니!

- ① 그는 열심히 책을 산다. 책이 많이 팔리면 출판사가 돈을 번다. 그러므로 그는 출판사의 이익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음에 틀림없다.
- ② 아무리 말해도 네 생각이 옳단 말이니?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한번 물어봐라. 열이면 열 모두 네가 틀렸다고 할 테니.
- ③ 이번 경기는 꼭 이겨야 되거든. 그러니 너는 중계방송 봐선 안 돼. 네가 중계방송을 보면 꼭 지더라.
- ④ 그는 시립 도서관 옆에 산다. 그러니 그는 책과 가까이 지내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그는 매우 학식이 풍부한 사람일 것이다.
- ⑤ 여러분들은 지금 제 이론이 설득력 없다고들 말씀하시지만, 무조건 공격만 하실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중 누가 이만한 이론이라도 제시한 적이 있습니까?

[55~5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1994.제2차 수능

역사적 시대 구분의 단위로서 현대라고 할 때에는 보통 제1차 세계 대전과 1917년의 러시아 혁명 발발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시기를 지칭한다. 이 시기의 사회 변동의 ㉠ 추이나(이나) 그 속에서 전개된 대사건들은 이전 시기와는 분명히 다른 독특한 면모를 갖고 있다. 그 특징들 속에서 우리는 현대의 위상과 의미를 발견해 낼 수 있다. 우선 이 시기에는 파시즘과 나치즘이 대두되었다. 그리하여 그것은 거대한 관료 조직 및 막강한 국가 체제가 개인과 사회 집단의 자율성을 통제하고 대중을 조작하여 그 위에 얼마든지 군림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전체주의 체제의 부정적 유산은 거기에 그치지 않고 이후에도 세계의 여러 나라로 약간씩 형태를 달리하면서 전승되어 갔다. 어떤 의미에서 현대 사회론은 이러한 전체주의 체제의 발흥 원인과 그 사회적 결과를 대중 사회의 출현과 관련시켜 보는데서 짝이 났다고도 볼 수 있다.

제2차 세계 대전 후 과학 기술의 경이로운 발달 및 생산력의 증대에 힘입어 자본주의 체제는 상대적 안정과 번영을 구가하여,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에서는 산업화의 단계를 훨씬 뛰어넘은 탈산업사회의 도래와 함께 이데올로기의 종언이 운위되기도 하였다. 사회주의권은 그들 나름대로 중앙 집중적 계획 경제와 생산 수단의 국유화로 자본주의의 모순을 극복하고 평등 사회를 실현하고자 했다. 제3세계의 여러 나라들도 경제 발전을 발판 삼아 정치적 민주화와 사회 체제의 변혁을 달성키 위해 몸부림쳐 왔다. 그리하여 지난 반세기의 세계사의 역정은 이들 세계가 엮어내는 공생과 갈등의 대 파노라마였다고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의 시점에서 다시 현대 사회의 ㉡ 추이를(을) 되돌아보면, 자본주의 사회에는 여전히 부와 불평등과 독점의 폐허가 불식되지 않고 있으며, 사회주의권의 거대한 실험은 결국 정치·경제·사회적 층위 간의 불균형과 모순으로 인하여 근래에 동구 사회주의 체제의 급격한 붕괴를 가져왔다. 그런가 하면 종속 탈피와 민족적 자립을 이룩하려는 제3세계권의 장래도 그리 밝지만은 않다. 그리고 어느 권역이건 사회 전반의 관료 조직화와 대중화의 물결 속에 인간 주체성의 상실 및 인간 소외가 현대 사회의 주된 특질로서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는 구조 기능주의나 마르크스주의를 막론하고 거대 이론의 설명력이나 예측력은 빛이 바랄 뿐이다. 그래서 최근에는 근대 혹은 현대가 인류에게 가한 질곡으로부터 벗어나자는 탈현대(포스트 모던)의 구호가 고창되면서, 지적·사상적인 방황의 징표가 두드러져 보이기도 한다. 말하자면 현대성의 총체적 위기라는 진단에 공감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현대인이 지향해야 할 행로와 목표는 어디에도 없는 것인가? 말 그대로 20세기의 황혼에서 세기말적 침울과 절망의 분위기 속에 주저앉고 말 것인가? 다시 말해, 현대 사회의 미래 전망은 정녕 닫혀 있기만 한 것인가?

55. 앞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 ① 제3세계는 사회주의 체제로부터 나타났다.
- ② 현대 사회를 전망해 볼 때 미래는 절망적이다
- ③ 전체주의 체제의 발흥이 대중 사회의 출현을 앞당겼다.
- ④ 과학 기술의 발달 및 생산력의 증대가 거대 이론을 낳았다.
- ⑤ 현대 자본주의 사회와 사회주의 사회는 둘 다 관료 조직화된 사회이다.

56. 앞글의 핵심 어구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전체주의 체제의 폐해
- ② 탈산업사회의 도래
- ③ 사회주의 체제의 몰락
- ④ 대중 사회의 출현
- ⑤ 현대성의 총체적 위기

57. ㉠, ㉡을 문맥에 맞도록 바꾸어 쓸 때, 가장 적절한 것은?

- | | | |
|---|--------|--------|
| | ㉠ | ㉡ |
| ① | 추세(趨勢) | 동태(動態) |
| ② | 이행(移行) | 궤도(軌道) |
| ③ | 상황(狀況) | 여건(與件) |
| ④ | 위세(威勢) | 위상(位相) |
| ⑤ | 경향(傾向) | 행태(行態) |

[58~6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1994.제2차 수능

(가)

언어와 사고의 관계를 연구한 사피어(E. Sapir)에 의하면, 흔히 생각하듯이 우리는 객관적인 세계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언어를 매개로 하여 살고 있으며, 언어가 노출시키고 분절(分節)시켜 놓은 세계를 보고 듣고 경험한다. 워프(B. Whorf) 역시 사피어와 같은 관점에서 언어는 우리의 행동과 사고의 양식을 결정하고 구조(鑄造)한다고 말한다. 사피어와 워프의 말에 비추어 우리말의 경우를 생각해 보자. 우리말에서는 초록, 청색, 남색을 ‘푸르다’고 한다. ‘푸른 숲’, ‘푸른 바다’, ‘푸른 하늘’ 등의 표현이 그러한 경우로, 우리는 이 다른 색들에 대해 한 가지 말을 쓰고 있다. 사피어와 워프에 따르면 이러한 현상 때문에 우리는 숲, 바다, 하늘을 한 가지 색깔로 생각하게 된다. 언어가 사고를 결정하는 것이다.

(나)

어떤 색깔에 해당되는 어휘가 없다고 해서 그 색깔을 인식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해당 어휘가 있으면 인식하기가 쉽고 또 오래 기억할 수 있겠지만 어휘가 없다고 해서 인식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그 밖에도, 우리가 분명히 어떤 생각을 갖고 있으며 그 생각을 표현할 적당한 말을 갖고 있지 못할 뿐이거나 말을 잊어서 표현에 곤란을 느낄 뿐인 경우가 얼마든지 있다. 문법의 경우를 보아도 그렇다. 예를 들어 프랑스어의 명사나 형용사에는 남성을 나타내는지 여성을 나타내는지를 변별해서 사용하도록 해주는 문법적 장치가 있다. 이에 비해 우리말은 그러한 장치를 갖고 있지 않은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말을 쓰는 사람들이 성을 구별하지 못한다고 할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들을 볼 때, 인간의 사고가 언어에 의해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점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확실히 알 수 없다.

58. (가)로 미루어 알 수 있는 것은?

- ① 경험을 확대함으로써 언어의 발달을 이룰 수 있다.
- ② 사고 능력이 발달하면 사고가 언어의 영향을 벗어난다.
- ③ 언어가 다르면 동일한 현상에 대한 사고방식도 달라진다.
- ④ 사고 능력이 발달하면 의사소통의 장벽을 극복할 수 있다.
- ⑤ 언어를 학습하려면 그 언어를 낳게 한 사고방식부터 파악해야 한다.

59. (가)의 논지를 설명하는 예로서 적절치 않은 것은?

- ① 실제로는 잘 구분되지 않는 물줄기들이지만 ‘개천’, ‘ 시내’, ‘강’이라는 말이 있어서 사람들이 이 물줄기들을 그 말에 따라 구별한다.
- ② 우리가 직계 1세대 위 남자를 ‘아버지’, 2세대 위 남자를 ‘할아버지’라 하는 것처럼 서구에서도 그러한 관계를 같은 방식으로 표현한다.
- ③ 현대인은 보통 몇 시간(時間), 몇 분(分), 몇 초(秒)라는 용어를 쓰지만 옛날 사람들은 ‘한나절’, ‘두어 참’ 등의 말을 즐겨 사용했다. 그러므로 두 시대 사람들의 시간 개념이 서로 다르다고 할 수 있다.
- ④ 우리가 무지개 색깔을 일곱 가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지개 현상에 대한 색깔 용어가 일곱 가지이기 때문이다.
- ⑤ 영어에는 ‘뜨겁다’는 말과 ‘맵다’는 말이 같은 단어[hot]로 되어 있기에 영어를 쓰는 사람들은 뜨거운 것과 매운 것을 구별하지 않는다.

60. (가)의 논지에 대한 (나)의 태도를 바르게 설명한 것은?

- ① 언어가 사고에 영향을 준다는 점을 부분적으로만 인정한다.
- ② 인간의 사고는 보편적이므로 언어와 상관없다고 주장한다.
- ③ 언어와 사고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라는 점을 제시한다.
- ④ 언어가 사고에 영향을 준다는 견해가 틀렸음을 지적한다.
- ⑤ 언어가 사고에 결정적 영향을 준다는 견해에 적극 찬성한다.

[14~1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1994.제1차 수능

(가) 우리가 누리고 있는 문화는 거의 모두가 서양적인 것이다. 우리가 연구하는 학문이 또한 예외가 아니다. 피와 뼈와 살을 조상에게서 물려받았을 뿐, 문화라고 일컬을 수 있는 거의 모든 것이 서양에서 받아들인 것인 듯싶다. 이러한 현실을 앞에 놓고서 민족 문화의 전통을 찾고 이를 계승하자고 한다면, 이것은 편협(偏狹)한 ㉠ 배타주의(排他主義)나 국수주의(國粹主義)로 오인되기에 알맞은 이야기가 될 것 같다.

(나) 전통은 과거로부터 이어 온 것을 말한다. 이 전통은 대체로 그 사회 및 그 사회의 구성원인 개인의 몸에 배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전통은 우리의 현실에 작용하는 경우가 있다.

(다) 이처럼 우리가 계승해야 할 민족 문화의 전통으로 여겨지는 것이, 과거의 인습(因襲)을 타파(打破)하고 새로운 것을 창조하려는 노력의 결정(結晶)이라는 것은 지극히 중대한 사실이다.

(라) 세종대왕의 훈민정음 창제 과정에서 이 점은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만일, 세종대왕이 고루(固陋)한 보수주의적 유학자들에게 한글 창제의 뜻을 굽혔던들, 우리 민족 문화의 최대 걸작품(傑作品)이 햇빛을 못 보고 말았을 것이 아니겠는가?

(마) 우리가 계승해야 할 민족 문화의 전통은 형상화된 물건에서 받는 것도 있지만, 한편 창조적 정신 그 자체에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민족 문화의 전통을 무시한다는 것은 지나친 자기 학대(自己虐待)에서 나오는 편견(偏見)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바) 민족 문화의 전통을 창조적으로 계승하자는 정신은 선진 문화 섭취에 인색하지 않을 것이다. 외래 문화도 새로운 문화의 창조에 이바지함으로써 뜻이 있는 것이고, 그러함으로써 비로소 민족 문화의 전통을 더욱 빛낼 수 있기 때문이다.

14. (나)~(바) 중, ㉠을 극복하려는 태도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은?

- ① (나) ② (다) ③ (라) ④ (마) ⑤ (바)

15. (나)와 (다)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문장으로 적합한 것은?

- ① 그렇다면 전통을 계승하고 창조하는 주체는 우리 자신이다.
- ② 그러므로 전통이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고유한 유산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 ③ 그러나 계승해야 할 전통은 문화 창조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한정되어야 한다.
- ④ 그리고 자국의 전통과 외래적인 문화는 상보적일 수도 있다.
- ⑤ 따라서, 우리는 전통과 인습을 구별하여야 한다.

16. (바)의 논지와 가장 잘 어울리는 것은?

- ① 그는 서양, 그 중에도 미국을 존경한다. 그래서 모든 것에 서양을 본받으려 한다. 그는 과연 이십여 년 서양을 본받았다.
- ② 최근에 나타난 기예를 밖에 나가 배워 오지 않고서는 몽매함과 고루함을 타파하여 편리와 혜택을 가져올 수가 없을 것이다.
- ③ 김관일은 딸의 혼인 언론을 하다가 구씨가 서양 풍속으로 직접 언론하자 하는 서슬에 옥련의 혼인 언약에 좌지우지할 권리가 없어 가만히 앉았더라.
- ④ 재상가의 일처 일첩(一妻一妾)은 예전부터 있는 일이었고, 또 첩이 비록 덕이 없사오나 시속 부녀의 투기(妬忌)하는 것은 더럽게 아는 바이오니 상공은 조금도 염려치 말소서.
- ⑤ 지금의 요동이 예전 고구려의 땅이라 하면 그런 참람(僭濫)한 말이 어디 있느냐. 당 태종이 고구려인 양만춘의 살에 눈을 잃었다 하면, 그런 불경한 말이 어디 있느냐.

[27~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994.제1차 수능

(가)

세계 경제는 제2차 세계 대전을 기점으로 큰 전환이 이루어졌다. 기업이 그 존속과 성장을 위해 소비 시장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게 된 것이다. 그 결과 시장은 생산자 중심에서 구매자 중심으로 성격이 바뀌었다. 따라서 모든 기업은 생산된 제품을 판매한다는 태도를 바꾸어, 소비자의 잠재적 욕구를 파악하고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전략을 채택해야만 했다. 그들은 어디까지나 소비자의 관점에서 유용한 제품을 생산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격을 책정하게 되었다. 즉, 제품을 시장으로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들이 자신의 필요에 따라 제품을 구입하도록 하는 전략을 강조하게 된 것이다. 이는 일단 상품을 생산해 놓고 나서 그것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전략이 아니다. 오히려 판매될 수 있는 상품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그것을 생산하고, 제품과 서비스가 시장(소비자)으로 스며들도록 하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가치의 극대화라는 기업의 이념은 변함없지만, 시대의 요구에 따라 기업 활동의 성격은 변화한다.

(나)

자본주의 경제 체제에서는 대체로 가격 수준에 따라서 수요와 공급의 양이 조절된다. 그러나 시장 상황에 따라 가격 요인과 비가격 요인의 비중이 달라질 수 있다. 구매자 중심의 시장에서 가격의 역할은 점차 축소되고 있다. 가격 이외에 판매점, 상표, 디자인, 신속한 배달과 수리, 광고 등과 같은 것들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요인들은 모두 소비자의 선택과 관련을 맺고 있다. 그러므로 현대 기업은 기업과 소비자와의 호혜적 관계를 무시할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다. 이런 점에서 기업은 소비자가 추구하는 가치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그동안 기업과 소비자가 추구하는 가치가 양립할 수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기업들이 환경 문제나 사회복지 등과 관련된 요인을 ㉠ 잘 살피지 않고 지나쳐 버렸다는 것이다. 오늘날 기업 활동에 관한 연구가 단지 기업 내부의 문제만이 아니라 기업 활동과 사회 전체의 균형적 발전 간의 문제로까지 그 범위를 확대시키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 현대 기업은 단기적으로 이윤만을 추구하겠다는 태도를 버리고 소비자의 생활 수준과 문화를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기업 활동을 전개하게 된 것이다.

27. 윗글은 다음 중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고 볼 수 있는가?

- ① 기업 활동의 성격은 어떻게 변화하였는가?
- ② 국가의 기업 정책은 어떻게 변화하였는가?
- ③ 현대 기업의 광고 전략은 무엇인가?
- ④ 기업은 왜 시장을 지배하려 하는가?
- ⑤ 생산과 서비스의 관계는 어떠한가?

28. (나)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해당이 되는 어구는?

- ① 공급량 조절 ② 소비자의 선택
- ③ 호혜적 관계 ④ 환경 문제
- ⑤ 생활 수준 향상

29. 다음 중, 그 뜻이 ㉠으로 풀이될 수 있는 단어는?

- ① 경시(輕視)했다 ② 간과(看過)했다
- ③ 몰각(沒却)했다 ④ 무시(無視)했다
- ⑤ 묵과(默過)했다

30. ㉡과 같은 기업 활동의 예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 ① 사회 복지 기관에 투자한다.
- ② 공해 추방 운동을 지원한다.
- ③ 낙도의 의료 시설을 지원한다.
- ④ 도시의 휴식 공간을 제공한다.
- ⑤ 소비자의 잠재적 욕구를 파악한다.

[31~3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1994.제1차 수능

약(藥)과 악(樂)은 꼭 닮았다. 그 닮은 점은 하나 둘이 아니다. 우선 ㉠ ‘藥’과 ‘樂’의 글자 생김새부터가 비슷하다. 사물의 모양새나 뜻을 따서 만든 한자의 생김새가 비슷할 뿐만 아니라, ‘약’과 ‘악’은 소리글자인 한글의 모양과 우리말의 발음이 비슷한 것이다. 이 둘이 우리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도 비슷하다는 생각이 든다. 좋은 ㉡ 약은 인간의 질병을 치료하지만, 그렇지 못한 ㉢ 약은 우리 몸을 해칠 수도 있듯이, 좋은 음악은 인간의 정서를 순화하고 인격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꿀 수 있으나, 그렇지 못한 음악은 인간의 정서를 해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고대 그리스 시대의 청소년 교육이나 우리나라 화랑도의 수련 과정에서 음악이 맡았던 중요한 역할을 굳이 강조하지 않더라도, 심리적 교정 과정에서 음악의 역할이나 최근에 활발하게 전개되는 음악 요법에 관한 의학계의 연구 성과들은 음악이 인간의 내면세계뿐만 아니라, 인체의 건강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우리의 정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예술 음악이라든가, 우리의 민족적인 정서를 표현한 전통 음악을 즐기는 사람보다는 상업주의에 바탕을 둔 대중음악에 심취한 인구가 더 많은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게다가 외국의 저급한 음악이나 우리의 전통적인 정서와는 다른 외래 음악이 오늘날 이 땅의 대중음악 중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사실이며, 많은 청소년들이 이들 음악에 편향된 관심을 지닌 것도 사실이다. 그것은 이들 음악이 우선 귀를 즐겁게 하기 때문이리라.

그러나 약의 질을 맛으로는 평가할 수 없듯이 음악의 질도 귀에 들리는 즐거움만으로 평가할 수는 없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외국인의 체질에 맞게 만든 ㉣ 약이 우리의 체질에 꼭 맞으라는 법이 없듯이, 외래 음악이 한국인의 정서에 맞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좋은 ㉤ 약이 인류의 삶을 건강하게 지키듯이, 좋은 음악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가꿀 것이다. 위대한 예술가들이 빚어 놓은 예술 음악이나 우리 선조들의 숨결이 담겨 있는 전통 음악과 같이 좋은 음악이야말로 우리의 정서를 가꿀 좋은 ㉥ 약이다.

31. 윗글에서 말하고 있는 ‘약’과 ‘음악’의 비슷한 점이 아닌 것은?
- ① 한자의 생김새
 - ② 우리말의 발음
 - ③ 부작용의 가능성
 - ④ 교육적인 효과
 - ⑤ 의학적인 활용

32. 윗글에서 약과 음악의 속성을 <보기>와 같이 비교할 때, 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보 기>		
약		음악
체질	정서
맛	즐거움
치료	<input style="width: 40px; height: 15px;" type="text"/>

- ① 순화
- ② 건강
- ③ 관심
- ④ 심취
- ⑤ 영향

33. ㉠~㉥ 중, 문맥상의 의미가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34. ㉣로부터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할 때, 범하고 있는 잘못은?

그러므로 약과 음악은 그 기원이 비슷하다.

- ① 동정심에 호소하고 있다.
- ② 잘못된 통념을 따르고 있다.
- ③ 비슷한 말을 되풀이하고 있다.
- ④ 권위 있는 견해에 의존하고 있다.
- ⑤ 글자의 모양과 대상의 성질을 혼동하고 있다.

[35~3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1994.제1차 수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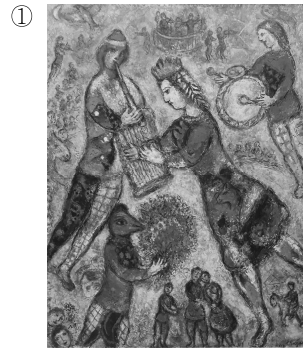
(가) 우리들이 즐겨 부르는 가곡은 가사가 있는 만큼 소리(音) 그 자체에 집중하기가 어렵다. 반면에 기악곡은 대체로 소리 그 자체에만 집중할 수가 있어 누구나 소리가 표현하는 즐거움을 직접적으로 느낀다. 쇼펜하우어는 “모든 예술은 음악의 상태를 동경한다.”라고 말했다. ㉠ 이 말을 그림에 적용시켜 본다면 화가도 기악곡과 같은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기악곡의 작곡가가 ‘소리만의 음악’을 작곡할 수 있듯이 화가 또한 그런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이다.

(나) 모든 예술가는 궁극적으로 작곡가처럼 사람을 즐겁게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이런 점에서 예술은 ‘즐겁게 하는 형식을 만들고자 하는 하나의 시도’라고 정의할 수 있다. 예술가가 만들어 낸 여러 가지 형식은 우리들의 미감(美感)을 만족시킨다. 회화(繪畵)의 경우 화면 위에 색채나 점, 선, 면 등이 일정한 비율의 배열로 통일되었을 때, 그것을 보는 사람은 쾌감을 느낀다. 이것은 바로 미감이다. ㉡ 그런데 이 미감이라는 것은 가변적인 것이어서 매우 불확실한, 그래서 때로는 중잡을 수 없는 현상으로 여겨진다.

예술은 의당 이러한 미감의 변화된 현상을 모두 포함하게 되며, 진지한 예술 연구자는 자기 자신의 미감이 어떠한 다른 시대, 다른 사람들에 의해 드러난 갖가지 미감을 예술 영역 속에 넣어 함께 다루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

그림에도 불구하고 예술에 대한 오해가 생기는 것은 ‘예술’과 ‘미(美)’를 동일시하는 우리들의 선입관에서 기인한다. 우리는 항상 ‘아름다운 것은 예술이다’ ‘예술은 아름답다’ ‘아름답지 않은 것은 예술이 아니며, 따라서 추(醜)한 것은 예술의 부정이다.’ 하는 식의 선입관을 갖고 있다. 이같이 예술과 미를 동일시하는 것이야말로 예술 감상을 방해하는 주된 원인이 되고 있다. 심지어는 미적 감수성이 예민한 사람조차도 예술 작품을 감상할 때 부지중에 ‘아름다움’이라는 기준을 앞세우려 든다. ㉣ 이 같은 선입관은 ‘예술’과 ‘미’라는 단어를 사용함에 있어서 일관성이 부족한 데서 기인하는 것이다. 우리는 여기에서 ‘미’라는 용어에 포함되어 있는 극단적인 상대성에 유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즉, 예술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아름다움’이라는 의미의 ‘미’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와는 필연적인 관계가 없다고 해야 할 것이다. ㉤ 역사적인 시각이나 사회적인 시각에서 보더라도 고금의 예술이 미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35. (가)의 내용에 가장 잘 어울리는 미술 작품은?



36. ㉠~㉤ 중, <보기>의 말이 들어가기에 가장 알맞은 곳은?

—< 보 기 —>

그에게는 당대 예술은 물론 고대나 중세의 예술도 한결같이 흥미로운 관심의 대상이 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37. 앞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미감은 시대에 따라 변한다.
- ② 미는 예술의 필요 충분 조건이다.
- ③ 미의 개념은 상대적으로 해석된다.
- ④ 예술은 사람을 즐겁게 하려는 의도를 가진다.
- ⑤ 예술과 미를 구별하는 감상 태도가 필요하다.

[38~4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1994.제1차 수능

(가) 봉당(朋黨)은 싸움에서 생기고, 그 싸움은 이해(利害)에서 생긴다. 이해가 절실할수록 당파는 심해지고, 이해가 오래 수록 당파는 굳어진다. 이것은 형세가 그렇게 만드는 것이다. 어떻게 하면 이것을 밝힐 수 있을까?

(나) 이제 열 사람이 모두 굶주리다가 한 사발의 밥을 함께 먹게 되었다고 하자. 그릇을 채 비우기도 전에 싸움이 일어난다. 말이 불손하다고 꾸짖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모두 싸움이 말 때문에 일어났다고 믿는다. 다른 날에 또 한 사발의 밥을 함께 먹다 그릇을 채 비우기도 전에 싸움이 일어난다. 태도가 공손치 못하다고 꾸짖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모두 싸움이 태도 때문에 일어났다고 믿는다. 다른 날에 또다시 같은 상황이 벌어지면 이제 행동이 거칠다고 힐난하다가, 마침내 어떤 사람이 울화통을 터뜨리고 여럿이 이에 시끌벅적하게 가세 한다. 시작은 대수롭지 않으나 마지막에는 크게 된다.

(다) 이것을 또 길에서 살펴보면 이렇다. 오던 자가 어깨를 건드리면 가던 자가 싸움을 건다. 말이 불손하고, 태도가 사나우며, 행동이 거칠다 하여 그 하는 말은 끝이 없으나 떳떳하게 성내는 것이 아닌 것은 한 사발의 밥을 함께 먹다 싸울 때와 똑같다.

(라) 이로써 보면 싸움이 밥 때문이지, 말이나 태도나 행동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이해의 연원이 있음을 알지 못하고는, 그 잘못됨을 장차 고칠 수가 없는 법이다. 가령, 오늘은 한 사발의 밥을 먹다 싸웠으며 내일에는 각기 밥상을 차지하고 배불리 먹게 하여 싸우게 되었던 원인을 없앤다면, 한때 험뜯고 꾸짖던 양금이 저절로 가라앉아 다시는 싸우는 일이 없게 될 것이다.

(마) 나라의 봉당도 이와 다를 게 무엇인가, 처음에는 한 사람의 선하고 악한 것, 또는 한 가지 일의 경중(輕重)에 대해서 마음으로 좋지 않게 생각하고 입으로 비방하는 데 지나지 않는다. 이런 것은 얼마나 하찮은 일인가. 그러나 조정에서는 서로 피 튀기며 싸우고, 조정 밖에서는 으르렁거리는 것이 마치 군령(軍令)도 없이 사람마다 싸움터에서 후퇴할 줄 모르는 것과 같이 하니 도대체 왜 그러한가?

38.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 ① 사람의 심성은 본디 착하다.
- ② 모든 싸움은 태도에서 발단된다.
- ③ 봉당은 언어의 혼란에서 비롯된다.
- ④ 갈등의 근본 원인을 규명해야 한다.
- ⑤ 개인의 싸움과 집단의 갈등은 다르다.

39. (가)~(마) 중, 봉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단서가 제시되어 있는 것은?

- ① (가) ② (나) ③ (다) ④ (라) ⑤ (마)

40. 윗글의 구조를 가장 잘 나타낸 것은?

- ① (가)─(나)─(다)─ $\left[\begin{matrix} (라) \\ (마) \end{matrix} \right]$
- ② (가)─ $\left[\begin{matrix} (나) \\ (다) \end{matrix} \right]$ ─(라)─(마)
- ③ (가)─(나)─ $\left[\begin{matrix} (다) \\ (라) \\ (마) \end{matrix} \right]$
- ④ (가)─ $\left[\begin{matrix} (나) \\ (다) \end{matrix} \right]$ ─ $\left[\begin{matrix} (라) \\ (마) \end{matrix} \right]$
- ⑤ $\left[\begin{matrix} (가) \\ (나) \end{matrix} \right]$ ─(다)─(라)─(마)

41. 윗글의 내용으로 보아, (마)에 제기된 물음에 적절하게 대답한 것은?

- ① 사람들이 예의를 모르기 때문이다.
- ② 작은 문제를 크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 ③ 갈등을 조정할 권위가 없기 때문이다.
- ④ 관직에 비해 사람의 수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
- ⑤ 선악의 판단 기준이 일관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42~4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1994.제1차 수능

(가) 복지국가론자가 주장하는 평등은 ㉠ 완전한 평등, 즉 모든 사람들이 같은 소득을 보장받는 절대적 평등이 아니다. 그들은 소득의 개인적 차이가 계급을 형성할 정도로 커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다.

(나) 복지국가론자들이 주장하는 평등은 개인적 성취의 평균화가 아니라, ㉡ 경제적 평등이다. 다시 말해서 복지국가에서는 개인이 소질을 발전시키고 능력을 발휘하는 일에 대해서 어떠한 제한도 가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온 국민이 각각 타고난 소질을 바탕으로 자아를 실현하도록 도와주기까지 한다는 것이다. 개인의 소질과 능력은 사람에 따라 다르므로 국민 각자의 성취에는 개인차가 생기기 마련인데, ㉢ 성취의 개인차는 복지국가의 이념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다. 다만 그 성취의 정도에 따라 소득의 격차가 현격하게 벌어지는 것은 용납할 수 없으며, 성취를 돈벌이의 수단으로 삼는 생활 태도도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다) 복지국가론자들이 평등 다음으로 중요시하는 것은 자유다. 전통적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유 경쟁이 불평등의 원인이기 때문에 자유와 평등은 양립하기 어렵다는 것이 그 사회의 일반적 통념이다. 그러나 복지국가론자들은 평등이 자유의 실현을 위한 전제 조건이라고 주장한다. 평등은 약자들에게 기회를 확대해 주는 한편, 강자가 약자를 탄압할 수 있는 기회를 없애으로써 ㉣ 자유의 실현을 돕는다는 것이다.

(라) 이와 같이 상반된 견해가 생기게 된 것은 자유의 서로 다른 측면을 강조하기 때문이다. 복지국가론자들이 역점을 두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는 형식적 자유가 아니라, 경제적 기반 위에 정립할 수 있는 ㉤ 실질적 자유이다.

(마) 복지국가론자들은 업적에 따라서 소득이 결정되는 경쟁 사회가 아니라고 해도 높은 경제적 능률을 확보할 수가 있다고 믿는 모양이다. 개인적 이득이라는 유인적 조건을 고려하지 않아도, 생산의 능률을 높일 수 있게 경제를 운영할 능력이 인간에게 있다고 그들은 낙관하는 모양이다.

42. (가)~(마) 중, <보기>의 내용과 가장 관련이 깊은 것은?

—<보 기>—

사람은 누구나 일할 권리와 직업 선택의 자유를 가지며, 유리한 노동 조건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① (가)
- ② (나)
- ③ (다)
- ④ (라)
- ⑤ (마)

43. ㉠~㉣ 중, 복지국가론자들의 생각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44. (마)로 보아, 글쓴이의 복지국가론에 대한 태도로 가장 알맞은 것은?

- ① 연구의 가치를 강조하고 있다.
- ② 확신적 신념을 나타내고 있다.
- ③ 복지국가론의 낙관주의에 공감하고 있다.
- ④ 이상적인 주장일 뿐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 ⑤ 경제적 능률을 확보할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45~4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1994.제1차 수능

(가) 18세기 독일의 동물학자 하이네만 박사가 처음으로 시작한 동종 요법(同種療法)에서는 동양의 침술과 같이 인간의 육체적, 심리적 현상을 지배하는 어떤 에너지, 즉 생명력의 변화로부터 병이 생긴다고 본다. 동종 요법은 '유사성의 원리'라는 생물학적 법칙에 근거한 것으로 동일한 증상을 인공적으로 만들어 치료하는 것이다.

(나) 한 예로 벨라도나*를 건강한 사람이 먹을 경우 열이 나거나 얼굴에 반점이 생길 수도 있다. 따라서, 심한 감기에 걸렸거나 햇빛에 피부가 심하게 노출되었을 경우 벨라도나를 아주 조금만 먹으면 증상을 없앨 수 있다. 그리고 피부병이 생겼을 때 벌침을 놓는다거나 신장 기능이 약화되었을 때 수은을 사용하는 민간요법도 사실은 동종 요법의 원리를 적용한 것이다.

(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사람에게 해가 되거나 치명적이기도 한 유독 물질로 병을 치료할 수 있을까? 병원체가 우리 몸에 침입했을 때 제일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발열이다. 이것은 우리 몸이 병과 싸우고 있다는 증거이다. 동종 요법은 우리 몸이 갖고 있는 이러한 특징을 이용하는 것이다. 열을 내리게 하는 아스피린 대신에 병과 싸우고 있는 몸의 기능을 자극함으로써 스스로 병을 물리치게 하는 것이다.

(라) 동종 요법의 경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신체 기능에 해를 끼치지 않을 만큼 동종 약품을 아주 소량만 희석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나치게 복용하면 도리어 해를 줄 수도 있다. 환자가 질병에 예민하게 반응한다거나 증상이 심하면 농도가 더욱 약한 것을 사용한다.

(마) 물론 동종 약품이라고 모두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다. 효과를 얻고 반응을 유발하기 위해서는 환자가 너무 약해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해서 병이 너무 심해서는 안 되고 환자가 병과 싸울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불치병에는 효과가 없다.

* 벨라도나: 가지과의 다년초 식물

45. 각 단락의 내용을 잘 정리하지 못한 것은?

- ① (가): 동종 요법의 기본 원리
- ② (나): 동종 요법의 적용 사례
- ③ (다): 동종 요법의 효능
- ④ (라): 동종 요법의 사용 방법
- ⑤ (마): 동종 요법의 한계

46. 윗글의 '동종 요법'의 원리와 가장 잘 어울리는 것은?

- ① 동병상련(同病相憐)
- ② 설상가상(雪上加霜)
- ③ 유유상종(類類相從)
- ④ 이열치열(以熱治熱)
- ⑤ 초록동색(草綠同色)

[47~5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1994.제1차 수능

(가) 나는 길을 걷기를 좋아한다. 산길도 좋아하지만 십 리 밖까지 멀리 보이는 들판 길을 더욱 좋아한다. ㉠ 만일 흙먼지를 일으키며 달리는 자동차가 방해만 하지 않는다면 아스팔트 포장도로보다 나는 흙길을 택한다. 이러한 길을 걸으면서 나는 포플러가 늘어선 고향의 풍경화보다 더 멋있는 그림을 나의 머릿속에 그릴 수 있다. 게다가 수천 년 동안 내 선조들이 남쪽에서 옮겨다 놓은 흙과 북쪽에서 옮겨다 놓은 흙을 생각할 수 있어 즐겁다. 적어도 한반도의 흙이 사람들의 발에 묻어남에서 북으로, 그리고 북에서 남으로 옮겨지고 골고루 섞일 수 있었던 그 옛날은 지금 보다 행복했는지 모른다.

(나)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은 교통로가 중요하다고는 생각하였으나 교통로변에 살 터를 잡기를 꺼렸다. 물가에 사는 사람은 상놈이기 쉽고 길가에 사는 사람도 상놈 대접을 받기 십상이었다. 이러한 인식 때문에 상류 계급은 물론 일반 농민들조차 ㉡ 도로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마을 터를 잡는 경향이 있었다. 그들이 교통로변에 거주하기를 피한 이유는 도로가 전염병과 잡귀의 통로이며, 또한 미풍 양속을 해칠만한 부도덕한 일들이 전파되는 통로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다) 동양의 길, 즉 한국 말의 ‘길’과 한자의 ‘도(道)’는 서양의 ‘로드(road)’와는 매우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우리의 길은 통로, 방향, 순환의 의미를 가지는 동시에 ㉢ 형이상학적 개념인 이성, 도덕 등을 의미하며 행정 구역을 뜻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동하다’, ‘말 타고 가다’ 등의 뜻을 가진 서양의 길에 대한 개념 속에는 물질을 획득하기 위하여 ㉣ 남보다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는 경쟁 심리가 숨어 있다. 서양 사회에서의 길의 의미는 속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라) 동양인, 특히 한국인은 귀소 본능(歸巢本能)이 강한 편이다. 그래서 일단 살 장소를 택하면 쉽게 움직이지 않는다. 이른바 ‘장소에 집착하는 관습’을 가진 동양 사회의 특성은 수백 년 또는 천 년 이상 된 동족촌(同族村)의 발달을 가져왔으며, ㉤ 일정한 거처 없이 떠돌아 다니는 사람들을 천하게 여기는 습속을 갖게 하였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수난을 당하면서도 삶의 근거지를 지키며, 일시적으로 피난을 하는 경우에는 고향으로 되돌아오려고 한다.

(마) 그런데 동양인들이라고 해서 길에 대하여 모두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유학자들에게 길은 백성을 통치하는 도구, 즉 왕의 명령을 전달하는 행정 통로로 인식되었다. 따라서, 동양식, 전제 왕권 사회에서의 길은 왕권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길가에 지배자의 권위를 상징하는 관방(關防)과 높은 문루를 세워야 하고, 도로 표지를 만들며 정자목(亭子木)도 심어야 했다. 그러나 ㉥ 도가(道家)들의 생각으로는 길이란 형식적이고 웅장할 필요가 없다. 좋은 길이란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을 찾아 흐르듯 자연스러워야 하며 자연법칙에 ㉦ 굴곡이 있는 길이어야 한다. 이러한 서로 다른 두 가지 생각이 적절히 조화된 것이 동양 사회의 길이다.

47. (가)~(마)에서, 길에 대한 세계관을 대조하고 있는 문단을 고른 것은?

- ① (가), (나) ② (나), (다) ③ (나), (마)
- ④ (다), (라) ⑤ (다), (마)

48. (가)~(마) 중, 우리의 민족적 당면 과제를 길과 연관시키고 있는 것은?

- ① (가) ② (나) ③ (다) ④ (라) ⑤ (마)

49. ㉠~㉦ 중, (가)의 ㉡에 나타난 글쓴이의 태도와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 ② ㉡ ③ ㉢ ④ ㉣ ⑤ ㉦

50. (마)의 ㉦에 들어갈 단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순응하는 ② 순종하는 ③ 적응하는
- ④ 동화하는 ⑤ 복종하는

[56~6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1994.제1차 수능

최근 인류는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로운 물질적 부를 향유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환경 오염과 생태계 파괴, 자원의 고갈과 같은 전 지구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 기계론적 세계관에서 출발한 과학 문명의 물질주의적인 사고방식이 무분별한 자연의 이용과 개발을 재촉하여 오늘날과 같은 생태계 위기를 초래하였다. 이러한 현대 문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고방식의 과감한 전환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싹텄고, 이러한 인식을 배경으로 시작된 것이 신과학 운동이다.

신과학 운동의 또 다른 뿌리는 20세기의 현대 물리학과 관련된다. 물질의 궁극적인 구성단위가 무엇인가를 연구하던 물리학자들은 분자, 원자를 거쳐 양자의 세계로 들어가, 마침내 양자역학이라는 현대 물리학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하이젠베르크는 입자의 속도와 위치가 동시에 정확히 측정될 수 없다는 것을 불확정성의 원리로 설명함으로써 양자 역학의 토대를 확립하였다. 양자 역학에 의하면 물리적 현상은 인과율에 따른 정확한 예측이 불가능하고 다만 확률적 예측만 가능하다. 이에 대해서 물리학자들은 세기적인 대논쟁을 벌였다. 그때 아인슈타인은 자연은 아름다운 인과율에 따라 움직이지만 인간의 머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할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 '신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는 유명한 말을 남긴 바 있다. 그러나 그 후 양자 역학은 계속 발달하여 현대 물리학의 정통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이로써 신과학 운동의 관점에서 보면 뉴턴 이래 300년간 서구 문명의 기초가 되었던 결정론적 인과율에 바탕을 둔 기계론적 세계관은 존립할 기반을 상실하였다.

지금까지 과학은 기계론적 세계관에 입각해서 모든 존재를 기계와 같은 물질 구조로 ㉢ 보고, 환원적이고 분석적인 방법으로 기계의 최소 부품 간의 상호 인과 관계를 밝혀서 전체를 이해하는 데 주력하였다. 그러나 신과학 운동에서는 ㉣ 전체가 단순한 부분의 합계 이상이라고 믿고 부분과 전체 사이의 관계와 상호 작용을 중요시한다. 그리고 분석이나 환원적 접근법 대신에 전체를 파악하는 전일적(全一的)이고 종합적인 접근법을 사용하는 유기체적 세계관을 지향한다.

56. ㉠의 논리 전개 방식은?

- ① 자연법칙을 적용하고 있다.
- ② 인과 관계로 설명하고 있다.
- ③ 주어진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
- ④ 사례들로부터 일반화하고 있다.
- ⑤ 문제점에 대하여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57. ㉡이 의미하는 것으로 가장 적당한 것은?

- ① 신은 오류를 범하지 않는다.
- ② 신은 자연법칙에 관여하지 않는다.
- ③ 인과율에 따라 우주는 움직인다.
- ④ 입자는 불확정성의 원리를 따른다.
- ⑤ 자연에는 우연적 요소가 많다.

58. ㉢의 예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유전자는 4개의 염기가 이중 나선으로 연결된 것이다.
- ② 컴퓨터를 알려면 반도체를 알아야 한다.
- ③ 문장의 주요 성분은 주어와 서술어다.
- ④ 중금속, 농약, 세제 등으로 인해서 수질 오염이 일어난다.
- ⑤ 민족사는 세계사적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59. 윗글에서 현대 문명이 위기를 맞게 된 근본 원인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 ① 무분별한 자원 이용
- ② 과학 기술의 발달
- ③ 지구 환경 오염
- ④ 기계론적 세계관
- ⑤ 현대 물리학의 탄생

60. ㉢의 문맥적 의미와 일치하는 것은?

- ① 관찰하고 ② 간주하고 ③ 예상하고
- ④ 인지하고 ⑤ 수용하고

MEMO

MEMO

201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13~15	④	②		①
20~23	⑤	③	②	①
24~26	①		③	⑤
30~31	②			⑤
42~45	②	⑤	④	⑤
46~50	③	⑤	④	①
①				①
201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13~17	④	②	①	④
18~20	⑤		④	⑤
31~32	③			②
33~35	⑤		④	②
36~39	⑤	①	④	①
44~47	②	⑤	⑤	④
201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17~19	③		①	②
20~22	②		①	⑤
27~30	④	①		⑤
36~37	①			①
38~42	④	②	②	①
47~50	⑤	④	①	⑤
200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13~15	③		④	④
16~19	③	①	②	①
24~27	⑤	④	④	②
34~36	①		①	②
40~42	④		⑤	④
43~46	⑤	⑤	③	⑤
200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13~15	④		④	①
16~19	⑤	③	④	②
24~27	③	④	⑤	⑤
34~37	④	④	②	①
41~43	①		①	④
44~46	⑤		⑤	②
200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13~15	③		④	①
16~19	①	②	③	①
24~27	③	①	⑤	⑤
32~35	③	①	③	④
40~42	②		④	①
43~45	①		③	⑤
200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19~22	④	⑤	④	①
23~26	①	③	④	①
31~33	①		③	①
34~36	①		③	④
40~43	④	④	⑤	①
44~46	④		⑤	②

200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17~19	③		③	④
25~28	④	③	②	⑤
33~35	⑤		③	③
36~39	④	⑤	①	①
44~46	②		②	④
47~50	④	①	④	⑤
200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19~22	③	②	④	③
27~29	⑤		③	③
33~36	②	③	①	⑤
37~39	①		②	②
40~42	②		④	①
47~50	③	①	⑤	⑤
200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20~23	③	⑤	②	①
24~27	①	④	①	①
33~36	②	③	③	①
37~40	④	④	⑤	⑤
46~50	④	②	②	④
57~60	②	③	②	③
200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20~23	⑤	⑤	②	①
24~27	②	③	②	⑤
35~38	④	④	③	②
39~43	④	②	③	⑤
49~52	②	①	④	②
57~60	④	③	②	⑤
200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20~23	③	③	⑤	②
29~32	③	④	④	③
33~36	②	①	④	②
43~46	⑤	⑤	②	④
47~51	⑤	②	④	②
57~60	②	①	⑤	①
200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20~23	②	②	③	①
31~34	③	④	⑤	⑤
35~39	③	⑤	③	①
40~43	②	②	⑤	①
44~47	⑤	④	③	①
52~55	②	⑤	③	②
200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22~25	⑤	③	①	③
26~30	③	④	⑤	③
36~39	④	④	②	①
40~43	②	①	③	②
53~56	④	②	②	①
57~60	④	④	②	③

200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20~23	③	⑤	①	③
28~32	⑤	③	③	④
33~36	⑤	①	⑤	⑤
37~41	⑤	②	②	①
42~45	③	④	③	②
51~54	②	②	⑤	①
200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24~27	⑤	②	①	②
28~32	⑤	①	①	②
33~36	④	③	⑤	①
44~47	②	③	④	③
48~51	⑤	②	②	④
52~55	④	⑤	①	④
200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15~19	②	①	③	①
30~33	②	①	⑤	⑤
34~38	③	③	②	④
39~42	①	④	④	②
48~51	⑤	②	①	②
57~60	②	④	③	⑤
200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16~19	⑤	③	⑤	②
20~24	⑤	③	②	①
25~28	④	④	④	⑤
29~32	④	④	①	③
45~48	④	⑤	③	①
49~52	①	②	①	④
57~60	⑤	①	④	③
200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예비 평가				
34~37	①	④	③	①
38~42	③	①	④	①
43~46	③	③	②	⑤
47~51	②	②	⑤	④
52~55	④	④	⑤	①
56~60	②	②	⑤	③
200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20~24	④	②	⑤	⑤
34~38	③	④	⑤	①
39~42	⑤	⑤	①	②
43~47	②	③	③	②
48~51	⑤	③	④	③
200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19~23	②	④	②	④
33~37	③	③	⑤	③
48~51	②	①	①	⑤
52~55	③	①	③	①

200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18~22	②	②	④	①
28~32	②	⑤	④	③
33~37	②	④	②	①
48~51	⑤	⑤	④	③
56~60	②	④	③	②
200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18~22	②	④	②	⑤
23~27	④	②	②	④
37~41	⑤	①	③	⑤
42~46	⑤	①	④	①
57~60	⑤	②	④	③
200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13~17	①	②	④	②
23~27	②	①	⑤	④
33~36	⑤	③	⑤	③
37~41	①	②	④	④
47~51	②	③	③	①
57~60	②	④	④	②
200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18~22	②	④	⑤	③
23~26	⑤	③	⑤	①
27~31	③	①	①	①
47~51	⑤	②	②	④
56~60	④	④	③	③
200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18~22	②	⑤	④	②
23~27	③	①	⑤	③
28~31	⑤	④	⑤	②
37~41	①	③	①	②
52~55	②	②	④	④
200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13~18	②	①	⑤	④
19~24	④	⑤	④	②
25~30	②	①	④	①
40~44	①	③	③	①
45~49	②	③	⑤	①
61~65	⑤	①	②	③
199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18~23	③	②	⑤	①
24~28	②	④	③	⑤
29~33	⑤	③	①	④
34~39	①	⑤	③	②
56~60	⑤	②	④	⑤
61~65	⑤	④	②	①

199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13~18	②	①	①	③	②	②
28~34	④	②	①	⑤	③	③
39~44	⑤	④	⑤	②	①	③
50~55	⑤	④	①	⑤	②	③
56~61	①	①	④	②	③	③
199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24~29	④	①	③	③	⑤	①
30~34	⑤	①	②	①	④	
40~45	⑤	④	④	③	③	⑤
46~50	③	④	③	①	④	
56~60	②	③	④	⑤	④	
61~65	⑤	③	④	②	⑤	
199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13~17	④	④	⑤	④	⑤	
22~26	⑤	⑤	②	①	②	
27~31	⑤	②	⑤	②	①	
37~41	④	⑤	②	②	⑤	
42~46	③	⑤	①	④	③	
56~60	⑤	④	⑤	③	①	
199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18~20	④		②		②	
21~24	④	④		②	①	
39~43	⑤	①	④	①	①	
44~49	②	⑤	⑤	②	③	②
50~55	④	⑤	④	②	④	③
56~60	④	⑤	④	①	②	
1994학년도 제2차 대학수학능력시험						
14~16	⑤		④		⑤	
22~25	⑤	①		②	⑤	
26~28	⑤		③		①	
33~36	③	③		④	③	
43~45	⑤		④		④	
46~48	⑤		②		③	
49~51	③		①		①	
52~54	④		②		①	
55~57	⑤		⑤		①	
58~60	③		②		①	
1994학년도 제1차 대학수학능력시험						
14~16	⑤		③		②	
27~30	①		③		②	⑤
31~34	④		①		⑤	⑤
35~37	②			③		②
38~41	④		④		②	④
42~44	②			①		④
45~46	③					④
47~50	⑤		①		⑤	①
56~60	②	③	⑤	④	②	
총 862문제	☆ 수고하셨습니다 ☆					

※ 시험이 시작되기 전까지 표지를 넘기지 마시오.